

2011 문화예술 대표지표 분석 연구

2011. 12

문화체육관광부

제 출 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2011 문화예술 대표지표 분석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1년 12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 직무대행 정광열

이용자를 위하여

1. 본 보고서의 각종 지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타 정부부처, 그리고 기타 국외 주요기관에서 생산한 통계를 이용하여 작성한 것으로 각 통계표마다 그 출처를 주기하였음
2. 모든 자료수치는 세목과 합계가 각각 반올림되었으므로 세목의 합이 합계와 일치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
3. 통계표 및 도표의 내용 중에서 기존 자료의 수치와 일치되지 않는 것은 사후적 보정을 통하여 정정한 것임
4. 통계표 중에서 사용된 부호와 뜻은 다음과 같음
 - : 해당숫자 없음
 - ... : 해당숫자 미상
5. 본 보고서에서 사용한 분류체계 및 지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문화예술통계 중장기 발전 실행방안 연구」(문화체육관광부, 2011)를 참고.
 - 동 보고서는 「문화예술통계 중장기 발전 실행방안 연구」에서 제시된 문화예술 대표지표에 대한 논의들을 시범적으로 적용한 시론적 연구에 해당함
 - 다만 기존의 통계자료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문화예술통계 중장기 발전 실행방안 연구」에서 제시된 분류체계와 지표들을 적용하였음

<제목 차례>

이용자를 위하여	3
제1장 2011 문화예술 대표지표 분석 개요	1
제1절 2011 문화예술 대표지표 분석 개요	1
1. 조사목적 및 내용	1
2. 연구 방법	1
제2절 조사항목 : 문화예술 대표지표	3
1. 문화예술분야 지표체계와 대표지표	3
제3절 분류체계	5
1. 문화예술영역	5
2. 문화예술재정	5
3. 문화예술인력	8
4. 문화예술사업체	10
5. 정규 문화예술교육기관(문화예술인력 대상)	12
6. 문화시설	14
7. 문화상품 및 서비스 지출 분류	14
8. 문화예술(수요자)교육·향유·참여에 대한 분류	15
제4절 활용자료	17
제2장 문화예술분야 투입지표	20
제1절 문화예술재정	21
1.1.1 공공부문 문화예술재정	21
1.1.1.1 중앙정부 문화예술재정	21
1.1.1.2 지방정부 문화예술재정	23
1.1.2 민간부문 문화예술재정	25
제2절 문화예술인력	27
1.2. 문화예술인력	27
제3절 문화예술 사업체	31
1.3. 문화예술 사업체	31

제3장 문화예술분야 산출 및 성과지표 40

제1절 문화예술교육 41

2.1 문화예술교육기관	41
2.1.1 정규교육기관의 수	41
2.1.2 비정규교육기관의 수	45
2.2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46
2.2.1 문화예술교육과정 재적학생 수	46
2.2.2.1. 해외 주요국과의 비교 : 문화예술교육참여자	51
2.2.2 문화예술교육과정 졸업생 수	53
2.2.3 문화예술교육 참여율	56
2.2.3.1 정규교육기관 문화예술교육 참여율	56
2.2.3.2 비정규교육기관 문화예술교육 참여율	58
2.3 문화예술교육 만족도	59
2.3.1 정규교육기관 문화예술교육 만족도	59
2.3.2 비정규교육기관 문화예술교육 만족도	62
2.4 신규 문화예술인력 고용지표	63
2.4.1 신규 문화예술인력 고용률	63
2.4.2 신규 문화예술인력 실업률	67

제2절 문화예술인력 71

3.1 문화예술인력 경제활동상태	71
3.1.1 문화예술 취업자	72
3.1.1.1. 해외 주요국과의 비교 : 문화예술 취업자	77
3.1.2 문화예술 실업자	86
3.2 문화예술분야 종사자 수	87
3.2.1. 해외 주요국과의 비교 : 문화예술사업체 종사자	91
3.3 문화예술인력 일자리 지표	93
3.3.1 문화예술 취업자 고용상 지위	93
3.3.1.1. 해외 주요국과의 비교 : 문화예술취업자 고용상 지위	95
3.3.2 문화예술분야 종사자 고용상 지위	96
3.3.3. 문화예술 취업자 소득수준	99
3.3.3.1. 해외 주요국과의 비교 : 문화예술취업자 소득수준	101
3.3.5 문화예술 창작여건 만족도	103

제3절 문화예술의 창작 · 제작 · 교류 106

4.1. 문화예술상품 생산량	106
4.1.1 전통예술(국악)	106
4.1.2 음악	110
4.1.3 연극	113
4.1.4 무용	117
4.1.5 시각예술	120
4.1.6 문학	125
4.1.7. 영화	128
4.1.8 방송 및 대중예술	130
4.2. 지역축제의 수	133
4.3. 문화예술 국제교류 건수	136
4.4.2 공연예술상품 티켓판매액	146
4.4.3. 문화예술사업체 비용	148
4.5 문화예술상품 수출액과 수입액	153
4.6. 해외문화원 방문자 수	156
4.7. 한국문화예술 인지도 및 선호도	159
4.8. UNESCO 문화유산 등재건수	161

제4절 문화예술의 매개 및 유통 163

5.1. 문화시설의 수	163
5.1.1. 유형별 문화시설의 수	163
5.1.2. 지역별 문화시설의 수	167
5.1.2.1 전통문화 전수시설 및 사적지	167
5.1.2.2 공연시설(등록 공연장)	168
5.1.2.3 전시시설(박물관 및 미술관)	171
5.1.2.4 도서관(공공도서관)	174
5.1.2.5 영화시설(극장)	176
5.1.2.6. 지역문화 복지시설	178
5.1.2.7 방송시설(방송국)	179
5.1.2.8 복합문화시설(문예회관)	181
5.1.3 해외 주요국과의 비교 : 문화시설의 수	182
5.1.3.1 공공도서관	182
5.1.3.2 박물관·미술관	186
5.1.3.3 영화관	188
5.1.3.4 문예회관	190
5.2. 문화시설의 기능별 규모	192
5.2.1 도서관	192

5.2.1.1 해외 주요국과의 비교 : 도서관 자료 수	194
5.2.2. 박물관	196
5.2.3. 미술관	202
5.2.4. 공연장	209
5.2.5. 문예회관	211
5.2.5.1 해외 주요국과의 비교 : 문예회관의 기능별 규모	213
5.2.6. 지방문화원	214
5.3. 문화시설 인력 규모	216
5.3.1 도서관	216
5.3.1.1 해외 주요국과의 비교 : 공공도서관 인력 규모	218
5.3.2 박물관	220
5.3.3 미술관 인력규모	227
5.3.3.1 해외 주요국과의 비교 : 박물관 및 미술관 인력규모	234
5.3.4 문예회관 인력규모	235
5.3.4.1. 해외 주요국과의 비교 : 문예회관의 인력 규모	238
5.3.5 지방문화원 인력규모	238
5.4. 문화시설 가동률	240
5.4.1. 문예회관 공연장 가동률	240
5.5. 문화시설 프로그램의 수	242
5.5.1. 문예회관 공연 및 기타행사/공연 프로그램 수	242
5.6. 문화시설 이용자 수	247
5.6.1. 도서관	247
5.6.1.1. 해외 주요국과의 비교 : 공공도서관 이용자 수	249
5.6.2. 박물관	251
5.6.3. 미술관	253
5.6.3.1. 해외 주요국과의 비교 : 박물관 · 미술관 이용자 수	256
5.6.4. 문예회관	257
5.6.5. 지방문화원	260
5.6.6. 이용자 종합	262
5.7. 문화시설 서비스 만족도	266
제5절 문화예술의 소비 및 참여	269
6.1. 문화예술 활동시간	269
6.2. 문화예술상품 · 서비스 지출액	270
6.2.1. 문화예술상품 · 서비스 지출액	270
6.2.2. 최다지출품목	272
6.2.3. 해외 주요국과의 비교 : 문화상품 및 서비스 지출액	274

6.3. 문화예술 수요자 교육 참여자	276
6.3.1. 문화예술 수요자 교육기관(학교 교육 외)	276
6.3.2. 문화예술 수요자 교육 경험률(학교 교육 외)	277
6.4. 문화예술복지 수혜자 수	279
6.5. 문화예술 관람·방문자 수	283
6.5.1. 문화예술 관람객 수	283
6.5.2. 역사문화유적지·지역축제 방문자 수	295
6.5.3. 해외 주요국과의 비교 : 문화예술관람·방문	296
6.6. 문화예술활동 참여자 수	303
6.6.1. 문화예술 창작·발표 참여자 수	303
6.6.1.1. 해외 주요국과의 비교 : 문화예술활동 참여(창작·발표활동)	306
6.6.2. 문화예술 자원봉사 및 동호회 활동 참여자 수	308
6.6.3. 사이버 문화활동 경험자 수	312
6.7. 문화예술상품 및 서비스 물가지수	313
6.7.1. 품목별 물가지수	313
6.7.2. 기본분류별 물가지수	314
6.7.3. 해외 주요국과의 비교 : 문화예술상품 및 서비스 물가지수	315
6.8. 문화예술 수요자 교육 참여자 만족도	317
6.9. 문화예술복지 수혜자 만족도	320
6.10. 문화예술 관람객 만족도	321
6.10.1. 문화예술 관람객 만족도	321
6.10.2. 역사문화유적지·지역축제 방문자 만족도	323
6.11. 문화예술활동 참여자 만족도	325
6.11.1. 문화예술 창작·발표 재참여 의향	325
6.11.2. 문화예술 동호회활동 만족도	327
6.12. 삶의 만족도	329
6.12.1. 행복 수준	329
6.12.2. 생활여건 변화에 대한 인식	334
6.12.3. 해외 주요국과의 비교 : 삶의 만족도	336
 제4장 연구의 요약 및 한계	 338
 제1절 2011 문화예술 대표지표 분석결과 요약	 339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346
 [참고문헌]	 349
[부록]	354



2011 문화예술 대표지표 분석 개요

제1절 2011 문화예술 대표지표 분석 개요

제2절 조사항목 : 2011 문화예술 대표지표

제3절 분류체계

제4절 활용자료

제1절 2011 문화예술 대표지표 분석 개요

1. 조사목적 및 내용

□ 목적

- 현재 문화예술분야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승인·비승인통계를 비롯하여 많은 통계자료들이 생산되고 있지만, 이들은 그때그때의 필요에 따라 산발적·분산적으로 작성되어 문화예술분야의 실태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적절한 정책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
- 이에 본 연구는 문화예술분야의 현황과 관련 주요 정책의 투입(input)-산출(output)-성과(outcome)를 파악할 수 있는 문화예술분야 대표지표(key indicator)들을 중심으로 기존 통계자료를 수집·가공하고 시계열 자료의 비교와 해외 주요지표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향후 문화예술 정책의 수립·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 특히 문화예술의 창작·제작·교류, 문화예술의 매개·유통, 문화예술의 소비·참여 등 문화예술의 순환주기(culture cycle)에 따라 대표지표를 제시함으로써, 문화예술인력양성, 문화예술의 창작·제작활동 지원, 문화시설의 건립 및 운영, 문화향유 등과 같은 관련된 주요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진단하여 향후 문화예술분야와 관련된 정책수요를 사전에 예측하여 효율적 정책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내용

- 「문화예술통계 중장기 발전 실행방안 연구」(문화체육관광부, 2011)에서 제시된 문화예술분야 지표체계와 대표지표를 중심으로 기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통계자료 및 타 부처 소관 통계자료들을 수집·정리
- 기존 통계자료의 특성 및 자료가용성을 고려하여 3~5개년에 걸친 시계열별 자료로 가공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대표지표의 변화양상의 파악
- 문화예술영역, 지역, 기타 인구통계학적 변수 등 주요 변인에 따라 교차분석표를 작성하여 문화예술분야 주요지표의 분포와 구조, 특성을 파악
- 해외 주요국(영국, 미국, 일본, 캐나다, 기타 EU 국가 등)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문화예술의 상대적 위상과 취약점을 진단

2. 연구 방법

- 문화예술분야와 관련된 기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통계자료 및 DB와 타 부서 소관 통계자료 및 DB 에 대한 문헌검토와 대표지표 자료 수집
 -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의 경우 문화예술관련 직업군에 대한 자료를 통해 모수추정 함
 -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자료의 경우 세부항목별로 전년대비 10배 이상 차이가 발생한 경우 및 이상값(outlier)은 전화로 입력담당자와 통화하여 입력수치를 확인·수정
 - 『문화향수 실태조사』 자료의 경우 주요 변수에 대해 모수추정을 실시함
- 수집된 자료들로 횡단면 분석, 종단적 분석, 기술통계 분석, 교차분석 실시하고 주요 지표를 중심으로 해외 주요국 지표와 비교
- 필요한 경우 t검정(t-test), 다원분산분석(ANOVA), 회귀분석, 모수 추정 등을 실시

[표 1] 본 연구에서 사용한 기존 통계자료

정책목표	문화순환주기	국내 통계자료	국외 통계자료
문화예술의 창조적역량 강화	창작·제작·보존·교류 (교육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정부, 지방정부 예산자료 ◦ 한국기업메세나협의회 연차보고서 자료 ◦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한국고용정보원) ◦ 지역별고용조사(통계청) ◦ 전국사업체조사(통계청) ◦ 교육통계서비스(교육과학기술부) 	
문화적 환경 (인프라)조성	매개·유통 (교육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인 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 공연예술 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 문예연감(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인터파크 티켓 자료 ◦ 콘텐츠산업통계(문화체육관광부) ◦ 문화향수 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 국민여가활동조사(문화체육관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rtists and Arts Workers in the United States(NEA) ◦ Cultural Statistics(eurostat)
문화적 삶의 질 제고	소비·참여 (교육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문화체육관광부) ◦ 전국도서관 통계(문화체육관광부) ◦ 미술시장 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 문예회관 운영현황 조사(문화체육관광부) ◦ 공연예술국제교류활동현황(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 분야 소비자물가지수(통계청) ◦ 등록공연장 현황(문화체육관광부) ◦ 문화관광축제 현황(문화체육관광부) ◦ 기타 통계자료 등(한국의 사회지표, 행정안전부 도시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urvey or Public Participation in the Arts(NEA) ◦ OECD life satisfaction 자료

제2절 조사항목 : 문화예술 대표지표

1. 문화예술분야 지표체계와 대표지표

- 「문화예술통계 중장기 발전 실행방안 연구」(문화체육관광부, 2011)는 문화예술 주요 정책목표(policy goal)와 문화순환주기(culture cycle)를 통합하여 한 축을 구성하고, 문화예술정책의 프로그램의 논리(program-logic)를 다른 한축으로 하여 문화예술 지표체계(Framework of Cultural indicators)를 재구성함
- 동 문화예술 지표체계와 대표지표는 UNESCO, EU 등 주요 국제기구의 문화지표체계와 국내 선행연구에서의 논의를 기반으로 15회에 걸친 국내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작성되었음
- 지표의 적실성(relevance), 정책적 중요성(grounded in and/or linked to policy practice), 지역간·시계열적 비교가능성(comparability), 측정가능성(measurability)이 대표지표 선정의 주요 기준이었음

[표 2] 문화예술분야 지표체계와 선정된 대표지표

정책 목표	문화 순환 주기	프로그램 논리 (program-logic)		
		투입(input)	산출(outputs)	성과(performance) 및 영향(impact)
문화 예술의 창조적 역량 강화	창작· 제작· 보존· 교류 (교육 포함)	1. 문화예술재정 규모	4. 문화예술교육 참여자의 수	10. 문화예술교육 만족도 11. 신규 문화예술인력 고용지표
		2. 문화예술인력의 수 - 예술(창작· 재현· 기획) - 기술 - 경영· 관리 - 교육 - 매체활동 - 행정/정책	5. 문화예술인력 경제활동상태 6. 문화예술분야 종사자의 수	12. 문화예술인력 일자리 지표
		3. 문화예술분야 사업체의 수 - 문화유산· 자연유산 - 공연예술· 축제 - 시각예술· 공예 - 도서· 출판 - 시청각· 상호작용미디어 - 기타(교육, 행정 등)	7. 문화예술상품 생산량 8. 문화예술분야 사업체 경영지표 9. 문화예술 국제교류 건수	13. 문화예술상품 수출액· 수입액 14. 해외문화원 방문자 수 15. 한국문화예술인지도· 선호도 16. 문화유산 등재 건수
문화적 환경 (인프라) 조성	매개· 유통 (교육 포함)		17. 문화시설 가동률 18. 문화시설 프로그램 수 19. 문화시설 이용자 수	20. 문화시설 서비스만족도
문화적 삶의 질 제고	소비· 참여 (교육 포함)	※ 문화시설의 수 ※ 문화시설 기능별규	21. 문화예술 활동시간 22. 문화예술상품· 서비스지출액	28. 문화예술상품· 서비스 물가지수
			23.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수	29. 문화예술(수요자)교육 참여자만족도

		모		30 .문화예술(수요자)교육 효과
			24. 문화예술복지 수혜자 수	31. 문화예술복지 수혜자 만족도
			25 문화예술 관람객 수	32 문화예술 관람객 만족도
			26. 문화예술활동 참여자 수	33. 문화예술활동 참여자 만족도
			27. 사이버문화예술활동 경험자 수	
				34. 삶의 만족도

제3절 분류체계

1. 문화예술영역

- 본 연구에서는 UNESCO 2009 FCS에서 제시된 문화영역(cultural domain)의 분류 및 해외 주요국의 분류기준, 그리고 국내 법 규정, 주요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문화예술영역을 정의하였음

[표 3] 문화예술영역 분류체계

FCS 문화영역	협의의 문화예술 (대분류)	중분류	포함되는 내용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전통예술	1. 전통예술	전통무용(민속무용, 궁중무용) 전통음악(풍류음악, 민속악, 불교음악 등) 전통연극(마당극 등)
공연예술 및 축제	.공연예술	2. 음악	관현악, 실내악, 합창, 오페라, 재즈, 대중가요 콘서트, 기타 양악 등
		3. 연극	연극, 뮤지컬, 아동극, 마임, 인형극, 너버벌 퍼포먼스 등
		4. 무용	고전발레, 현대무용, 비보이댄스 등
		5. 기타 공연예술	기타 혼합장르
시각예술 및 공예	시각예술 및 공예	6. 미술	회화(한국화, 서양화 등 평면작업) 조각(조소, 테라코타, 조각 & 설치) 설치 & 영상(설치, 영상전시, 비디오아트, 미디어전시) 서예 판화
		7. 사진	사진
		8. 공예	도자, 금속, 섬유, 목, 유리, 옷칠, 한지공예 등
		9. 만화	만화
		10. 디자인	그래픽, 의상, 캘리그래피
		11. 건축	건축설계 (건축시공과 공학 제외)
도시 및 출판	문학	12. 기타 시각예술	기타 혼합장르
		13. 문학	소설, 시, 희곡, 평론, 번역 등
		14. 영화	영화
시청각 및 상호작용적 미디어	대중예술	15. 연예	TV & 라디오 방송, 인터넷 방송

2. 문화예술재정

- 문화예술재정은 크게 그 목적 및 성격에 따라 문화예술의 창작·제작·보존·교류·

(공급자)교육과 관련된 재정, 문화예술의 매개·유통 관련 재정(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 지원 관련 재정), 국민의 문화예술 소비 및 참여를 지원하는 문화예술 향유지원 재정으로 구분됨

- 또한 재정의 원천에 따라 공공재정(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과 민간재정으로 구분할 수 있음

[표 4] 문화예술재정 분류체계

	공공		민간
	중앙정부	지방정부	
문화예술의 창작·제작·보존·교류·교육 재정			
문화예술의 매개·유통·시설 재정			
문화예술의 소비·참여 재정			

- 중앙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을 구성하는 세부사업을 통해 문화예술재정을 분류하면 다음의 표와 같음

- 문화예술영역에 포함되지 않는 관광, 체육, 종교 부문은 제외되었음(종교문화지원(1100), 콘텐츠산업육성(1200),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1300), 문화미디어산업육성 및지원(1400), 관광진흥기반확충, 관광산업육성(4200), 외래관광객유치(4300), 관광산업기금융자(4400), 관광레저도시육성(4500),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운영(4600), 생활체육육성(5100), 전문체육육성(5200), 스포츠산업육성 및 국제교류(5300), 장애인체육육성(5500))
- 협의의 문화예술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거나 세 개의 범주 중 어느 하나에 포함시키는 것이 곤란한 경우는 기타로 묶음(국어·민족문화의 진흥지원, 문화·관광행정지원(7100), 국가브랜드위원회 운영(1800), 국정홍보기획(1900))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함함

[표 5] 중앙정부 문화예술 재정 분류

	프로그램 및 세부사업 구분
문화예술의 창작, 제작, 보존, 교류, 교육 지원	[1500] 창의적 문화정책 구현 문화예술분야 대학생 일거리 창출 지원, 전통문화자원 발굴 활용, 계기별 수교 기념 행사, 유네스코 협력, 문화동반자사업, 해외권역별 문화예술지식자원 통합 시스템 구축, 글로벌 한류예술가 해외파견 사업, 세계문화의집 조성, 문화예술교육 전략적 교류
	[1600] 예술의 진흥 및 생활화, 산업화 국립오페라단 운영, 국립발레단 운영, 국립합창단 운영, 서울예술단 운영, 공예디자인진흥원 지원, 예술의전당 상주교향악단 운영, 국립현대무용단 운영, (재)국립극단운영, 국립예술자료원 운영, 국립예술단 공연연습장 관리,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운영, 예술경영지원센터 운영 지원, 공연예술 활성화(보조), 공연예술산업 육성, 기업의 문화예술지원 활성화, 국가브랜드 공연개발,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육성, 문화예술기관 일자리 창출지원, 한국전통문화영상화, 공연단체간 협력촉진 사업, 공연예술 해외진출, 예술창작활동 지원, 미술품유통활성화 및 생활화 지원, 전통예술원형복원 및 창작활동 지원, 전통예술의 대중화, 산업화 및

	<p>세계화, 대한민국 건축문화 진흥,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조성 , 남한강 예술특구 조성, 대한민국예술인센터 건립 지원, 예술창작및발표공간지원 , 차세대예술인력 집중육성, 지역문화예술지원</p> <p>[2600]예술원지원</p> <p>[2700]한국예술종합학교운영</p> <p>[3100]해외문화홍보원 운영</p> <p>[3700]국립국악중고운영</p> <p>[3800]국립전통예술중고 운영</p>
문화예술의 매개·유통 지원 - 문화시설 재정	<p>[1500] 창의적 문화정책 구현</p> <p>박물관 진흥지원, 자연사박물관 건립 추진, 한글박물관 건립, 문화소외지역 유희시설 문화공간화, 방폐장유치지역 지원, 대한민국 지역문화박람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지원, 문화시설확충및운영,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 문화시설확충 및 운영(제주),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제주)</p> <p>[1600] 예술의 진흥 및 생활화, 산업화</p> <p>예술의전당 지원, 명동·정동극장 지원, 대학로예술극장,아르코극장 운영지원, 예술의전당 복구, 구서울역사 문화공간 운영지원, 공연장 공연유통 활성화 및 기반조성, 국립공연장 재배치 및 확충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연구, 미술관 운영 지원, 온라인 가상미술관 구축, 국악방송 활성화 지원, 공공디자인 개발 및 보급, 문화로 행복한 학교만들기,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지정 및 조성, 지역근대산업유산 예술창작벨트화, 부산 아시아건축문화역사관 건립지원, 통영국제음악당 건립, 국립예술단공연연습장건립, 예술의전당 리모델링, 미술관운영, 예술인력개발원운영, 대학로 복합문화공간 조성, 문화예술이미지제고</p> <p>[1700] 대한민국의역사박물관건립</p> <p>[2000]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p> <p>[2100]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운영</p> <p>[2800] 국립박물관운영</p> <p>[3000] 국립중앙도서관운영</p> <p>[3200] 국립중앙극장운영</p> <p>[3300] 국립현대미술관운영</p> <p>[3400] 국립국악원 운영</p> <p>[3500] 국립민속박물관운영</p> <p>[3600] 한국정책방송원운영</p>
문화예술 향유지원 재정 - 교육, 소비, 참여	<p>[1500] 창의적 문화정책 구현</p> <p>함께누리 지원사업, 문화정책개발, 문화이모작, 장애인문화예술활동지원, 국민문화향유권 확대, 문화바우처, 지역문화 진흥,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지방문화원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 문화예술교육기반조성, 다문화사회 문화환경 조성, 2010유네스코 예술교육 세계대회 개최, 학교의 문화예술 교육활성화(보조), 사회문화예술교육활성화(보조), 유아대상 문화예술교육활성화, 문화예술교육 선도프로그램 운영, 시민 문화예술교육</p> <p>[1600] 예술의 진흥 및 생활화, 산업화</p> <p>방방곡곡 문화예술활동 지원, 소외계층문화역량강화</p>
기타	<p>[1500] 창의적 문화정책 구현</p> <p>민족문화 계승기반 구축, 국학진흥 정책기반 조성, 한글의 가치 확산,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 국어진흥기반 조성, 공공 언어지원 시스템 개발·운영, 국어지식 두루누리화 사업</p> <p>[2900]국립국어원운영</p> <p>[7100]문화·관광행정지원</p> <p>[7200]기금운영비</p> <p>[9700]여유자금운용</p> <p>[1800]국가브랜드위원회 운영</p> <p>[1900]국정홍보기획</p>

주1): []은 프로그램 분류번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내역사업)

주2)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분류함. 세부사업을 구성하는 내역사업의 성격이 이질적인 경우 내역사업의 전반적인 성격을 감안하여 세부사업의 유형을 결정함. 또한 프로그램 전체가 동질적 사업성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 프로그램명으로 기술함.

주3) 종교, 문화산업, 관광, 체육 부문 예산과 기금운영비와 여유자금운용 프로그램 예산은 제외함

주4) 문화예술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지는 않거나 3개의 범주 중 어느 하나에 포함시키기 곤란한 경우 기타로 분류함

○ 지방정부 문화재정은 『2010 지역문화통계』에서 사용된 분류기준을 활용하였음

[표 6] 지방정부 문화예술 재정 분류

구분		세분류
문화예술 창작·교류재정	문화예술 창작지원	예술인 창작 지원, 공립예술단 운영 지원, 기타
	문화예술 교류지원	
문화시설 재정	문화시설 건립	공연시설 건립, 전시시설 건립, 도서관시설 건립, 지역문화복지시설 건립, 문화보급 및 전수시설 건립, 기타, 공연시설 운영, 전시시설 운영, 도서관시설 운영, 지역문화 복지시설 운영, 문화보급 및 전수시설 운영, 기타
	문화시설 운영	
문화향유 재정	문화예술향유지원	문화예술향유 활동 지원, 문화예술교육 지원, 문화축제 및 행사 지원, 기타
기타	기타	위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업

자료 : 2010 지역문화통계(문화체육관광부)

3. 문화예술인력

○ 본 연구에서 문화예술인력은 문화예술상품(서비스)의 생산 및 유통 등 문화예술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인력을 뜻함

- 구체적으로 문화예술인력은 ‘문화예술과정에서 일하고 있거나, 일한 적이 있거나, 또는 일하고자 하는 자 중 자신을 문화예술인’이라 인식하는 자로 정의할 수 있음
- 이러한 개념 정의는 문화예술인력이 갖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특정단체에 소속 여부나 고용 상태, 수입 목적 여부와는 관계없이 문화예술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잠재력과 주관적 인식만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임¹⁾
- 한편 문화예술과정이란 문화예술작품(상품)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다양한 문화예술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활동으로 여기에는 예술적 활동(창작, 재현, 기획 등), 기술적 활동, 경영관리 활동(공연 및 전시지원, 문화시설 운영, 문화예술단체 운영, 홍보, 유통, 관련 투자, 저작권 관련 등), 문화예술관련 교육활동, 문화예술관련 매체활동, 문화예술관련 행정 등이 포함됨

1) UNESCO 역시 문화예술인을 ‘특정단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고용된 상태가 아니더라도 창조적인 일, 예술작품의 재창조, 예술적인 창조작업이 삶에 필수적인, 혹은 문화산업에 이바지하면서, 자기 스스로 예술가라고 인식하는 사람들’로 정의하고 있음

[표 7] 문화예술인력의 범위

				문화예술과정						비문화예술 과정
				창작/ 실연/ 기획	기술	경영/ 관리	교육	매체 활동	행정/ 정책	
문화 예술 분야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전통 예술	전통예술	예) 오케스트라에서 활동하는 음악가						
	공연예술 및 축제	공연 예술	음악							
			연극							
			무용							
	시각예술 및 공예	시각 예술 및 공예	미술							
			사진							
			공예							
			만화							
			디자인							
			건축							
기타 시각예술										
도서 및 출판	문학	문학								
시청각 · 상호작용적 미디어	대중 예술	영화								
		연예								
비문화예술분야				예) 호텔에서 일하는 하프연주가						

주) 문화예술인력은 음영으로 처리된 부분을 의미함

- 한편 해외 주요국이나 국내의 대규모 통계조사에서는 문화예술인력을 국제표준분류체계를 활용하여 파악하고 있음
- 해외주요국 및 국내 선행연구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를 활용하여 문화예술인력의 범위를 제시하면 다음의 {표 8}과 같음

[표 8] 한국표준직업분류를 활용한 문화예술인력의 범위

		한국표준직업분류		고용직업분류 코드
창작 · 실연	문학	2811	작가 및 관련 전문가	0811
	공연예술	2844	국악 및 전통예능인	0844
		2845	지휘자, 작곡가 및 연주자	0845
		2846	가수 및 성악가	0846
		2847	무용가 및 안무가	0847
	시각예술	841	화가 및 조각가	0841
		2842	사진작가 및 사진사	0842
		2843	만화가 및 만화영화작가	0843
		2851	제품디자이너	0851
		2852	패션디자이너	0852
		2853	실내장식디자이너	0853
		2854	시각디자이너	0854

		2855	웹 및 멀티미디어 디자이너	0855
		2396	캐드원	0856
		311	건축가 및 건축공학기술자	1411
		2312	토목공학 기술자	1412
		2313	조경기술자	1413
		7911	공예인	2271
		7912	귀금속 및 보석세공원	2272
	영화/ 연예/ 기타	2831	감독 및 기술감독	0861
		2832	배우 및 모델	0862
		2833	아나운서 및 리포터	0863
		2814	기자 및 논설위원	0830
		2899	마술사 및 기타 문화예술관련 종사자	0882
		2891	연예인 및 스포츠매니저	0881
기획 / 경영 · 관리		2821	큐레이터 및 문화재 보존원	0821
		2822	사서 및 기록물 관리사	0822
		2815	출판물 전문가	0814
		1340	문화, 예술, 디자인 및 영상관련 관리자	0140
		2731	상품기획전문가	0232
		2733	광고 및 홍보전문가	0231
기술		2834	촬영기사	0871
		2835	음향 및 녹음기사	0872
		2836	영상, 녹화 및 편집기사	0873
		2837	조명기사 및 영상기사	0874
		2839	기타 연극, 영화 및 영상관련 종사자	0879
		2240	통신 및 방송송출장비기사	2061
		7801	영상 및 관련 장비 설치 및 수리원	2062
		8922	사진인화 및 현상기 조작원	2242
교육		2544	예능강사	0484
기타		7303	악기제조수리 및 조율사	2273
		2812	번역가	0812
		2813	통역가	0813
		4224	메이크업아티스트 및 분장사	1214
		3922	안내, 접수사무원 및 전화교환원	0281

4. 문화예술사업체

- 문화예술상품(서비스) 생산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문화예술사업체의 범위를 한국표준 산업분류(KSIC: 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를 활용하여 규정하면 다음의 [표 9]와 같음
 - 광의로 볼 때 문화예술사업체의 범위는 문화콘텐츠산업과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영국의 경우 제조업의 상당부분을 창조산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본 연구는 협의의 문화예술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업체의 수와 현황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제조업 및 도소매업 일부는 제외했으며, 문화예술과 보다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체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임

[표 9] 문화예술사업체 분류체계

		한국표준산업분류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R90211	도서관 및 기록보존소 운영업
	R90222	사적지 관리 운영업
	R90290	기타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R90221	박물관 운영업
	R90231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공연예술 및 축제	R90121	연극단체
	R90122	무용 및 음악단체
	R90123	기타 공연단체
	R90131	공연예술가
	R90191	공연기획업
	R90192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R90199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R90110	공연시설 운영업
시각예술 및 공예	R90132	비공연예술가
	C33110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
	M73301	인물사진 및 행사용 비디오 촬영업
	M73302	상업용 사진 촬영업
	M73303	사진 처리업
	M73201	인테리어 디자인업
	M73203	시각 디자인업
	M73209	기타 전문 디자인업
	M73202	제품 디자인업
	M72111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M72112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도서 및 출판	J58111	교과서 및 학습서적 출판업
	J58112	만화출판업
	J58119	기타 서적 출판업
	J58121	신문 발행업
	J58122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J58123	정기 광고간행물 발행업
	J58190	기타 인쇄물 출판업
시청각 및 상호작용적 미디어	J59111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J59112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J59111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J59112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J5912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J59114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J59113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J5912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M73901	매니저업
	J5920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J59202	녹음시설 운영업
	J60100	라디오 방송업
	J60210	지상파 방송업
	J60221	프로그램 공급업
	J60222	유선 방송업
	J60229	위성 및 기타 방송업

	J59142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J5913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J59141	영화 및 비디오물 상영업
	J59141	영화관 운영업
	J6312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게임	C33402	영상게임기 제조업
	J58211	온라인·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8219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R91221	전자게임장 운영업
	R91222	컴퓨터게임방 운영업
기타	O84212	문화 및 관광행정
	P85620	예술학원
	C33201	피아노 제조업
	C33202	현악기 제조업
	C33203	전자악기 제조업
	C33204	국악기 제조업
	C33205	기타악기 제조업
	G47593	악기소매업
	G46462	악기도매업
	G46493	사진장비 및 광학용품 도매업

주1) 음영 처리된 부분은 주요 문화예술 관련 산업을 뜻함

- 한편 ‘문화예술분야 종사자’는 문화예술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인력, 즉 문화예술과정 뿐 아니라 이를 지원하는 모든 일(비문화예술과정)에 종사하는 인력을 뜻함
- 구체적으로 문화예술분야 종사자는 ‘문화예술산업과 관련된 사업체’에 고용된 모든 종사자로 파악할 수 있음

[표 10] 문화예술분야 종사자의 범위

		문화예술과정	비문화예술과정
문화 예술 분야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예) 오케스트라에서 활동하는 음악가	예) 극장에서 일하는 회계전문가
	공연예술 및 축제		
	시각예술 및 공예		
	도서 및 출판		
	시청각 · 상호작용적 미디어		
비문화예술분야			

5. 정규 문화예술교육기관(문화예술인력 대상)

- 문화예술인력 양성을 위한 정규 문화예술 교육기관은 『교육통계서비스 대학통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분류 기준에 따라 대학과 대학원으로 나눔

- 대학은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그리고 기타(산업대학, 방송통신대학, 교육대학, 각종 일반대학)으로 구성됨
- 대학원은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으로 구성됨
- 연극·영화 학과에는 연학부, 다중매체연기영상학, 무대미술, 무술연기, 방송연기, 방송연예, 연극공연학, 연극·영화·문화기획, 연극영화, 연극, 연기에술, 영화예술, 영화, 코미디연기 전공 등이 포함됨
- 영상·예술 학과에는 공연영상, 공연예술, 멀티미디어영상, 미디어아트, 미용예술, 방송영상, 영상연출, 예술, 예술문화 영상 전공 등이 포함됨
- 사진·만화 학과에는 디지털애니메이션, 만화·애니메이션, 만화영상, 만화예술, 사진영상, 사진예술, 사진, 출판만화, 만화콘텐츠, 순수사진, 광고사진, 3D애니메이션 전공 등이 포함됨
- 언론·방송·매체학과에는 신문방송, 신문, 언론매체, 언론정보, 영상시나리오, 정보관리, 정보보완, 언론홍보, 문화·커뮤니케이션, 공연미디어, 극작, 방송통신시스템 전공 등이 포함됨
- 문화(전문대학)학과에는 국제문화, 다문화, 디지털박물관, 문화재, 민족문화, 아동문화, 창작문화, 독서문화콘텐츠, 다문화교류, 박물관큐레이터 전공 등이 포함됨

[표 11] 정규 문화예술교육기관(문화예술인력 대상)

문화영역		학과명	대학			대학원	
			대학	전문대학	기타	석사	박사
전통예술		국악					
공연 예술	음악	음악					
		기악					
		성악					
		음악학					
		작곡					
		음향					
		기타음악					
	연극	연극·영화					
	무용	무용					
시각 예술 및 공예	미술	미술					
		순수미술					
		응용미술					
		조형					
	사진	사진 및 만화					
	공예	공예					
	디자인	디자인일반					
		시각디자인					
		산업디자인					
		패션디자인					
		기타디자인					
	건축	건축·설비공학					
		건축학					

		조경학					
문학		국어·국문학					
		문예창작					
대중 예술	영화 연예	영상·예술					
		언론·방송·매체학					
기타		예체능교육					
		문화					

6. 문화시설

-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의 창작, 유통, 전수, 교육, 소비와 연관된 문화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공 및 민간부문의 활동체계로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표 12]과 같이 문화시설의 범위를 설정함

[표 12] 문화시설 분류체계

문화영역	문화시설	포함내용
전통예술	전통문화 전수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악원 전수회관 역사문화유적지 :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명승), 시도지정문화재(기념물),
	공연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연장 : 등록 공연장(공공/민간)
시각예술 및 공예	전시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박물관 : 박물관 (공립/사립/대학) 미술관 : 미술관 (공립/사립/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랑
문학	도서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서관 : 국립 / 공공 / 대학 / 학교 / 전문도서관
대중예술	영화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화상영관
	방송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송국 : 라디오 방송국 / 지상파 방송국 / 유선 방송국 / 위성 및 기타 방송국
기타	지역문화 복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문화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의 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합문화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 : 주민자치센터²⁾, 시·군·구민회관, 마을회관, 문화(체육)센터, 평생학습관, 문예회관 민간 : 대학교부설 사회문화교실, 사설문화센터(백화점, 신문사, 방송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지관 :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아동복지관, 여성회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 시설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7. 문화상품 및 서비스 지출 분류

- 문화상품 및 서비스 지출은 가구에 의한 목적별 개별 소비지출분류(COICOP: Classification of individual Consumption According to Purpose)에 기초하여 다음의

- 2)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의 문화복지·자치활동 공간으로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임. 2007년 9월 읍·면·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변경함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명칭과 유사하게 되어 주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조례개정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변경하고 있음. 자치회관(서울시), 주민자치회(부산시) 등으로 변경되고 있음

[표 13]과 같이 분류함

- 광의의 문화상품 및 서비스 지출은 09. 오락·문화지출에 해당하며, 협의의 문화상품 및 서비스 지출은 이 중에서도 '문화서비스'에 대한 지출로 볼 수 있음

[표 13] 오락·문화 지출 분류체계

지출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09. 오락·문화	영상음향기기	
	사진광학장비	
	정보처리장치	
	기록매체	
	영상음향및정보기기수리	
	오락문화내구재	
	악기기구	
	오락문화내구재유지및수리	
	장난감및취미용품	
	캠핑및운동관련용품	
	화훼관련용품	
	애완동물관련용품	
	화훼및애완동물서비스	
	운동및오락서비스	
	문화서비스	공연 및 극장
		공원 및 관람시설 이용
		독서실 이용
		문화강습
		컨텐츠
		방송수신료
		기타문화서비스
	복권	
	서적	
	기타인쇄물	
	문구	
	단체여행비	

자료 : 가계동향조사(통계청)

8. 문화예술교육·향유·참여에 대한 분류

- 일반국민들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활동은 『문화향수실태조사』에서 사용된 분류기준을 활용하여 다음의 [표 14]와 같이 설정함

[표 14] 문화예술 교육, 향유, 참여 활동 분류

구분	문화예술의 교육, 향유, 참여 분류
문화예술교육	문학(독서포함) / 미술(사진, 서예, 디자인, 건축 포함) / 서양음악(클래식, 서양악기 관련) / 전통예술(국악, 풍물, 민속극) / 무용(서양무용, 한국무용, 현대무용) / 연극(뮤지컬 포함) / 영화(비디오 포함) / 대중가요·연예(방송 프로그램 등) / 역사문화유산
문화예술 관람 및 방문	문학행사(시화전, 도서전시회, 작가와의 대화) / 미술(사진, 서예, 건축, 디

		자인 포함)전시회 / 클래식음악회 · 오페라 / 전통예술(국악, 풍물, 민속극) / 연극(뮤지컬 포함) / 무용(서양무용, 한국무용, 현대무용) / 영화 / 대중가요콘서트, 연예(방송프로그램)
		역사문화유적지 방문, 지역축제 참여
문화예술 활동 참여	창작 · 발표활동	문학행사(시화전, 도서전시회, 작가와의 대화) / 미술(사진, 서예, 건축, 디자인 포함)전시회 / 클래식음악회 · 오페라 / 전통예술(국악, 풍물, 민속극) / 연극(뮤지컬 포함) / 무용(서양무용, 한국무용, 현대무용) / 영화 / 대중가요콘서트, 연예(방송프로그램)
	자원봉사 / 동호회활동	문화관련 자원봉사활동, 문화관련 동호회 활동
사이버 문화활동 및 매체이용		문화예술관련 사이트 접속 / 문화예술관련 사이트 유료이용 / 텔레비전(지상파 TV, 케이블 TV)이용 예술프로그램 감상 / 비디오테이프, DVD, CD 이용 예술프로그램 감상 / 컴퓨터 또는 멀티미디어기기(PMP, DMB, 휴대전화, MP3등) 이용 예술프로그램 감상

[표 15] 교육수준에 따른 분류(대분류 · 중분류)

교육수준 분류 (Eurostat)				교육수준 분류 (한국교육분류)			
수준	세부 분류		정도	수준	세부 분류		
0	Pre-primary education	유치원 교육	낮음	0	취학 전 교육		
1	Primary education	초등교육		1	초등교육		
2	Lower-secondary education	낮은 중등교육		2	중학교 교육		
3	Upper-secondary education	높은 중등교육	중간	3	고등학교 교육	3A	일반교육
						3B	직업 전 교육 또는 기술 전 교육
						3C	직업 교육 또는 기술 교육
4	Post-secondary non-tertiary education	중등 과정 후의 교육		4	중등 후 교육	(정부인가 훈련기관 포함)	
5	Tertiary education (first stage)	3차 교육 (제 1단계)	높음	5	대학 교육	5A	일반 교육
						5B	직업 교육 또는 기술 교육
6	Tertiary education (second stage)	3차 교육 (제 2단계)		6	대학원(석사과정)	(특수대학원도 포함)	
				7	대학원(박사과정)		

자료: ISCED-97(UNESCO), 한국교육분류(통계청)

주1) Eurostat과 한국교육분류 모두 유네스코에서 권고한 “국제표준교육분류(ISCED-97³⁾)”를 기준으로 분류항목 설정하였으나 조금 다름

주2) 우리나라에 없는 2개의 과정은 국제 비교를 위해 존치; 수준 3B(직업 전 교육 또는 기술 전 교육), 수준 4(중등 후 교육)

3) ISCED(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Education : 국제표준교육분류)

제4절 활용자료

○ 본 연구에서 분석할 문화예술 대표지표와 활용자료는 다음의 [표 16]와 같음

[표 16] 문화예술 대표지표와 활용자료

		지표명	활용자료
공통 투입지표		1.1. 문화예술재정 1.1.1. 공공부문 문화예술재정 1.1.1.1 중앙정부 문화예술재정 1.1.1.2 지방정부 문화예술재정 1.1.2. 민간부문 문화예술재정	문화체육관광부 각년도 예산자료 『지역문화통계』 지방정부 예산자료 한국메세나협회의 연차보고서 자료
		1.2. 문화예술인력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지역별 고용조사』
		1.3. 문화예술 사업체	『전국사업체조사』
투입		2.1. 문화예술교육기관 2.1.1 정규교육기관의 수 2.1.2. 비정규교육기관의 수	교과부 『교육통계서비스』 대학통계 『전국사업체조사』 예술학원의 수
산출	2. 문화예술교육	2.2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2.2.1 문화예술교육과정 재학생 2.2.2 문화예술교육과정 졸업생 2.2.3 문화예술교육과정 참여율	교과부 『교육통계서비스』 대학통계 교과부 『교육통계서비스』 취업통계 『문화예술인실태조사』 비정규예술교육 경험률
성과		2.3. 문화예술교육 만족도 2.3.1. 정규교육기관 만족도 2.3.2. 비정규교육기관 만족도	『문화예술인실태조사』 학교예술교육 만족도 『문화예술인실태조사』 비정규예술교육 만족도
		2.4. 신규 문화예술인력 고용지표 2.4.1 신규 문화예술인력 고용률 2.4.2 신규 문화예술인력 실업률	교과부 『교육통계서비스』 대학통계 교과부 『교육통계서비스』 취업통계
산출	3. 문화예술인력	3.1. 문화예술인력 경제활동상태 3.1.1 문화예술 취업자 3.1.2 문화예술 실업자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지역별 고용조사』 『문화예술인실태조사』
		3.2 문화예술분야 종사자의 수	『전국사업체조사』
성과		3.3 문화예술인력 일자리 지표 3.3.1 문화예술 취업자 고용상 지위 3.3.2 문화예술분야 종사자 고용상 지위 3.3.3 문화예술 취업자 임금(소득) 3.3.4 문화예술분야 종사자 임금(소득) 3.3.5 문화예술 창작여건 만족도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지역별 고용조사』 『전국사업체조사』 『문화예술인실태조사』
산출	4. 문화예술창작	4.1. 문화예술상품 생산량 4.1.1 전통예술 4.1.2 음악 4.1.3 연극 4.1.4 무용 4.1.5 시각예술 4.1.6 문학 4.1.7 영화 4.1.8 방송 및 대중예술	『문예연감』 『공연예술실태조사』 『문화예술인실태조사』 인터파크티켓 및 티켓링크 자료 「한국영화산업결산」(영화진흥위원회)
	제작	4.2. 지역축제의 수	문화부 행정조사자료 『지역축제현황』
		4.3. 문화예술 국제교류 건수	『공연예술국제교류활동현황』 『문예연감』
	교	4.4. 문화예술분야 사업체 경영지표	통계청, 『서비스업조사』, 『광업·제조업 조

	류	4.4.1 문화예술사업체 매출액 4.4.2 공연상품 티켓판매액 4.4.3 문화예술사업체 비용	사』,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조사』		
성과	활동	4.5 문화예술상품 수출 · 수입액	콘텐츠산업통계』(구 문화산업통계)		
		4.6 해외문화원 방문자 수	해외문화홍보원 내부자료		
		4.7. 한국문화예술 인지도 · 선호도	「2010 국악공연 및 국립국악원 인식조사」 (문화리서치 피오, 2010)		
		4.8 UNESCO 문화유산 등재건수	문화재청 통계정보		
투입	문화예술의 매개 유통	5.1. 문화시설의 수 5.1.1 유형별 문화시설의 수 5.1.2 지역별 문화시설의 수 5.1.2.1 전통문화 전수시설 및 사적지 5.1.2.2 공연시설(등록 공연장) 5.1.2.3 전시시설(등록 박물관·미술관) 5.1.2.4 도서관(도서관) 5.1.2.5 영화시설(극장) 5.1.2.6 방송시설(방송국)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등록공연장 현황』 『미술시장실태조사』 『전국도서관통계』 『전국사업체조사』 『한국도시통계』(통계청) 『문예회관현황조사』 『공연예술실태조사』		
		5.2. 문화시설 기능별 규모 5.2.1 도서관 5.2.2 박물관 5.2.3 미술관 5.2.4 공연장 5.2.5 문예회관 5.2.6 지방문화원			
		5.3. 문화시설 인력 규모			
		5.4. 문화시설 가동률			
		산출	5.5. 문화시설 프로그램의 수 5.5.1 문화시설 공연·전시프로그램의 수 5.5.2 문화시설 기타프로그램의 수		
			5.6. 문화시설 이용자 수		
			성과	5.7. 문화시설 서비스 만족도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문화향수실태조사』
		산출		문화예술의 소비 참여	6.1. 문화예술 활동시간 6.2 문화예술상품·서비스 지출액 6.2.1 문화예술상품·서비스 지출액 6.2.2 최다지출품목
			6.3. 문화예술 수요자 교육 참여자 수 6.3.1 문화예술교육기관(학교교육 외) 6.3.2 문화예술교육 경험률(학교교육 외)		『문화향수실태조사』
			6.4. 문화예술복지 수혜자 수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 성과평가연구」(한국문화예술위원회)
6.5. 문화예술 관람·방문자 수 6.5.1. 문화예술 관람객 수 6.5.2. 역사문화유적지·지역축제 방문자 수	『문화향수실태조사』				
6.6. 문화예술활동 참여자 수 6.6.1. 문화예술 창작·발표 참여자 수 6.6.2. 문화예술 자원봉사·동호회 참여자 수 6.6.3. 사이버 문화예술활동 경험자 수					
성과			6.7. 문화예술상품·서비스 물가지수 6.7.1. 품목별 물가지수 6.7.1. 기본분류별 물가지수		『품목별·기본분류별 소비자물가지수』(통계청)
			6.8. 문화예술 수요자교육 참여자 만족도		『문화향수실태조사』

		6.9. 문화예술복지 수혜자 만족도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 성과평가연구」(한국문화예술위원회)
		6.10. 문화예술 관람·방문자 만족도 6.10.1. 문화예술 관람객 만족도 6.10.2. 역사문화유적지·지역축제 방문자 만족도	『문화향수실태조사』
		6.11. 문화예술활동 참여자 만족도 6.11.1. 문화예술 창작·발표 재참여의향 6.11.2. 문화예술 자원봉사·동호회활동 재참여의향	
		6.12. 삶의 만족도 6.12.1. 행복수준 6.12.2. 여가생활만족도	
			『국민여가활동조사』 『한국의 사회지표』(통계청)
기타		7. 총인구수	『주민등록인구통계』(행정안전부)
		8. 각국 GDP	OECD
		9. 각국 인구	IMF
		10. 각국 구매력 평가 환율	OECD



문화예술분야 투입지표

제1절 문화예술재정

제2절 문화예술인력

제3절 문화예술사업체

제1절 문화예술재정

1.1.1 공공부문 문화예술재정

1.1.1.1 중앙정부 문화예술재정

- 문화전담 중앙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출재정 총액은 2007년 22,660억 원에서 2011년 34,557억 원으로 연평균 11.1% 증가함⁴⁾
- 한편 정부 전체 재정규모 대비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출재정규모의 비율은 2007년 0.97%에서 2011년 1.12%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1.1.1.1.1] 중앙정부 문화예술 지출재정 총액

(단위 : 억원,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문화체육관광부 지출 재정 총액(A)		22,660	26,354	28,405	31,747	34,557
		100.0	100.0	100.0	100.0	100.0
문화체육 관광부	예 산	12,681	15,136	16,579	18,167	19,604
		56.0	57.4	58.4	57.2	56.7
	○ 일반회계	8,499	9,426	10,741	11,898	12,622
		37.5	35.8	37.8	37.5	36.5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3,954	4,555	5,355	5,772	6,263
		17.4	17.3	18.9	18.2	18.1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	917	569	497	719
		-	3.5	2.0	1.6	2.1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228	237	-	-	-
		1.0	0.9	-	-	-
	기 금	9,979	11,218	11,826	13,580	14,954
		44.0	42.6	41.6	42.8	43.3
	○ 문화예술진흥기금	1,154	958	882	1,000	1,117
		5.1	3.6	3.1	3.1	3.2
	○ 영화발전기금	441	753	603	538	946
		1.9	2.9	2.1	1.7	2.7
	○ 지역신문발전기금	206	209	151	113	130
		0.9	0.8	0.5	0.4	0.4
	○ 언론진흥기금(신문발전기금)	168	165	89	292	272
		0.7	0.6	0.3	0.9	0.8
	○ 관광진흥개발기금	4,661	5,504	5,864	5,670	5,425
		20.6	20.9	20.6	17.9	15.7
	○ 국민체육진흥기금	3,351	3,630	4,237	5,968	7,064
		14.8	13.8	14.9	18.8	20.4
정부 전체 지출재정 규모(B)		2,337,186	2,627,574	3,017,527 (172,188)	2,928,159	3,090,566

4) 4) [표 1.1.1.1.1]에 제시된 명목예산에 GDP deflator를 적용할 경우(2005년도 기준) 2007년도부터 2010년도 까지 평균 상승률은 8.96%에 해당하며, 전년대비 연도별 증가율의 평균은 8.32%에 해당함

	○ 예산	1,641,435	1,872,138	2,102,596 (61,280)	2,053,312	2,163,378
	○ 기금	695,751	755,436	914,931 (110,908)	874,847	927,188
정부지출재정 대비 문화체육관광부 지출재정 비율(A/B)		0.97	1.00	0.95	1.08	1.12
	○ 예산	0.77	0.81	0.79	0.88	0.91
	○ 기금	1.43	1.48	1.32	1.55	1.61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각 년도 예산확정자료

주1) 2009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은 추경예산 포함이며, ()는 추가경정예산 증액분임

주2)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계정은 2008년까지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계정으로 운영되었음

주3) '05년부터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의한 지출규모 기준(순계기준)

주4) 국가재정법에 의한 재정 지출규모(순계기준) : 예산 및 기금을 모두 합하고, 그 중 내부거래 및 보전지출, 기금 여유 자금은 제외

주5) '08년은 정부조직개편 후 국정홍보(621억원), 정통부 디지털콘텐츠(307억원) 예산 이체로 증가

[그림 1.1.1.1.1] 연도별 중앙정부 문화재정 규모와 비율(2007년~2011년)

(단위: 억원, %)



○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지출재정 중 문화예술분야에 투입된 문화예술 재정규모는 2009년 6,812억 원에서 2011년 9,144억 원으로 동기간 34.2% 증가하였음

- 2011년 기준으로 문화예술 재정규모는 문화체육관광부 재정지출규모의 약 2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세부적으로는 문화예술의 매개·유통과 관련된 문화시설의 건립 및 운영지원 재정 규모가 67.8%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문화예술의 창작·제작·보존·교류·교육과 관련된 재정규모가 18.1%, 그리고 문화예술의 소비 및 참여와 관련된 재정규모가 14.1%를 차지함

5) 단 여기에는 국어 및 민족진흥 관련 사업 재정과 기금운영비 및 여유자금운용비, 문화관광행정지원 관련 재정은 포함되지 않았음

[표 1.1.1.1.2] 중앙정부 문화예술 재정규모 및 비율

(단위: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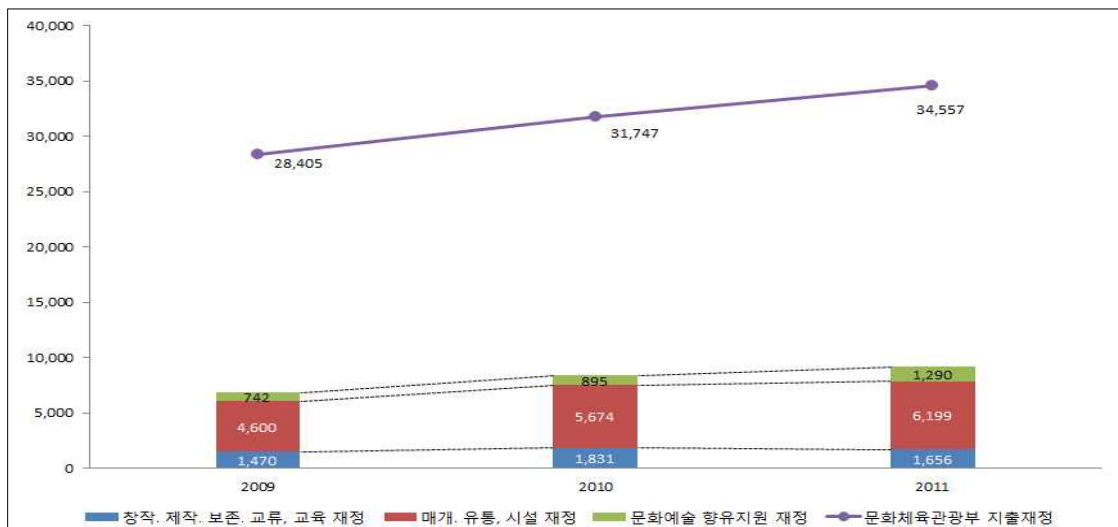
구분		2009	2010	2011
합 계		681,225	840,057	914,380
		100	100	100
문화 순화 주기	문화예술의 창작·제작·보존·교류· (공급자)교육 지원 관련 재정	147,003	183,131	165,560
		21.58	21.80	18.11
	문화예술의 매개·유통 관련 재정 (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 지원 관련 재정)	459,992	567,384	619,855
		67.52	67.54	67.79
	문화예술의 소비 및 참여 지원 관련 재정	74,230	89,542	128,965
		10.90	10.66	14.10
문화체육관광부 지출재정 대비		2,840,500	3,174,700	3,455,700
		23.98	26.46	26.46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각 년도 예산확정자료

주1) 각 문화순화주기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및 세부사업은 [표5](p.6~7)을 참고

[그림 1.1.1.1.2] 중앙정부 문화예술 재정규모

(단위: 억원)



1.1.1.2. 지방정부 문화예술재정

- 2010년 기준 지방정부 문화재정은 8조 2,086억 원으로, 이는 지방정부 전체 예산의 약 5.9%를 차지하며, 이 중에서도 문화예술분야에 투입된 문화예술 재정규모는 2조 2696억 원으로 문화재정의 약 27.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문화예술재정의 세부항목별로는 문화예술 창작지원이 10.4%, 문화예술 교류지원이 0.5%, 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이 65.9%, 문화예술 향유지원이 21.6%로 나타나 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 재정 규모가 가장 큼
 - 재원 구성에 있어서는 시·군·구비가 차지하는 비율(47.2%)이 가장 높고, 시·도비(38.6%), 국고(12.9%), 기금(1.3%)의 순으로 나타나며, 주민 1인당 문화예술 재정규모는 제주, 충남, 전북, 강원, 전남, 광주 순으로 나타남

[표 1.1.1.2] 지방정부 문화예술 재정 규모(2010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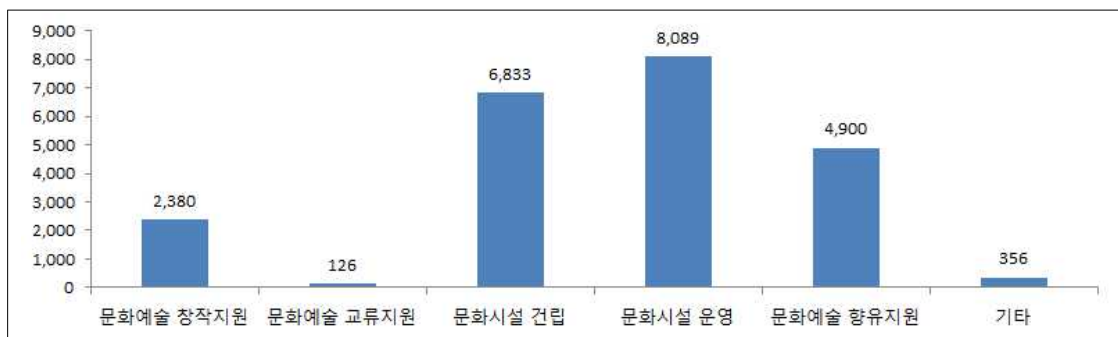
(단위: 억 원)

구분	합계	문화예술 창작·교류		문화시설		문화소비참여	기타
		문화예술 창작지원	문화예술 교류지원	문화시설 건립	문화시설 운영	문화예술 향유지원	
계	22,696	2,380	126	6,833	8,089	4,900	356
서울	3,813	247	19	1,328	1,362	853	15
부산	819	38		136	461	169	17
대구	854	27		158	582	85	1
인천	1,199	40		459	498	186	16
광주	825	31	2	162	439	170	21
대전	603	113		184	239	66	1
울산	393	28	3	30	256	75	1
경기	4,346	545	21	1,119	1,564	1,074	13
강원	1,022	182	1	391	273	147	25
충북	738	118	0	298	152	165	5
충남	1,572	195		484	257	600	28
전북	1,403	136	3	488	645	119	13
전남	1,187	166	3	381	228	379	26
경북	1,652	235	59	567	505	275	9
경남	1,812	207	12	469	504	473	148
제주	459	73	2	179	124	65	16
전국평균	1418.6	148.8	7.8	427.1	505.6	306.3	22.2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예산확정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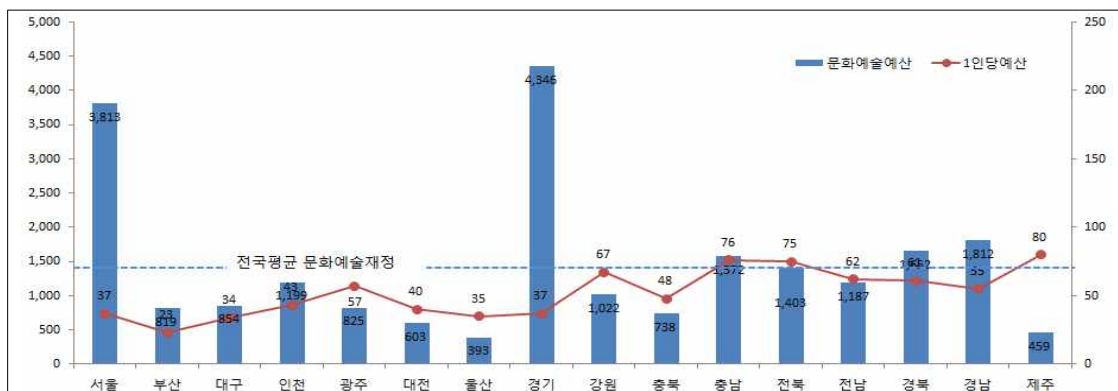
[그림 1.1.1.2.1] 지방정부 문화예술 재정규모

(단위: 억 원)



[그림 1.1.1.2.2] 지방정부별 문화예술 재정규모

(단위: 억 원/천 원)



1.1.2. 민간부문 문화예술재정

- 민간부문의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지원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한국기업메세나협회의 연차보고서』임
 - 동 연차보고서는 국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한국메세나협회의 회원사 및 기업출연문화재단 등 630개 내외의 기업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금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조건부 기부금 기탁 실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 『한국기업메세나협회의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문화예술에 지원한 기업의 수는 증가하였으나 지원금액은 2006년 1,830억 원에서 2010년 1,735억 원으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분야별로는 2006년에는 미술·전시, 인프라, 서양음악 분야에 대한 지원액이 높게 나타났으나, 2010년에는 문화예술교육 분야에 대한 지원액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1.1.2.1]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규모(2006년~2010년) (단위 : 개, 백만원, 건)

	2006	2007	2008	2009	2010
지원기업 수 (개)	363	403	469	420	606
지원금액 (백만원)	184,018	187,630	165,985	157,690	173,501
지원건수 (건)	3,182	2,402	2,389	2,706	1,940

자료 : 한국 기업메세나 협의회 연차보고서(한국 기업메세나 협의회) 각년도자료

주1) 기업 자체 지원 실적과 문예위 기부 실적을 합산한 수치임

[그림 1.1.2.1] 지원규모 및 구성(2006년, 2010년)

(단위: 백만원, 건)



[표 1.1.2.2] 기업의 문화예술 분야별 지원 금액(2006년, 2010년)

(단위 : 백만원, %)

문화예술 분야별	2006년(A)		2010년(B)		2006년대비 2010년 증감률((B-A)/A)
합계	184,018	100.00	173,501	100.00	-5.7
국악	1,595	0.87	1,645	0.95	3.1
서양음악	29,172	15.85	22,022	12.69	-24.5
무용	2,182	1.19	2,524	1.45	15.7
연극	5,644	3.07	3,669	2.11	-35.0
뮤지컬	-	-	4,611	2.66	-
미술·전시	61,503	33.42	40,654	23.43	-33.9
문학	4,444	2.41	3,884	2.24	-12.6
인프라	45,316	24.63	39,895	22.99	-12.0
전통/민속	3,728	2.03	3,036	1.75	-18.6
영상·미디어	4,104	2.23	3,663	2.11	-10.7
문화예술교육	11,633	6.32	34,634	19.96	197.7
기타	14,697	7.99	13,264	7.64	-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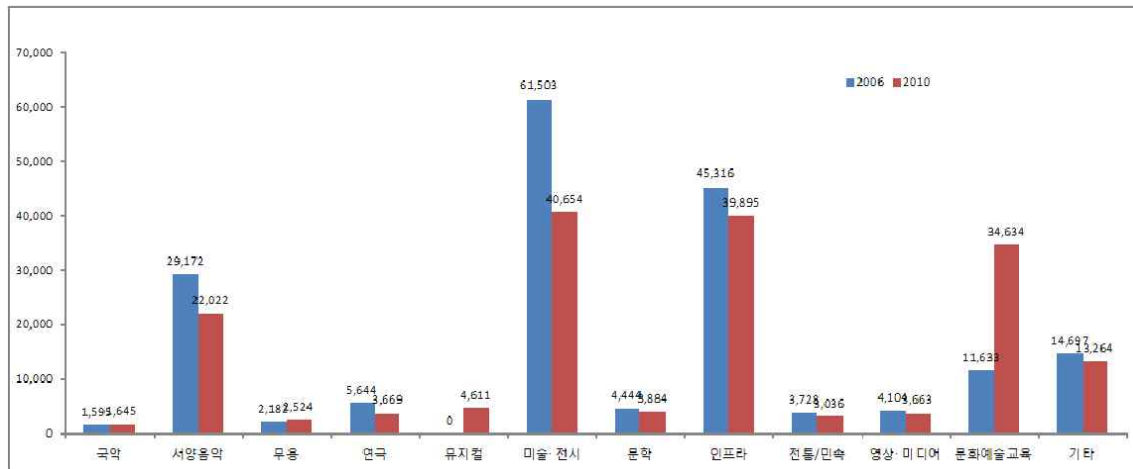
자료 : 한국 기업메세나 협의회 연차보고서(한국 기업메세나 협의회, 2006;2010)

주1) 기업의 문화예술 분야별 지원금액은 기업 자체 지원실적과 문예위의 기부실적을 합산한 수치임

주2) 2006년의 문화예술 분야별 지원 금액의 경우 뮤지컬 분야는 별도로 구별하지 않았음

[그림 1.1.2.2] 기업의 문화예술 분야별 지원 금액(2006년, 2010년)

(단위 : 백만원)



제2절 문화예술인력

1.2. 문화예술인력

- 현재로서는 문화예술인력의 수를 파악할 수 있는 기존 자료는 없음
 - 문화예술인력은 현재 문화예술직종에 명시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이들뿐 아니라, 설사 현재 시점에는 문화예술직종에 종사하고 있지 않더라도 문화예술과정에 종사할 잠재력이 있는 이들(실업 및 일시적 휴직, 다른 직종에 종사자 등)도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 다만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와 『지역별 고용조사』에 나타난 문화예술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취업자의 수는 개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장 최근에 시행된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2009년 기준)과 『지역별 고용조사』(2010년 기준) 결과 나타난 문화예술 관련 직종 종사자(취업자) 자료를 제시하는 것으로 이에 갈음하고자 함)
 - 한편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와 『지역별 고용조사』의 경우 전체 조사표본 및 응답자의 수는 크나 문화예술 관련 직업별 세분류(4 digit)로 나누게 될 경우 각 범주에 포함되는 응답자의 수가 상당히 작아지는 경우가 있음
 - 이 경우 동 표본을 활용한 모수추정치 역시 일정한 오차를 가지게 되어 통계적 유의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여기에서는 조사표본 수와 표본오차, 그리고 상대표준오차를 함께 제시하므로, 표본 수가 30인 미만인 경우는 통계자료의 이용에 각별한 유의를 요함
-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2010년 기준 문화예술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취업자의 수는 약 944천명이며, 이는 전체 직종 종사자의 약 3.92%에 해당함
 - 창작 및 실연 과정에 종사하는 이들이 64.2%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 과정에 해당하는 예능강사(16.4%), 기타 과정에 종사하는 이들이 11.1%, 기획 및 경영·관리 과정에 종사하는 이들이 4.2%, 기술 과정 종사자가 4.1%로 그 뒤를 잇고 있음

6) 문화예술인력의 고용 및 일자리 지표(3.1.~3.3.)에 대한 분석은 자료 가용성(data availability)을 감안하여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2009년 기준)』를 활용하였음. 한편 <1.2. 문화예술인력>에 나타난 문화예술 취업자의 수와 <3.1. 문화예술 취업자>에 나타난 문화예술 취업자의 수에는 일정한 차이가 있는데, 이는 사용된 통계자료의 차이(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vs. 지역별 고용조사) 및 통계 자료 생산연도(2009년 vs. 2010년), 그리고 문화예술직업종사자 항목에 포함된 직업군의 차이(2009년 자료에는 사진인화 및 현상기 조작용, 상품기획전문가, 광고 및 홍보전문가가 포함되었고, 영상 및 관련장비설치 및 수리원이 누락됨)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통계자료집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서는 2009년 기준의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만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나, 『지역별 고용조사』의 경우 가장 최신의 자료(2010년 기준)이며, 또한 응답자 수 역시 『2010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의 약 3배에 해당하여 통계적 유의성 확보에 유리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두 개의 자료를 함께 병기함. 또한 이러한 통계자료의 한계를 고려하여 2009년과 2010년의 문화예술취업자 수의 비교는 하지 않음.

- 창작 및 실연 과정에 종사하는 이들을 세분류로 살펴보면, 건축 및 디자인 직종 종사자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자 및 논설위원(21,388명), 공예원(20,737명), 감독 및 기술감독(16,273명), 귀금속 및 보석세공원(13,235명), 작가 및 관련 전문가(11,406명) 등의 순위로 나타남

[표 1.2] 문화예술직종 종사자(취업자)의 수(2010년 기준)

(명, %)

한국표준직업분류			2010년 종사자수 (추정치)	표본 수	표본오차	상대표준 오차(CV)
문화예술 직종 총계			944,098	5,070		
창작· 실연	2811	작가 및 관련 전문가	11,406	57	1,815	16.0
	2844	국악 및 전통예능인 #	3,370	26	1,094	32.4
	2845	지휘자,작곡가 및 연주자	10,197	51	1,668	16.4
	2846	가수 및 성악가	5,979	30	1,399	23.4
	2847	무용가 및 안무가 #	1,904	8	828	43.6
	841	화가 및 조각가	7,308	47	1,421	19.4
	2842	사진작가 및 사진사	15,075	100	2,116	14.0
	2843	만화가 및 만화영화작가	6,138	30	1,497	24.4
	2851	제품디자이너	26,314	114	2,895	11.0
	2852	패션디자이너	30,995	127	3,359	10.8
	2853	실내장식디자이너	38,336	180	3,341	8.8
	2854	시각디자이너	56,110	234	4,381	7.8
	2855	웹 및 멀티미디어 디자이너	34,408	140	3,515	10.2
	2396	캐드원	45,027	217	3,566	8.0
	311	건축가 및 건축공학기술자	136,519	715	6,482	4.8
	2312	토목공학 기술자	79,592	514	4,490	5.6
	2313	조경기술자	10,838	65	1,826	16.8
	7911	공예원	20,737	200	2,478	12.0
	7912	귀금속 및 보석세공원	13,235	62	2,061	15.6
	2831	감독 및 기술감독	16,276	73	2,205	13.6
	2832	배우 및 모델	9,030	35	1,666	18.4
	2833	아나운서 및 리포터#	2,384	10	852	35.8
	2814	기자 및 논설위원	21,388	109	2,604	12.2
	2899	마술사 및 기타 문화예술관련 종사자#	3,651	19	997	27.2
	소계		606,217 (64.2%)			
기획 / 경영관리	2891	연예인 및 스포츠매니저#	4,361	16	1,342	30.8
	2821	큐레이터 및 문화재 보존원	4,103	26	938	22.8
	2822	사서 및 기록물 관리사	13,619	93	1,805	13.2
	2815	출판물 전문가	14,958	79	1,966	13.2
	1340	문화, 예술, 디자인 및 영상관련 관리자#	2,381	12	792	33.2
	2731	상품기획전문가				
	2733	광고 및 홍보전문가				
	소계		39,422 (4.2%)			
기술	2834	촬영기사	6,622	36	1,308	19.8
	2835	음향 및 녹음기사	6,115	22	1,644	26.8
	2836	영상, 녹화 및 편집기사	6,297	27	1,395	22.2
	2837	조명기사 및 영상기사#	3,764	18	997	26.4
	2839	기타 연극, 영화 및 영상관련 종사자#	4,982	19	1,265	25.4
	2240	통신 및 방송송출장비기사	8,297.3	46	1,629	19.6
	7801	영상 및 관련 장비 설치 및 수리원#	2,964	18	936	31.6
	8922	사진인화 및 현상기 조작원				
	소계		39,041 (4.1%)			

교육	2544	예능강사	154,983 (16.4%)	864	6,984	4.6
기타	7303	악기제조수리 및 조율사	3,901	22	1,015	26.0
	2812	번역가	6,927	35	1,400	20.2
	2813	통역가	5,615	30	1,260	22.4
	4224	메이크업아티스트 및 분장사	6,028	28	1,254	20.8
	3922	안내, 접수사무원 및 전화교환원	81,965	516	4,814	5.8
	소계		104,436 (11.1%)			
전체 직종 종사자 총계			24,054,000 (3.92%)			

자료 : 지역별 고용조사(통계청,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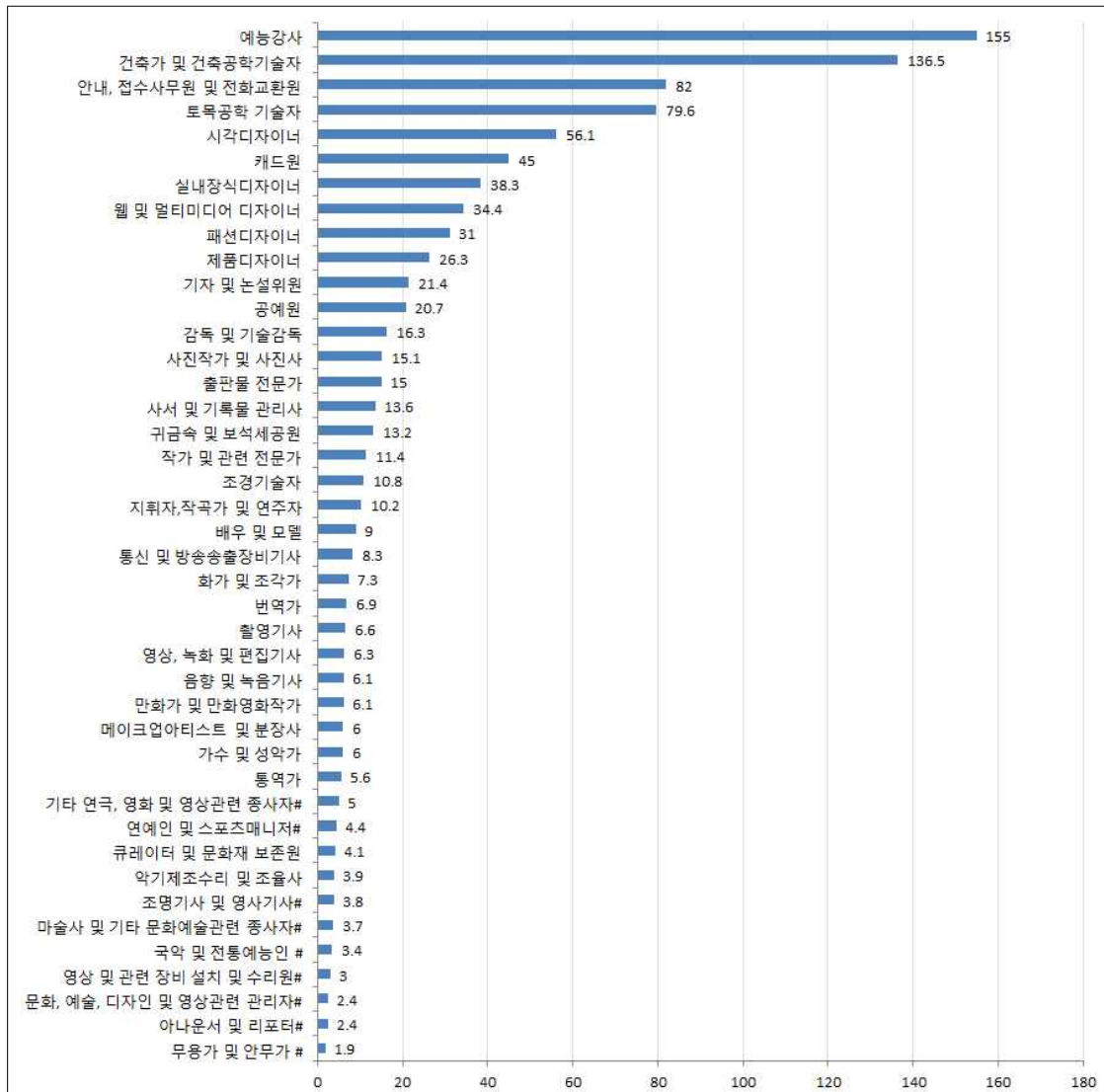
주1) 표본 규모는 전국 약 8,839개 조사구의 176,000가구임

주2) # : 표본 수가 30인 미만인 경우이므로, 추정치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음(자료 이용에 유의를 요함)

주3) 상품기획전문가, 광고 및 홍보전문가, 사진인화 및 현상기 조작원 직종 종사자의 수는 집계에서 제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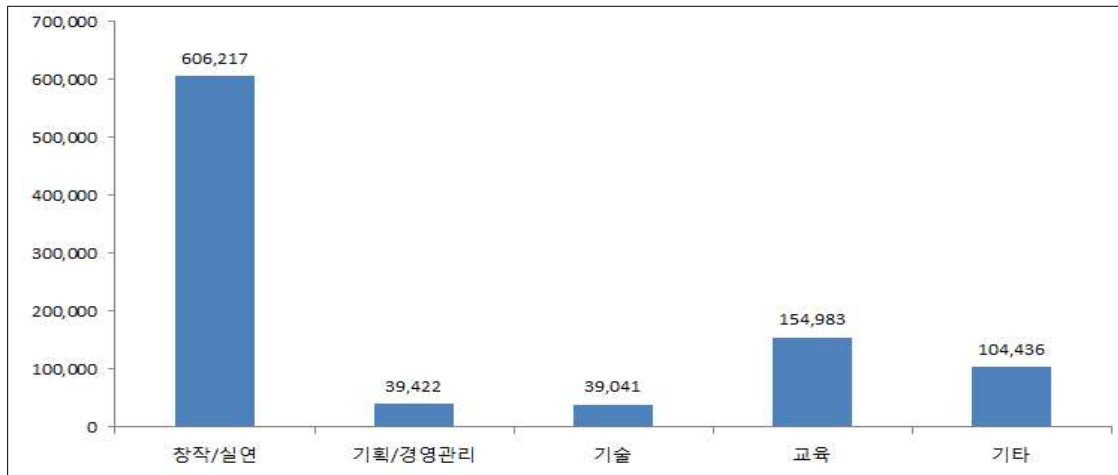
[그림 1.2.1] 문화예술직종 종사자(취업자)의 수(2010년 기준, 추정치)

(단위 :천명)



[그림 1.2.2] 문화예술 과정별 문화예술직종 종사자(취업자)의 수(2010년 기준)

(단위 :명)



제3절 문화예술 사업체

1.3. 문화예술 사업체

- 『전국사업체조사』에 따르면 문화예술분야 사업체의 수는 2007년 106,040개, 2008년 104,314개, 2009년 101,824개로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전산업 사업체 대비 비율 역시 2007년 3.25%에서 3.09%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게임 및 기타 분야 사업체의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 2009년 기준으로 예술학원이 41,877개로 가장 많고, 컴퓨터게임방 운영업(17,842개), 인물사진 및 행사용 비디오 촬영업(17,842개),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7,194개),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2,011개),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1,893개), 기타 서적 출판업(1,491개), 영화 및 비디오물 상영업(1,455개), 악기소매업(1,166개), 전자게임장 운영업(1,130개), 시각디자인업(1,130개),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1,104개),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1,104개) 등의 사업체가 천개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음
 - 기타 공연단체나 공연예술가,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등 관련 사업체의 수는 매우 적게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전국사업체조사』에 포함된 사업체의 대상이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체에 한정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임
- 한편 문화예술영역별로는 기타(43~43.6%), 게임(21~23%), 시각예술 및 공예(20~21.5%), 시청각 및 상호작용적 미디어(6.1~6.2%), 도서 및 출판(4~4.2%),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1.5~1.9%), 공연예술 및 축제(1.3~1.6%)분야의 순서로 사업체의 수가 나타나고 있음

[표 1.3.1] 문화예술분야 사업체의 수(산업세세분류) (단위: 개)

FCS 문화 영역	한국산업분류	코드	2007	2008	2009
문화예술분야 사업체 총계			106,040	104,314	101,824
문화 유산 및 자연 유산	도서관 및 기록보존소 운영업	R90211	725	816	907
	박물관 운영업	R90221	652	673	734
	사적지 관리 운영업	R90222	181	179	179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R90231	51	62	66
	기타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R90290	21	21	20
	소계		1,630	1,751	1,906
	비율		1.54	1.68	1.87
공연 예술 및 축제	연극단체	R90121	123	124	135
	무용 및 음악단체	R90122	275	291	295
	기타 공연단체	R90123	26	25	24
	공연예술가	R90131	35	42	36
	공연기획업	R90191	319	327	370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R90192	23	31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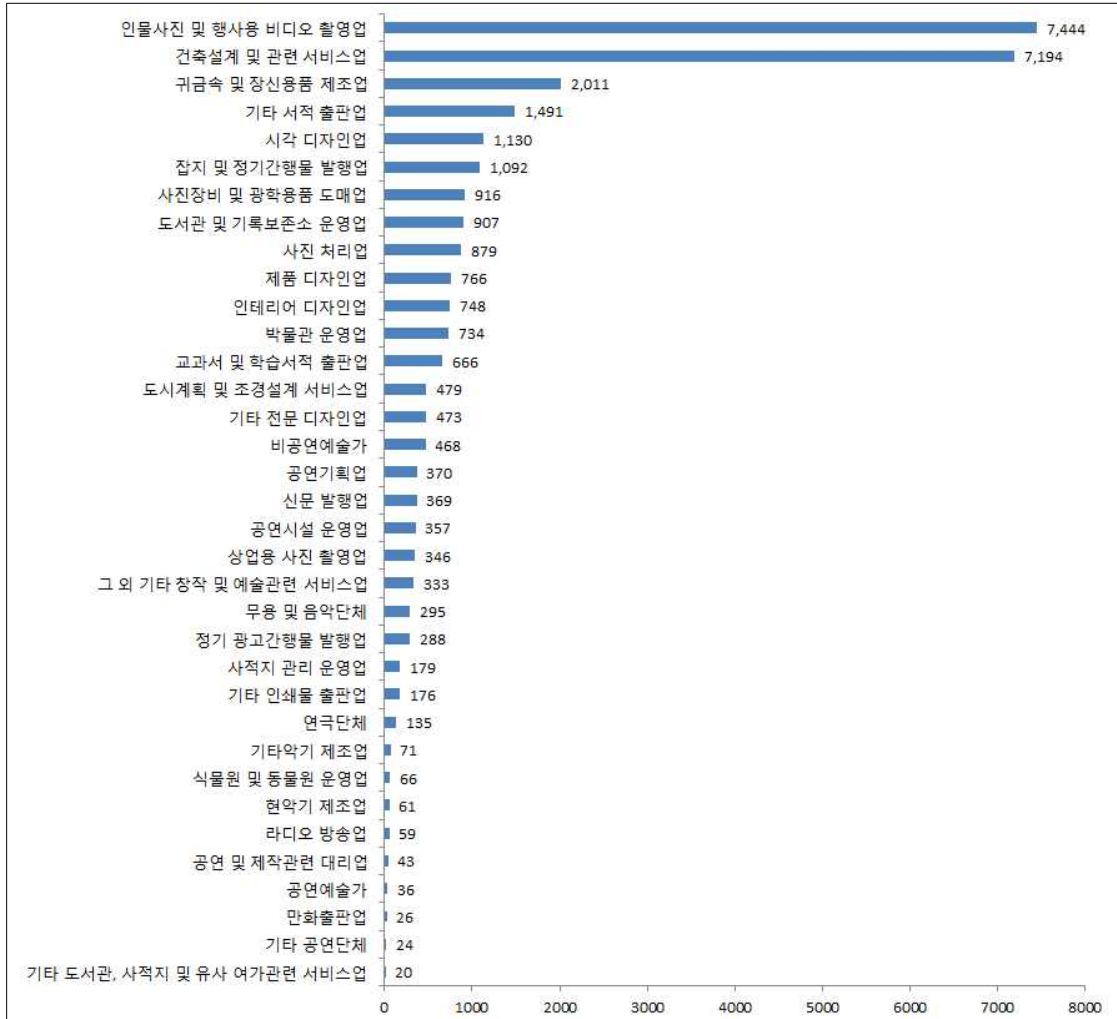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R90199	249	293	333
	공연시설 운영업	R90110	290	306	357
	소계		1,340	1,439	1,593
	비율		1.3	1.4	1.6
시각 예술 및 공예	비공연예술가	R90132	478	483	468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	C33110	2,230	2,066	2,011
	인물사진 및 행사용 비디오 촬영업	M73301	7,650	7,717	7,444
	상업용 사진 촬영업	M73302	334	340	346
	사진 처리업	M73303	1,321	948	879
	인테리어 디자인업	M73201	666	752	748
	제품 디자인업	M73202	563	665	766
	시각 디자인업	M73203	933	1,131	1,130
	기타 전문 디자인업	M73209	374	429	473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M72111	7,233	7,387	7,194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M72112	336	433	479
	소계		22,118	22,351	21,938
	비율		20.9	21.4	21.5
도서 및 출판	교과서 및 학습서적 출판업	J58111	676	606	666
	만화출판업	J58112	23	29	26
	기타 서적 출판업	J58119	1,627	1,611	1,491
	신문 발행업	J58121	387	391	369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J58122	1,105	1,071	1,092
	정기 광고간행물 발행업	J58123	383	333	288
	기타 인쇄물 출판업	J58190	232	212	176
	소계		4,433	4,253	4,108
	비율		4.2	4.1	4.0
시청각 및 상호 작용적 미디어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J59111	249	223	235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J59112	213	211	228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J59113	528	469	488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J59114	410	379	395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J59120	87	84	93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J59201	191	187	194
	녹음시설 운영업	J59202	229	226	219
	매니저업	M73901	191	166	160
	라디오 방송업	J60100	59	57	59
	지상파 방송업	J60210	102	108	100
	프로그램 공급업	J60221	81	80	90
	유선방송업	J60222	506	470	454
	위성 및 기타 방송업	J60229	35	38	36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J59130	65	70	86
	영화관 운영업	J59141	356	349	351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J59142	1,304	1,207	1,104
	영화 및 비디오물 상영업	J59140	1,660	1,556	1,455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J63120	327	456	492
	소계		6,593	6,336	6,239
	비율		6.2	6.1	6.1
게임	영상게임기 제조업	C33402	51	46	50
	온라인·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8211	385	462	526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8219	195	201	168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J62010	1,440	1,601	1,893
	전자게임장 운영업	R91221	1,851	1,330	1,130
	컴퓨터게임방 운영업	R91222	20,355	19,078	17,842

	소계		24,277	22,718	21,609
	비율		22.9	21.8	21.2
기타	문화 및 관광행정	O84212	83	71	57
	예술학원	P85620	43,152	42,899	41,877
	피아노 제조업	C33201	8	5	4
	현악기 제조업	C33202	56	64	61
	전자악기 제조업	C33203	38	32	34
	국악기 제조업	C33204	58	57	52
	기타악기 제조업	C33205	75	68	71
	악기소매업	G47593	1,105	1,171	1,166
	악기도매업	G46462	185	191	193
	사진장비 및 광학용품 도매업	G46493	889	908	916
	소계		45,649	45,466	44,431
	비율		43.0	43.6	43.6
	전산업 사업체 총계		3,262,925	3,264,782	3,293,558
전산업 대비 문화예술분야 사업체 비율		3.25	3.20	3.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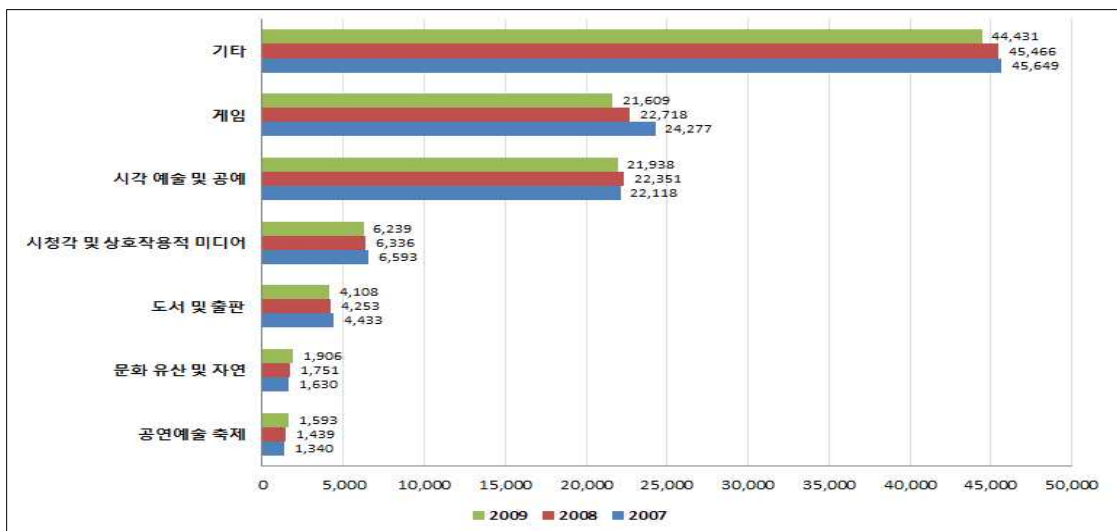
자료 : 전국사업체 조사(통계청, 2009)

주1) 전국사업체조사는 조사기준일 현재 대한민국의 행정권이 미치는 전지역에 소재하는 모든 사업체를 조사대상으로 하나 개인이 경영하는 농림어업사업체, 국방 및 가사서비스업, 국제기구 및 외국기관, 고정설비가 없거나 영업장소가 일정치 않은 간이 판매상은 제외함

[그림 1.3.1.1] 시청각 및 상호작용적 미디어, 게임, 기타 분야 제외한 문화예술 사업체의 수(2009년 기준) (단위:개)



[그림 1.3.1.2] 문화예술 사업체의 영역별 수 (단위: 개)



○ 2009년 기준, 문화예술분야 사업체의 조직형태는 개인사업체가 86.7%로 가장 많았으며, 회사법인 형태가 10.8%, 회사 이외 법인 형태가 1.9%, 비법인단체가 0.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문화예술분야별로는 전반적으로는 개인사업체 형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분야는 회사이외 법인 형태(63.5%)가 가장 많았으며, 도서 및 출판, 시청각 미디어 분야는 회사법인의 형태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1.3.2] 문화예술사업체의 조직형태(2009년 기준)

(단위: 개)

FCS 문화 영역	한국산업분류	코드	2009			
			개인 사업체	회사 법인	회사 이외 법인	비법인 단체
	문화예술사업체 전체	계	88,245	10,989	1,929	660
		비율	86.7	10.8	1.9	0.6
문화 유산 및 자연 유산	도서관 및 기록보존소 운영업	R90211	34	0	667	206
	박물관 운영업	R90221	237	63	365	69
	사적지 관리 운영업	R90222	5	4	148	22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R90231	25	21	19	1
	기타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R90290	3	4	12	1
	소계		304	92	1,211	299
	비율		15.9	4.8	63.5	15.7
공연 예술 및 축제	연극단체	R90121	83	12	13	27
	무용 및 음악단체	R90122	130	4	58	103
	기타 공연단체	R90123	12	8	1	3
	공연예술가	R90131	32	2	0	2
	공연기획업	R90191	151	161	42	16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R90192	12	30	1	0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R90199	203	114	7	9
	공연시설 운영업	R90110	118	33	186	20
	소계		741	364	308	180
	비율		46.5	22.8	19.3	11.3
시각 예술 및 공예	비공연예술가	R90132	442	7	3	16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	C33110	1,809	201	1	0
	인물사진 및 행사용 비디오 촬영업	M73301	7,321	121	2	0
	상업용 사진 촬영업	M73302	296	48	0	1
	사진 처리업	M73303	795	84	0	0
	인테리어 디자인업	M73201	423	323	2	0
	제품 디자인업	M73202	488	270	6	2
	시각 디자인업	M73203	813	315	1	1
	기타 전문 디자인업	M73209	370	96	5	2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M72111	4,847	2,338	7	2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M72112	153	318	6	2
	소계		17,757	4,121	33	26
	비율		80.9	18.8	0.2	0.1
도서 및 출판	교과서 및 학습서적 출판업	J58111	415	241	9	1
	만화출판업	J58112	14	12	0	0
	기타 서적 출판업	J58119	1,120	325	40	6
	신문 발행업	J58121	67	288	13	1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J58122	453	564	56	19

	정기 광고간행물 발행업	J58123	153	133	2	0
	기타 인쇄물 출판업	J58190	148	24	4	0
	소계		2,370	1,587	124	27
	비율		57.7	38.6	3.0	0.7
시청 각 및 상호 작용 적 미디어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J59111	69	160	4	2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J59112	90	136	0	2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J59113	219	264	5	0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J59114	122	271	1	1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J59120	43	50	0	0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J59201	105	87	2	0
	녹음시설 운영업	J59202	189	30	0	0
	매니저업	M73901	47	111	2	0
	라디오 방송업	J60100	0	4	55	0
	지상파 방송업	J60210	0	69	31	0
	프로그램 공급업	J60221	6	78	6	0
	유선방송업	J60222	188	264	2	0
	위성 및 기타 방송업	J60229	14	22	0	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J59130	19	64	3	0
	영화관 운영업	J59141	121	221	9	0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J59142	1,103	1	0	0
	영화 및 비디오물 상영업	J59140	1,224	222	9	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J63120	145	336	11	0
	소계		3,704	2,390	140	5
	비율		59.4	38.3	2.2	0.1
게임	영상게임기 제조업	C33402	28	22	0	0
	온라인·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8211	65	458	3	0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8219	37	131	0	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J62010	727	1,156	9	1
	전자게임장 운영업	R91221	1,111	19	0	0
	컴퓨터게임방 운영업	R91222	17,822	20	0	0
	소계		19,790	1,806	12	1
	비율		91.6	8.4	0.1	0.0
기타	문화 및 관광행정	O84212	0	0	57	0
	예술학원	P85620	41,614	99	42	122
	피아노 제조업	C33201	2	2	0	0
	현악기 제조업	C33202	52	9	0	0
	전자악기 제조업	C33203	11	23	0	0
	국악기 제조업	C33204	48	3	1	0
	기타악기 제조업	C33205	61	10	0	0
	악기소매업	G47593	1,108	57	1	0
	악기도매업	G46462	123	70	0	0
	사진장비 및 광학용품 도매업	G46493	560	356	0	0
	소계		43,579	629	101	122
	비율		98.1	1.4	0.2	0.3

자료 : 전국사업체 조사(통계청, 2009)

주1) 회사법인은 상법상의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를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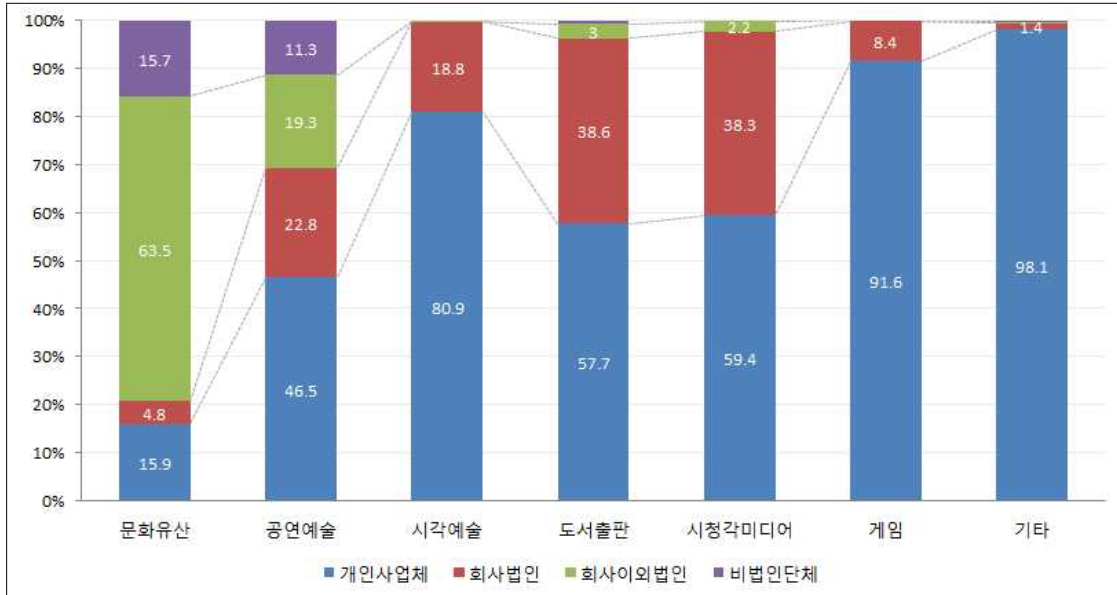
주2) 회사이외 법인은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법인이 아닌 법인을 말함

주3) 개인사업체란 개인이 소유·경영하는 사업체를 말하며 법인격을 갖추지 않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를 포함함

주4) 비법인단체란 법인이 아닌 단체를 말하며 동창회, 후원회, 문화단체, 노동단체, 종친회, 법인이 아닌 교회 및 암자 등을 포함함

[그림 1.3.2] 문화예술분야 사업체의 조직형태(2009년 기준)

(단위: %)



- 또한 문화예술분야 사업체를 규모별로 살펴보면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가 전체의 93.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10~49인 규모가 5.1%, 50~99인 규모가 0.62%, 100~299인 규모가 0.35%, 300인 이상 규모가 0.0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문화예술 영역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는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영역, 공연예술 분야, 도서 및 출판 영역, 시청각 및 상호작용적 미디어 영역의 경우 10~49인 규모도 상당한 비중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표 1.3.3] 문화예술분야 사업체의 규모별 분류(2009년 기준)

(단위: 개, %)

FCS 문화 영역	한국산업분류	코드	2009				
			10 미만	10- 49	50- 99	100- 299	300 이상
	문화예술분야 사업체 전체	개수	95,579	5,177	635	352	81
		비율	93.9	5.1	0.62	0.35	0.08
문화 유산 및 자연 유산	도서관 및 기록보존소 운영업	R90211	587	291	24	4	1
	박물관 운영업	R90221	565	145	17	7	0
	사적지 관리 운영업	R90222	112	59	4	4	0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R90231	30	30	2	4	0
	기타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R90290	13	7	0	0	0
	소계		1,307	532	47	19	1
공연 예술 및 축제	비율		68.6	27.9	2.5	1.0	0.1
	연극단체	R90121	93	39	3	0	0
	무용 및 음악단체	R90122	242	35	12	6	0
	기타 공연단체	R90123	14	9	1	0	0
	공연예술가	R90131	36	0	0	0	0
	공연기획업	R90191	296	68	3	3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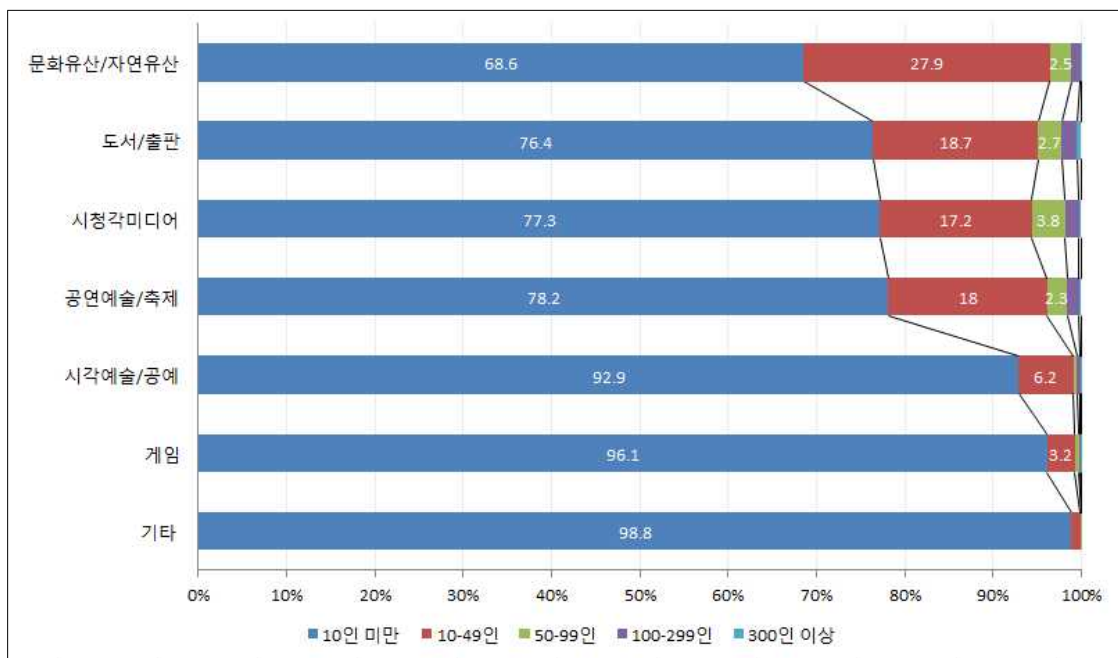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R90192	37	5	1	0	0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R90199	288	39	3	3	0
	공연시설 운영업	R90110	240	91	13	9	4
	소계		1,246	286	36	21	4
	비율		78.2	18.0	2.3	1.3	0.3
시각 예술 및 공예	비공연예술가	R90132	465	3	0	0	0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	C33110	1,887	116	4	4	0
	인물사진 및 행사용 비디오 촬영업	M73301	7,395	49	0	0	0
	상업용 사진 촬영업	M73302	332	14	0	0	0
	사진 처리업	M73303	854	24	1	0	0
	인테리어 디자인업	M73201	658	86	0	3	1
	제품 디자인업	M73202	671	90	4	1	0
	시각 디자인업	M73203	1,002	120	8	0	0
	기타 전문 디자인업	M73209	430	39	3	0	1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M72111	6,367	675	67	69	16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M72112	311	153	11	4	0
	소계		20,372	1,369	98	81	18
	비율		92.9	6.2	0.4	0.4	0.1
도서 및 출판	교과서 및 학습서적 출판업	J58111	488	133	16	22	7
	만화출판업	J58112	18	6	2	0	0
	기타 서적 출판업	J58119	1,257	200	26	8	0
	신문 발행업	J58121	198	91	40	27	13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J58122	870	203	12	7	0
	정기 광고간행물 발행업	J58123	149	121	14	4	0
	기타 인쇄물 출판업	J58190	160	13	0	2	1
	소계		3,140	767	110	70	21
	비율		76.4	18.7	2.7	1.7	0.5
시청각 및 상호 작용적 미디어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J59111	198	34	1	2	0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J59112	145	70	8	5	0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J59113	409	76	2	1	0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J59114	258	122	14	0	1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J59120	69	22	2	0	0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J59201	168	23	1	2	0
	녹음시설 운영업	J59202	206	13	0	0	0
	매니저업	M73901	123	34	1	2	0
	라디오 방송업	J60100	12	39	5	2	1
	지상파 방송업	J60210	32	20	20	23	5
	프로그램 공급업	J60221	33	36	13	7	1
	유선방송업	J60222	282	134	24	12	2
	위성 및 기타 방송업	J60229	25	8	1	2	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J59130	65	21	0	0	0
	영화관 운영업	J59141	125	155	63	7	1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J59142	1,104	0	0	0	0
	영화 및 비디오물 상영업	J59140	1,229	155	63	7	1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J63120	338	108	17	22	7
	소계		4,821	1,070	235	94	19
	비율		77.3	17.2	3.8	1.5	0.3
게임	영상게임기 제조업	C33402	41	8	1	0	0
	온라인·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8211	259	183	39	34	11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8219	110	48	8	2	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J62010	1,433	408	32	16	4
	전자게임장 운영업	R91221	1,128	2	0	0	0
	컴퓨터게임방 운영업	R91222	17,802	40	0	0	0
	소계		20,773	689	80	52	15

	비율		96.1	3.2	0.4	0.2	0.1
기타	문화 및 관광행정	O84212	28	18	4	5	2
	예술학원	P85620	41,580	289	7	1	0
	피아노 제조업	C33201	3	0	1	0	0
	현악기 제조업	C33202	51	9	0	1	0
	전자악기 제조업	C33203	14	16	2	2	0
	국악기 제조업	C33204	49	3	0	0	0
	기타악기 제조업	C33205	62	8	1	0	0
	악기소매업	G47593	1,159	7	0	0	0
	악기도매업	G46462	176	16	1	0	0
	사진장비 및 광학용품 도매업	G46493	798	98	13	6	1
	소계		43,920	464	29	15	3
	비율		98.8	1.0	0.1	0.0	0.0

자료 : 전국사업체 조사(통계청, 2009)

[그림 1.3.3] 종사자 규모별 문화예술분야 사업체(2009년 기준)

(단위: %)





문화예술분야 산출 및 성과지표

제1절 문화예술교육

제2절 문화예술인력

제3절 문화예술의 창작 · 제작 · 교류

제4절 문화예술의 매개 · 유통

제5절 문화예술의 소비 · 참여

제1절 문화예술교육

2.1 문화예술교육기관

2.1.1 정규교육기관의 수

- 『교육통계서비스 대학통계』에 따르면 전문대학과 기타대학을 포함한 대학 및 대학원의 2010년 기준 문화예술 관련 학과의 수는 5,011개로 전체 학과 수(33,192개) 대비 15.1%를 차지함
- 이 중 디자인(1295개)과 건축(939개)관련 학과가 약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영화·연예(719개), 음악(475개), 문학(398개), 미술(360개)의 차례대로 학과의 수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 문화 영역별로는 전통예술(국악)의 학과 수가 대학과 대학원을 포함하여 40개로 가장 적었음
 - 학과별로 음향(5개), 문화(12개), 미술(16개), 문예창작(17개) 등의 학과의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모두 전문대학과 기타대학에 속해있는 항목임

[표 2.1.1.1] 문화예술 정규교육기관의 수(2010년 기준)

(단위 : 개)

문화영역		학과명	대학	전문	기타	대학 계	대학원	총계
문화예술 관련 학과 총계			1,825	1,161	218	3,204	1,807	5,011
전통예술		국악	19			19	21	40
공연 예술	음악	음악		76		76		76
		기악	71			71	13	84
		성악	28			28	4	32
		음악학	65		4	69	99	168
		작곡	24			24	4	28
		음향		5		5		5
		기타음악	42		4	46	36	82
	연극	연극·영화	89	38	6	133	36	169
	무용	무용	53	5		58	45	103
시각 예술 및 공예	미술	미술		16		16		16
		순수미술	120		1	121	105	226
		응용미술	16			16	13	29
		조형	43	3	3	49	40	89
	사진	사진 및 만화	44	59	8	111	33	144
	공예	공예	35	27	5	67	32	99
	디자인	디자인일반	41		8	49	47	96
		시각디자인	74	55	14	143	26	169
		산업디자인	64	79	10	153	55	208
		패션디자인	57	63	8	128	31	159

	건축	기타디자인	172	317	21	510	153	663
		건축·설비공학	139	48	38	225	171	396
		건축학	158	166	33	357	112	469
		조경학	25	8	5	38	36	74
문학		국어·국문학	163		7	170	211	381
		문예창작		17		17		17
대중 예술	영화 연예	영상·예술	110	99	13	222	135	357
		언론·방송·매체학	129	68	12	209	153	362
기타		예체능교육	44		18	62	196	258
		문화		12		12		12
전체 학과 총계			10,865	6,683	1366	18,914	14,278	33,192
문화예술 관련 학과 비율			16.8	17.4	16.0	16.9	12.7	15.1

자료 : 교육통계서비스 대학통계 고등교육기관 소계열별 학과 수, 대학원 소계열별 학과수 (한국교육개발원, 2010)

주1) 전문대학의 경우, 음악과 미술 분야 학과 구분 없이 '음악'과 '미술'로 각각 통합되어 있음

주2) 연극·영화: 공연학부, 다중매체연기영상학, 무대미술, 무술연기, 방송연기, 방송연예, 연극공연학, 연극·영화·문화기획, 연극영화, 연극, 연기예술, 영화예술, 영화, 코미디연기 등

주3) 영상·예술: 공연영상, 공연예술, 멀티미디어영상, 미디어아트, 미용예술, 방송영상, 영상연출, 예술, 예술문화 영상 등

주4) 사진·만화: 디지털애니메이션, 만화애니메이션, 만화영상, 만화예술, 사진영상, 사진예술, 사진, 출판만화, 만화콘텐츠, 순수사진, 광고사진, 3D애니메이션 등

주5) 사진 관련 학과와 만화 관련 학과가 통합된 상태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각 장르의 학과수를 구별하기가 어려우므로 사진과 만화 학과를 분리하는 방안을 제안함

주6) 언론·방송·매체: 신문방송, 신문, 언론매체, 언론정보, 영상시나리오, 정보관리, 정보보완, 언론홍보, 문화커뮤니케이션, 공연미디어, 극작, 방송통신시스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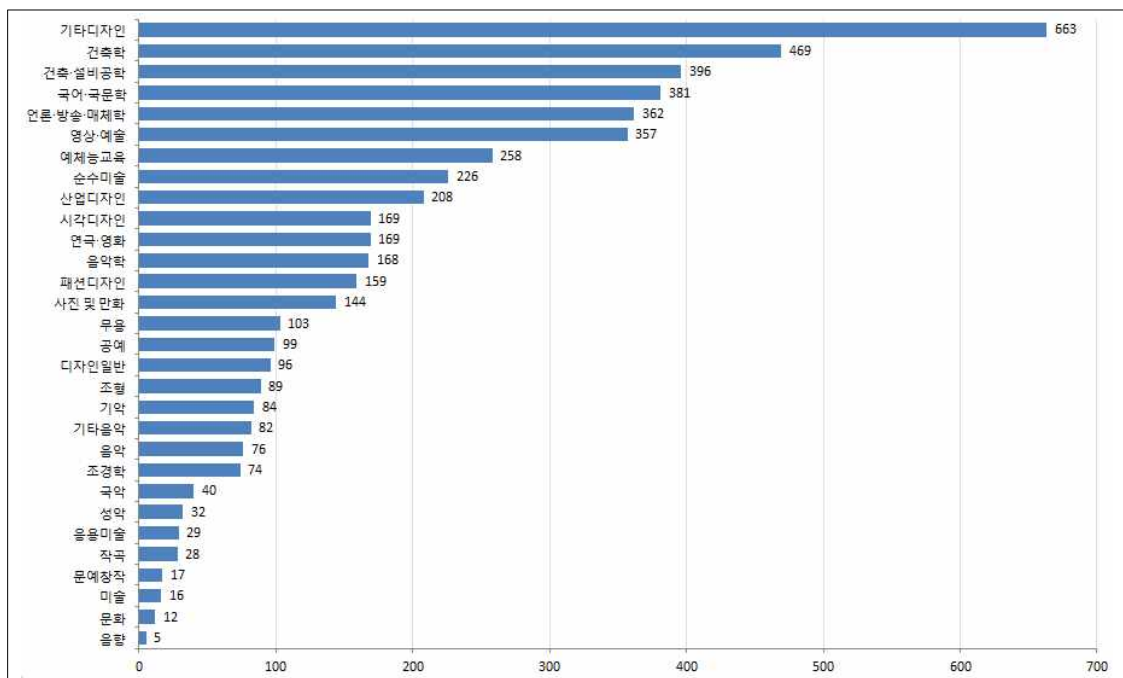
주7) 문화(전문대학): 국제문화, 다문화, 디지털박물관, 문화재, 민족문화, 아동문화, 창작문화, 독서문화콘텐츠, 다문화교류, 박물관큐레이터 등

주8) 전문대학의 경우, 음악과 미술 분야 학과 구분 없이 '음악'과 '미술'로 각각 통합되어 있음

주9) 기타에는 산업, 방송통신, 교육, 각종일반대학 등이 포함됨

[그림 2.1.1.1] 문화예술 관련 학과의 수(2010년 기준, 대학 및 대학원 합계)

(단위: 개)



- 문화예술 관련 대학 학과의 수는 2006년 3,385개에서 2010년 3,204개로 감소한 반면, 대학원의 수는 2006년 1,661개에서 2010년 1,807개로 증가하여 대학 및 대학원의 문화예술 관련 학과의 수는 2006년 총 5,046개에서 2010년 5,011개로 연평균 0.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대학의 경우 연극 관련 학과, 기타 문화예술 관련 학과, 음악 관련학과, 영화 및 연예 관련학과의 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부분 학과의 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대학원의 경우 사진 및 만화, 공예 관련 학과의 수는 감소한 반면, 대부분의 문화예술 관련 학과의 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학의 경우와 대조됨
- 문화예술 관련 학과의 총 수를 문화영역별로 살펴보면 시각예술 및 공예 관련 학과가 55~60%, 공연예술 관련 학과가 14~16%, 대중예술 관련 학과가 12~15%, 문학 관련 학과가 약 8%를 차지하고 있으며, 5%내외의 기타와, 1%의 전통예술이 그 뒤를 잇고 있음

[표 2.1.1.2] 문화영역별 문화예술 관련 대학 학과의 수 변화(2006, 2010년) (단위: 개, %)

문화영역		대학				연평균 증감률
		2006		2010		
		수	비율	수	비율	
문화예술 관련학과 총계		3,385	17.7	3,204	16.9	-1.4
전통예술	전통예술	19	0.6	19	0.6	0
공연예술	음악	303	9.0	319	10	1.3
	연극	104	3.1	133	4.2	6.3
	무용	60	1.8	58	1.8	-0.8
	소계	486	14.4	529	16.5	2.1
시각예술 및 공예	미술	210	6.2	202	6.3	-1
	사진 및 만화	138	4.1	111	3.5	-5.3
	공예	79	2.3	67	2.1	-4
	디자인	1,131	33.4	983	30.7	-3.4
	건축	669	19.8	620	19.4	-1.9
	소계	2,227	65.8	1,983	61.9	-2.9
문학	문학	209	6.2	187	5.8	-2.7
대중예술	영화·연예	407	12.0	431	13.5	1.4
기타	기타	56	1.7	74	2.3	7.2
전체학과 총계		19,118		18,914		-0.3

자료 : 교육통계서비스 대학통계 고등교육기관 소계열별 학과 수, 대학원 소계열별 학과수(한국교육개발원, 2006; 2010)

[표 2.1.1.3] 문화영역별 문화예술 관련 대학원 학과의 수 변화

(단위: 개, %)

문화영역		대학원				
		2006		2010		연평균 증감률
		수	비율	수	비율	
문화예술 관련학과 총계		1,661	12.9	1,807	12.7	2.1
전통예술	전통예술	17	1	21	1.2	5.4
공연예술	음악	137	8.2	156	8.6	3.3
	연극	29	1.7	36	2	5.6
	무용	42	2.5	45	2.5	1.7
	소계	225	13.5	258	14.3	3.5
시각예술 및 공예	미술	150	9	158	8.7	1.3
	사진 및 만화	36	2.2	33	1.8	-2.2
	공예	37	2.2	32	1.8	-3.6
	디자인	287	17.3	312	17.3	2.1
	건축	295	17.8	319	17.7	2
	소계	805	48.5	854	47.3	1.5
문학	문학	193	11.6	211	11.7	2.3
대중예술	영화·연예	246	14.8	288	15.9	4
기타	기타	192	11.6	196	10.8	0.5
전체학과 총계		12,855		14,278		2.7

자료 : 교육통계서비스 대학통계 고등교육기관 소계열별 학과 수, 대학원 소계열별 학과수(한국교육개발원, 2006; 2010)

[표 2.1.1.4] 문화영역별 문화예술 관련 학과의 수 변화(대학 및 대학원 총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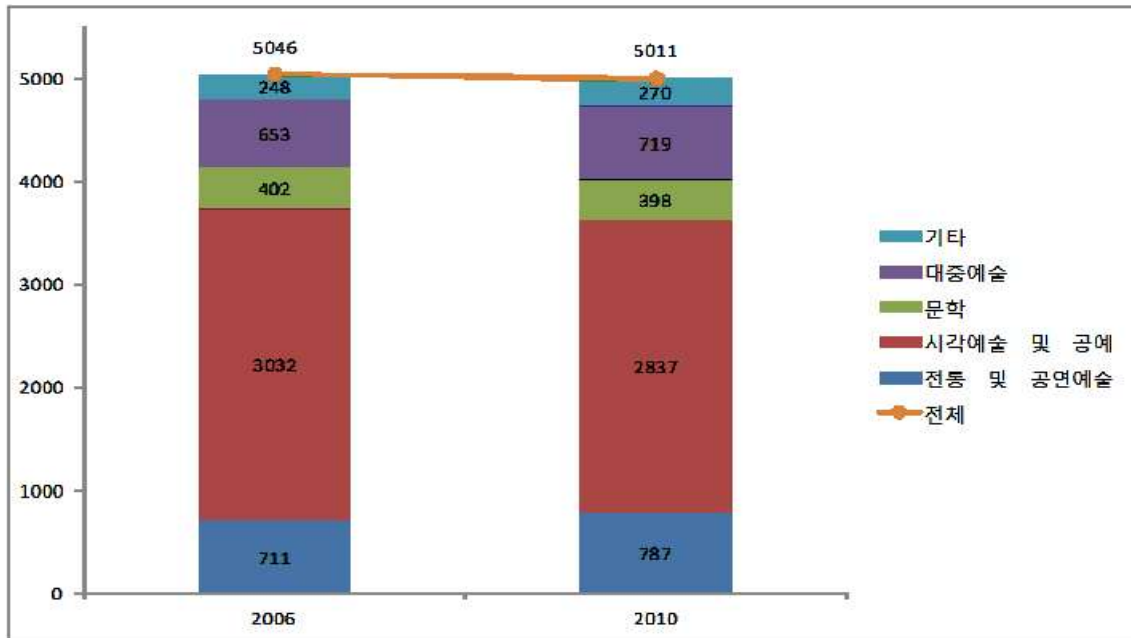
(단위: 개, %)

문화영역		대학 + 대학원				연평균 증감률
		2006		2010		
		수	비율	수	비율	
문화예술 관련학과 총계		5,046	15.8	5,011	15.1	-0.2
전통예술	전통예술	36	0.7	40	0.8	2.7
공연예술	음악	440	8.7	475	9.5	1.9
	연극	133	2.6	169	3.4	6.2
	무용	102	2	103	2	0.2
	소계	711	14	787	15.7	2.6
시각예술 및 공예	미술	360	7.1	360	7.2	0
	사진 및 만화	174	3.4	144	2.9	-4.6
	공예	116	2.3	99	2	-3.9
	디자인	1418	28.1	1295	25.8	-2.2
	건축	964	19.1	939	18.7	-0.7
	소계	3032	60	2,837	56.6	-1.6
문학	문학	402	8	398	7.9	-0.2
대중예술	영화·연예	653	12.9	719	14.3	2.4
기타	기타	248	4.9	270	5.4	2.1
전체 학과 총계		31,973		33,192		0.9

자료 : 교육통계서비스 대학통계 고등교육기관 소계열별 학과 수, 대학원 소계열별 학과수(한국교육개발원, 2006;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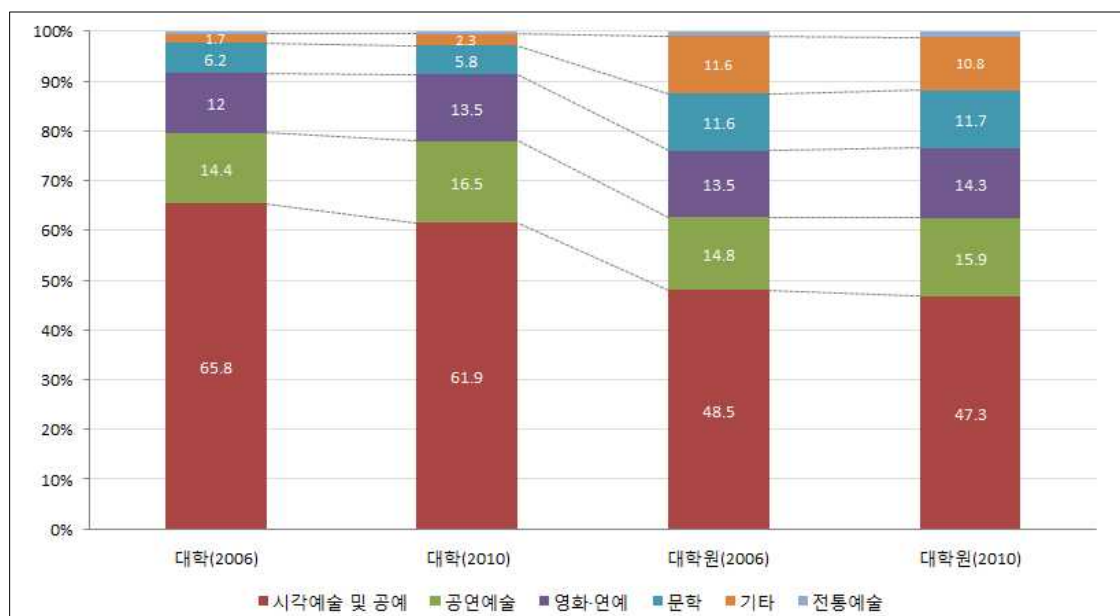
[그림 2.1.1.2] 문화영역별 문화예술 관련 학과의 수(2006, 2010년)

(단위 : 개)



[그림 2.1.1.3] 문화영역별 문화예술 관련 학과의 수(대학, 대학원 포함2006, 2010년)

(단위 : 개)



2.1.2 비정규교육기관의 수

○ 『전국사업체조사』에 따르면 문화예술 비정규교육기관인 예술학원의 수는 200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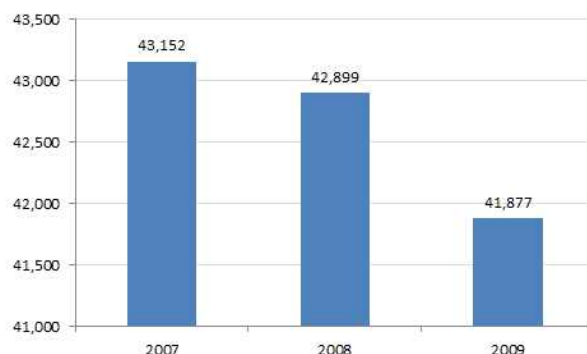
43,152개에서 2008년 42,899개, 2009년 41,877개로 연평균 1.49%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2.1.2] 전국 예술학원의 수 (단위: 개)

	예술학원
2007	43,152
2008	42,899
2009	41,877
연평균 증가율	-1.49%

자료 : 전국사업체 조사 (통계청, 2007; 2008; 2009)

[그림 2.1.2] 전국 예술학원의 수



2.2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2.2.1 문화예술교육과정 재적학생 수

- 『교육통계서비스 대학통계』에 의하면 2010년 기준 대학의 문화예술 관련 학과의 재적학생 수는 총 435,134명으로 전체 대학 재적학생 수의 약 17.3%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재적학생의 수는 기타 디자인(55,585명)이 13.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건축학이 48,154명으로 11.3%, 국어·국문학이 41,196명으로 9.7%, 영상·예술과 언론·방송·매체학이 각각 32,543명, 32,631명으로 7.7%, 건축·설비공학이 281,777명으로 6.8%를 차지함
- 한편 대학원의 경우 문화예술 관련 학과 박사과정의 수는 5,022명, 석사과정의 수의 34,133명으로 총 39,155명이 재학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 학과 대학원 재학생의 약 12.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예체능교육, 언론·방송·매체학, 영상·예술, 국어·국문학, 음악학, 기타디자인, 건축·설비공학, 건축학과 대학원생의 수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대학과 대학원을 모두 포괄한 문화예술관련 학과의 재적학생의 수는 464,289명으로 전체학생(2,774,703명)의 16.7%로 나타남
 - 기타 디자인 관련 학과 재적학생의 수가 58,60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건축학, 국어국문학, 언론·방송·매체학, 영상 및 예술학과 재적학생의 수도 높은 비율을 차지함.
 - 반면, 미술, 음향, 문화 관련 학과 학생의 수가 가장 낮게 나타남

[표 2.2.1.1] 대학 및 대학원의 문화예술관련 학과 학생 수(2010년 기준)

(단위: 명, %)

구 분		대 학		대 학 원				총 계	
				박사과정		석사과정			
전체 학생 수		2,458,070		53,533		263,100		2,774,703	
문화예술 관련학과 학생 수 (전체 학생수 대비 비율)		425,134 (17.3)		5,022 (9.4)		34,133 (13.0)		464,289 (16.7)	
문화영역	학과명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전통예술		국악	2,333	0.5	93	1.9	366	1.1	2,792
공연예 술	음악	음악	8,106	1.9		0.0		0.0	8,106
		기악	8,821	2.1	0	0.0	417	1.2	9,238
		성악	3,288	0.8	0	0.0	59	0.2	3,347
		음악학	11,580	2.7	422	8.4	2,740	8.0	14,742
		작곡	2,201	0.5	0	0.0	25	0.1	2,226
		음향	793	0.2		0.0		0.0	793
		기타음악	7,170	1.7	29	0.6	964	2.8	8,163
	연극	연극·영화	16,446	3.9	37	0.7	385	1.1	16,868
	무용	무용	5,660	1.3	180	3.6	573	1.7	6,413
시각예 술 및 공예	미술	미술	607	0.1		0.0		0.0	607
		순수미술	15,889	3.7	303	6.0	2,044	6.0	18,236
		응용미술	1,561	0.4	32	0.6	126	0.4	1,719
		조형	4,977	1.2	184	3.7	661	1.9	5,822
	사진	사진 및 만화	11,834	2.8	27	0.5	367	1.1	12,228
	공예	공예	6,364	1.5	6	0.1	360	1.1	6,730
	디자인	디자인일반	9,377	2.2	247	4.9	1,292	3.8	10,916
		시각디자인	17,499	4.1	13	0.3	317	0.9	17,829
		산업디자인	17,681	4.2	36	0.7	457	1.3	18,174
		패션디자인	14,525	3.4	20	0.4	317	0.9	14,862
		기타디자인	55,585	13.1	437	8.7	2,583	7.6	58,605
	건축	건축·설비공학	28,777	6.8	512	10.2	2,256	6.6	31,545
		건축학	48,154	11.3	282	5.62	1502	4.4	49,938
조경학		6,615	1.6	90	1.79	446	1.3	7,151	
문학		국어·국문학	41,196	9.7	1136	22.6	2,513	7.4	44,845
		문예창작	1,401	0.3		0.0		0.00	1,401
대중예 술	영화	영상·예술	32,543	7.7	407	8.1	2,959	8.7	35,909
	연예	언론·방송·매체학	32,631	7.7	434	8.6	2,974	8.7	36,039
기타		예체능교육	10,400	2.4	95	1.9	7,430	21.8	17,925
		문화	1,120	0.3		0.0		0.0	1,120

자료 : 교육통계서비스 대학통계 고등교육기관 소계열별 학생 수, 대학원 소계열별 학생 수(한국교육개발원, 2010)

주1) 각 학과 재적학생 수의 비율은 문화예술 관련 학과 학생 총 수의 비율을 의미

- 2010년 기준 대학의 문화예술 관련 학과의 재적학생 수는 총 435,134명(전체 대학 재적학생 수의 약 17.3%)의 이며, 재학생이 294,112명, 휴학생이 131,022명으로 휴학생의 비율이 30.8%에 달함
- 특히 휴학생의 비율이 높은 학과는 음향(42.6%), 건축·설비와 건축(40%), 연극·영화(35.8%) 등으로 나타났으며, 미술 관련 학과의 휴학생 비율이 8.7%로 가장 낮게 나타남

[표 2.2.1.2] 대학의 문화예술관련 학과 학생 수(2010년 기준)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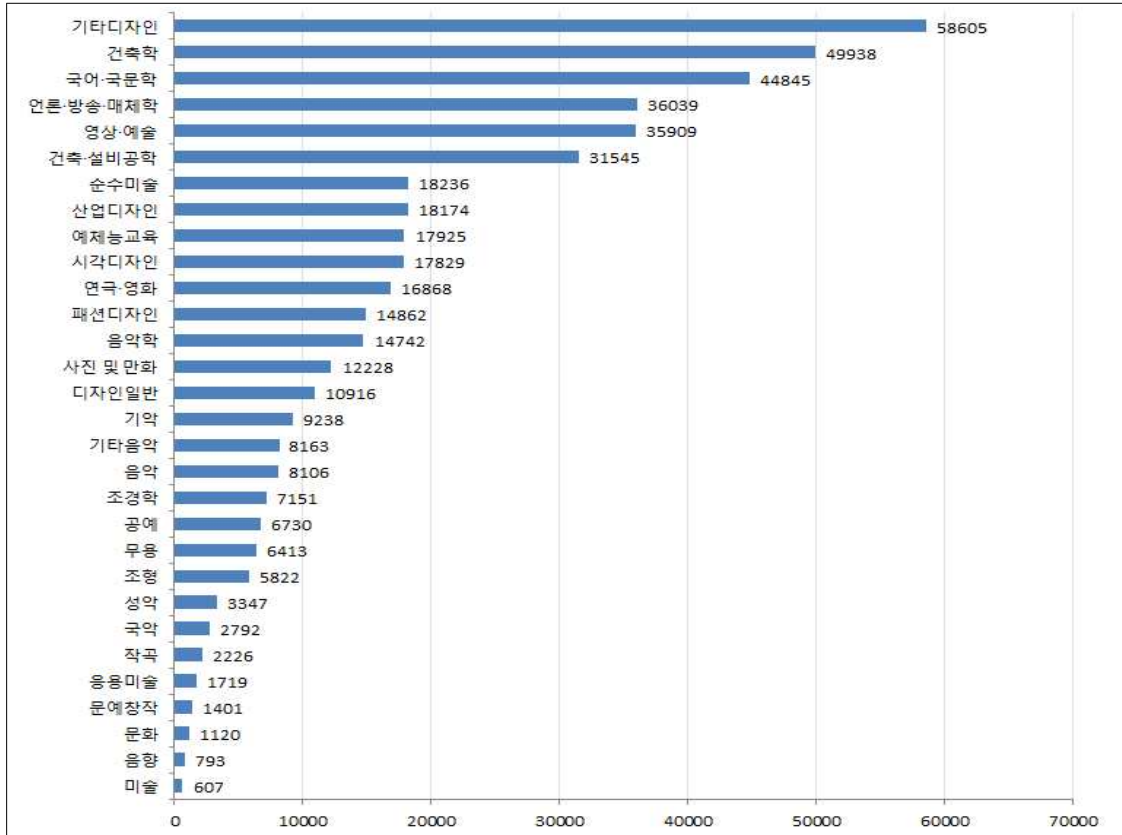
		대학					
		재적학생	재학생 (재적대비 비율)		휴학생(재적대비 비율)		
전체 학생 수		2,458,070	1,680,017(68.3)		778,053(31.7)		
문화예술 관련학과 학생 수		425,134	294,112 (69.2)		131,022 (30.8)		
문화영역		학과명	수	수	비율	수	비율
전통예술		국악	2,333	1,903	81.6	430	18.4
공연 예술	음악	음악	8,106	5,316	65.6	2,790	34.4
		기악	8,821	7,475	84.7	1,346	15.3
		성악	3,288	2,560	77.9	728	22.1
		음악학	11,580	9,298	80.3	2,282	19.7
		작곡	2,201	1,730	78.6	471	21.4
		음향	793	455	57.4	338	42.6
		기타음악	7,170	5,095	71.1	2,075	28.9
	연극	연극·영화	16,446	10,564	64.2	5,882	35.8
	무용	5,660	4,638	81.9	1,022	18.1	
시각 예술 및 공예	미술	미술	607	554	91.3	53	8.7
		순수미술	15,889	12,537	78.9	3,352	21.1
		응용미술	1,561	1,273	81.6	288	18.4
		조형	4,977	3,854	77.4	1,123	22.6
	사진	사진 및 만화	11,834	7,551	63.8	4,283	36.2
	공예	공예	6,364	4,813	75.6	1,551	24.4
	디자인	디자인일반	9,377	7,246	77.3	2,131	22.7
		시각디자인	17,499	12,470	71.3	5,029	28.7
		산업디자인	17,681	11,654	65.9	6,027	34.1
		패션디자인	14,525	10,746	74.0	3,779	26.0
		기타디자인	55,585	37,463	67.4	18,122	32.6
	건축	건축·설비공학	28,777	17,184	59.7	11,593	40.3
		건축학	48,154	28,907	60.0	19,247	40.0
		조경학	6,615	4,530	68.5	2,085	31.5
문학		국어·국문학	41,196	29,273	71.1	11,923	28.9
		문예창작	1,401	1,095	78.2	306	21.8
대중 예술	영화	영상·예술	32,543	22,429	68.9	10,114	31.1
	연예	언론·방송·매체학	32,631	22,177	68.0	10,454	32.0
기타		예체능교육	10,400	8,525	82.0	1,875	18.0
		문화	1,120	797	71.2	323	28.8

자료 : 교육통계서비스 대학통계 고등교육기관 소계열별 학생 수(한국교육개발원, 2010)

주1) 각 학과 재학생 및 휴학생 수의 비율은 각 학과 재적학생 수의 비율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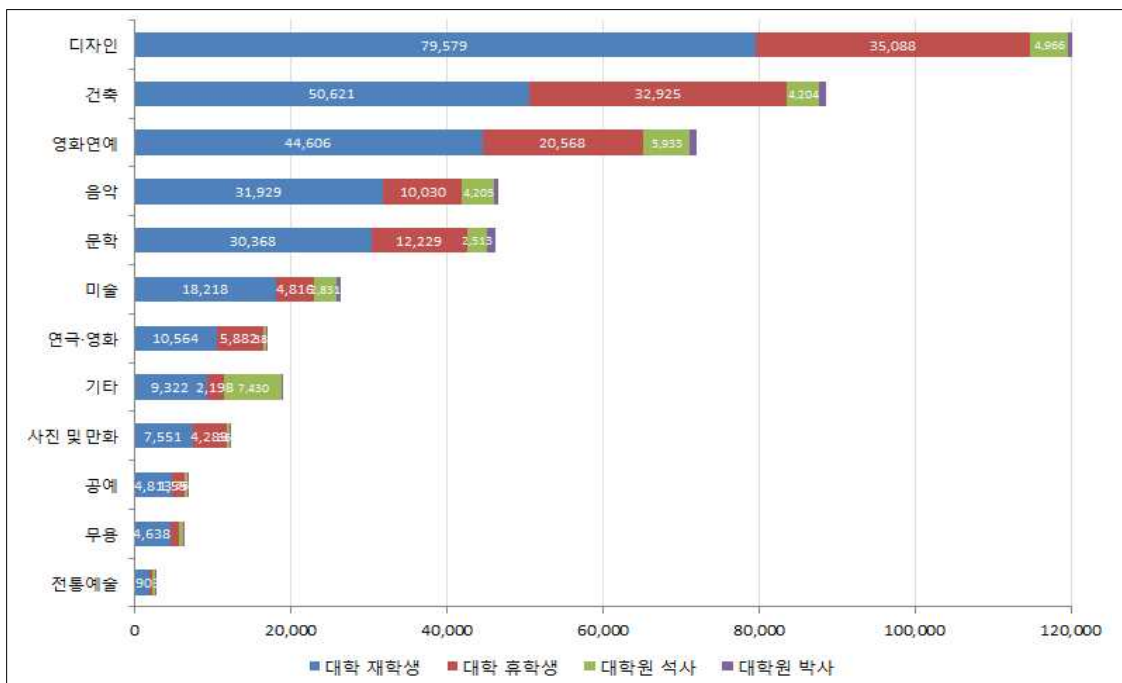
[그림 2.2.1.1] 문화예술관련 학과 재적학생 수(대학 및 대학원 총합)(2010년 기준)

(단위: 명)



[그림 2.2.1.2] 문화예술분야별 문화예술관련 학과 재적학생 수(2010년 기준)

(단위: 명)



- 문화예술관련 대학 및 대학원의 재적학생의 수는 2006년 3,477,453명에서 2010년 2,774,703명으로 연평균 0.14% 감소하였으며, 이는 전체 학과 재적학생의 연평균 감소율인 5.49%보다는 낮게 나타남
- 재적학생의 연평균 증가율이 높게 나타난 학과는 연극, 음악, 영화·연예, 기타로 나타났으며, 감소율이 높게 나타난 학과는 사진 및 만화, 공예, 무용학과로 나타남
- 문화영역별로는 대중예술과 공연예술, 기타 영역 재적학생의 수는 증가했으나 시각예술 및 공예, 전통예술, 문학 영역의 재적학생의 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2.2.1.3] 문화영역별 문화예술관련 학과 재적학생의 수(2006, 2010년) (단위: 명, %)

		2006				2010				연평균 증감률
문화영역		대학	대학원	총계	비율	대학	대학원	총계	비율	
전체학과 총계		3,187,424	290,029	3,477,453		2,458,070	316,633	2,774,703		-5.49
문화예술관련학과 총계		430,907	36,001	466,908	13.4	425,134	39,155	464,289	16.7	-0.14
전통예술	전통예술	2,470	380	2,850	0.6	2,333	459	2,792	0.6	-0.51
공연예술	음악	40,044	3,367	43,411	9.3	41,959	4,656	46,615	10.0	1.80
	연극	12,163	406	12,569	2.7	16,446	422	16,868	3.6	7.63
	무용	6,272	707	6,979	1.5	5,660	753	6,413	1.4	-2.09
	소계	60,949	4,860	65,809	14.1	66,398	6,290	72,688	15.7	2.52
시각예술 및 공예	미술	24,144	2,414	26,558	5.7	23,034	3,350	26,384	5.7	-0.16
	사진 및 만화	13,644	545	14,189	3.0	11,834	394	12,228	2.6	-3.65
	공예	7,132	478	7,610	1.6	6,364	366	6,730	1.4	-3.03
	디자인	117,888	4,959	122,847	26.3	114,667	5,719	120,386	25.9	-0.50
	건축	91,233	5,015	96,248	20.6	83,546	5,088	88,634	19.1	-2.04
	소계	254,041	13,411	267,452	57.3	239,445	14,917	254,362	54.8	-1.25
문학	문학	45,404	2,876	48,280	10.3	42,597	3,649	46,246	10.0	-1.07
대중예술	영화연예	61,276	5,979	67,255	14.4	65,174	6,774	71,948	15.5	1.70
기타	기타	9,237	8,875	18,112	3.9	11,520	7,525	19,045	4.1	1.26

자료 : 교육통계서비스 대학통계 고등교육기관 소계열별 학생수(한국교육개발원, 2006; 2010)

주1) 각 학과 재적학생 수 비율은 문화예술 관련 학과 학생 총 수의 비율을 의미

주2) 문화예술 관련 학과 전체 학생 수의 비율은 전체학과 학생 총 수의 비율을 의미

[그림 2.2.1.3] 문화영역별 문화예술 관련 학과별 재적학생의 비율 변화 (2006-2010)

(단위:%)



2.2.2.1. 해외 주요국과의 비교 : 문화예술교육참여자

- Eurostat에서 작성하는 『Cultural Statistics』 자료에 따르면, 전문대 이상의 고등교육 과정 학생 중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에 재학 중인 이들의 수와 전체 학생 중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재학생의 비율은 아래와 같이 나타남
- 교육영역별로 살펴보면 인문학 과정(humanities) 재학생의 비율이 4~12%로 가장 크게 나타나며, 건축 과정(architecture & building), 예술 과정(Arts), 언론 및 정보 과정 (Journalism & Information)의 순으로 나타남
 - 교육 영역별 세부 학과 분류는 다음과 같음

[표 2.2.2.1] EU의 문화관련 교육영역의 분류 기준

	EURO STAT(ISCED 97의 교육영역 범주 안)	한국(교육통계 서비스 2006년 자료 활용)
인문학	종교, 외국어, 모국어, 역사, 고고학, 철학, 윤리	국어 · 국문학, 문예창작
예술	미술, 음악 및 예술공연, 오디오-비주얼 기술 및 미디어 제작, 디자인, 공예	국악, 음악, 기악, 성악, 음악학, 작곡, 음향, 기타 음악, 연극 · 영화, 무용, 미술, 순수미술, 응용미술, 조형, 사진 및 만화, 공예, 디자인일반, 시각디자인, 산업디자인, 패션디자인, 기타 디자인
언론정보	저널리즘, 보도, 도서관, 정보, 아카이브	영상 · 예술, 언론 · 방송 · 매체학
건축학	건축학, 도시계획, 건축, 토목공학	건축학 (건축 · 설비공학, 건축학, 조경학)

- 인문학(humanities) 관련 교육과정 재학생의 수는 독일이 261,606명(11.7%), 프랑스가 238,305명(11%), 영국이 232,661명(10%)으로 크게 나타남
- 예술(Arts) 관련 교육과정 재학생은 한국이 283,416명(8.6%)로 가장 많으며, 영국이 158,888명(6.8%), 프랑스가 90,412명(4.2%)으로 크게 나타남
 - 각국의 인구 규모를 고려하여 인구 백만명 당 예술 관련 교육과정 재학생의 수를 구해본 결과에서도 역시 한국이 4,936명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영국이 2,606명, 스웨덴이 1,972명, 스페인이 1,901명으로 높게 나타남
- 언론 및 정보 관련 교육과정 재학생의 수에서도 한국이 71,948명(2.6%)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이탈리아가 53,219명(2.6%), 영국이 47,967명(2.1%)으로 크게 나타남
- 건축 관련 교육과정 재학생의 수는 이탈리아가 125,931명(6.3%), 스페인이 101,598명(5.7%), 한국이 88,634명(3.2%)로 나타남

[표 2.2.2.1] 문화관련 교육영역의 전문대 이상 재적 학생 수 (단위: 명, %)

	인문학		예술		언론 정보		건축 및 건물	
	학생 수(명)	%	학생 수(명)	%	학생 수(명)	%	학생 수(명)	%
	인구 백만명 당 재적학생 수		인구 백만명 당 재적학생 수		인구 백만명 당 재적학생 수		인구 백만명 당 재적학생 수	
EU-27개국	1,662,981	8.7	724,225	3.8	309,081	1.6	741,564	3.9
독일	261,606	11.7	79,974	3.6	25,794	1.1	81,109	3.6
	3,183		973		314		987	
스페인	100,835	5.7	84,552	4.7	27,390	1.5	101,598	5.7
	2,267		1,901		616		2,284	
프랑스	238,305	11.0	90,412	4.2	30,152	1.4	50,160	2.3
	3,846		1,459		487		809	
이탈리아	190,190	9.4	80,123	4.0	53,219	2.6	125,931	6.3
	3,216		1,355		900		2,130	
네덜란드	24,703	4.1	26,214	4.4	4,500	0.7	20,397	3.4
	1,508		1,600		275		1,245	
스웨덴	23,273	8.7	18,044	4.4	7,394	1.8	12,770	3.1
	2,544		1,972		808		1,396	
영국	232,661	10.0	158,888	6.8	47,967	2.1	73,924	3.2
	3,816		2,606		787		1,212	
한국	-	-	283,416	8.6	71,948	2.6	88,634	3.2
	-		4,936		1,269		1,889	

자료1) EU 국가 : Cultural Statistics(Eurostat, 2011), 원자료 : UOE 자료(2007년 기준)

자료2) 한국 : 교육통계서비스 대학통계 고등교육기관 소계별 학생 수, 대학원 소계별 학생 수(2010년 기준)

자료3) 각국 인구수: IMF, World Economics Outlook Database.(EU는 2007년 기준, 한국은 2010년 기준)

주1) 3차 교육의 학생(Tertiary students): ISCED 97 level 5와 6 수준에 해당하는 전문대생 이상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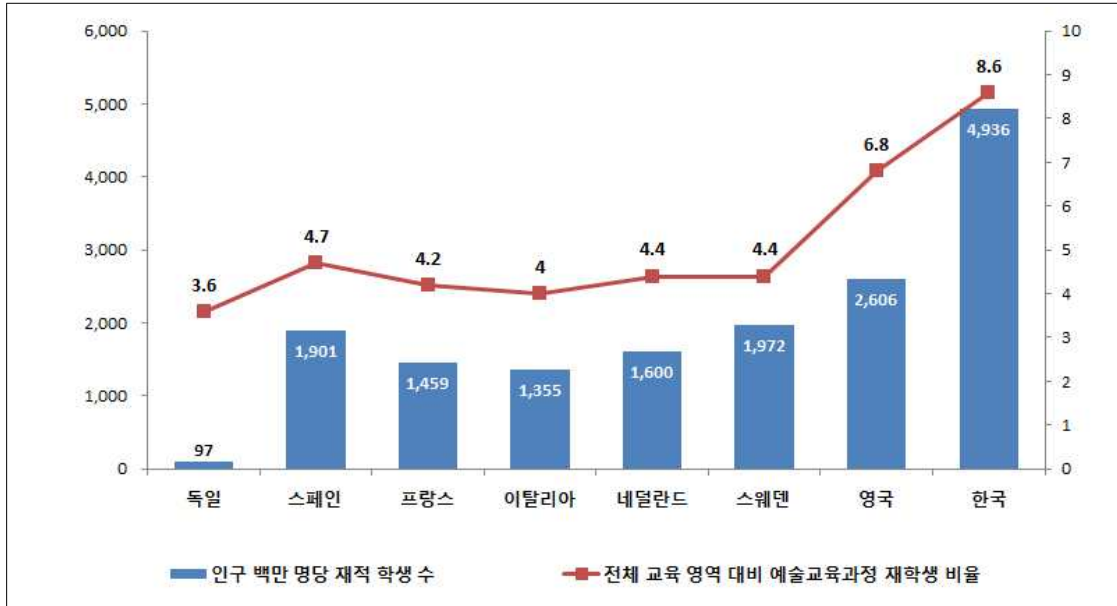
주2) 비율: 전 교육영역 학생 수 대비 각 문화 관련 영역의 전문대 이상 교육기관의 재적학생 수

주3) EU-27개국 값은 Eurostat 추정치임

주4) 인구 백만명 당 재적학생 수 = (재적학생 수/각국 인구수)*백만명

[그림 2.2.2.1] EU와 한국의 예술 교육과정(전문대 이상) 재학생 수와 비율 비교

(단위: 명, %)



2.2.2 문화예술교육과정 졸업생 수

- 『교육통계서비스 취업통계』에 따르면 2010년 기준 문화예술 관련 학과 졸업생 수는 69,762명으로 전체 졸업생(511,510명)의 13.64%를 차지함
 - 이 중 문화예술 관련 학사 졸업생 수는 65,114명으로 2006년에 비해 감소하였고, 대학원 석박사 졸업생 수는 4,648명으로 2006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공별로 살펴보면 디자인(21,237명) 건축(11,330명)분야 졸업생 수는 총 32,567명으로 문화예술 관련학과 졸업생 수의 46.7%를 차지하며, 언론·방송·매체학(5,286명), 국어·국문학(5,292명), 영상·예술(3,673명), 순수미술(3,401명), 음악학(2,599명), 음악(2,099명), 연극·영화(2,005명), 기악(1,832명)으로 나타나 문학과 음악분야 졸업생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2.2.2.1] 문화예술관련 학과 졸업생 수(2006, 2010년)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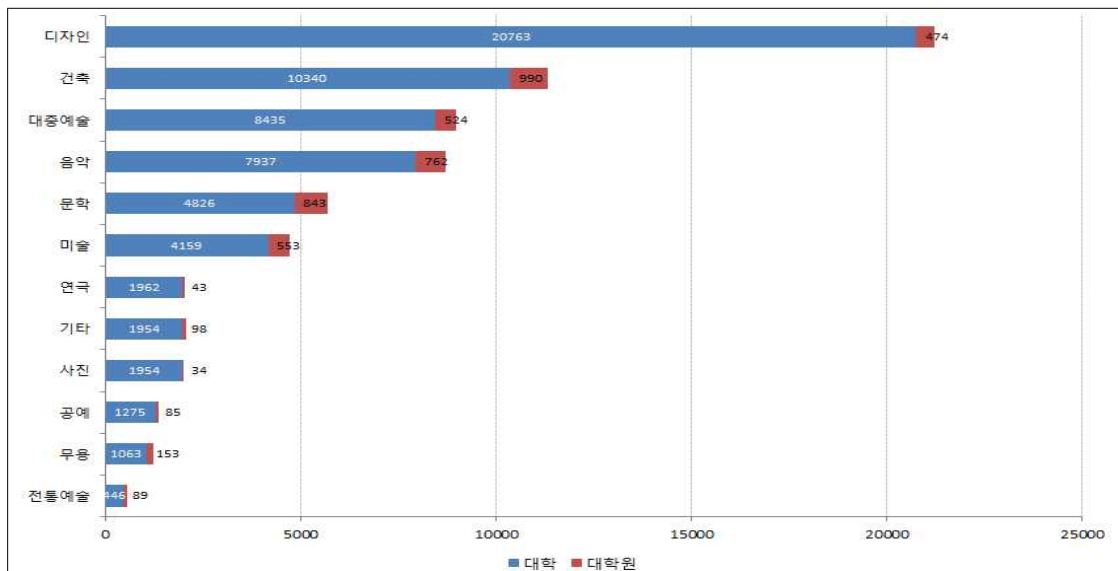
문화영역		학과명	2006				2010			
			대학	전문	계	대학원 계	대학	전문	계	대학원 계
문화예술관련학과 졸업생 수			38,030	35,307	73,337	3,771	39,557	25,557	65,114	4,648
전체 졸업생 수			270,546	222,973	493,519	34,875	280,341	190,033	470,374	41,136
문화예술관련학과졸업생비율			14.06	15.83	14.86	10.81	14.11	13.45	13.84	11.30
전통예술		국악	469		469	53	446		446	89
공연 예술	음악	음악		2,566	2,566			2,099	2,099	
		기악	1,716		1,716	42	1,781		1,781	51

		성악	644		644	10	616		616	10
		음악학	1,867		1,867	616	1,935		1,935	664
		작곡	403		403	4	416		416	1
		음향		120	120			156	156	
		기타음악	664		664	32	934		934	36
	연극	연극·영화	961	594	1,555	33	1,269	693	1,962	43
	무용	무용	982	218	1,200	109	968	95	1,063	153
시각 예술 및 공예	미술	미술		452	452			221	221	
		순수미술	2,934		2,934	432	2,986		2,986	415
		응용미술	202		202	47	244		244	34
		조형	665		665	64	594	114	708	104
	사진	사진 및 만화	718	1,824	2,542	17	827	1,127	1,954	34
	공예	공예	724	448	1,172	112	643	632	1,275	85
	디자인	디자인일반	890		890	83	1,074		1,074	189
		시각디자인	1,320	1,751	3,071	42	1,617	1,225	2,842	50
		산업디자인	1,357	3,729	5,086	62	1,527	1,778	3,305	68
		패션디자인	1,179	2,087	3,266	11	1,249	1,544	2,793	26
	기타디자인	2,638	9,905	12,543	80	3,061	7,688	10,749	141	
	건축	건축·설비공 학	4,172	1,236	5,408	552	3,024	614	3,638	574
		건축학	2,356	5,400	7,756	243	2,495	3,397	5,892	337
		조경학	525	439	964	67	594	216	810	79
	문학		국어·국문학	4,501		4,501	545	4,449		4,449
		문예창작		813	813		377	377		
대중 예술	영화 연예	영상·예술	1,523	1,666	3,189	79	1,726	1,812	3,538	135
		언론·방송· 매체학	3,091	1807	4,898	342	3,453	1,444	4,897	389
기타		예체능교육	1,529		1,529	94	1,629		1,629	98
		문화		252	252			325	325	

자료 : 교육통계서비스 취업통계 전공별 졸업상황(한국교육개발원,2006;2010)

[그림 2.2.2.1] 문화예술영역별 대학 및 대학원 졸업생 수(2010년 기준)

(단위: 명)



- 문화예술 관련 학과 졸업생의 수는 2006년 77,108명, 2010년 69,762명으로 연평균 2.4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 졸업생의 연평균 감소율인 0.81%보다 크게 나타남
- 분야별로는 시각예술 및 공예 분야 졸업생의 비율이 45~4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공연예술 분야가 22~24%, 대중예술 분야가 11% 내외, 문학 분야가 14~18%, 기타 분야가 2~3%, 전통예술 분야가 1~2%로 가장 낮게 나타남
- 2006년에 비해 2010년 문화예술 관련 학과 졸업생의 수는 대부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극(1,588 → 2,005), 공예(1,284 → 1,360), 기타 분야(1,875 → 2,052)의 경우 졸업생이 증가하였음
 - 디자인(25,134→21,237), 사진·만화(2,559 → 1,988), 건축(14,990 → 11,330) 등의 학과는 큰 폭으로 졸업생이 감소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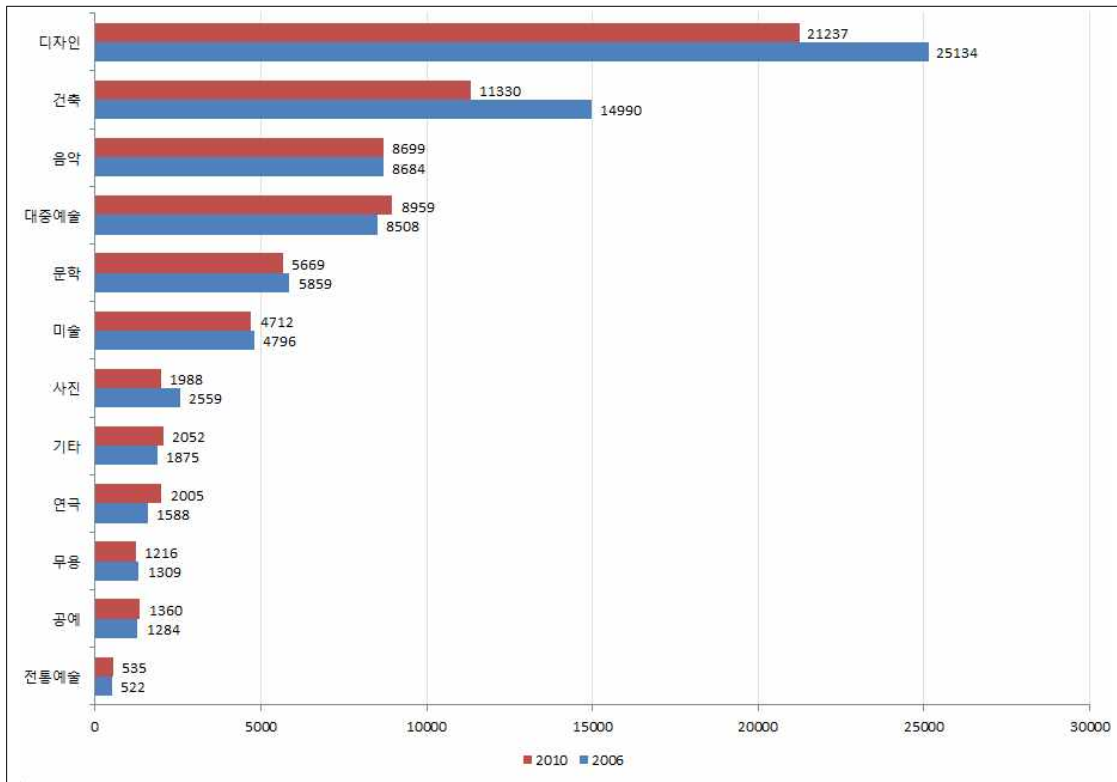
[표 2.2.2.2] 문화영역별 문화예술관련 학과 졸업생의 수 변화

(단위: 명, %)

문화영역		2006						2010						연평 균증 감률
		대학		대학원		총		대학		대학원		총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전체학과 총계		493,519		34875		528,394		470,374		41136		511,510		-0.81
문화예술관련학 과총계		73,337	14.9	3771	10.8	77,108	14.6	65,114	13.8	4648	11.3	69,762	13.6	-2.47
전통 예술	국악	469	0.64	53	1.41	522	0.7	446	0.68	89	1.91	535	0.8	0.62
공연 예술	음악	7,980	10.88	704	18.67	8,684	11.3	7,937	12.19	762	16.39	8,699	12.5	0.04
	연극	1,555	2.12	33	0.88	1,588	2.1	1,962	3.01	43	0.93	2,005	2.9	6.00
	무용	1,200	1.64	109	2.89	1,309	1.7	1,063	1.63	153	3.29	1,216	1.7	-1.83
	소계	11,204	15.28	899	23.85	12,103	15.7	11,408	17.52	1047	22.52	12,455	17.9	0.72
시각 예술 및 공예	미술	4,253	5.8	543	14.4	4,796	6.2	4,159	6.39	553	11.9	4,712	6.8	-0.44
	공예	1,172	1.6	112	2.97	1,284	1.7	1,275	1.96	85	1.83	1,360	1.9	1.45
	사진 만화	2,542	3.47	17	0.45	2,559	3.3	1,954	3	34	0.73	1,988	2.8	-6.12
	디자인	24,856	33.89	278	7.37	25,134	32.6	20,763	31.89	474	10.2	21,237	30.4	-4.12
	건축	14,128	19.26	862	22.86	14,990	19.4	10,340	15.88	990	21.3	11,330	16.2	-6.76
	소계	46,951	64.02	1812	48.05	48,763	63.2	38,491	59.11	2136	45.96	40,627	58.2	-4.46
문학	문학	5,314	7.25	545	14.45	5,859	7.6	4,826	7.41	843	18.14	5,669	8.1	-0.82
대중 예술	영화· 연예	8,087	11.03	421	11.16	8,508	11.0	8,435	12.95	524	11.27	8,959	12.8	1.30
기타	기타	1,781	2.43	94	2.49	1,875	2.4	1,954	3	98	2.11	2,052	2.9	2.28

자료 : 교육통계서비스 취업통계 대학 및 전문대학 전공별 졸업 상황(한국교육개발원, 2006)

[그림 2.2.2.2] 문화영역별 문화예술 관련 학과 졸업생의 수(대학 및 대학원 계, 2006-2010) (단위: 명)



2.2.3 문화예술교육 참여율

2.2.3.1 정규교육기관 문화예술교육 참여율

- 전반적으로 대학 졸업자의 수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대학원 졸업자의 수는 증가하고 있음
- 2010년 기준, 대학의 문화예술관련 졸업자의 수는 65,114명으로 2006년 대비 11.2% 감소했으며, 대학원 졸업자의 수는 4,648명으로 2006년 대비 23.3% 증가하여 전체 문화예술관련 졸업자의 수는 69,762명으로 2006년에 비해 9.5% 감소했음
- 전문대학 이상의 정규교육기관에서 문화예술 관련 교육을 받은 이들의 비율은 13.64%로 나타났으며, 이는 2006년에 비해 6.5% 감소한 수치임
- 요컨대 정규교육기관의 문화예술교육 참여율은 2006년에서 2010년까지 연평균 1.7%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2.2.3.1.1] 문화예술관련 졸업자 비율 (2006, 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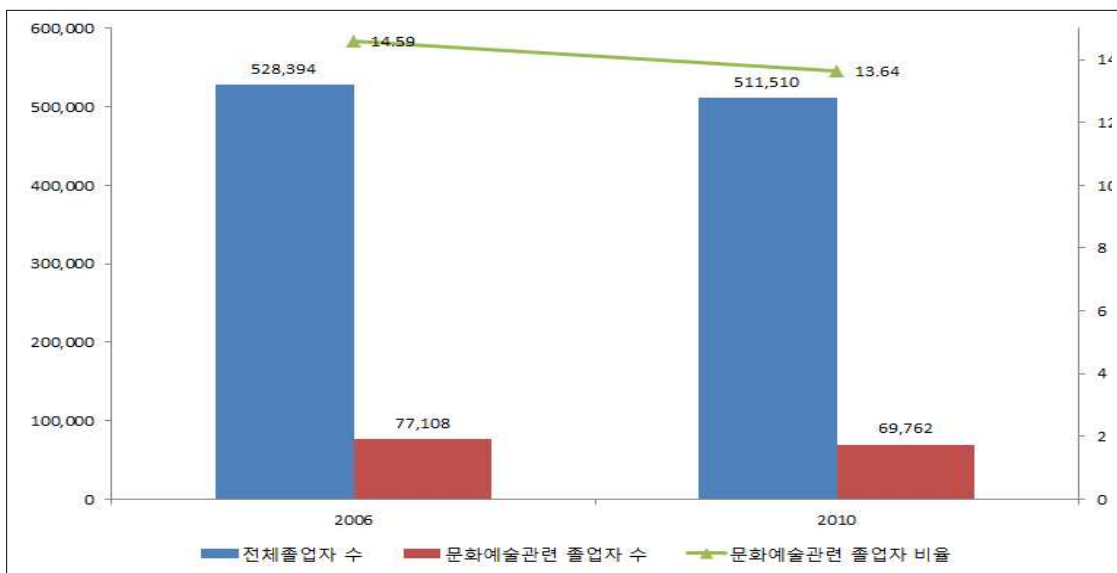
(단위: 명, %)

	2006	2010	2006년 대비 증감률	연평균증감률
대학 졸업자수	493,519	470,374	-4.7	-1.2
문화예술관련 졸업자 수	73,337	65,114	-11.2	-2.9
대학원 졸업자 수	34,875	41,136	18.0	4.2
문화예술관련 졸업자 수	3,771	4,648	23.3	5.4
전체졸업자 수(대학+대학원)	528,394	511,510	-3.2	-0.8
문화예술관련 졸업자 수	77,108	69,762	-9.5	-2.5
문화예술관련 졸업자 비율	14.59	13.64	-6.5	-1.7

자료 : 교육통계서비스 취업통계 대학 및 전문대학 전공별 졸업 현황(한국교육개발원,2006;2010)

[그림 2.2.3.1.1] 문화영역별 문화예술관련 학과 졸업생 수와 비율(2006, 2010년)

(단위: 명, %)



- 한편 『문화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문화예술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예술인 중에서 대학 또는 대학원 등의 정규교육기관에서 예술관련학과를 전공한 이들의 비율은 2003년 59.9%, 2006년 61.8%, 2009년 56.1%로 2003년 대비 감소하였음
- 또한 현재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분야와 예술인의 최종학력의 전공이 일치한다고 응답한 비율 역시 2003년 58.1%, 2006년 60.2%, 2009년 55.8%로 2003년 대비 감소하였음
- 이러한 결과는 문화예술인력의 상당수가 정규교육과정을 통한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지 않았음을 시사함

[표 2.2.3.1.2] 예술인의 예술관련학과 전공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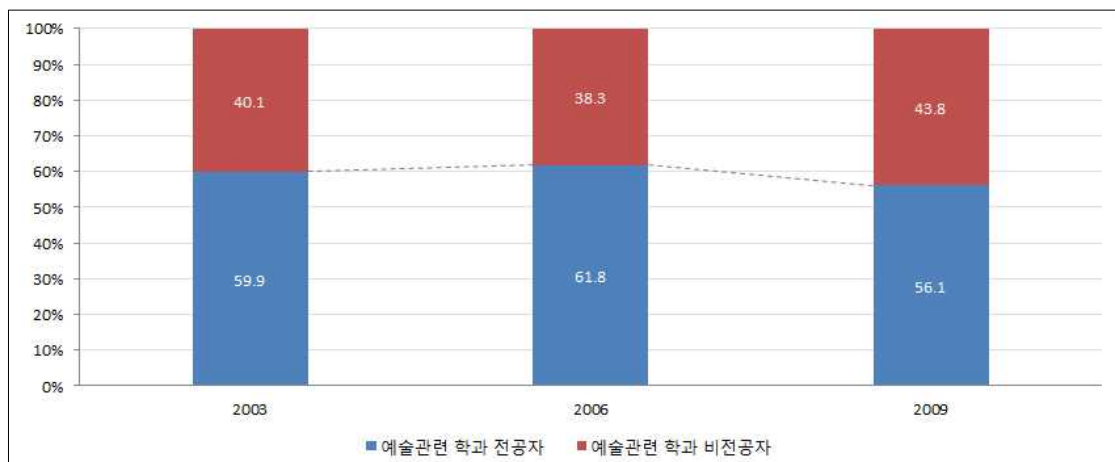
(단위 : 명, %)

	2003		2006		2009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예술관련 학과 전공자	1,167	59.9	1,235	61.8	1,121	56.1
예술관련 학과 비전공자	780	40.1	765	38.3	875	43.8

자료 : 문화예술인 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2003;2006;2009)

[그림 2.2.3.1.2] 예술인의 대학 예술관련 학과 전공 여부

(단위:%)



[표 2.2.3.1.3] 예술인의 최종학력 전공과 문화예술활동 분야 일치 정도

(단위 : 명, %)

	2003		2006		2009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일치	1,132	58.1	1,204	60.2	1,115	55.8
반반	263	13.5	349	17.5	155	7.8
불일치	504	25.9	401	20.1	643	32.2
비해당	48	2.5	46	2.3	87	4.4

자료 : 문화예술인 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03; 2006; 2009)

[그림 2.2.3.1.3] 예술인의 최종학력 전공과 문화예술 활동분야 일치 정도(2003-2009)

(단위 : %)



2.2.3.2 비정규교육기관 문화예술교육 참여율

- 『문화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원, 개인레슨, 외국 유학 등 비정규 교육기관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을 받은 이들은 2006년 1,364명(68.2%), 2009년 1,294명(64.7%)으로 나타남

- 2006년의 경우 학원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을 받은 이들이 1,086명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나 2009년에는 개인레슨을 받은 이들이 1,028명으로 가장 크게 나타남.
- 2009년 기준으로 비정규 문화예술교육 참여율은 개인레슨(51.4%), 학원(48.8%), 외국 유학(27.7%)의 순으로 나타남

[표 2.2.3.2] 문화예술인의 비정규 예술교육 경험률(2006-2009)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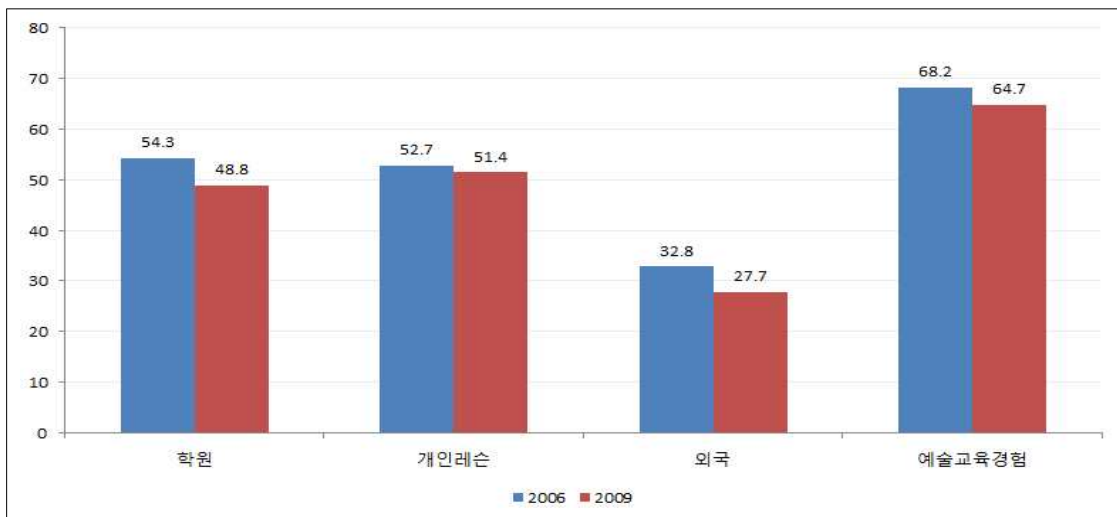
		2006		2009	
		수	비율	수	비율
비경험		636	31.8	706	35.3
경험		1,364	68.2	1,294	64.7
	학원	1,086	54.3	976	48.8
	개인레슨	1,054	52.7	1,028	51.4
	외국	656	32.8	554	27.7

자료 : 문화예술인 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06; 2009)

주1) 비정규교육기관에서의 문화예술교육 경험자에 대한 중복응답 결과임

주2) 비율은 전체응답자(2000명) 대비 비율임

[그림 2.2.3.2] 문화예술인의 비정규 예술교육 경험률(2006-2009) (단위: %)



2.3 문화예술교육 만족도

2.3.1 정규교육기관 문화예술교육 만족도

-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화예술 교육이 본인의 예술능력을 기르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다음의 [표 2.3.1.1]과 같이 응답함

- 초·중학교와 고등학교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효능감이 3점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대학 교육에 대해서는 모든 장르에 걸쳐 3.7~3.8점을 나타내고 있어, 대학에서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효능감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장르별로는 건축, 음악, 무용 교육에 대한 효능감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난 반면, 문학, 연극 교육에 대한 효능감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남

[표 2.3.1.1] 문화예술인의 정규 예술교육에 대한 효능감(2003-2009) (단위: 5점 Likert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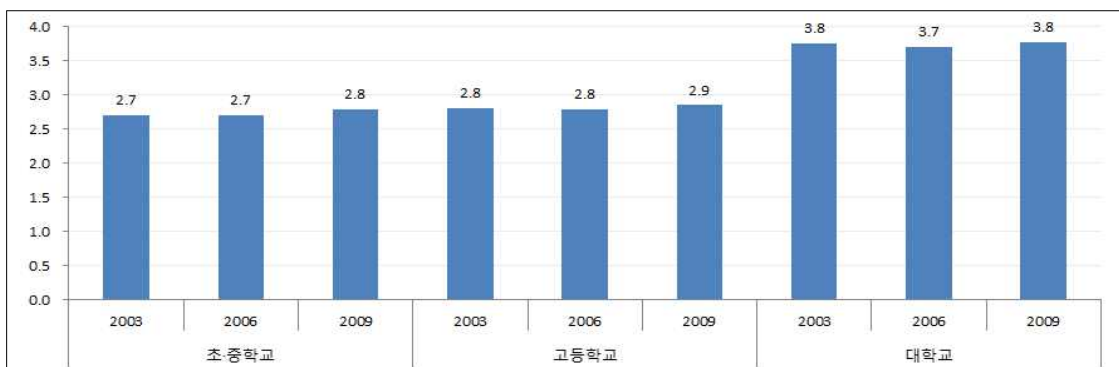
			전체	문학	미술	사진	건축	국악	음악	연극	무용	영화	대중예술
초·중학교	2003	응답	1,945	200	200	200	200	200	200	189	184	192	180
		점수	2.7	3.5	3.1	2.1	2.4	2.9	3	2.2	3.3	2	2.6
	2006	응답	1,994	199	199	200	200	198	200	199	200	199	200
		점수	2.7	3.1	3.2	2.5	2.5	2.7	3.1	2.4	3.0	2	2.5
	2009	응답	1,981	199	200	197	197	196	198	198	199	198	199
		점수	2.8	3	3	2.4	2.6	3	3.2	2.5	3.3	2.5	2.3
고등학교	2003	응답	1,899	188	200	197	200	182	200	186	179	189	178
		점수	2.8	3.4	2.8	2.2	2.4	3.2	3.4	2.3	3.6	2.2	2.7
	2006	응답	1,954	196	199	190	200	178	200	196	199	197	199
		점수	2.8	3	3.1	2.4	2.6	3.3	3.3	2.5	3.3	2	2.4
	2009	응답	1,910	196	196	190	199	144	198	199	199	196	193
		점수	2.9	3	3	2.6	2.6	3.1	3.3	2.5	3.4	2.6	2.4
대학	2003	응답	1,581	162	185	152	197	115	198	159	166	115	132
		점수	3.8	3.4	4.2	2.9	4.1	4	4.6	3.2	4.1	3.1	3.5
	2006	응답	1,693	169	175	130	197	150	199	172	191	151	159
		점수	3.7	3.3	4	3.2	4.1	4	4.1	3.5	3.9	3.2	3.3
	2009	응답	1,594	172	162	123	199	81	195	175	196	141	150
		점수	3.8	3.5	3.8	3.1	4.2	3.6	4.4	3.5	4.3	3.6	3.2

자료 : 문화예술인 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03; 2006; 2009)

주1) “아래의 교육은 ○○님의 예술능력을 기르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에 대한 응답 결과

주2) 5점 리커트 척도이며, 1번 “전혀 도움 안됨”에서 5번 “큰 도움”으로 갈수록 긍정적 응답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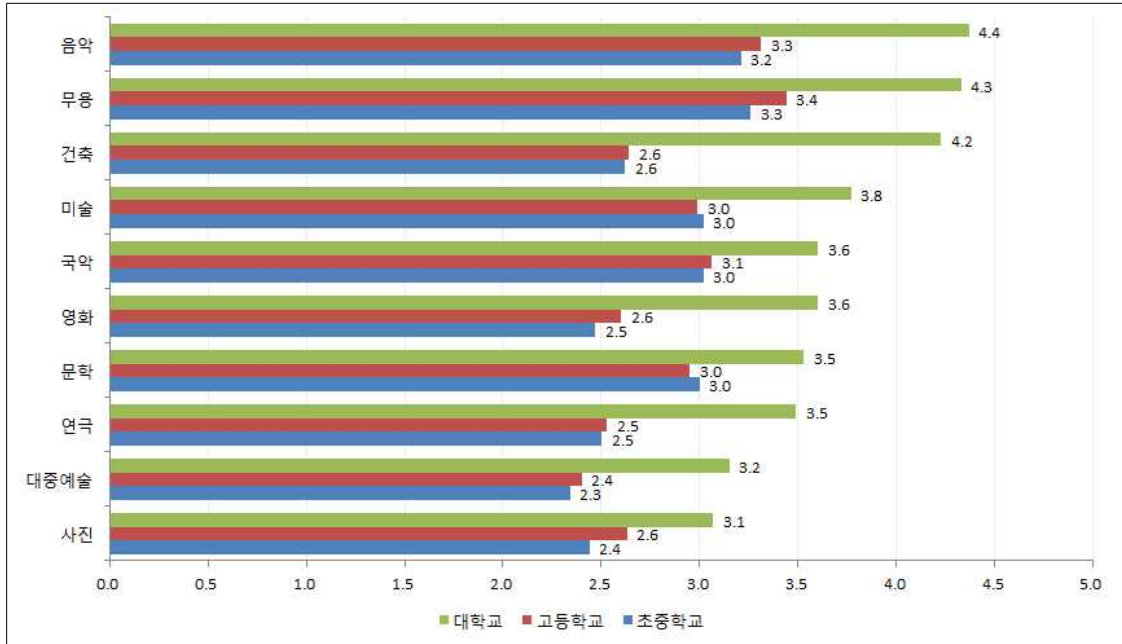
[그림 2.3.1.1] 문화예술인의 학교별 정규 예술교육에 대한 효능감(2003-2009) (단위: 5점 Likert 척도)



7) 이하에서 사용하는 문화예술인실태조사의 경우 도움정도와 만족도가 5점 리커트 척도이기는 하지만, 1번 “큰 도움”에서 5번 “전혀 도움 안됨”으로 설문이 이루어져 있음. 따라서 판단의 편의를 위해 이를 역코딩(reversse coding)하여 1번 “전혀 도움안됨”에서 5번 “큰 도움”으로 갈수록 긍정적 응답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음

[그림 2.3.1.2] 문화예술인의 장르별 예술교육에 대한 효능감(2009)

(단위: 5점 Likert 척도)



- 한편 문화예술인의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 예술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대부분 3점 미만(보통 이하)으로 나타나고 있음
- 여기에서도 초·중·고등학교에서의 문화예술교육보다는 대학에서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 2.3.1.2] 문화예술인의 정규 예술교육에 대한 만족도(2003-2009)

(단위: 5점 Likert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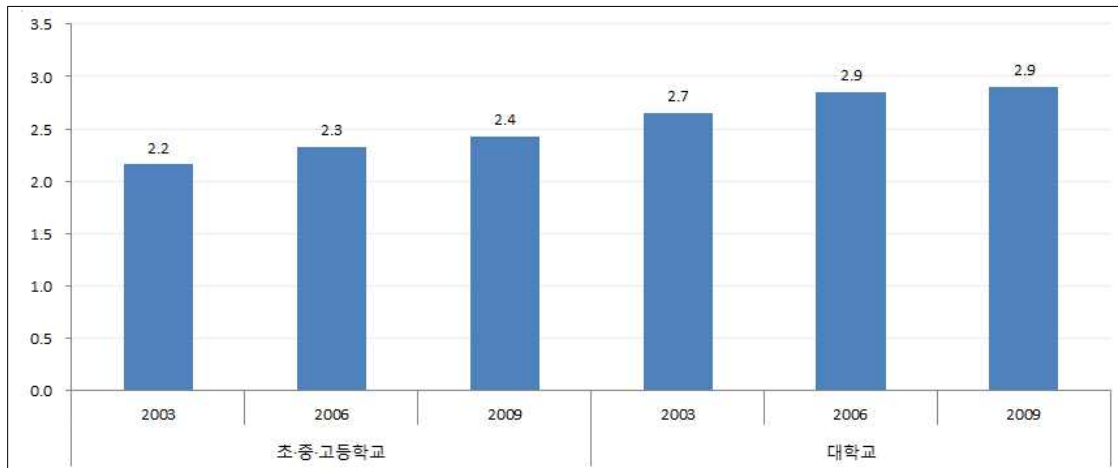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2003		2006		2009		2003		2006		2009	
	응답	점수	응답	점수	응답	점수	응답	점수	응답	점수	응답	점수
문학	200	2.2	200	2.3	200	2.2	200	2.6	200	2.7	200	2.6
미술	200	1.9	200	2.1	200	2.2	200	2.6	200	2.9	200	2.7
사진	200	2.2	200	2.5	200	2.6	200	3.0	200	3.1	200	3.0
건축	200	2.2	200	2.1	200	2.4	200	2.6	200	2.8	200	2.9
국악	200	2.3	200	2.5	200	2.8	200	2.7	200	3.1	200	3.1
음악	200	1.9	200	2.4	200	2.3	200	2.7	200	3.0	200	3.0
연극	190	1.6	200	2.1	200	2.2	190	2.0	200	2.6	200	2.7
무용	184	2.2	200	2.4	200	2.5	184	2.6	200	2.7	200	3.1
영화	193	2.8	200	2.5	200	2.5	193	3.1	200	2.9	200	3.0
대중예술	180	2.3	200	2.4	200	2.6	180	2.7	200	2.8	200	3.0
전체	1,947	2.2	2,000	2.3	2,000	2.4	1,947	2.7	2,000	2.9	2,000	2.9

자료 : 문화예술인 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03; 2006; 2009)

주1) “○○님께서는 현재 우리나라 문화예술교육에 대해 만족하십니까?”에 대한 응답 결과

주2) 5점 리커트 척도이며, 1번 “전혀 도움 안됨”에서 5번 “큰 도움”으로 갈수록 긍정적 응답임

[그림 2.3.1.3] 문화예술인의 학교별 정규 예술교육에 대한 만족도(2003-2009) (단위: 5점 Likert 척도)



2.3.2 비정규교육기관 문화예술교육 만족도

- 『예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비정규교육기관을 통한 “문화예술 교육이 본인의 예술능력을 기르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다음의 [표 2.3.2]와 같이 응답함
- 전반적으로 학원이나 외국에서의 문화예술교육보다 개인레슨을 통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2.3.2] 문화예술인의 비정규 예술교육에 대한 효능감 (단위: 5점 Likert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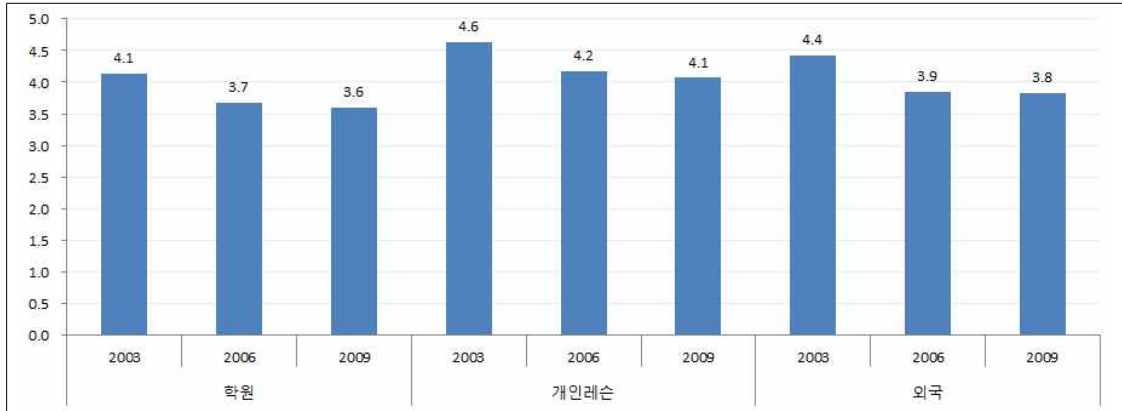
	학원			개인레슨			외국		
	2003	2006	2009	2003	2006	2009	2003	2006	2009
전체	4.1	3.7	3.6	4.6	4.2	4.1	4.4	3.9	3.8
문학	3.9	3.1	2.9	4.6	3.7	3.2	4.2	3.1	3.1
미술	4.4	3.7	3.7	4.8	4.0	4.3	4.8	3.7	4.4
사진	4.2	3.8	3.4	4.8	4.2	3.9	4.6	3.4	3.6
건축	4.1	2.7	3.0	4.1	3.1	2.9	4.6	4.3	4.2
국악	4.6	3.9	4.1	4.8	4.6	4.5	3.4	3.1	2.7
음악	3.0	3.6	3.7	4.8	4.5	4.6	4.8	4.4	4.4
연극	3.6	3.6	2.9	4.2	4.2	3.6	4.4	3.8	3.6
무용	4.6	4.2	4.3	4.7	4.3	4.5	4.4	3.9	4.5
영화	4.3	3.5	3.3	4.5	4.0	3.9	4.6	4.0	4.1
대중예술	3.5	3.4	3.4	4.2	3.7	3.6	3.9	3.6	2.5

자료 : 문화예술인 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03; 2006;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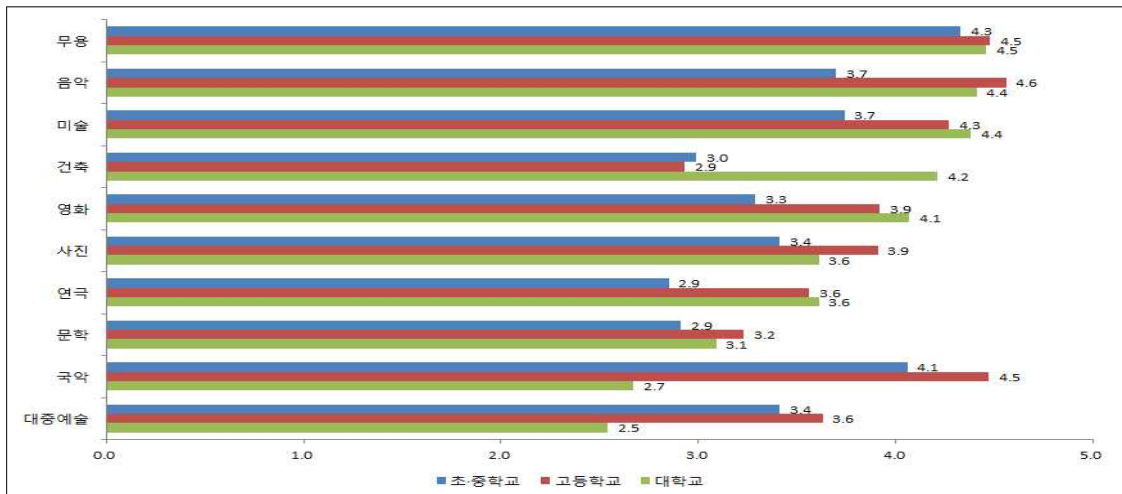
주1) “Q25. 아래의 교육은 ○○님의 예술능력을 기르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각각에 대해서 답해주십시오.” 결과

주2) 5점 리커트 척도이며, 1번 “전혀 도움 안됨”에서 5번 “큰 도움”으로 갈수록 긍정적 응답임

[그림 2.3.2.1] 문화예술인의 학교별 비정규 예술교육에 대한 효능감(2003-2009) (단위: 5점 Likert 척도)



[그림 2.3.2.2] 문화예술인의 장르별 비정규 예술교육에 대한 효능감(2009) (단위: 5점 Likert 척도)



2.4 신규 문화예술인력 고용지표

2.4.1 신규 문화예술인력 고용률

- 『교육통계서비스 취업통계』에 따르면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문화예술전공 졸업자 중 취업자의 수는 2006년 52,670명에서 2009년 49,473명으로 나타났으며, 문화예술전공 졸업자의 신규 취업률은 2006년 74.8%에서 2009년 75.3%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다만 『교육통계서비스 취업통계』에서의 취업자는 건강보험DB에 직장가입자로 가입된 이들만이 집계된다는 점에서 실제 취업자의 수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됨

- 문화예술 전공별 취업률은 2009년 기준으로 디자인(80%), 연극(78.6%), 건축(77.8%), 공예(76.4%), 영화·연예(74.6%), 사진(73.9%), 음악(72.9%), 무용(72.8%), 미술(67.4%), 문학(66.1%), 기타(64.5%)의 순으로 나타남
- 2006년에 비해 음악, 무용, 미술, 문학, 기타 분야의 취업률은 감소한 반면, 연극, 사진, 공예, 디자인, 건축, 영화·연예 전공자들의 취업률은 증가함
- 학교 수준별로 살펴보면 전문대학 졸업자들의 취업률이 2006년 79.6%에서 2009년 84.5%로 상승하여 전체적인 취업률의 상승을 견인했으며,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률은 70.2%에서 69.4%로 하락했으며, 대학원 졸업생들의 취업률 역시 73.5%에서 70.9%로 하락함
- 전반적으로 전문대 졸업생의 취업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학원 졸업자, 일반대학 졸업자의 순으로 취업률이 높게 나타남

[표 2.4.1.1] 문화예술전공 졸업자 중 취업자 수 및 취업률(2006, 2009년) (단위: 명, %)

문화영역		전공	2006년			2009년		
			졸업자수	취업자수	취업률	졸업자수	취업자수	취업률
전통예술		국악	522	282	66.5	523	322	72.7
공연예술	음악	음악	2,566	1,848	81.2	2,151	1,631	85.7
		기악	1,758	1,097	77.5	1,835	1,040	68.6
		성악	654	373	73.4	644	348	66.7
		음악학	2,483	1,538	71.6	2,762	1,720	70.8
		작곡	407	237	73.8	405	196	60.9
		음향	120	91	84.3	185	151	83.0
		기타음악	696	433	71.3	971	571	64.9
		소계	8,684	5,617	76.1	8,953	5,657	72.9
	연극	연극·영화	1,588	1,112	77.0	2,074	1,515	78.6
	무용	무용	1,309	857	75.9	1,363	839	72.8
시각예술 및 공예	미술	미술	452	344	79.1	266	195	77.7
		순수미술	3,366	1,866	68.0	3,387	1,882	66.9
		응용미술	249	160	70.5	272	155	68.3
		조형	729	397	65.5	849	479	65.3
		소계	4,796	2,767	69.0	4,774	2,711	67.4
	사진	사진 및 만화	2,559	1,715	71.7	2,152	1,475	73.9
	공예	공예	1,284	840	72.3	1,389	972	76.4
	디자인	디자인일반	973	754	83.6	1,251	825	72.2
		시각디자인	3,113	2,250	76.7	3,238	2,396	79.6
		산업디자인	5,148	3,845	79.6	3,438	2,572	80.3
		패션디자인	3,277	2,486	79.1	2,752	2,109	80.3
		기타디자인	12,623	9,408	79.1	10,989	8,361	80.7
	소계	25,134	18,743	79.1	21,668	16,263	80.0	
	건축	건축·설비공학	5,960	3,824	70.7	4,675	3,072	73.0
		건축학	7,999	5,821	78.5	6,777	5,061	80.6
		조경학	1,031	749	78.3	923	688	81.4
		소계	14,990	10,394	75.4	12,375	8,821	77.8
문학		국어·국문학	5,046	2,710	64.5	5,155	2,657	63.4
		문예창작	813	460	63.9	552	447	88.2
		소계	5,859	3,170	64.4	5,707	3,104	66.1
대중	영화	영상·예술	3,268	2,276	76.7	3,850	2,886	81.3

예술	연예	언론·방송·매체학	5,240	3,376	70.2	5,185	3,295	69.5
		소계	8,508	5,652	72.7	9,035	6,181	74.6
기타		예체능교육	1,623	944	64.7	1,635	888	57.7
		문화	1,006	577	69.7	1,100	725	75.4
		소계	2,629	1,521	66.5	2,735	1,613	64.5
문화예술전공 계			77,862	52,670	74.8	72,748	49,473	75.3
전체 졸업생 계			528,394	364,404	68.9	516,509	357,241	69.2
전체 졸업생 중 문화예술관련학과 비율			14.7%	10.0%		14.1%	9.6%	

자료 : 교육통계서비스 취업통계 - 건강보험 DB연계 취업통계조사(대학, 전문대학, 일반대학원 포함)(한국교육개발원, 2006; 2009)

주1) 취업자 : 해당 전공 졸업자 중 조사 기준일 당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수

주2) 취업률(%) = {건강보험가입취업자 / 졸업자-(진학자 + 입대자 + 취업불가능자 + 외국인유학생)}*100

주3) 입대자 : 조사 기준일 당시 군입대자

주4) 취업불가능자 : 조사기준일 당시 수형자, 사망자, 해외이민자, 6개월 이상 장기입원자

주5) 진학자 : 조사 기준일 당시 학위를 목적으로 국내 및 국외 전문대학, 대학(원)에 진학한 자

[표 2.4.1.2] 문화예술전공 졸업자 중 취업자 수 및 취업률: 학교수준별(2006, 2009년) (단위: 명, %)

	2006년			2009년		
	전문대	대학교	대학원	전문대	대학교	대학원
졸업자	35,307	38,585	3,970	26,855	41,331	4,562
취업자	26,410	23,714	2,546	21,258	25,502	2,713
비경제활동인구*	2,114	4,824	504	1,698	4,589	734
취업률(%)	79.6	70.2	73.5	84.5	69.4	70.9

자료 : 교육통계서비스 취업통계 - 건강보험 DB연계 취업통계조사(대학, 전문대학, 일반대학원 포함)(한국교육개발원, 2006;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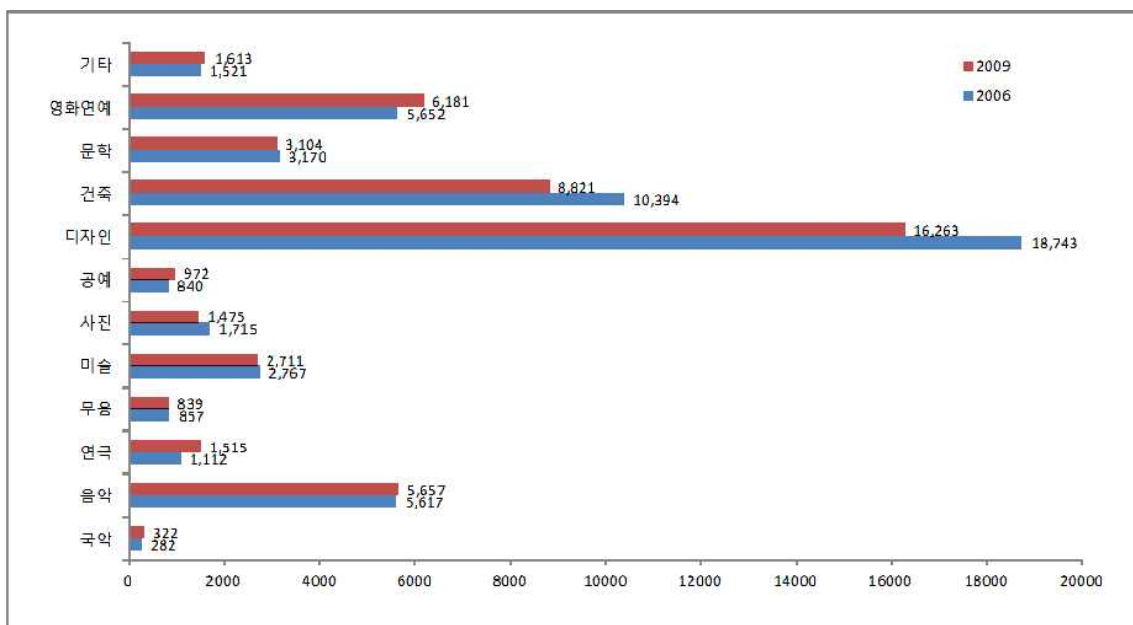
주1) 취업자 : 해당 전공 졸업자 중 조사 기준일 당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수

주2) 비경제활동인구 = 진학자+ 입대자 + 취업불가능자 + 외국인유학생

주2) 취업률(%) = {건강보험가입취업자 / 졸업자-(진학자 + 입대자 + 취업불가능자 + 외국인유학생)}*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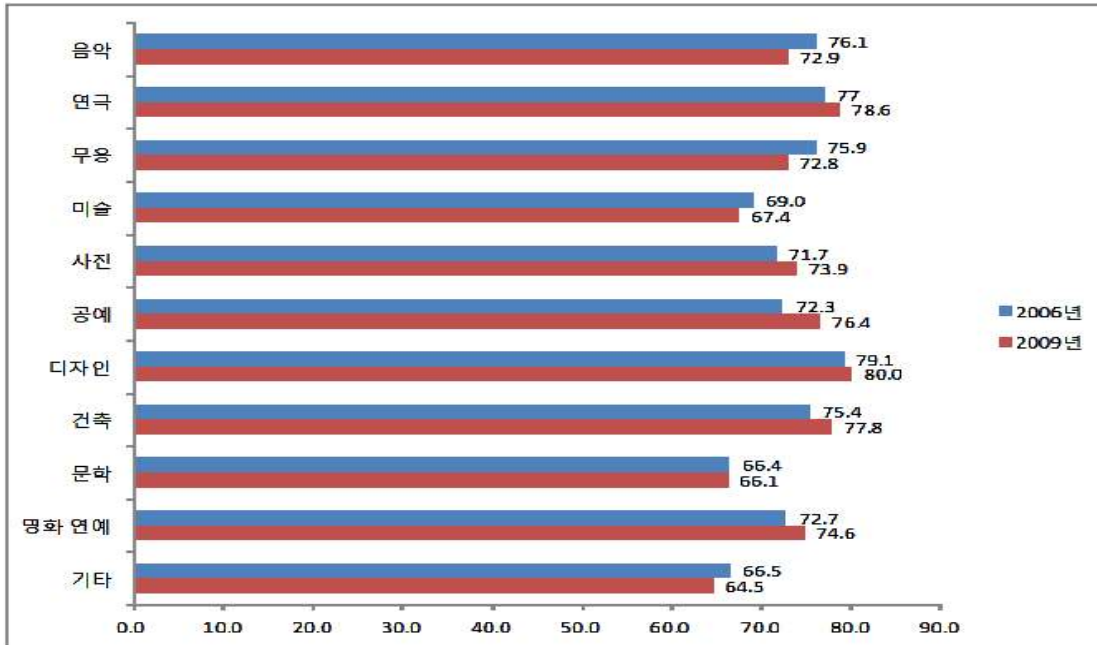
[그림 2.4.1.1] 문화예술전공 졸업자 중 취업자의 수(2006, 2009년)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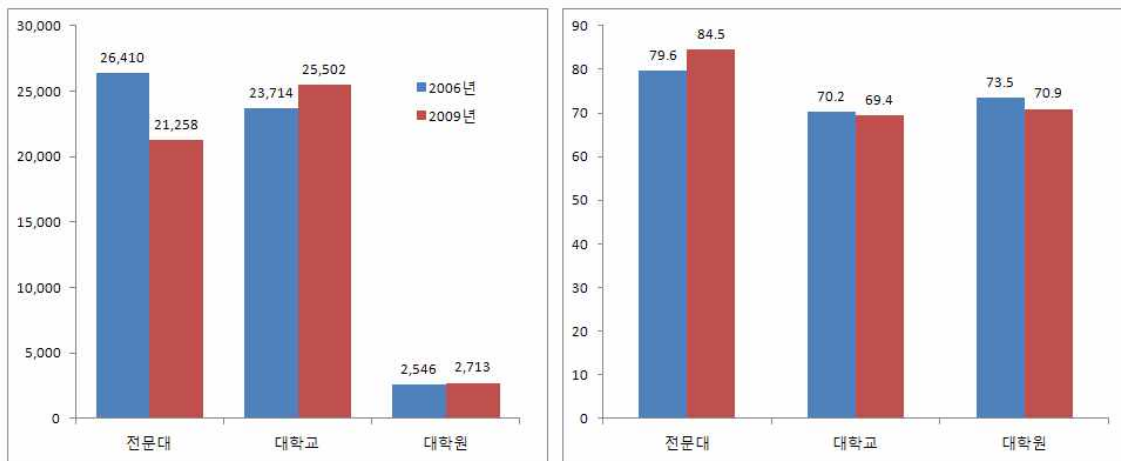
[그림 2.4.1.2] 문화예술전공 졸업자 취업률(2006, 2009년)

(단위:%)



[그림 2.4.1.3] 문화예술전공 졸업자의 학교수준별 취업자 수와 취업률(2006, 2009년)

(단위:명, %)



- 한편 취업자 중에서도 해당 전공과 일치되는 분야에 취업한 이들의 수를 통해 전공일치도를 살펴본 결과, 2009년 기준 디자인 일반(100%), 기악(96.7%), 산업디자인(92.6%), 예체능교육(89.6%), 미술(88.2%), 공예(88.2%), 조경학(88.1%), 국악(88.0%), 음악학(86.4%), 연극·영화(86%), 언론·방송·매체학(86%), 작곡(85.1%), 기타음악(84.7%), 건축학(83%), 무용(81.6%), 음향(80.1%)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반면, 국어·국문학(66%), 문예창작(54.4%), 문화(44.5%) 전공 취업자의 경우 타 전공에 비해 전공일치도가 낮게 나타나 교육받은 분야와는 다른 분야에 취업하는 졸업생의 수가 많음을 짐작할 수 있음

[표 2.4.1.2] 문화예술전공 취업자의 전공일치도(2006, 2009년)

(단위: %, 명)

문화영역		전공	2006년		2009년	
			전공일치도	전공일치 취업자 수	전공일치도	전공일치 취업자 수
전통예술		국악	85.5	241	88.0	283
공연예술	음악	음악	86.4	1,597	78.4	1,279
		기악	97.2	1,066	96.7	1,005
		성악	84.8	316	-	-
		음악학	88.8	1,366	86.4	1,486
		작곡	94	223	85.1	167
		음향	75.8	69	80.1	121
		기타음악	94.1	407	84.7	483
	연극	연극·영화	84.4	939	86.0	1,302
	무용	무용	84.6	725	81.6	685
시각예술 및 공예	미술	미술	79.4	273	88.2	172
		순수미술	-	-	-	-
		응용미술	84.4	135	-	-
		조형	100	397	71.1	340
	사진	사진 및 만화	87.7	1,503	77.1	1,136
	공예	공예	74.6	627	88.2	857
	디자인	디자인일반	92.3	696	100.0	825
		시각디자인	95.6	2,151	75.4	2,017
		산업디자인	90.9	3,495	92.6	2,727
		패션디자인	78.6	1,953	75.3	1,800
		기타디자인	85.3	8,025	79.0	6,605
	건축	건축·설비공학	-	-	77.9	2,393
		건축학	87.4	5,088	83.0	4,201
		조경학	87.4	655	88.1	606
문학		국어·국문학	89	2,412	66.0	1,752
		문예창작	39.3	181	54.4	243
대중 예술	영화 연예	영상·예술	65.8	1,498	-	-
		언론·방송·매체학	65.2	2,201	86.0	2,834
기타		예체능교육	97.7	922	89.6	796
		문화	56.4	325	44.5	323
문화예술관련전공 계			...	39,485	...	36,438

자료 : 교육통계서비스 취업통계 계열별 전공일치도 현황, 전공별 전공일치도 순위 (한국교육개발원, 2006; 2009)

2.4.2 신규 문화예술인력 실업률

-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문화예술전공 졸업자 중 실업자의 수는 2006년 8,782명에서 2009년 7,860명으로 나타났으며, 실업률은 2006년 14.3%에서 2009년 13.7%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체 졸업자의 실업률이 2006년 13%에서 2009년 13.2%임을 감안할 때, 문화예술전공 졸업자의 실업률이 다소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 학교 수준별로 실업률을 살펴보면 전문대는 8.2%, 대학은 16.8%, 대학원은 22.9%로 나타나 전문대의 실업률이 가장 낮고 대학원 졸업생의 실업률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음

- 한편 졸업자 중 취업준비, 국가고시, 진학준비, 전업주부, 기타 등의 이유로 취업의사가 없는 것으로 집계된 미취업자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실질적으로는 실업자에 해당한다는 것을 감안할 경우 잠재실업률은 이보다 훨씬 높아질 수 있음
- 실제로 졸업생 중 미취업자와 실업자의 비율로 나타난 잠재실업률은 전문대가 20.8%, 대학이 38.3%, 대학원이 40.5%로 나타나 특히 고학력 졸업자들의 잠재실업률이 상당히 낮음을 알 수 있음
- 세부전공별로는 작곡(31.2%), 국어·국문학(28.6%), 성악(26.3%), 응용미술(25.1%), 기악(24.5%), 순수미술(24.5%), 조형(22.7%), 무용(21.6%) 전공 졸업생의 실업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디자인 전공 및 음향, 건축 전공 졸업생의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음악, 연극, 공예, 디자인, 영화·연예, 기타 전공 졸업생의 실업률은 2006년에 비해 2009년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 반면, 무용, 미술, 사진, 문학 전공 졸업생의 실업률은 2009년에 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학교 수준별로 살펴보면 대학원 졸업생의 실업률이 전반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그 다음이 일반대학, 전문대학 졸업생의 실업률로 나타남

[표 2.4.2.1] 문화예술전공 졸업자 중 실업자 수와 실업률(2006, 2009년) (단위 : 명, %)

문화영역		전공	2006년			2009년		
			미취업 자수	실업자	실업률	미취업 자수	실업자	실업률
전통예술		국악	135	105	27.1	118	83	20.5
공연예술	음악	음악	378	340	15.5	248	272	14.3
		기악	301	360	24.7	458	337	24.5
		성악	129	152	29.0	172	124	26.3
		음악학	549	396	20.5	657	385	18.3
		작곡	79	91	27.7	120	89	31.2
		음향	17	12	11.7	30	4	2.6
		기타음악	168	95	18.0	282	118	17.1
		소계	1,621	1,446	20.5	1,967	1,329	19.0
	연극	연극·영화	293	183	14.1	377	182	10.7
	무용	무용	240	212	19.8	301	223	21.6
시각예술 및 공예	미술	미술	89	19	5.2	50	21	9.7
		순수미술	806	694	27.1	895	610	24.5
		응용미술	63	26	14.0	65	52	25.1
		조형	204	128	24.4	222	148	22.7
		소계	1,162	867	22.1	1,232	831	23.5
	사진	사진 및 만화	654	190	10.0	497	180	10.9
	공예	공예	304	140	14.3	283	134	12.1
	디자인	디자인일반	134	85	10.1	299	127	13.3
		시각디자인	605	258	10.3	600	242	9.2
		산업디자인	932	371	8.8	603	263	9.3
		패션디자인	611	180	6.8	491	152	6.7
		기타디자인	2,323	892	8.7	1,898	730	8.0
		소계	4,605	1,786	8.7	3,891	1,514	8.5
	건축	건축·설비공학	1,496	640	14.3	1,092	511	14.3
		건축학	1,396	782	11.8	1,153	563	10.0
		조경학	196	86	10.3	157	78	10.2
		소계	3,088	1,508	12.7	2,402	1,152	11.6

문학		국어·국문학	1,395	941	25.8	1,434	1,064	28.6
		문예창작	234	119	20.6	59	46	9.3
		소계	1,629	1,060	25.1	1,493	1,110	26.3
대중 예술	영화 연예	영상·예술	604	388	14.6	617	347	10.7
		언론·방송·매체학	1,343	521	13.4	1,387	503	13.2
		소계	1,947	909	13.9	2,004	850	12.1
기타		예체능교육	494	185	16.4	623	124	12.3
		문화	238	191	24.9	227	148	17.0
		소계	732	376	20	850	272	14
문화예술관련 전공 계			16,410	8,782	14.3	15,415	7,860	13.7
전체전공 계			109,947	54,245	13.0	104,882	54,386	13.2
문화예술관련 전공 비율			14.9%	16.2%	-	14.7%	14.5%	-

자료 : 교육통계서비스 취업통계 (한국교육개발원, 2006; 2009)

주1) 경제활동참여자=졸업자+미취업자

주2) 미취업자 = 졸업자 중 취업준비, 국가고시, 진학준비, 전업주부, 기타 등의 이유로 취업의사가 없는 자

주3) 실업자=졸업자-(취업자+미취업자)

주4) 실업률(%)= {실업자 수 / (졸업자-미취업자)}*100

[표 2.4.2.2] 문화예술전공 졸업자 중 취업자 수 및 취업률: 학교수준별(2009년) (단위: 명, %)

	2009년		
	전문대	대학교	대학원
졸업자	26,855	41,331	4,562
경제활동참여자	23,168	30,648	3,517
미취업자	3,687	10,683	1,045
실업자	1,910	5,146	804
실업률(%)	8.2	16.8	22.9
잠재실업률	20.8	38.3	40.5

자료 : 교육통계서비스 취업통계 - 건강보험 DB연계 취업통계조사(대학, 전문대학, 일반대학원 포함)(한국교육개발원, 2006; 2009)

주1) 경제활동참여자=졸업자+미취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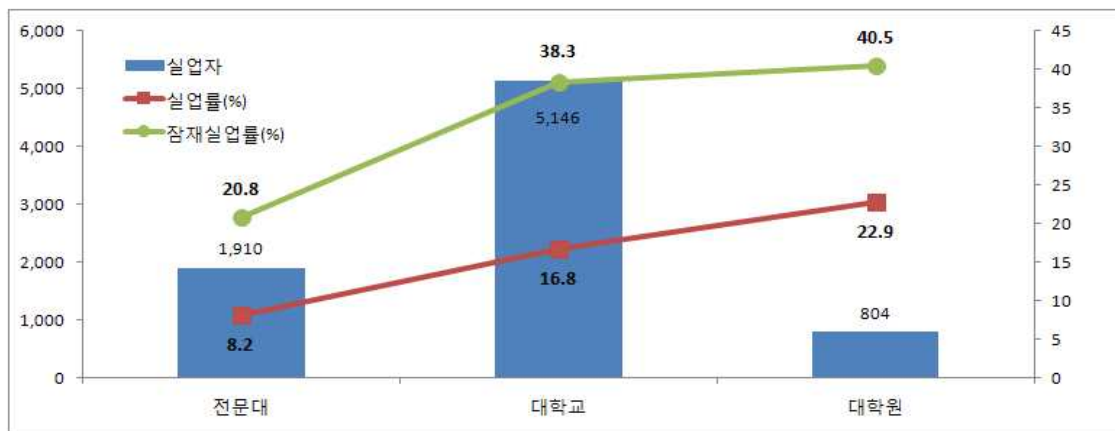
주2) 미취업자 = 졸업자 중 취업준비, 국가고시, 진학준비, 전업주부, 기타 등의 이유로 취업의사가 없는 자

주3) 실업자=졸업자-(취업자+미취업자)

주4) 실업률(%)= {실업자 수 / (졸업자-미취업자)}*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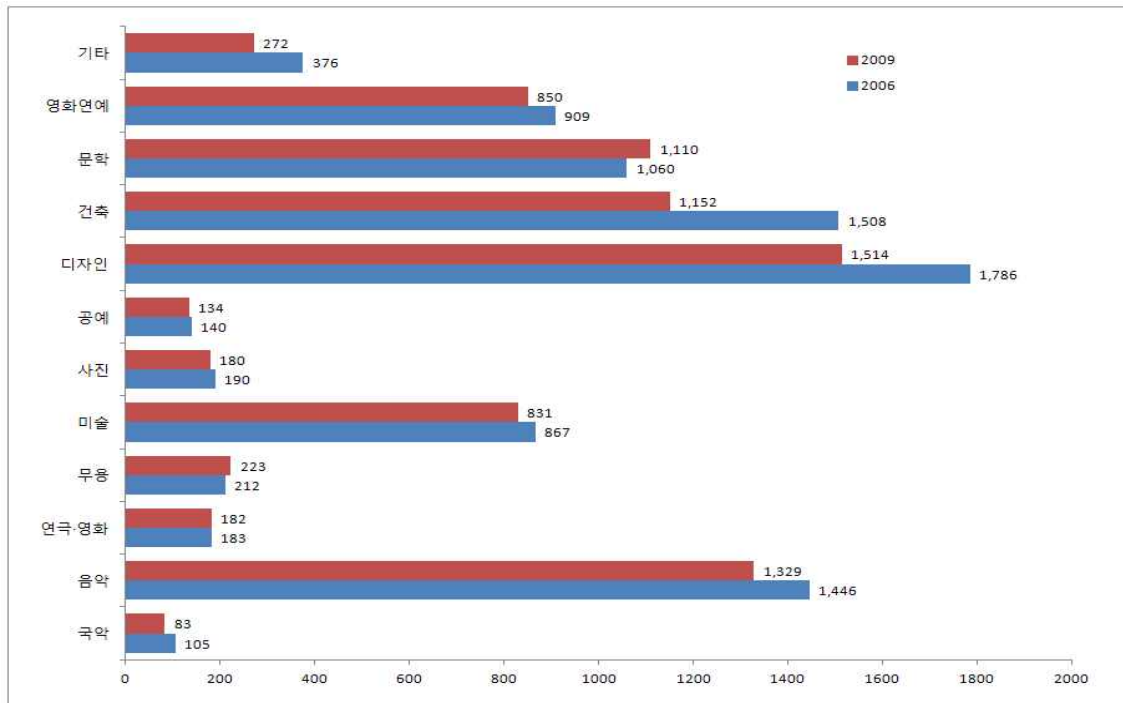
주5) 잠재실업률(%) = {(실업자 수 + 미취업자 수) / 졸업자 수}*100

[그림 2.4.2.1] 학교 수준별 문화예술전공 실업자 수와 실업률(2009년 기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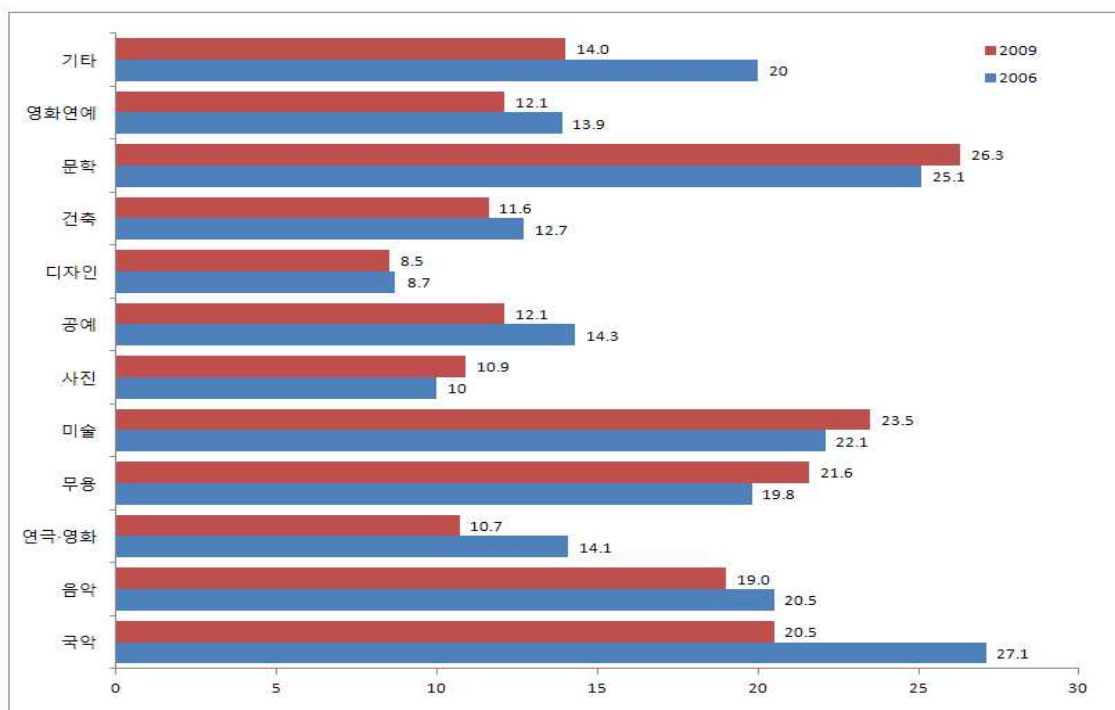
[그림 2.4.2.1] 문화예술전공 졸업자 중 실업자의 수(2006, 2009년)

(단위: 명)



[그림 2.4.2.2] 문화예술전공 졸업자 실업률(2006, 2009년)

(단위: %)



제2절 문화예술인력

3.1 문화예술인력 경제활동상태

- 문화예술인력 중 경제활동인구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존 자료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작성하고 있는 『문화예술인 실태조사』가 있음
 - 『문화예술인 실태조사』는 표집틀(sampling frame)이 개념적 모집단을 완전히 대표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동 조사를 통해 얻어진 결과 역시 일정한 한계를 가지지만, 현재로서는 동 자료가 거의 유일하게 문화예술인력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동 자료를 통해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을 파악하도록 함
 - 다만, 문화예술인력 중 취업자 및 특성에 대한 파악은 『산업·직업별 고용구조 조사』를 통해 수행하도록 할 것임
- 『문화예술인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문화예술인 중에서 고용상태에 있는 인력의 비율은 2003년 92.3%, 2006년 86.1%, 2009년 76.3%로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 대신 무직의 비율은 2003년 7.7%, 2006년 13.9%, 2009년 23.7%로 점점 높아지고 있음

[표 3.1] 문화예술인 고용 여부

(단위 : 명, %)

	2003		2006		2009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무직	150	7.7	278	13.9	475	23.7
고용상태	1,797	92.3	1,722	86.1	1,526	7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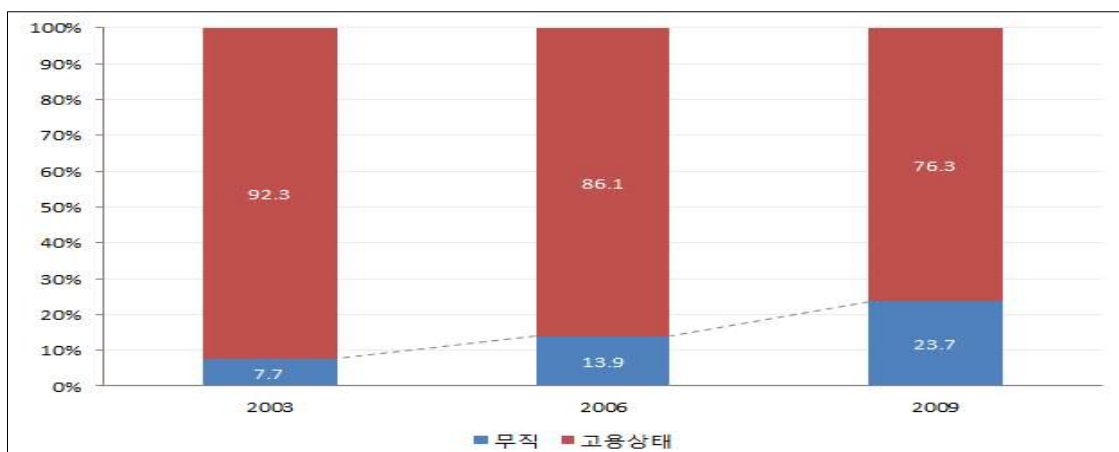
자료 : 문화예술인 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03; 2006; 2009)

주1) 고용상태는 자영업 및 고용주, 전업작가 및 자유전문직, 정규피고용직, 임시피고용직, 기타가 포함됨

주2) 무직은 실업, 취학, 가사, 은퇴, 건강상 이유로 취업불능, 기타 등이 포함됨

[표 3.1] 문화예술인 고용여부

(단위: %)



3.1.1 문화예술 취업자

- 문화예술인력 중 현재 문화예술과정에 종사하고 있는 취업자의 수와 특성에 대한 정보는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2009년 기준)를 통해 파악할 수 있음
-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기준 문화예술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취업 인력의 수는 약 1,112천명으로 전체 직종 종사자의 약 4.7%를 차지함
 - 여성의 비율은 47.1%로 전체 직종 종사자의 비율인 41.9%에 비해 높게 나타나 타 직종에 비해 여성 종사자의 비율이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 전체 문화예술 관련 직종 종사자 중에는 안내·접수사무원 및 전화교환원(170천명), 건축가 및 건축공학기술자(154천명), 예능강사(142천명), 토목공학기술자(108천명)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국악 및 전통예능인(1천명), 큐레이터 및 문화재 보존원(2천명), 무용가 및 안무가(2.7천명), 악기제조수리 및 조율사(2.7천명) 등 직종 종사자의 수가 가장 작게 나타남
- 문화예술 과정별로는 창작 및 실연 과정 종사자가 677천명(60.8%)로 가장 많았으며, 기획 및 경영관리 과정 종사자가 656천명(5.9%), 기술 과정 종사자가 32천명(2.9%), 기타 과정 종사자가 193천명(17.4%), 교육분야 종사자가 142천명(12.8%), 기타 분야 종사자가 1956천명(17.5%)로 나타남
 - 한편 여기에는 문화예술교육을 담당하는 정규교육과정(초·중·고등학교 교사, 대학 교수)의 교육인력들은 상당 수 누락되었다는 점에서 교육 과정 종사자의 수는 훨씬 더 클 수 있음
 - 여성의 비율은 창작 및 실연 분야가 31.1%, 기획 및 경영·관리분야가 46%, 기술 분야가 11.5%, 교육 분야가 89.4%, 기타 분야가 77.8.4%로 나타나 교육 및 기타 분야의 여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반면, 기술 분야의 여성 비율은 상당히 낮음을 확인할 수 있음

[표 3.1.1.1] 문화예술직종 종사자의 수(2009년 기준)

(단위: 명, %)

한국표준직업분류				고용 직업 분류	2009		
					종사자수 (추정)	비율	여성비율 (추정)
문화예술 직종 총계					1,112,300	100.0	47.1
전체 직종 종사자 총계					23,805,000	4.67	41.9
창작· 실연	2811	작가 및 관련 전문가		0811	11,700	1.1	76.9
	2844	국악 및 전통예능인 #		0844	1,200	0.1	20.0
	2845	지휘자,작곡가 및 연주자		0845	12,800	1.2	32.7
	2846	가수 및 성악가		0846	3,200	0.3	69.5
	2847	무용가 및 안무가 #		0847	2,700	0.2	71.1
	841	화가 및 조각가		0841	7,200	0.6	27.2
	2842	사진작가 및 사진사		0842	28,600	2.6	18.8
	2843	만화가 및 만화영화화가		0843	6,100	0.5	39.6
	2851	제품디자이너		0851	22,600	2.0	29.4

	2852	패션디자이너	0852	37,100	3.3	76.7
	2853	실내장식디자이너	0853	29,100	2.6	43.2
	2854	시각디자이너	0854	67,500	6.1	58.3
	2855	웹 및 멀티미디어 디자이너	0855	48,400	4.4	56.8
	2396	캐드원	0856	42,700	3.8	42.6
	311	건축가 및 건축공학기술자	1411	154,400	13.9	11.8
	2312	토목공학 기술자	1412	108,400	9.7	3.6
	2313	조경기술자	1413	10,600	1.0	34.1
	7911	공예원	2271	18,800	1.7	41.9
	7912	귀금속 및 보석세공원	2272	9,400	0.8	31.1
	2831	감독 및 기술감독	0861	20,500	1.8	13
	2832	배우 및 모델	0862	8,200	0.7	35.9
	2833	아나운서 및 리포터	0863	3,100	0.3	44.7
	2814	기자 및 논설위원	0830	22,500	2.0	31.3
	소계			676,800	60.7	31.1
기획 / 경영관리	2899	미술사 및 기타 문화예술관련 종사자	0882	3,400	0.3	10.4
	2891	연예인 및 스포츠매니저	0881			
	2821	큐레이터 및 문화재 보존원	0821	2,300	0.2	29.3
	2822	사서 및 기록물 관리사	0822	11,900	1.1	81.8
	2815	출판물 전문가	0814	15,300	1.4	57.8
	1340	문화, 예술, 디자인 및 영상관련 관리자	0140	5,400	0.5	-
	2731	상품기획전문가	0232	11,400	1.0	44.1
	2733	광고 및 홍보전문가	0231	15,900	1.4	35.0
	소계			65,600	5.9	46.0
기술	2834	촬영기사	0871	5,400	0.5	5.8
	2835	음향 및 녹음기사	0872	3,700	0.3	8.4
	2836	영상, 녹화 및 편집기사	0873	3,700	0.3	29.7
	2837	조명기사 및 영상기사	0874	3,900	0.4	0
	2839	기타 연극, 영화 및 영상관련 종사자	0879	4,100	0.4	18.9
	2240	통신 및 방송송출 장비기사	2061	8,000	0.7	-
	7801	영상 및 관련 장비 설치 및 수리원*	2062			
	8922	사진인화 및 현상기 조작원	2242	3,600	0.3	33.9
	소계			32,400	2.9	11.5
교육	2544	예능강사	0484	141,900	12.8	89.4
기타	7303	악기제조수리 및 조율사	2273	2,700	0.2	13.8
	2812	번역가	0812	11,200	1.0	73.6
	2813	통역가	0813	7,900	0.7	72.6
	4224	메이크업아티스트 및 분장사	1214	3,800	0.3	100.0
	3922	안내, 접수사무원 및 전화교환원	0281	170,000	15.3	78.8
	소계			195,600	17.5	77.8

자료 : 산업직업별 고용구조 조사(한국고용정보원,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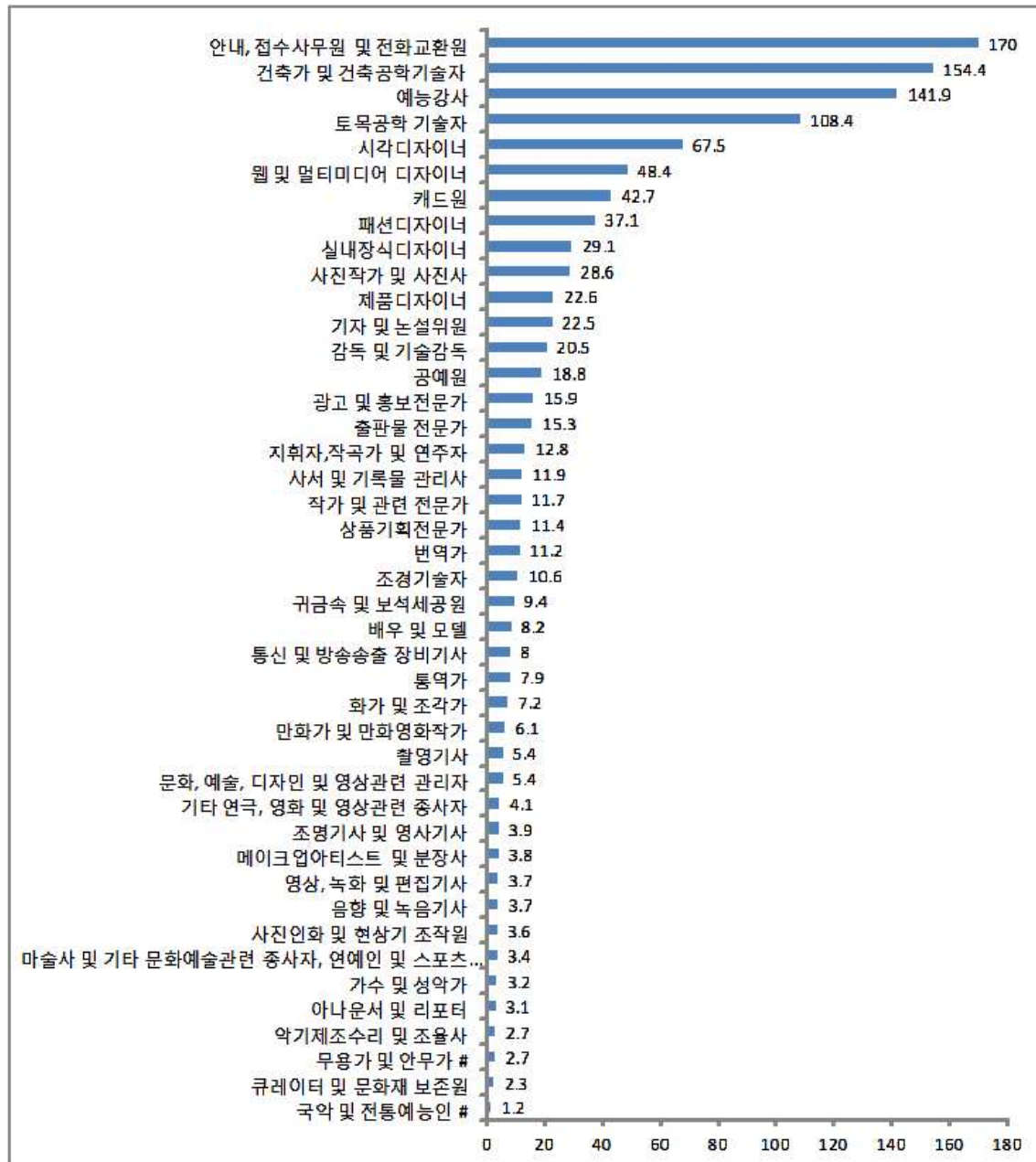
주 1) # : 표본 수가 10인 미만인 경우이므로, 추정치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음

주 2) 자료의 가용성 문제로 인해 투입지표인 문화예술인력(1.2)에서 제시된 세분류 직종 중 상품기획전문가, 광고 및 홍보전문가, 사진인화 및 현상기 조작원이 추가되었고, 영상 및 관련장비 설치 및 수리원이 누락되었음

주 3) - : 실제 여성취업자가 존재할 수 있으나 2009년 기준 산업직업별 고용구조 조사에서는 추출되지 않은 경우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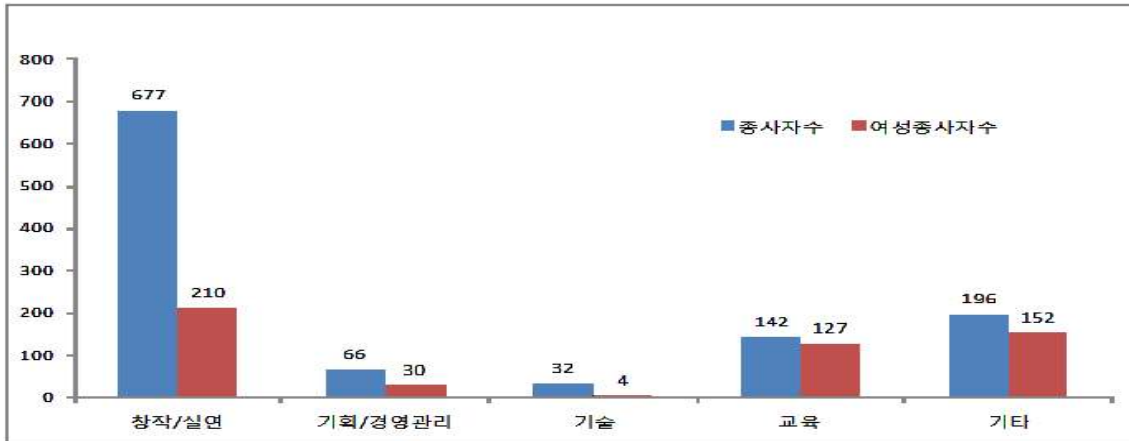
[그림 3.1.1.1] 문화예술직종 종사자의 수(2009년 기준)

(단위: 천명)



[그림 3.1.1.2] 과정별 문화예술직종 종사자의 수와 여성종사자의 수(2009년 기준)

(단위: 천명)



- 문화예술 관련 직종 종사자의 평균 교육연수는 14.8년으로 전체 직종 종사자의 평균 교육 연수인 12.9년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 연령은 36.2세로 전체 직종 종사자의 평균 연령인 43.7세보다 낮게 나타남. 한편 평균 근속년수는 5.9년으로 전체 직종 종사자의 평균 근속년수인 8.3년보다 낮게 나타남
- 이는 문화예술 관련 직종 종사자가 전체 직종 종사자에 비해 좀 더 많은 교육을 받고, 좀 더 젊은 종사자가 많으며, 동 직종에 종사하는 기간은 좀 더 짧다는 것을 의미함
- 분야별로는 기획 및 경영관리 분야와 교육 분야 종사자의 교육연수와 연령이 평균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기술 분야의 교육연수와 연령이 낮게 나타남
- 또한 근속년수에 있어서는 기획 및 경영관리 종사자의 근속년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술 분야 종사자의 근속년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음

[표 3.1.1.2] 문화예술직종 종사자의 특성 (2009년 기준)

(단위: 년, 세, 년)

고용직업분류 (2009년 기준, 모수추정)			평균학력 (년)	평균연령 (세)	평균 근속년수(년)
문화예술직종 평균			14.8	36.2	5.9
전체직종종사자 평균			12.9	43.7	8.3
창작· 실연	0811	작가 및 관련 전문가	16.0	34.1	7.4
	0844	국악 및 전통예능인	15.4	44.0	16.7
	0845	지휘자, 작곡가 및 연주자	15.3	37.6	7.6
	0846	가수 및 성악가	16.1	37.7	11.5
	0847	무용가 및 안무가	14.0	24.9	3.9
	0841	화가 및 조각가	14.9	46.0	15.2
	0842	사진작가 및 사진사	14.2	38.6	7.2
	0843	만화가 및 만화영화작가	14.2	33.7	5.3
	0851	제품디자이너	15.3	32.2	3.9
	0852	패션디자이너	14.9	32.0	4.4
	0853	실내장식디자이너	15.1	33.9	5.1
	0854	시각디자이너	14.9	33.4	4.9
	0855	웹 및 멀티미디어 디자이너	14.8	29.5	2.8
	0856	캐드원	14.1	31.2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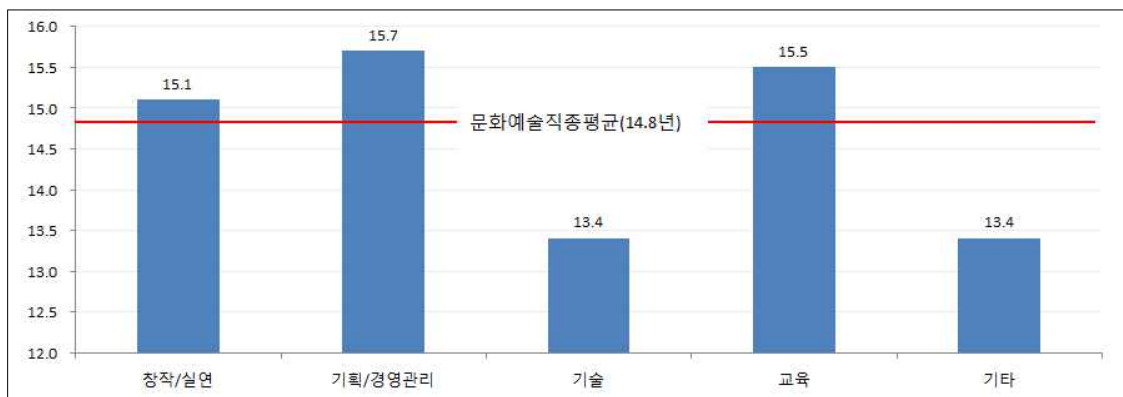
	1411	건축가 및 건축공학기술자	15.6	38.2	6.4
	1412	토목공학 기술자	15.8	39.1	7.1
	1413	조경기술자	15.9	35.2	6.3
	2271	공예원	12.7	43.9	10.3
	2272	귀금속 및 보석세공원	12.4	39.0	9.1
	0861	감독 및 기술감독	15.7	36.6	9.5
	0862	배우 및 모델	14.5	30.5	5.4
	0863	아나운서 및 리포터	14.6	34.2	7.0
	0830	기자 및 논설위원	15.7	38.4	7.2
	소계		15.1	36.0	6.2
기획 / 경영관리	0882	미술사 및 기타 문화예술관련 종사자	14.6	31.8	6.1
	0881	연예인 및 스포츠매니저			
	0821	큐레이터 및 문화재 보존원	15.7	41.9	4.9
	0822	사서 및 기록물 관리자	15.4	35.2	7.1
	0814	출판물 전문가	15.9	38.3	6.3
	0232	상품기획전문가	15.8	34.0	5.7
	0231	광고 및 홍보전문가	16.0	35.4	5.1
	0140	문화, 예술, 디자인 및 영상관련 관리자	16.1	47.6	14.5
	소계		15.7	38.5	8.2
기술	0871	촬영기사	15.0	34.6	7.2
	0872	음향 및 녹음기사	13.7	33.1	6.0
	0873	영상, 녹화 및 편집기사	15.2	33.9	6.6
	0874	조명기사 및 영상기사	13.7	33.8	8.6
	0879	기타 연극, 영화 및 영상관련 종사자	13.2	29.2	2.4
	2061	통신 및 방송송출장비기사	15.3	40.3	12.3
	2062	영상 및 관련 장비 설치 및 수리원			
	2242	사진인화 및 현상기 조작원	13.4	31.9	4.2
	소계		13.4	33.3	1.9
교육	0484	예능강사	15.5	36.7	5.9
기타	2273	악기제조수리 및 조율사	11.4	47.9	12.2
	0812	번역가	16.2	36.0	5.0
	0813	통역가	15.6	32.2	4.4
	1214	메이크업아티스트 및 분장사	12.8	32.4	6.2
	0281	안내, 접수사무원 및 전화교환원	13.2	36.1	4.9
	소계		13.4	36.0	5.0

자료 : 산업직업별 고용구조 조사(한국고용정보원,2009)

주1) 동 자료는 모수추정된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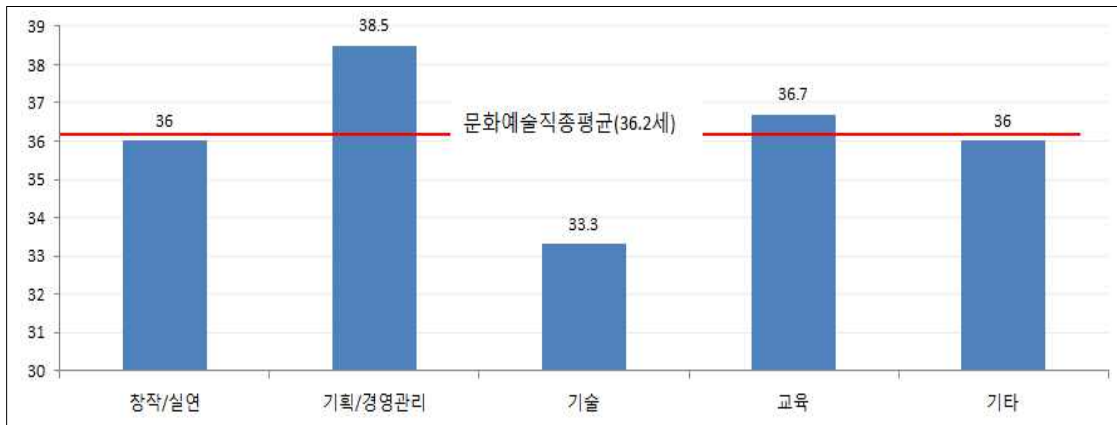
[그림 3.1.1.3] 문화예술직종 종사자의 평균 교육년수(2009년 기준)

(단위: 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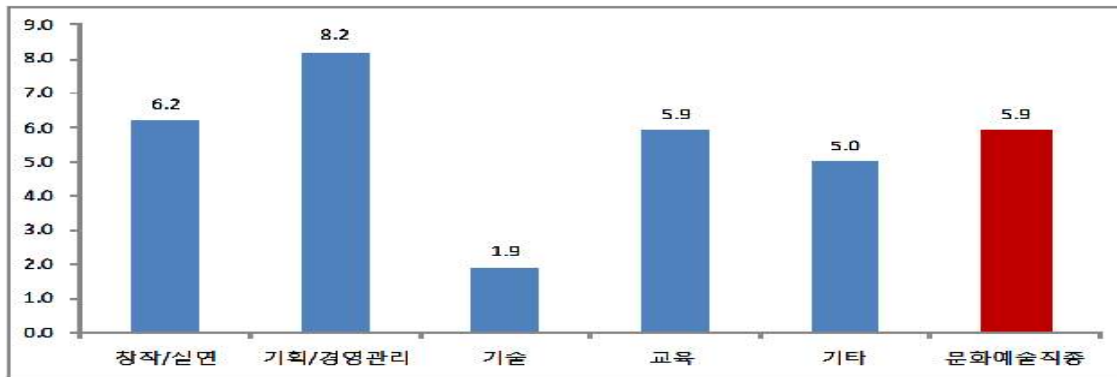
[그림 3.1.1.4] 문화예술직종 종사자의 평균 연령(2009년 기준)

(단위: 세)



[그림 3.1.1.5] 문화예술직종 종사자의 평균 근속년수(2009년 기준)

(단위: 년)



3.1.1.1. 해외 주요국과의 비교 : 문화예술 취업자

- 해외 국가의 경우 각각 문화예술인력의 범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일대일 비교는 곤란하지만, 해외 주요국가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직종(occupation) 종사자들과 우리나라의 동일한 직종 종사자들을 비교하는 것은 가능함
- 먼저 『Cultural Statistics(Eurostat, 2011)』은 EU 국가들의 문화예술인력 중 ISCO-88 분류체계 하에서 243코드와 245코드에 해당하는 직종 종사자들에 대해 파악하고 있어 ISCO코드와 한국직업분류코드와의 연계표를 활용하여 여기에 대응되는 직종을 매칭하면 아래의 [표 3.1.1.1]과 같음
 - EU의 ISCO-88 분류체계 하에서 243코드는 기록물관리사 및 큐레이터, 도서관 사서 및 관련정보 전문가를 포함하며, 245코드는 작가, 저널리스트 및 기타 작가, 조각가, 화가 및 관련 예술가, 작곡가, 음악가 및 가수, 안무가 및 무용수, 영화, 무대 및 관련 배우, 감독을 포함함

[표 3.1.1.1.1] EU의 문화인력의 범주 : ISCO-88과 한국직업분류코드의 연계

ISCO-88				한국직업분류	
243	아카이브, 도서관 사서, 관련 정보 전문가	2431	기록물관리사(Archivists) 및 큐레이터	2821	큐레이터 및 문화재보존원
		2432	도서관 사서 및 관련 정보 전문가	2822	사서 및 기록물관리사
245	작가 및 창조 또는 공연예술가	2451	작가, 저널리스트 및 기타 작가 Authors, journalists and other writers	2733	광고 및 홍보전문가
				2815	출판물 전문가
				2811	작가 및 관련 전문가
				2814	기자 및 논설위원
		2452	조각가, 화가 및 관련 예술가 Sculptors, painters and related artists	2841	화가 및 조각가
		2453	작곡가, 음악가 및 가수 Composers, musicians and singers	2845	지휘자, 작곡가 및 연주자
				2846	가수 및 성악가
		2454	안무가 및 무용수 Choreographers and dancers	2847	무용수 및 안무가
		2455	영화, 무대 및 관련 배우 및 감독 Film, stage and related actors and directors	2831	감독 및 기술감독
				2832	배우 및 모델

자료: European Union(<http://ec.europa.eu/eurostat/ramon>)과 한국 통계청 통계분류(<http://kostat.go.kr/kssc>)를 활용하여 연계한 표임

- 한편 미국의 NEA(National Endowments for the Arts)에서 작성한 「Artists and Arts Workers in the United States」 (2011)는 SOC 분류체계에 따라 ‘배우, 아나운서, 건축가, 순수예술가, 예술감독, 만화가, 무용수 및 안무가, 디자이너, 엔터테이너 및 공연가, 음악가 및 가수, 사진작가, 프로듀서 및 감독, 문인 및 작가’ 등의 11개 예술직종에 종사하는 이들을 ‘예술인력’으로 보고 있음

[표 3.1.1.1.2] 미국의 예술인력의 범주 : SOC 분류코드와 한국직업분류코드의 연계

SOC			한국표준직업분류	
배우 (27-2011)	2011	배우	배우 및 모델	2832
아나운서 (27-3010)	3011	라디오, 텔레비전 아나운서	아나운서 및 리포터	2833
	3012	장내방송설비 및 기타 아나운서		
건축가 (17-1010)	1011	건축(조경 및 해군관련 제외)	건축가 및 건축공학기술자	0311
	1012	조경 건축	조경기술자	2313
순수예술가 및 예술감독, 만화가 (27-1010)	1011	예술감독	-	
	1012	공예예술가	공예원	7911
	1013	순수예술가(화가, 조각가, 삽화가)	화가 및 조각가	0841
	1014	멀티미디어 예술가 및 만화가	만화가 및 만화영화작가	2843
	1019	예술가 및 관련 종사자	기타 연극, 영화 및 영상관련 종사자	2839
무용수 및 안무가 (27-2030)	2031	무용수	무용가 및 안무가	2847
	2032	안무가		
디자이너 (27-1020)	1021	상업 및 산업 디자이너	패션디자이너	2852
	1022	패션디자이너		
	1023	원예디자이너		

	1024	그래픽 디자이너	웹 및 멀티미디어 디자이너	2855
	1025	인테리어 디자이너	실내장식 디자이너	0853
	1026	물품전시가, 상품진열장 디자이너	제품디자이너	2851
	1027	세팅 및 전시회 디자이너	시각디자이너	2854
	1029	기타 디자이너		
엔터테이너 및 공연가 (27-2099)	2099	엔터테이너 및 공연가	마술사 및 기타 문화예술관련 종사자	2899
음악가 및 가수 (27-2040)	2041	음악감독 및 작곡가	지휘자, 작곡가 및 연주자	2845
	2042	음악가 및 가수	가수 및 성악가	2846
			국악 및 전통예능인	2844
사진작가 (27-4021)	4021	사진작가	사진작가 및 사진사	2842
프로듀서 및 감독 (27-2012)	2012	프로듀서 및 감독	감독 및 기술감독	2831
			문화, 예술, 디자인 및 영상관련 관리자	1340
문인 및 작가 (27-3043)	3043	문인 및 작가	작가 및 관련 전문가	2811

주: 본 연구에서 활용한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2009년 기준)』는 한국고용직업분류의 세분류(4 digit)까지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NEA의 예술직업분류 역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세분류 기준에 맞춰 대응시켰음

- 먼저 EU 국가들과 ‘기록물관리사 및 사서’, ‘작가 및 창조적 예술가’직종 종사자들의 수를 비교한 결과 2004년에 비해 2009년에 전반적으로 이들 직종 종사자의 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09년 기준, ‘기록물 관리사 및 사서’(ISCO-88 243코드)직종 종사자의 수는 독일이 33,400명으로 제일 크게 나타났으며, 영국이 47,500명, 이탈리아가 25,500명, 프랑스가 25,700명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한국은 14,200명으로 나타남
 - 전체 직종 종사자 중에 기록물 관리사 및 사서 직종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스웨덴이 0.3%, 영국이 0.2%로 높게 나타났으며, 한국은 EU 27개국 평균인 0.1%보다 낮은 0.06%로 나타남
 - 또한 각국 인구 규모를 고려한 인구 백만명당 기록물 관리사 및 사서직종 종사자의 수 역시 스웨덴이 1,344명, 영국이 769명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한국의 경우 291명에 그쳐 가장 작게 나타남
- 한편 2009년 ‘작가 및 창조적 예술가’(ISCO-88 245코드) 직종 종사자의 수는 독일이 327,800명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영국이 195,600명, 프랑스가 180,200명으로 나타났음. 한국의 경우 120,000명으로 나타남
 - 한편 전체 직종 종사자 중 작가 및 창조적 예술가가 차지하는 비율은 스웨덴이 1.5%, 네덜란드가 1.3%, 독일이 0.8%로 높게 나타났으며, 한국의 경우 EU27개국 평균 비율인 0.7%보다 낮은 0.5%로 나타남
 - 각국 인구 백만명 당 ‘작가 및 창조적 예술가’의 수는 스웨덴이 7,280명, 네덜란드가 6,503명, 독일이 4,009명, 영국이 3,165명으로 나타났고 한국의 경우 2,462명으로 가장 작게 나타남

- 문화예술직종 종사자들의 인구학적 특징을 살펴보면 [표 3.1.1.1.4]와 같음
- 먼저 기록물 관리자 및 사서 직종 여성비율이 EU 및 한국 모두에서 72.1%, 7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작가 및 창조예술가 직종의 여성비율은 EU 27개국 및 한국 모두 50%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EU 27개국에 비해 한국에서 전문대 이상의 고학력 인력이 높게 나타났으며, 기록물 관리자 및 사서 직종에 고학력 인력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EU국가들과 한국 모두 25세~49세 연령층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EU 국가들의 경우 50세 이상 연령층도 30~40%에 달하는 반면, 한국의 경우 15% 선에 그쳐 50세 이상의 고령 종사자의 비율이 낮음을 알 수 있음
-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EU국가들의 경우 중간도시지역과 인구희박지역 종사자들의 비율이 15~20%에 달하는 반면, 한국의 경우 인구희박지역인 읍면 거주자들의 비율은 7~9%에 불과하여 대부분이 대도시 및 중소도시에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고용상태에 있어서는 EU 국가들의 경우 작가 및 창조예술가의 무직 비율이 42.2%로 높게 나타났으며, 파트타임 종사자의 비율은 26.2%, 겸업 비율은 9.4%로 가장 열악한 고용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한국의 경우 임시직·일용직의 비율이 기록물 관리자 및 사서 직종은 16.7%, 작가 및 창조예술가 직종은 12.5%로 나타남

[표 3.1.1.1.3] EU와 한국의 문화예술직종 종사자 수(2009년 기준) (단위: 명, %)

	2004		2009					
	기록물 관리자 및 사서	작가 및 창조 예술가	기록물 관리자 및 사서 (ISCO-88 243코드)			작가 및 창조 예술가 (ISCO-88 245코드)		
	천 명	천 명	천 명	인구 백만명 당 종사자수	비율	천 명	인구 백만명 당 종사자수	비율
EU 27개국	252	1,166	272.0	-	0.1	1,482.0	-	0.7
독일	32.8	235.0	33.4	408	0.1	327.8	4,009	0.8
스페인	24.6	77.6	23.1	504	0.1	101.5	2,215	0.5
프랑스	23.2	150.5	25.7	410	0.1	180.2	2,877	0.7
이탈리아	24.1	118.3	25.5	425	0.1	119.1	1,984	0.5
네덜란드	6.8	99.3	6.9	417	0.1	107.5	6,503	1.3
스웨덴	11.9	51.3	12.5	1,344	0.3	67.7	7,280	1.5
영국	40.7	140.5	47.5	769	0.2	195.6	3,165	0.7
한국	-	-	14.2	291	0.06	120.0	2,462	0.5

자료1: EU 국가 :Cultural Statistics(Eurostat, 2011), 원자료 : EU-LFS (2009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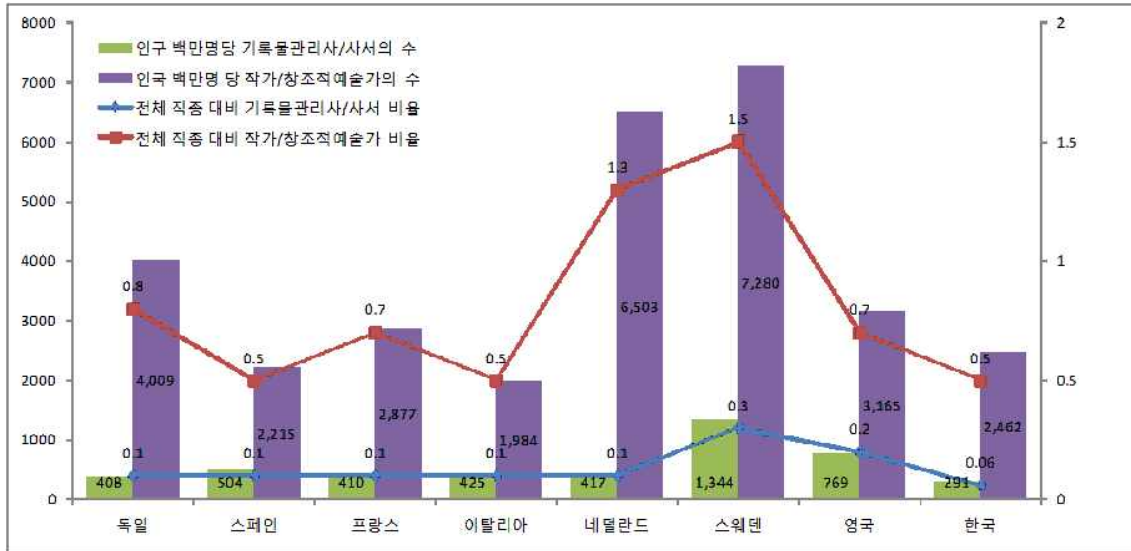
자료2: 한국 : 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고용정보원, 2010). (2009년 기준)

주1) 인구 백만명 당 종사자 수= (해당 직종 종사자 수/인구수)*백만 명

주2) 비율 = (해당 직종 종사자 수/ 전 직종 종사자 수)*100

[그림 3.1.1.1.1] 기록물 관리사 및 사서, 작가 및 창조 예술가 종사자 수

(단위: 명, %)



[표 3.1.1.1.4] EU 27개국 문화관련 종사자 인구학적 특성(2009)

(단위: 천 명, %)

	EU 27개국			한국		
	기록물 관리사 및 사서	작가 및 창조 예술가	전 산업 총 종사자	기록물 관리사 및 사서	작가 및 창조 예술가	전 산업 총 종사자
총 종사자 (천 명)	272	1,482	217,827	14.2	120	23,805
전 산업 종사자 대비 고용 비율(%)	0.12	0.68	100	0.6	0.5	100
여성비율 (%)	72.1	43.9	45.3	73.3	45.0	48.4
전문대 이상 교육 (%)	78.0	68.6	29.7	85.7	72.9	72.6
연령별 (%)						
15-24세	3.2	5.0	9.6	7.1	2.7	3.1
25-49세	59.5	67.5	64.3	78.6	81.6	81.5
50세 이상	37.3	27.5	26.1	14.3	15.7	15.5
지역별 (%)						
밀집인구지역 (densely populated area)	59.6	72.3	47.8	47.6	62.1	61.6
중간도시지역 (intermediate urbanised area)	20.0	16.0	26.7	42.9	30.9	31.1
인구희박지역 (sparsely populated area)	20.4	11.7	25.5	9.5	7.0	7.3
고용 지위별 (%)						
무직(Non-employees)	3.1	42.2	16.5	-	23.7*	-
파트타임(Part-time jobs)	22.6	26.2	18.8	-	-	-
겸업(persons with more that one job)	4.6	9.4	3.8	-	-	-
임시직(temporary jobs)	10.8	13.1	13.5	16.67	12.5	12.9
재택 근무자(persons working at home usually or sometimes)	14.1	45.9	12.6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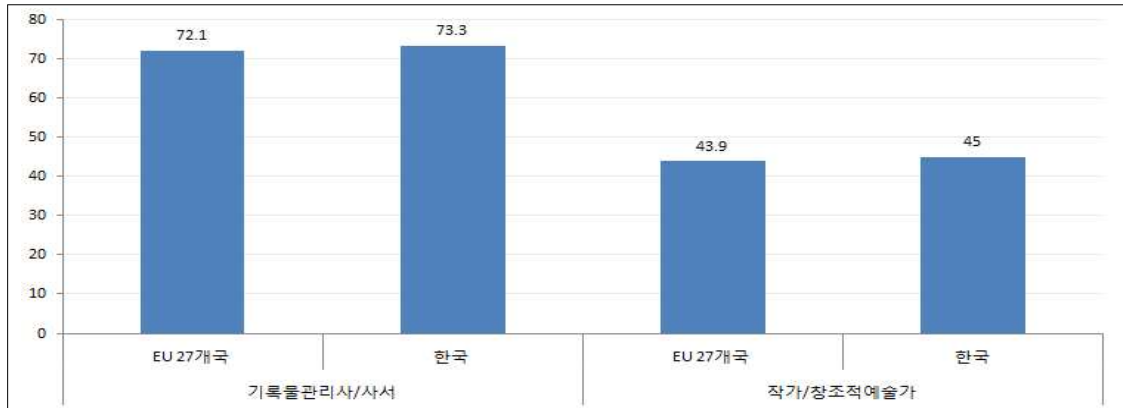
자료1: Cultural Statistics(Eurostat, 2011), 원자료 : EU-LFS(2009년 기준)

자료2: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한국고용정보원,2010) (2009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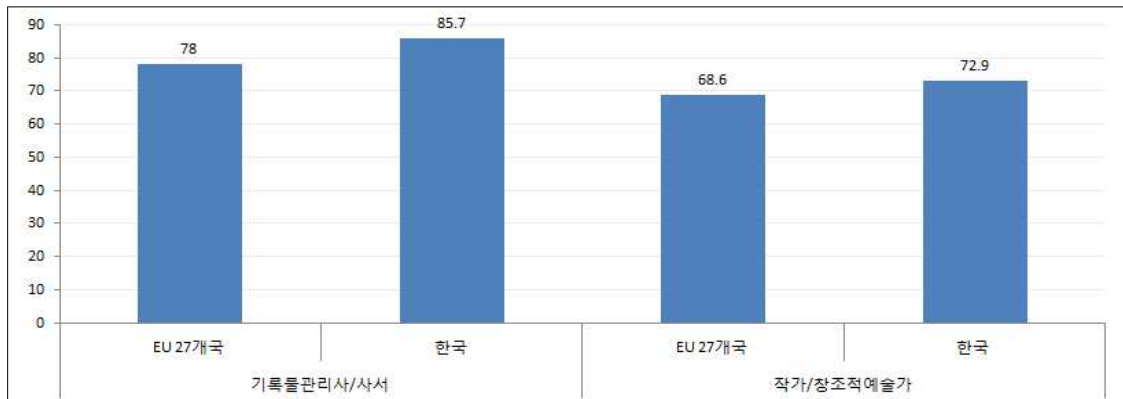
자료3: *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2009)

주) Cultural Statistics(Eurostat, 2011)에서 제시된 범주에 근거하여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재가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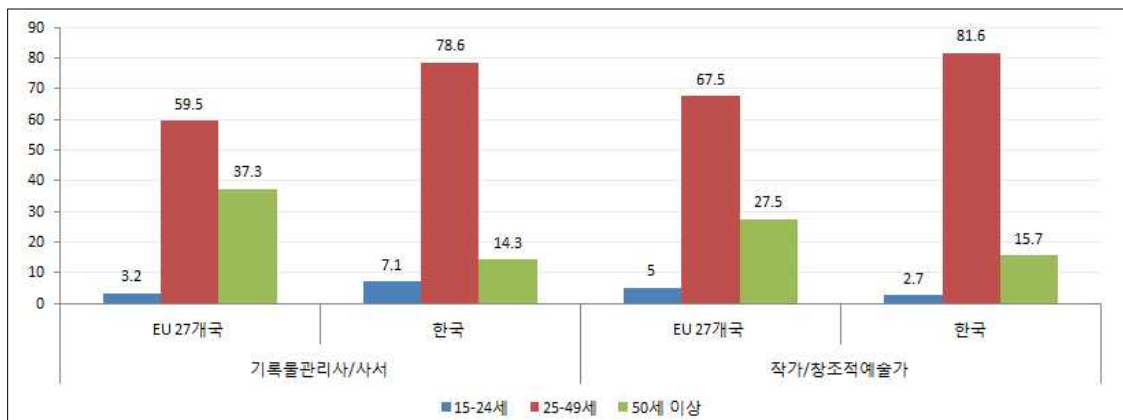
[그림 3.1.1.1.2] EU 27개국과 한국의 문화예술직종 여성비율 비교(2009년 기준) (단위: %)



[그림 3.1.1.1.3] EU 27개국과 한국의 문화예술직종 전문대 이상 고학력 비율(2009년 기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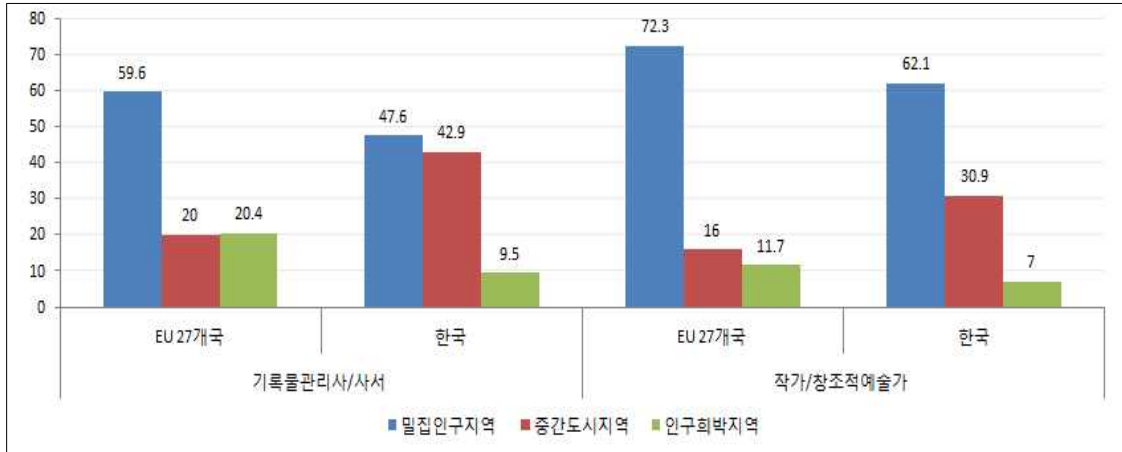


[그림 3.1.1.1.4] EU 27개국과 한국의 문화예술직종 연령별 비율(2009년 기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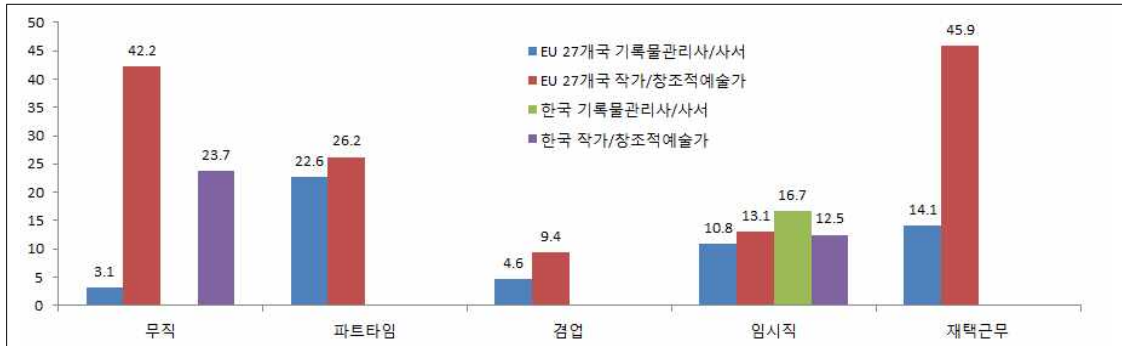
[그림 3.1.1.1.5] EU 27개국과 한국의 문화예술직종 거주지역별 비율(2009년 기준)

(단위: %)



[그림 3.1.1.1.6] EU 27개국과 한국의 문화예술직종 고용상 지위(2009년 기준)

(단위 : %)



- 한편 미국의 「Artist and Arts Workers in the United States(NEA)」 보고서에 따르면, 문화예술직종으로 분류된 11개 직종 종사자들의 수는 2009년 기준 153백만 명으로 전체 직종 종사자들의 약 1.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의 경우 동일한 11개 직종 종사자들의 수는 24백만 명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 직종 종사자 중 약 2.1%에 해당함
- 직종별로 살펴보면 미국과 한국 모두에서 디자이너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40%에 달하여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한국의 경우 건축가의 비율이 32.6%로 나타나 미국의 9.7%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남
 - 미국의 경우 디자이너, 건축가 외에도 순수예술가, 감독 및 만화가가 10.1%, 문인 및 작가가 9.4%, 음악가가 8.8%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의 경우 디자이너, 건축가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이 외에 순수예술가, 감독 및 만화가가 7.1%, 사진작가가 5.6%, 프로듀서가 5.1%, 음악가가 3.4%로 나타남
- 동 11개 직종의 여성 비율은 미국이 46.6%, 한국이 41.9%로 나타나 미국 11개 직종의 여성 종사인력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직종별로는 미국의 경우 무용수의 여성비율이 77.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디자

이녀가 54.%, 엔터테이너 및 공연가가 47.1%, 순수예술가, 감독 및 만화가가 44.9%, 사진작가가 44.8%로 높게 나타남

- 한국의 경우 문인 및 작가의 여성비율이 76.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무용수가 71.1%, 디자이너가 55.9%, 아나운서가 44.7%로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11개 문화예술직종 종사자 중 35세 이하의 비율은 35.5%로 한국의 47.12%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연령 중위수에서도 미국은 40세, 한국은 37세로 나타나 한국 문화예술직종 종사자의 연령이 미국에 비해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음

- 직종별로는 미국의 경우 문인 및 작가, 음악가, 건축가의 연령 중위수가 40대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음

- 연령 중위수가 가장 낮게 나타나는 직종은 한국, 미국 모두 무용수로 나타남

○ 학력별로는 미국의 경우 11개 문화예술직종 종사자 중 학사 이상의 비율은 59%, 한국의 경우 83.2%로 나타나 한국 문화예술직종 종사자의 고학력자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직종별로는 미국의 경우 건축가, 문인 및 작가, 프로듀서 직종의 고학력자 비율이 높게 나타남

- 한국의 경우 문인 및 작가, 프로듀서, 건축가 직종의 고학력자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3.1.1.1.5] 미국과 한국의 문화예술직종 종사자 수(2009년 기준) (단위: 명, %)

	미국			한국		
	노동인구	비율	여성비율	노동인구	비율	여성비율
전 산업 종사자	153,409,111	*1.4	46.6	23,805,000	*2.1	41.9
예술직업 전체	2,099,394	100.0	46.0	506,700	100.0	35.5
배우	46,526	2.2	42.7	8,200	1.6	35.9
아나운서	55,302	2.6	21.2	3,100	0.6	44.7
건축가	203,272	9.7	24.9	165,000	32.6	13.2
무용수	24,713	1.2	77.9	2,700	0.5	71.1
디자이너	828,747	39.5	54.0	204,700	40.4	55.9
순수예술가_감독_만화가	212,236	10.1	44.9	36,200	7.1	36.0
음악가	185,675	8.8	35.4	17,200	3.4	38.7
엔터테이너및공연가	45,227	2.2	47.1	3,400	0.7	10.4
사진작가	154,914	7.4	44.8	28,600	5.6	18.8
프로듀서	145,014	6.9	36.8	25,900	5.1	13.0
문인 및 작가	197,768	9.4	56.8	11,700	2.3	76.9

자료1: 미국 : Artist and Arts Workers in the United States(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2011년도 자료

자료2: 한국 : 산업·직업별 고용구조 조사(한국고용정보원, 2010), 2009년 기준

주1) * 비율: 전 직종 종사자의 비율= (예술직업 전체의 노동인구/ 전 직종 종사자)*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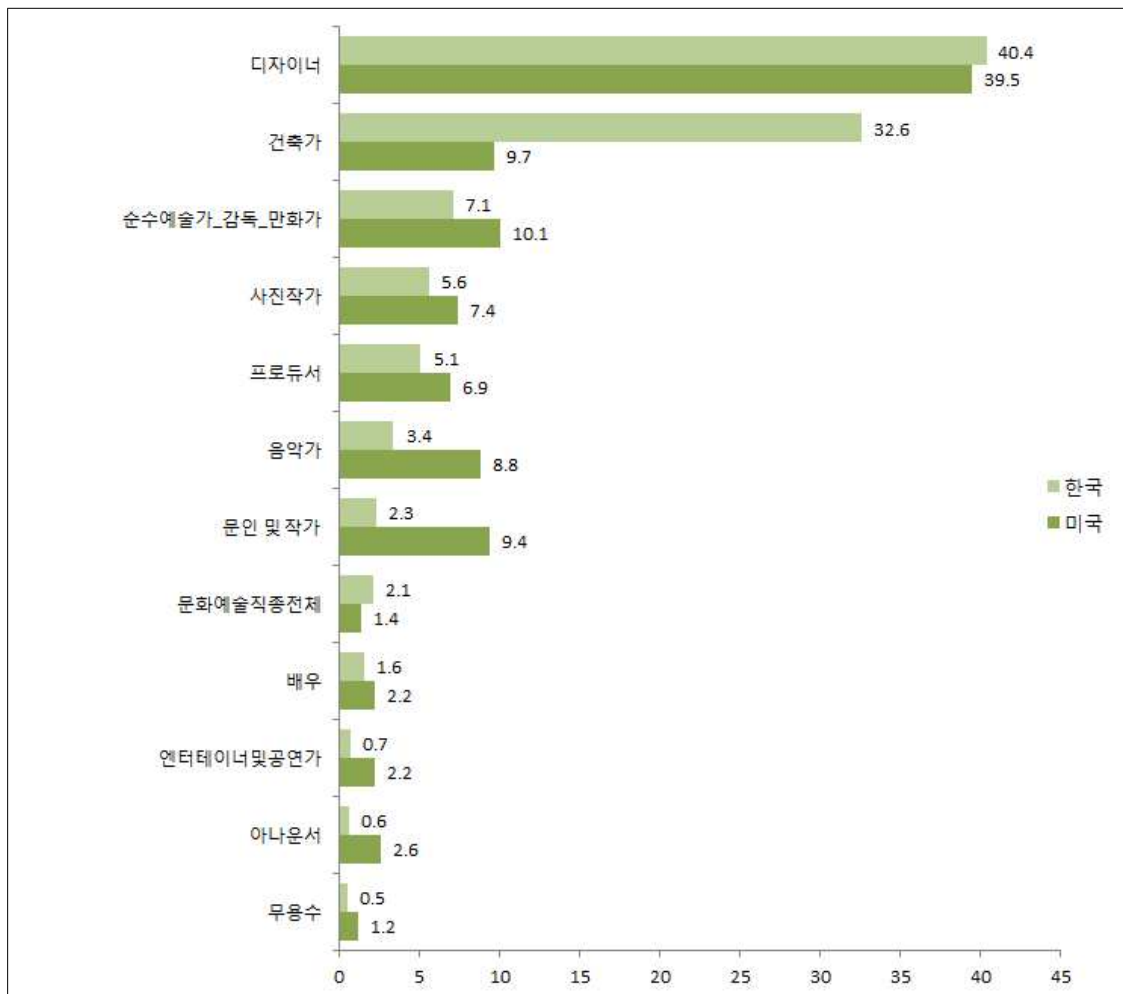
[표 3.1.1.1.5] 미국과 한국의 문화예술직종 종사자의 인구학적 특성(2009년 기준) (단위: %)

	미국			한국		
	35세 이하 비율	연령 (중위수)	학사이상 비율	35세 이하 비율	연령 (중위수)	학사이상 비율
예술 직종 전체	35.5	40	59.0	47.12	37	64.0
배우	47.1	36	54.3	75.0	29	41.7
아나운서	43.3	37	36.8	50.0	35	60.0
건축가	27.7	43	88.5	35.2	39	76.0
무용수	83	25	25.9	100.0	24	66.7
디자이너	37.5	39	50.9	65.1	32	59.3
순수예술가_감독_만화가	27.3	44	55.6	27.5	43	30.9
음악가	30.6	44	52.4	37.1	39	67.6
엔터테이너및공연가	50.9	34	35.6	83.3	27	16.7
사진작가	41.5	38	45.5	34.0	39	41.7
프로듀서	38.7	38	71.6	31.7	39	83.2
문인 및 작가	27.2	44	84.0	57.9	35	9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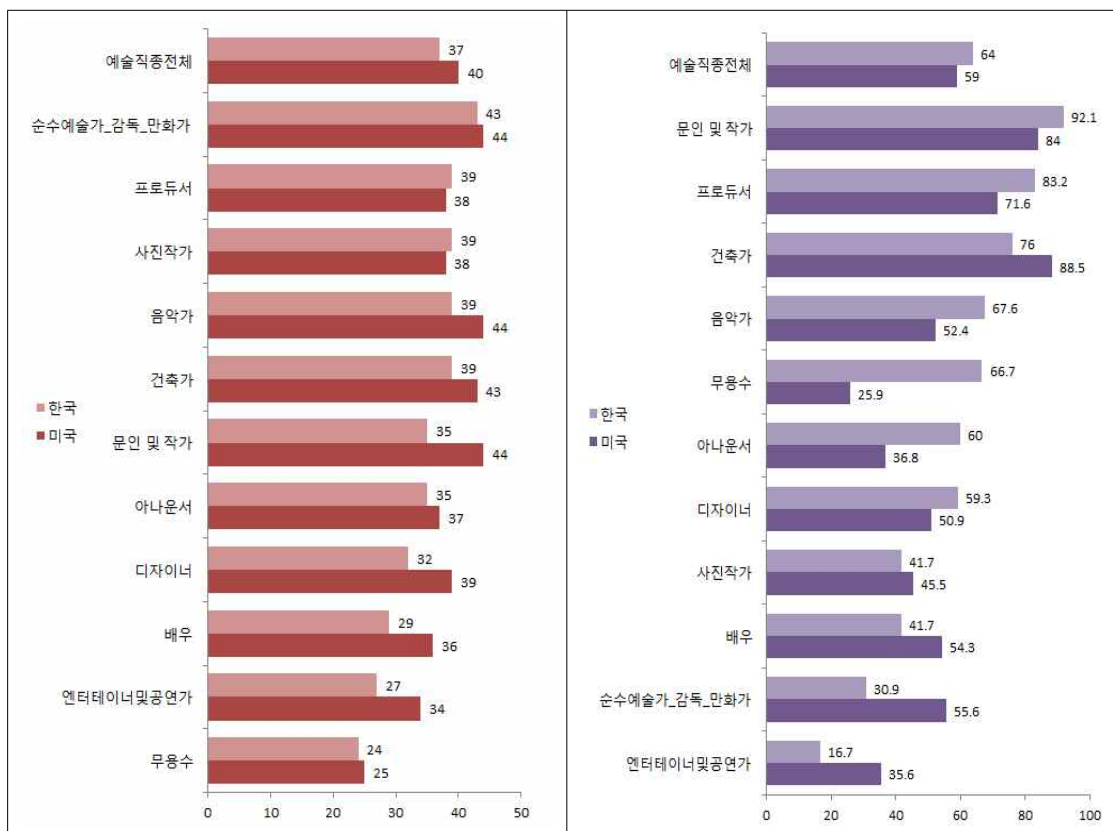
자료1: 미국: Artist and Arts Workers in the United States(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2011년도 자료

자료2: 한국: 산업직업별 고용구조 조사(한국고용정보원,2010) 원자료를 토대로 분석 및 재가공한 결과임

[그림 3.1.1.1.7] 미국과 한국의 문화예술직종 종사자 비율 (단위: %)



[그림 3.1.1.1.8] 미국과 한국의 문화예술직종 종사자 연령(중위수)과 학사이상 비율 (단위: 세, %)



3.1.2 문화예술 실업자

- 『예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문화예술인 중 고용상태에 있지 않은 무직의 비율은 2003년 7.7%, 2006년 13.9%, 2009년 23.7%로 점차 증가하고 있음
- 또한 무직자 중 실업자에 해당하는 비율 또한 2003년 2.7%, 2006년 6.8%, 2009년 10.3%로 증가하고 있음
 - 동 자료의 경우 응답자의 수가 작아 결과의 일반화에는 유의를 요하지만, 점차 문화 예술인력 중 실업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3.1.2] 문화예술인력 중 무직자의 구성 (단위 : 명, %)

	2003		2006		2009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무직	150	7.7	278	13.9	474	23.7
실업	4	2.7	19	6.8	49	10.3
취학	6	4.0	13	4.7	32	6.8
가사	49	32.7	69	24.8	131	2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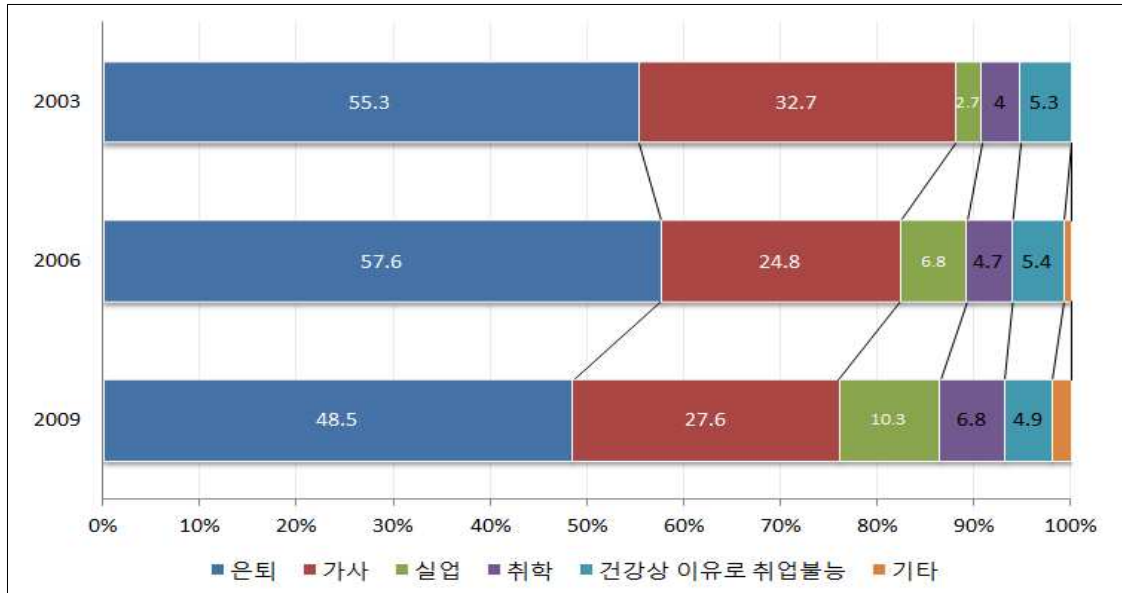
은퇴	83	55.3	160	57.6	230	48.5
건강상 이유로 취업불능	8	5.3	15	5.4	23	4.9
기타(무응답포함)	0	0.0	2	0.7	9	1.9

자료 : 문화예술인 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03; 2006; 2009)

주 : “OO님은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까?”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에 대한 응답 결과

[그림 3.1.2] 문화예술인 중 무직자의 구성(2003-2009)

(단위: %)



3.2 문화예술분야 종사자 수

- 문화예술분야 종사자의 수는 문화예술 관련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이들의 수를 통해 파악할 수 있음
- 『전국사업체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문화예술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문화예술분야 종사자의 수는 2007년 463,107명, 2008년 454,375명, 2009년 453,624명으로 감소하고 있음
 - 전 산업 종사자 수 대비 문화예술산업 종사자의 비율 역시 2007년 2.9%, 2008년 2.79%, 2009년 2.7%로 감소하고 있음
-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으로 살펴보면, 2009년 기준으로 예술학원(71,181명),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55,986명), 컴퓨터게임방 운영업(44,951명) 종사자의 수가 가장 크게 나타나며, 2007년에 비해 신문발행업,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영화 및 비디오물 상영업 종사자가 상당 수 감소함
- 문화예술영역별로는 시각예술 및 공연영역의 종사자가 전체의 21~24%로 가장 큰 비중

을 차지하고 있으며, 게임 영역 종사자는 18~19.4%, 기타 영역 종사자는 18.2~19.1%, 시청각 및 상호작용적 미디어 영역 종사자는 16.8~18.1%,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영역 종사자는 4~5%, 공연예술 및 축제 영역 종사자는 2.8~3.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 2009년 기준으로 문화예술분야 종사자의 여성 비율은 전체 문화예술분야 종사자의 38.8%로 문화예술직종 종사자의 여성비율(47.1%)보다는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기타 분야(48.6%), 공연예술 및 축제 분야(44.5%)의 여성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3.2.1] 문화예술분야 종사자 수(문화예술 관련 산업 종사자의 수) (단위: 명)

FCS 문화 영역	한국산업분류	코드	2007	2008	2009
문화 유산 및 자연 유산	도서관 및 기록보존소 운영업	R90211	9,137	10,351	11,271
	박물관 운영업	R90221	6,044	6,509	7,141
	사적지 관리 운영업	R90222	2,033	2,220	2,561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R90231	1,288	1,537	1,633
	기타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R90290	216	222	196
	소계		18,718	20,839	22,802
	비율		4.04	4.59	5.03
공연 예술 및 축제	연극단체	R90121	796	841	1,111
	무용 및 음악단체	R90122	2,295	2,967	3,205
	기타 공연단체	R90123	208	305	338
	공연예술가	R90131	46	64	42
	공연기획업	R90191	2,287	2,632	2,967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R90192	195	304	333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R90199	2,105	2,282	2,228
	공연시설 운영업	R90110	4,960	6,039	6,703
	소계		12,892	15,434	16,927
	비율		2.8	3.4	3.7
시각 예술 및 공예	비공연예술가	R90132	718	748	723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	C33110	8,814	7,844	7,741
	인물사진 및 행사용 비디오 촬영업	M73301	14,936	14,939	14,633
	상업용 사진 촬영업	M73302	1,063	1,107	1,047
	사진 처리업	M73303	3,393	2,590	2,288
	인테리어 디자인업	M73201	3,131	4,678	4,699
	제품 디자인업	M73202	3,256	3,927	4,283
	시각 디자인업	M73203	4,603	5,736	5,751
	기타 전문 디자인업	M73209	1,869	3,007	2,583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M72111	52,844	58,262	55,986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M72112	3,744	5,440	5,551
	소계		98,371	108,278	105,285
	비율		21.2	23.8	23.2
	교과서 및 학습서적 출판업	J58111	12,341	12,148	13,435
도서 및 출판	만화출판업	J58112	304	320	303
	기타 서적 출판업	J58119	11,936	12,044	10,953
	신문 발행업	J58121	31,539	14,756	16,751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J58122	15,698	9,396	9,283
	정기 광고간행물 발행업	J58123	10,293	4,877	4,552
	기타 인쇄물 출판업	J58190	5,548	2,248	1,943
	소계		87,659	55,789	57,220
	비율		18.9	12.3	12.6
시청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J59111	2,083	1,609	1,6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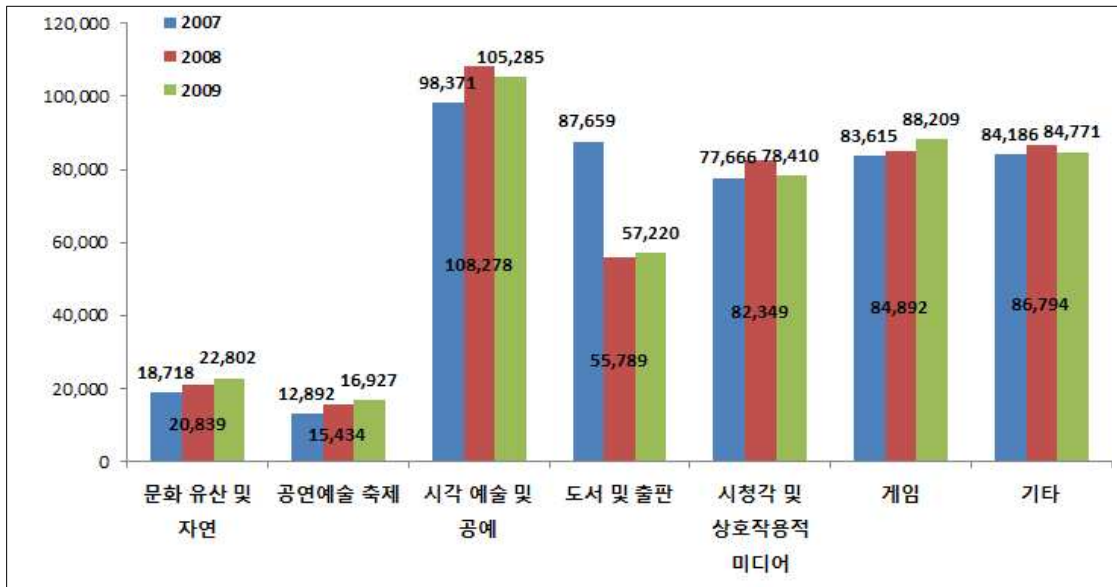
각 및 상호 작용 적 미디 어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J59112	2,945	3,095	3,387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J59113	3,675	3,378	3,146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J59114	4,738	4,530	4,975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J59120	670	839	829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J59201	1,193	1,270	1,196
	녹음시설 운영업	J59202	684	660	666
	매니저업	M73901	1,446	1,377	1,395
	라디오 방송업	J60100	1,541	1,774	1,972
	지상파 방송업	J60210	12,459	14,133	12,333
	프로그램 공급업	J60221	2,175	3,138	3,713
	유선방송업	J60222	8,661	8,447	8,403
	위성 및 기타 방송업	J60229	877	957	593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J59130	589	535	632
	영화관 운영업	J59141	8,581	9,172	10,360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J59142	2,693	2,402	2,220
	영화 및 비디오물 상영업	J59140	11,274	11,574	6,084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J63120	11,382	13,459	14,849
	소계		77,666	82,349	78,410
	비율		16.8	18.1	17.3
게임	영상게임기 제조업	C33402	373	350	367
	온라인·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8211	13,497	17,635	19,834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8219	2,836	2,532	2,201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J62010	12,241	14,623	18,882
	전자게임장 운영업	R91221	3,322	2,388	1,974
	컴퓨터게임방 운영업	R91222	51,346	47,364	44,951
	소계		83,615	84,892	88,209
	비율		18.1	18.7	19.4
기타	문화 및 관광행정	O84212	2,425	2,676	2,480
	예술학원	P85620	73,589	72,729	71,181
	피아노 제조업	C33201	331	191	98
	현악기 제조업	C33202	477	526	321
	전자악기 제조업	C33203	855	969	504
	국악기 제조업	C33204	231	237	225
	기타악기 제조업	C33205	892	422	460
	악기소매업	G47593	1,364	2,090	2,125
	악기도매업	G46462	578	854	864
	사진장비 및 광학용품 도매업	G46493	3,444	6,100	6,513
	소계		84,186	86,794	84,771
	비율		18.2	19.1	18.7
	총계(문화예술산업 종사자수)		463,107	454,375	453,624
전 산업 종사자 수 계			15,943,674	16,288,280	16,818,015
전산업 종사자 수 대비 문화예술산업 종사자 비율			2.9	2.79	2.7

자료 : 전국사업체 조사(통계청)

주)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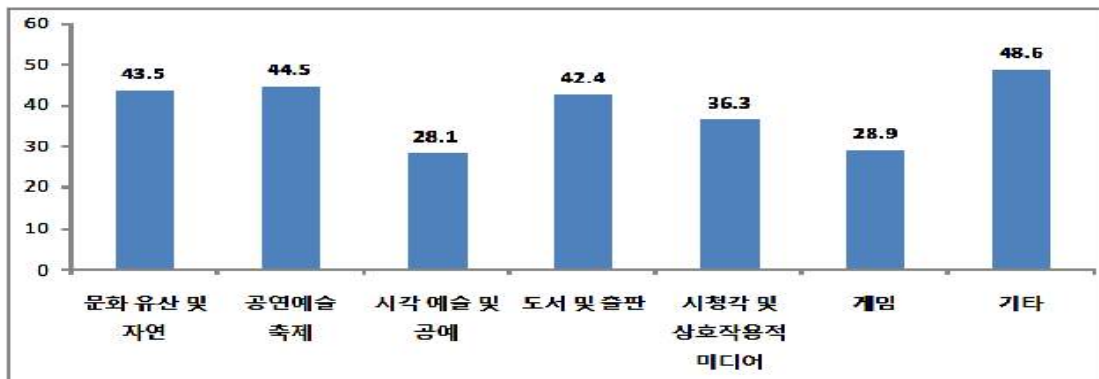
[그림 3.2.1] 문화영역별 문화예술분야 종사자 수

(단위: 명)



[그림 3.2.2] 문화예술영역별 문화예술 종사자 여성비율(2009년 기준)

(단위: %)



- 한편 문화예술분야 종사자는 문화예술관련 직업을 가진 이와 그렇지 않은 이들로 구분됨
- 현재로서는 이들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없으나,⁸⁾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한국고용정보원, 2009)를 통해 그 일부를 파악할 수는 있음
-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에 따르면 2009년 기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종사자 중 약 83.8%가 문화예술인력(문화예술직종 종사자)로 나타났으며, 도서관, 사적지

8) 이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응답자가 활동하고 있는 산업 부문에 대한 한국표준산업분류(세세분류 기준)와 해당 종사자의 직업(한국표준직업분류 세분류 기준)에 대한 정보가 동시에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들을 모두 제공하는 통계조사가 없기 때문임. 다만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2009년 기준)』는 종사자의 직업 세분류와 산업소분류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이 중 문화예술 관련성이 가장 높은 901코드(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902코드(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를 활용하여 개략적으로 살펴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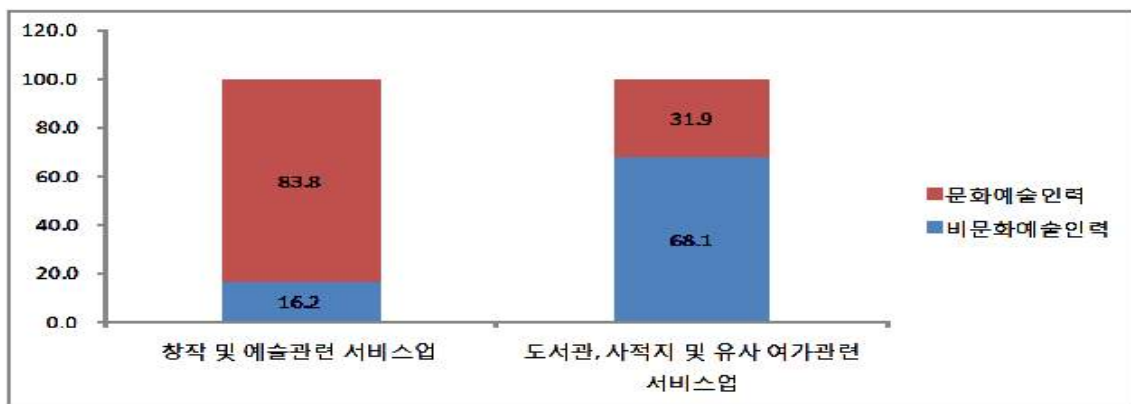
및 유사여가관련 서비스업 종사자 중의 약 31.9%가 문화예술인력(문화예술직종 종사자)로 나타남

[표 3.2.2] 문화예술산업 종사자 중 문화예술인력의 비율(2009년 기준) (단위: 명, %)

		산업분류(문화예술분야 종사자)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901 코드)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902 코드)
문화예술과정 (직업)	비문화	29명	96명
		16.2%	68.1%
	문화	150명	45명
		83.8%	31.9%
계		179명	141명
		100%	100%

자료 :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한국고용정보원, 2009)

[그림 3.2.3] 문화예술산업 종사자 중 문화예술인력의 비율 (2009년 기준) (단위:%)



3.2.1. 해외 주요국과의 비교 : 문화예술사업체 종사자

- EuroStat이 펴내는 『Cultural Statistics』는 NACE(Classification of Economic Activities in the European Community) Rev.2 의 일부 문화예술 관련 사업체 종사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NACE 58(출판활동), 59(모션픽처, 비디오, TV 프로그램 제작, 사운드 레코딩, 음악제작활동), 60(프로그래밍, 방송활동) 90(창조적예술, 엔터테인먼트활동) 91(도서관, 아카이브, 박물관 및 기타 문화활동)에 해당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연계한 표는 다음과 같음
- NACE 58, 59, 60, 90, 91 코드에 해당하는 문화예술분야 종사자의 수는 독일이 약 85만명, 영국이 60만명, 프랑스가 44만명, 한국이 27만명, 이탈리아가 25만명, 스페인이

24만명, 네덜란드가 176만명, 스웨덴이 105만명 정도로 나타남

- 각 문화예술분야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출판 부문 종사자의 비율이 전반적으로 가장 크게 나타나며 특히 한국이 66.9%, 독일이 48.7%로 출판 부문 종사자의 비중이 크게 나타남
- 한편 창조적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 분야 종사자의 비율은 한국의 경우 4.6%로 가장 작게 나타나는 반면 프랑스는 34%, 이탈리아는 32.1%, 독일은 26.4%, 영국은 25.8%, 스웨덴은 25.5%로 나타나는 등 대부분의 EU국가 25~30% 가까이 나타나고 있음
- 도서관, 아카이브, 박물관 등 분야 종사자의 비율 역시 스웨덴은 19.2%, 영국은 18.9%, 이탈리아는 15.4%로 나타나는 반면 한국의 경우 7.8%에 머물고 있음

[표 3.2.1.1] EU NACE 분류코드와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와의 연계

EU		한국	
NACE 58	출판활동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소프트웨어 출판업	J58	출판업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NACE 59	모션픽처, 비디오, TV 프로그램 제작, 사운드 레코딩, 음악 제작 활동	J59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NACE 60	프로그래밍, 방송 활동	J60	방송업
NACE 90	창조예술, 엔터테인먼트 활동	R901	창작, 예술 관련 서비스업
NACE 91	도서관, 아카이브, 뮤지엄 및 기타 문화활동	R90211	도서관, 기록보존소운영업
		R90221	박물관 운영업
		R90222	사적지관리운영업
		R9023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

[표 3.2.1.2] EU와 한국의 문화예술 사업체 종사자(2009년 기준)

(단위:천명, %)

	전체 (NACE 58,59,6 0,90,91)	출판 (NACE 58)		모션픽처, 비디오, TV,음악 녹음 및 출판 (NACE 59)		프로그래밍 및 방송 (NACE 60)		창조예술 및 엔터테인먼트 (NACE 90)		도서관, 아카이브, 뮤지엄 및 기타 문화활동 (NACE 91)	
EU 27개국	3,638.5	1,251.7	-	402.3	-	348.6	-	1,045.6	-	590.3	-
독일	847.2	412.9	48.7	78.1	9.2	55.6	6.6	223.5	26.4	77.1	9.1
스페인	243.4	71.2	29.3	36.1	14.8	44.1	18.1	59.0	24.2	33.0	13.6
프랑스	437.3	145.4	33.2	57.7	13.2	33.4	7.6	148.6	34.0	52.1	11.9
이탈리아	246.7	89.4	36.2	27.9	11.3	12.3	5.0	79.2	32.1	37.9	15.4
네덜란드	176.2	56.5	32.1	26.1	14.8	u	u	64.2	36.4	28.8	16.3
스웨덴	105.3	35.8	34.0	14.1	13.4	8.3	7.9	26.9	25.5	20.2	19.2
영국	597.1	186.2	31.2	79.7	13.3	63.5	10.6	154.0	25.8	112.9	18.9
한국	269.7	180.3	66.9	29.1	10.8	27.0	10.0	12.3	4.6	21.0	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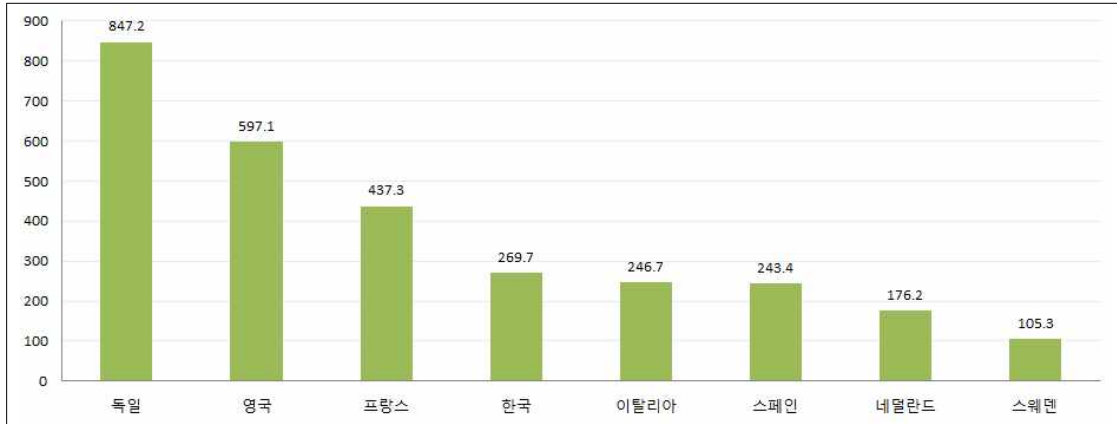
자료 1 : EU : Cultural Statistics(Eurostat, 2011). 원자료 : EU-LFS (2009년 기준)

자료 2: 한국 : 전국사업체조사(통계청).2009년 기준

주: u : 신뢰할 수 없는 수치(Eurostat,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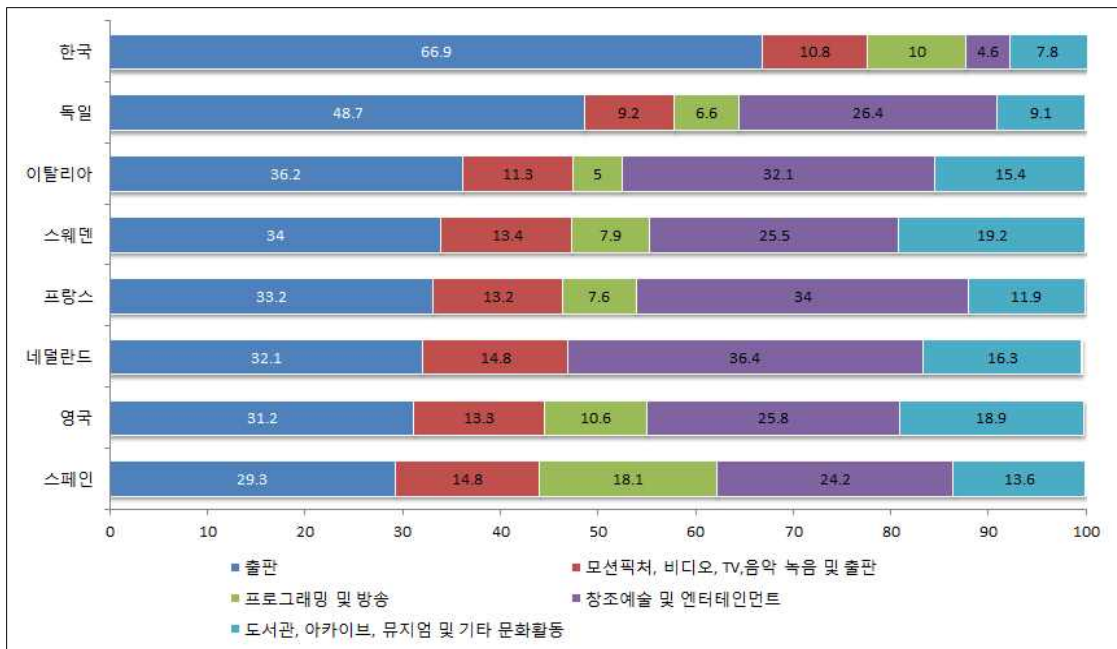
[그림 3.2.1.1] EU와 한국의 문화예술 관련 사업체 종사자의 수(2009년 기준)

(단위:천명)



[그림 3.2.1.2] EU와 한국의 문화예술 관련 사업체 종사자의 분야별 비율(2009년 기준)

(단위:천명)



3.3 문화예술인력 일자리 지표

3.3.1 문화예술 취업자 고용상 지위

-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에 따르면 2009년 기준, 문화예술직종 종사자의 경우 상용직 근로자의 비율이 62.6%, 자영업 및 무급가족종사자 비율이 19.65%, 임시 및 일용 근로자 비율이 9.8%, 고용주의 비율이 7.91%로 나타나고 있음

- 문화예술분야별로 살펴보면 상용직 근로자의 비율은 디자인(72.5%), 건축(85.6%), 경영 및 관리(74.0%) 분야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임시 및 일용근로자의 비율은 공연예술(23.1%), 교육(21%) 분야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 3.3.1.1] 문화예술 취업자의 고용상 지위(2009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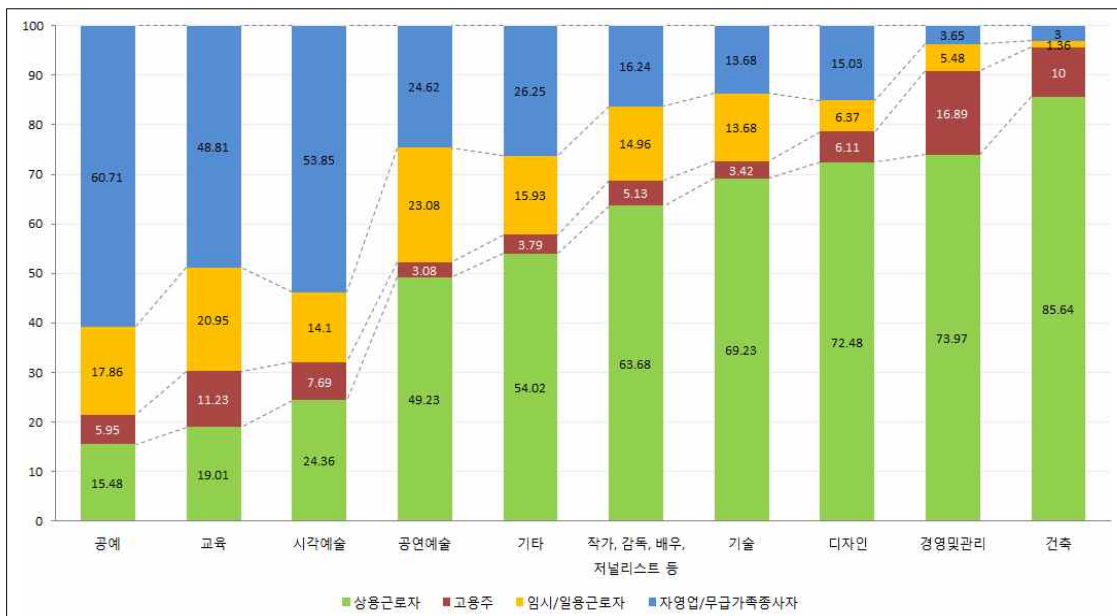
(단위: %, 명)

		상용근로자 비율	고용주 비율	임시/일용 근로자 비율	자영업/무급 가족종사자 비율	계 (응답자수)
창 작 및 실 연	디자인	72.48	6.11	6.37	15.03	785
	건축	85.64	10	1.36	3	1,100
	공예	15.48	5.95	17.86	60.71	84
	기타 시각예술	24.36	7.69	14.1	53.85	156
	공연예술	49.23	3.08	23.08	24.62	65
	작가,배우,감독,언론인 등	63.68	5.13	14.96	16.24	234
기획 및 경영·관리		73.97	16.89	5.48	3.65	219
기술		69.23	3.42	13.68	13.68	117
교육		19.01	11.23	20.95	48.81	463
기타		54.02	3.79	15.93	26.25	659
계		62.6	7.91	9.84	19.65	3,882

자료 :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한국고용정보원, 2009)

[그림 3.3.1.1] 문화예술 취업자 고용상 지위(2009년 기준)

(단위: %)



- 한편 『예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업작가/자유전문직의 비율(32~39%)이 가장 크게 나타나며, 정규피고용직(상용직)의 비율이 30~35%, 자영업 및 고용주의 비율이 15~22%, 임시 피고용직이 10.2~16%, 기타가 0.1~0.2%로 나타나고 있음

[표 3.3.1.2] 문화예술인의 고용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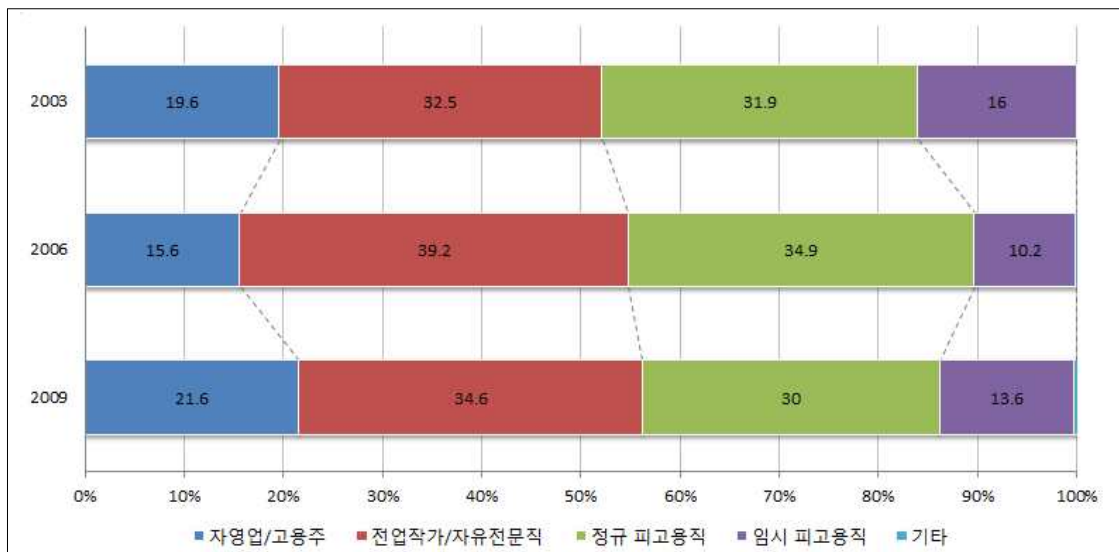
(단위 : 명, %)

	2003		2006		2009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무직	150	7.7	278	13.9	474	23.7
고용상태	1,797	92.3	1,722	86.1	1,525	76.3
자영업/고용주	353	19.6	268	15.6	329	21.6
전업작가/자유전문직	584	32.5	676	39.2	528	34.6
정규 피고용직	573	31.9	601	34.9	458	30.0
임시 피고용직	287	16.0	175	10.2	208	13.6
기타	0	0.0	2	0.1	2	0.1

자료 : 문화예술인 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03; 2006; 2009)

[그림 3.3.1.2] 문화예술인의 고용상태

(단위: %)



3.3.1.1. 해외 주요국과의 비교 : 문화예술취업자 고용상 지위

- 미국 NEA에서 문화예술 직종으로 분류하고 있는 11개 직종 종사자의 장기 상근직 (Working full-time-full-year)의 비율은 56.5%로 한국의 64.8%보다 낮게 나타남
- 직종별로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건축가의 상근직 비율이 77%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프로듀서 66.9%, 디자이너 63.4%의 순으로 상근직 비율이 높게 나타남
 - 반면 배우는 20.4%, 무용수는 27.6%, 음악가가 30.8%로 상근직의 비율이 낮게 나타남
- 한국의 경우 건축가가 81%, 디자이너 69.7%, 프로듀서 68.3%, 무용수가 66.7%, 아나운서가 60%로 상근직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한편 순수예술가, 감독, 만화가의 상근직 비율이 19.5%로 가장 낮게 나타나며, 배우가 25%, 사진작가가 26.2%, 문인 및 작가가 26.3%로 상근직의 비율이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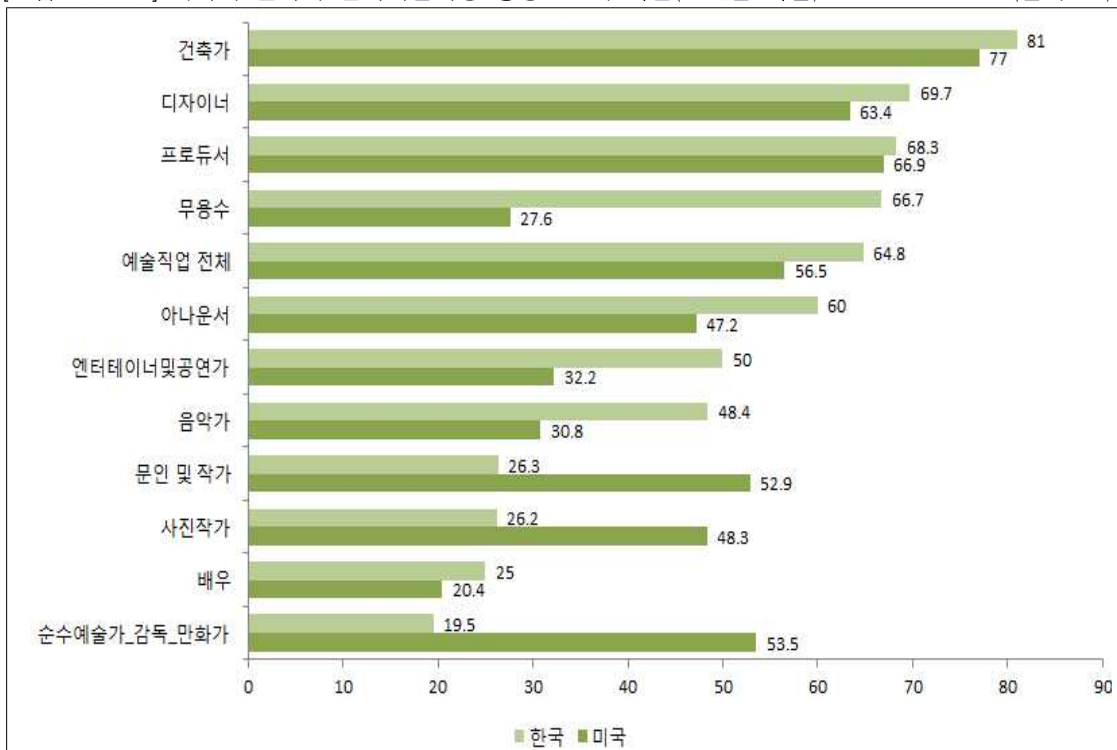
[표 3.3.1.1.1] 미국과 한국의 문화예술직종 상용근로자 비율(2009년 기준) (단위: %)

	미국	한국
	장기상근직 비율	상용직 비율
예술직업 전체	56.5	64.8
배우	20.4	25.0
아나운서	47.2	60.0
건축가	77.0	81.0
무용수	27.6	66.7
디자이너	63.4	69.7
순수예술가_감독_만화가	53.5	19.5
음악가	30.8	48.4
엔터테이너및공연가	32.2	50.0
사진작가	48.3	26.2
프로듀서	66.9	68.3
문인 및 작가	52.9	26.3

자료1: Artist and Arts Workers in the United States(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2011년도 자료

자료2: 산업·직업별 고용구조 조사(한국고용정보원,2010) 원자료를 토대로 미국의 11개 직종 범주에 따라 분석 및 재가공
주1) 장기 상근직(working full-time-full year): 50주 이상, 주 35시간 이상 근무자

[그림 3.3.1.1.1] 미국과 한국의 문화예술직종 상용근로자 비율(2009년 기준) (단위: %)



3.3.2 문화예술분야 종사자 고용상 지위

- 『전국사업체조사』에 따르면 2009년 기준 문화예술 관련 사업체에 종사하는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의 고용상 지위는 상용직 근로자의 비율이 58.4%, 임시 및 일용직의 비율이 14.6%,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율이 12%, 자영업자 비율이 11.7%, 기타 비율이 3.3%로 나타남
- 문화예술분야별로 살펴보면 상용직 근로자의 비율은 도서/출판(84.7%), 문화유산/자연유산(74.1%), 시각예술/공예(71.7%) 분야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임시/일용직의 비율은 게임(23.6%), 문화유산/자연유산(22.6%), 시청각미디어(21%), 공연예술/축제(19.8%)에서 높게 나타남

[표 3.3.2] 문화예술분야 종사자의 고용상 지위 (2009년 기준)

(단위: 명, %)

FCS 문화 영역	한국산업분류	코드	2009				
			자영업자	무급 가족	상용	임시/ 일용	기타
문화예술분야 종사자 계			49,635	51,084	248,765	62,054	14,134
			11.7	12.0	58.4	14.6	3.3
문화 유산 및 자연 유산	도서관 및 기록보존소 운영업	R90211	37	5	8,556	2,504	169
	박물관 운영업	R90221	241	44	5,424	1,253	179
	사적지 관리 운영업	R90222	5	3	1,659	866	28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R90231	25	12	1123	464	9
	기타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R90290	3	0	137	56	0
	소계		311	64	16,899	5,143	385
	비율		1.4	0.3	74.1	22.6	1.7
공연 예술 및 축제	연극단체	R90121	83	4	422	278	324
	무용 및 음악단체	R90122	130	7	2,375	397	296
	기타 공연단체	R90123	12	3	131	164	28
	공연예술가	R90131	32	3	6	0	1
	공연기획업	R90191	152	14	1,786	705	310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R90192	12	2	238	80	1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R90199	206	16	1,604	385	17
	공연시설 운영업	R90110	130	11	4,845	1,342	375
	소계		757	60	11,407	3,351	1,352
	비율		4.5	0.4	67.4	19.8	8.0
시각 예술 및 공예	비공연예술가	R90132	447	32	150	49	45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	C33110	1,837	318	4,532	988	66
	인물사진 및 행사용 비디오 촬영업	M73301	7,400	2,316	3,106	1,731	80
	상업용 사진 촬영업	M73302	324	17	618	81	7
	사진 처리업	M73303	808	244	966	239	31
	인테리어 디자인업	M73201	436	37	2,787	733	706
	제품 디자인업	M73202	496	35	3,448	282	22
	시각 디자인업	M73203	843	62	4,476	329	41
	기타 전문 디자인업	M73209	378	63	1,888	235	19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M72111	4,933	144	48,670	1,736	503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M72112	155	4	4,818	567	7
	소계		18,057	3,272	75,459	6,970	1,527
	비율		17.2	3.1	71.7	6.6	1.5
	도서 및 출판	교과서 및 학습서적 출판업	J58111	431	29	10,641	2,242
만화출판업		J58112	14	2	281	4	2
기타 서적 출판업		J58119	1,133	77	9,037	538	168
신문 발행업		J58121	67	5	15,684	730	265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J58122	460	35	7,856	702	230

	정기 광고간행물 발행업	J58123	163	19	3,412	641	317
	기타 인쇄물 출판업	J58190	149	27	1,529	234	4
	소계		2,417	194	48,440	5,091	1,078
	비율		4.2	0.3	84.7	8.9	1.9
시청 각 및 상호 작용 적 미디어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J59111	69	3	1,354	175	56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J59112	100	4	2,138	524	621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J59113	221	16	2,555	309	45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J59114	124	3	3,419	841	588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J59120	44	3	674	106	2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J59201	106	11	954	112	13
	녹음시설 운영업	J59202	194	6	365	83	18
	매니저업	M73901	48	0	1,258	74	15
	라디오 방송업	J60100	0	1,692	182	98	58
	지상파 방송업	J60210	0	11,928	235	170	99
	프로그램 공급업	J60221	0	3,464	145	98	84
	유선방송업	J60222	35	7,870	184	125	422
	위성 및 기타 방송업	J60229	4	531	42	2	33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J59130	19	2	591	8	12
	영화관 운영업	J59141	126	29	3,476	6,428	301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J59142	1,107	315	113	684	1
	영화 및 비디오물 상영업	J59140	1233	344	3589	7112	302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J63120	145	6	13,474	1,009	215
	소계		3,575	26,227	34,748	17,958	2,885
	비율		4.2	30.7	40.7	21.0	3.4
게임	영상게임기 제조업	C33402	28	3	324	12	0
	온라인·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8211	69	1	19,405	289	70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8219	38	1	2,097	64	1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J62010	736	35	17198	773	140
	전자게임장 운영업	R91221	1,113	299	146	407	9
	컴퓨터게임방 운영업	R91222	18,046	5,325	2,193	19,283	104
	소계		20,030	5,664	41,363	20,828	324
	비율		22.7	6.4	46.9	23.6	0.4
기타	문화 및 관광행정	O84212	0	2,184	295	1	52
	예술학원	P85620	2,506	12,948	11,700	2,023	6,495
	피아노 제조업	C33201	2	0	96	0	0
	현악기 제조업	C33202	52	9	427	25	0
	전자악기 제조업	C33203	12	1	808	13	0
	국악기 제조업	C33204	48	20	123	34	0
	기타악기 제조업	C33205	61	15	346	38	0
	악기소매업	G47593	1113	313	513	165	21
	악기도매업	G46462	124	25	639	73	3
	사진장비 및 광학용품 도매업	G46493	570	88	5502	341	12
	소계		4,488	15,603	20,449	2713	6,583
	비율		9.0	31.3	41.0	5.4	13.2

자료 : 전국사업체 조사(통계청, 2009)

주1) 종사자 지위의 구분은 아래와 같음

가. 자영업주 및 무급 가족종사자 : 개인경영 사업체의 소유주(동업자 포함)와 그 가족으로서 정상 영업시간의 1/3 이상을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면서 임금을 받지 않는 자를 말함.

나. 상용종사자 : 1년 이상의 고용기간을 정하여 고정급여를 지급 받고 있는 상용 종사자와 고용기간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조시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기로 약속된 자를 포함(단순히 이익배당만 받는 주주는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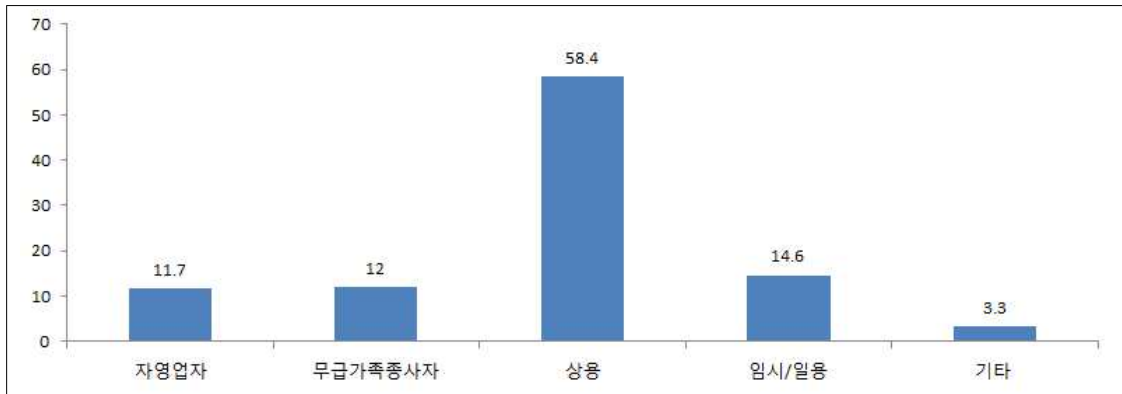
다. 임시 종사자 : 1개월 이상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자

라. 일용 종사자 : 고용계약이 1개월 미만이거나 일당제로 근무하는 종사자

마. 무급 종사자 : 일정한 급료를 받지 않고 주로 수당이나 수수료를 받는 외무사원, 정상 무일수의 1/3 이상을 업무에 종사하면서 보수를 받지 않는 무급임 등을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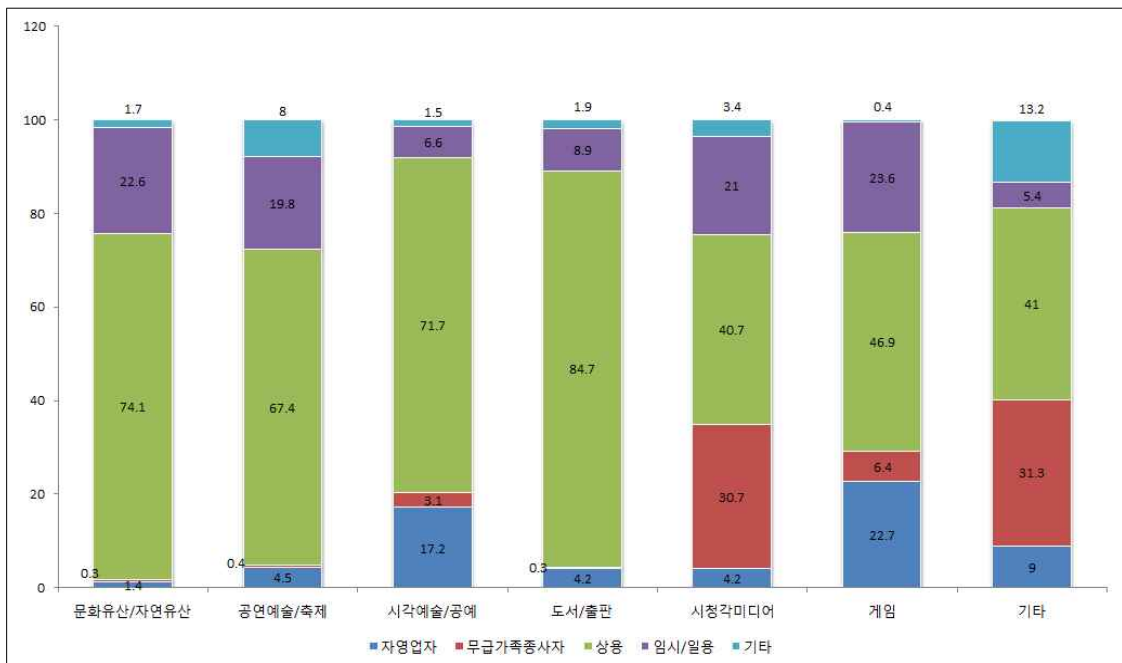
[그림 3.3.2.1] 문화예술 사업체 종사자의 고용상 지위(2009년 기준)

(단위: %)



[그림 3.3.2.2] 문화예술 사업체 종사자의 고용상 지위(2009년 기준)

(단위: %)



3.3.3. 문화예술 취업자 소득수준

○ 『산업·직업별 고용구조 조사』에 따르면, 2009년 기준 문화예술직종 종사자 중 임금

근로자의 비율은 76.7%이며, 자영업자 및 고용주의 월평균 소득은 223.7만원, 임금근로자 소득은 평균 211.7만원으로 나타남

- 문화예술과정별로 살펴보면 기획 및 경영·관리(84.2%), 기술(82.2%), 창작·실연(82.1%) 과정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 과정(46.5%)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남
- 월평균 소득 수준은 기획 및 경영·관리(280~305만원), 창작 및 실연(245~254만원), 기술(231~237만원), 기타(145~150만원), 교육(103~140만원)의 순서로 나타났음

[표 3.3.3] 문화예술직종 종사자 소득수준(2009년 기준) (단위: %, 만원)

	고용직업분류(2009년 기준, 모수추정)		임금근로자 비율(%)	월평균소득 (만원)	임금근로자 소득(만원)
창작· 실연	0811	작가 및 관련 전문가	58.0	278.3	237.8
	0844	국악 및 전통예능인	80.0	221.3	221.3
	0845	지휘자, 작곡가 및 연주자	72.1	227.9	224.1
	0846	가수 및 성악가	74.6	211.1	218.5
	0847	무용가 및 안무가	100.0	122.9	122.9
	0841	화가 및 조각가	23.9	193.6	180.3
	0842	사진작가 및 사진사	47.0	187.7	175.9
	0843	만화가 및 만화영화작가	71.5	175.8	157.1
	0851	제품디자이너	92.3	231.0	224.5
	0852	패션디자이너	88.2	230.0	221.7
	0853	실내장식디자이너	71.2	243.5	220.4
	0854	시각디자이너	72.5	197.8	181.3
	0855	웹 및 멀티미디어 디자이너	89.6	207.1	206.2
	0856	캐드원	95.6	177.1	171.1
	1411	건축가 및 건축공학기술자	86.3	298.5	289.9
	1412	토목공학 기술자	95.0	329.0	323.4
	1413	조경기술자	92.3	260.7	253.9
	2271	공예원	41.2	164.8	144.1
	2272	귀금속 및 보석세공원	64.6	196.5	193.3
	0861	감독 및 기술감독	83.6	347.7	356.1
	0862	배우 및 모델	73.8	127.3	129.9
	0863	아나운서 및 리포터	91.0	313.7	295.3
	0830	기자 및 논설위원	92.7	282.5	290.4
	소계		82.1	254.2	245.7
기획 / 경영관 리	0882	미술사 및 기타 문화예술관련 종사자 및 연 예인 및 스포츠매니저	60.0	233.6	218.0
	0821	큐레이터 및 문화재 보존원	100.0	201.2	201.2
	0822	사서 및 기록물 관리사	100.0	194.5	194.5
	0814	출판물 전문가	78.1	244.7	233.2
	0140	문화, 예술, 디자인 및 영상관련 관리자	67.1	533.3	567.6
	0232	상품기획전문가	97.8	392.6	299.6
	0231	광고 및 홍보전문가	77.2	337.1	304.3
	소계		84.2	305.3	280.6
기술	0871	촬영기사	79.7	238.4	253.8
	0872	음향 및 녹음기사	82.1	191.0	187.7
	0873	영상, 녹화 및 편집기사	72.5	211.5	216.0
	0874	조명기사 및 영상기사	90.3	224.4	239.1
	0879	기타 연극, 영화 및 영상관련 종사자	83.6	131.0	125.5
	2061	통신 및 방송송출장비기사	100.0	341.7	341.7
	2242	사진인화 및 현상기 조작용	45.9	163.1	174.6
	소계		82.2	231.8	236.8

교육	0484	예능강사	46.5	140.2	103.4
기타	2273	악기제 조수리 및 조율사	72.5	172.8	156.6
	0812	번역가	66.0	175.4	193.9
	0813	통역가	95.0	213.3	208.5
	1214	메이크업아티스트 및 분장사	47.4	151.0	116.8
	0281	안내, 접수사무원 및 전화교환원	76.2	145.2	139.5
소계			75.8	150.2	145.2
전체직종종사자총계			70.1	203.7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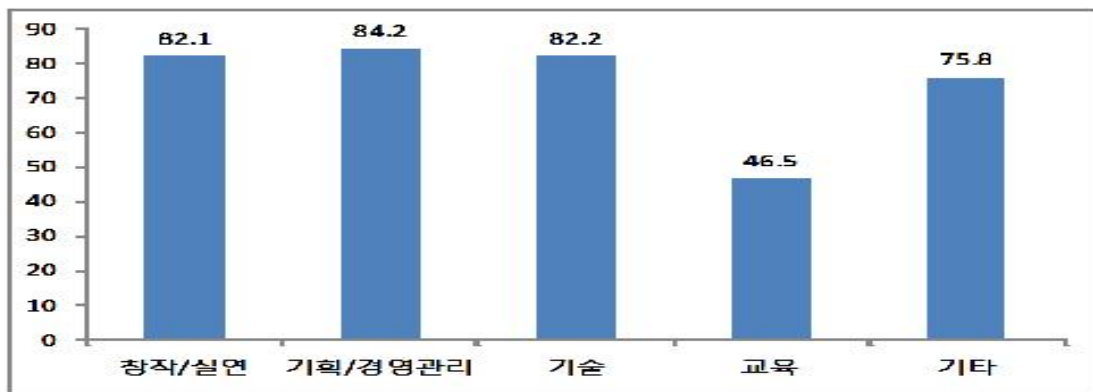
자료 : 산업·직업별 고용구조 조사(한국고용정보원, 2009)

주1) 월평균 소득은 자영업자와 고용주의 소득을 의미함

주2) 월평균 소득 및 임금근로자 소득수준은 모두 세전 소득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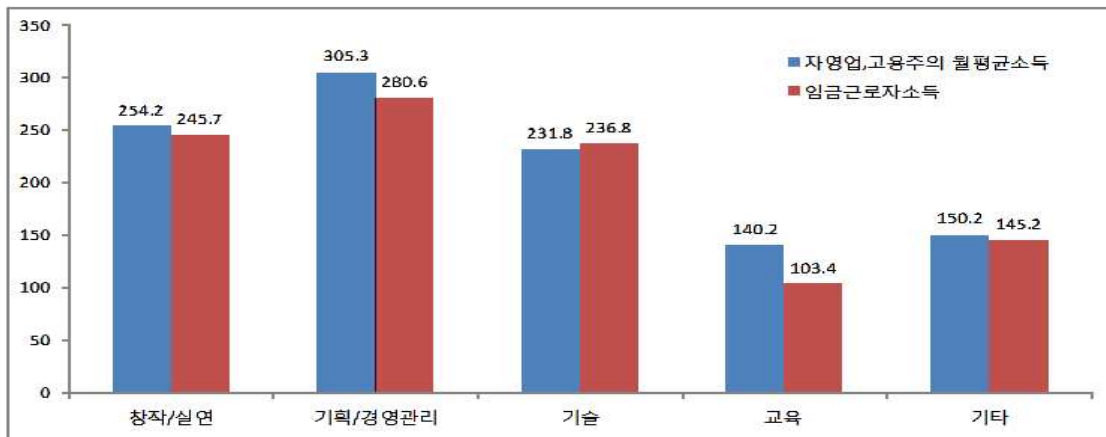
[그림 3.3.3.1] 문화예술직종 종사자 임금근로자 비율(2009년 기준)

(단위: %)



[그림 3.3.3.2] 문화예술직종 종사자 월평균소득 및 임금근로자 평균 소득(2009년 기준)

(단위:만원)



3.3.3.1. 해외 주요국과의 비교 : 문화예술취업자 소득수준

- 미국의 NEA에서 작성하는 「Artist and Arts Workers in the United States(2011)」 자료에 따르면 2009년 기준 미국의 11개 예술직종 종사자 중 상용직 종사자의 연평균 소

득 중위수(median)는 43,220달러로 나타남

- 또한 남성 종사자의 소득 중위수는 47,475달러로 나타나는 데 비해 여성 종사자의 소득 중위수는 38,552달러로 나타나 여성 종사자의 소득이 남성에 비해 낮게 나타남 (약 80% 수준)

○ 한편 한국의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2009년 기준) 자료를 통해 11개 문화예술 직종 종사자 중 상용직 종사자의 연평균 소득 중위수를 파악한 결과 2009년 기준 구매력 평가환율⁹⁾로 27,409달러로 나타나 미국 예술직종 종사자의 소득수준에 비해 한국 예술직종 종사자의 소득수준이 약 3/5 수준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음

- 특히 남성 종사자의 소득수준이 31,325달러인데 비해 여성 종사자의 소득수준은 19,578달러에 불과하여(남성의 약 60% 수준) 성별 소득격차가 미국에 비해 크게 나타남

○ 미국의 경우 직종별로는 건축가의 연평균소득이 63,110달러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프로듀서(52,630달러), 문인 및 작가(44,792달러), 디자이너(42,074달러)의 순으로 나타남

- 엔터테이너 및 공연가가 25,363달러, 사진작가가 26,875달러, 무용수가 27,392달러, 음악가가 27,558달러로 가장 낮게 나타남

○ 한국의 경우 프로듀서의 연평균소득이 39,156달러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아나운서(35,241달러), 건축가(31,325달러)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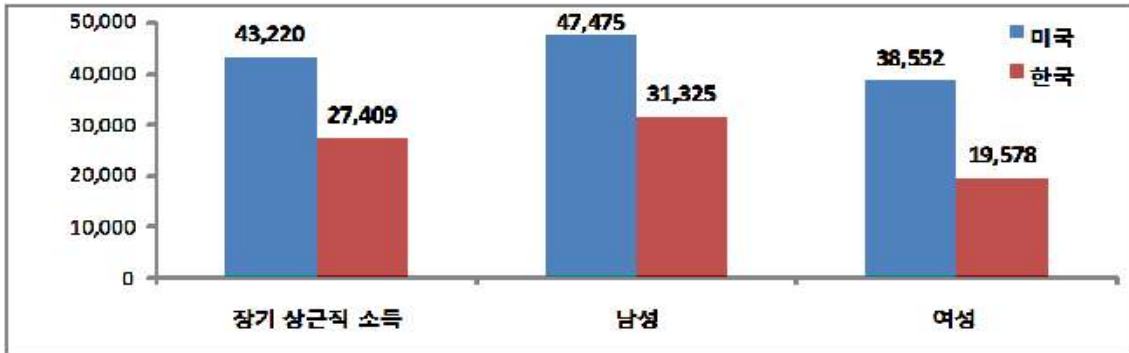
- 배우가 15,663달러, 순수예술가, 감독 및 만화가와 사진작가가 19,578달러로 가장 낮게 나타남

[표 3.3.3.1] 미국과 한국의 예술직종 종사자의 연평균 소득 중위수(2009년 기준) (단위: 미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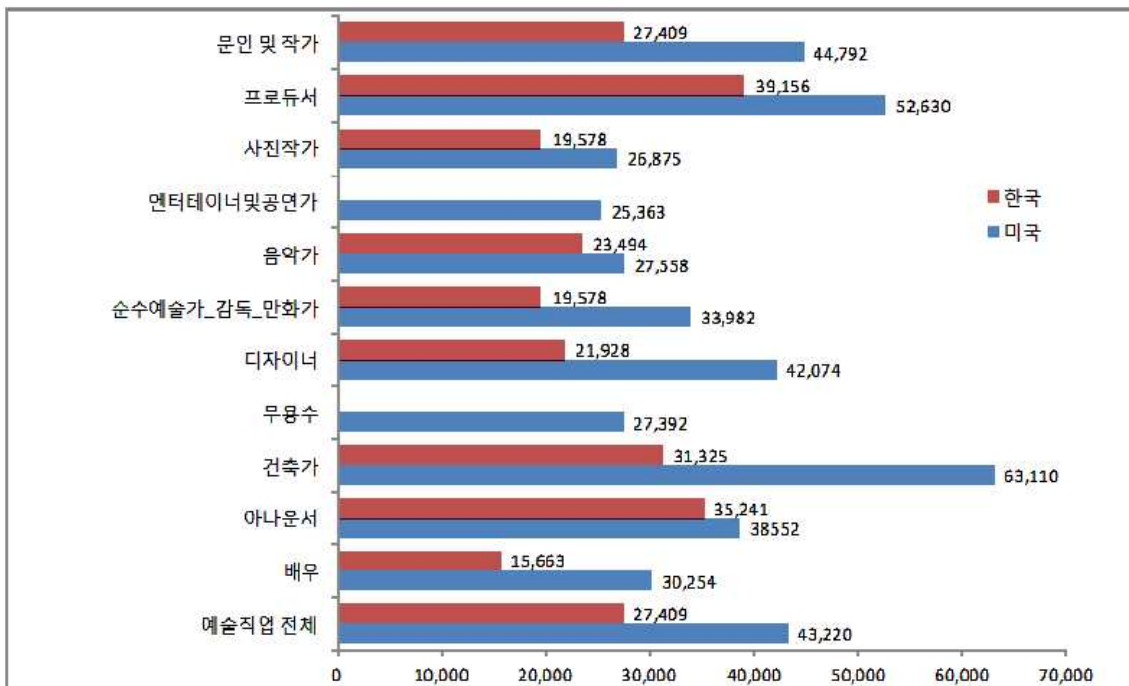
	미국			한국		
	장기상근직 소득	남성	여성	장기상근직 소득	남성	여성
예술직업 전체	43,220	47,475	38,552	27,409	31,325	19,578
배우	30,254	37,737	27,995	15,663	...	15,663
아나운서	38,552	38,918	36,815	35,241	43,072	35,241
건축가	63,110	66,959	54,025	31,325	31,325	21,144
무용수	27,392	33,659	25,986	-	-	-
디자이너	42,074	47,542	36,981	21,928	23,494	19,578
순수예술가, 감독, 만화가	33,982	37,818	29,174	19,578	23,494	17,620
음악가	27,558	27,348	27,995	23,494	22,711	23,494
엔터테이너및 공연가	25,363	25,363	25,986	-	-	-
사진작가	26,875	30,254	22,320	19,578	19,578	...
프로듀서	52,630	54,025	50,784	39,156	39,156	27,409
문인 및 작가	44,792	45,654	44,477	27,409	27,409	25,452

9) 통화가치의 차이를 통제하기 위해 각국 통화의 구매력에 근거한 환율인 구매력평가환율(Purchasing Power Parities)을 사용함(OECD에서 작성하는 구매력평가환율 사용)

[그림 3.3.3.1.1] 미국과 한국의 예술직종 종사자의 연평균 소득 중위수(2009년 기준) (단위: 미국 \$)



[그림 3.3.3.1.2] 미국과 한국의 예술직종 종사자의 연평균 소득 중위수:직종별(2009년 기준) (단위: 미국 \$)



3.3.5 문화예술 창작여건 만족도

- 문화예술 창작여건에 대한 만족도는 『예술인실태조사』에 나타난 문화예술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 창작발표 기회, 외부적 규제,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지원, 문화예술인의 활동에 대한 경제적 보상 정도에 대한 응답결과를 통해 파악할 수 있음
 - 5개 차원의 만족도를 합산하여 평균한 종합점수는 2003년 2.34, 2006년 2.39, 2009년 2.39로 보통에 해당하는 3점에 채 못 미치고 있음
- 창작여건 만족도를 구성하는 차원별로 살펴보면 외부적 규제에 대한 만족도는 3점 이

상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그 외의 차원에 대한 만족도는 2점 미만으로 모두 상당히 낮게 나타나고 있음

- 특히 문화예술활동지원에 대한 만족도와 문화예술에 대한 경제적 보상에 대한 만족도는 1점대로 나타나 지원 및 경제적 보상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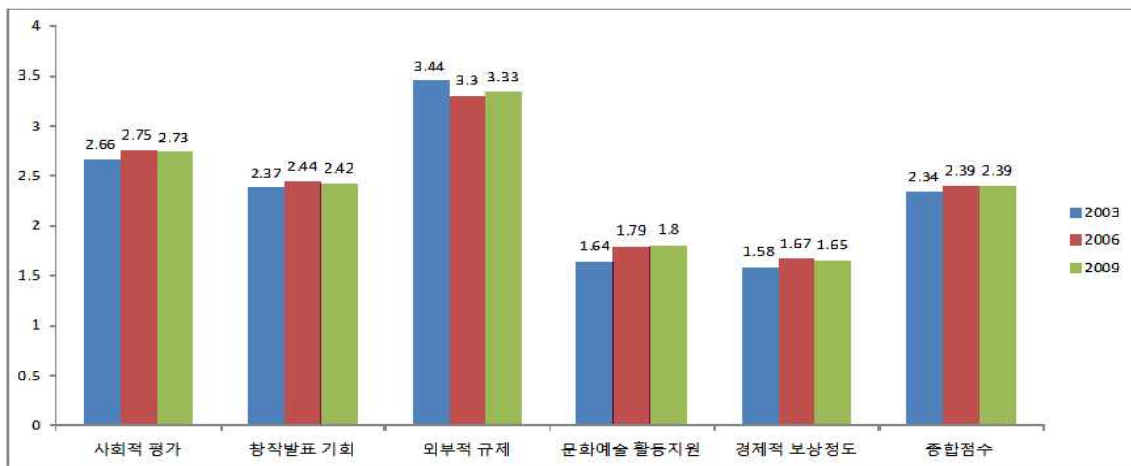
[표 3.3.5] 문화예술 창작여건 만족도

(단위 : 5점 Likert 척도)

		문학	미술	사진	건축	국악	음악	연극	무용	영화	대중예술	전체
사회적 평가	2003	2.63	2.61	2.62	2.45	2.47	2.43	2.52	2.79	3.22	2.97	2.66
	2006	2.76	2.64	2.65	2.47	2.91	2.83	2.47	2.77	2.96	3.10	2.75
	2009	2.68	2.60	2.90	2.53	2.88	2.58	2.64	2.88	2.77	2.82	2.73
창작 발표 기회	2003	2.51	2.41	2.51	2.61	2.28	2.41	1.72	2.35	2.51	2.42	2.37
	2006	2.44	2.56	2.66	2.39	2.50	2.35	2.06	2.37	2.51	2.57	2.44
	2009	2.45	2.67	2.70	2.37	2.66	2.17	2.19	2.32	2.19	2.54	2.42
외부적 규제	2003	3.92	3.21	3.67	3.13	3.64	3.98	3.41	3.27	3.38	2.75	3.44
	2006	3.74	3.50	3.84	2.73	3.27	3.14	3.20	3.27	3.26	3.03	3.30
	2009	3.61	3.66	3.47	2.88	3.61	3.37	3.31	3.30	3.26	2.90	3.33
문화예술 활동지원	2003	1.48	1.52	1.45	1.93	1.47	1.68	1.39	1.78	1.71	2.04	1.64
	2006	1.62	1.67	1.54	1.92	1.98	1.68	1.66	1.97	1.75	2.16	1.79
	2009	1.61	1.77	1.81	1.93	1.83	1.72	1.79	1.80	1.72	2.03	1.80
경제적 보상정도	2003	1.22	1.41	1.37	1.95	1.42	1.57	1.23	1.53	1.94	2.19	1.58
	2006	1.33	1.42	1.48	1.86	1.95	1.67	1.38	1.79	1.62	2.23	1.67
	2009	1.42	1.59	1.74	1.89	1.69	1.63	1.50	1.55	1.50	2.05	1.65
종합점수	2003	2.35	2.23	2.32	2.41	2.26	2.41	2.05	2.34	2.55	2.47	2.34
	2006	2.38	2.36	2.43	2.27	2.52	2.33	2.15	2.43	2.42	2.62	2.39
	2009	2.35	2.46	2.52	2.32	2.53	2.29	2.29	2.37	2.29	2.47	2.39

자료 : 문화예술인 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03; 2006; 2009)

[그림 3.3.5.1] 문화예술 창작여건 만족도(차원별)



[그림 3.3.5.2] 문화예술 창작여건 만족도(문화예술분야별)



제3절 문화예술의 창작 · 제작 · 교류

4.1. 문화예술상품 생산량

- 문화예술상품의 연간 생산량을 파악할 수 있는 기존 통계자료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작성하는 『문예연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생산하는 『예술인실태조사』, 그리고 (주)인터파크 티켓 등의 민간 자료가 있으나 문화예술분야의 광범성과 다양성으로 인해 전체 생산량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문예연감』의 경우 관련 협회나 단체의 자료, 신문 및 DB자료 등 다양한 자료원천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나 전체 생산량을 모두 포괄한다고 보기는 힘들며, 『예술인실태조사』의 경우 예술인에 대한 설문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응답결과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보장하기가 곤란함
 - (주)인터파크 티켓에서 생산되는 자료의 경우 객관성과 정확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우월하다고 볼 수 있으나, 공연예술상품에 한정되며, 전체 생산량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고 보기는 곤란함
- 이러한 기존 통계자료의 한계를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가장 포괄적인 가공통계에 해당하는 『문예연감』 자료를 중심으로 문화예술상품의 연간 생산량을 파악하되, 『예술인실태조사』의 설문결과와 (주)인터파크 티켓에서 생산되는 통계자료 역시 함께 제시함으로써, 개별 통계만 제시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편향을 보완하고자 하였음

4.1.1 전통예술(국악)

- 『문예연감』에 따르면, 국악은 연평균 2,450회, 1,243건 가량 공연되었으며, 공연 한건당 공연 횟수는 약 1.71회로 나타남
- 공연 횟수의 경우 2008년에는 기악이 28.7%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2009년에는 복합장르가 38.7%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그러나 공연 건수로 보면 2008, 2009년 모두 기악 장르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함
- 지역별 공연횟수는 전 기간에 걸쳐 서울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경기, 전북, 전남, 대구의 공연 횟수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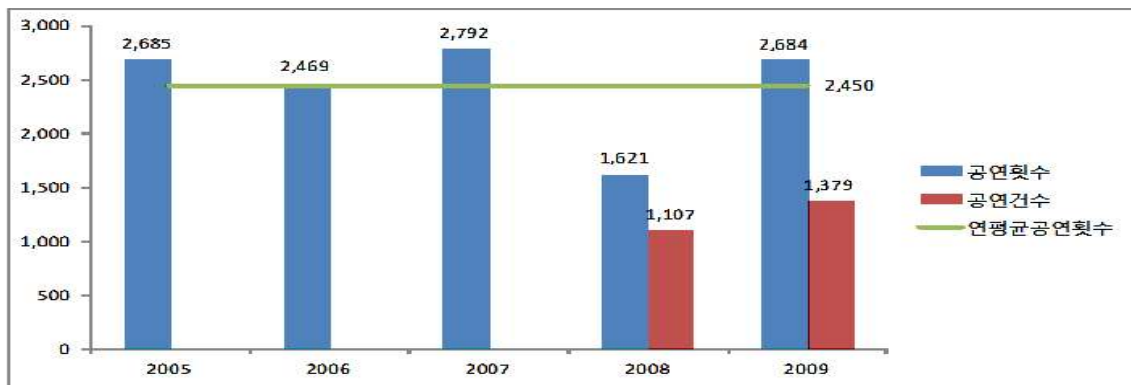
[표 4.1.1.1] 국악부문의 공연 횟수와 공연 건수 추이 (2005년~2009년) (단위: 회, 건)

	2005	2006	2007	2008	2009	연평균
공연횟수 (A)	2,685	2,469	2,792	1,621	2,684	2,450
공연건수 (B)	-	-	-	1,107	1,379	1,243
공연 한 건당 공연횟수(A/B)	-	-	-	1.46	1.95	1.71

자료 : 문예연감(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각년도자료

주1) 공연 횟수란 실제 공연된 횟수를 의미하며, 공연건수란 공연된 작품 수를 의미함. 예) “춘향전을 3회 공연한 경우, 공연 건수는 1건이나 공연 횟수는 3회가 됨”

[그림 4.1.1.1] 연간 국악 공연횟수와 공연건수(2005-2009년) (단위: 회, 건)



[표 4.1.1.2] 국악의 세부 장르별 공연 횟수와 공연 건수 추이(2008, 2009년) (단위: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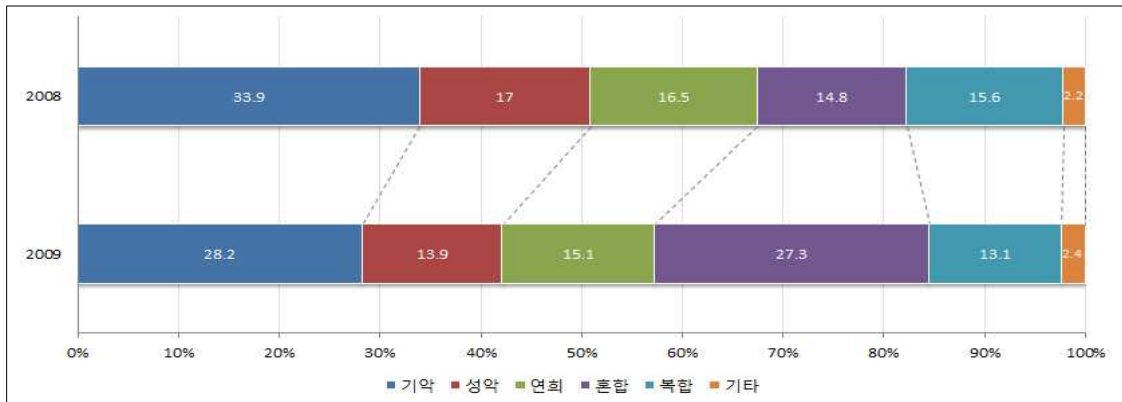
구분	2008					2009				
	공연 횟수	비율	공연 건수	비율	회수/ 건수	공연 횟수	비율	공연 건수	비율	회수/ 건수
계	1621	100	1107	100	1.46	2684	100	1379	100	1.95
기악	466	28.75	375	33.88	1.24	414	15.42	389	28.21	1.06
성악	234	14.44	188	16.98	1.24	223	8.31	192	13.92	1.16
연희	353	21.78	183	16.53	1.93	419	15.61	208	15.08	2.01
혼합	225	13.88	164	14.81	1.37	544	20.27	376	27.27	1.45
복합	315	19.43	173	15.63	1.82	1040	38.75	181	13.13	5.75
기타	28	1.73	24	2.17	1.17	44	1.64	33	2.39	1.33

자료 : 문예연감(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8; 2009)

주1) 혼합은 국악 내 여러 장르들을 혼합한 것(기악과 성악의 혼합 등)이고, 복합은 국악 외의 다양한 장르들과 결합한 형태의 장르를 의미함

[그림 4.1.1.2] 국악 공연 횟수와 공연 건수(세부장르별 비율)(2009년기준)

(단위: %)



[표 4.1.1.3] 국악의 지역별 공연 횟수 추이 (2005년~2009년)

(단위: 수,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수	비중	수	비중	수	비중	수	비중	수	비중
서울	900	33.5	1,144	46.3	1,327	47.5	693	42.8	1,541	57.4
대전	17	0.6	36	1.5	121	4.3	8	0.5	42	1.6
경기	628	23.4	507	20.5	311	11.1	213	13.1	168	6.3
울산	1	0.1	0	0.0	17	0.6	27	1.7	46	1.7
제주	20	0.7	3	0.1	11	0.4	11	0.7	31	1.2
인천	8	0.3	2	0.1	13	0.5	19	1.2	51	1.9
강원	76	2.8	8	0.3	58	2.1	30	1.9	41	1.5
전북	414	15.4	349	14.1	331	11.9	222	13.7	139	5.2
대구	81	3.0	29	1.2	62	2.2	42	2.6	158	5.9
경남	21	0.8	15	0.6	58	2.1	74	4.6	70	2.6
전남	99	3.7	100	4.1	187	6.7	83	5.1	102	3.8
광주	98	3.6	70	2.8	120	4.3	50	3.1	59	2.2
부산	73	2.7	56	2.3	85	3.0	89	5.5	128	4.8
충북	39	1.5	48	1.9	21	0.8	14	0.9	24	0.9
경북	195	7.3	89	3.6	34	1.2	29	1.8	54	2.0
충남	15	0.6	13	0.5	36	1.3	17	1.0	30	1.1
총합계	2,685	100.0	2,469	100.0	2,792	100.0	1,621	100.0	2,684	100.0

자료 : 문예연감(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각년도자료

주) 비중은 각 연도별 국악 공연의 총 합계 중 해당 지역의 공연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그림 4.1.1.4] 국악 주요 세부장르별 일인당 연평균 생산량(3개년도 평균)

(단위: 편)



4.1.2 음악

- 『문예연감』에 따르면 음악(양악)은 연평균 5,764회, 5,781건 공연되었으며, 공연 한 건당 평균 공연횟수는 1.1회로 나타났으며, 공연회수와 건수 모두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음
- 공연횟수와 건수 모두에서 기악이 50% 이상의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며, 그 뒤를 성악, 기타 등이 잇고 있음
-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가장 많은 공연이 이루어졌고, 경기, 대구, 부산, 인천 등에서 음악공연이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표 4.1.2.1] 음악(양악)부문의 공연 횟수와 공연건수 추이 (2005년~2009년)

(단위: 건)

	2005	2006	2007	2008	2009	연평균
공연횟수	4,444	5,640	5,716	5,811	7,209	5,764
공연건수	-	-	-	5,181	6,380	5,781
공연 한 건당 공연횟수	-	-	-	1.12	1.13	1.1

자료 : 문예연감(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각년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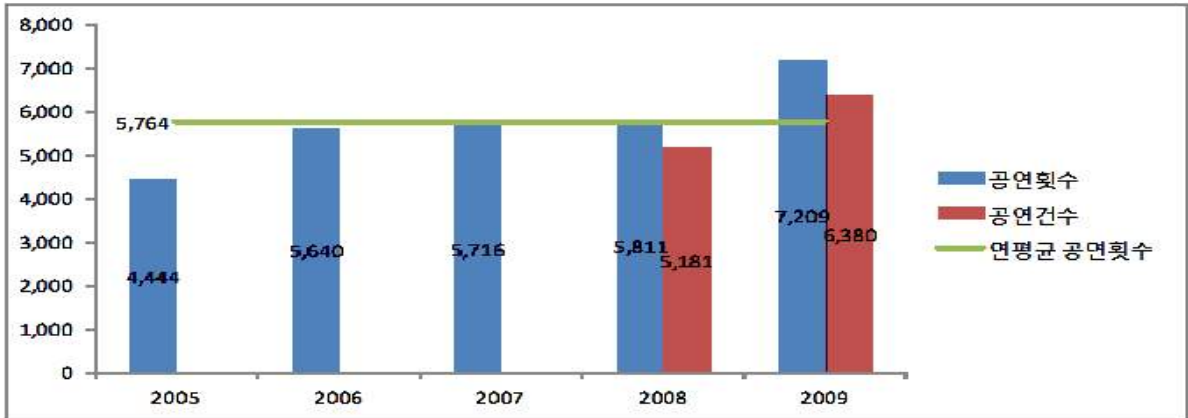
주1) 공연횟수란 실제 공연된 횟수를 의미하며, 공연건수란 공연된 작품 수를 의미함. 예) “호두까기 인형을 3회 공연한 경우, 공연건수는 1건이나 공연횟수는 3회가 됨”

주2) 문예연감은 2008년부터 공연건수를 조사하였으므로 2008년 이전의 공연건수는 표시할 수 없음

주3) 공연 한 건당 공연횟수 = 공연 횟수 / 공연 건수

[그림 4.1.2.1] 음악(양악)부문의 공연 횟수와 공연건수 추이 (2005년~2009년)

(단위: 건)



[표 4.1.2.2] 음악(양악)부문의 세부 장르별 공연횟수와 건수 추이(2008, 2009년) (단위: 수, %)

	2008					2009				
	공연회수	비율	공연건수	비율	회수/건수	공연회수	비율	공연건수	비율	회수/건수
계	5811	100	5181	100	1.12	7209	100	6380	100	1.13
기악	3404	58.58	3169	61.17	1.07	4080	56.60	3916	61.38	1.04
성악	1557	26.79	1288	24.86	1.21	1093	15.16	1047	16.41	1.04
혼합	300	5.16	284	5.48	1.06	621	8.61	553	8.67	1.12
복합	45	0.77	41	0.79	1.10	355	4.92	226	3.54	1.57
기타	505	8.69	399	7.70	1.27	1060	14.70	638	10.00	1.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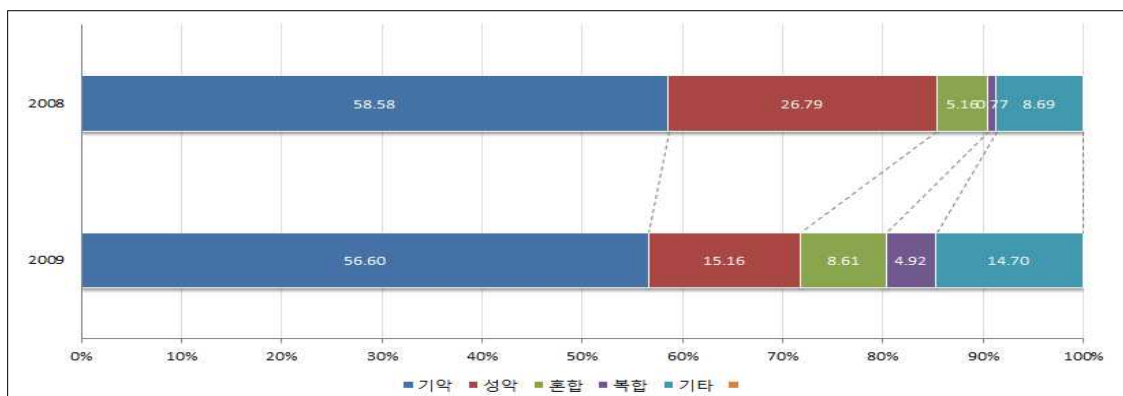
자료 : 문예연감(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8;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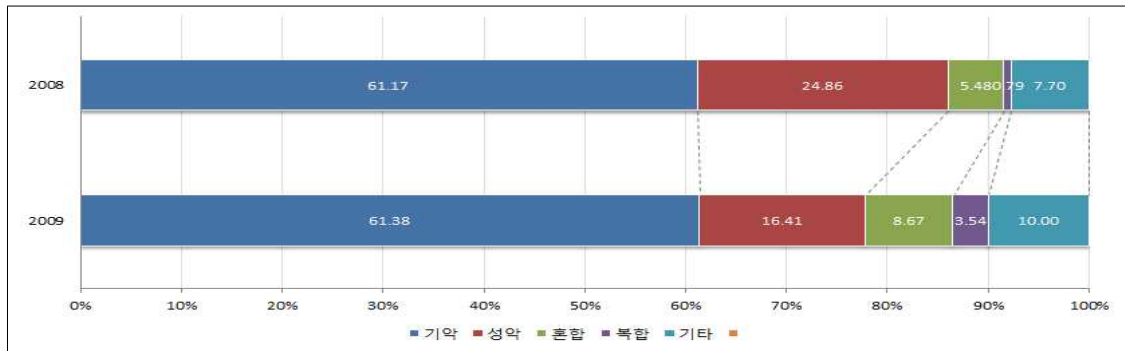
주1) 2008년 이전의 문예연감의 국악 세부장르 구분은 자료조사방법의 표준화 이전이므로 2008년과 2009년만 고려함

주2) 괄호 안은 전체 공연 건수 혹은 공연 회수에 대한 세부장르의 비중을 나타냄

[그림 4.1.2.2] 음악(양악) 공연회수와 공연건수(세부장르별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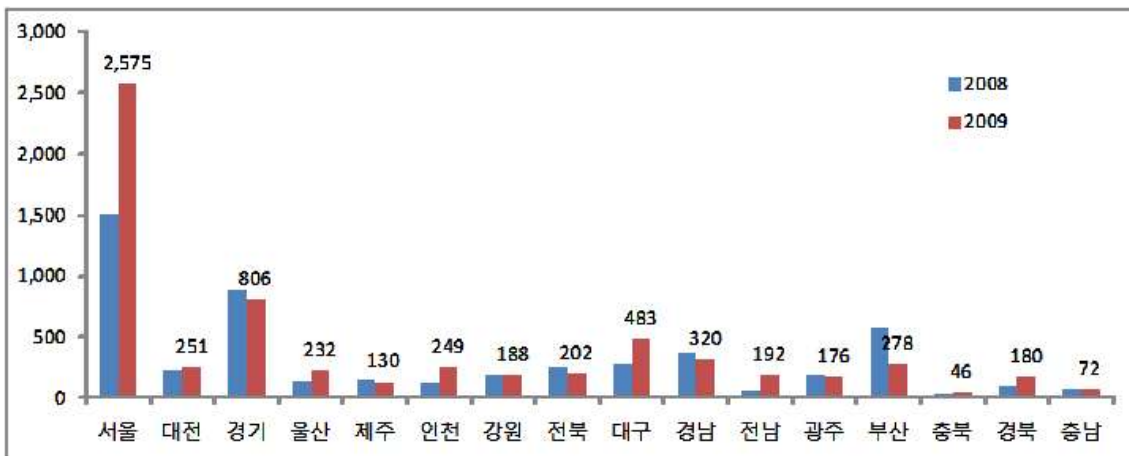


[표 4.1.2.3] 음악(양악)의 지역별 공연 횟수 추이 (2008, 2009년) (단위: 수, %)

구 분	2008		2009		2009		공연건수 증감율 (B-A)/A
	건 수(A)	비중	건 수(B)	비중	횟 수(C)	비중	
서울	1,501	29.0	2,575	40.4	2,948	40.9	71.6
대전	234	4.5	251	3.9	266	3.7	7.3
경기	884	17.1	806	12.6	929	12.9	-8.8
울산	144	2.8	232	3.6	248	3.4	61.1
제주	155	3.0	130	2.0	143	2.0	-16.1
인천	132	2.5	249	3.9	312	4.3	88.6
강원	185	3.6	188	2.9	217	3.0	1.6
전북	259	5.0	202	3.2	218	3.0	-22.0
대구	283	5.5	483	7.6	558	7.7	70.7
경남	365	7.0	320	5.0	336	4.7	-12.3
전남	59	1.1	192	3.0	223	3.1	225.4
광주	194	3.7	176	2.8	191	2.6	-9.3
부산	580	11.2	278	4.4	301	4.2	-52.1
충북	29	0.6	46	0.7	52	0.7	58.6
경북	105	2.0	180	2.8	187	2.6	71.4
충남	72	1.4	72	1.1	80	1.1	0
총합계	5,181	100.0	6,380	100.0	7,209	100.0	23.1

자료 : 문예연감(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8; 2009)

[그림 4.1.2.3] 음악(양악)의 지역별 공연 횟수 추이 (2008, 2009년) (단위: 수, %)



- 한편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음악 분야에서 활동하는 일인당 연평균 발표·출판 건수는 2003년 26.2편, 2006년 93.7편, 2009년 30.1편으로 나타남
- 연도별 편차가 심하여 3개년도 일인당 연평균 생산량을 살펴보면 50편으로 나타남
 - 세부 장르별로는 현악이 76.9편, 타악이 74.9편, 관악이 74.5편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오페라가 10.6편, 건반악이 16.8편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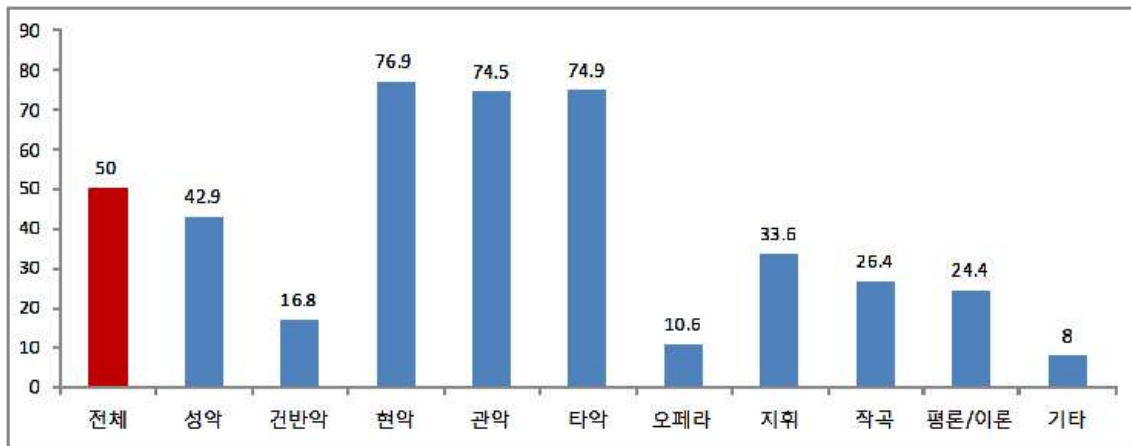
[표 4.1.2.4] 음악 분야 일인당 연평균 생산량 (단위: 명, 편)

	2003			2006			2009			3개년 평균
	응답자	생산편수		응답자	생산편수		응답자	생산편수		
	수	수	평균	수	수	평균	수	수	평균	
없다	37	0	0	25	0	0	51	0	0	
있다(계)	163	4,274	26.2	175	16,394	93.7	149	4,485	30.1	50.0
성악	21	197	9.4	60	5,603	93.4	46	1,193	25.9	42.9
건반악	9	106	11.8	6	130	21.7	12	202	16.8	16.8
현악	32	1,646	51.4	38	5,068	133.4	22	1,011	46.0	76.9
관악	34	1,382	40.6	33	4,048	122.7	21	1,265	60.2	74.5
타악	5	173	34.6	1	190	190.0	0	0	0	74.9
오페라	4	61	15.3	15	246	16.4	0	0	0	10.6
지휘	25	302	12.1	13	653	50.2	12	463	38.6	33.6
작곡	29	333	11.5	6	349	58.2	33	311	9.4	26.4
평론/이론	4	74	18.5	2	83	41.5	3	40	13.3	24.4
기타	0	0	0	1	24	24.0	0	0	0	8.0

자료: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2003; 2006; 2009)

주1) 생산편수 : 주로 활동하는 부문에서 지난 1년간 발표 또는 출판한 작품 수

[그림 4.1.2.4] 음악 주요 세부장르별 일인당 연평균 생산량(3개년 평균) (단위: 편)



4.1.3 연극

- 『문예연감』에 따르면 연극(뮤지컬 포함)은 연평균 33,324회, 2,639건 공연되었으며,

공연 한 건당 공연횟수는 연평균 13.6회로 나타남

- 공연건수는 2008년 이후 조금씩 증가하고 있음

- 공연건수와 공연횟수를 세부 장르별로 살펴보면 연극과 뮤지컬이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퍼포먼스, 혼합, 복합 장르가 잇고 있음
- 지역별 공연건수를 살펴보면 서울, 경기, 경남, 부산 등에서의 건수가 크게 나타나며, 경기, 울산, 인천, 경북 지역의 경우 2008년에 비해 공연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4.1.3.1] 연간 연극 공연 횟수와 공연건수 추이 (2005년~2009년) (단위: 회, 건)

	2005	2006	2007	2008	2009	연평균
공연횟수	-	-	-	32,647	34,001	33,324
공연건수	2,682	2,617	2,983	2,347	2,568	2,639
공연 한 건당 공연횟수	-	-	-	13.91	13.24	13.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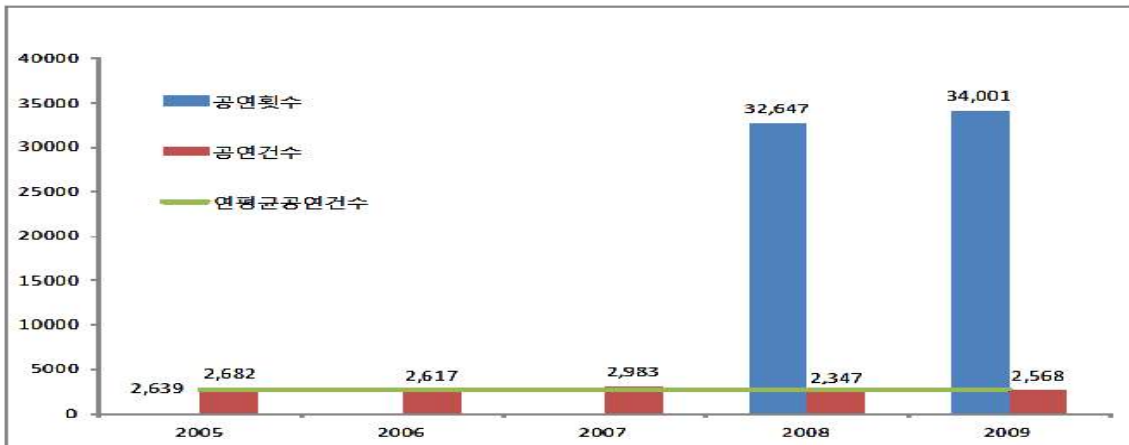
자료 : 문예연감(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각년도자료

주1) 공연 횟수란 실제 공연된 횟수를 의미하며, 공연건수란 공연된 작품 수를 의미함. 예) “난장이를 사랑한 백설공주를 3회 공연한 경우, 공연건수는 1건이나 공연 횟수는 3회가 됨”

주2) 문예연감은 다른 부문과 달리 연극의 경우 공연건수를 기본으로 조사하였으며, 2008년부터 공연 횟수를 함께 조사하였음

주3) 공연 한 건당 공연 횟수 = 공연 횟수/ 공연 건수

[그림 4.1.3.1] 연간 연극 공연 횟수와 공연건수 추이 (2005년~2009년) (단위: 건)



[표 4.1.3.2] 연극부문의 세부 장르별 공연횟수와 공연건수 (2009년) (단위: 횟수, 건수, %)

구 분	연극	뮤지컬	퍼포먼스	혼합	복합	기타	계
공연 횟수	21,357 (62.8)	10,905 (32.1)	880 (2.6)	21 (0.1)	418 (1.2)	420 (1.2)	34,001
공연 건수	1,376 (53.6)	837 (32.6)	178 (6.9)	7 (0.3)	87 (3.4)	83 (3.2)	2,568
횟수/건수	15.52	13.03	4.94	3.00	4.80	5.06	13.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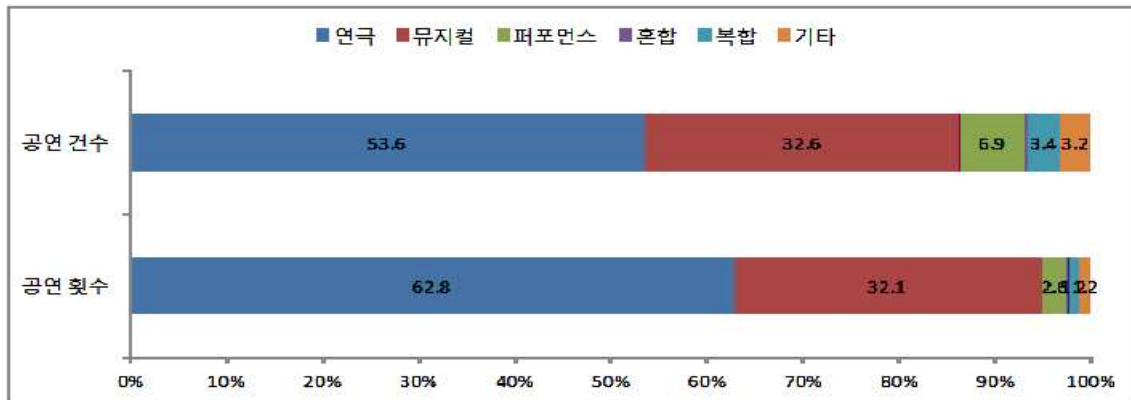
자료 : 문예연감(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9)

주1) 2008년 이전은 문예연감의 자료조사 기준이 확립되기 이전이며, 이에 따라 명확한 기준을 사용한 2009년 자료를 사용

주2) 2008년 이하는 현대극, 아동·교육극, 고전극 및 뮤지컬, 혼합, 복합, 기타 등의 세부장르로 구별하고 있으나 세부장르의 구별기준이 각 해마다 조금씩 상이함

[그림 4.1.3.2] 연극 공연 횟수와 공연건수(세부장르별 비율) (2009년 기준)

(단위:%)



[표 4.1.3.3] 지역별 연극 공연 건수 및 횟수 추이 (2008년, 20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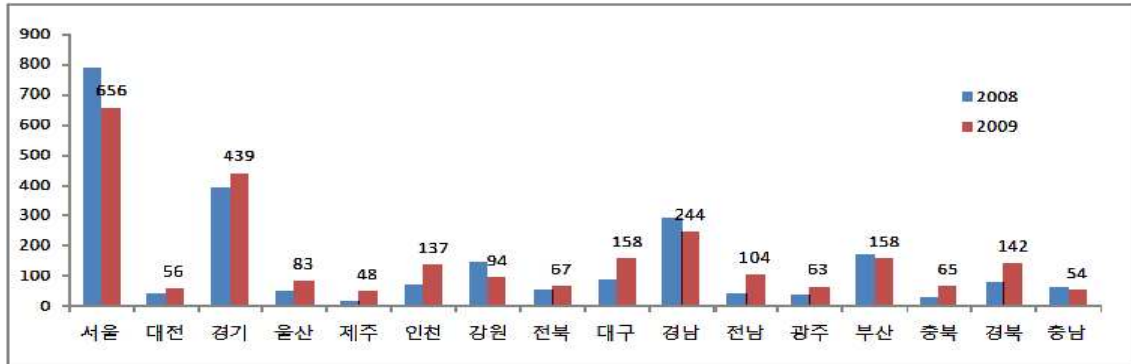
(단위: 수, %)

구 분	2008		2009		2009		횟수(C)/ 건 수(B)	공연건수 증감율 ((B-A)/A)
	건 수(A)	비중	건 수(B)	비중	횟 수(C)	비중		
서울	787	33.5	656	25.5	23,003	67.7	35.07	-16.6
대전	41	1.7	56	2.2	303	0.9	5.41	36.6
경기	392	16.7	439	17.1	2,707	8.0	6.17	12.0
울산	51	2.2	83	3.2	579	1.7	6.98	62.7
제주	18	0.8	48	1.9	196	0.6	4.08	166.7
인천	71	3.0	137	5.3	513	1.5	3.74	93.0
강원	144	6.1	94	3.7	375	1.1	3.99	-34.7
전북	52	2.2	67	2.6	241	0.7	3.60	28.8
대구	85	3.6	158	6.2	1,530	4.5	9.68	85.9
경남	290	12.4	244	9.5	732	2.2	3.00	-15.9
전남	40	1.7	104	4.0	244	0.7	2.35	160.0
광주	38	1.6	63	2.5	244	0.7	3.87	65.8
부산	171	7.3	158	6.2	2,552	7.5	16.15	-7.6
충북	27	1.2	65	2.5	313	0.9	4.82	140.7
경북	77	3.3	142	5.5	332	1.0	2.34	84.4
충남	63	2.7	54	2.1	137	0.4	2.54	-14.3
총합계	2,347	100.0	2,568	100.0	34,001	100.0	13.24	9.4

자료 : 문예연감(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8; 2009)

[그림 4.1.3.3] 지역별 연극공연 건수(2008, 2009년)

(단위: 건수)



- 한편 『문화예술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극 분야의 일인당 연평균 발표·출판 편수는 2003년 9.4편, 2006년 5.4편, 2009년 13.5편으로 나타남
- 3개년도 평균 생산량은 9.4편으로 나타남
- 한편 연극 세부 분야별로는 기술스텝이 28편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평론/이론이 3.7편, 연출이 5편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표 4.1.3.4] 연극 분야 일인당 연평균 생산량(2003-2009년)

(단위: 명,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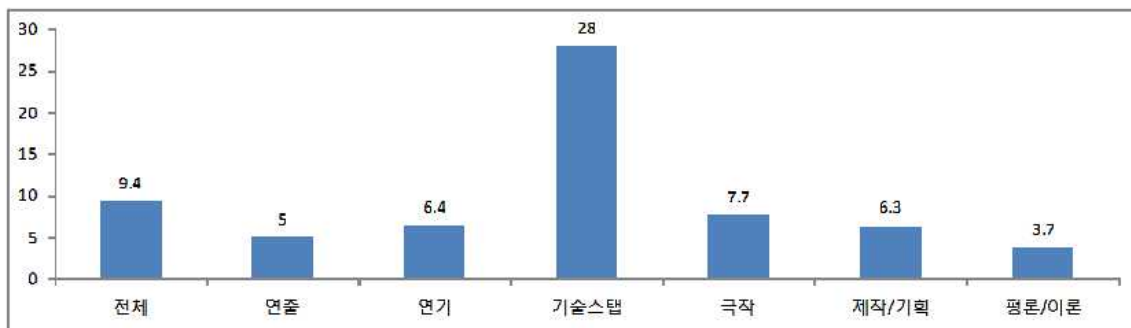
	2003			2006			2009			3개년 평균
	응답자	생산편수		응답자	생산편수		응답자	생산편수		
	수	수	평균	수	수	평균	수	수	평균	
없다	64	0	0	26	0	0	0	0	0	
있다(계)	126	1,187	9.4	174	932	5.4	200	2,693	13.5	9.4
연출	18	64	3.6	19	63	3.3	35	281	8.0	5.0
연기	61	265	4.3	126	575	4.6	115	1,191	10.4	6.4
기술스텝	29	779	26.9	13	234	18.0	23	900	39.1	28.0
극작	5	44	8.8	3	10	3.3	7	76	10.9	7.7
제작/기획	11	27	2.5	13	50	3.8	19	238	12.5	6.3
평론/이론	2	8	4.0	0	0	0	1	7	7.0	3.7
기타	0	0	0	0	0	0	0	0	0	0.0

자료: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2003; 2006; 2009)

주1) 생산편수: 주로 활동하는 부문에서 지난 1년간 발표 또는 출판한 작품 수

[그림 4.1.3.4] 연극 세부 분야별 일인당 연평균 생산량(3개년도)

(단위: 편)



4.1.4 무용

- 『문예연감』에 따르면, 무용은 연평균 1,975회, 1,119건 공연되었으며, 공연 한 건당 평균 공연횟수는 1.77회로 나타남
- 공연횟수, 건수 모두에서 현대무용, 한국무용, 발레, 혼합 장르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음
- 한편 2008년에 비해 2009년 현대무용과 복합 장르의 건수 비율이 증가한 반면, 발레 공연의 건수 비율은 소폭 감소함
-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부산, 대구에서 공연 건수가 크게 나타났으며, 2008년에 비해 대구, 경남, 인천 등에서의 무용 공연 건수가 증가함

[표 4.1.4.1] 무용부문의 공연 횟수와 공연건수 추이 (2005년~2009년) (단위: 회, 건)

	2005	2006	2007	2008	2009	연평균
공연 횟수 (A)	2,234	2,085	1,775	1,736	2,047	1,975
공연 건수 (B)	1,115	1,057	1,165	1,055	1,203	1,119
공연 한 건당 공연 횟수 (A/B)	2.00	1.97	1.52	1.65	1.70	1.77

자료 : 문예연감(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각년도자료

주1) 공연횟수란 실제 공연된 횟수를 의미하며, 공연건수란 공연된 작품 수를 의미함. 예) “백조의 호수”를 3회 공연한 경우, 공연건수는 1건이나 공연횟수는 3회가 됨”

[그림 4.1.4.1] 무용 부문의 공연 횟수와 공연 건수 추이(2005년~2009년) (단위: 횟수, 건수)



[표 4.1.4.2] 무용의 세부 장르별 공연 횟수와 공연 건수 추이(2008, 2009년) (단위: 횟수, 건수, %)

		현대무용		한국무용		발레		혼합		복합		기타		계
		개수	%	개수	%	개수	%	개수	%	개수	%	개수	%	
08	공연 횟수	556	32.0	438	25.2	318	18.3	214	12.3	84	4.8	126	7.3	1,736
	공연 건수	326	30.9	342	32.4	148	14.0	141	13.4	37	3.5	61	5.8	1,055
	건수/횟수		1.71		1.28		2.15		1.52		2.27		2.07	1.65
09	공연 횟수	659	32.2	519	25.4	407	19.9	140	6.8	196	9.6	125	6.1	2,047
	공연 건수	402	33.4	387	32.2	147	12.2	101	8.4	91	7.6	74	6.2	387

	건수/횟수	1.64	1.34	2.77	1.39	2.15	1.69	1.70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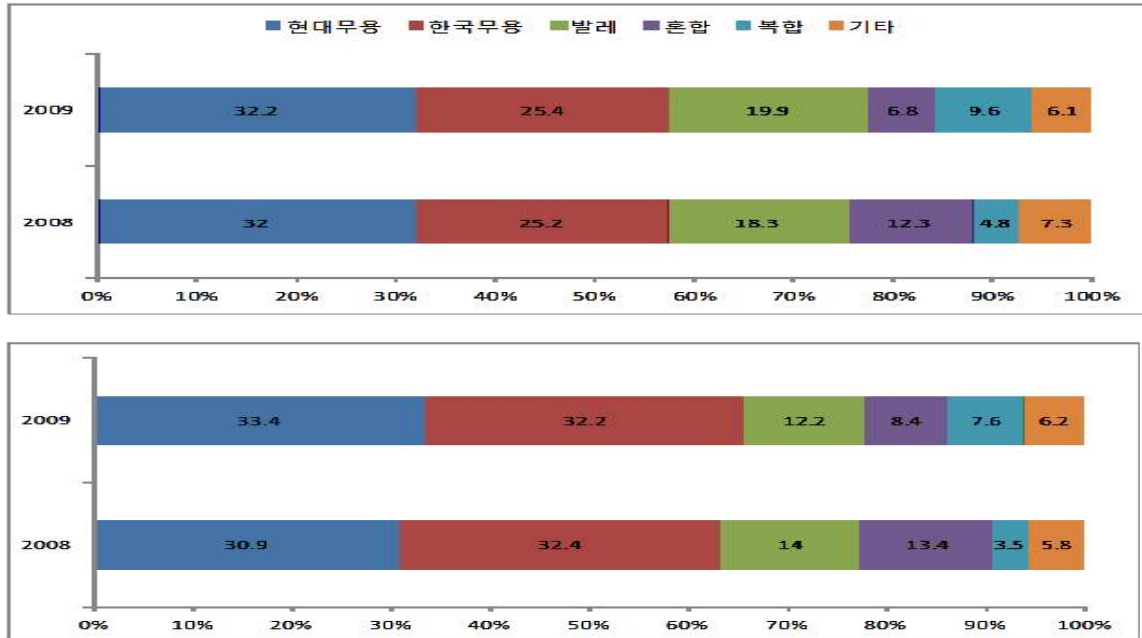
자료 : 문예연감(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8; 2009)

주1) 기타는 무용의 세부장르로 분류하기 어려운 장르로서 비보잉, 발리댄스, 재즈댄스 등을 포함하고 있음

주2) 2009년의 세부장르에 미분류로 남아있는 1건의 공연(공연건수 1건, 공연횟수 1회)은 표에서 제외하였으나 계에는 포함되어 있음

[그림 4.1.4.2] 무용 공연횟수와 공연건수(세부장르별 비율)

(단위: %)



[표 4.1.4.3] 무용의 지역별 공연 횟수 추이 (2008, 20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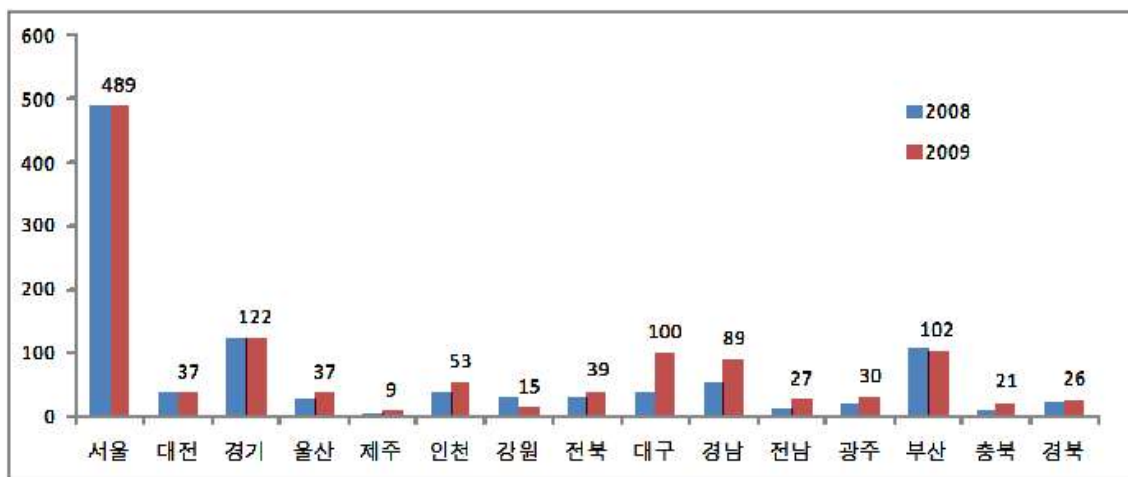
(단위: 수, %)

구 분	2008				2009		횟 수(C)/ 건 수(B)	공연건수 증감율 ((B-A)/A)
	건 수(A)	비중	건 수(B)	비중	횟 수(C)	비중		
서울	488	46.3	489	40.6	1,126	55.0	2.30	0.2
대전	39	3.7	37	3.1	53	2.6	1.43	-5.1
경기	122	11.6	122	10.1	189	9.2	1.55	0.0
울산	27	2.6	37	3.1	38	1.9	1.03	37.0
제주	4	0.4	9	0.7	10	0.5	1.11	125.0
인천	39	3.7	53	4.4	70	3.4	1.32	35.9
강원	31	2.9	15	1.2	17	0.8	1.13	-51.6
전북	31	2.9	39	3.2	42	2.1	1.08	25.8
대구	39	3.7	100	8.3	138	6.7	1.38	156.4
경남	54	5.1	89	7.4	97	4.7	1.09	64.8
전남	13	1.2	27	2.2	30	1.5	1.11	107.7
광주	19	1.8	30	2.5	36	1.8	1.20	57.9
부산	108	10.2	102	8.5	139	6.8	1.36	-5.6
충북	11	1.0	21	1.7	28	1.4	1.33	90.9
경북	22	2.1	26	2.2	27	1.3	1.04	18.2
충남	8	0.8	7	0.6	7	0.3	1.00	-12.5
총합계	1,055	100.0	1,203	100.0	2,047	100.0	1.70	14.0

자료 : 문예연감(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8; 2009)

[그림 4.1.4.3] 무용의 지역별 공연 건수 추이 (2008년, 2009년)

(단위: 수, %)



- 한편 『문화예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무용 분야 일인당 연평균 발표·출판 편수는 2003년 34.7편, 2006년 69.5편, 2009년 59편으로 3개년 평균은 54.4편으로 나타남
- 세부 분야별로는 한국무용이 62편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발레가 42.7편, 현대무용이 23편으로 나타남

[표 4.1.4.4] 무용 분야의 일인당 연평균 생산량(2003-2009년)

(단위: 명,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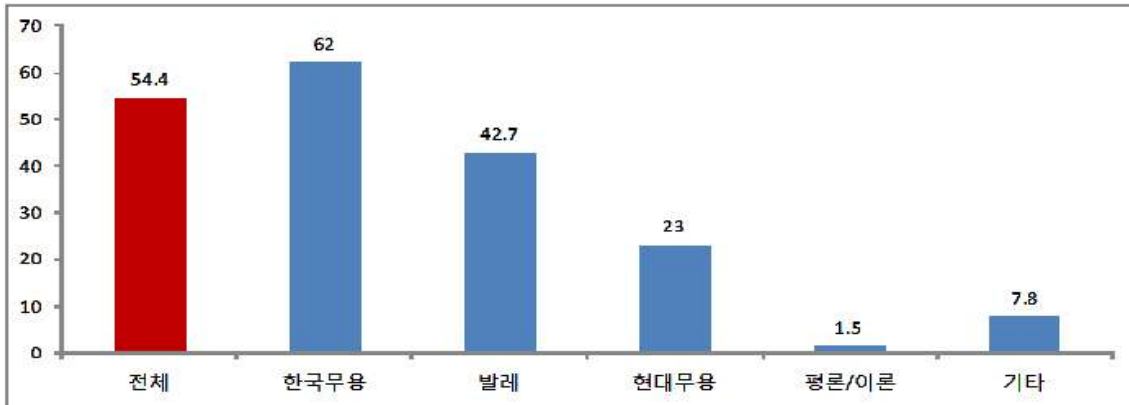
	2003			2006			2009			3개년 평균
	응답자	생산편수		응답자	생산편수		응답자	생산편수		
	수	수	평균	수	수	평균	수	수	평균	
없다	47	0	0	38	0	0	0	0	0	
있다(계)	137	4,750	34.7	162	11,264	69.5	200	11,790	59.0	54.4
한국무용	100	2,997	30.0	130	10,715	82.4	107	7,863	73.5	62.0
발레	26	1,594	61.3	14	352	25.1	51	2,132	41.8	42.7
현대무용	9	126	14.0	14	174	12.4	42	1,795	42.7	23.0
평론/이론	0	0	0	2	9	4.5	0	0	0	1.5
기타	2	33	16.5	2	14	7.0	0	0	0	7.8

자료: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2003; 2006; 2009)

주1) 생산편수 : 주로 활동하는 부문에서 지난 1년간 발표 또는 출판한 작품 수

[그림 4.1.4.4] 무용 세부 분야별 일인당 연평균 생산량(3개년 평균)

(단위: 편)



4.1.5 시각예술

- 『문예연감』에 따르면 시각예술 분야의 경우 2005-2009년 동안 연평균 10,246건의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동 기간 전시건수는 점차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이 중 국내전은 9,932건, 국내작가의 해외전은 314건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내전의 경우 개인전이 5,219건, 단체전이 4,202건, 해외작가전이 780건으로 개인전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
- 전시기간별로 살펴보면 국내전 중 개인전과 단체전의 경우 7일 이하의 전시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며, 그 다음이 8~15일 이하, 16일~1개월 이하의 순으로 나타남
- 국내 개인전의 경우 회화 전시 건수(51~57%)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진(10~11.5%), 공예(8.7~10.5%), 조각(6.8~7.9%), 설치 및 영상(4~4.9%)의 순으로 나타남

[표 4.1.5.1] 연간 전시 건수 추이(2005년~2009년)

(단위: 건수,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연평균
국내전	개인전	-	4,588 (50.0)	4,868 (49.5)	5,732 (50.0)	5,687 (48.7)	5,219
	단체전	-	3,666 (39.9)	4,040 (41.1)	4,291 (37.4)	4,809 (41.2)	4,202
	해외작가전	-	670 (7.3)	698 (7.1)	942 (8.2)	809 (6.9)	780
	소계	8,858 (97.9)	8,924 (97.2)	9,606 (97.6)	10,965 (95.6)	11,305 (96.8)	9,932
국내작가의 해외전		191 (2.1)	261 (2.8)	234 (2.4)	508 (4.4)	376 (3.2)	314
합계		9,049 (100)	9,185 (100)	9,840 (100)	11,473 (100)	11,681 (100)	10,246

자료 : 문예연감(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각년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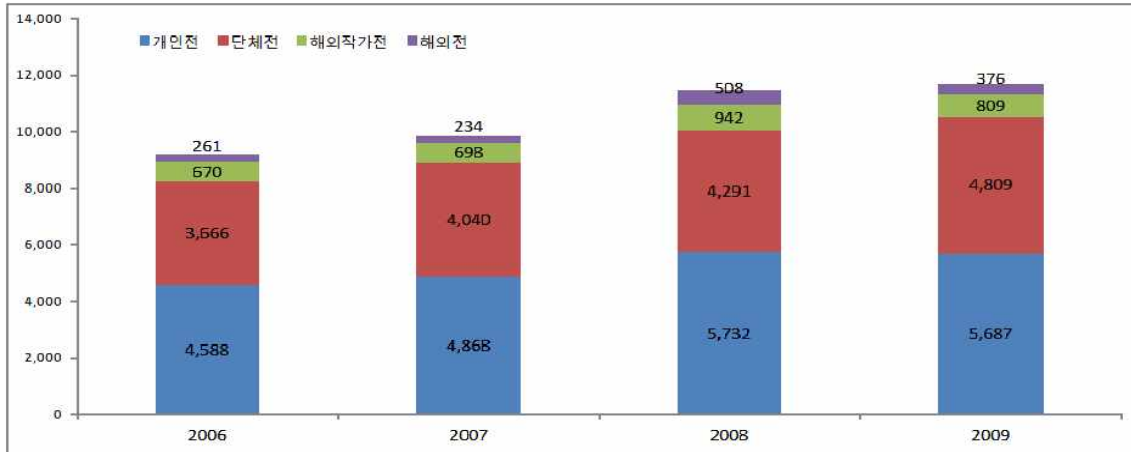
주1) 전시의 구분은 첫째, 장소를 기준으로 국내전과 해외전으로 구분한 뒤 둘째, 국내전은 전시주체에 따라 국내작가의 개인전, 단체전과 해외작가전(개인, 단체 포함)으로 구분됨

주2) 해외전이란 국내 작가의 해외 전시를 의미함

주3) 문예연감은 2006년 이전의 수치에 대해서는 국내전에 대한 세부 전시 횟수를 보고하지 않고 있음

[그림 4.1.5.1] 연도별 전시 건수 추이(2006년~2009년)

(단위: 건수)



[표 4.1.5.2] 2009년도 국내전의 전시기간별 전시 현황

(단위: 건, %)

구 분	7일 이하	8일 이상~15일 이하	16일~1개월 이하	1개월 초과~2개월 이하	2개월 초과~3개월 이하	3개월 초과	합 계
개인전	2,703 (47.5)	1,614 (28.4)	993 (17.5)	330 (5.8)	34 (0.6)	13 (0.2)	5,687 (100.0)
단체전	2,330 (48.5)	1,001 (20.8)	743 (15.5)	466 (9.7)	158 (3.3)	111 (2.3)	4,809 (100.0)
해외작가 국내전	174 (21.5)	167 (20.6)	210 (26.0)	178 (22.0)	49 (6.1)	31 (3.8)	80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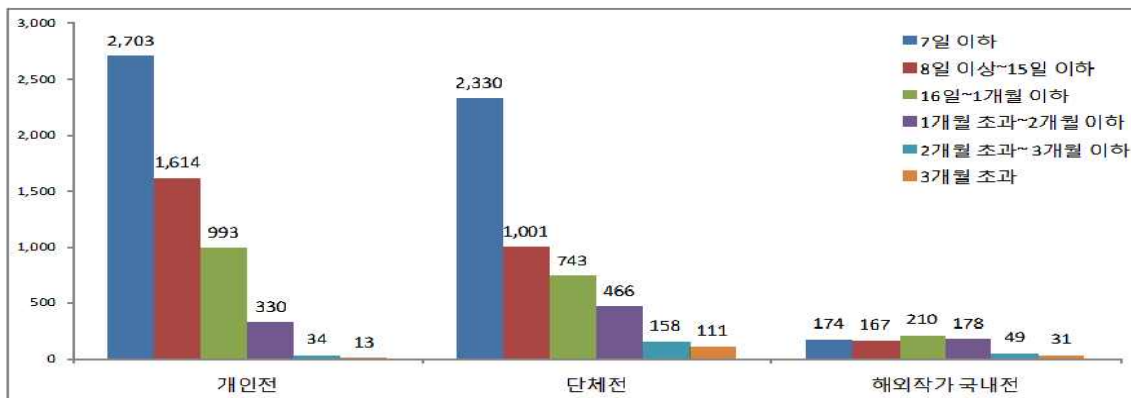
자료 : 문예연감(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9)

주1) 괄호 안의 숫자는 국내전의 전시주체에 따른 합계를 100으로 보았을 때의 비중을 의미함. 즉, 개인전 중 47.5%는 7일 이하의 기간 동안 전시되는 것임

주2) 전시 기간 구분의 포괄성을 위해 문예연감의 구분을 일부 수정하였음. (1일 이하 -> 7일 이하)

[그림 4.1.5.2] 2009년도 국내전의 전시 기간별 현황

(단위: 건수)



[표 4.1.5.3] 국내 개인전의 세부장르별 전시 현황(2007년~2009년)

(단위: 건, %)

구분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설치&영상	서예	판화	디자인	만화	기타	미분류	합 계
2007	2,482 (51.0)	364 (7.5)	472 (9.7)	503 (10.3)	210 (4.3)	82 (1.7)	79 (1.6)	15 (0.3)	16 (0.3)	38 (0.8)	607 (12.5)	4,868 (100.0)
2008	3,127 (54.6)	392 (6.8)	603 (10.5)	660 (11.5)	283 (4.9)	231 (4.0)	102 (1.8)	28 (0.5)	26 (0.5)	170 (3.0)	110 (1.9)	5,732 (100.0)
2009	3,249 (57.1)	447 (7.9)	497 (8.7)	563 (9.9)	225 (4.0)	155 (2.7)	64 (1.1)	23 (0.4)	10 (0.2)	339 (6.0)	115 (2.0)	5,68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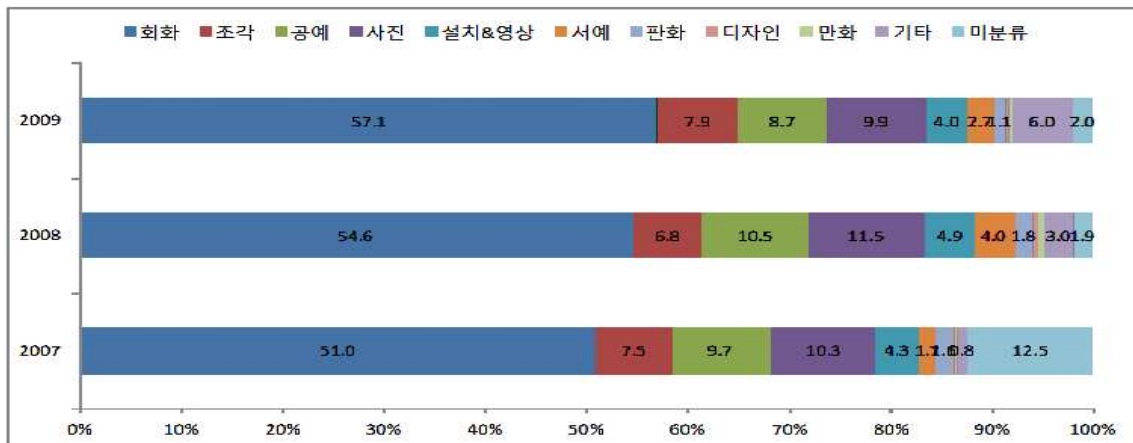
자료 : 문예연감(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7; 2008; 2009)

주1) 문예연감은 2007년의 시각예술의 세부장르를 위의 11개(미분류 포함)에 더해 회화 장르를 서양화, 동양화 및 회화로 구분하였고, 디지털 매체를 사용하는 디지털 장르로 총 14개(미분류 포함)로 분류하였음. 이를 서양화, 동양화 및 회화는 회화 장르로 재구분하였고, 디지털은 기타로 분류하여 재작성함

주2) 괄호 안의 수치는 각 연도의 국내 전시 중 각각의 세부장르에 해당되는 전시의 비중을 나타냄

[그림 4.1.5.3] 국내 개인전의 세부장르별 전시 비율(2007년~2009년)

(단위: %)



- 『문화예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미술 분야 일인당 연평균 발표·출판 편수는 2003년 30.4편, 2006년 31.9편, 2009년 30.2편으로 나타났으며, 3개년 평균 편수는 30.8편으로 나타남
- 세부장르별로 살펴보면 서양화가 39편, 공예가 35.9편, 동양화가 34.8편, 판화가 34.5편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디자인이 13.4편, 조각이 19.7편으로 낮게 나타남

[표 4.1.5.4] 미술 분야 일인당 연평균 생산량(2003-2009년)

(단위: 명, 편)

	2003			2006			2009			3개년 평균
	응답자	생산편수		응답자	생산편수		응답자	생산편수		
	수	수	평균	수	수	평균	수	수	평균	
없다	10	0	0	11	0	0	28	0	0	
있다(계)	190	5,772	30.4	189	6,023	31.9	172	5,188	30.2	30.8
동양화	38	1,541	40.6	51	1,818	35.6	35	987	28.2	3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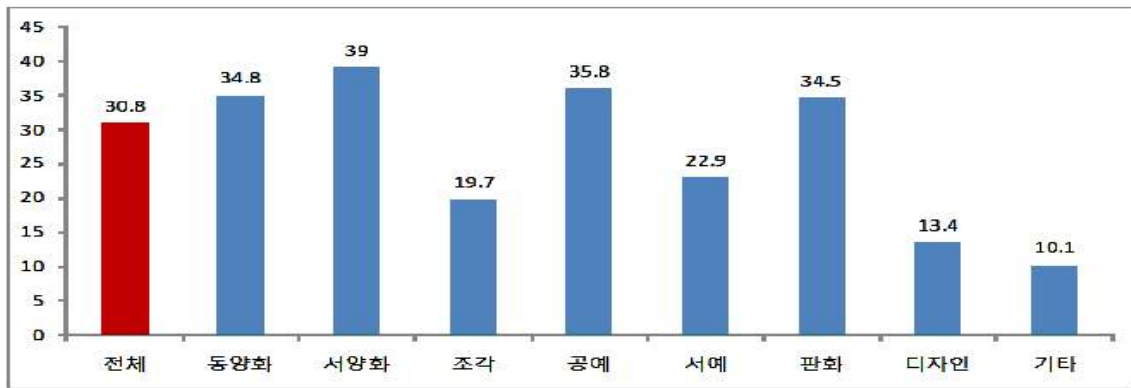
서양화	34	1,601	47.1	73	2,741	37.5	81	2,620	32.3	39.0
조각	40	889	22.2	26	615	23.7	13	170	13.1	19.7
공예	32	569	17.8	14	421	30.1	9	535	59.4	35.8
서예	34	940	27.6	16	280	17.5	25	588	23.5	22.9
판화	7	181	25.9	2	58	29.0	2	97	48.5	34.5
디자인	0	0	0	5	64	12.8	7	191	27.3	13.4
기타	5	51	10.2	1	20	20.0	0	0	0	10.1

자료: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2003; 2006; 2009)

주1) 생산편수 : 주로 활동하는 부문에서 지난 1년간 발표 또는 출판한 작품 수

[그림 4.1.5.4] 미술 세부 분야별 일인당 연평균 생산량(3개년 평균)

(단위: 편)



○ 『문화예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사진 분야 일인당 연평균 발표·출판 편수는 2003년 23.3편, 2006년 22편, 2009년 16.2편으로 나타났으며, 3개년 평균 편수는 20.5편으로 나타남

○ 세부 분야별로는 보도사진이 58.2편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평론/이론이 32.4편, 창작사진이 19.1편, 상업사진이 18.4편으로 나타남

[표 4.1.5.5] 사진 분야 일인당 연평균 생산량(2003-2009년)

(단위: 명,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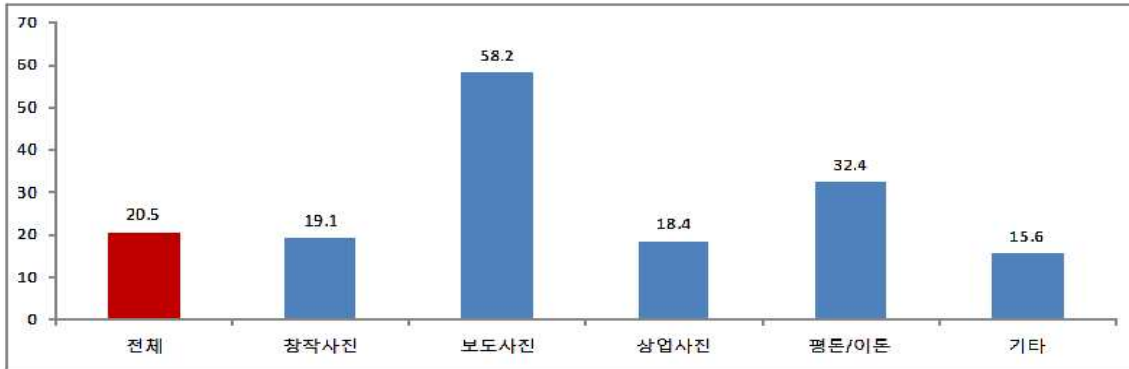
	2003			2006			2009			3년도 평균
	응답자 수	생산편수 수	평균 편	응답자 수	생산편수 수	평균 편	응답자 수	생산편수 수	평균 편	
	수	수	편	수	수	편	수	수	편	
없다	34	0	0	19	0	0	39	0	0	
있다(계)	166	3,875	23.3	181	3,976	22.0	161	2,604	16.2	20.5
창작사진	132	2,941	22.3	171	3,562	20.8	150	2,138	14.3	19.1
보도사진	10	168	16.8	2	216	108.0	8	398	49.8	58.2
상업사진	9	230	25.6	7	180	25.7	2	8	4.0	18.4
평론/이론	6	115	19.2	1	18	18.0	1	60	60.0	32.4
기타	9	421	46.8	0	0	0	0	0	0	15.6

자료: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2003; 2006; 2009)

주1) 생산편수 : 주로 활동하는 부문에서 지난 1년간 발표 또는 출판한 작품 수

[그림 4.1.5.5] 사진 세부 분야별 일인당 연평균 생산량(3개년 평균)

(단위: 편)



- 『문화예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건축 분야 일인당 연평균 발표·출판 편수는 2003년 7.4편, 2006년 9.5편, 2009년 6.4편으로 나타났으며, 3개년 평균 편수는 7.8편으로 나타남
- 세부 분야별로는 구조설계가 19편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기타가 10편, 건축설계가 7.9편, 도시환경이 5.3편, 실내설계가 4.5편, 평론/이론이 2.4편으로 나타남

[표 4.1.5.6] 건축 분야 일인당 연평균 생산량(2003-2009년)

(단위: 명,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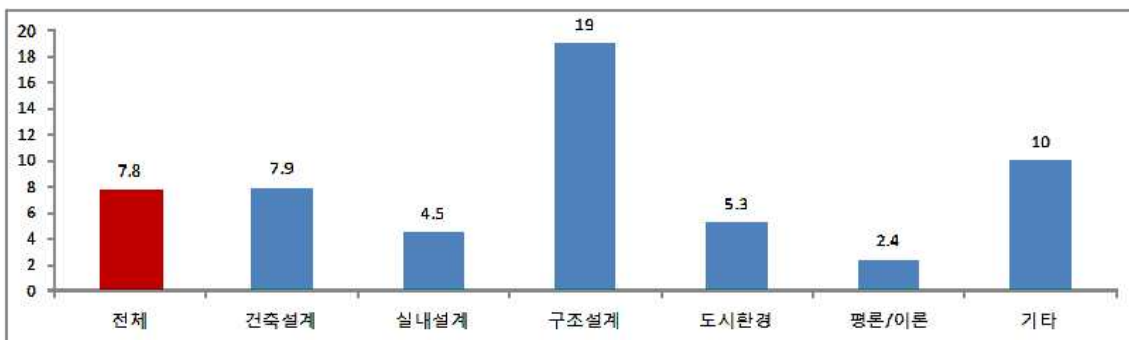
	2003			2006			2009			3개년 평균
	응답자	생산편수		응답자	생산편수		응답자	생산편수		
	수	수	평균	수	수	평균	수	수	평균	
없다	71	0	0	48	0	0	95	0	0	
있다(계)	129	958	7.4	152	1,446	9.5	105	675	6.4	7.8
건축설계	122	940	7.7	129	1,240	9.6	96	601	6.3	7.9
실내설계	1	2	2.0	10	71	7.1	4	17	4.3	4.5
구조설계	1	6	6.0	2	22	11.0	1	40	40.0	19.0
도시환경	3	6	2.0	7	67	9.6	4	17	4.3	5.3
평론/이론	2	4	2.0	3	16	5.3	0	0	0	2.4
기타	0	0	0	1	30	30.0	0	0	0	10.0

자료: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2003; 2006; 2009)

주1) 생산편수: 주로 활동하는 부문에서 지난 1년간 발표 또는 출판한 작품 수

[그림 4.1.5.5] 건축 세부 분야별 일인당 연평균 생산량(3개년 평균)

(단위: 편)



4.1.6 문학

- 『2010 콘텐츠 산업백서』에 따르면 2007~2010년 동안 연평균 신간발행 종수는 41,669종이며, 신간발행 부수는 112,885,780부로 나타남
- 문학 관련 신간발행종수는 2007년 7,752종에서 2010년 8,192종으로 증가하였으나, 신간발행부수는 2007년 17,324천부에서 2010년 17,280천부로 다소 감소하였음
- 2010년 기준, 신간발행 종수에서 문학이 차지하는 비율은 20.3%, 만화가 차지하는 비율은 11.9%로 나타남
- 또한 2010년 기준, 신간발행 부수에서 문학이 차지하는 비율은 16.3%, 만화가 차지하는 비율은 8.9%로 나타남
- 한편 국립중앙도서관 납본 문학도서의 장르별 종수를 살펴보면 소설 장르가 전체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번역서가 24.4%, 시가 20.9%, 수필/산문이 19.2%, 평론이 5.1%, 희곡이 0.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1.6.1] 문학과 만화 등의 신간발행 종수와 부수(2007년~2010년) (단위: 종, 부,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점유율	연평균
문학	종수	7,752	8,482	8,718	8,192	20.3	8,286
	부수	17,323,993	17,640,805	18,643,635	17,279,904	16.3	17,722,084
만화	종수	7,290	6,541	5,735	4,776	11.9	6,086
	부수	18,096,187	16,911,143	13,263,458	9,476,924	9.9	14,436,928
기타	종수	26,052	28,076	27,738	27,323	67.8	27,297
	부수	97,082,939	71,963,727	74,307,608	79,552,798	74.8	80,726,768
총 계	종수	41,094	43,099	42,191	40,291	100.0	41,669
	부수	132,503,119	106,515,675	106,214,701	106,309,626	100.0	112,885,780

자료1) 콘텐츠 산업백서(문화체육관광부) 각년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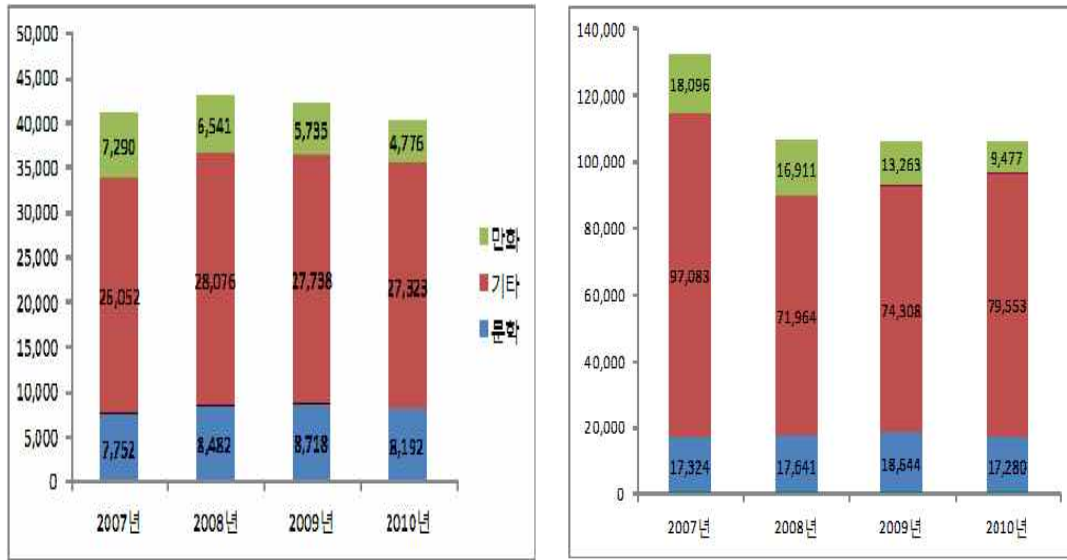
자료2) 문예연감(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각년도자료

주1) 기타는 문학 및 만화를 제외한 신간 발행을 의미하며, 종류, 철학, 종교, 사회과학, 순수과학, 기술과학, 예술, 어학, 문학, 역사, 학습참고서, 아동 등을 포함하고 있음

주2) 점유율은 2010년에 대한 값으로써, 총계 중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그림 4.1.6.1] 연간 신간발행 종수와 부수

(단위: 종, 천부)



[표 4.1.6.2] 국립중앙도서관 납본 문학도서 장르별 발간현황(2009년 종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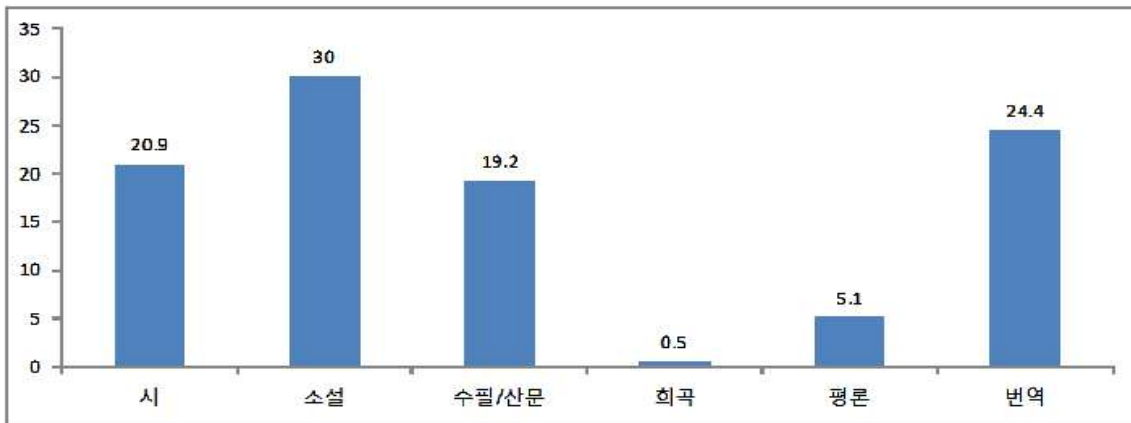
(단위: 종수, %)

구분	시	소설	수필/산문	희곡	평론	번역	계
종수	1,552	2,231	1,424	37	376	1,812	7,432
비중	20.9	30.0	19.2	0.5	5.1	24.4	100.0

자료 : 문예연감(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9)

[그림 4.1.6.2] 국립중앙도서관 납본 문학도서 종수의 장르별 비율(2009년 기준)

(단위: %)



- 한편 『문예연감』에 따르면 문학행사는 2008년 297회, 2009년 250회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문학행사 유형별로 살펴보면, 2008년에는 문학제/문학축전, 낭송·낭독 및 공연, 학술 대회/세미나/포럼 등의 순으로 문학행사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2009년에는 문학제/문학축전, 낭송·낭독 및 공연, 문학강연 등의 순으로 문학행사의 비중이 높게 나

타남

[표 4.1.6.3] 문학행사 현황 (2008, 2009년)

(단위: 수, %)

구 분	2008		2009	
	행사 수	비율	행사 수	비율
기념 및 추모행사	20	5.4	23	5.9
낭송·낭독 및 공연	66	17.9	47	12.0
독자와의 대화 및 만남	22	6.0	38	9.7
문인대회	7	1.9	4	1.0
문학강연	29	7.9	43	11.0
문학의 밤	33	8.9	13	3.3
문학기행	23	6.2	32	8.2
문학제, 문학축전	79	21.4	72	18.3
문학캠프, 문학학교	14	3.8	9	2.3
백일장	9	2.4	34	8.7
전시	17	4.6	34	8.7
학술대회, 세미나, 포럼	47	12.7	34	8.7
기타	3	0.8	9	2.3
계*	369 (297)	100.0	392 (25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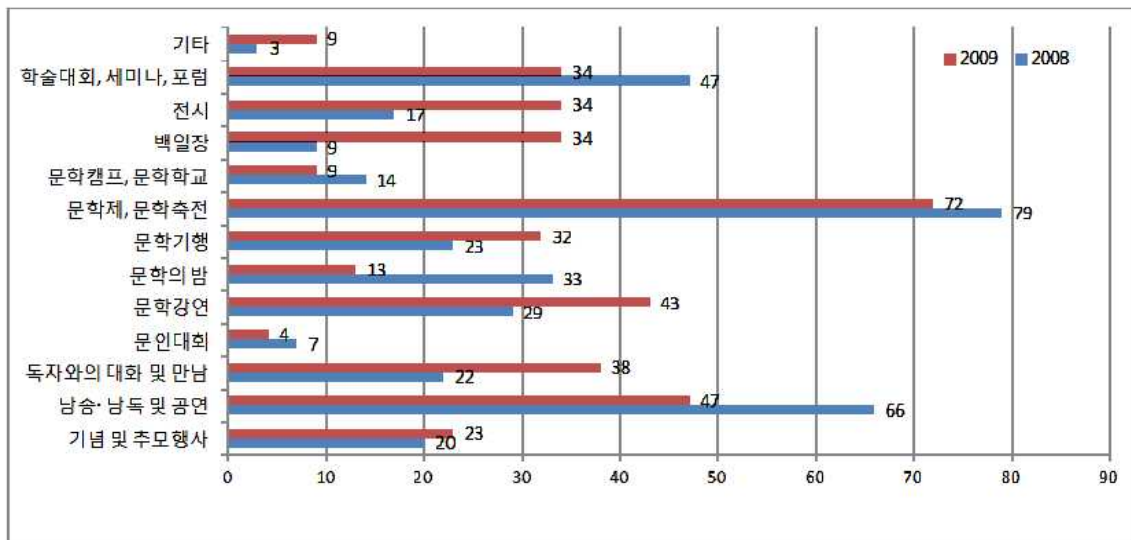
자료 : 문예연감(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8; 2009)

주1) 위의 행사 수는 중복을 허용하여 작성되었으며, 전국의 모든 문학행사를 포함하는 것은 아님

주2) 계의 괄호 안의 수는 실제 조사된 문학행사의 건수 임

[그림 4.1.6.3] 목적에 따른 문화행사 추이(2008, 2009년)

(단위: 건수)



- 한편 『문화예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문학 분야 일인당 연평균 생산량은 2003년 29.1편, 2006년 18.1편, 2009년 22.8편으로 나타났으며, 3개년 평균 발표·출판 편수는 23.3편으로 나타남
- 세부 분야별로는 시조가 35.4편, 평론/이론이 30편, 시가 29.3편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희곡이 3.2편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표 4.1.6.4] 문학 분야 일인당 연평균 생산량(2003-2009년)

(단위: 명,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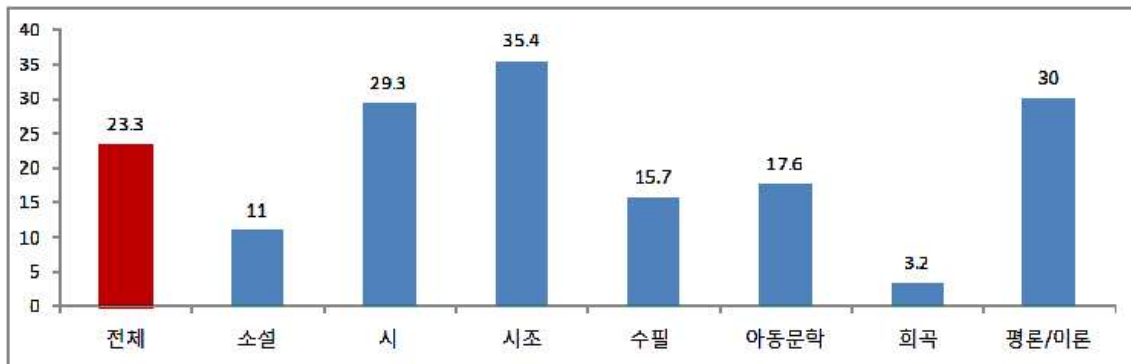
	2003			2006			2009			3개년 평균
	응답자	생산편수		응답자	생산편수		응답자	생산편수		
	수	수	평균	수	수	평균	수	수	평균	
없다	13	0		18	0		25	0		
있다(계)	187	5,440	29.1	182	3,302	18.1	175	3,990	22.8	23.3
소설	28	633	22.6	34	214	6.3	33	138	4.2	11.0
시	72	2,812	39.1	89	1,705	19.2	102	3,024	29.6	29.3
시조	35	1,173	33.5	23	710	30.9	8	334	41.8	35.4
수필	35	488	13.9	20	448	22.4	15	163	10.9	15.7
아동문학	12	252	21.0	3	27	9.0	9	205	22.8	17.6
희곡	4	26	6.5	1	1	1.0	1	2	2.0	3.2
평론/이론	1	56	56.0	12	197	16.4	7	124	17.7	30.0

자료: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2003; 2006; 2009)

주1) 생산편수: 주로 활동하는 부문에서 지난 1년간 발표 또는 출판한 작품 수

[그림 4.1.6.4] 문학 세부 분야 일인당 연평균 생산량(3개년 평균)

(단위: 편)



4.1.7. 영화

- 「2010년 한국 영화산업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영화의 제작편수는 2003년 80편에서 2010년 152편으로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봉편수 역시 2003년 65편에서 2010년 140편으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외국영화의 수입편수와 개봉편수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외국영화의 수입편수는 2003년 271편에서 2010년 383편으로 증가했으며, 개봉편수 역시 2003년 175편에서 2010년 286편으로 증가함
- 그러나 총 개봉편수에서 한국영화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3년 27.1%에서 2010년 32.9%로 증가하였으나 40%에 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1.7.1] 영화의 제작(수입)편수와 개봉편수 현황(2003년~2010년)

(단위: 편수, %)

구분	한국영화				외국영화				총 개봉편수	
	제작 편수	개봉편수			수입 편수	개봉편수				
		전년대비 증감율	비중			전년대비 증감율	비중		한국영 화비율	
2003	80	65	-	27.1	271	175	-	72.9	240	27.1
2004	82	74	13.8	27.6	285	194	10.9	72.4	268	27.6
2005	87	83	12.2	27.9	253	215	10.8	72.1	298	27.9
2006	110	108	30.1	31.3	289	237	10.2	68.7	345	31.3
2007	124	112	3.7	28.6	404	280	18.1	71.4	392	28.6
2008	113	108	-3.6	28.4	360	272	-2.9	71.6	380	28.4
2009	138	118	9.3	32.7	311	243	-10.7	67.3	361	32.7
2010	152	140	18.6	32.9	383	286	17.7	67.1	426	32.9

자료 : 2010년 한국 영화산업 결산 (영화진흥위원회,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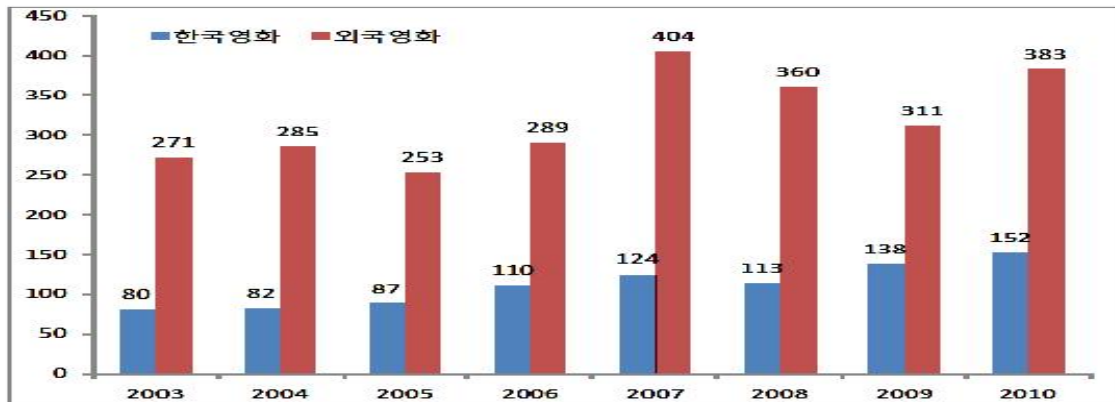
주1) 제작편수 및 수입편수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편수를 기준으로 하며, 영화진흥법상 단편영화(상영시간 40분 미만)는 제외함

주2) 개봉편수는 전년도 이월작, 재개봉작을 제외한 최초 개봉작(First Run)만을 대상으로 함

주3) 비중은 각 연도별 총 개봉 편수 중 한국영화와 외국영화의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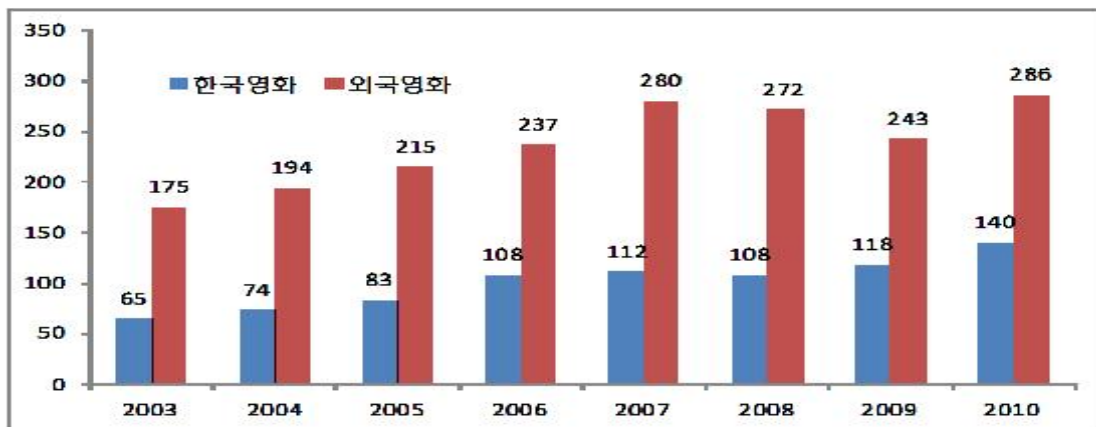
[그림 4.1.7.1] 한국영화 제작편수와 외국영화 수입편수(2003~2010년)

(단위: 편수)



[그림 4.1.7.2] 한국영화와 외국영화의 개봉편수(2003~2010년)

(단위: 편수)



- 『문화예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영화 분야 일인당 연평균 발표·출판 편수는 2003년 2.8편, 2006년 14.7편, 2009년 7.2편으로 나타났고 3개년 평균 편수는 8.2편으로 나타남
- 영화 세부 분야별로는 기타가 22.8편, 평론/이론이 16.4편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시나리오가 3.3편, 제작/기획이 3.4편, 감독이 3.9편으로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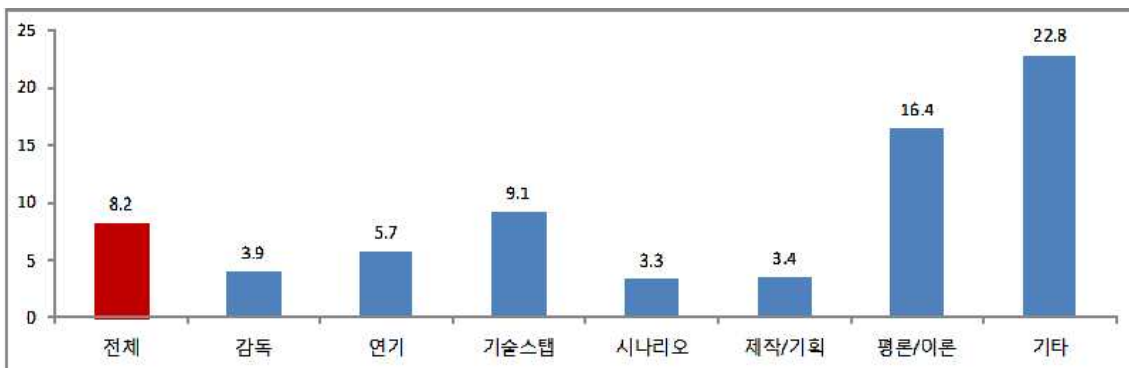
[표 4.1.7.2] 영화 분야 일인당 연평균 생산량(2003-2009년)

(단위: 명, 편)

	2003			2006			2009			3개년 평균
	응답자	생산편수		응답자	생산편수		응답자	생산편수		
	수	수	평균	수	수	평균	수	수	평균	
없다	119	0		59	0		0	0		
있다(계)	74	209	2.8	141	2,067	14.7	200	1,432	7.2	8.2
감독	13	32	2.5	13	41	3.2	49	300	6.1	3.9
연기	4	8	2.0	29	207	7.1	29	232	8.0	5.7
기술스텝	47	154	3.3	74	1,113	15.0	49	444	9.1	9.1
시나리오	8	13	1.6	7	25	3.6	30	137	4.6	3.3
제작/기획	1	1	1.0	5	9	1.8	30	219	7.3	3.4
평론/이론	0	0	0	10	493	49.3	0	0	0	16.4
기타	1	1	1.0	3	179	59.7	13	100	7.7	22.8

[그림 4.1.7.3] 영화 세부 분야별 일인당 연평균 생산량(3개년도 평균)

(단위: 편)



4.1.8 방송 및 대중예술

- 『2010 콘텐츠산업통계』에 나타난 독립제작사의 방송프로그램 판매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26.3편에서 2009년 27.8편으로 1.5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편당 길이는 2008년 40.43분에서 2009년 40.69분으로 나타남
- 방송프로그램 판매 총액은 2008년 168,097백만원에서 2009년 181,381백만원으로 증가함
- 2009년 기준으로 판매된 편수는 연예오락 프로그램이 35.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교양(27.2%), 홍보(10.3%), 다큐(7.2%), 교육(5.6%), 드라마(4.3%)

프로그램 등의 순으로 차지하고 있음

- 한편 판매총액의 경우 드라마가 34.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예오락(23.1%), 홍보(13.4%), 교양(13.3%), 다큐(4.4%), 종합(4.4%) 프로그램의 순으로 차지하고 있음

[표 4.1.8.1] 독립제작사 방송프로그램 판매 현황(2008-20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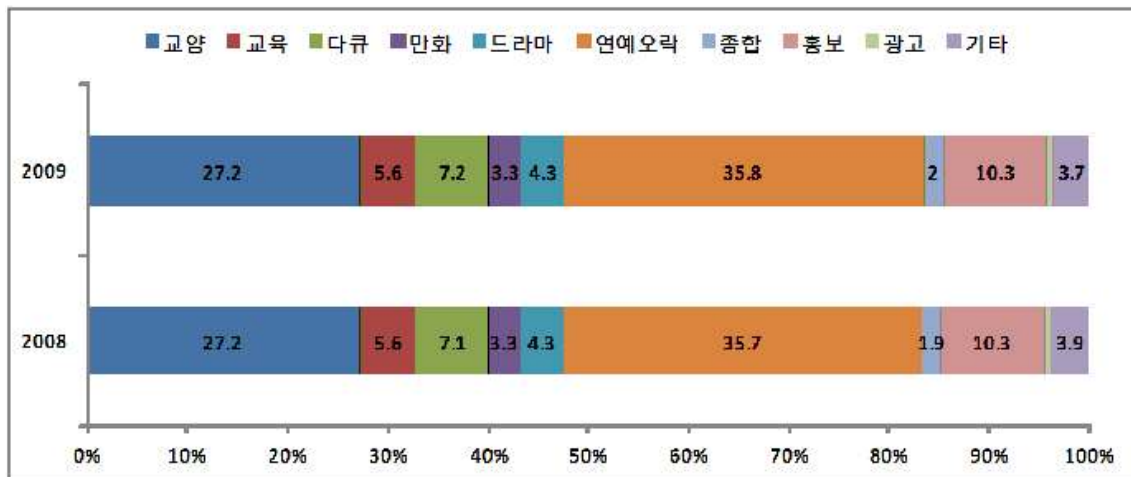
(단위: 편, 분, 백만원, %)

		교양	교육	다큐	만화	드라마	연예오락	종합 (구성)	홍보	광고	기타	합계
08	편수	7,138	1,479	1,876	876	1,128	9,385	512	2,693	159	1,013	26,259
		27.2	5.6	7.1	3.3	4.3	35.7	1.9	10.3	0.6	3.9	100.0
	편당 길이	41.6	27.2	28.5	36.2	60.0	46.9	48.0	9.9	6.0	41.7	40.4
	총액	21,796	3,883	7,257	4,196	58,472	39,391	7,453	22,405	631	2,613	168,097
		13.0	2.3	4.3	2.5	34.8	23.4	4.4	13.3	0.4	1.6	100.0
09	편수	7,563	1,563	1,988	922	1,201	9,963	549	2,866	172	1,015	27,802
		27.2	5.6	7.2	3.3	4.3	35.8	2.0	10.3	0.6	3.7	100.0
	편당 길이	41.86	27.43	48.61	36.23	63.12	46.93	48.66	9.87	6.03	41.73	40.69
	총액	24,107	4,163	7,892	4,489	62,397	41,933	8,012	24,358	793	3,237	181,381
		13.3	2.3	4.4	2.5	34.4	23.1	4.4	13.4	0.4	1.8	100.0

자료 : 2010 콘텐츠산업통계(문화체육관광부,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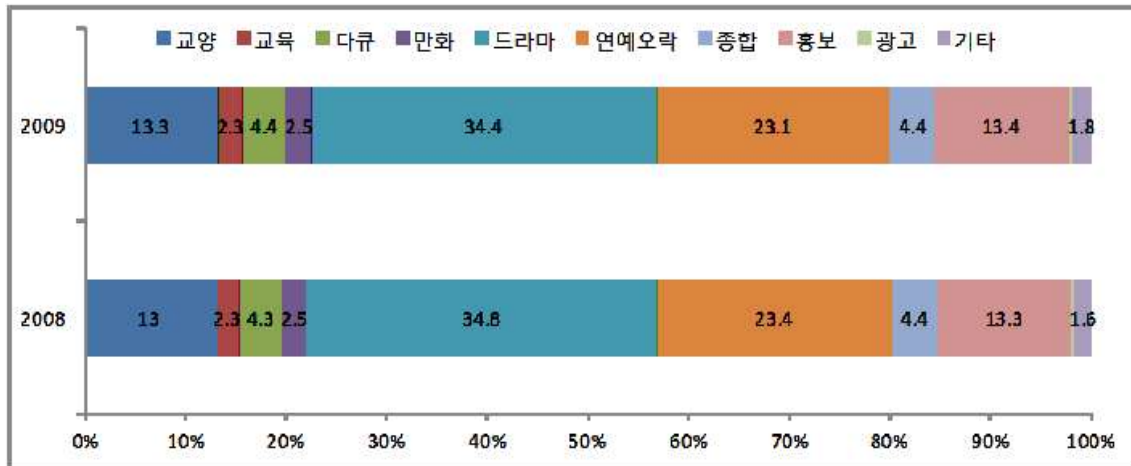
[그림 4.1.8.1] 독립제작사 방송프로그램 판매 편수 비율(2008-2009년)

(단위: %)



[그림 4.1.8.2] 독립제작사 방송프로그램 판금금액 비율(2008-2009년)

(단위: %)



- 『문화예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대중예술 분야 일인당 연평균 발표·출판 편수는 2003년 66.4편, 2006년 119편, 2009년 28편으로 나타났고 3개년 평균 편수는 71.1편으로 나타남
- 대중예술 세부 분야별로는 연주가 195.4편, 코미디/개그가 146.8편, 무용이 117.4편, 가수가 114.8편, 연기가 91편으로 높게 나타남
- 한편 평론/이론이 3.3편, 대본/극본이 9.1편, 제작/기획은 8편으로 낮게 나타남

[표 4.1.8.2] 대중예술 분야 일인당 연평균 생산량(2003-2009년)

(단위: 명,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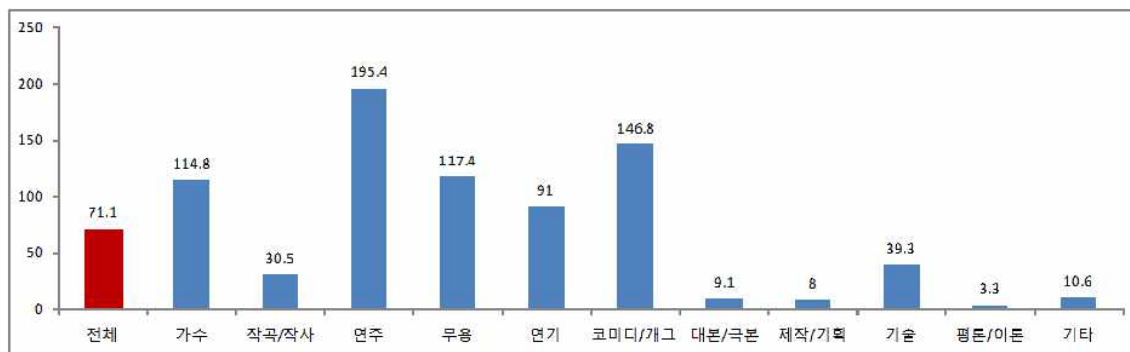
	2003			2006			2009			3개년 평균
	응답자	생산편수		응답자	생산편수		응답자	생산편수		
	수	수	평균	수	수	평균	수	수	평균	
없다	20	0	0	27	0	0	0	0	0	-
있다(계)	160	10,630	66.4	173	20,582	119.0	200	5,593	28.0	71.1
가수	20	4,083	204.2	14	1,649	117.8	15	336	22.4	114.8
작곡/작사	7	338	48.3	7	91	13.0	7	212	30.3	30.5
연주	5	516	103.2	2	920	460.0	6	138	23.0	195.4
무용	26	3,028	116.5	20	3,705	185.3	20	1,009	50.5	117.4
연기	9	517	57.4	59	11,532	195.5	54	1,086	20.1	91.0
코미디/개그	34	1,606	47.2	5	1,812	362.4	3	92	30.7	146.8
대본/극본	9	65	7.2	17	178	10.5	28	272	9.7	9.1
제작/기획	44	312	7.1	25	185	7.4	10	95	9.5	8.0
기술	4	157	39.3	20	481	24.1	25	1,364	54.6	39.3
평론/이론	2	8	4.0	0	0	0	1	6	6.0	3.3
기타	0	0	0	0	0	0	31	983	31.7	10.6

자료: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2003; 2006; 2009)

주1) 생산편수: 주로 활동하는 부문에서 지난 1년간 발표 또는 출판한 작품 수

[그림 4.1.8.3] 대중예술 세부 분야별 일인당 연평균 생산량(3개년 평균)

(단위: 편)



4.2. 지역축제의 수

-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조사 자료인 『지역축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간 지역 축제의 수는 2009년 921개에서 2010년 821개, 2011년 762개로 감소함
-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경기, 경남, 강원, 충남 지역의 축제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4.2.1] 연간 지역별 지역축제 현황 (2009년~201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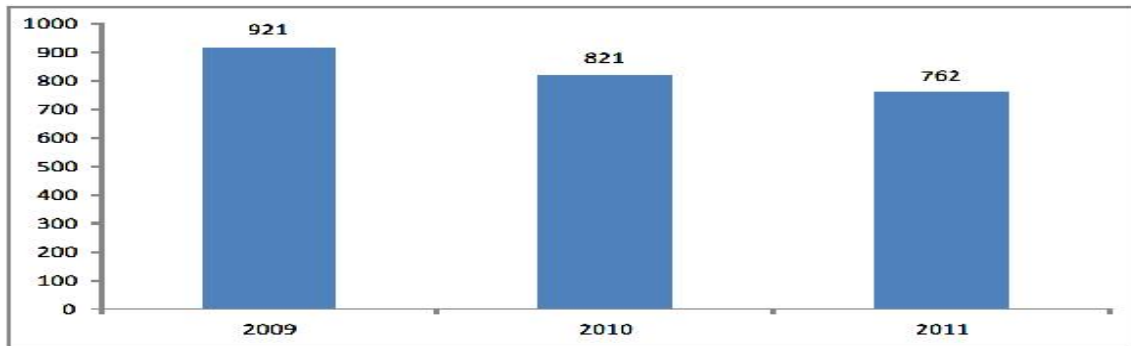
(단위: 건수, %)

지역별	2009		2010		2011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서울	119	12.9	69	8.4	94	12.3
부산	47	5.1	44	5.4	38	5.0
대구	33	3.6	24	2.9	29	3.8
인천	27	2.9	23	2.8	30	3.9
광주	10	1.1	13	1.6	14	1.8
대전	22	2.4	16	1.9	8	1.0
울산	27	2.9	21	2.6	11	1.4
경기	115	12.5	93	11.3	76	10.0
강원	105	11.4	91	11.1	86	11.3
충북	50	5.4	51	6.2	48	6.3
충남	81	8.8	76	9.3	68	8.9
전북	50	5.4	62	7.6	51	6.7
전남	47	5.1	34	4.1	38	5.0
경북	48	5.2	51	6.2	50	6.6
경남	112	12.2	122	14.9	89	11.7
제주	28	3.0	31	3.8	32	4.2
합계	921	100.0	821	100.0	762	100.0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09년~2011년(단, 동 자료는 매년 초 16개 시도에서 제출한 지역축제 계획 자료를 종합한 것으로 연말에 실제로 시행된 지역축제의 수는 계획과는 다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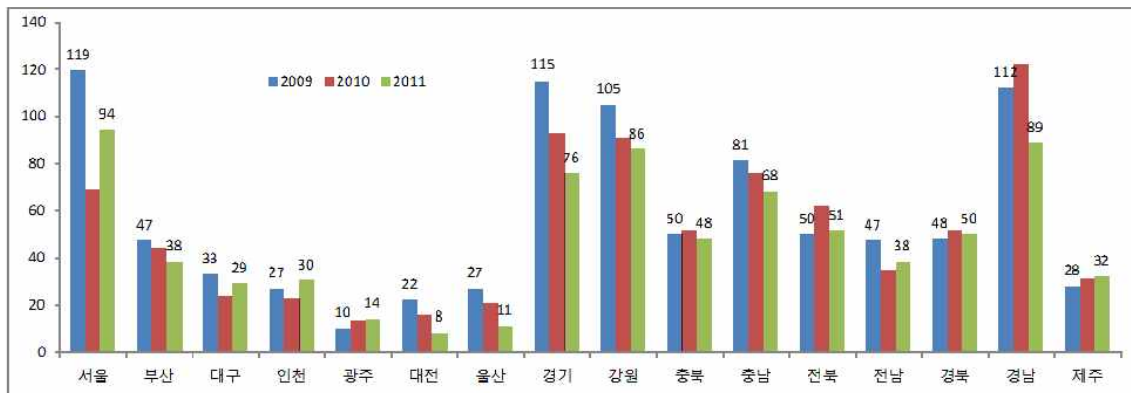
주1) 비율은 각 연도의 지역축제 합계에서 차지하는 각 지역의 축제 비중을 의미함

[그림 4.2.1] 연간 지역축제 현황(2009-2010년) (단위: 건수)



[그림 4.2.2] 연간 지역별 지역축제 현황(2009-2010년)

(단위: 건수)



- 지역축제의 내용에 따라 분류할 때, 2009~2011년 동안 문화예술축제 건수가 전체의 약 31~35%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09년, 2010년에는 관광축제, 혼합축제, 전통행사축제 역시 많이 이루어졌으나 2011년에는 관광축제와 전통행사 축제 건수는 상당히 감소한 반면, 지역특산물 축제, 전통역사 축제의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4.2.2] 연간 축제유형별 지역축제 현황(2009년~2011년)

(단위: 건수, %)

축제유형별	2009		2010		2011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문화예술	289	31.4	259	31.5	272	35.7
전통역사	9	1.0	5	0.6	99	13.0
전통행사	144	15.6	111	13.5	40	5.2
지역특산물	60	6.5	28	3.4	144	18.9
생태지원	7	0.8	11	1.3	61	8.0
관광	189	20.5	136	16.6	5	0.7
혼합	122	13.2	181	22.0	68	8.9
기타	101	11.0	90	11.0	73	9.6
계	921	100.0	821	100.0	76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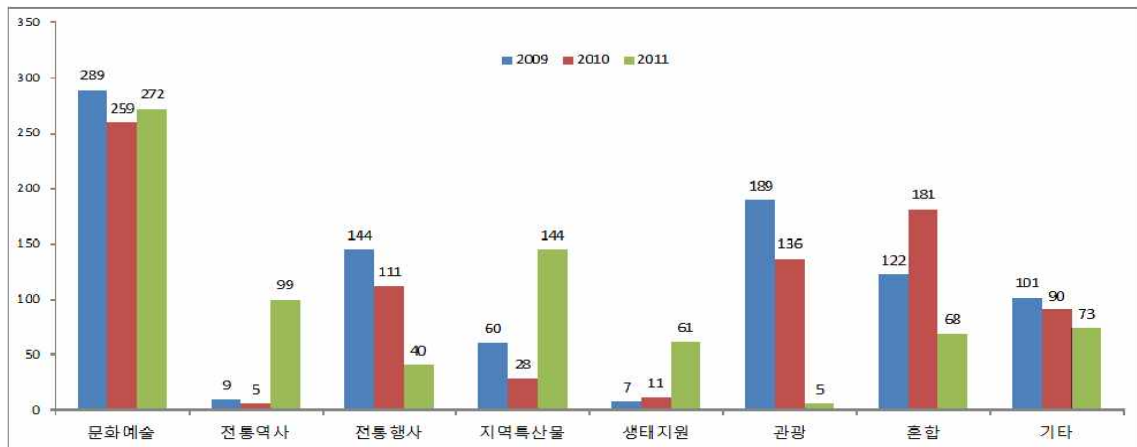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09년~2011년

주1)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사한 행정자료를 재가공함

혼합의 경우 축제유형이 중복되는 경우를 의미함. ex) 지역특산물과 관광의 목적의 경우 혼합으로 분류(혼합유형의 대부분은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관광특산물축제가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4.2.3] 축제유형별 지역축제 현황 추이(2009년~2011년)

(단위: 건수)



- 2011년 기준, 문화예술축제를 중심으로 지역별 건수를 살펴보면, 서울, 경기, 경남, 부산, 충남, 대구, 충북 지역에서 문화예술축제 건수가 높게 나타남
- 특히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 인천 등의 경우 각 지역 축제 중 문화예술축제의 비중이 4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문화예술축제에 보다 큰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4.2.3] 2011년 지역별 축제유형별 지역축제 현황

(단위: 건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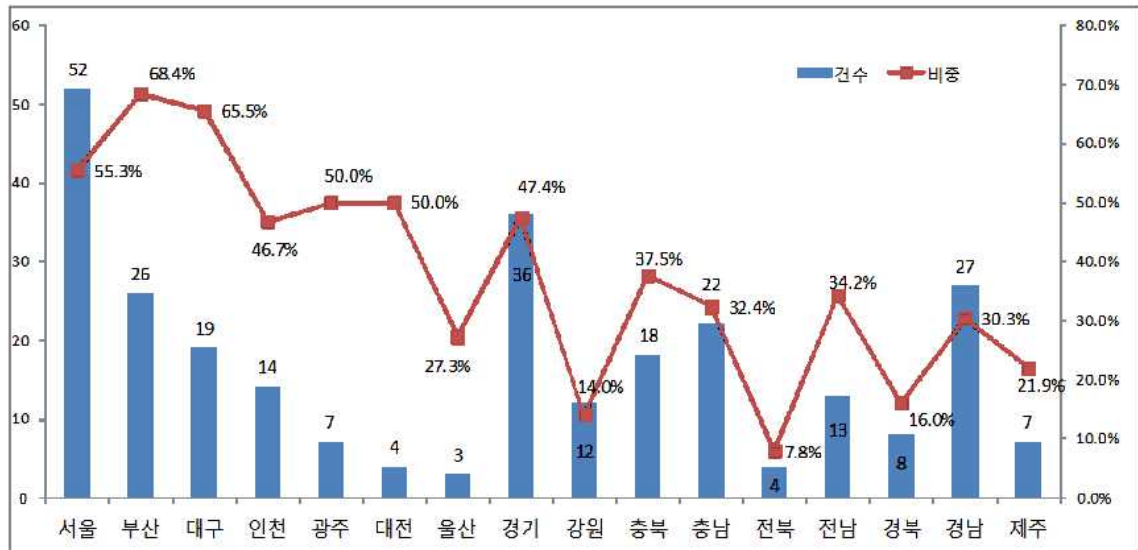
유형별/ 지역별	문화예술	전통역사	전통행사	지역 특산물	생태자원	관광	혼합	기타	계
서울	52 (55.3)	20	9	1	3	1	3	5	94
부산	26 (68.4)	5	-	7	-	-	-	-	38
대구	19 (65.5)	9	-	-	-	-	1	-	29
인천	14 (46.7)	3	-	4	1	-	1	7	30
광주	7 (50.0)	-	3	-	-	-	2	2	14
대전	4 (50.0)	1	-	-	-	-	1	2	8
울산	3 (27.3)	2	-	2	4	-	-	-	11
경기	36 (47.4)	9	-	14	6	-	1	10	76
강원	12 (14.0)	1	18	1	2	-	40	12	86
충북	18 (37.5)	7	-	16	6	-	-	1	48
충남	22 (32.4)	9	-	31	4	-	-	2	68
전북	4 (7.8)	4	7	16	6	-	6	8	51
전남	13 (34.2)	4	-	4	13	-	1	3	38
경북	8 (16.0)	4	3	22	1	3	5	4	50
경남	27 (30.3)	16	-	20	11	-	7	8	89
제주	7 (21.9)	5	-	6	4	1	-	9	32
합계	272 (35.7)	99	40	144	61	5	68	73	762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1년

주1) 문화예술 유형의 수치 중 괄호 안의 숫자는 각 지역의 축제 중 문화예술 유형이 차지하는 축제 비중임

[그림 4.2.4] 2011년 지역별 문화예술 유형 축제의 건수와 비중

(단위: 건수, %)



4.3. 문화예술 국제교류 건수

- 문화예술분야에서 이루어지는 국제교류 건수는 공연예술 분야는 『공연예술 국제교류

활동 현황』을 통해, 문학 및 미술분야는 『문예연감』을 통해, 영화 분야는 『한국 영화산업 결산』 보고서를 통해 파악할 수 있음

- 먼저, 문학분야의 국제교류 건수는 해외에 번역출판된 한국문학의 출판 종수를 통해 일부 파악할 수 있는데, 『문예연감』에 따르면 해외에 번역된 한국문학의 출판 종수는 2007년 52종에서 2008년 55건, 2009년 60건으로 조금씩 증가하고 있음
 - 다만 동 자료는 한국문화번역원 및 대산문화재단 이외의 기관이나 개인이 번역 출판한 작품집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실제 번역 출판종수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추정됨
- 미술 분야의 경우 해외에서 전시를 가진 국내작가의 전시 건수는 2007년 234건에서 2008년 508건으로 대폭 증가했다가 2009년에는 376건으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해외 작가가 국내에서 전시를 가진 건수는 2007년 698건, 2008년 942건, 2009년 809건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는 국내 작가가 해외에 진출한 건수보다는 해외 작가가 국내에 진출하여 가진 전시 건수가 2배 가량 높게 나타남
- 공연예술 분야의 경우 해외에 진출한 국내 예술단체 및 예술인의 수는 2007년 225개에서 2009년 245개로 증가하였으나, 해외진출활동 건수는 2005년 550건에서 2009년 525건으로 소폭 감소함
 - 세부 장르별 국제교류 현황을 살펴보면, 국악 분야의 경우 해외에 진출한 국악단체 및 예술인의 수는 2007년 94개에 2009년 102개로 2007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해외진출 활동 건수는 2007년의 203건에서 2009년 204건으로 나타남
 - 음악 분야의 경우 해외에 진출한 국내 음악단체 및 음악인의 수는 2007년 40개에서 2009년 60개로 증가하였으며, 국내 음악단체의 해외공연활동 건수 역시 2007년의 78개에서 2009년 104개로 증가함
 - 연극 분야의 경우 해외에 진출한 국내 연극단체의 수는 2007년 41개에서 2009년 49개로 증가하였으나 이들의 해외 연극공연 활동 건수는 2007년 125건에서 2009년 123건으로 소폭 감소함
 - 무용 분야의 경우 해외에 진출한 국내 무용단체 및 무용인의 수는 2007년 36개에서 2009년 41개로 증가했으며, 이들의 해외 진출 무용공연활동 건수 역시 2007년 74건에서 2009년 87건으로 증가함
 - 한편 복합장르의 경우 2007년에 비해 2009년 해외 진출 공연단체의 수 및 공연활동 건수 모두 대폭 감소함
- 한편 공연예술 분야에서 국내에 진출한 해외 예술단체 및 예술인의 수는 2007년 745개에서 2008년 767개로 증가했다가 2009년 652개로 다시 감소하였으며, 해외단체의 국내 공연활동 건수는 2007년 1,219건에서 2009년 1,150건으로 역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세부장르별로 살펴보면, 음악 분야의 경우 국내에 진출한 해외 음악 단체는 2007년 418개에서 2009년 421개로 증가하였으며, 이들의 국내 음악공연 활동 건수도 2007년 772건에서 2009년 812건으로 증가함

- 연극 분야의 경우 국내에 진출한 연극단체의 수는 2007년 171개에서 2009년 123개로 대폭 감소했으며, 이들의 연극공연활동 건수 역시 2007년 249건에서 2009년 188건으로 대폭 감소함
- 무용 분야의 경우 국내에 진출한 무용단체 및 무용인의 수는 2007년 156개에서 2009년 103개로 감소했으며, 이들의 국내 무용공연 활동 건수 역시 2007년 198건에서 2009년 143건으로 대폭 감소함
- 마지막으로 영화 분야의 경우 한국 영화의 수출 계약 편수는 2007년 321편에서 2008년 361편으로 증가했으나 2009년 251편으로 대폭 감소했으며, 외국 영화의 국내 수입 계약 편수는 2007년 392편에서 2008년 380편, 2009년 361편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표 4.3] 문화예술 국제교류건수

(단위: 건, 종, 편)

		2007				2008				2009			
		해외 진출		국내 진출		해외 진출		국내 진출		해외 진출		국내 진출	
		단체	활동	단체	활동	단체	활동	단체	활동	단체	활동	단체	활동
계		225	1157	745	2309	201	1337	767	2674	245	1212	652	2320
문학			52				55				60		
미술			234		698		508		942		376		809
공연 예술	국악	94	203			74	166			102	204		
	음악	40	78	418	772	35	61	463	918	50	104	421	812
	연극	41	125	171	249	43	109	166	244	49	123	123	188
	무용	36	74	156	198	40	65	138	190	41	87	103	143
	복합 장르	14	70			9	12			3	7	5	7
영화			321		392		361		380		251		361

자료1) 문학, 미술 분야 - 문예연감(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7; 2008; 2009)

자료2) 국악, 음악, 연극, 무용, 복합장르 - 공연예술 국제교류 활동 현황(예술경영지원센터, 2009)

자료3) 영화 - 한국 영화산업 결산(영화진흥위원회,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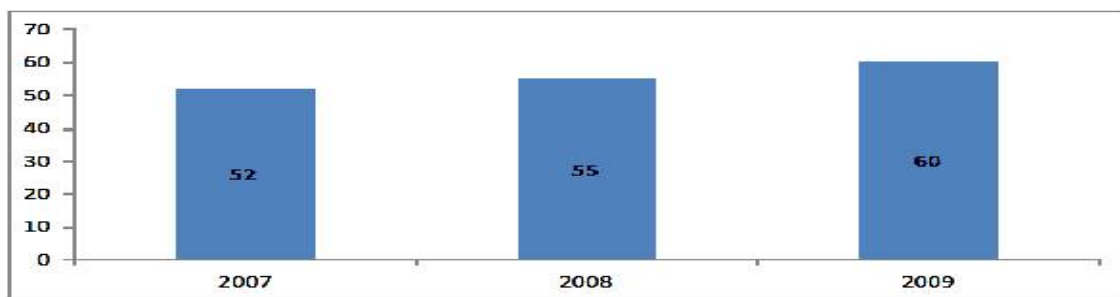
주1) 해외 진출: 국내 문화예술 상품이 해외에 진출한 경우, 국내 진출: 해외 문화예술 상품이 국내에 진출한 경우

주2) 문학: 한국문학 번역작품집 출판 종 수 / 미술: 전시 건 수 / 공연예술(국악, 음악, 연극, 무용, 복합장르): 단체 수, 공연 건 수 / 영화: 한국영화 수출 계약 편수(장·단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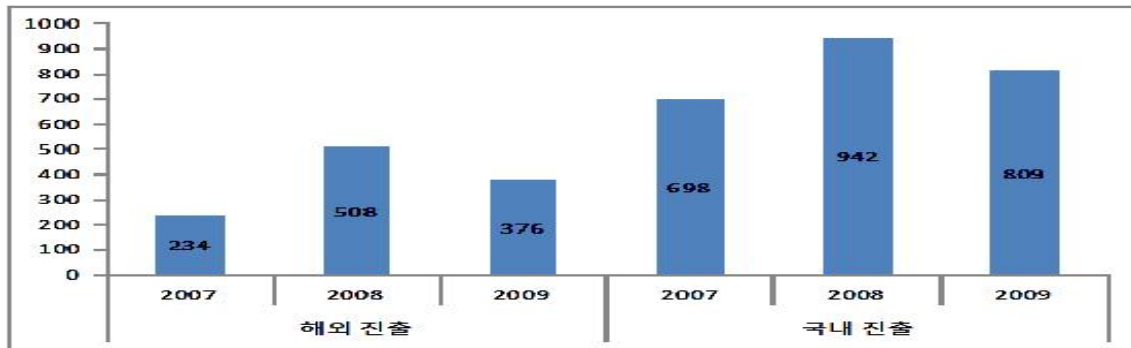
주3) 한국문학 번역작품 수치는 한국문화번역원과 대산문화재단의 통계를 참고한 것으로 여타 기관이나 개인이 번역 출판한 작품집은 포함시키지 않은 수치임

[그림 4.3.1] 한국문학 번역 작품집 출판 종 수(2007~20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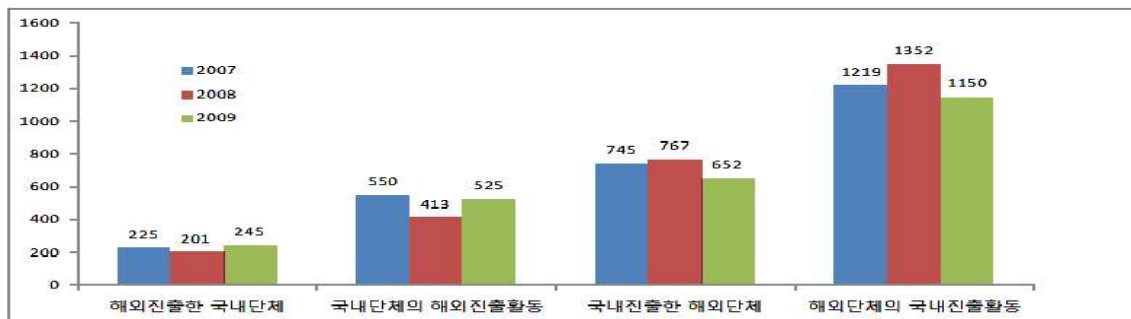
(단위: 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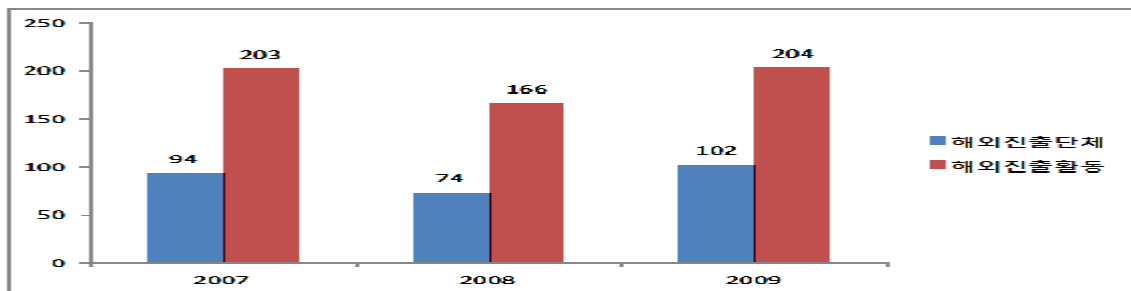
[그림 4.3.2] 미술분야 국제교류 현황(국내작가의 해외전시 건수와 해외작가의 국내전시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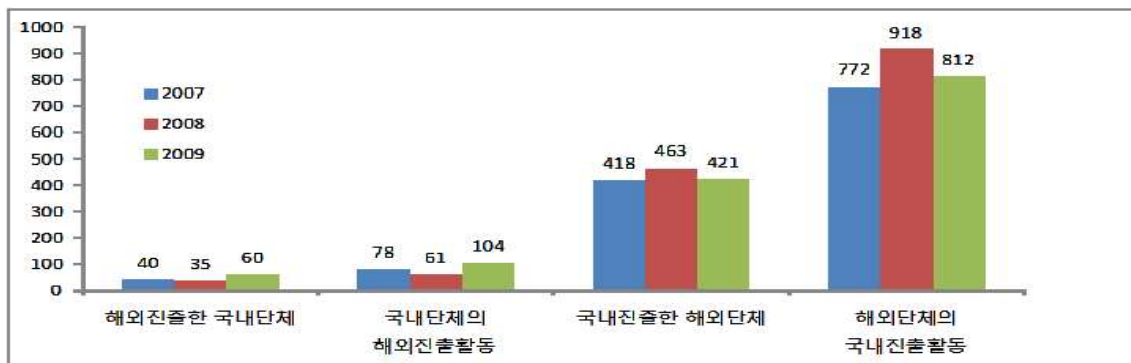
[그림 4.3.3] 공연예술 국제교류 현황(국제교류 단체 수와 국제교류 활동 건수) (단위: 개, 건)



[그림 4.3.4] 국악 분야 국제교류 현황(해외 진출한 국내 국악단체의 수 및 활동 건수) (단위: 개,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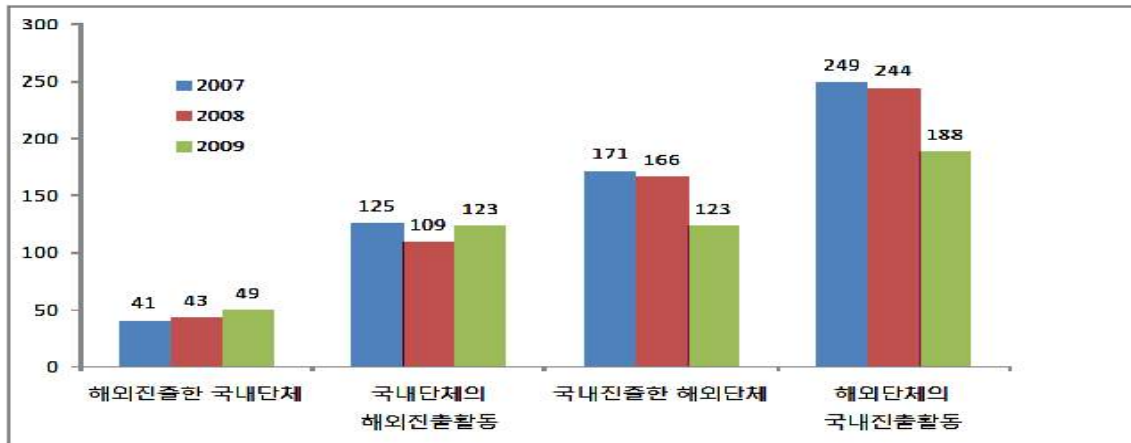


[그림 4.3.5] 음악 분야 국제교류 현황(국제교류 단체의 수 및 활동 건수) (단위: 개,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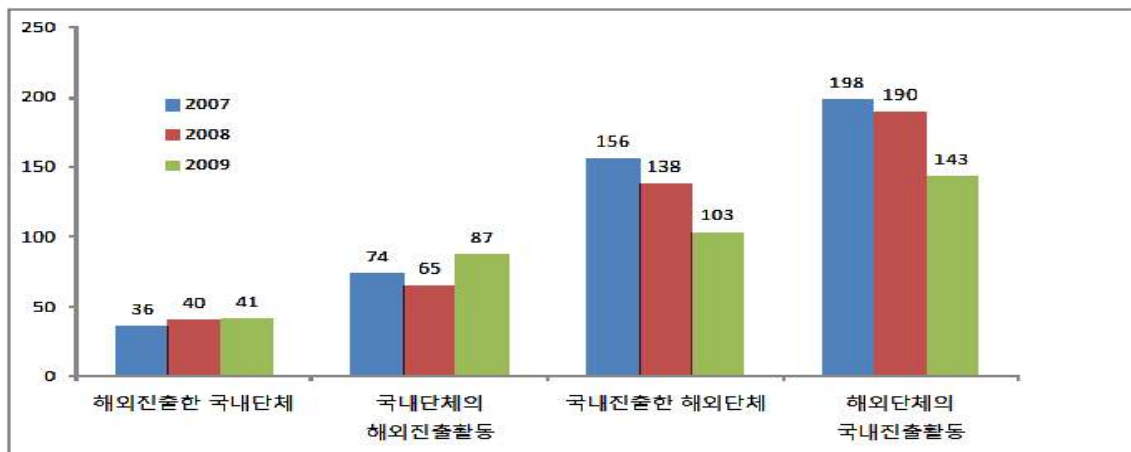
[그림 4.3.6] 연극 분야 국제교류 현황(국제교류 단체의 수 및 활동 건수)

(단위: 개, 건)



[그림 4.3.7] 무용 분야 국제교류 현황(국제교류 단체의 수 및 활동 건수)

(단위: 개, 건)



[그림 4.3.8] 영화 분야 국제교류 현황(한국영화 수출계약 편수와 외국영화의 수입계약 편수)



4.4. 문화예술분야 사업체 경영지표

4.4.1 문화예술사업체 매출액

- 문화예술분야 사업체의 매출액은 해당 사업체가 속한 분야에 따라 『서비스업 조사』,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조사』, 『광업·제조업조사』, 『도소매업 조사』를 통해 파악할 수 있음
- 『서비스업 조사』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KSIC)의 대분류 E, J, L, N, _P, Q, S에 해당하는 사업체 중 표본으로 선정된 약 60,000개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경영실태 및 구조변화를 조사하며,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조사』는 KSIC 대분류상의 M에 해당하는 사업체 중 표본으로 선정된 12,000여개 사업체를, 『광업·제조업조사』는 KSIC 대분류상의 B, C에 해당하는 사업체 중 종사자가 10인 이상인 사업체를, 『도소매업 조사』는 KSIC 분류상의 G, I 업종 사업체 중 표본으로 선정된 59,000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짐
- 다만 이들은 모두 표본조사에 해당하며, 개중에는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가 제외되는 경우도 있어 실제 문화예술사업체의 매출액은 여기에서 제시된 것과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문화예술분야 사업체로 설정된 산업분류코드를 모두 통합하여 살펴보면 문화예술분야 사업체의 매출액은 2007년 약 38조 원에서 2008년과 2009년에는 약 45조원으로 나타남
- 먼저 가장 많은 문화예술 분야 사업체를 포괄하고 있는 『서비스업 조사』에 따르면, 서비스업종에 포함된 문화예술사업체의 총 매출액은 2007년 28조 5천억 원에서 2008년 34조 천억 원, 2009년 33조 8천억 원으로 나타남
- 2009년 기준으로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의 매출액이 3조 5천억 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상파 방송업이 3조 4천억 원, 온라인 모바일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이 3조 1천억 원, 유선방송업이 2조8천억 원, 신문 발행업이 2조 7천억 원, 교과서 및 학습서적 출판업이 2조 7천억 원, 예술학원이 1조 7천억 원 등으로 높게 나타남

[표 4.4.1.1] 서비스업종에 해당하는 문화예술사업체의 매출액(2007-2009년) (단위: 백만원)

	한국산업분류	코드	2007	2008	2009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도서관 및 기록보존소 운영업	R90211	507,340	607,315	664,466
	박물관 운영업	R90221	505,755	565,416	615,169
	사적지 관리 운영업	R90222	85,221	99,368	119,189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R90231	123,322	128,364	139,947
	기타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R90290	6,243	14,318	13,754
	소계		1,227,881	1,414,781	1,552,525
	비율		4.3	4.1	4.6
공연예술	연극단체	R90121	23,292	24,607	42,850
	무용 및 음악단체	R90122	74,761	104,579	116,9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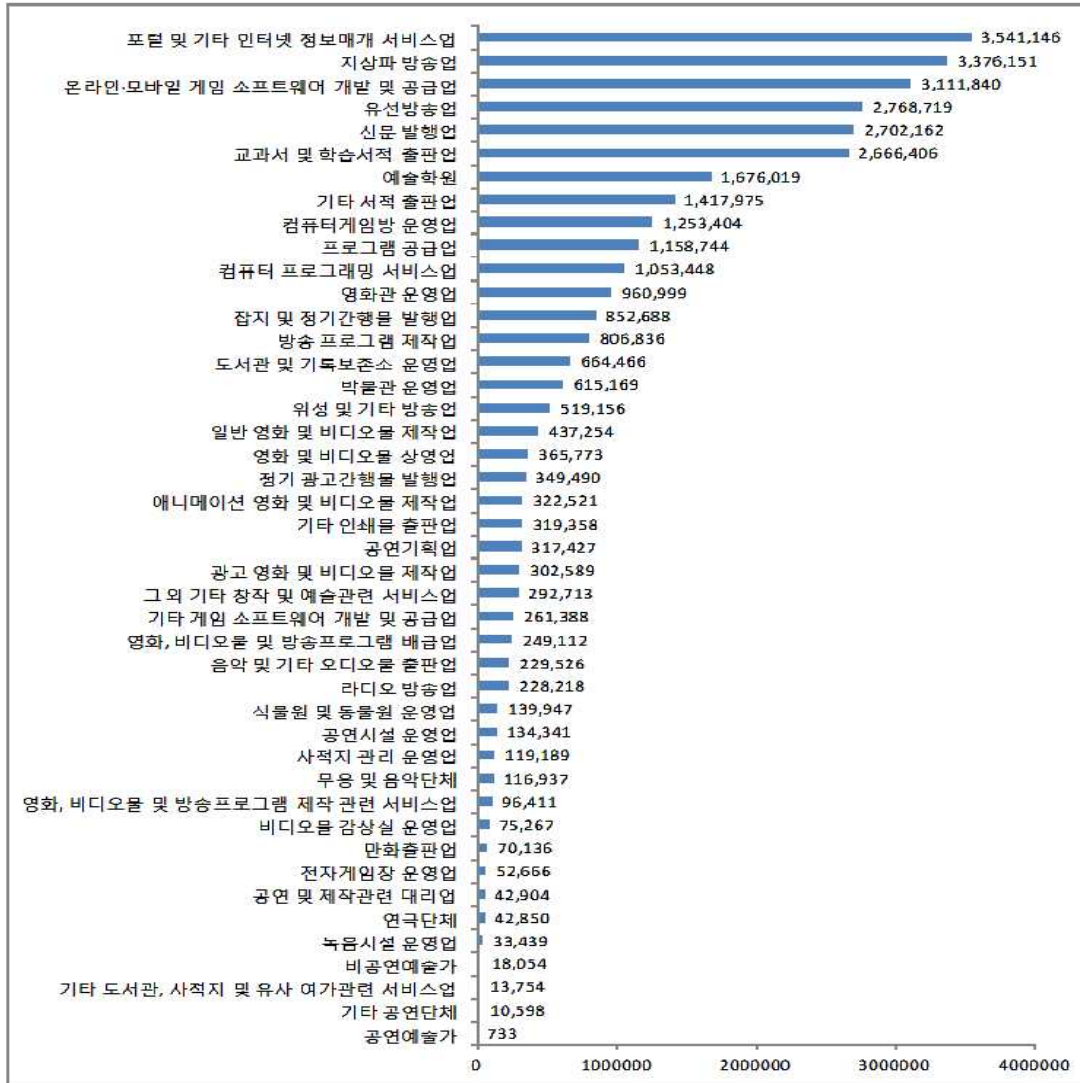
및 축제	기타 공연단체	R90123	7,044	9,768	10,598
	공연예술가	R90131	693	1,180	733
	공연기획업	R90191	178,943	253,803	317,427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R90192	23,040	34,694	42,904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R90199	272,010	294,353	292,713
	공연시설 운영업	R90110	93,965	471,559	134,341
	소계		673,748	1,194,543	958,503
	비율		2.4	3.5	2.8
시각예 술 및 공예	비공연예술가	R90132	17,309	18,497	18,054
	소계		17,309	18,497	18,054
	비율		0.1	0.1	0.1
도서 및 출판	교과서 및 학습서적 출판업	J58111	2,405,190	2,282,810	2,666,406
	만화출판업	J58112	84,789	71,913	70,136
	기타 서적 출판업	J58119	1,475,698	1,994,389	1,417,975
	신문 발행업	J58121	2,808,282	2,673,872	2,702,162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J58122	1,121,753	1,024,883	852,688
	정기 광고간행물 발행업	J58123	461,633	362,302	349,490
	기타 인쇄물 출판업	J58190	302,179	335,419	319,358
	소계		8,659,524	8,745,588	8,378,215
	비율		30.4	25.6	24.8
시청각 및 상호 작용적 미디어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J59111	537,521	426,316	437,254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J59112	328,752	296,642	322,521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J59113	459,056	288,373	302,589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J59114	767,729	852,658	806,836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J59120	90,434	105,988	96,41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J59201	151,861	191,096	229,526
	녹음시설 운영업	J59202	31,757	39,056	33,439
	라디오 방송업	J60100	254,535	256,816	228,218
	지상파 방송업	J60210	3,352,043	3,467,352	3,376,151
	프로그램 공급업	J60221	678,166	899,143	1,158,744
	유선방송업	J60222	2,406,451	2,791,093	2,768,719
	위성 및 기타 방송업	J60229	535,662	469,190	519,156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J59130	253,190	253,190	249,112
	영화관 운영업	J59141	1,002,600	1,002,600	960,999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J59142	78,587	78,587	75,267
	영화 및 비디오물 상영업	J59140	69,163	1,036,266	365,773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J63120	1,965,849	3,041,522	3,541,146
	소계		12,963,356	15,495,888	15,471,861
	비율		45.4	45.4	45.8
게임	온라인·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8211	1,430,915	2,393,035	3,111,840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8219	246,751	329,214	261,388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J62010	44,861	1,338,095	1,053,448
	전자게임장 운영업	R91221	86,190	63,014	52,666
	컴퓨터게임방 운영업	R91222	1,438,974	1,369,652	1,253,404
	소계		3,247,691	5,493,010	5,732,746
	비율		11.4	16.1	17.0
기타	문화 및 관광행정	O84212	-	-	-
	예술학원	P85620	1,738,648	1,755,581	1,676,019
	소계		1,738,648	1,755,581	1,676,019
	비율		6.1	5.1	5.0
총계(서비스업 조사 매출액)			28,528,157	34,117,888	33,787,923

자료 : 서비스업조사(통계청). 각년도 자료

주1) 매출액은 사업체가 지난 1년간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총수입을 의미함

[그림 4.4.1.1] 서비스업종에 해당하는 문화예술사업체의 매출액(2007-2009년)

(단위: 백만원)



-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조사』에 따르면 해당 업종에 해당하는 문화예술분야 사업체의 매출액은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매출액이 4조6천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이 5,354억 원, 시각디자인, 제품디자인, 인테리어 디자인업 등이 약 6천억원 으로 높은 매출액을 기록함

[표 4.4.1.2] 전문과학 기술 서비스업종 문화예술사업체 매출액 (2007-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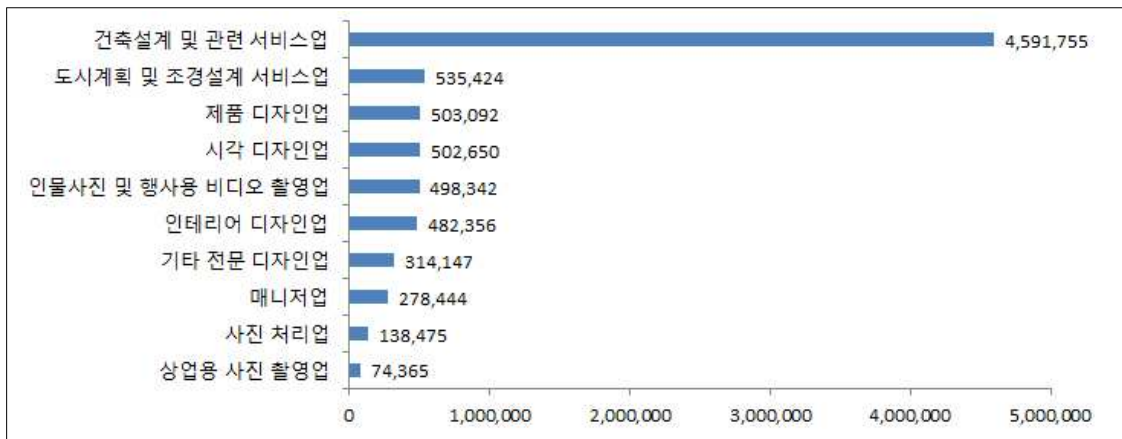
(단위: 백만 원)

한국산업분류		코드	2007	2008	2009
시각예술 및 공예	인물사진 및 행사용 비디오 촬영업	M73301	497,042	534,603	498,342
	상업용 사진 촬영업	M73302	74,842	80,692	74,365
	사진 처리업	M73303	178,223	139,965	138,475
	인테리어 디자인업	M73201	320,173	451,997	482,356

	제품 디자인업	M73202	314,036	448,372	503,092
	시각 디자인업	M73203	368,253	547,960	502,650
	기타 전문 디자인업	M73209	319,772	356,268	314,147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M72111	4,225,871	4,987,897	4,591,755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M72112	338,833	376,301	535,424
	매니저업	M73901	159,603	243,846	278,444

자료 :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조사(통계청). 각년도자료

[그림 4.4.1.2] 전문과학 기술 서비스업중 문화예술사업체 매출액 (2007-2009) (단위: 백만 원)



- 『광업 제조업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 출하액이 6,250억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전자악기 제조업(821억원), 영상게임기 제조업(494억원), 기타악기 제조업(430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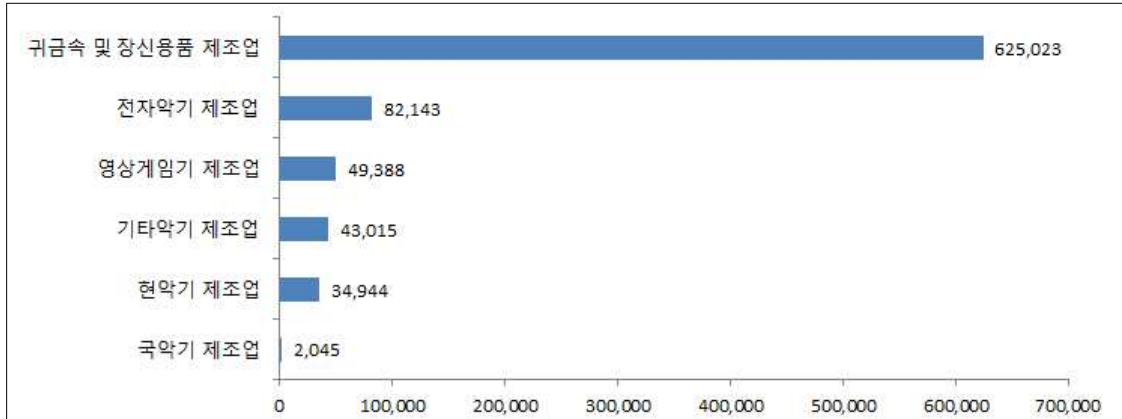
[표 4.4.1.3] 광업 제조업 문화예술사업체 출하액 (2007-2009) (단위: 백만 원)

FCS 문화영역	한국산업분류	코드	2007	2008	2009
시각예술 및 공예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	C33110	531,367	639,399	625,023
게임	영상게임기 제조업	C33402	28,658	25,053	49,388
기타	피아노 제조업	C33201	46,361
	현악기 제조업	C33202	54,033	34,944	34,944
	전자악기 제조업	C33203	95,847	82,143	82,143
	국악기 제조업	C33204	2,064	2,045	2,045
	기타악기 제조업	C33205	44,290	43,015	43,015

자료 : 광업 제조업 조사(통계청) 각년도자료

주1) 출하액이란 1년간의 제품출하액, 부산물·폐품판매액, 임가공(수탁제조) 수입액 및 수리수입액의 합계를 말하며 이 기간에 발생한 출하, 수탁제조 및 수리수입액에 대한 미수금을 포함함

[그림 4.4.1.3] 광업 제조업 문화예술사업체 출하액 (2007-2009) (단위: 백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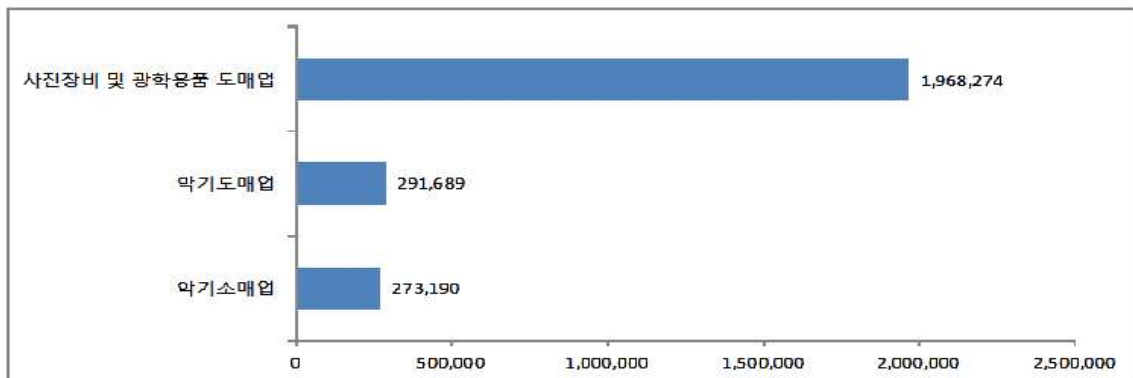
- 『도소매업 조사』에 따르면 사진 장비 및 광학용품 도매업의 매출액이 1조9682억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악기도매업과 악기소매업이 그 뒤를 이음

[표 4.4.1.4] 도소매업 문화예술사업체(10인 이상) 매출액 (2007-2009) (단위: 백만 원)

FCS 문화영역	한국산업분류	코드	2007	2008	2009
기타	악기소매업	G47593	171,676	213,399	273,190
	악기도매업	G46462	205,929	249,819	291,689
	사진장비 및 광학용품 도매업	G46493	1,485,030	1,707,649	1,968,274

자료 : 도소매업 조사(통계청), 각년도자료

[그림 4.4.1.4] 도소매업 문화예술사업체(10인 이상) 매출액 (2007-2009) (단위: 백만 원)



- 한편 『2010 콘텐츠산업백서』는 문화콘텐츠산업 매출액에 대한 통계자료를 제시하고 있음
- 동 자료의 경우 공연예술 관련 사업체의 매출액이 포함되지 않아 문화예술분야 사업체를 전부 포괄하고 못하며, 본 연구에서 설정한 문화예술 영역을 벗어나는 사업체들이 다수 포함되어 일대일로 비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나, 문화콘텐츠산업의 전체 규모를 파악하는 데 함께 참고할 수 있음

- 『2010 콘텐츠산업백서』에 따르면 문화콘텐츠산업의 총 매출액은 2005년 57조원에서 2009년 69억원으로 연평균 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09년 기준으로, 총 매출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출판 분야(29.9%)로 나타났으며, 방송분야가 17.3%, 광고분야가 13.3%, 게임 분야가 9.5%를 차지함

[표 4.4.1.5] 문화콘텐츠산업 매출액

(단위: 십억 원,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비율	연평균 증감률
출판	19,392	19,879	21,596	21,053	20,609	29.9	1.5
만화	436	730	762	723	739	1.1	14.1
음악	1,790	2,401	2,358	2,602	2,741	4	11.2
게임	8,680	7,449	5,144	5,605	6,581	9.5	-6.7
영화	3,282	3,623	3,183	2,886	3,307	4.8	0.2
애니메이션	234	289	311	405	419	0.6	15.7
방송	8,635	9,720	10,534	11,686	12,769	17.3	10.3
독립제작사	-	-	-	727	796	1.1	-
광고	8,418	9,118	9,435	9,312	9,187	13.3	2.2
캐릭터	2,076	4,551	5,116	5,099	5,358	7.8	26.8
지식정보	3,041	3,468	4,297	4,777	5,255	7.6	14.7
콘텐츠솔루션	1,275	1,542	1,680	1,866	2,036	3	12.4
합계	57,259	62,769	64,415	66,013	69,000	100	4.8

자료 : 콘텐츠 산업백서 (문화체육관광부) 각년도자료

주1) 영화산업은 극장상영, 제작, 배급, 수입, 제작지원, 홍보 및 마케팅, DVD/VHS 제작 및 대여, 온라인 상영, 투자조합

주2) 음악산업은 노래연습장, 온라인 음악 유통업, 음악 제작업, 음악 공연업, 음반 도소매업, 음반복제 및 배급업, 음악 및 오디오물 출판업

주3) 만화산업은 만화출판업, 만화도소매업, 만화책 임대업, 온라인 만화 제작 유통업

[그림 4.4.1.5] 문화콘텐츠산업 매출액 현황

(단위: 십억 원)



4.4.2 공연예술상품 티켓판매액

- 한편 공연예술상품 관련 매출액은 현재 국내 공연 관련 가장 큰 티켓 예매사이트인 (주)인터파크 티켓의 공연티켓 판매액을 통해 파악할 수 있음
 - 다만, (주)인터파크 공연 티켓 판매액은 웹, 전화, 현장 예매를 통한 공연 티켓 판매액을 모두 포함하나 예매를 통하지 않은 현장에서의 티켓 구매액 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티켓 링크 등과 같은 다른 예매 사이트를 이용한 이들의 티켓 판매액 역시 포함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실제 공연예술상품 티켓판매액은 여기에 제시된 것보다는 클 것으로 판단됨
- 『인터파크 티켓 공연 판매액』에 따르면, 공연예술상품의 티켓 판매액은 2006년 1,071억원에서 2010년 2,155억원으로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평균 19.1%의 성장률을 보임
- 공연예술 장르별로 살펴보면 티켓 판매액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장르는 뮤지컬로 2006년 510억원(47.7%)에서 2010년 945억원(43.9%)으로 연평균 16.6% 증가하였으며, 콘서트 장르 역시 2006년 436억원(40.7%)에서 2010년 832억원(38.6%)으로 연평균 17.5% 증가함
- 한편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연극 티켓 판매액 역시 2006년 83억원에서 2010년 230억원으로 연평균 29.2% 증가하였으며, 클래식 공연 티켓 판매액 역시 2006년 42억원에서 2010년 105억원으로 연평균 26.1%씩 증가함
- 무용 및 전통예술상품의 티켓 판매액은 2010년 기준으로 42억원으로 가장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2006년에 비하면 크게 성장하여 전체적인 공연예술 시장 규모는 점차 확대(연평균 19.1%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4.4.2] 공연상품 티켓 판매액

(단위: 백만 원, %)

	2006		2007		2008		2009		2010년(추정치)		연평균증감률
	판매액	비율	판매액	비율	판매액	비율	판매액	비율	판매액	비율	
합계	107,115	100	143,454	100	195,766	100	171,263	100	215,510	100.0	19.1
콘서트	43,584	40.7	46,737	32.6	63,443	32.4	60,961	35.6	83,200	38.6	17.5
뮤지컬	51,096	47.7	80,317	56.0	100,539	51.4	75,607	44.1	94,530	43.9	16.6
연극	8,261	7.7	10,715	7.5	17,474	8.9	20,232	11.8	23,010	10.7	29.2
클래식	4,173	3.9	4,626	3.2	10,562	5.4	11,297	6.6	10,540	4.9	26.1
무용/전통	*		1,059	0.7	3,748	1.9	3,166	1.8	4,230	2.0	*

자료 : 2010 인터파크 공연결산(인터파크 티켓, 2010)

주1) 콘서트는 대중예술 및 음악 페스티벌 포함

주2) * : 2006년의 경우 무용/전통 공연은 클래식 포함하여 집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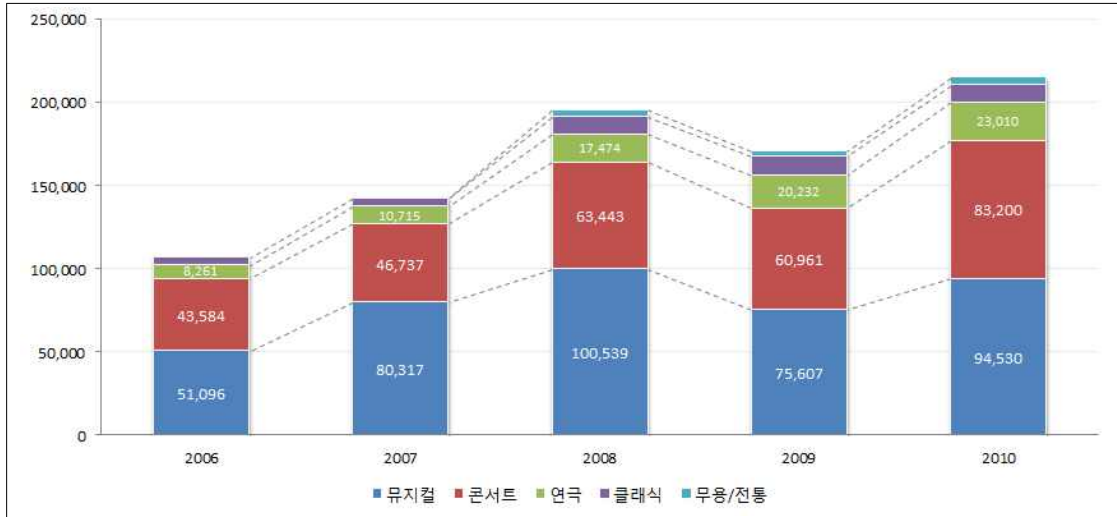
주3) 각 연도 1월 1일~12월 31일 (2010년은 추정치)

주4) 2010년 판매금액 중 12월 판매분은 12월 20일까지 인터파크NT 판매공연과 유료티켓판매매수,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현 판매추이를 고려하여 시뮬레이션한 추정치임(오차범위 5% 내)

주5) 현장 티켓 판매분 및 제휴사 연동 판매분을 제외한 순수 인터파크 웹 판매분을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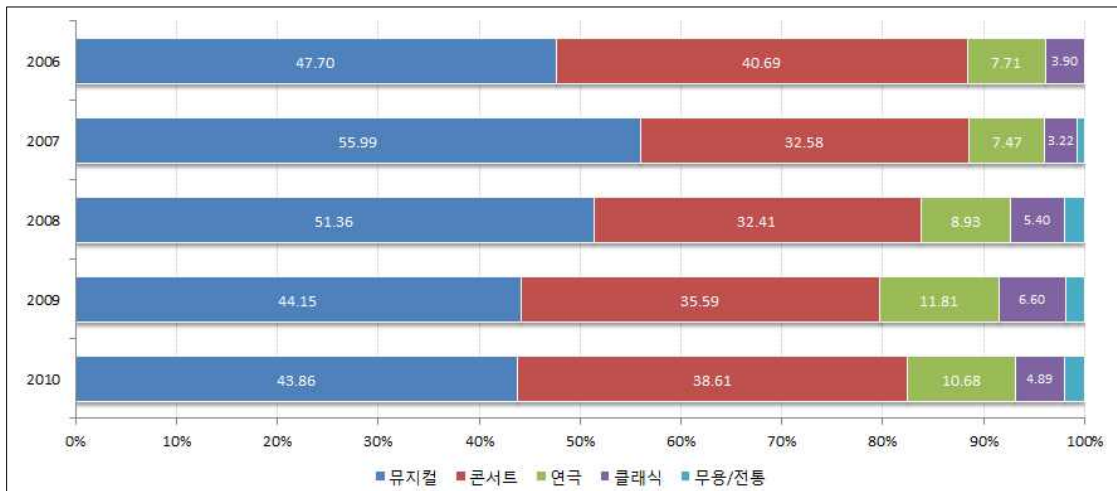
[그림 4.4.2.1] 공연예술상품 티켓 판매액(2006-2010)

(단위: 백만 원)



[그림 4.4.2.2] 공연예술상품 티켓 판매액(2006-2010)

(단위: 백만 원)



4.4.3. 문화예술사업체 비용

- 문화예술사업체의 비용 역시 해당 사업체가 속한 분야에 따라 『서비스업 조사』,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조사』, 『광업·제조업조사』, 『도소매업 조사』를 통해 파악할 수 있음
- 먼저 『서비스업 조사』에 따르면 서비스업종에 해당하는 문화예술사업체의 비용은 크게 인건비, 임차료, 기타 경비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2009년 기준 서비스업종에 해당하는 문화예술사업체의 영업비용은 약 29조 9천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인건비가 7조 7천억원으로 25.8%, 임차료가 1조2천억원으로 4%, 기타 경비가 21조원으로 70.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매출액에서 영업비용을 제한 이익은 약 4조원 가량으로 나타남
- 한편 영업비용이 매출액보다 높게 나타나는 업종은 도서관 및 기록보존소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공연기획업, 일반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무용 및 음악단체, 기타 공연단체,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등으로 나타남
- 한편 2008년의 경우 30조 6천억원이었던 영업비용은 2009년에는 29조 9천억원으로 다소 감소했으며, 인건비 역시 82조 6천억원에서 77조 천억원으로 감소함
- 영업비용 대비 인건비의 비율은 2008년 27%에서 2009년 25.8%로 감소함

[표 4.4.3.1] 서비스업종에 해당하는 문화예술사업체의 비용(2009년 기준) (단위: 백만 원)

한국표준산업분류	매출액	영업비용				매출액- 영업비용
			인건비	임차료	기타경비	
합계	34,043,686	29,901,346	7,702,455	1,190,297	21,008,593	4,142,340
비율	-	100	25.8	4.0	70.3	-
도서관 및 기록보존소 운영업	664,466	665,185	307,202	2,498	355,484	-719
박물관 운영업	615,169	603,484	201,559	9,128	392,798	11,685
사적지 관리 운영업	119,189	118,010	57,829	3,489	56,691	1,179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139,947	124,635	51,492	6,988	66,155	15,312
기타도서관,사적지및유사여가관련서비스업	13,754	10,654	4,855	78	5,722	3,100
연극단체	42,850	36,990	13,359	1,969	21,662	5,860
무용 및 음악단체	116,937	117,821	67,780	2,176	47,865	-884
기타 공연단체	10,598	11,169	5,004	598	5,566	-571
공연예술가	733	537	97	269	172	196
공연기획업	317,427	328,937	61,456	31,802	235,680	-11,510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42,904	43,282	8,869	1,056	33,357	-378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292,713	273,723	64,752	11,455	197,516	18,990
공연시설 운영업	134,341	158,129	56,638	6,636	94,855	-23,788
비공연예술가	18,054	12,820	5,654	2,023	5,144	5,234
교과서 및 학습서적 출판업	2,666,406	2,333,919	498,198	41,465	1,794,256	332,487
만화출판업	70,136	67,087	11,784	1,063	54,240	3,049
기타 서적 출판업	1,417,975	1,261,438	276,612	41,645	943,181	156,537
신문 발행업	2,702,162	2,699,498	708,512	57,208	1,933,777	2,664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852,688	832,115	256,221	20,916	554,979	20,573
정기 광고간행물 발행업	349,490	296,503	94,571	2,919	199,013	52,987
기타 인쇄물 출판업	319,358	307,792	94,451	4,857	208,484	11,566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437,254	441,674	59,179	10,441	372,054	-4,420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322,521	297,301	96,969	8,342	191,990	25,220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302,589	267,063	88,932	13,933	164,196	35,526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806,836	807,282	205,561	22,078	579,643	-446
영화,비디오물및방송프로그램제작관련서비스업	96,411	81,178	24,723	1,909	54,546	15,233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229,526	202,862	25,900	5,816	171,145	26,664
녹음시설 운영업	33,439	28,890	11,657	3,405	13,828	4,549
라디오 방송업	228,218	218,453	83,746	7,535	127,172	9,765
지상파 방송업	3,376,151	3,233,475	958,919	73,229	2,201,327	142,676
프로그램 공급업	1,158,744	1,086,722	180,432	32,700	873,589	72,022
유선방송업	2,768,719	2,386,821	322,372	33,298	2,031,151	381,898
위성 및 기타 방송업	519,156	470,071	37,446	10,476	422,148	49,085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326,878	312,343	21,002	9,064	282,277	14,535
영화관 운영업	1,153,155	997,675	151,382	70,182	776,110	155,480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61,108	40,941	7,551	13,628	19,763	20,167
영화 및 비디오물 상영업	365,773	324,221	49,624	39,218	235,380	41,552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3,541,146	2,882,429	720,073	61,876	2,100,480	658,717
온라인·모바일게임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3,111,840	2,255,478	767,184	46,504	1,441,790	856,362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61,388	274,152	59,222	5,462	209,469	-12,764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1,053,448	1,072,862	386,251	25,345	661,267	-19,414
전자게임장 운영업	52,666	34,650	4,985	9,322	20,342	18,016
컴퓨터게임방 운영업	1,253,404	842,188	207,561	194,699	439,928	411,216
문화 및 관광행정	-	-	-	-	-	-
예술학원	1,676,019	1,038,887	384,889	241,597	412,401	637,1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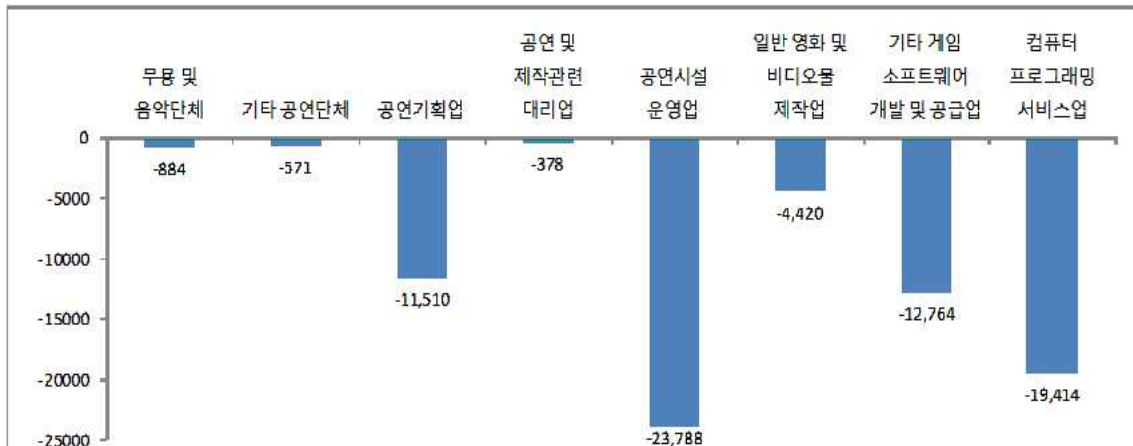
자료 : 서비스업 조사 - 시도/ 산업별 총괄데이터(통계청, 2009)

주1) 영업비용은 상품구입비, 재료비 등 매출액 창출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과 상품판매활동 및 사업체의 관리·유지에 지출된 비용으로 인건비, 임차료, 제세공과금, 감각상각비 등을 말함.

주2) 인건비는 조사대상기간 중에 유급임원, 상용, 임시 및 일일종사자에게 지급된 급여 총액을 말하여, 상여금, 각종 수당, 퇴직금 등을 포함함.

주3) 임차료는 사업체가 사업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건물, 토지, 기계장비 및 장치등에 대하여 지난 1년간 지불한 비용을 말함

[그림 4.4.3.1] 서비스업종 문화예술사업체 중 “매출액-영업비용”이 마이너스로 나타나는 업종 (2009년 기준) (단위: 백만원)



[표 4.4.3.2] 서비스업종 문화예술사업체 영업비용 및 인건비 (2008-2009) (단위: 백만 원)

한국산업분류	2008		2009	
	영업비용	인건비	영업비용	인건비
합계	30,594,511	8,257,535	29,901,346	7,709,621
비율	100	27.0	100	25.8
도서관 및 기록보존소 운영업	605,440	285,038	665,185	307,202
박물관 운영업	539,220	178,440	603,484	201,559
사적지 관리 운영업	99,138	54,572	118,010	57,829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135,477	51,839	124,635	51,492
기타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12,999	5,528	10,654	4,855
연극단체	23,839	11,851	36,990	13,359
무용 및 음악단체	94,091	62,165	117,821	67,780
기타 공연단체	8,151	4,978	11,169	5,004
공연예술가	917	260	537	97

공연기획업	252,976	51,449	328,937	61,456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30,799	6,219	43,282	8,869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308,844	75,672	273,723	64,752
공연시설 운영업	465,136	178,106	158,129	56,638
비공연예술가	10,902	3,264	12,820	12,820
교과서 및 학습서적 출판업	2,074,301	458,813	2,333,919	498,198
만화출판업	68,725	10,896	67,087	11,784
기타 서적 출판업	1,688,190	347,728	1,261,438	276,612
신문 발행업	2,730,931	631,082	2,699,498	708,512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959,389	283,525	832,115	256,221
정기 광고간행물 발행업	319,955	96,438	296,503	94,571
기타 인쇄물 출판업	281,511	75,974	307,792	94,451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435,552	53,095	441,674	59,179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325,772	70,531	297,301	96,969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295,039	67,884	267,063	88,932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907,985	186,240	807,282	205,561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92,530	29,803	81,178	24,723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181,138	26,574	202,862	25,900
녹음시설 운영업	30,039	9,626	28,890	11,657
라디오 방송업	251,596	95,053	218,453	83,746
지상파 방송업	3,593,335	992,765	3,233,475	958,919
프로그램 공급업	852,037	156,532	1,086,722	180,432
유선방송업	2,411,427	307,959	2,386,821	322,372
위성 및 기타 방송업	438,086	32,298	470,071	37,446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277,948	17,997	312,343	21,002
영화관 운영업	837,054	133,154	997,675	151,382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44,778	7,711	40,941	7,551
영화 및 비디오물 상영업	881,832	140,865	324,221	49,624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2,502,822	594,246	2,882,429	720,073
온라인·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926,325	606,114	2,255,478	767,184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66,271	84,289	274,152	59,222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1,338,095	1,126,472	1,072,862	386,251
전자게임장 운영업	38,717	8,237	34,650	4,985
컴퓨터게임방 운영업	903,181	227,604	842,188	207,561
문화 및 관광행정	-	-	-	-
예술학원	1,052,021	408,649	1,038,887	384,889

자료 : 서비스업 조사(통계청) 각년도자료

-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조사』에 따르면, 해당 업종에 해당하는 문화예술사업체의 사업비용은 2008년 6조 8천억 원에서 2009년 7조 2천억 원으로 증가함
- 2009년 기준으로 사업비용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75.7%로 나타났으며, (매출액-사업비용)은 7,282억원으로 나타남
 - (매출액-사업비용)이 가장 크게 나타난 업종은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비디오 촬영업으로 나타남
 - 서비스업종과 달리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종 문화예술사업체의 경우 (매출액-사업비용)이 마이너스로 나타난 업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4.4.3.3]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문화예술사업체 사업비용(2008-2009)

(단위: 백만 원)

한국산업분류	코드	2008	2009		
		사업비용	사업비용	인건비	매출액-사업비용
합계		6,841,469	7,190,850	2,721,280	728,200
비율		100	100	75.7	-
인물사진 및 행사용 비디오 촬영업	M73301	340,065	364,124	108,455	134,218
상업용 사진 촬영업	M73302	61,687	63,219	19,513	11,146
사진 처리업	M73303	100,478	117,871	27,329	20,604
인테리어 디자인업	M73201	337,705	445,745	100,333	36,611
제품 디자인업	M73202	375,094	455,418	117,904	47,674
시각 디자인업	M73203	456,697	429,881	138,212	72,769
기타 전문 디자인업	M73209	235,451	288,409	63,676	25,738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M72111	4,342,445	4,264,574	1,911,189	327,181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M72112	362,538	497,442	196,118	37,982
매니저업	M73901	229,309	264,167	38,551	14,277

자료 :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조사(통계청) 각년도자료

주1) 사업비용은 매출액 창출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과 사업체의 관리유지에 지출된 비용으로 인건비, 임차료, 제세공과금, 감가상각비 등을 의미함

주2) 인건비는 지난 1년간 유급임원, 상용, 임시 및 일용종사자에게 지급한 임금, 급료, 상여금, 각종 수당, 퇴직급여 총당금 전입액 및 복리후생비를 모두 합계한 세액 공제 전 총액을 말하며, 현물로 지급한 경우 시가로 환산하여 포함

주3) 임차료는 지난 1년간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건물, 대지, 기계장치 등을 임차하고 지불한 지급임차료 총액

- 『광업·제조업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업종에 해당하는 문화예술사업체의 주요생산비는 2008년 5,884억 원에서 2009년에는 5,640억 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009년 기준으로, 주요 생산비에서 급여액이 차지한 비중은 13.7%로 나타났으며, (매출액-주요생산비)는 2,726억 원으로 나타남
 - (매출액-주요생산비)가 가장 크게 나타난 업종은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으로 나타났고, 전자악기 제조업이 그 뒤를 이음
 - (매출액-주요생산비)가 마이너스로 나타난 업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4.4.3.4] 광업 제조업 문화예술사업체 주요 생산비 및 급여액 (2008-2009)

(단위: 백만 원)

한국산업분류	코드	2008	2009		
		주요생산비	주요생산비	급여액	매출액-주요생산비
합계		588,421	563,971	77,455	272,587
비율		100	100	13.7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	C33110	462,799	441,660	42,457	183,363
영상게임기 제조업	C33402	18,671	26,660	5,167	22,728
피아노 제조업	C33201	0
현악기 제조업	C33202	19,757	16,286	7,212	18,658
전자악기 제조업	C33203	64,109	47,667	16,862	34,476
국악기 제조업	C33204	...	1,347	368	698
기타악기 제조업	C33205	23,085	30,351	5,389	12,664

자료 : 광업 제조업 조사(통계청) 각년도자료(10인 이상 사업체 대상 조사결과)

주1) ...: 알 수 없는 수치임. 광업 제조업 조사에 수치가 기재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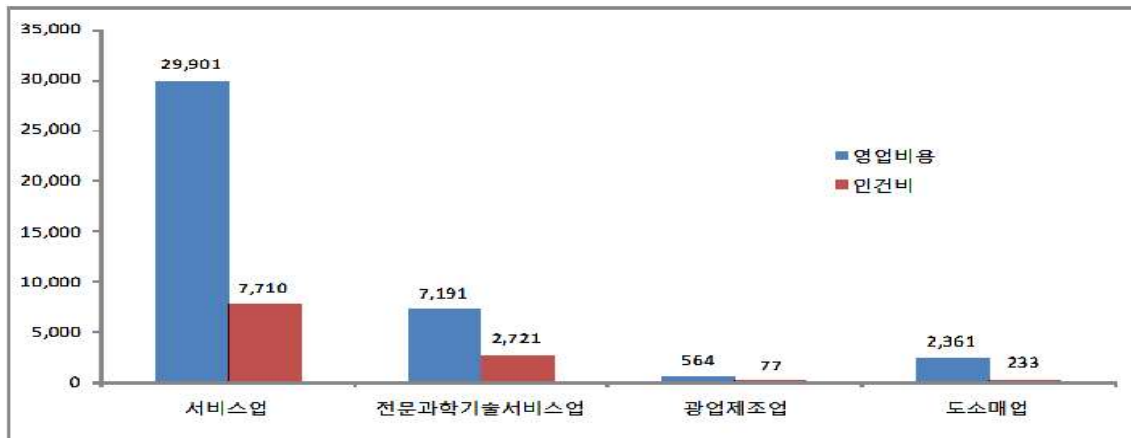
주2) 주요생산비는 1년 동안에 생산을 위하여 사용(소비)된 제 비용인 원재료비, 연료비, 전력비, 용수비, 외주가공비, 수선비를 포함함

[표 4.4.3.5] 도소매업 문화예술사업체(10인 이상) 주요 생산비 및 급여액 (2008-2009) (단위:백만 원)

한국산업분류	코드	2008	2009		
		영업비용	영업비용	인건비	매출액-영업비용
합계		2,028,074	2,361,063	233,020	172,090
비율		100	100	9.9	-
악기소매업	G47593	179,658	244,096	13,019	29,094
악기도매업	G46462	232,482	272,674	22,254	19,015
사진장비 및 광학용품 도매업	G46493	1,615,934	1,844,293	197,747	123,981

자료 : 도소매업 조사 (통계청) 각년도자료

[그림 4.4.3.2] 문화예술사업체 영업(사업)비용과 인건비(2009년 기준) (단위: 십억원)



4.5 문화예술상품 수출액과 수입액

- 문화예술의 국제적 경쟁력을 가늠해볼 수 있는 문화예술상품의 수출액과 수입액은 현재로서는 『콘텐츠산업통계』를 통해 파악할 수 있음
 - 그러나 동 자료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문화예술분야와는 다소 그 범위가 다르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음
- 『2010 콘텐츠산업통계』 자료에 따르면 문화콘텐츠상품 수출액은 2005년 13억 달러에서 2009년 26억 달러로 연평균 18.9%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분야별로는 게임콘텐츠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 기간에 걸쳐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2009년 기준 47.6%) 지식정보콘텐츠(13.3%), 출판 콘텐츠(9.6%), 방송콘텐츠(7.1%)의 수출액 비중이 높게 나타남

- 한편 문화콘텐츠상품 수입액은 2005년 30억 달러에서 2007년에는 36억 달러까지 증가했으나 2008년부터 감소하여 2009년에는 18억 달러로 나타나 수출액이 수입액을 넘어 서게 됨
- 분야별로는 2009년 기준으로 광고콘텐츠(34.5%)의 수입액 비중이 크게 나타났으며, 출판 콘텐츠(19.7%), 게임콘텐츠(18.8%), 방송콘텐츠(10.3%), 캐릭터 콘텐츠(11.1%)의 수입액 비중이 높게 나타남

[표 4.5] 문화콘텐츠상품 수입액·수출액

(단위: 천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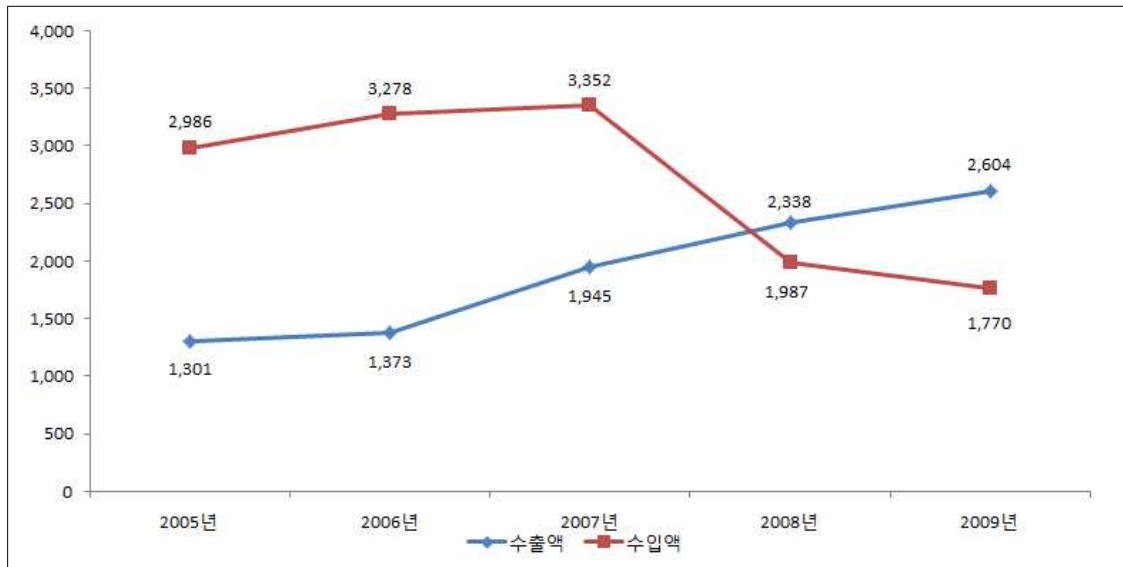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비율	연평균 증감률
수출액	합계	1,301,136	1,373,158	1,944,631	2,337,603	2,604,232	100	18.9
	출판	191,346	184,867	213,100	260,010	250,764	9.6	7
	만화	3,268	3,917	3,986	4,135	4,209	0.2	6.5
	음악	22,278	16,666	13,885	16,468	31,269	1.2	8.8
	게임	564,660	671,994	781,004	1,093,865	1,240,856	47.6	21.8
	영화	75,995	24,515	24,396	21,037	14,122	0.5	-34.3
	애니메이션	78,429	66,834	72,770	80,583	89,651	3.4	3.4
	방송	121,763	133,917	150,953	171,348	184,577	7.1	11
	독립제작사	-	-	-	11,228	14,349	0.6	-
	광고	9,359	75,981	93,859	14,212	93,152	3.6	77.6
	캐릭터	163,666	189,451	202,889	228,250	236,521	9.1	9.6
	지식정보	34,764	5,016	275,111	339,949	345,693	13.3	77.6
	콘텐츠솔루션	35,608	-	112,678	107,746	113,418	4.4	33.6
수입액	합계	2,985,891	3,278,288	3,351,761	1,986,970	1,769,531	100	-12.3
	출판	231,741	307,184	354,404	368,536	348,336	19.7	10.7
	만화	900	3,965	5,901	5,937	5,492	0.3	57.2
	음악	8,306	8,347	9,831	11,484	11,936	0.7	9.5
	게임	232,923	207,556	389,549	386,920	332,250	18.8	9.3
	영화	46,830	45,813	67,527	78,775	73,646	4.2	12
	애니메이션	5,458	5,095	8,148	6,132	7,397	0.4	7.9
	방송	43,177	72,563	64,939	149,396	183,011	10.3	43.5
	독립제작사	-	-	-	71,135	61,277	3.5	-
	광고	2,292,762	2,415,540	2,225,807	780,696	610,277	34.5	-28.2
	캐릭터	123,434	211,909	225,257	198,679	196,367	11.1	12.3
	지식정보	360	316	398	415	432	0	4.7
	콘텐츠솔루션	-	-	-	-	387	0	-

자료 : 2010 콘텐츠산업통계(문화체육관광부, 2010)

주1) 비율 항목은 2009년도 합계 대비 각 장르의 수출·수입액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음

[그림 4.5.1] 문화콘텐츠상품의 수입액과 수출액(2005~2009년)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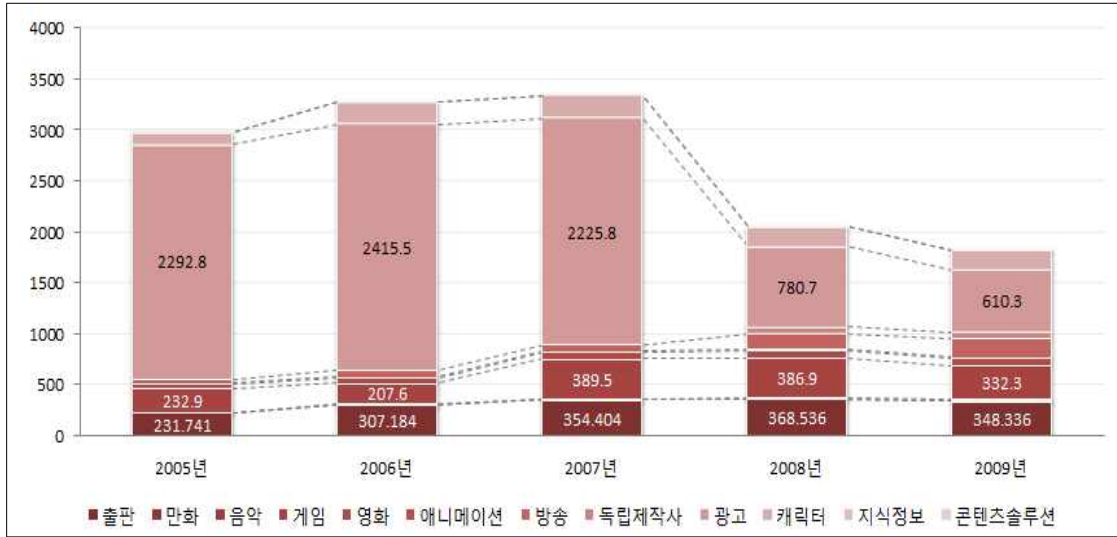
[그림 4.5.2] 2009년 문화콘텐츠상품 장르별 수출액

(단위: 백만 달러)



[그림 4.5.3] 2009년 문화콘텐츠상품 장르별 수입액

(단위: 백만 달러)



4.6. 해외문화원 방문자 수

- 해외문화홍보원은 한국을 해외에 알리고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1971년 출범하여 국제문화교류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공공기관으로, 2011년 현재 일본,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호주, 필리핀, 미국, 아르헨티나, 영국, 독일, 러시아, 프랑스, 폴란드, 터키, 카자흐스탄, 나이지리아 등 16개국에 20여개 한국문화원을 설립하여 주재국 문화수요를 고려한 한국문화 강좌, 전통공연, 전시행사, 한국어 보급, 홍보자료 발간 및 배포, 한국영화제 개최, 도서관 등을 운영하고 있음
- 한국 문화예술의 위상과 국제경쟁력이 높아질수록 해외의 한국문화예술에 대한 관심도 커질 것이며, 이러한 관심은 해외에 있는 한국문화원의 방문자 수의 증가로 나타날 수 있음
- 해외문화홍보원 자체 조사자료에 따르면, 해외 문화원의 연간 방문자 수는 2009년 307,233명에서 2010년 290,671명으로 다소 감소했다가 2011년에는 다시 354,656명으로 급증함
 - 특히 2011년의 방문자 수는 7월 말까지의 자료라는 점에서 연말까지 집계한 방문자의 수는 이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보임
- 2011년 기준으로 중국(21.4%), 일본(18.8%), 미국(18.1%)에 있는 한국문화원 방문자 수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아르헨티나(11.2%), 프랑스(5.1%), 베트남(5.0%), 러시아(4.4%)문화원 방문객 비율이 그 뒤를 이음
 - 문화원별로는 2011년 기준 북경문화원, 아르헨티나 문화원, 동경 문화원, LA문화원, 상해문화원, 오사카 문화원의 방문자 수가 높게 나타남

- 한편 2009년에는 방문자 수가 많았던 영국문화원과 프랑스 문화원의 경우 2011년 방문자 수가 상당히 감소하였으며, 오사카, 독일, 베트남, 폴란드, 나이지리아, 카자흐스탄의 경우 꾸준히 방문객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4.6.1] 해외문화원별 연간 방문자 수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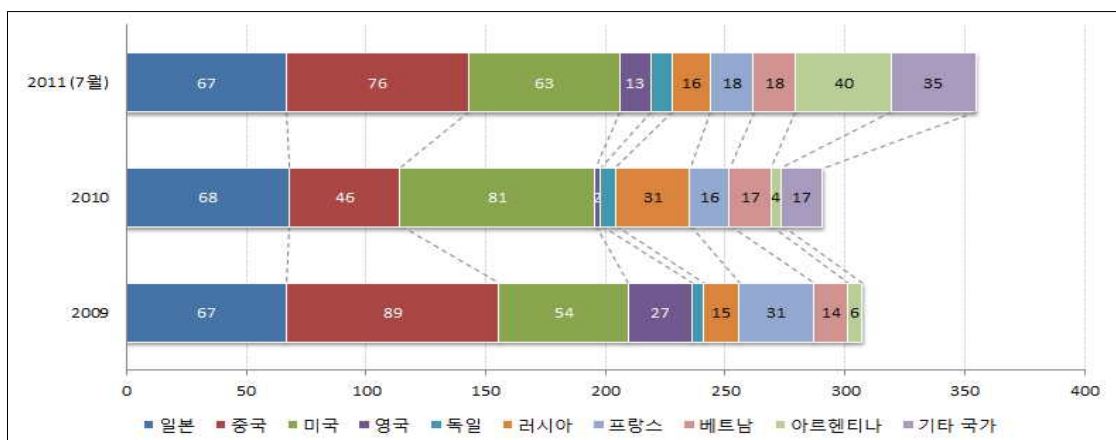
구분	2009		2010		2011 (7월까지)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합계	307,233	100.0	290,671	100.0	354,656	100.0
일본	66,711	21.8	67,948	23.3	66,681	18.8
동경	43,184	14.1	41,936	14.4	39,676	11.2
오사카	23,527	7.7	26,012	8.9	27,005	7.6
중국	88,942	28.9	46,415	15.9	76,137	21.4
북경	60,034	19.5	33,803	11.6	43,709	12.3
상해	28,908	9.4	12,612	4.3	32,428	9.1
미국	53,841	17.5	81,479	28.0	63,270	18.1
뉴욕	10,572	3.4	5,853	2.0	8,560	2.4
LA	43,269	14.1	30,745	10.6	36,462	10.3
워싱턴	-	-	44,881	15.4	18,248	5.1
아르헨티나	5,934	1.9	4,477	1.5	39,648	11.2
영국	27,078	8.8	2,058	0.7	12,950	3.7
독일	4,703	1.5	6,364	2.2	9,176	2.6
러시아	14,578	4.7	31,157	10.7	15,750	4.4
프랑스	31,335	10.2	16,334	5.6	17,939	5.1
베트남	14,111	4.6	17,369	6.0	17,717	5.0
폴란드	-	-	4,904	1.7	6,522	1.8
나이지리아	-	-	5,659	1.9	8,161	2.3
카자흐스탄	-	-	6,507	2.2	10,561	3.0
시드니	-	-	-	-	5,739	1.6
스페인	-	-	-	-	700	0.2
인도네시아	-	-	-	-	3,172	0.9
필리핀	-	-	-	-	533	0.2

자료 : 해외문화홍보원 내부자료

주) 2011년의 경우 7월까지의 합산 자료임

[그림 4.6.1] 연도별 해외문화원 방문자 수 현황(2009~2011.7)

(단위: 천명)



[그림 4.6.2] 연도별 해외문화원 방문자 수 현황(2009~2011.7)

(단위: %)



○ 한편 해외문화원별 연간 행사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5,531회에서 2010년 4,452회으로 감소했다가 2011년 7,672회으로 증가하여 행사 횟수와 방문자 수간에 정(+)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추정할 수 있음

- 전반적으로 '한국어 강좌'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2011년 기준으로 전체 행사에서 한국어강좌가 차지하는 비율은 73.7%에 달하며, 그 뒤를 문화강좌(17.5%), 공연행사(3.7%), 영화상영(3.3%), 전시회(1.9%)가 차지함

[표4.6.2] 해외문화원별 연간 행사 수

(단위: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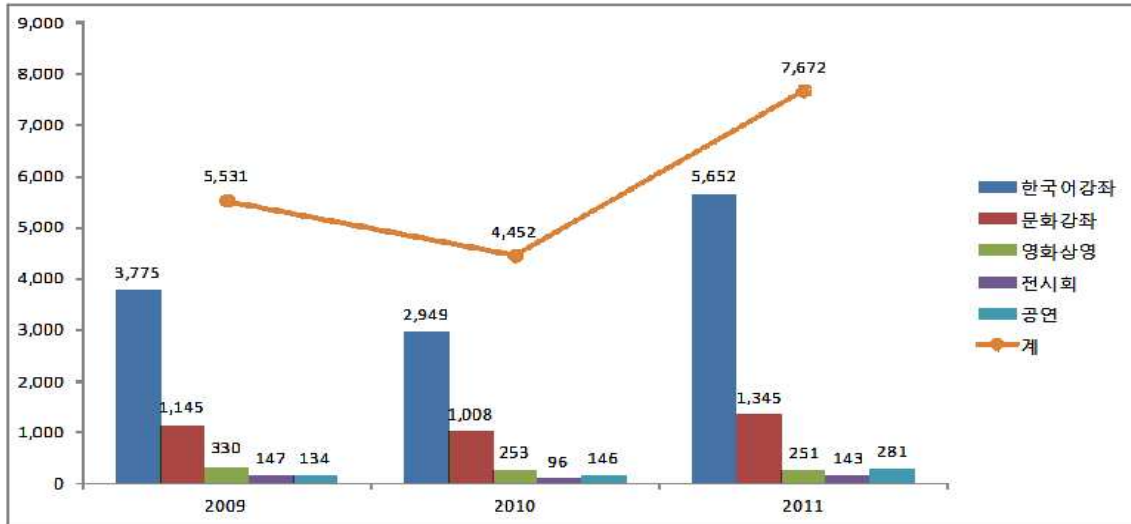
	한국어강좌			문화강좌			영화상영			전시회			공연		
	09	10	11	09	10	11	09	10	11	09	10	11	09	10	11
계	3,775	2,949	5,662	1,145	1,008	1,345	330	253	251	147	96	143	134	146	281
동경	400	273	238	162	118	88	25	8	16	17	19	16	41	50	39
오사카	864	833	1,135	142	224	255	18	13	14	9	5	4	15	14	13
북경	539	354	324	199	120	96	49	32	28	19	6	7	3	2	13
상해	650	319	723	161	43	6	6	0	1	22	10	6	20	7	12
베트남	471	423	329	43	69	70	40	34	16	2	1	6	5	15	21
뉴욕	0	0	0	36	14	0	17	14	13	11	4	6	6	6	9
LA	40	25	26	19	17	7	24	25	21	12	6	7	12	13	12
아르헨티나	34	29	19	80	24	0	65	32	27	8	8	5	4	1	0
영국	134	130	116	13	5	3	25	16	15	11	0	0	18	0	8
독일	158	127	119	66	65	174	11	5	6	6	8	7	4	4	16
러시아	125	135	270	89	77	57	28	25	6	10	4	22	6	1	35
프랑스	360	301	405	135	79	83	22	9	9	20	7	32	0	12	35
워싱턴	-	0	40	-	16	35	-	15	9	-	12	5	-	12	12
폴란드	-	0	1,024	-	49	180	-	10	8	-	3	3	-	4	27
나이지리아	-	0	84	-	66	176	-	0	18	-	2	1	-	2	11
카자흐스탄	-	0	605	-	22	88	-	15	30	-	1	6	-	3	2
시드니	-	-	12	-	-	18	-	-	12	-	-	1	-	-	4
스페인	-	-	0	-	-	0	-	-	0	-	-	3	-	-	1
인도네시아	-	-	108	-	-	0	-	-	2	-	-	4	-	-	11
필리핀	-	-	20	-	-	9	-	-	0	-	-	2	-	-	0

자료 : 해외문화홍보원 내부자료

주) 2011년의 경우 7월까지의 합산 자료임

[그림 4.6.3] 해외문화원별 연간 행사 수

(단위: 회)



4.7. 한국문화예술 인지도 및 선호도

- 현재로서는 한국문화예술에 대한 인지도나 선호도에 대해 외국인이나 내국인들을 대상으로 집계하고 있는 공식적인 통계조사는 없음
-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작성하고 있는 『외래관광객실태조사』를 통해 외국인들의 한국 문화예술에 대한 인지도나 선호도를 일부 파악할 수는 있음
 - 『외래관광객실태조사』는 한국을 방문 후 출국하는 외래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2010년 기준 11,995명을 표본으로 함
- 『외래관광객실태조사』에 따르면, 외국인들이 한국 방문을 선택한 이유로 '한국의 역사/문화유적'을 꼽은 외래 방문객의 비율은 2007년 22.9%에서 2008년 26.1%로 증가했다가 2009년 다시 20.8%로 감소함
 - 방문 선택 이유로 가장 많이 꼽힌 요인은 2009년 기준 쇼핑(56.5%), 음식/미식탐방(42.1%), 경제적인 여행비용(38.4%), 자연풍경 감상(22%)으로 나타남

[표 4.7.1] 외래관광객들의 한국방문 선택 요인

(단위: %)

한국 방문 선택요인	2007	2008	2009
쇼핑	41.5	44.4	56.5
음식/미식탐방	41.7	41.5	42.1
경제적인 여행비용	24.9	27.2	38.4
가까운 거리	45.4	40.1	37.6
자연풍경감상	25.2	23.4	22
역사/문화유적	22.9	26.1	20.8
휴양/휴식	12.8	14.9	14.3
유흥/놀이시설	12.5	11	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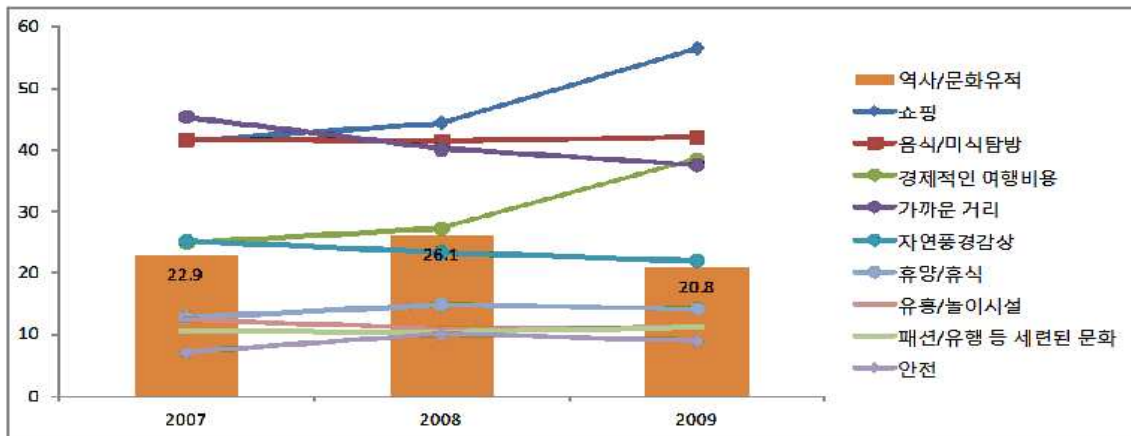
패션/유행 등 세련된 문화	10.6	10.3	11.2
안전	7.1	10.1	9

자료 : 외래관광객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각년도자료

주) 각 항목에 대해 중복응답 결과이므로, 세부항목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음

[그림 4.7.1] 외래관광객들의 한국방문 선택 요인

(단위: %)



- 한편 국내인들을 대상으로 한국 문화예술이나, 전통문화예술에 대한 인지도나 선호도를 집계하고 있는 정기적인 통계자료도 현재로서는 없음
 - 다만, 국악원 등의 관계기관에서 간헐적으로 수행하는 소규모의 설문조사가 있을 뿐임
- 따라서 여기에서는 2010년 국악원에서 이루어진 「2010 국악공연 및 국립국악원 인식조사」에 나타난 국악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통해 내국인들의 국악에 대한 선호도를 파악하도록 함
- 「2010 국악공연 및 국립국악원 인식조사」에 따르면 국악에 대한 선호도(나는 국악을 좋아한다)는 3.1점으로 나타났으며, 6개 문항에 대한 응답 점수를 응답자 수를 가중치로 하여 도출한 종합 선호도 점수는 3.3점으로 나타나 내국인의 국악에 대한 선호도는 보통을 약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국악은 어르신들 위한 음악이다”의 경우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이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국악공연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다”라는 문항의 경우에도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이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 과거에 비해 국악에 대한 젊은 이미지 및 국악 공연을 접할 기회가 제고된 것으로 보임
 - 다만, 동 설문은 2010년 단년도에만 이루어진 것으로 지속적인 설문이 이루어져야 시계열적 비교 및 선호도에 대한 요인 분석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

[표 4.7.2] 내국인들의 국악에 대한 선호도

(단위: 명,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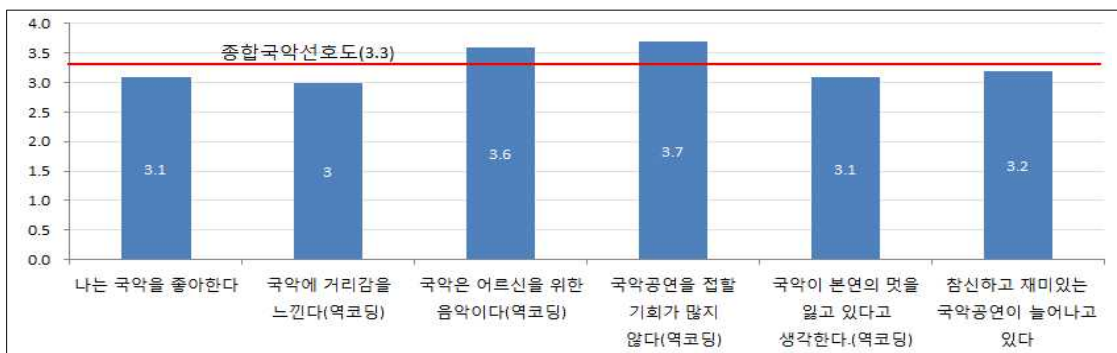
항목	응답자 수	평균 점수
나는 국악을 좋아한다	487	3.1
국악에 거리감을 느낀다(역코딩)	489	3.0
국악은 어르신을 위한 음악이다(역코딩)	488	3.6
국악공연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다(역코딩)	484	3.7
국악이 본연의 멋을 잃고 있다고 생각한다.(역코딩)	486	3.1
참신하고 재미있는 국악공연이 늘어나고 있다	486	3.2
종합 선호도	2,920	3.3

자료 : 2010 국악공연 및 국립국악원 인식조사(국립국악원,2010)

주1) ‘국악에 거리감을 느낀다’, ‘국악은 어르신을 위한 음악이다.’, ‘국악공연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다.’, ‘국악이 본연의 멋을 잃고 있다고 생각한다.’ 등 4개의 질문은 역코딩을 통하여 긍정적 답변일수록 높은 점수로 나타냄

[그림 4.7.2] 내국인들의 국악에 대한 선호도

(단위: 점)



4.8. UNESCO 문화유산 등재건수

- 한국 문화유산의 우수성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는 UNESCO 문화유산에의 등재건수를 들 수 있음
- 문화재청 행정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UNESCO 문화유산 등재건수는 2007년 17건에서 2011년 30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함
 - 유형별로는 2010년 기준으로 세계유산이 10건, 기록유산이 9건, 무형유산이 11건 등재되어 있으며, 타 국가에 비해 무형유산의 등재건수가 높은 편에 해당함(일본에 이어 2위)
- 해외 주요국과 UNESCO 문화유산 등재현황을 비교하면, 스페인이 총 53건으로 가장 많은 등재건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각각 50건으로 2순위를 차지하고 있음
- 영국은 33건, 일본은 32건, 미국은 24건을 기록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주요 문화대국 7개국 중 UNESCO 문화유산 등재건수는 6위를 차지하고 있음

[표 4.8.1] 한국 문화유산의 UNESCO 문화유산 등재현황(2007-2011)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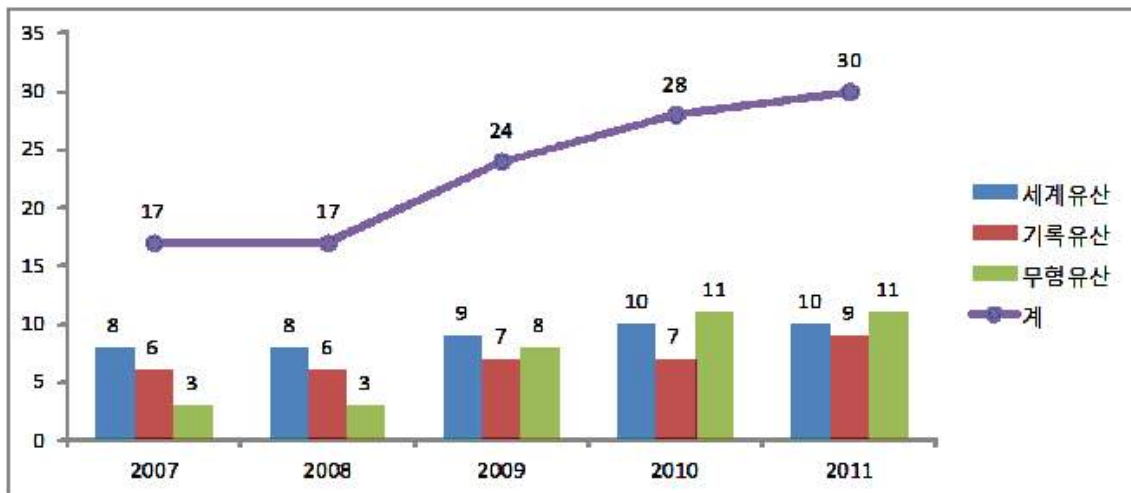
	2007	2008	2009	2010	2011
세계유산	8	8	9	10	10
기록유산	6	6	7	7	9
무형유산	3	3	8	11	11
계	17	17	24	28	30

자료 : 문화재청 행정자료 각년도자료

주1) 등재현황은 누적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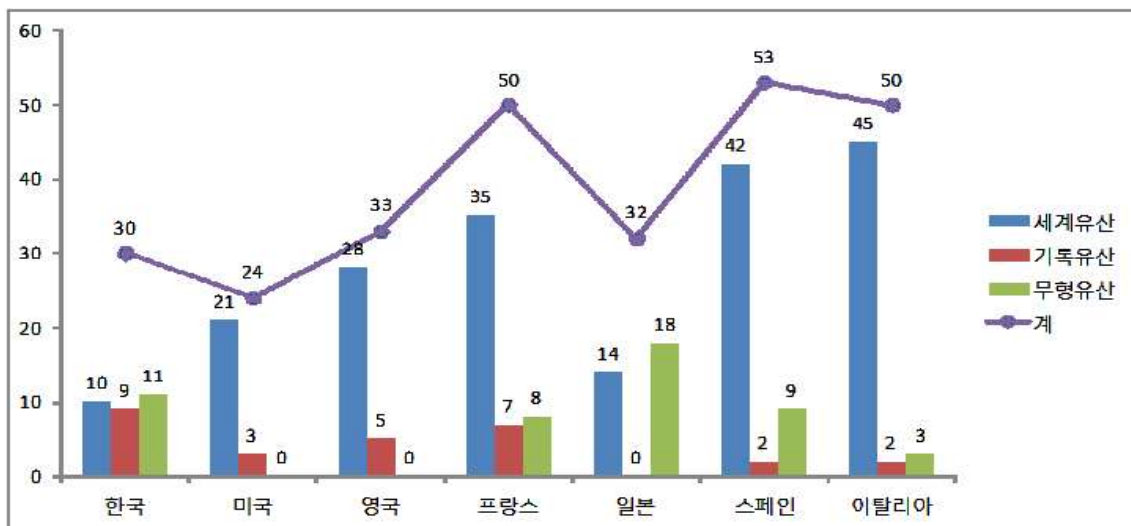
[그림 4.8.1] 한국 문화유산의 UNESCO 문화유산 등재현황(2007-2011)

(단위: 건)



[그림 4.8.2] 세계 주요국들의 UNESCO 문화유산 등재현황 (2011년 기준)

(단위: 건)



제4절 문화예술의 매개 및 유통

- 기존 통계자료 중 문화시설의 현황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통계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작성하는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임
- 본 보고서에서는 주요 문화시설에 대해서는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의 원자료를 활용하되, 여기에 나타나지 않은 문화시설에 대해서는 다른 통계자료를 함께 활용하였음
- 또한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등록 공연장 현황 자료』, 『전국도서관통계』 자료의 경우에도 보고통계의 한계로 인한 신뢰성의 문제를 보정하기 위해 2010년 자료의 경우 2008년, 2009년 자료와의 비교를 통해 지나치게 증감한 극단값(outlier)을 포착하여 담당자에 대한 전화통화를 통해 수정하거나 제거하는 자료 검증 및 수정과정을 거침

5.1. 문화시설의 수

5.1.1. 유형별 문화시설의 수

- 먼저 주요문화기반시설의 유형별 수는 다음의 [표 5.1.1.1]과 같이 나타남
- 전통예술의 매개·유통과 관련된 국악원, 전수회관, 역사문화유적지는 2008년 2,039개, 2009년 2,203개로 나타남
 - 국악원이 28개(2009년), 전수회관이 105개(2009년), 역사문화유적지가 2,122개(2010년 기준)로 나타남
- 공연예술의 매개·유통과 관련된 등록 공연장의 수는 2008년 619개, 2009년 637개, 2010년 631개로 나타남
 - 2010년 기준, 공공 등록공연장이 418개, 민간 등록공연장이 213개로 나타남
- 시각예술 및 공예의 매개·유통과 관련된 전시시설은 2009년 기준 박물관이 655개, 미술관이 145개, 화랑이 295개로 총 1,066개로 나타남
 - 박물관의 경우 2010년 기준 국립박물관이 319개, 사립박물관이 251개, 대학박물관이 85개로 나타남
 - 미술관의 경우 2010년 기준 국립미술관이 35개, 사립미술관이 105개, 대학미술관이 5개로 나타남
- 문학의 매개·유통과 관련된 도서관의 경우 2008년 15,585개, 2009년 16,400개로 나타남
 - 2009년 기준 국립도서관은 3개, 공공도서관은 4,448개, 대학도서관은 426개, 학교도서관은 10,937개, 전문도서관은 586개로 나타남

- 대중예술의 매개·유통과 관련된 영화관과 방송국은 2008년 982개, 2009년 954개로 나타남
 - 영화상영관은 2010년 기준 301개로 나타남
 - 방송국은 2009년 기준, 라디오 방송국이 59개, 지상파 방송국이 100개, 유선방송국이 454개, 위성 및 기타방송국이 36개로 나타남
- 지역문화복지시설 중 주요문화시설에 해당하는 문예회관과 지방문화원, 문화의 집은 2009년 556개, 2010년 577개로 나타남
 - 2010년 기준 문예회관은 193개, 지방문화원은 228개, 문화의 집은 156개로 나타남

[표 5.1.1.1] 문화시설의 수(유형 1)

(단위: 개)

문화영역	문화시설	포함내용		2008	2009	2010	연평균 증가율
전통예술	전통문화 전수시설 사적지	국악원		22	28	-	27.3
		전수회관		77	105	-	36.4
		역사 문화 유적지	국가지정문화재(사적)	478	490	491	1.4
			국가지정문화재(명승)	61*	67	72	8.6
			시도지정문화재(기념물)	1,500	1,513	1,559	1.9
			소계	2,039	2,070	2,122	2.0
		계		2,138	2,203	-	3.0
공연예술	공연시설	등록 공연장	공공 등록공연장	407	406	418	1.3
			민간 등록공연장	212	231	213	0.2
		계		619	637	631	1.0
시각예술 및 공예	전시시설	박물관	국립박물관	282	311	319	6.4
			사립박물관	215	234	251	8
			대학박물관	82	85	85	1.8
			소계	579	630	655	6.4
		미술관	국립미술관	28	33	35	11.8
			사립미술관	95	102	105	5.1
			대학미술관	5	6	5	0
			소계	128	141	145	6.4
		화랑	화랑 *	183	295	-	6.4
		계		890	1,066	-	19.8
문학	도서시설	도서관	국립도서관	3	3	-	0.0
			공공도서관**	4,091	4,448	-	8.7
			대학도서관	407	426	-	4.7
			학교도서관	10,493	10,937	-	4.2
			전문도서관	591	586	-	-0.8
		계		15,585	16,400	-	5.2
대중예술	영화시설	영화관	영화상영관	309	305	301	-1.3
	방송시설	방송국	라디오 방송국	57	59	-	3.4
			지상파 방송국	108	100	-	-8.0
			유선 방송국	470	454	-	-3.5
			위성 및 기타방송국	38	36	-	-5.6
			소계	673	649	-	-3.43
		계		982	954	301	-3
기타	지역문화 복지시설	문예회관		166	182	193	7.8
		지방문화원		223	227	228	1.1

	문화의 집	-	147	156	6.1
	계	-	556	577	3.8

자료1) 전통문화전수시설 중 역사문화유적지 : 문화재청 주요업무 통계자료집 (2008;2009;2010),

국악원 및 전수회관 : 한국도시통계(통계청, 2008;2009)

자료2) 공연시설 : 등록공연장 현황(문화체육관광부 행정조사자료, 2008;2009;2010)

자료3) 전시시설 :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문화체육관광부, 2009;2010;2011)

자료4) 도서관시설 : 전국도서관통계(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07;2008;2009)

자료5) 영화시설 : 2010 한국영화산업결산(영화진흥위원회, 2011)

자료6) 방송시설 : 전국사업체조사(통계청)

자료7) 지방문화원, 문예회관 :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문화체육관광부, 2009;2010;2011)

자료8) 문화의 집 :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한국문화의집협회 홈페이지

주1) 『한국도시연감자료조사』는 서울시와 각 광역시 및 각 도의 사군(읍)에서 조사한 자료를 행정자치부에서 집계 정리한 것으로 조사범위는 전국(광역시, 일반시, 광역도, 군청 소재지 읍)으로 광역시내 구, 군, 광역도내의 군단위 행정구역은 제외되었으며, 군청소재지가 아닌 읍단위도 조사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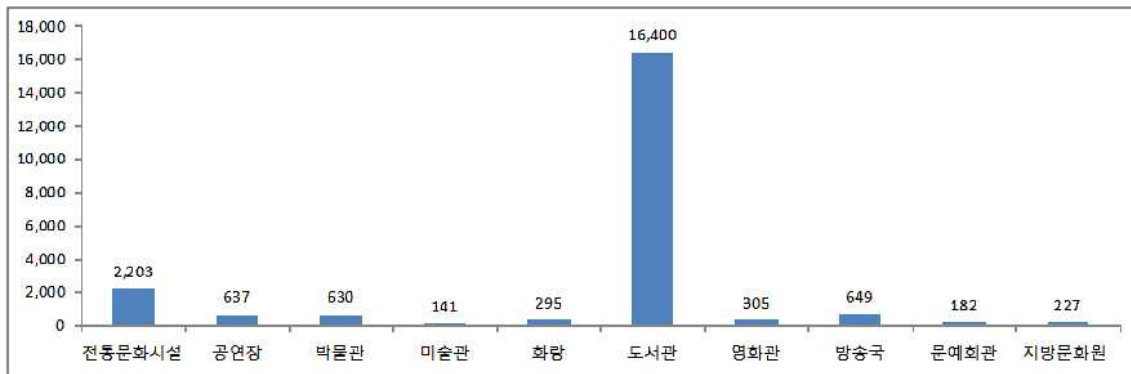
주2) 지정·등록 문화재 중 국가지정문화재는 2009년부터 사적/사적 및 명승/명승에서 사적/명승으로 유형이 변경되었음. 2008년의 경우 사적(478), 사적 및 명승(10), 명승(51)으로 조사되었음

주3) 화랑의 경우 『미술시장실태조사』 자료를 사용 『한국도시통계』와 『미술시장실태조사』의 자료가 다르나 연도 별 비교가 가능한 『미술시장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였음

주4) 공공도서관에는 일반도서관, 어린이도서관, 작은도서관(문고), 장애인도서관, 병원 도서관, 병영도서관, 교도소 도서관이 모두 포함됨. 다만, 일반도서관 및 어린이도서관 이외의 공공도서관의 경우 보고통계자료의 신뢰성이 취약하다는 점에서 이하에서 분석하는 공공도서관에는 일반 및 어린이도서관만이 포함되었음

[그림 5.1.1.1] 문화시설의 수: 유형 1(2009년 기준)

(단위: 개)



- 한편 문화예술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예술공연이나 전시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지역 문화복지시설 역시 중요한 문화시설임
- 2009년 기준으로 지역에 설립되어 있는 복합문화공간은 지방문화원(227개), 문화의 집(147개), 주민자치센터(2,646개), 시민회관(127개), 복지회관(737개), 청소년회관(220개), 문예회관(167개)을 포함 3,922개임
- 또한 아동복지시설(358개), 노인복지시설(2,143개), 장애인복지시설(295개), 여성복지시설(220개), 정신질환자요양시설(56개), 부랑인시설(41개), 기타(1개)를 포함한 복지시설은 약 3,222개임

○ 청소년 수련관(93개), 청소년문화의집(110개)를 포함한 청소년시설은 총 203개로 나타남

[표 5.1.1.2] 문화시설의 수: 유형 2(2009)

(단위: 개)

문화영역	문화시설	포함내용		2008	2009	2010	연평균 증가율
기타	지역문화 복지시설	복합 문화 공간	지방문화원	223	227	228	1.1
			문화의 집	-	147	156	3.8
			주민자치센터	2,605	2,646	2,681	1.4
			시민회관	116	127	-	9.5
			복지회관	582	737	-	26.6
			청소년회관	220	230	-	4.5
			문예회관	167	182	192	7.2
			소계	3,913	4,296	3,257	-
		복지 시설	아동복지시설	246	358	-	45.5
			노인복지시설	1,061	2,143	-	102
			장애인복지시설	295	403	-	36.6
			여성복지시설	205	220	-	7.3
			정신질환자요양시설	44	56	-	27.3
			부랑인시설	33	41	-	24.2
			기타	1	1	-	0
			소계	1,885	3,222	-	70.9
		청소년 시설	청소년수련관,	131	93	-	-29.0
			청소년문화의집	181	110	-	-39.2
			소계	312	203	-	-34.9
		계			11,997	15,323	-

자료1) 한국도시연감자료조사(한국도시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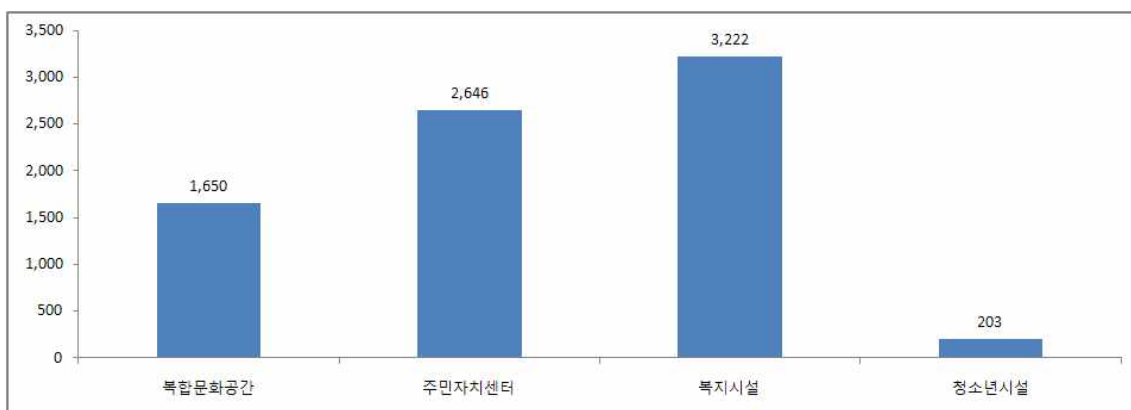
자료2) 지방문화원, 문예회관 :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문화체육관광부, 2009;2010;2011)

자료3) 문화의 집: 한국문화의집협회 홈페이지

자료4) 주민자치센터: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그림 5.1.1.2] 문화시설의 수(유형 2)

(단위: 개)



5.1.2. 지역별 문화시설의 수

5.1.2.1 전통문화 전수시설 및 사적지

- 2009년 기준으로 전국의 전통문화시설의 수는 총 2,203개로 이는 인구 백만 명 당 43.6개에 해당하며, 시설 한 개당 인구수는 약 22,930명에 해당함
- 전통문화 전수시설은 전국적으로 133개 설립되어 있으며, 이 중 국악원은 28개, 전수회관은 105개가 설립되어 있음
 - 특히 전수시설은 전남(25개), 충남(18개), 경남(18개), 전북(16개), 경기(16개)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
- 역사문화유적지는 총 2,070개가 있으며, 그중 사적은 490개, 명승은 67개, 기념물은 1,513개임
- 지역별로 전통문화시설의 분포를 살펴보면 경남 지역이 총 317개(14.4%)로 가장 많은 전통문화시설이 분포되어 있으며, 전남(272개, 12.3%), 경기(266개, 12%), 경북(257개, 11.7%), 충남(225개, 10.2%)의 순으로 분포되어 있음
- 그러나 각 지역의 인구수를 고려하면 인구 백만 명 당 전통문화시설의 수가 가장 많은 곳은 전남(141.8개)이며, 충남이 108.4개, 제주가 98개로 나타남
 - 한편 인구 백만 명 당 시설 수가 전국 평균인 43.6개보다 작게 나타나는 곳은 대구(9.6개), 서울(10개), 부산(16개), 광주(20.6개), 경기(22.6개), 인천(26.8개)임

[표 5.1.2.1] 지역별 전통문화시설 수(2009년 기준)

(단위: 개소, 명)

	전통문화 전수시설			역사문화유적지				전통 문화 시설 합계	주민등록 인구수	인구백 만명당 시설수	시설수 대비 인구수
	국악 원	전수 회관	계	사적	명승	기념 물	계				
서울	2	4	6	68	3	26	97	103	10,312,545	10.0	100,122
부산	1	2	3	4	2	48	54	57	3,567,910	16.0	62,595
대구	0	0	0	7	0	17	24	24	2,511,676	9.6	104,653
인천	1	0	1	18	1	54	73	74	2,758,296	26.8	37,274
광주	0	2	2	2	0	26	28	30	1,454,636	20.6	48,488
대전	1	1	2	1	0	40	41	43	1,503,664	28.6	34,969
울산	0	0	0	4	0	46	50	50	1,126,298	44.4	22,526
경기	2	14	16	64	1	185	250	266	11,786,622	22.6	44,311
강원	1	12	13	16	8	78	102	115	1,529,818	75.2	13,303
충북	1	6	7	19	9	116	144	151	1,549,528	97.4	10,262
충남	6	12	18	48	3	156	207	225	2,075,514	108.4	9,225
전북	6	10	16	34	6	107	147	163	1,868,963	87.2	11,466
전남	4	21	25	44	15	188	247	272	1,918,485	141.8	7,053
경북	0	6	6	102	12	137	251	257	2,689,920	95.5	10,467
경남	3	15	18	53	6	240	299	317	3,290,536	96.3	10,3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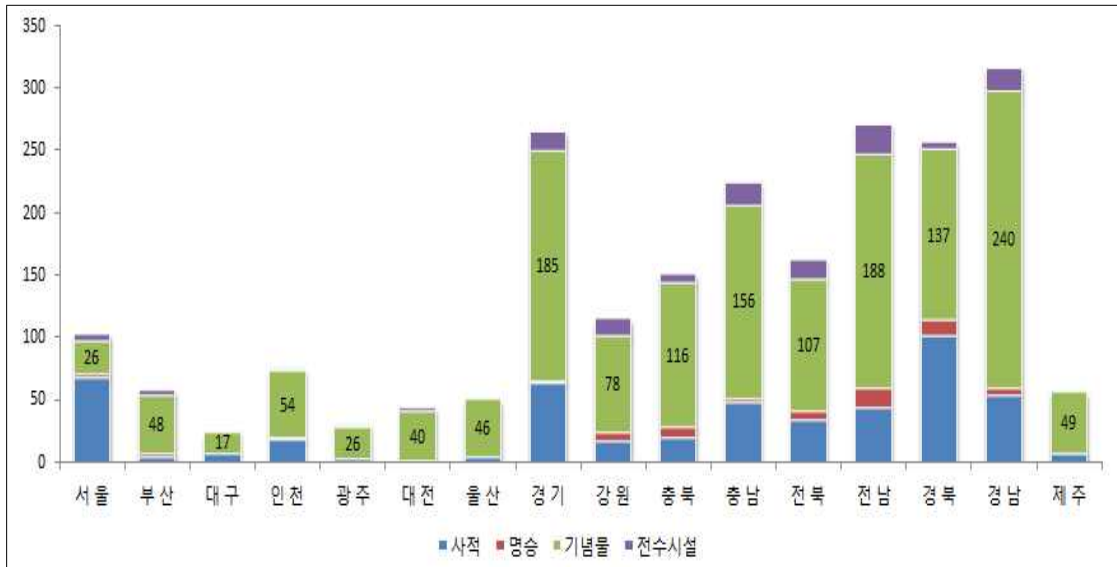
제 주	0	0	0	6	1	49	56	56	571,255	98.0	10,201
전 국	28	105	133	490	67	1,513	2,070	2,203	50,515,666	43.6	22,930

자료1) 국악원 및 전수회관 : 한국도시통계(통계청, 2009)

자료2) 전통문화전수시설 중 역사문화유적지 : 문화재청 주요업무 통계자료집(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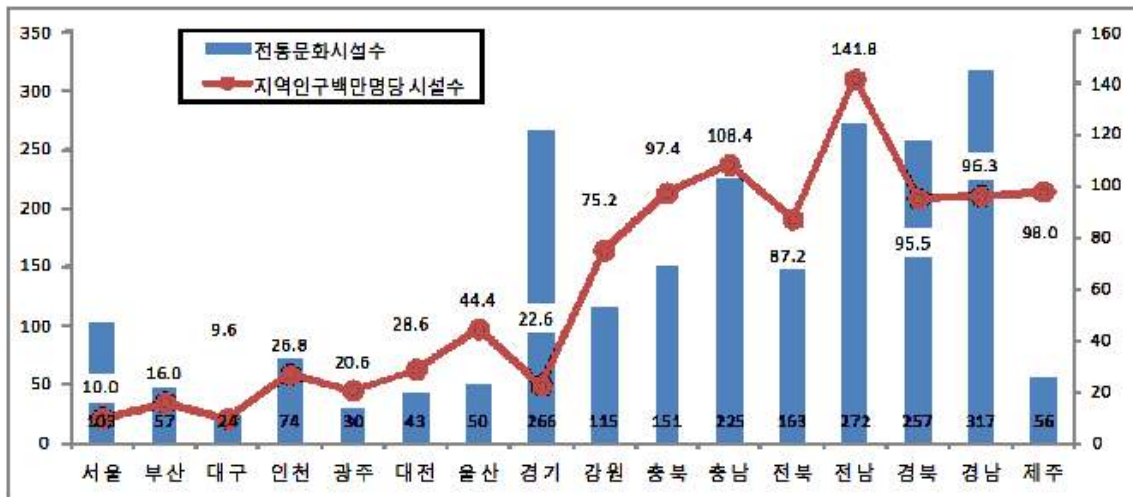
[그림 5.1.2.1.1] 지역별 전통문화시설의 수(2009년 기준)

(단위: 개소)



[그림 5.1.2.1.2] 지역 인구 백만 명 당 시설 수(2009년 기준)

(단위: 개소)



5.1.2.2 공연시설(등록 공연장)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집계하는 행정자료인 『등록공연장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전국의 등록 공연장 수는 631개이며, 인구 백만명 당 등록 공연장의 수는 12.5개로 나타남

- 수도권 지역의 공연장 수가 총 338개로 전체의 53.6%를 점하고 있으며, 비수도권 지역은 46.4%를 차지함
- 소유형태별로는 공공 공연장의 수가 418개로 전체의 66.2%를 차지하며, 민간 공연장의 수는 213개로 33.8%를 차지함
- 규모별로는 중공연장의 수가 314개로 전체의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공연장이 250개(40%), 대공연장이 67개(10.7%)로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지역 등록공연장이 189개로 전체의 30%를 차지하며, 경기지역에 120개(19%), 부산 지역에 40개(6.3%) 분포되어 있음
- 반면 제주도는 3개, 울산은 4개로 가장 작게 분포하고 있음
- 한편 지역인구수를 고려하면, 지역인구 백만명 당 등록공연장의 수는 서울이 18.3개로 가장 많으며, 충남이 17.8개, 강원이 17.6개, 광주가 15.8개, 대구가 13.9개로 나타나 전국 평균인 12.5개에 비해 높게 나타남
- 반면 울산(3.6개), 제주(5.3개), 충북(7.7개)의 경우 지역인구 백만명 당 등록 공연장의 수가 매우 작게 나타남
- 소유형태별로는 서울(121개), 부산(20개), 대구(17개)의 민간 공연장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반면, 울산, 제주, 충북, 전북 지역의 경우 민간 공연장이 없어 100%가 공공 공연장으로 나타남
- 규모별로는 서울(11개), 경기(16개), 대구(7개)에 대공연장이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소규모 공연장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지역은 서울(105개), 경기(39개)지역임

[표 5.1.2.2] 지역별 등록공연장 수(2010년 기준)

(단위: 개소, 명)

	운영주체				규모			주민등록 인구수	인구 백만명당 공연장수	공연장수 대비 인구수
	공공	민간	합계	공공 공연장 비율	대공 연장	중공 연장	소공 연장			
서울	68	121	189	36.0	11	73	105*	10,312,545	18.3	54,563.7
부산	20	20	40	50.0	2	16	22	3,567,910	11.2	89,197.8
대구	18	17	35	51.4	7	14	14	2,511,676	13.9	71,762.2
인천	23	6	29	79.3	2	9	18	2,758,296	10.5	95,113.7
광주	17	6	23	73.9	1	11	11	1,454,636	15.8	63,245.0
대전	8	6	14	57.1	3	5	6	1,503,664	9.3	107,404.6
울산	4		4	100.0	1	3		1,126,298	3.6	281,574.5
경기	97	23	120	80.8	16	65	39	11,786,622	10.2	98,221.9
강원	25	2	27	92.6	3	19	5	1,529,818	17.6	56,659.9
충북	12		12	100.0	2	10		1,549,528	7.7	129,127.3
충남	34	3	37	91.9	4	20**	13	2,075,514	17.8	56,095.0
전북	17		17	100.0	3	11	3	1,868,963	9.1	109,939.0
전남	17	2	19	89.5	2	14	3	1,918,485	9.9	100,972.9

경 북	27	4	31	87.1	4	24	3	2,689,920	11.5	86,771.6
경 남	28	3	31	90.3	5	19	7	3,290,536	9.4	106,146.3
제 주	3		3	100.0	1	1	1	571,255	5.3	190,418.3
수도권	188	150	338	55.6	29	147	162	24,857,463	13.6	73,542.8
비수도권	230	63	293	78.5	38	167	88	25,658,203	11.4	87,570.7
전국	418	213	631	66.2	67	314	250	50,515,666	12.5	80,056.5

자료 : 등록공연장 현황(문화체육관광부 행정조사자료, 2010)

주1) 대공연장 : 1,000석 이상 공연장

주2) 중공연장 : 300석~1,000석 미만 공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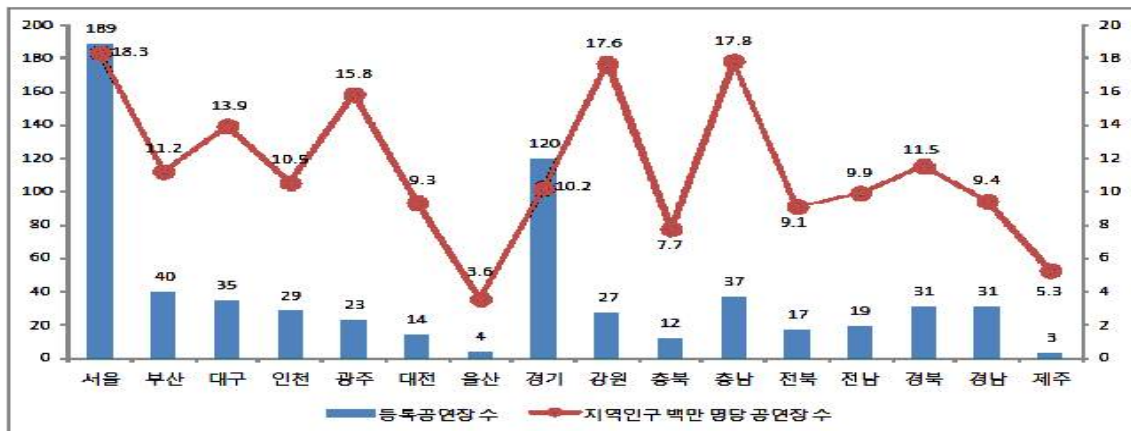
주3) 소공연장 : 300석 미만 공연장

주4) * 서울 M극장 객석수 미표기로 소공연장 항목에 추가하였음

주5) ** 충남 아산시 신정호야외음악당, 시민문화복지센터 야외공연장, 아산 청소년 교육 문화회관 야외공연장 객석수 미표기로 중공연장 항목에 추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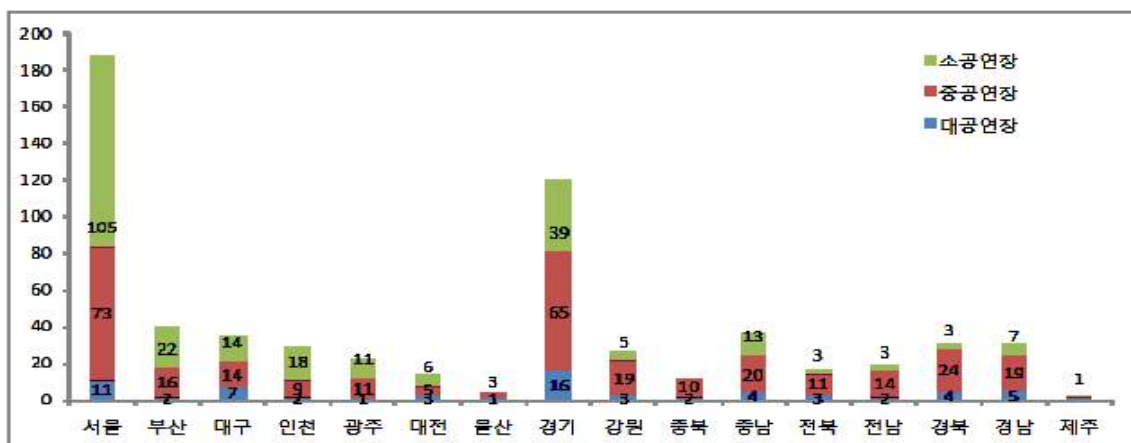
[그림 5.1.2.2.1] 지역인구 백만명 당 등록공연장의 수(2010년 기준)

(단위: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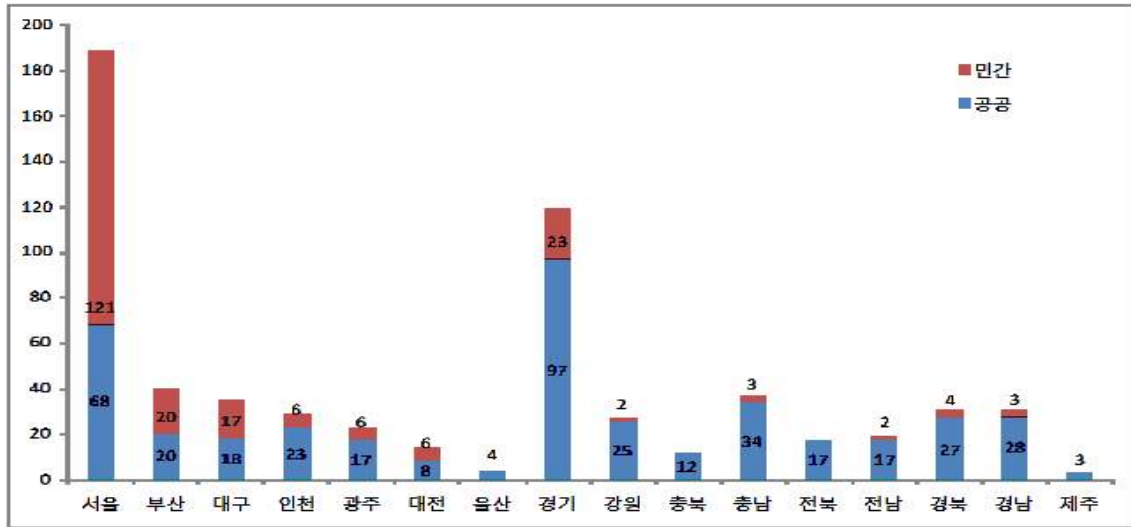
[그림 5.1.2.2.2] 지역별 민간/공공 공연장의 수(2010년 기준)

(단위: 개소)



[그림 5.1.2.2.3] 규모별 공연장의 수(2010년 기준)

(단위: 개소)



5.1.2.3 전시시설(박물관 및 미술관)

- 『2011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에 따르면 2010년 기준 박물관은 총 655관이 설립되어 있으며 미술관은 총 145관이 설립되어 있음
 - 지역별로는 경기 지역의 박물관 수가 109관으로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서울이 105관, 강원이 66관, 경북이 57관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음
 - 유형별로는 공립이 289관으로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사립 251관, 대학, 85관, 국립 30관 순으로 분포되어 있음
- 2010년 기준 미술관은 총 145개관이 설립되어 있음
 -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의 미술관 수가 32관으로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경기 32관, 제주 13관, 전남 12관 순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음
 - 유형별로는 사립이 105관으로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공립 35관(국립 1관 포함), 대학 5관 순으로 분포되어 있음
 - 울산의 경우 미술관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표 5.1.2.3.1] 지역별 박물관·미술관 수(2010년 기준)

(단위: 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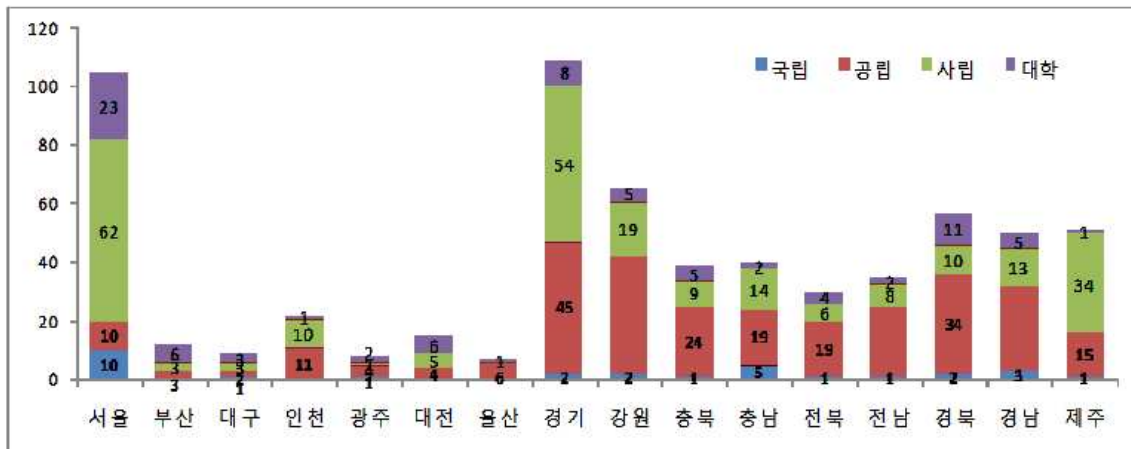
지역	박물관					미술관			
	국립	공립	사립	대학	계	공립	사립	대학	계
서울	10	10	62	23	105	2	28	2	32
부산	0	3	3	6	12	1	2	1	4
대구	1	2	3	3	9	1	0	1	2

인 천	0	11	10	1	22	2	3	0	5
광 주	1	4	1	2	8	1	4	1	6
대 전	0	4	5	6	15	2	2	0	4
울 산	0	6	0	1	7	0	0	0	0
경 기	2	45	54	8	109	8(국립1)	23	0	31
강 원	2	40	19	5	66	3	5	0	8
충 북	1	24	9	5	39	2	4	0	6
충 남	5	19	14	2	40	0	6	0	6
전 북	1	19	6	4	30	2	1	0	3
전 남	1	24	8	2	35	2	10	0	12
경 북	2	34	10	11	57	2	4	0	6
경 남	3	29	13	5	50	3	4	0	7
제 주	1	15	34	1	51	4	9	0	13
전국	30	289	251	85	655	35	105	5	145

자료 : 2011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문화체육관광부, 2011(2010.12.31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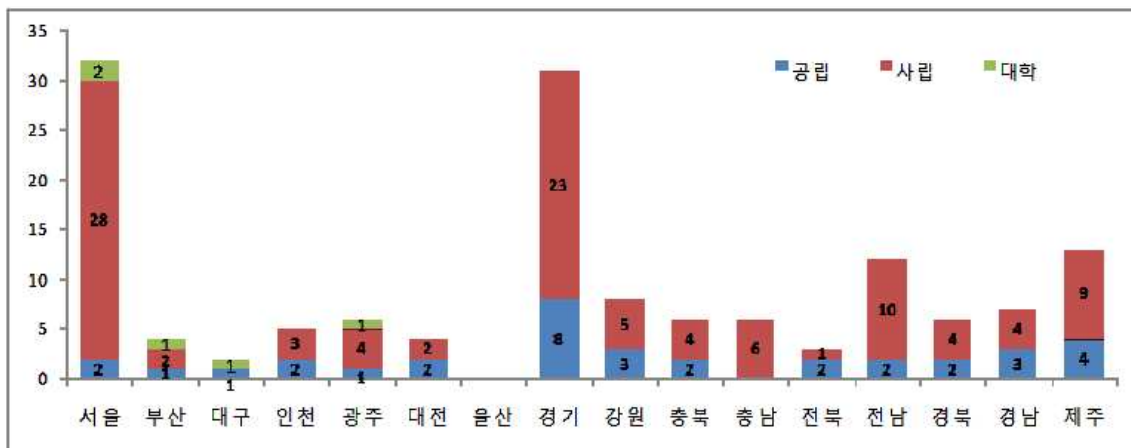
[그림 5.1.2.3.1] 지역별 박물관 수

(단위: 관)



[그림 5.1.2.3.2] 지역별 미술관 수

(단위: 관)



- 화랑 수의 경우 『한국도시통계』와 『미술시장실태조사』의 자료가 큰 차이가 남
 - 2009년 기준 화랑은 『한국도시통계』의 경우 261관, 『2009년도미술시장실태조사』의 경우 295관이 설립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됨

[표 5.1.2.3.2] 지역별 화랑 수

(단위: 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국
한국도시통계	0	58	59	31	33	38	6	5	0	4	2	1	2	3	10	9	261
미술시장실태조사	185	36	38	1	3	3	2	13	0	1	2	2	0	6	2	1	2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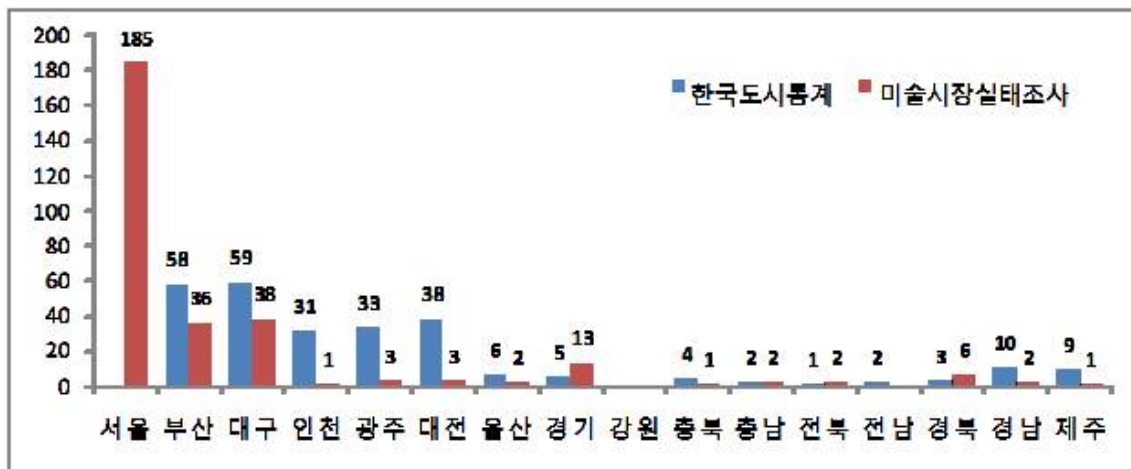
자료1) 한국도시통계 (행정안전부)

자료2) 2009년도미술시장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 예술경영지원센터)

주1) 2009.12.31 기준

[그림 5.1.2.3.4] 지역별 화랑 수

(단위: 관)



- 『2011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전국의 전시시설 총 수는 800관이 설립되어 있으며, 지역인구 백만 명 당 시설 수는 15.84관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보면 제주 지역의 전시시설수가 112관으로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강원 이 48.37관, 충북이 29.04관, 전남이 24.5관으로 지역인구 대비 전시시설의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지역인구 백만 명 당 전시시설의 수가 낮게 나타나는 지역은 대구(4.38관), 부산 (4.48관), 울산(6.22관) 등으로 나타남

[표 5.1.2.3.4] 지역인구별 박물관·미술관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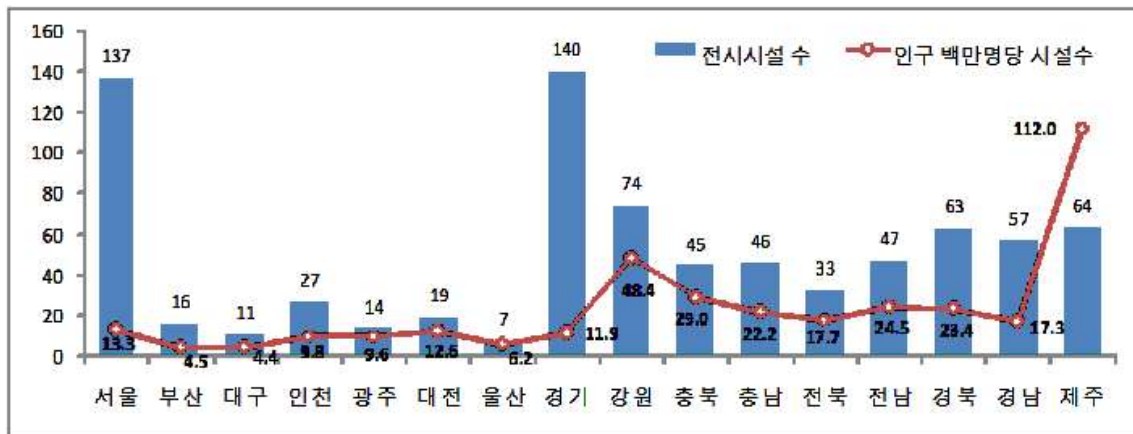
(단위: 관)

지역	전시시설			인구 백만 명당 시설수	시설수 대비 인구수
	박물관	미술관	계		
서울	105	32	137	13.28	75,274
부산	12	4	16	4.48	222,994
대구	9	2	11	4.38	228,334
인천	22	5	27	9.79	102,159
광주	8	6	14	9.62	103,902
대전	15	4	19	12.64	79,140
울산	7	0	7	6.22	160,899
경기	109	31	140	11.88	84,190
강원	66	8	74	48.37	20,673
충북	39	6	45	29.04	39,731
충남	40	6	46	22.16	45,119
전북	30	3	33	17.66	56,635
전남	35	12	47	24.50	40,818
경북	57	6	63	23.42	42,697
경남	50	7	57	17.32	57,728
제주	51	13	64	112.03	8,925
전국	655	145	800	15.84	63,144

자료 : 2011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문화체육관광부, 2011(2010.12.31 기준))

[그림 5.1.2.3.5] 지역 인구 백만 명당 박물관·미술관 수

(단위: 관)



5.1.2.4 도서관시설(공공도서관)

- 『2011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에 따르면 2010년 기준 공공도서관은 전국에 총 759개가 설립되어 있으며, 지역인구 백만 명 당 도서관의 수는 15관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보면 경기 지역의 공공도서관의 수가 163개로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서울이 101개, 경북이 58개, 전남이 57개로 많이 분포되어 있음
- 지역인구 백만 명 당 도서관 수를 살펴보면, 제주 지역이 36.8관으로 가장 많으며, 강

원이 30.7관, 전남이 29.7관, 전북과 충남이 24.6관으로 지역인구 대비 공공도서관의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지역인구 백만 명 당 공공도서관의 수가 낮게 나타나는 지역은 부산(8.4관), 인천(9.4관), 서울과 울산(9.8관), 대구(10.4관), 광주(11관) 등으로 나타남

[표 5.1.2.4] 지역별 공공도서관의 수(2010년 기준) (단위: 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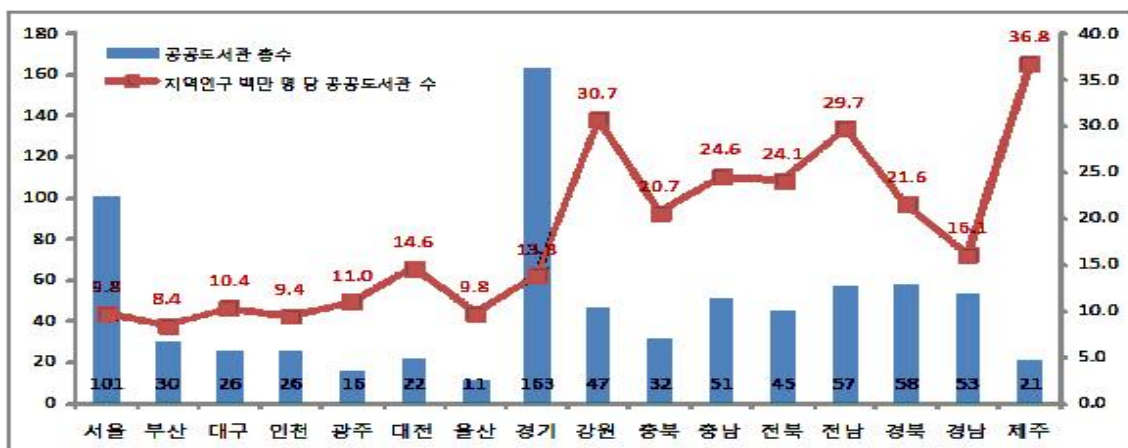
	도서관 총수	지역인구 백만 명당 도서관 수	지역별 도서관 당 인구 수
서울	101	9.8	102,104
부산	30	8.4	118,930
대구	26	10.4	96,603
인천	26	9.4	106,088
광주	16	11.0	90,915
대전	22	14.6	68,348
울산	11	9.8	102,391
경기	163	13.8	72,311
강원	47	30.7	32,549
충북	32	20.7	48,423
충남	51	24.6	40,696
전북	45	24.1	41,533
전남	57	29.7	33,658
경북	58	21.6	46,378
경남	53	16.1	62,086
제주	21	36.8	27,203
전국	759	15.0	66,556

자료 : 2011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문화체육관광부, 2011(2010.12.31 기준))

주1) 본 수치는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원자료를 바탕으로 자료 검증 및 수정을 거친 결과로, 공표된 결과와 다를 수 있음

주2) 공공도서관은 『도서관법』에서는 문고, 장애인도서관, 병원도서관, 병영도서관, 교도소도서관 통계를 포함하나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에는 공공(일반)도서관과 공공(어린이)도서관만 포함됨

[그림 5.1.2.4] 지역인구 백만명 당 도서관 수(2010년 기준) (단위: 관)



5.1.2.5 영화시설(극장)

- 『한국영화산업결산』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전국의 극장 수는 총 301개이며, 스크린 수는 2,003개(극장 한 관당 평균 6.7개), 좌석 수는 349,220개(극장 한 관당 평균 1,160석, 스크린 한 개당 평균 174석)로 나타남
 - 인구 백만명 당 극장 수는 5.9개, 인구 백만명 당 스크린 수는 39.5개, 그리고 인구 백만명 당 좌석 수는 6,893개로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극장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은 서울(69개), 경기(63개)로 두 지역에 전국의 43.8%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울산은 5개, 제주는 6개, 충북과 전남지역은 8개로 가장 극장 수가 적게 나타남
- 한편 지역별 인구수를 고려할 경우 지역인구 백만명 당 극장 수가 가장 크게 나타난 지역은 제주(10.4관)였고, 부산(7.3관), 강원(7.2관), 광주(6.8관)의 순으로 나타남
 - 지역인구 백만명 당 극장 수가 낮게 나타난 지역은 전남(4.2관)과 울산(4.4관), 충남(으로 나타남
- 스크린 수와 좌석 수 역시 극장 수와 거의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음
 - 스크린 수와 좌석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과 경기 지역이었으며, 울산, 제주, 전남 지역이 가장 작게 나타남
 - 지역인구 백만명 당 스크린 수와 좌석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제주와 부산, 광주로 나타났으며, 가장 적은 지역은 울산과 전남, 충남으로 나타남

[표 5.1.2.5] 지역별 영화시설의 수(2010년 기준)

(단위: 관, 스크린, 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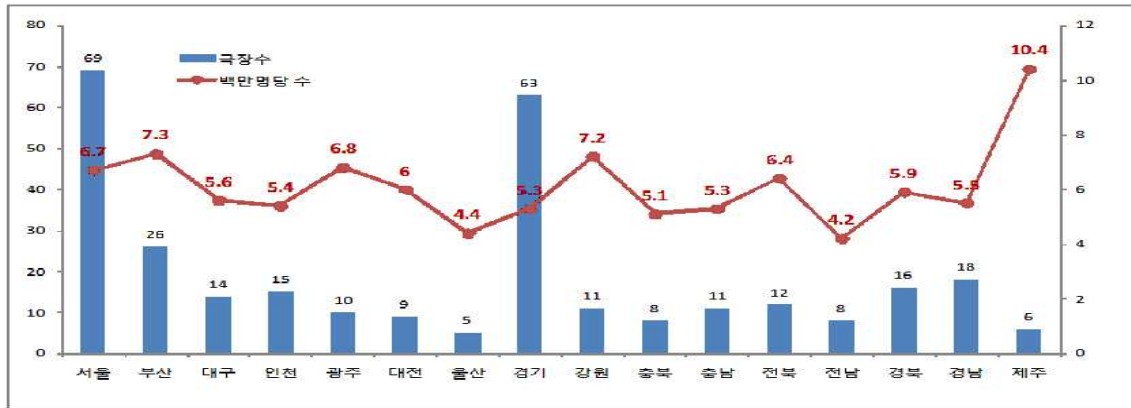
지역	극장 수			스크린 수			좌석 수		
	개 수	비중	백만명 당 수	2010	비중	백만명 당 수	2010	비중	백만명 당 수
서울	69	22.9	6.7	447	22.3	43.5	81,993	23.5	7,978
부산	26	8.6	7.3	186	9.3	52.3	34,305	9.8	9,641
대구	14	4.7	5.6	106	5.3	42.2	18,769	5.4	7,477
인천	15	5.0	5.4	110	5.5	39.5	17,926	5.1	6,433
광주	10	3.3	6.8	71	3.5	48.5	14,337	4.1	9,800
대전	9	3.0	6.0	62	3.1	41.0	11,549	3.3	7,641
울산	5	1.7	4.4	30	1.5	26.5	5,532	1.6	4,887
경기	63	20.9	5.3	444	22.2	37.3	73,312	21.0	6,167
강원	11	3.7	7.2	65	3.2	42.4	10,208	2.9	6,658
충북	8	2.7	5.1	65	3.2	41.7	10,999	3.1	7,058
충남	11	3.7	5.3	61	3.0	29.2	9,605	2.8	4,591
전북	12	4.0	6.4	67	3.3	35.8	11,251	3.2	6,009
전남	8	2.7	4.2	53	2.6	27.7	9,092	2.6	4,755
경북	16	5.3	5.9	88	4.4	32.7	15,709	4.5	5,835
경남	18	6.0	5.5	112	5.6	33.9	19,474	5.6	5,900

제주	6	2.0	10.4	36	1.8	62.6	5,159	1.5	8,976
합계	301	100.0	5.9	2,003	100.0	39.5	349,220	100.0	6,893

자료 : 2010년 한국 영화산업 결산 (영화진흥위원회,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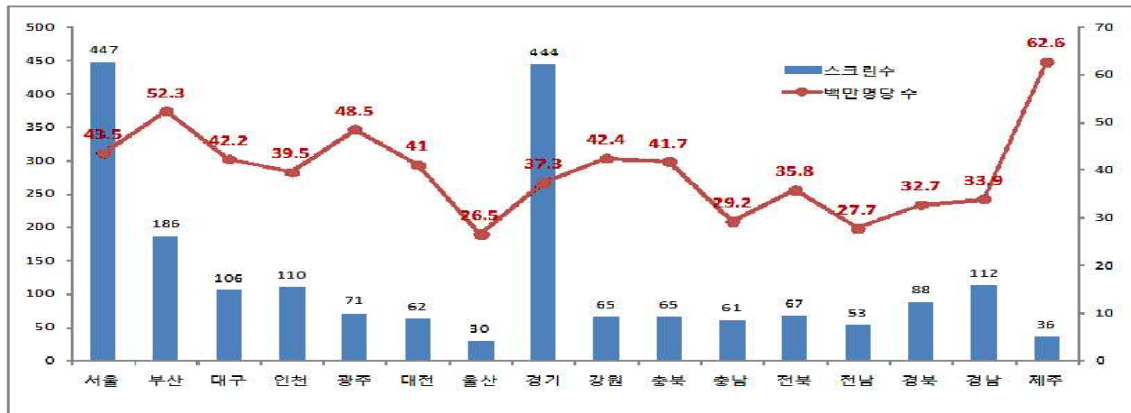
[그림 5.1.2.5.1] 지역별 극장 수와 지역인구 백만명당 극장 수(2010년 기준)

(단위: 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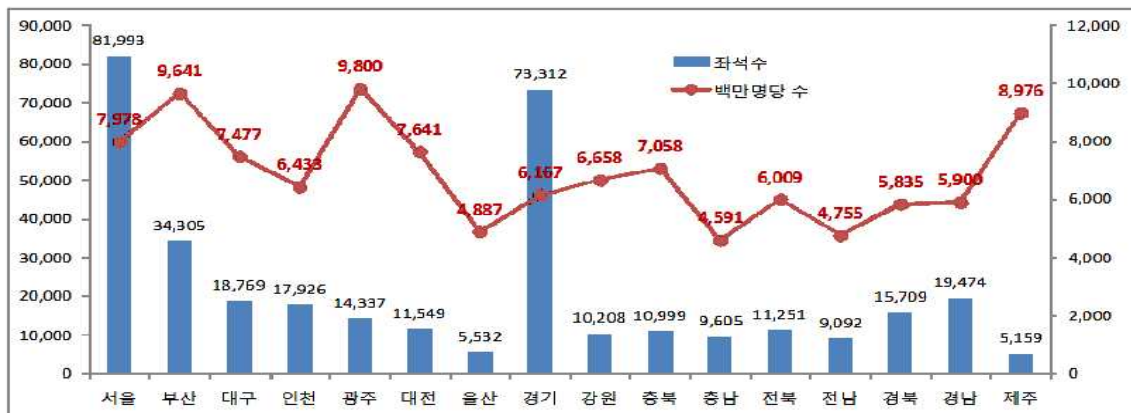
[그림 5.1.2.5.2] 지역별 스크린 수와 지역인구 백만명당 스크린 수(2010년 기준)

(단위: 개)



[그림 5.1.2.5.3] 지역별 영화관 좌석 수와 지역인구 백만명당 좌석 수(2010년 기준)

(단위: 석)



5.1.2.6. 지역문화 복지시설

- 『2011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전국 지방문화원은 총 228관이 설립되어 있으며, 지역인구 백만 명당 지방문화원의 수는 4.5관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보면 경기 지역의 지방문화원 수가 31관으로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서울이 25관, 경북이 23관, 전남이 22관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음
- 지역인구 백만명 당 지방문화원 수를 살펴보면, 강원 지역이 11.8관으로 가장 많으며, 전남이 11.5관, 경북이 8.6관, 충남이 8.2관으로 지역인구 대비 지방문화원의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지역인구 백만명 당 지방문화원의 수가 낮게 나타나는 지역은 서울(2.4관), 경기(2.6관), 인천(2.9관) 등으로 나타남
- 한국문화의집협회 홈페이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전국 문화의 집은 총 156관이 설립되어 있으며, 지역인구 백만 명당 문화의 집 수는 3.1관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보면 서울과 경남 지역의 지방문화원 수가 21관으로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경기와 제주가 18관, 전북이 13관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음
- 지역인구 백만명 당 문화의 집 수를 살펴보면, 제주 지역이 31.5관으로 가장 많으며, 전북이 7관, 강원이 6.5관, 경남이 6.4관으로 지역인구 대비 문화의 집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지역인구 백만명 당 문화의 집 수가 낮게 나타나는 지역은 대구와 인천(0.4관), 부산(0.8관), 경기(1.5관) 등으로 나타남

[표 5.1.2.6] 지역인구별 지방문화원 및 문화의 집 수(2010년 기준)

(단위: 관)

지역	지방문화원			문화의 집		
	지방문화원	인구 백만명당 시설수	시설수 대비 인구수	문화의 집	인구 백만명당 시설수	시설수 대비 인구수
서울	25	2.4	412,501	21	2	491,073
부산	13	3.6	274,454	3	0.8	1,189,303
대구	8	3.2	313,959	1	0.4	2,511,676
인천	8	2.9	344,787	1	0.4	2,758,296
광주	5	3.4	290,927	4	2.7	363,659
대전	5	3.3	300,732	3	2	501,221
울산	5	4.4	225,259	5	4.4	225,259
경기	31	2.6	380,213	18	1.5	654,812
강원	18	11.8	84,989	10	6.5	152,981
충북	12	7.7	129,127	8	5.2	193,691
충남	17	8.2	122,089	10	4.8	207,551
전북	14	7.5	133,497	13	7	143,766
전남	22	11.5	87,203	10	5.2	191,8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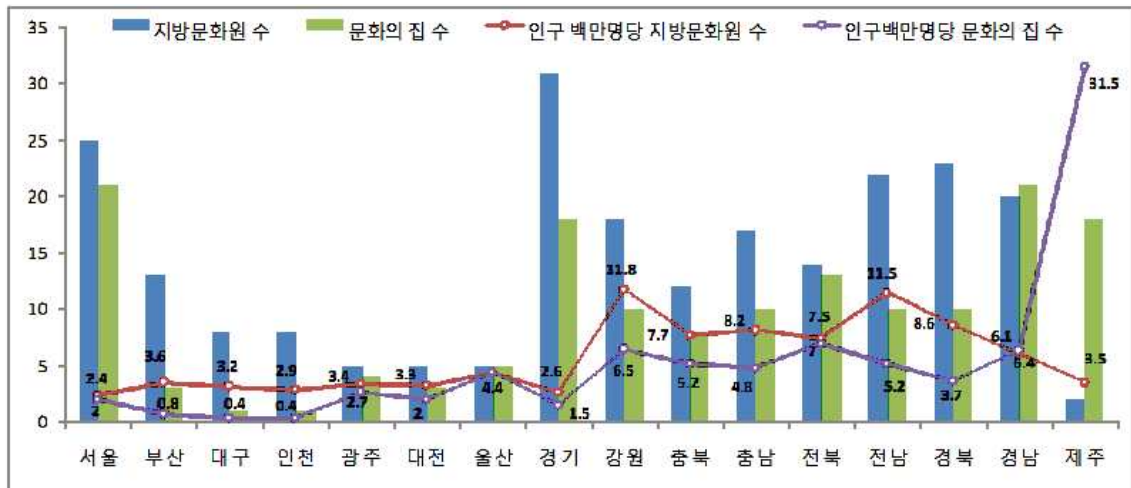
경 북	23	8.6	116,953	10	3.7	268,992
경 남	20	6.1	164,526	21	6.4	156,692
제 주	2	3.5	285,627	18	31.5	31,736
전국	228	4.5	221,559	156	3.1	323,818

자료1) 2011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문화체육관광부, 2011(2010.12.31 기준))

자료2) 문화의 집 : 한국문화의집협회 홈페이지

[그림 5.1.2.6] 지역인구 백만명당 지방문화원·문화의 집 수

(단위: 관)



5.1.2.7 방송시설(방송국)

- 『전국사업체조사』에 따르면 2009년 기준으로 전국 방송국의 수는 총 649개에 달하며, 라디오 방송국이 59개, 지상파 방송국이 100개, 유선방송과 위성 및 기타 방송국이 490개로 나타남
 - 인구 백만명 당 방송국의 수는 13개로 나타남
- 지역별로는 서울(111개)에 가장 많은 방송국이 분포되어 있으며, 전남이 72개, 강원이 64개, 경북이 60개로 나타남
- 한편 지역인구 백만명 당 방송국의 수는 강원이 42.3개로 가장 많으며, 전남이 37.6개, 충북이 34개로 나타남
 - 지역인구 백만명 당 방송국의 수가 작게 나타나는 지역은 인천(7.7개), 대전(8.1개), 부산(8.2개)로 나타남
- 방송국 유형별로 살펴보면 기타 방송국(유선방송과 위성 및 기타방송국)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 지상파 방송국의 경우 서울과 강원 지역에 각 16개, 경기지역이 10개로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음

[표 5.1.2.7] 지역별 방송시설의 수(2009년 기준)

(단위: 개)

지역	방송국					지역인구 백만 명 당 시설 수	시설 수 대비 인구수
	라디오	지상파	유선	위성 및 기타	계		
서울	11	16	72	12	111	10.9	91,966.7
부산	6	3	19	1	29	8.2	122,173.4
대구	4	4	19	2	29	11.6	85,854.5
인천	2	3	*16		21	7.7	129,075.2
광주	7	3	5	1	16	11.2	89,602.5
대전	3	4	4	1	12	8.1	123,681.7
울산	2	3	*7		12	10.8	92,905.5
경기	2	10	36	2	50	4.4	229,212.2
강원	5	16	41	2	64	42.3	23,638.6
충북	2	6	42	2	52	34.0	29,374.6
충남	2	5	22	1	30	14.7	67,919.4
전북	3	5	23	1	32	17.3	57,953.4
전남	2	6	60	4	72	37.6	26,569.5
경북	3	7	47	3	60	22.5	44,497.9
경남	2	6	39	3	50	15.4	65,003.5
제주	3	3	2	1	9	16.0	62,518.1
전국	59	100	490		649	13.0	76,69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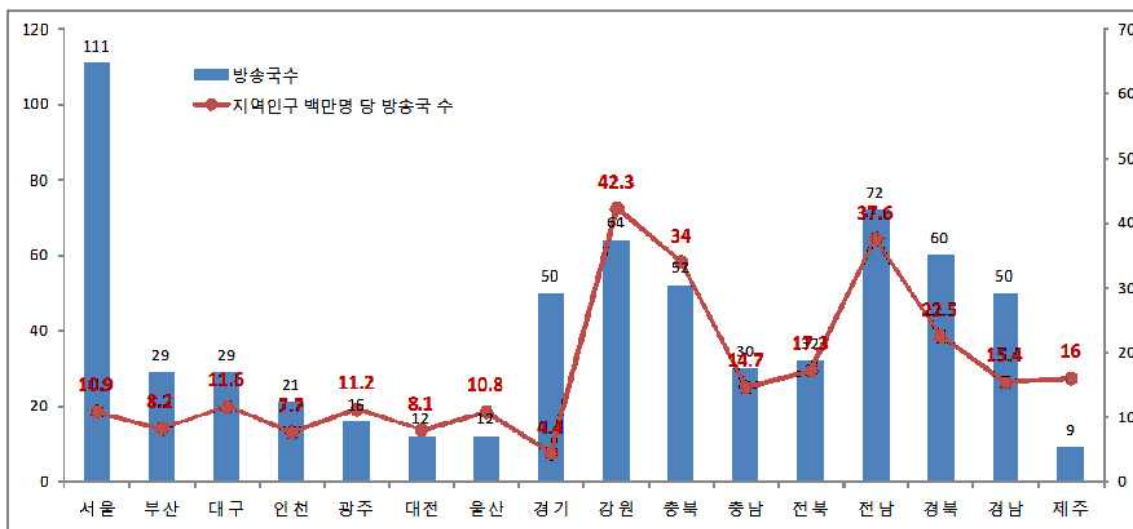
자료 : 전국사업체조사(통계청, 2009)

주1) * : 해당 지역의 경우 유선방송국과 위성 및 기타 방송국의 구분이 없이 '유선, 위성 및 기타 방송업'으로 제시됨

주2) 인구백만명당 시설 수= (계/주민등록인구수)*100, 시설 수 대비 인구수=주민등록인구수/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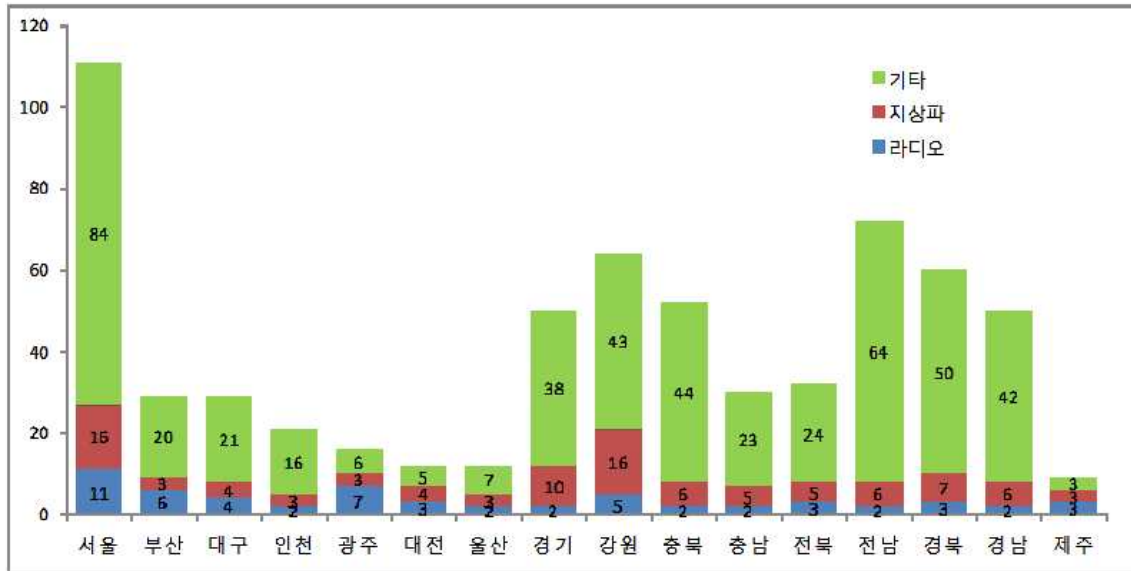
[그림 5.1.2.7.1] 지역별 방송국의 수와 지역인구 백만명 당 방송국의 수(2009년 기준)

(단위: 개)



[그림 5.1.2.7.2] 지역별 방송국의 수와 구성(2009년 기준)

(단위: 개)



5.1.2.8 복합문화시설(문예회관)

- 『2011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전국의 문예회관 수는 193관이며, 인구 백만 명당 문예회관 수는 3.8관, 문예회관 당 인구 수는 261,739명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는 경기 지역이 26관, 경북지역이 23관으로 가장 많은 문예회관이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원, 전북, 경남은 각 17관, 서울, 전남은 각 16관, 충남은 15관으로 나타남
 - 반면 대전(2관), 울산과 제주(3관), 인천(5관) 지역은 문예회관이 가장 적게 분포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지역인구 백만 명당 문예회관 수는 강원이 11.1관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전북이 9.1관, 경북이 8.6관, 전남이 8.3관, 충북이 7.7관, 충남이 7.2관으로 높게 나타남
 - 지역인구 백만 명 당 문예회관의 수가 가장 낮게 나타난 지역은 대전(1.3관), 서울(1.6관), 부산(2관)임

[표 5.1.2.8] 지역별 문예회관의 수(2010년 기준)

(단위 : 관, 명)

	2009년				2010년		
	문예회관 수	광역자치단체 설립	기초자치단체 설립	교육기관	문예회관 수	백만명당 문예회관 수	관 당 인구 수
서울	13	1	12	-	16	1.6	644,534
부산	7	2	5	-	7	2.0	509,701
대구	8	1	7	-	8	3.2	313,960
인천	5	2	3	-	5	1.8	551,6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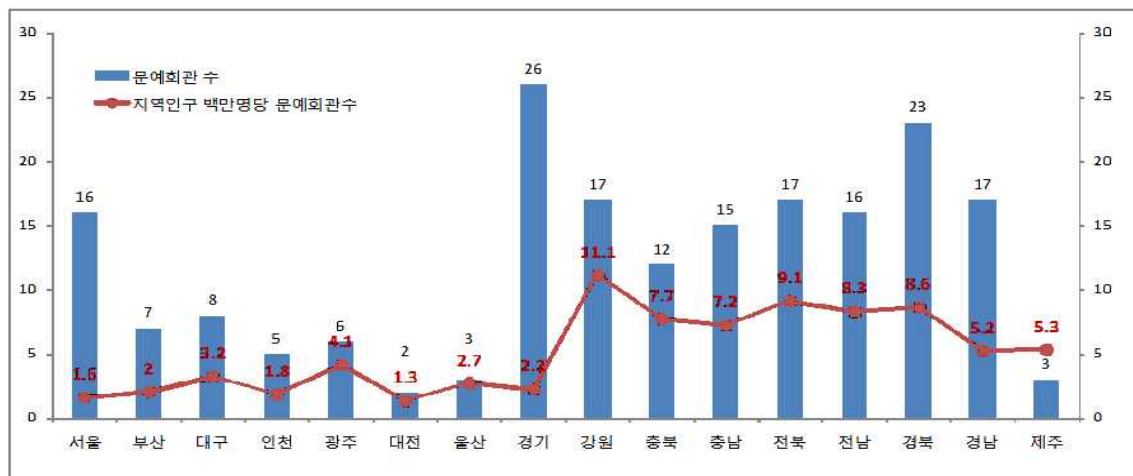
광주	5	1	4	-	6	4.1	242,439
대전	2	1	1	-	2	1.3	751,832
울산	3	1	2	-	3	2.7	375,433
경기	26	1	25	-	26	2.2	453,332
강원	14	-	14	-	17	11.1	89,989
충북	11	-	11	-	12	7.7	129,127
충남	15	-	15	-	15	7.2	138,368
전북	17	3	13	1	17	9.1	109,939
전남	14	-	14	-	16	8.3	119,905
경북	20	-	20	-	23	8.6	116,953
경남	17	1	16	-	17	5.2	193,561
제주	1	1	-	-	3	5.3	190,418
전국	178*	15	162	1	193	3.8	261,739

자료1) 2010 문예회관 운영현황 조사(예술경영지원센터, 2010(2009년 기준))

자료2) 2011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문화체육관광부, 2011(2010.12.31 기준))

주) 2009년 조사대상 문예회관은 182개였으나 공연장이 없는 문예회관3개와 2010년 1월에 개관한 문예회관 1개를 제외하여 작성됨

[그림 5.1.2.8] 지역별 문예회관 수와 지역인구 백만명 당 문예회관 수(2010년 기준) (단위: 관)



5.1.3 해외 주요국과의 비교 : 문화시설의 수

5.1.3.1 공공도서관

- 이하에서는 해외 국가들의 도서관 중에서도 신뢰성이 높은 편에 해당하는 공공도서관의 수를 비교하고자 함
- 공공도서관의 수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에 따라 각국 공공도서관의 수가 달라지게 됨
 - 공공도서관은 본관(central libraries)과 분관(branches), 그리고 이동도서관(book-mobile)을 구성요소로 가지게 되는데, 이들 구성요소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에 따라서 공공도서관의 수는 다르게 볼 수 있기 때문임

- 한국의 경우 본관과 분관을 합하여 공공도서관 통계를 내고 있으며, 이동도서관의 경우 별도로 집계하고 있음(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 일본의 경우 역시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본관과 분관을 합하여 공공도서관 통계를 내고 있음(社會教育調査, 文部科學省)
 - 한편 미국의 경우 주 및 지방정부 법상 공공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개체(administrative entity)를 기준으로¹⁰⁾ 공공도서관 통계를 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본관, 분관, 이동도서관이 포함되어 집계됨(Public Libraries Survey Fiscal Year, IMLS)
 - 프랑스의 경우 공공도서관 통계가 나타나 있기는 하지만, 본관, 분관, 이동도서관을 어떻게 포함시켰는지 여부는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 않음(Chiffres Cles, Ministere de la Culture et de la Communication)
 - 독일의 경우 DBS(Deutsche Bibliotheksstatistik)에 참여한 도서관만을 대상으로 집계하고 있으며, 역시 본관, 분관, 이동도서관의 포함 여부는 분명히 나타나 있지 않음
 - 영국의 경우 공공도서관을 본관, 분관, 이동도서관까지 모두 포함하여 서비스점(service point)으로 통계를 집계하고 있음(Libraries, Archives, Museums and Publishing Online Statistics Tables, LISU)
- 이렇게 각국에서 공공도서관을 집계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가능한 동일한 기준에서 각국 도서관시설의 수를 비교하기 위해 두 가지 방법으로 비교를 수행함
- 첫째, 공식적으로 발표된 공공도서관의 수임. 그러나 각국마다 공공도서관의 수를 집계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과소 혹은 과대평가의 여지가 있음
 - 둘째, 도서관 본관, 분관, 이동도서관을 모두 합계한 서비스점(service point)을 기준으로 한 공공도서관의 수임. 영국과 미국의 경우 이동도서관을 중요한 공공도서관의 일부로 포함하고 있으며, 일반 국민들에게는 물리적 시설의 유무보다는 공공도서관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접점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임
- 이러한 기준으로 2008년의 각국 공공도서관의 수를 살펴보면 아래의 [표 5.1.3.1.1]과 같음
- 미국의 경우 2008년 기준으로 공식적인 공공도서관의 수는 9,221개로 나타나며, 실제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본관의 수는 9,042개, 분관의 수는 7,629개, 이동도서관의 수는 979개로 총 서비스점(service point)의 수는 17,468개로 나타남.
 - 영국의 경우 본관, 분관, 이동도서관을 모두 합한 공공도서관 서비스점(service point)의 수는 총 4,517개로 나타남

10) 미국의 공공도서관(administrative entity)은 법적 개념의 설립체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동도서관만 가지고 있는 개체 역시 한 개의 독립적인 공공도서관으로 카운팅됨. 따라서 본관과 분관의 합으로 나타난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 수와는 차이가 있음

- 프랑스의 경우 공공도서관의 수는 총 4,398개로 나타남
- 독일의 경우 DBS에 참여한 공공도서관의 수는 8,548개로 나타나며, 서비스점의 수는 10,365개로 나타남
- 일본의 경우 본관은 1,899개, 분관은 1,266개, 이동도서관은 589개, 이들을 모두 합한 서비스점의 수는 총 3,734개로 나타남
- 한국의 경우 본관은 503개, 분관은 141개, 이동도서관은 155개로 총 서비스점의 수는 799개로 나타남
- 각국의 인구수를 고려하여 인구 백만명 당 공공도서관의 수를 살펴본 결과 독일이 104.2개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프랑스가 70.6개, 미국이 30.3개, 일본은 24.8개, 한국은 14.1개로 나타남
- 독일의 경우 인구 백만명 당 공공도서관의 수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8,548개의 공공도서관 중 전임직원이 아닌 파트타임/자원봉사자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소규모 도서관이 6,410개로 전체의 75% 가량을 차지하고 있음
- 한편 백만명 당 공공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점(service point)의 수 역시 독일이 124.4개로 가장 크게 나타나며, 영국이 73.6개, 미국이 57.3개, 일본이 29.2개, 한국이 16.4개로 나타남
- 즉 해외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2008년 기준으로 백만명 당 공공도서관의 수 및 백만명 당 서비스점의 수에 있어 6개 비교국가 중 한국이 가장 낮게 나타남

[표5.1.3.1.1] 국가별 공공도서관 수 비교(2008년 기준)

(단위: 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공공도서관	9,221	...	4,398	8,548	3,165	685
본관	9,042	1,899	503
분관	7,629	1,266	141
이동도서관	797	569	155
서비스점(service point)	17,468	4,517	...	10,365	3,734	799
백만 명 당 공공도서관 수	30.3	...	70.6	104.2	24.8	14.1
백만 명 당 서비스점 (service point)	57.3	73.6	...	124.4	29.2	16.4

자료1) 미국 - Public Libraries Survey(Institute of Museum and Library Services(MLS); Fiscal year 2008)

자료2) 영국 - LAMPOST(Libraries, Archives, Museums and Publishing Online Statistics Tables) (LISU;2008/09)

자료3) 프랑스 - Chifres Clés(Ministry of Culture and Communication; 2008)

자료4) 독일 - German Library Statistics(Deutsche Bibliotheksstatistik(DBS); 2008)

자료5) 일본 - Social Education Survey(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2008)

자료6) 한국 - 국가도서관통계(문화체육관광부; 2008)

주1) 각국의 인구수는 통일성을 위하여 IMF 인구통계를 참고함

주2) 미국은 회계연도(보통 당해 연도 10월 1일부터 익년도 9월 30일까지)를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음. 본 표에서는 회계연도를 역년과 동일하게 평가하여 계산함. 영국은 회계 연도(영국의 경우 보통 당해 연도 4월 1일부터 익년도 3월 31일 까지)를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음. 본 표에서는, 2006/07의 경우 2006년과 동일한 기간으로 평가함

주3) 미국 American Library Association(ALA)은 도서관의 종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음(Academic libraries: 대학 교육과정의 학생, 직원, 교수에 서비스 제공 / Public libraries: 지역사회 등 공중을 위해 서비스 제공 / School libraries:

유치원부터 grade 12 단계까지를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 Special libraries: 기업, 병원, 군대, 박물관, 정부 등 특수한 분야의 정보를 위한 자료를 제공함 (<http://www.ala.org/ala/educationcareers/careers/librarycareerssite/typesoflibraries.cfm>) IMLS는 공공도서관의 세부요건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음. 공공도서관은 주(state)의 법 혹은 규정에 의해 설립되어 지역사회에 최소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임 (1)인쇄 혹은 다른 형태의 정리된 도서관 자료, (2)임금을 지급받는 직원, (3)공공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의 확정된 스케줄, (4)이러한 수집품, 직원, 스케줄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시설물, (5) 전체 혹은 부분적인 공공 재원의 지원

주4) 일본 도서관법(図書館法) 제2조(정의)에 의하면, 도서관은 공중의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 보존하는 시설을 뜻하며 이 중에서 학교에 부속하는 도서관 또는 도서관실은 제외됨.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도서관을 공립도서관(公立図書館), 일본적십자사 또는 일반사단재단법인에서 설치한 도서관을 사립도서관(私立図書館)으로 분류하고 있음. 도서관에 관한 통계조사가 실시되는 『사회교육조사(社会教育調査)』는 3년에 한 번씩 실시함

주5) 한국은 도서관의 종류에 대해 도서관법 제2조에 의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음¹⁾. 병원이나 병영 등 특수한 환경에 설립된 도서관이라 하더라도, 그 목적과 대상에 따라 공공도서관과 전문도서관으로 분류됨. 예를 들어, 병원에 있는 도서관의 경우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사람이나 보호자 등에게 도서관서비스 제공(도서관법 제2조 제4항)”의 목적이면 공공도서관으로, 의료인을 대상으로 학술 및 연구활동에 대한 전문지식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전문도서관으로 분류됨

[표 5.1.3.1.2] 국가별 공공도서관 서비스점(service point)의 수 비교 (단위: 관)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한국	
	수	백만 명당	수	백만 명당	수	백만 명당	수	백만 명당	수	백만 명당
2007	17,412	57.7	4,540	74.5	10,365	126.1			816	16.8
2008	17,468	57.3	4,517	73.6	10,201	124.4	3,734	29.2	799	16.4
2009	17,469	56.8			10,021	122.6			844	17.3

자료1) 미국 - Public Libraries Survey(Institute of Museum and Library Services(MLIS); Fiscal year 2006-2009)

자료2) 영국 - LAMPOST(Libraries, Archives, Museums and Publishing Online Statistics Tables) (LISU;2006/07-2008/09)

자료3) 독일 - German Library Statistics(Deutsche Bibliotheksstatistik(DBS); 2006-2009)

자료4) 일본 - Social Education Survey(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2008)

자료5) 한국 - 국가도서관통계(문화체육관광부; 2006-2009)

주1) 각국의 인구수는 통일성을 위하여 IMF 인구통계를 참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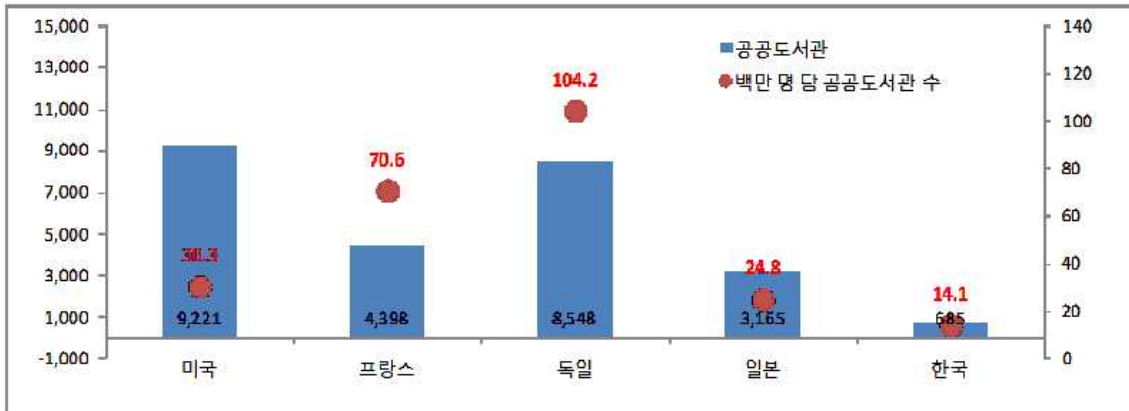
주2) 공공도서관 service point는 본관(central libraries), 분관(branch), 이동도서관(bookmobile) 수를 포함하는 수(미국 -number of outlets, 기타국가-service points)를 의미함

11)

구분	정의	종류
공공도서관	공중의 정보이용·문화활동·독서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 또는 법인, 단체 및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	일반, 어린이, 작은도서관(문고), 장애인, 병원, 병영, 교도소
대학도서관	대학교육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학생, 직원에게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학교도서관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 직원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전문도서관	설립 기관·단체의 소속 직원 또는 공중에게 특정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학술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제7장 제41조 1항))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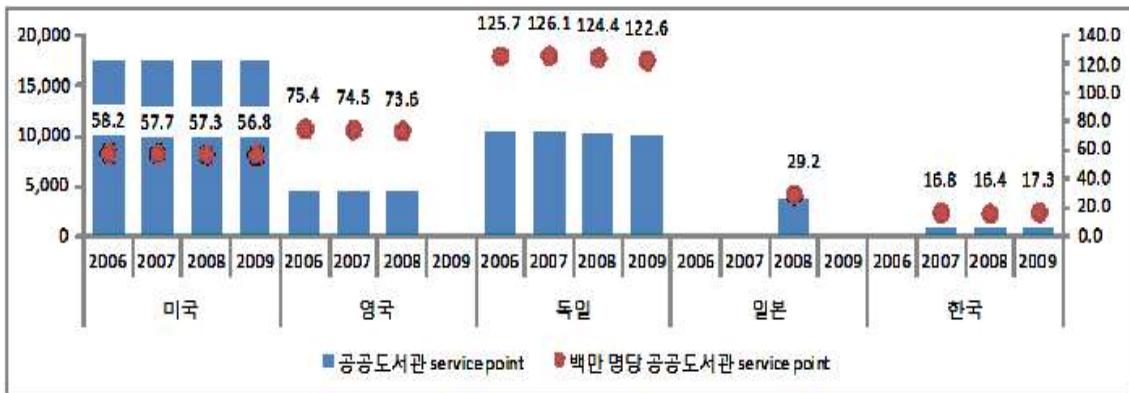
[그림 5.1.3.1.1] 국가별 공공도서관의 수(2008년 기준)

(단위: 권)



[그림 5.1.3.1.2] 국가별 공공도서관 서비스점(service point)의 수 비교

(단위: 권)



5.1.3.2 박물관·미술관

- 대부분의 국가에서 박물관과 미술관을 분리하여 조사하지 않고 두 시설을 포함하여 '박물관(museum)'이라는 범주로 조사하고 있음
- 한국의 경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서 박물관 자료를 “박물관이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역사·고고·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인간과 환경의 유형적·무형적 증거물로서 학문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미술관 자료란 “미술관이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예술에 관한 자료로서 학문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에 부합하는 박물관 중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가 아닌 타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박물관이 존재함
- 한편 유럽 국가들의 박물관 통계를 담고 있는 EGMUS(European Group on Museum Statistics)에서는 박물관을 미술관(art museum), 고고학 및 역사박물관(archaeology

& history museum), 과학기술 및 민속박물관(science & technology museum, ethnology museums), 기타 박물관(specialized, regional, general, other museum)으로 나누어 조사하고 있음

- 영국의 경우 기존에는 박물관 등록 체계(registration scheme)에 포함된 박물관을 집계하다가 2004년부터 승인 체계(accreditation scheme)로 변화한 이후 등록박물관과 승인박물관에 대해 집계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문부과학성(文部科學省)에서 공표하는 사회교육조사(社會教育調査)에서 박물관을 등록박물관, 박물관상당시설, 박물관유사시설로 구분하고 있으며, 박물관의 유형을 종합박물관, 과학박물관, 역사박물관, 미술박물관, 야외박물관, 동물원, 식물원, 동식물원, 수족관 등으로 나누어 집계하고 있음
- 미국의 IMLS(Institute of Museum & Library Service)에서 작성한 박물관의 정의에도 수족관, 식물원, 동물원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
- 이러한 국제적 통계작성기준으로 인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미술관이나 역사박물관 등 이외에도 식물원이나 동물원, 수족관 등을 포함하여 박물관의 수를 집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을 일부 배제한 한국의 박물관 수는 과소평가 가능성이 있음

○ 해외 주요국의 박물관(미술관 포함)의 수는 아래의 [표 5.1.3.2]와 같이 나타남

- 먼저 미국의 경우 2002년 기준 박물관 수는 17,744개로 나타남(IMLS, 2008). 한편 Museums USA 홈페이지에 제공하고 있는 박물관의 수는 2011년 현재 22,517개로 나타나 두 자료 상 격차가 크게 나타남¹²⁾. 다만, IMLS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료의 공신력이 더 크다는 점에서 여기에서는 IMLS자료로 분석을 수행함
- 영국의 경우 2010년 기준으로 MLA(The Museums, Libraries and Archives Council)에서 작성하는 승인박물관이 1,794개, 포함되지 않는 것이 1개로 총 1,795개로 나타남
- 프랑스의 경우 2010년 기준으로 박물관(미술관 포함)의 수는 총 1,212개로 나타남
- 스페인의 경우 2010년 기준으로 미술관 및 고고학, 역사박물관의 수가 717개, 그 외 박물관의 수가 762개로 총 1,479개로 나타남
- 독일의 경우 2006년 기준으로 미술관 및 고고학, 역사박물관의 수가 2,235개로 나타났으며, 그 외 박물관의 수는 3,940개로 총 6,175개로 나타남
- 일본의 경우 2008년 기준으로 미술박물관의 수가 787개, 그 외 박물관의 수가 3,928개로 총 4,715개로 나타남
- 한국의 경우 2010년 기준으로 미술관의 수는 145개, 박물관의 수는 655개로 총 수는 800개로 나타남
- 요컨대 박물관(미술관 포함)의 수는 미국, 독일, 일본, 영국, 스페인, 프랑스, 한국의 순으로 나타남

12) <http://www.museumusa.org/museums/>(미등록

- 각국의 인구수를 고려하여 인구 백만명 당 박물관(미술관 포함)의 수를 살펴본 결과 독일이 75.1관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미국이 61.6관, 일본이 36.9관, 스페인이 32.1관, 영국이 28.8관, 프랑스가 19.3관으로 나타남
- 한국은 16.4관으로 비교 대상 국가 중 백만명당 박물관(미술관 포함)의 수가 가장 작게 나타남

[표 5.1.3.2] 주요 국가의 박물관 미술관 현황

(단위: 관)

		미술관*	박물관	박물관 + 미술관	인구백만명당 박물관+미술관
한국	2008	128	579	707	14.5
	2009	141	630	771	15.8
	2010	145	655	800	16.4
미국	2002	-	-	17,744	61.6
영국	2010	-	-	1,795	28.8
프랑스	2010	-	-	1,212	19.3
스페인	2010	717	762	1,479	32.1
독일	2006	2,235	3,940	6,175	75.1
일본	2008	787	3,928	4,715	36.9

자료1) 미국 : Exhibiting Public Value : Government Funding for Museums in the United States December(MLS, 2008)

자료2) 영국 - statistical Report : Accreditation (MLA)의 2010년 11월 기준

자료3) 프랑스 - Chiffres Clés 2011

자료4) 스페인, 독일 - [EGMUS : <http://egmus.eu>]

자료5) 인구 : IMF 각년도 인구통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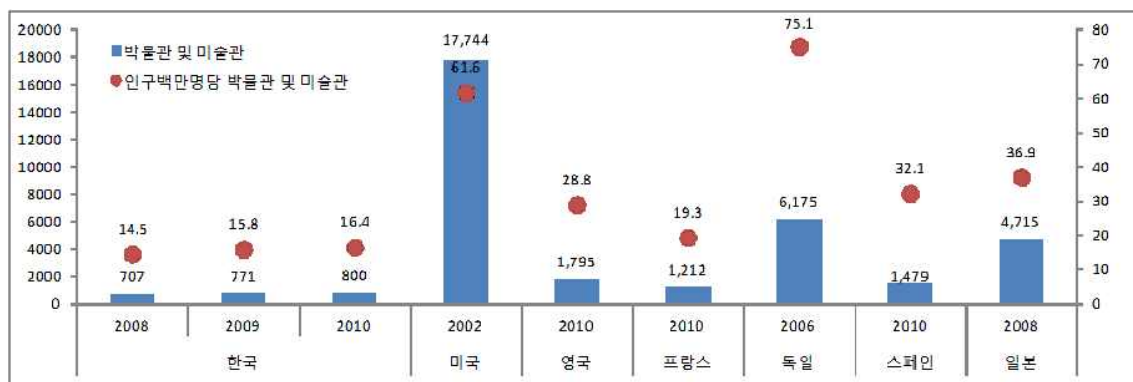
자료6) 일본 - 독립행정법인 일본통계센터, 문부과학성 사회교육조사

주1) * 미술관의 수에는 미술관, 고고학박물관, 역사박물관 포함

주2) 일본의 경우 등록박물관, 박물관상당시설, 박물관유사시설 포함

[그림 5.1.3.2] 주요 국가의 박물관 미술관 현황 및 인구 백만명당 시설 수

(단위: 관)



5.1.3.3 영화관¹³⁾

13) 스크린 수와 좌석 수는 문화시설의 기능별 규모에 해당하나 비교의 편의를 위해 문화시설의 수에 함께 수록함

- UNESCO의 Cinema Statistics자료에 따르면 영화관의 수는 2009년 기준으로 미국이 6,039관으로 가장 많으며, 프랑스가 1,939관, 독일이 1,744관, 영국이 723관, 일본이 678관, 한국이 305관으로 나타남
- 각국 인구 수를 고려할 경우 인구 백만 명 당 영화관의 수는 2009년 기준 프랑스가 31관으로 가장 많으며, 독일이 21.3관, 미국이 19.6관, 영국이 11.7관, 한국이 6.3관, 일본이 5.3관으로 나타남
- 한편 스크린의 수는 2009년 기준 프랑스가 5,342개, 독일이 4,734개, 미국이 39,717개, 일본이 3,396개, 한국이 2,055개로 나타남
- 반면 영화관 당 스크린의 수는 한국이 6.7개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미국이 6.6개, 영국과 일본이 5.0개, 프랑스가 2.8개, 독일이 2.7개로 나타남
- 인구 백만명 당 스크린의 수는 미국이 129.2개, 프랑스가 85.3개, 영국이 59.1개, 독일이 57.9개, 한국이 42.2개, 일본이 26.6개로 나타남
- 영화관 좌석 수는 프랑스가 1,058,936석, 독일이 819,320석, 영국이 783,629석, 한국이 360,796석으로 나타남
- 영화관 당 좌석 수는 영국이 1,084석, 한국이 1,183석, 프랑스가 546석, 독일이 470석으로 나타남
- 인구 백만명 당 좌석 수는 프랑스가 16,916석, 영국이 12,680석, 독일이 10,016석, 한국이 7,409석으로 나타남

[표5.1.3.3] 국가별 영화관, 스크린, 좌석 수

(단위: 관, 개, 석)

		영화관 수		스크린 개수			좌석 수		
		전체	백만명당	전체	관 당	백만명당	전체	관 당	백만명당
미국	2006	6,356	21.3	38,415	6.0	128.5			
	2007	6,277	20.8	40,077	6.4	132.7			
	2008	6,269	20.6	40,194	6.4	131.9			
	2009	6,039	19.6	39,717	6.6	129.2			
영국	2006	697	11.5	3,440	4.9	56.8	753,896	1,082	12,441
	2007	727	11.9	3,514	4.8	57.6	765,652	1,053	12,552
	2008	726	11.8	3,610	5.0	58.8	782,070	1,077	12,737
	2009	723	11.7	3,651	5.0	59.1	783,629	1,084	12,680
프랑스	2006	2,070	33.6	5,300	2.6	86.0	1,060,074	512	17,209
	2007	1,928	31.1	5,202	2.7	83.9	1,039,253	539	16,762
	2008	1,950	31.3	5,292	2.7	84.9	1,052,895	540	16,900
	2009	1,939	31.0	5,342	2.8	85.3	1,058,936	546	16,916
독일	2006	1,431	17.4	4,848	3.4	58.9	846,513	592	10,286
	2007	1,812	22.0	4,832	2.7	58.8	836,505	462	10,176
	2008	1,793	21.9	4,810	2.7	58.7	831,913	464	10,145
	2009	1,744	21.3	4,734	2.7	57.9	819,320	470	10,016
일본	2006			3,062		24.0			
	2007	703	5.5	3,221	4.6	25.2			
	2008	691	5.4	3,359	4.9	26.3			
	2009	678	5.3	3,396	5.0	2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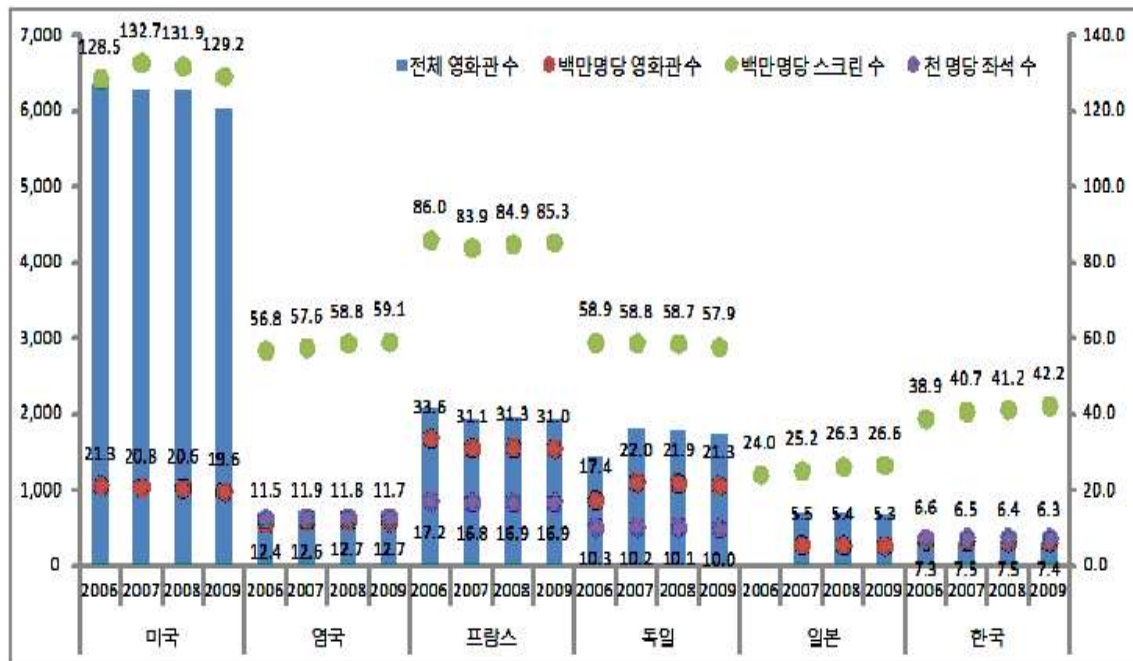
한국	2006	321	6.6	1,880	5.9	38.9	354,691	1,105	7,343
	2007	314	6.5	1,975	6.3	40.7	365,034	1,163	7,526
	2008	309	6.4	2,004	6.5	41.2	362,657	1,174	7,462
	2009	305	6.3	2,055	6.7	42.2	360,796	1,183	7,409

자료: Cinema Statistics(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2006~2009)

* 한국의 경우, Cinema Statistics 자료와 온라인영화연감(영화진흥위원회) 자료가 일치하므로 Cinema Statistics의 2006년도 결측치를 대체하기로 함

[그림 5.1.3.3] 국가별 영화관, 스크린, 좌석 수

(단위: 관, 개, 석)



5.1.3.4 문예회관

- 해외 주요국의 문예회관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많지 않음
- 다만 일본의 경우 문부과학성이 작성하는 『사회교육조사』에 문화회관조사항목이 있어 일본과 한국의 문예회관 수를 비교함
 - 일본 사회교육조사의 문화회관(文化會館)은 지방 공공단체, 독립 행정 법인 및 민법 법인, 영리 법인 등이 설치하는 문화회관(극장, 시민회관, 문화센터 등), 음악, 연극, 무용 등 주로 공연 예술을 위한 고정 좌석 300석 이상의 홀을 가진 시설을 뜻함
 - 한편 한국의 문예회관은 문화예술진흥법, 공연법상 문화시설(공연, 전시, 문화 보급, 문화 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3 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건립비 일부를 지원한 문예회관을 의미함
 - 이 경우 일본의 문화회관과 우리나라의 문예회관의 개념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여기

에서는 지방문화원과 문화의 집을 포함한 수를 또 다른 기준으로 삼아 비교를 수행함

- 2008년 기준으로 일본의 문화회관 수는 1,893관이며 한국의 경우 문예회관은 167관, 지방문화원은 223개, 문화의 집은 147개로 나타나 총 수는 537개로 나타남
- 한편 각국 인구 수를 고려한 인구 백만 명당 문화회관 수는 일본이 14.8관으로 나타남
 - 한국의 경우 인구 백만명 당 문예회관의 수는 3.4관으로 나타났으며, 문예회관과 지방문화원, 문화의 집을 모두 포함한 수는 11관으로 나타남

[표 5.1.3.4] 국가별 문예회관 수

(단위: 관)

2008년		문화회관	인구 백만명당 문화회관 수
일본	문화회관	1,893	14.8
한국	지방문화원	223	-
	문화의집*	147	-
	문예회관	167	3.4
	계(문예회관+문화원+문화의 집)	537	11

자료1) 일본 - Social Education Survey(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2008)

자료2) 한국 - 문예회관운영현황조사(예술경영지원센터; 2009(2008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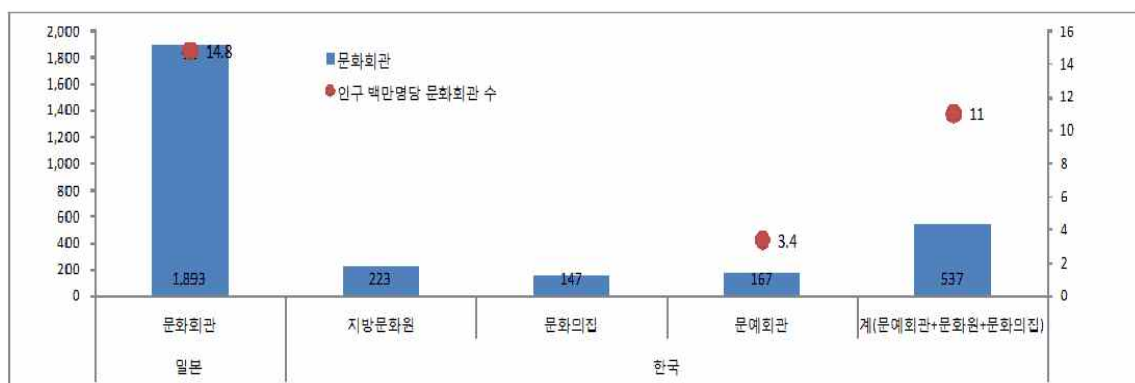
주1) 일본 사회교육조사의 문화회관(文化會館) 조사 범위는 지방 공공단체, 독립 행정 법인 및 민법 법인 영리 법인 등이 설치하는 문화회관(극장, 시민회관, 문화센터 등), 음악, 연극, 무용 등 주로 공연 예술 위한 고정 좌석 300석 이상의 홀을 가진 시설을 대상으로 함

주2) 한국 문예회관운영현황조사의 문예회관 조사 범위는 문화예술진흥법, 공연법상 문화시설(공연, 전시, 문화 보급, 문화 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3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건립비 일부를 지원한 문예회관

주3) 한국 문화의 집은 2008년 수치가 없어 2009년 수치로 대체함

[그림 5.1.3.4] 국가별 문예회관 수

(단위: 관)



5.2. 문화시설의 기능별 규모

5.2.1 도서관

- 도서관의 일차적인 기능은 도서의 열람 및 대출이므로 여기에서는 도서자료의 수와 열람석 수를 통해 도서관의 기능별 규모를 파악하도록 함
-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에 따르면 전국의 총 도서자료 수는 67,748,982권이며, 도서관 당 도서자료는 89,261권, 인구 일인당 도서자료 수는 1.3권에 해당함
 - 도서자료의 총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지역은 경기(17,990천권)와 서울(8,354천권)이며, 울산(1,091천권), 제주(1,771천권), 광주(1,794천권)의 도서자료 총 수가 작게 나타남
 - 관 당 도서자료의 수가 크게 나타나는 지역은 부산(117,140권), 광주(112,150권), 경기(110,370권)이며, 전북(68,600권) 지역의 관 당 도서자료의 수가 작게 나타남
 - 지역주민 일인당 도서자료의 수는 제주(3.1권)와 강원(2.4권), 전남(2.2권)에서 크게 나타나는 반면 서울(0.8권), 인천(0.9권), 부산 및 울산(1.0권)에서 작게 나타남
- 한편 도서관 당 연간 증가책 수는 총 5,625권이며, 인구 일인당 연간 증가책 수는 0.08 권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관 당 연간 증가책 수가 높게 나타나는 지역은 경기(8,730권), 인천(7,853권), 서울(7,131권) 지역이며, 대전(1,869권)의 관 당 연간 증가책 수가 가장 낮게 나타남
 - 지역주민 일인당 연간 증가책 수가 높게 나타나는 지역은 제주(0.2권), 강원(0.13권), 경기(0.12권)이며, 대구와 대전(0.03권), 부산(0.04권)의 일인당 연간 증가책 수가 가장 작게 나타남
- 열람석 수는 총 319,323석이며 관 당 열람석 수는 421석, 인구 천 명당 열람석 수는 6.3석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열람석 수가 많은 지역은 경기(77,201석), 서울(37,680석), 경북(23,154석)으로 나타남
 - 관 당 열람석 수가 높게 나타나는 지역은 광주(811석), 부산(561석), 인천(542석)임
 - 한편, 인구 천 명당 열람석 수가 많은 지역은 제주(14.1석), 전남(10.6석), 강원(10.3석)으로 나타남
- 제주도는 인구대비 도서자료 수(일인당 3.1권)와 열람석 수(천 명당 14.1석)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나타남

[표 5.2.1] 지역별 공공도서관 기능별 규모 현황(2010년 기준)

(단위: 권, 석)

	도서자료 수					열람석 수		
	총 수	관 당	일인당	관 당 연간 증가책 수	일인당 연간 증가책 수	총 수	관 당	천 명당
서울	8,354,399	82,717	0.8	7,131	0.07	37,680	373	3.7
부산	3,514,247	117,142	1.0	4,659	0.04	16,816	561	4.7
대구	2,762,505	106,250	1.1	2,756	0.03	11,740	452	4.7
인천	2,396,288	92,165	0.9	7,853	0.07	14,088	542	5.1
광주	1,794,391	112,149	1.2	5,033	0.06	12,973	811	8.9
대전	2,033,139	92,415	1.4	1,869	0.03	11,818	537	7.9
울산	1,090,762	99,160	1.0	6,977	0.07	5,214	474	4.6
경기	17,990,419	110,371	1.5	8,730	0.12	77,201	474	6.5
강원	3,746,210	79,707	2.4	4,248	0.13	15,792	336	10.3
충북	2,299,616	71,863	1.5	3,592	0.07	8,372	262	5.4
충남	3,643,308	71,437	1.8	2,334	0.06	19,914	390	9.6
전북	3,087,078	68,602	1.7	3,877	0.09	15,897	353	8.5
전남	4,204,686	73,766	2.2	3,097	0.09	20,371	357	10.6
경북	4,346,613	74,942	1.6	4,530	0.10	23,154	399	8.6
경남	4,714,109	88,945	1.4	6,645	0.11	20,236	382	6.1
제주	1,771,212	84,343	3.1	5,387	0.20	8,057	384	14.1
전국	67,748,982	89,261	1.3	5,625	0.08	319,323	421	6.3

자료 : 2011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문화체육관광부, 2011(2010.12.31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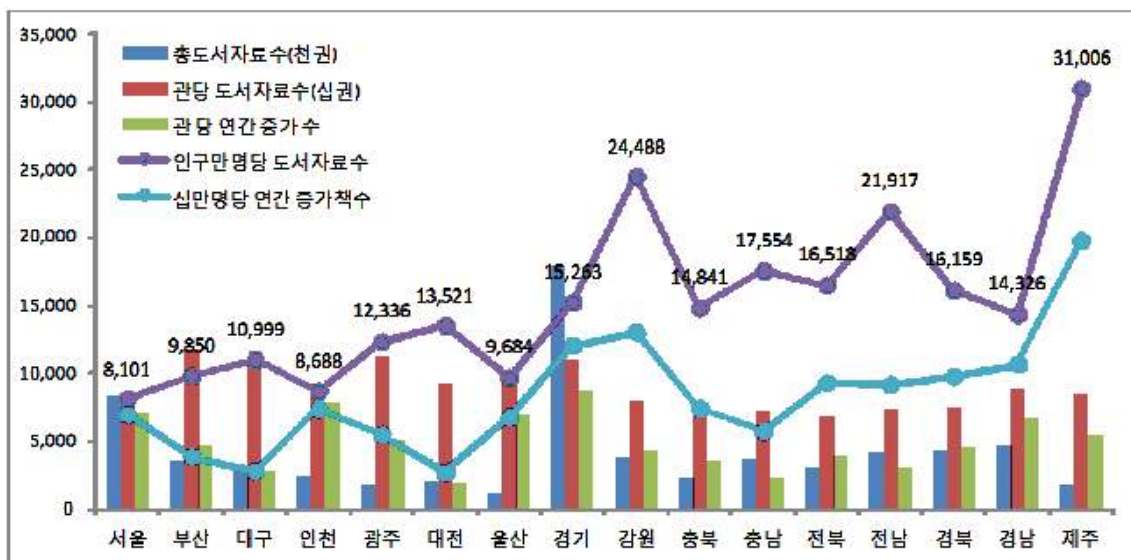
주1) 본 수치는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원자료를 바탕으로 자료 검증·수정을 실시한 결과로, 공표된 결과와 다를 수 있음

주2) 공공도서관은 도서관법 제2조에 따라 문고, 장애인도서관, 병원도서관, 병영도서관, 교도소도서관 통계를 포함하나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은 자료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공공도서관에 공공(일반)도서관과 공공(어린이)도서관만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있음

주3) 공공도서관의 자료는 도서자료(인쇄), 연속간행물(종), 시청각자료(비도서)로 구분되나 연속간행물과 시청각자료는 기관마다 자료로서의 신뢰성이 부족한 관계로 도서자료 수만 파악하였음. 한편, 2011년 4월에 발간된 「2011 전국 도서관 통계조사-공공도서관, 어린이도서관 통계 항목」에서는 '소장 자료' 항목에 도서자료(인쇄자료), 고서·귀중본 및 향토자료, 비도서 자료, 전자자료, 연속간행물(인쇄자료)로 분류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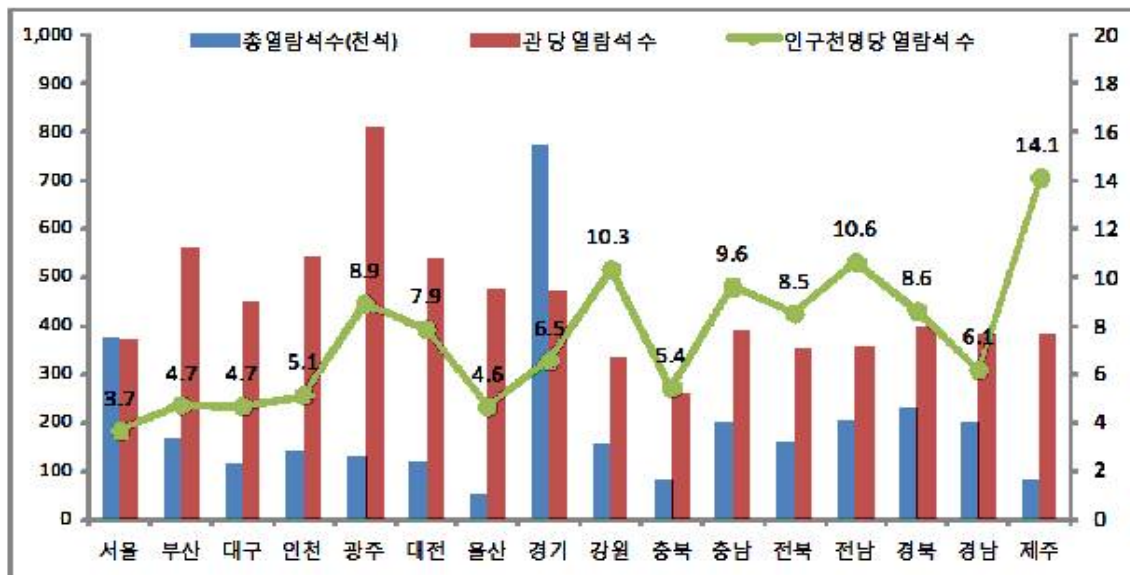
[그림 5.2.1.1] 지역별 도서자료의 수(2010년 기준)

(단위: 권)



[그림 5.2.1.2] 지역별 열람석 수(2010년 기준)

(단위: 석)



5.2.1.1 해외 주요국과의 비교 : 도서관 자료 수

-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 일본의 공공도서관 자료 수(인쇄자료, 비도서, 전자자료 포괄)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의 [표 5.2.1.1.1]과 같이 나타남
- 미국의 경우 2009년 기준 공공도서관 서비스점(service point)의 총 자료 수는 937,788천권으로 나타남, 영국은 2008년 기준 108,170천권, 일본은 378,933천권으로 나타남
- 한국의 경우 2009년 기준 70,843천권으로 나타나 비교 국가들 중 가장 작게 나타남
- 한편 공공도서관 서비스점(service point) 당 자료 수는 일본(2008년 기준)이 101.5천권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한국(2009년 기준)이 83.9천권, 미국(2008년 기준)이 53.7천권, 영국(2008년 기준)이 23.9천권으로 나타남
- 각국 인구 일인당 자료 수는 미국(2009년 기준)이 3.1권, 일본(2008년 기준)이 3천권, 영국(2008년 기준)이 1.8천권, 한국(2009년 기준)이 1.5천권으로 나타남

[표 5.2.1.1.1] 국가별 공공도서관 자료수1

(단위: 권, 천권)

연도	도서관 service point	자료수	인쇄자료		비도서		전자자료			
			도서	연속간 행물	시청각 자료	기타	전자책	데이터 베이스	전자저 널	기타
미국										
2006	17,411	907,287	807,246	1,835	86,519		11,322	297	68	
2007	17,412	920,260	812,483	1,835	92,240		13,158	387	157	
2008	17,468	930,904	816,099	1,789	98,756		13,301	401	558	
2009	17,469	937,788	815,909	1,696	103,759		15,149	397	878	
영국										

2006	4,567	111,945	103,166		8,779					
2007	4,540	110,079	101,323		8,756					
2008	4,517	108,170	99,748		8,422					
일본										
2008	3,734	378,933	372,862		1,003					5,068
한국										
2007	813	54,057	50,178	97	2,166	132	1,229	155	5	95
2008	799	61,271	55,227	109	2,251	77	1,169	2,321	26	91
2009	844	70,843	62,562	112	2,635	170	1,430	3,772	34	128

자료1) 미국 - 『Public Libraries Survey』 (Institute of Museum and Library Services(IMLS); Fiscal year 2006-2009)

자료2) 영국 - LAMPOST(Libraries, Archives, Museums and Publishing Online Statistics Tables)(LISU;2006/07-2008/09)

자료3) 일본 - Social Education Survey(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2008)

자료4) 한국 - 국가도서관통계(문화체육관광부; 2006-2009)

주1) 각국의 인구수는 통일성을 위하여 IMF 인구통계를 참고함

주2) 미국의 자료는 도서(print materials), 청각(audio), 시각(video), 연속간행물(current print serial subscriptions), 전자책(electronic books), 데이터베이스(databases), 전자저널(current electronic serial subscriptions)로 분류됨

주3) 영국은 도서(books)와 시청각(audio-visual)에 대한 정보가 있음

주4) 일본은 장서(蔵書冊数), 음반(レコード), 녹음자료(録音テープ), CD(コンパクトディスク)에 대한 정보가 있음

[표 5.2.1.1.2] 국가별 공공도서관 자료수2

(단위: 권, 천권)

연도		자료 수	관(service point) 당	일인당
미국	2006	907,287	52.1	3.0
	2007	920,260	52.9	3.0
	2008	930,904	53.3	3.1
	2009	937,788	53.7	3.1
영국	2006	111,945	24.5	1.8
	2007	110,079	24.2	1.8
	2008	108,170	23.9	1.8
일본	2008	378,933	101.5	3.0
한국	2007	54,057	66.5	1.1
	2008	61,271	76.7	1.3
	2009	70,843	83.9	1.5

자료1) 미국 - 『Public Libraries Survey』 (Institute of Museum and Library Services(IMLS); Fiscal year 2006-2009)

자료2) 영국 - LAMPOST(Libraries, Archives, Museums and Publishing Online Statistics Tables)(LISU;2006/07-2008/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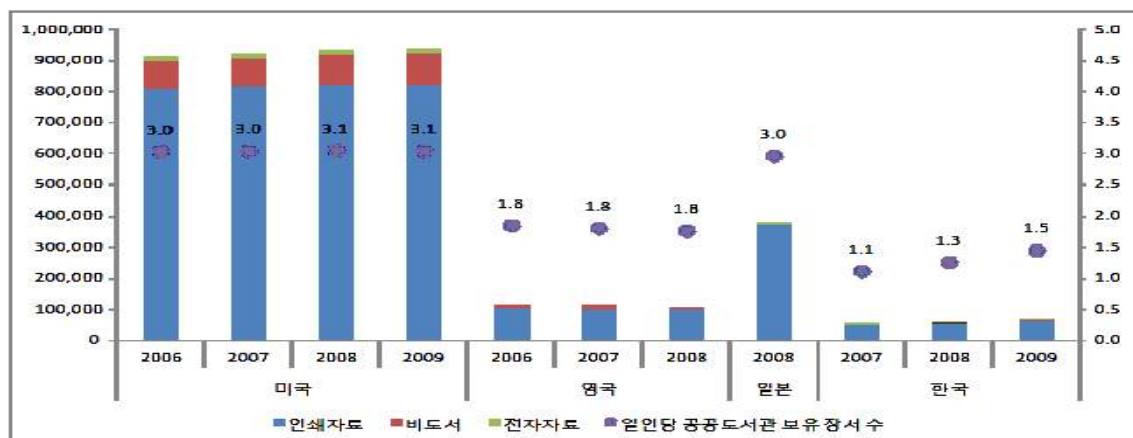
자료3) 일본 - Social Education Survey(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2008)

자료4) 한국 - 국가도서관통계(문화체육관광부; 2006-2009)

주1) 각국의 인구수는 통일성을 위하여 IMF 인구통계를 참고함

[그림 5.2.1.1.1] 국가별 공공도서관 자료 수 및 일인당 자료 수

(단위: 천권)



5.2.2. 박물관

- 『2011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전국의 박물관 관당 연면적은 4,038.89m²이고 인구 천 명당 연면적은 51.57m²로 나타남
 - 연면적 대비 전시실 면적 비율은 43.51%이고 수장고 면적 비율은 8.92%로 나타남
- 관 당 연면적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제주지역이 10,880.55m²로 가장 크며, 서울이 834,202m², 경기도가 206,185m², 충남이 160,664m² 순으로 나타남
 - 한편 관 당 연면적이 가장 작게 나타나는 지역은 대전(1,622.03m²), 충북(1,768.78m²), 울산(1,823m²) 등으로 나타남
- 인구 천 명당 연면적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제주지역이 933.29m²로 가장 크며, 강원이 104.43m², 서울이 80.89m², 충남이 77.41m² 순으로 나타남
 - 한편 인구 천 명당 연면적이 가장 작게 나타나는 지역은 울산(11.33m²), 부산 (12.42m²), 대구(13.37m²) 등으로 나타남
- 박물관 연면적 대비 전시실 면적 비율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제주지역이 76.04%로 가장 크며, 울산 58.11%, 전북 51.78%, 전남 49.03% 순으로 나타남
 - 한편, 연면적 대비 전시실 면적 비율이 작게 나타나는 지역은 서울(27.07%), 대구 (30.47%), 광주(32.01%) 등으로 나타남
- 박물관 연면적 대비 수장고 면적 비율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 지역이 20.98%로 가장 크며, 강원 16.89%, 부산 12.94%, 광주 12.03% 순으로 나타남
 - 한편 연면적 대비 수장고 면적 비율이 작게 나타나는 지역은 인천(3.6%), 울산 (3.65%), 서울(7.43%) 등으로 나타남

[표 5.2.2.1] 지역별 박물관 면적 현황

(단위: m²,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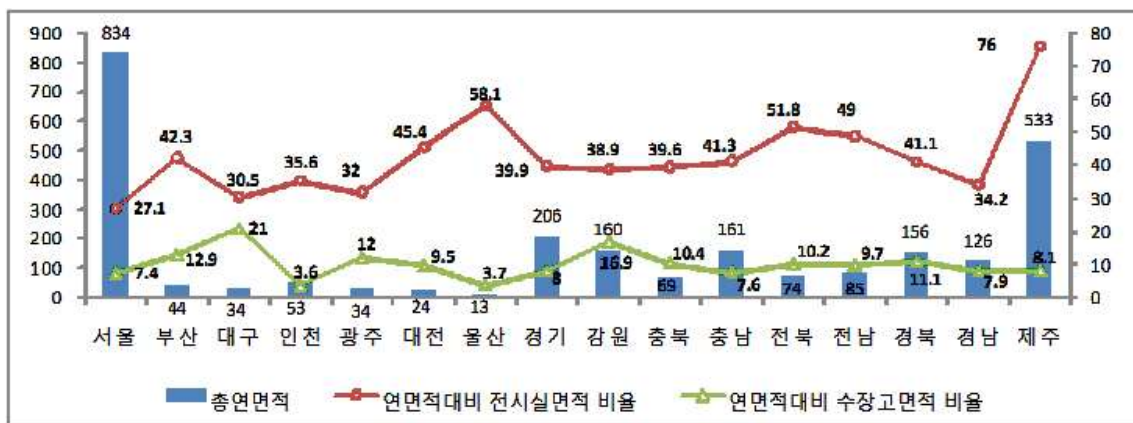
지역	등록 박물관				
	총 연면적 (m ²)	관당 연면적	인구 천명당 연면적	연면적 대비 전시실 면적 비율(%)	연면적 대비 수장고 면적 비율(%)
서울	834,202	8,021.18	80.89	27.07	7.43
부산	44,320	3,693.33	12.42	42.31	12.94
대구	33,591	3,732.30	13.37	30.47	20.98
인천	52,745	2,397.48	19.12	35.57	3.60
광주	34,062	4,257.75	23.42	32.01	12.03
대전	24,330	1,622.03	16.18	45.35	9.48
울산	12,761	1,823	11.33	58.11	3.65
경기	206,185	1,982.55	17.49	39.93	8.01
강원	159,758	2,457.81	104.43	38.89	16.89
충북	68,982	1,768.78	44.52	39.56	10.40

충 남	160,664	4,119.58	77.41	41.34	7.59
전 북	73,769	2,458.95	39.47	51.78	10.15
전 남	84,741	2,421.17	44.17	49.03	9.65
경 북	155,932	2,735.65	57.97	41.12	11.07
경 남	125,894	2,517.88	38.26	34.20	7.93
제 주	533,147	10,880.55	933.29	76.04	8.06
전국	2,605,082	4,038.89	51.57	43.51	8.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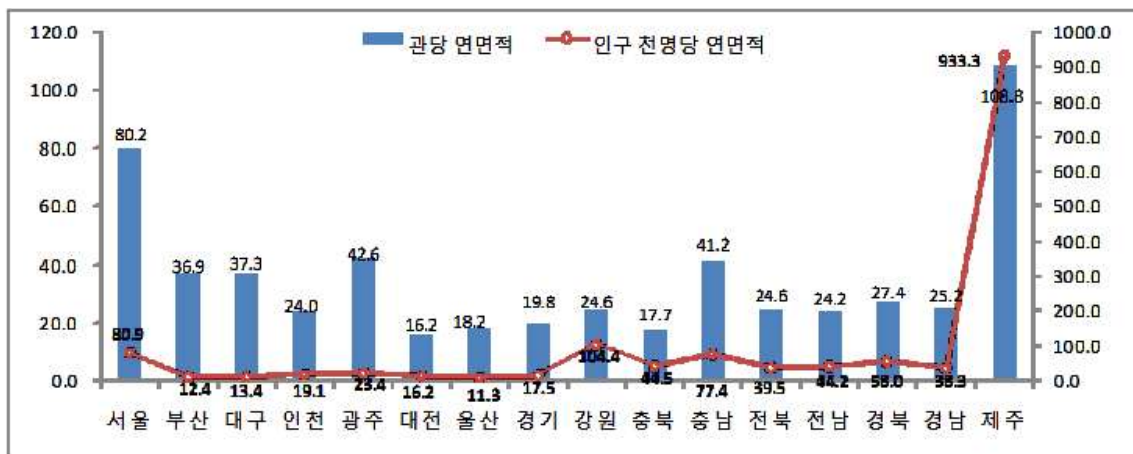
자료 : 2011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문화체육관광부, 2011(2010.12.31 기준))

주1) 본 수치는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원자료를 바탕으로 자료 검증 및 수정을 거친 결과로, 공표된 결과와 다를 수 있음

[그림 5.2.2.1] 박물관 총면적 및 연면적 대비 전시실·수장고 면적 비율 (단위: 천m², %)



[그림 5.2.2.2] 박물관 관당 연면적 및 인구 천명당 연면적 (단위: 백m², m²)



- 박물관 관 당 연면적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국립이 14,748.16m²로 가장 크고 사립이 4,954.26m², 대학이 2,878.71m², 공립이 2,489.38m² 순으로 나타남
- 박물관 연면적 대비 전시실 면적 비율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학이 50.81%로 가장 크고 국립 43.38%, 사립 36.44%, 공립 27.7% 순으로 나타남

- 연면적 대비 수장고 면적 비율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립이 15.25%로 가장 크고 공립 13.26%, 대학 7.72%, 국립 6.1% 순으로 나타남

[표 5.2.2.2] 유형별 박물관 면적 현황

(단위: m²,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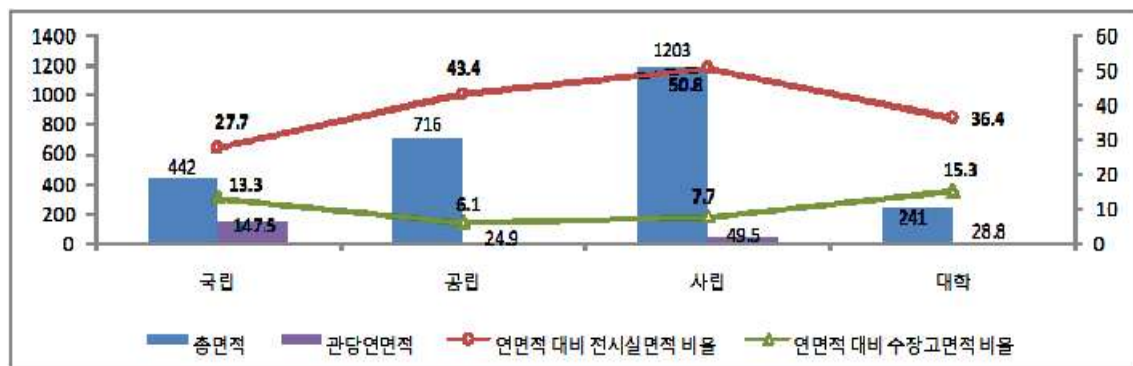
유형	총면적	관당연면적	연면적 대비 전시실 면적 비율(%)	연면적 대비 수장고 면적 비율(%)
국립	442,445	14,748.16	27.70	13.26
공립	716,941	2,489.38	43.38	6.10
사립	1,203,885	4,954.26	50.81	7.72
대학	241,811	2,878.71	36.44	15.25
전국	2,605,082	4,038.89	43.51	8.92

자료 : 2011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문화체육관광부, 2011(2010.12.31 기준))

주1) 본 수치는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원자료를 바탕으로 자료 검증 및 수정을 거친 결과로, 공표된 결과와 다를 수 있음

[그림 5.2.2.3] 유형별 박물관 시설현황

(단위: 천m², 백m² %)



- 『2011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전국 박물관의 관 당 소장자료수는 13,437.98 점이며 인구 백만 명당 자료수는 17.10 점으로 나타남
- 관 당 소장자료 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충남 지역이 27,529.75점으로 가장 많으며, 대전이 25,577.40점, 서울이 20,223.88점, 경기도가 16,201.64 순으로 나타남
 - 한편 관 당 소장자료 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울산(2,119.17점), 충북(4,246.66점), 강원(5,355.81) 등으로 나타남
- 인구 백 명당 소장자료 수를 살펴보면 제주 지역이 116.16점으로 가장 많으며, 충남이 53.06점, 경북이 29.96점, 대전이 25.52점 순으로 나타남
 - 한편 인구 백명 당 소장자료 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울산(1.13점), 대구(2.86점), 부산(3.77점) 등으로 나타남

[표 5.2.2.3] 지역별 박물관 자료 현황

(단위: 점)

지역	소장자료				전시자료		등록자료	
	자료수	사례수	관당자료수	인구백명당 자료수	자료수	사례수	자료수	사례수
서울	2,103,283	104	20,223.88	20.40	0	0	3,109	22
부산	134,346	12	11,195.50	3.77	0	0	91	2
대구	71,712	9	7,968.00	2.86	0	0	21	3
인천	165,009	22	7,500.41	5.98	0	0	24	4
광주	93,100	8	11,637.50	6.40	0	0	607	2
대전	383,661	15	25,577.40	25.52	0	0	120	3
울산	12,715	6	2,119.17	1.13	0	0	1	1
경기	1,717,374	106	16,201.64	14.57	0	0	1,812	11
강원	337,416	63	5,355.81	22.06	0	0	88	3
충북	161,373	38	4,246.66	10.41	0	0	33	2
충남	1,101,190	40	27,529.75	53.06	0	0	218	11
전북	303,889	30	10,129.63	16.26	0	0	131	8
전남	262,992	34	7,735.06	13.71	526	2	4,913	4
경북	806,020	57	14,140.70	29.96	3,300	1	2,566	11
경남	322,985	50	6,459.70	9.82	0	0	3,588	9
제주	663,559	49	13,542.02	116.16	0	0	13	3
전국	8,640,624	643	13,437.98	17.10	3,826	3	17,335	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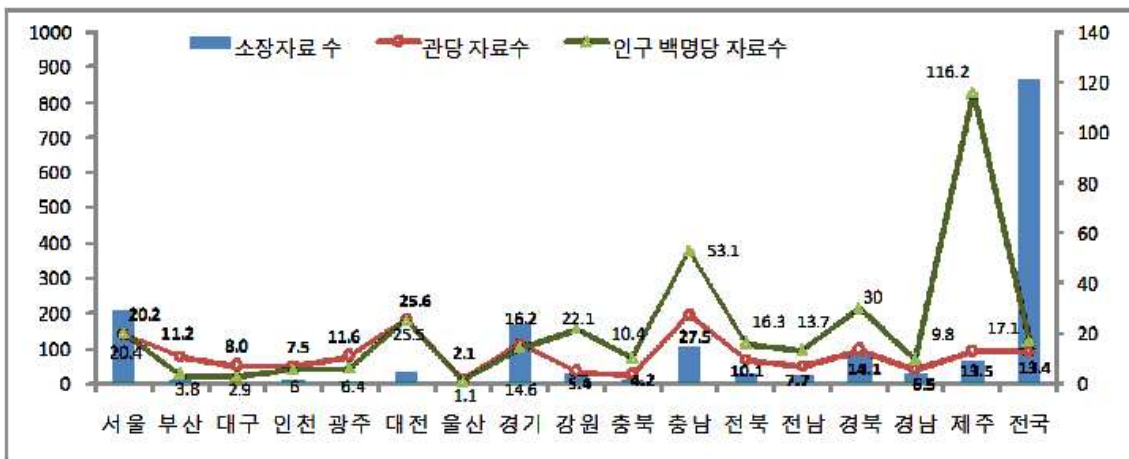
자료 : 2011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문화체육관광부, 2011(2010.12.31 기준))

주1) 본 수치는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원자료를 바탕으로 자료 검증 및 수정을 거친 결과로, 공표된 결과와 다를 수 있음

주2) 박물관 자료의 경우 소장자료, 전시자료, 등록자료의 분류기준이 모호하고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자료에 기록된 전시자료와 등록자료를 가지고 있는 박물관의 수가 매우 적으므로 소장자료만을 주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소장자료가 기록되어있는 박물관 643관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음

[그림 5.2.2.4] 지역별 박물관 자료 현황

(단위: 만점, 점)



- 박물관 소장자료 현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관 당 자료 수는 국립이 48,434.37점으로 가장 많으며 대학이 19,639.01점, 사립이 17,147.73점, 공립이 4,609.70점 순으로 나타남

[표 5.2.2.4] 유형별 박물관 자료 현황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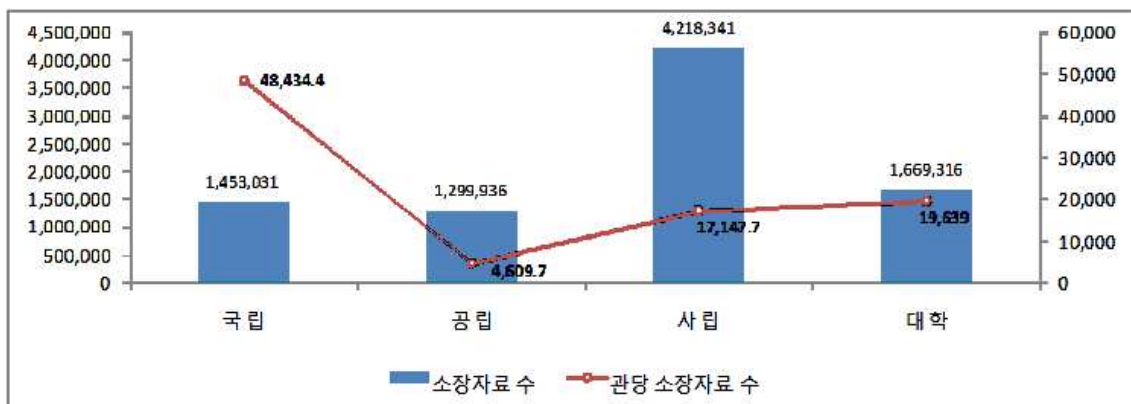
유형	소장자료			전시자료		등록자료	
	자료수	사례수	관당자료수	자료수	사례수	자료수	사례수
국립	1453,031	30	48,434.37	0	0	1,478	16
공립	1299,936	282	4,609.70	526	2	9,751	32
사립	4218,341	246	17,147.73	3,300	1	5,752	32
대학	1669,316	85	19,639.01	0	0	354	19
전국	8640,624	643	13,437.98	3,826(3)	3	17,335	99

자료 : 2011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문화체육관광부, 2011(2010.12.31 기준))

주1) 본 수치는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원자료를 바탕으로 자료 검증 및 수정을 거친 결과로, 공표된 결과와 다를 수 있음

[그림 5.2.2.5] 유형별 박물관 자료 현황

(단위: 점)



-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에 따르면 수장고가 없는 박물관은 2010년 기준 86관으로 2009년 95관 보다 9관이 감소하였음
 -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북(4개 감소), 강원(3개 감소)이 가장 많이 감소하였고, 제주(2개 증가), 광주(1개 증가)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유형별로 살펴보면, 수장고가 없는 박물관은 모든 유형에서 감소하였으며 대학박물관의 경우 수장고가 없는 박물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2010년 기준 지역별로 수장고가 없는 박물관 수를 살펴보면, 강원 지역이 17관으로 가장 많으며, 경기와 제주가 11관, 경북이 10관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음
- 2010년 기준 유형별로 수장고가 없는 박물관 수를 살펴보면, 공립이 70관으로 가장 많으며, 사립이 15관, 국립이 1관으로 분포되어 있음

[표 5.2.2.5] 수장고가 없는 박물관 현황

(단위: 관)

지역	박물관										
	2009년						2010년				
	국립	공립	사립	대학	계	총 박물관 수	국립	공립	사립	대학	계
서울	1	0	3	0	4	102	1	0	3	0	4
부산	0	0	0	0	0	13	0	0	0	0	0
대구	0	0	0	0	0	9	0	0	0	0	0
인천	0	3	1	0	4	19	0	3	1	0	4
광주	0	0	0	0	0	6	0	1	0	0	1
대전	0	0	0	0	0	15	0	0	0	0	0
울산	0	1	0	0	1	7	0	1	0	0	1
경기	0	10	2	0	12	106	0	9	2	0	11
강원	0	18	2	0	20	60	0	15	2	0	17
충북	0	3	1	0	4	37	0	3	1	0	4
충남	0	5	2	0	7	39	0	5	1	0	6
전북	0	2	1	0	3	30	0	2	1	0	3
전남	0	8	0	0	8	34	0	7	0	0	7
경북	0	14	0	0	14	60	0	10	0	0	10
경남	1	6	2	0	9	50	0	7	0	0	7
제주	0	5	4	0	9	43	0	7	4	0	11
전국	2	75	18	0	95	630	1	70	15	0	86

자료 : 2011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문화체육관광부, 2011(2010.12.31 기준))

주1) 본 수치는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원자료를 바탕으로 자료 검증 및 수정을 거친 결과로, 공표된 결과와 다를 수 있음

- 『2011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에 따르면 수장고가 없는 박물관은 전국 86관으로 전체 박물관 중 13.13%에 해당함
-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원 지역이 25.76%로 가장 비율이 크며, 제주가 21.57%, 전남이 20%, 경북이 14% 순으로 나타남
-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립박물관이 24.22%로 가장 비율이 크며, 사립이 5.98%, 국립이 3.33% 순으로 나타남

[표 5.2.2.6] 지역별·유형별 수장고가 없는 박물관 비율

(단위: 관, %)

지역	박물관(지역별)			박물관(유형별)			
	박물관 수	수장고가 없는 박물관	수장고가 없는 박물관 비율 (%)	유형	수장고가 없는 박물관	총 박물관 수	수장고가 없는 박물관 비율 (%)
서울	105	4	3.81	국립	1	30	3.33
부산	12	0	0.00				
대구	9	0	0.00				
인천	22	4	18.18				
광주	8	1	12.50	공립	70	289	24.22
대전	15	0	0.00				
울산	7	1	14.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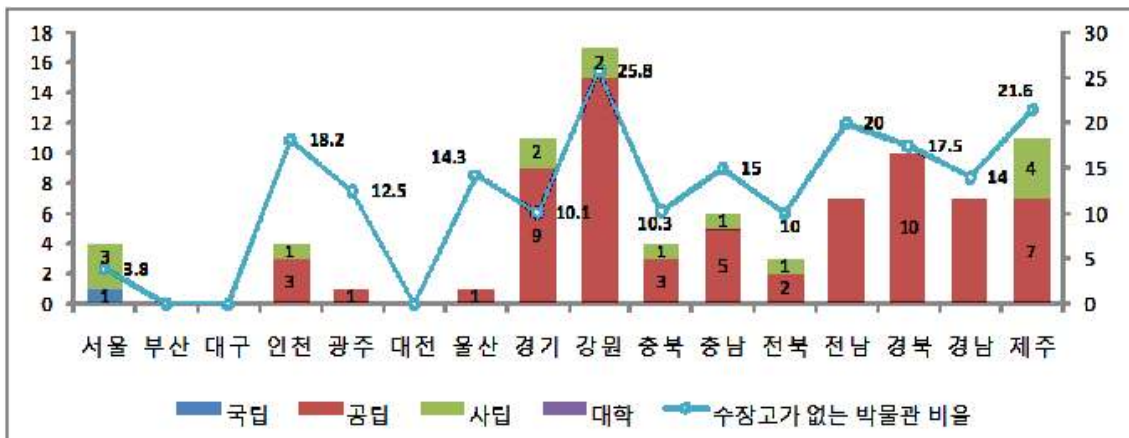
경 기	109	11	10.09	사립	15	251	5.98
강 원	66	17	25.76				
충 북	39	4	10.26				
충 남	40	6	15.00				
전 북	30	3	10.00	대학	0	85	0
전 남	35	7	20.00				
경 북	57	10	17.54				
경 남	50	7	14.00				
제 주	51	11	21.57	전국	86	655	13.13
전국	655	86	13.13				

자료 : 2011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문화체육관광부, 2011(2010.12.31 기준))

주1) 본 수치는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원자료를 바탕으로 자료 검증 및 수정을 거친 결과로, 공표된 결과와 다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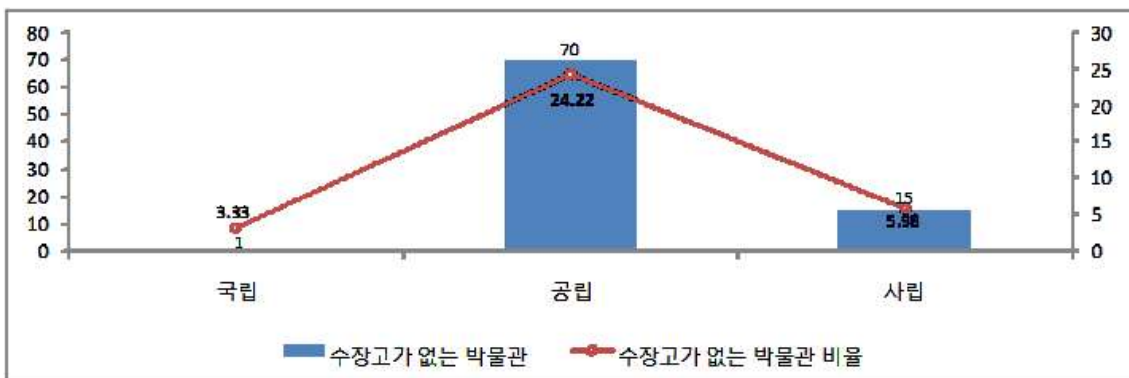
[그림 5.2.2.6] 지역별 수장고가 없는 박물관 현황

(단위: 관, %)



[그림 5.2.2.7] 유형별 수장고가 없는 박물관 현황

(단위: 관, %)



5.2.3. 미술관

- 『2011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전국의 미술관 관당 연면적은 3,495.15m²이고, 인구 만 명당 연면적은 96.87m²이며, 연면적 대비 전시실 면적 비율은

28.29%이고 수장고 면적 비율은 5.18%로 나타남

- 미술관 관 당 연면적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제주지역이 5,820.32m²로 가장 크며, 전북이 5,705m², 강원이 5,696.48m², 부산이 5,687.15m² 순으로 나타남
 - 한편 관 당 연면적이 가장 작게 나타나는 지역은 대구(708.43m²), 인천(1,223.25m²), 전남(1,279.18m²) 등으로 나타남
- 미술관의 인구 만명당 연면적을 살펴보면 제주지역이 1,324.53m²로 가장 크며, 강원이 297.89m², 대전이 136.03m², 경기도가 115.25m² 순으로 나타남
 - 한편 인구 만명 당 연면적이 가장 작게 나타나는 지역은 대구(2.82m²), 인천(17.74m²), 충북(36.31m²) 등으로 나타남
- 미술관 연면적 대비 전시실 면적 비율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지역이 87.09%로 가장 크며, 강원이 54.85%, 인천이 51.65%, 충북이 42.39% 순으로 나타남
 - 한편, 연면적 대비 전시실 면적 비율이 작게 나타나는 지역은 대전(3.30%), 제주(11.13%), 전북(11.71%) 등으로 나타남
- 미술관 연면적 대비 수장고 면적 비율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인천 지역이 18.88%로 가장 크며, 광주가 15.66%, 충북이 14.39%, 경남이 13.38% 순으로 나타남
 - 한편 연면적 대비 수장고 면적 비율이 작게 나타나는 지역은 강원(1.18%), 대전(1.99%), 제주(2.11%) 등으로 나타남

[표 5.2.3.1] 지역별 미술관 시설현황

(단위: m²,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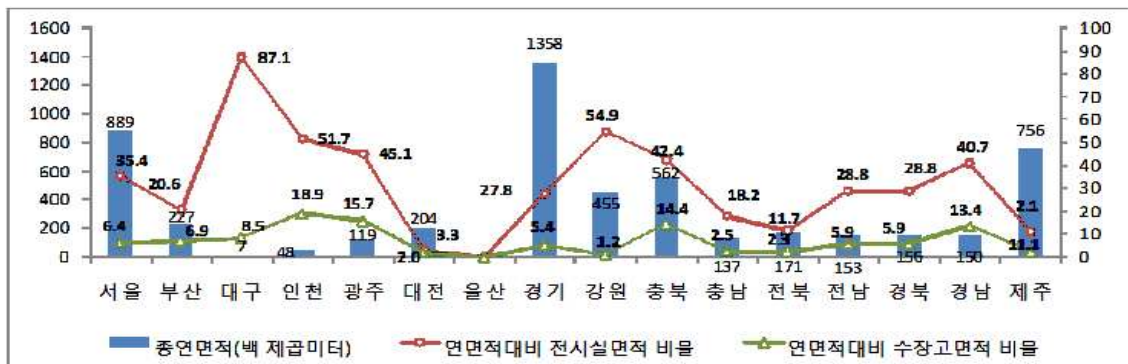
지역	등록 미술관				
	총 연면적 (m ²)	관당 연면적	인구 만명당 연면적	연면적 대비 전시실 면적 비율(%)	연면적 대비 수장고 면적 비율(%)
서울	88,972	2,780.38	86.28	35.35	6.38
부산	22,749	5,687.15	63.76	20.61	6.86
대구	708	708.43	2.82	87.09	8.47
인천	4,893	1,223.25	17.74	51.65	18.88
광주	11,950	1,991.64	82.15	45.09	15.66
대전	20,454	5,113.50	136.03	3.30	1.99
울산	0	0	0	0	0
경기	135,842	4,851.48	115.25	27.78	5.41
강원	45,572	5,696.48	297.89	54.85	1.18
충북	5,627	937.83	36.31	42.39	14.39
충남	13,797	2,299.47	66.47	18.15	2.46
전북	17,115	5,705	91.57	11.71	2.29
전남	15,350	1,279.18	80.01	28.77	5.86
경북	15,614	2,602.37	58.05	28.79	5.92
경남	15,015	2,144.96	45.63	40.68	13.38
제주	75,664	5,820.32	1,324.53	11.13	2.11
전국	489,322	3,495.15	96.87	28.29	5.18

자료 : 2011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문화체육관광부, 2011(2010.12.31 기준))

주1) 본 수치는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원자료를 바탕으로 자료 검증 및 수정을 거친 결과로, 공표된 결과와 다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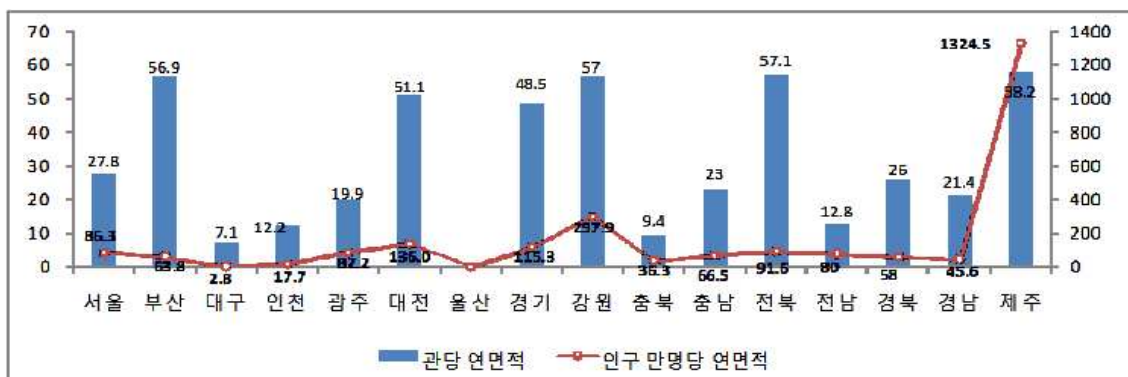
[그림 5.2.3.1] 지역별 미술관 시설현황

(단위: m^2 , %)



[그림 5.2.3.2] 미술관 관당 연면적 및 인구 만명당 연면적

(단위: 만 m^2 , m^2)



- 미술관 관 당 연면적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국립이 37,500 m^2 로 가장 크고, 공립 3,786.73 m^2 , 사립 3,159.80 m^2 , 대학 2,045.50 m^2 순으로 나타남
- 미술관 연면적 대비 전시실 면적 비율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국립이 37.71%로 가장 크고 대학 35.48%, 공립 30.21%, 사립 26.37% 순으로 나타남
- 연면적 대비 수장고 면적 비율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립이 9.08%로 가장 크고, 국립 8.03%, 대학 5.23%, 사립 3.57% 순으로 나타남

[표 5.2.3.2] 유형별 미술관 시설현황

(단위: m^2 ,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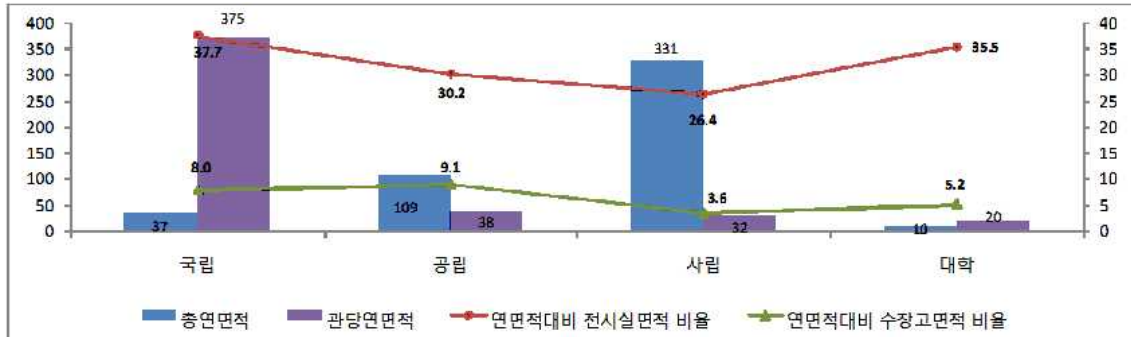
유형	총면적	관당연면적	연면적 대비 전시실 면적 비율(%)	연면적 대비 수장고 면적 비율(%)
국립	37,500	37,500	37.71	8.03
공립	109,815.10	3,786.73	30.21	9.08
사립	331,778.90	3,159.80	26.37	3.57
대학	10,227.52	2,045.50	35.48	5.23
전국	489,321.50	3,495.15	28.29	5.18

자료 : 2011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문화체육관광부, 2011(2010.12.31 기준))

주1) 본 수치는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원자료를 바탕으로 자료 검증 및 수정을 거친 결과로, 공표된 결과와 다를 수 있음

[그림 5.2.3.3] 유형별 미술관 시설현황

(단위: 천m², 백m², %)



- 『2011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전국 박물관의 관당 소장자료 수는 1,229.78점으로 나타나고 인구 백만명당 소장자료 수는 24.34점으로 나타남
- 관당 소장자료 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전지역이 4,381점으로 가장 많으며, 광주가 3,997.67점, 인천이 2,578.75점, 충남이 1,524.33점 순으로 나타남
 - 한편 관당 소장자료 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대구(151점), 충북(374점), 전북(403점) 등으로 나타남
- 인구 백명당 소장자료 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전지역이 2,913.55점으로 가장 많으며, 광주가 2,748.22점, 인천이 934.9점, 제주가 741.96점 순으로 나타남
 - 한편 인구 백명당 소장자료 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대구(60.12점), 경기(99.01점), 서울(122.84점) 등으로 나타남

[표 5.2.3.3] 지역별 미술관 자료 현황

(단위: 점, 관)

지역	소장자료				전시자료		등록자료	
	자료수	사례수	관당자료수	인구백명당 자료수	자료수	사례수	자료수	사례수
서울	40,536	32	1,266.75	122.84	741	5	3,971	5
부산	3,047	4	761.75	213.50	120	1	100	1
대구	151	1	151	60.12	80	1	0	0
인천	10,315	4	2,578.75	934.91	250	1	0	0
광주	23,986	6	3,997.67	2,748.22	4,800	2	4,000	1
대전	13,143	3	4,381	2,913.55	50	2	126	2
울산	0	0	0	0	0	0	0	0
경기	30,343	26	1,167.04	99.01	1,032	5	4,579	3
강원	3,537	8	442.13	289.00	0	0	1,300	1
충북	1,870	5	374	241.36	0	0	160	1
충남	9,146	6	1,524.33	734.44	250	1	0	0
전북	1,209	3	403	215.63	126	1	0	0
전남	13,942	12	1,161.83	605.60	9,554	2	454	1
경북	2,824	6	470.67	174.97	260	1	481	2

경 남	7,691	7	1,098.71	333.90	3,397	3	4,285	4
제 주	5,510	13	423.85	741.96	1,666	6	152,142	8
전국	167,250	136	1,229.78	24.34	22,326	31	171,598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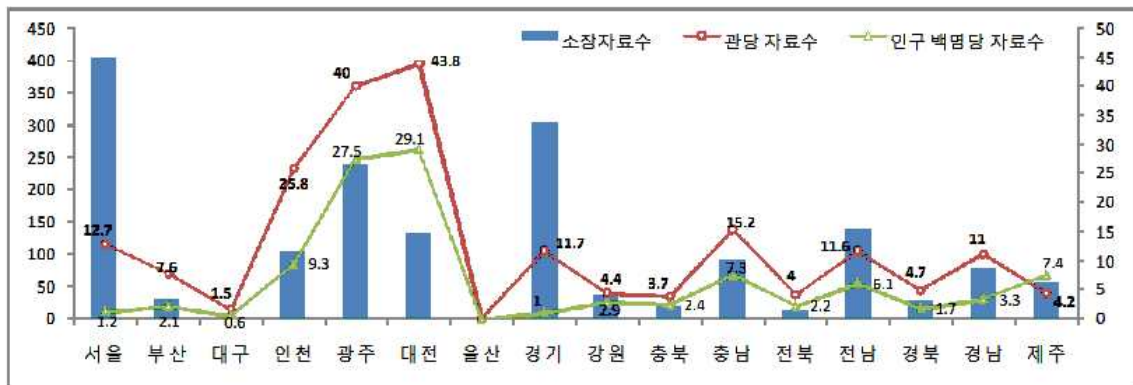
자료 : 2011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문화체육관광부, 2011(2010.12.31 기준))

주1) 본 수치는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원자료를 바탕으로 자료 검증 및 수정을 거친 결과로, 공표된 결과와 다를 수 있음

주2) 미술관 자료의 경우 소장자료, 전시자료, 등록자료의 분류기준이 모호하고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자료에 기록된 전시자료와 등록자료를 가지고 있는 미술관의 수가 적으므로 소장자료만을 주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소장자료가 기록되어 있는 미술관 136관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음

[그림 5.2.3.4] 지역별 미술관 소장자료 현황

(단위: 백 점, 점)



- 미술관 소장자료 수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국립이 6,200점으로 가장 많으며, 사립이 1008.42점, 공립이 1930점, 대학이 830.20점 순으로 나타남

[표 5.2.3.4] 유형별 미술관 자료 현황

(단위: 점)

유형	소장자료			전시자료		등록자료	
	자료수	사례수	관당자료수	자료수	사례수	자료수	사례수
국립	6,200	1	6,200	0	0	0	0
공립	54,040	28	1,930	5,395	10	7,070	11
사립	102,859	102	1,008.42	16,851	20	164,528	18
대학	4,151	5	830.20	80	1	0	0
전국	167,250	136	1,229.78	22,326	31	171,598	29

자료 : 2011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문화체육관광부, 2011(2010.12.31 기준))

주1) 본 수치는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원자료를 바탕으로 자료 검증 및 수정을 거친 결과로, 공표된 결과와 다를 수 있음

[그림 5.2.3.5] 유형별 미술관 소장자료 현황

(단위: 점)



-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에 따르면 수장고가 없는 미술관은 2010년 기준 10관으로 2009년 8관 보다 2관이 증가하였음
 -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원 지역이 2관 감소하였고 서울, 인천, 대전, 경남에서 각각 1관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유형별로 살펴보면, 수장고가 없는 미술관은 공립미술관이 1관 감소하였고 사립미술관은 3관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10년 기준 지역별로 수장고가 없는 미술관 수를 살펴보면, 강원 지역이 4관으로 가장 많으며, 인천이 3관, 서울, 대전, 강원, 경남이 1관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음
- 2010년 기준 유형별로 수장고가 없는 미술관 수를 살펴보면, 사립이 9관으로 가장 많으며, 공립이 1관으로 분포되어 있음
 - 대학미술관의 경우 수장고가 없는 미술관은 없음

[표 5.2.3.5] 수장고가 없는 미술관 현황

(단위: 관)

지역	미술관							
	2009년				2010년			
	공립	사립	대학	계	공립	사립	대학	계
서울	0	0	0	0	0	1	0	1
부산	0	0	0	0	0	0	0	0
대구	0	0	0	0	0	0	0	0
인천	1	1	0	2	0	3	0	3
광주	0	0	0	0	0	0	0	0
대전	0	0	0	0	0	0	0	1
울산	0	0	0	0	0	0	0	0
경기	0	3	0	4	0	4	0	4
강원	1	2	0	3	1	0	0	1
충북	0	0	0	0	0	0	0	0
충남	0	0	0	0	0	0	0	0
전북	0	0	0	0	0	0	0	0
전남	0	0	0	0	0	0	0	0
경북	0	0	0	0	0	0	0	0
경남	0	0	0	0	0	1	0	1

제 주	0	0	0	0	0	0	0	0
전국	2	6	0	8	1	9	0	10

자료 : 2011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문화체육관광부, 2011(2010.12.31 기준))

주1) 본 수치는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원자료를 바탕으로 자료 검증 및 수정을 거친 결과로, 공표된 결과와 다를 수 있음

- 수장고가 없는 미술관은 전국 10관으로 전체 미술관 중 6.9%에 해당함
- 지역별로 살펴보면, 인천 지역이 60%로 가장 비율이 크며, 대전이 25%, 경남이 14.29%, 경기도가 12.9% 순으로 나타남
-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립미술관이 8.57%로 가장 비율이 크며, 공립이 2.86%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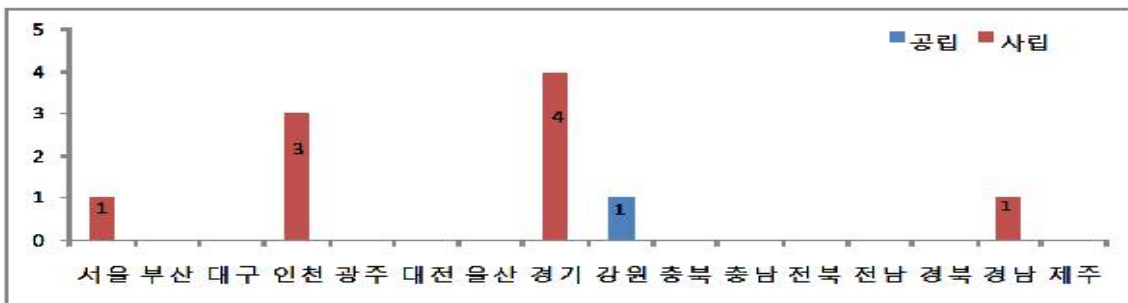
[표 5.2.3.6] 지역별·유형별 수장고가 없는 미술관 비율 (단위: 관, %)

지역	미술관(지역별)			미술관(유형별)			
	미술관 수	수장고가 없는 미술관	수장고가 없는 미술관 비율 (%)	유형	수장고가 없는 미술관	총 미술관 수	수장고가 없는 미술관 비율 (%)
서울	32	1	3.13	공립	1	35	2.86
부산	4	0	0				
대구	2	0	0				
인천	5	3	60				
광주	6	0	0				
대전	4	1	25	사립	9	105	8.57
울산	0	0	0				
경기	31	4	12.90				
강원	8	1	12.50				
충북	6	0	0				
충남	6	0	0	대학	0	5	0
전북	3	0	0				
전남	12	0	0				
경북	6	0	0				
경남	7	1	14.29				
제주	13	0	0	전국	10	145	6.90
전국	145	10	6.90				

자료 : 2011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문화체육관광부, 2011(2010.12.31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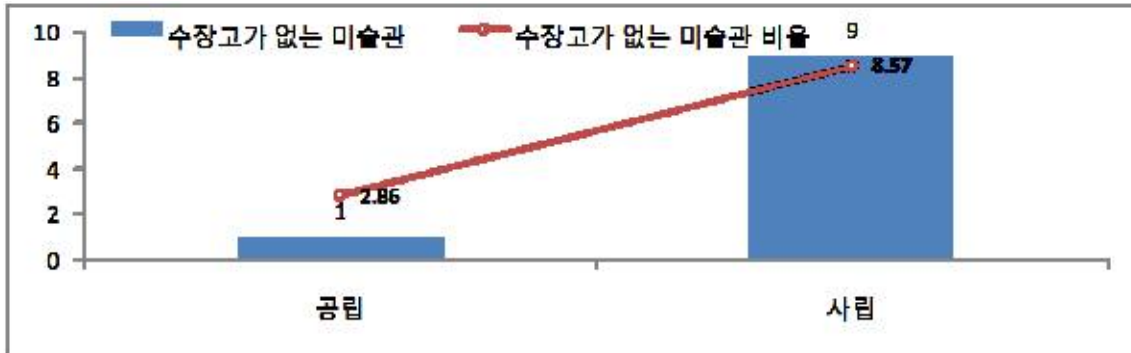
주1) 본 수치는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원자료를 바탕으로 자료 검증 및 수정을 거친 결과로, 공표된 결과와 다를 수 있음

[그림 5.2.3.6] 지역별 수장고가 없는 미술관 현황 (단위: 관, %)



[그림 5.2.3.7] 유형별 수장고가 없는 미술관 현황

(단위: 관, %)



5.2.4. 공연장

- 공연장의 기능별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는 등록공연장의 면적과 객석 수입
- 『등록공연장 현황』에 따르면 전국 등록공연장의 총 면적은 1,218,448m²이며, 관 당 면적은 289m², 인구 천 명당 면적은 24.1m²임
 - 지역별로 살펴보면 등록공연장 면적이 큰 지역은 서울(308,878m²), 경기(303,302m²), 강원(77,809m²)로 나타남
 - 관 당 등록공연장 면적이 크게 나타난 지역은 제주(750m²), 울산(601m²), 경북(457m²)로 나타남
 - 인구 천 명당 등록공연장 면적은 강원(50.9m²), 서울(30m²), 전북(29.9m²)이 크게 나타남
- 객석 수의 경우, 전국의 객석 수는 325,544석이며 관 당 객석 수는 516석, 인구 천 명당 객석 수는 6.4석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객석 수는 서울(78,784석), 경기(66,907석), 경북(19,697석)이 많이 나타남
 - 관 당 객석수가 많은 지역은 전북(1,073석), 제주(759석), 충북(729석)이 많이 나타났는데 전북의 관 당 객석 수가 높게 나타난 이유는 전북대 삼성문화회관(1,667석), 전북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의 모악당(2,037석)과 야외공연장(7,000석) 등 대규모 공연장의 영향 때문임
 - 인구 천 명당 객석수는 강원(11.8석), 전북(9.8석), 충남(8.6석)이 많이 나타난 반면, 울산(2.5석), 제주(4.0석), 인천(4.2석)은 적게 나타남
- 무대면적의 경우, 전국의 무대 면적합계는 182,122m²이며, 공연장면적 대비 무대면적은 14.9%로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무대 면적합계가 큰 지역은 서울(39,389m²), 경기(35,900m²), 경북

(13,004m²)이 많게 나타남

- 공연장면적 대비 무대면적이 큰 지역은 대전(38.9%), 충남(31%), 제주(30.2%)가 많게 나타남

[표5.2.4] 지역별 등록공연장 기능별 규모 현황(2010년 기준)

(단위: m², %, 석)

	면적					객석 수		
	전체 면적 합계	관 당	천 명당	무대면적 합계	공연장면 적 대비 무대면적	합계	관 당	천 명당
서울	308,878	208	30.0	39,389	12.8	78,784	417	7.6
부산	63,623	265	17.8	10,599	16.7	15,491	387	4.3
대구	65,167	282	25.9	9,873	15.2	17,709	506	7.1
인천	40,794	182	14.8	5,264	12.9	11,649	402	4.2
광주	33,715	247	23.2	5,684	16.9	9,240	402	6.4
대전	17,513	487	11.6	6,819	38.9	8,135	581	5.4
울산	20,855	601	18.5	2,403	11.5	2,825	706	2.5
경기	303,302	299	25.7	35,900	11.8	66,907	558	5.7
강원	77,809	308	50.9	8,314	10.7	18,013	667	11.8
충북	42,262	445	27.3	5,336	12.6	8,745	729	5.6
충남	32,237	270	15.5	10,008	31.0	17,919	484	8.6
전북	55,795	450	29.9	7,657	13.7	18,240	1,073	9.8
전남	40,872	306	21.3	5,808	14.2	11,547	608	6.0
경북	52,135	457	19.4	13,004	27.2	19,697	635	7.3
경남	56,028	417	17.0	12,913	23.0	18,367	592	5.6
제주	7,462	750	13.1	2,251	30.2	2,276	759	4.0
전국	1,218,448	289	24.1	18,122	14.9	325,544	516	6.4

자료 : 등록공연장 현황(문화체육관광부 행정조사자료, 2010(2010.12.31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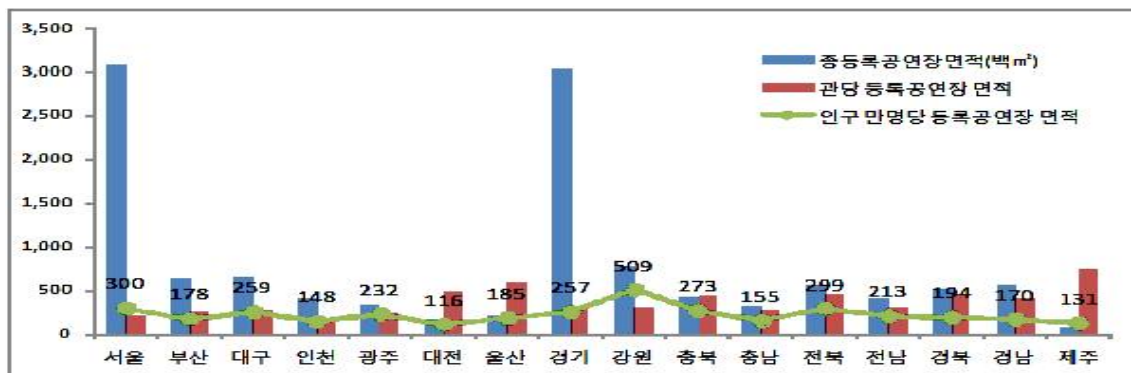
주1) 본 수치는 등록공연장 현황 원자료를 바탕으로 자료 검증·수정을 실시한 결과로, 공표된 등록공연장현황과 다를 수 있음

주2) 2011년 5월 25일 개정된 공연법 제9조(공연장의 등록)에 의하면, 객석수가 50석(객석이 구분되지 아니하여 그 수를 셀 수 없는 경우에는 객석으로 사용되는 바닥 연면적이 50제곱미터)이상이 되는 공연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연장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함

주3)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간하는 『등록공연장 현황』에서 기능별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조사항목은 ‘면적(공연장, 무대)’, ‘객석 수’, ‘구동무대 기계·기구수’이나 ‘구동무대 기계·기구수’는 실제로 0과 겹쳐져서 많고, 기입 담당자가 정확한 정의를 숙지하지 못하는 등 신뢰성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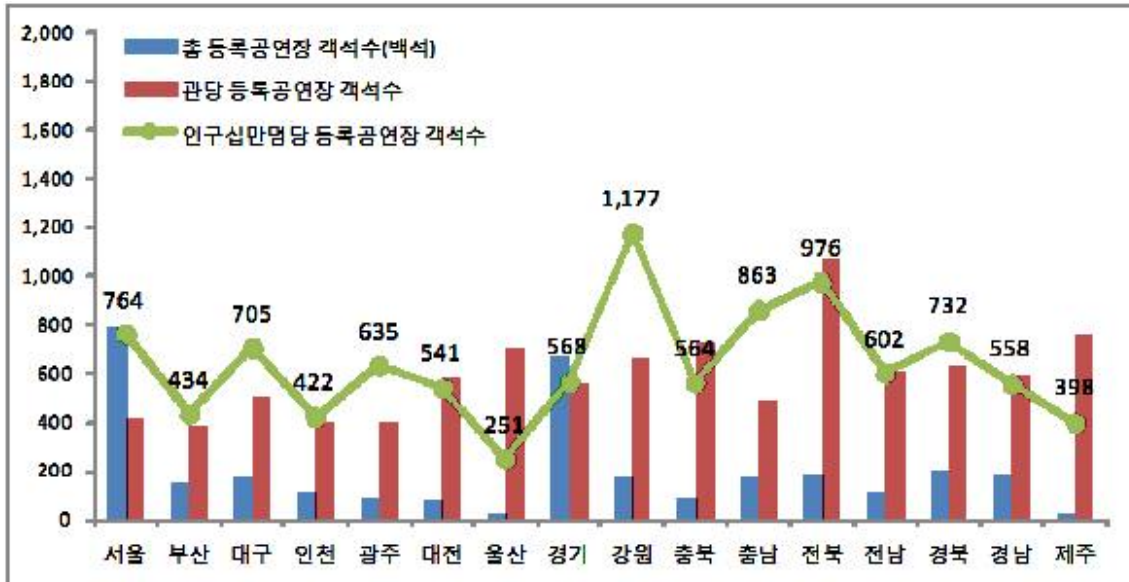
[그림 5.2.4.1] 지역별 등록공연장 면적(2010년 기준)

(단위: m²)



[그림 5.2.4.2] 지역별 등록공연장 객석 수(2010년 기준)

(단위: 석)



5.2.5. 문예회관

- 『2010 문예회관 운영현황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공연장 수는 289개로 인구 십만 명당 공연장 수는 0.6개이며 객석 수는 384개였음
 - 지역의 공연장 수는 경기 지역이 54개로 가장 많았으며, 대전이 3개로 가장 적었음
 - 관당 공연장 수는 경기지역이 2개, 부산과 제주지역이 2개로 평균보다 위었으며, 광주지역이 1.2개로 가장 적었음
 - 인구 십만명당 공연장 수는 강원지역이 1.5개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과 대전지역이 0.2곳으로 가장 적었음
 - 가장 공연장 수가 많았던 경기지역의 객석수가 54,697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가장 적은 곳은 제주지역으로 1,092개였음
- 인구 십만명당 객석 수는 전북과 강원지역이 높은 수를 차지했으며, 타 지역과 비교하여 서울과 대전지역은 십만명당 객석 수가 상대적으로 적었음
 - 2009년을 기준으로 전국의 전시실 수는 251개로 공연장보다 38개 적었으며, 십만명당 전시실 면적은 181.6㎡였음
- 가장 전시실이 많은 지역은 전북지역으로 30개였으며, 경기지역도 28개로 높은 수를 차지함
 - 반면 대전과 제주지역의 전시실 수는 2개로 가장 전시실 수가 많은 전북지역과 비교하여 28개가 적었음

○ 문예회관 당 전시실 면적은 전시실 수가 많은 경기지역이 25,631㎡로 넓었으며, 대전지역이 가장 좁았음

- 지역 인구 십만명당 전시실 면적은 전북지역이 가장 넓었으며, 마찬가지로 대전지역이 가장 좁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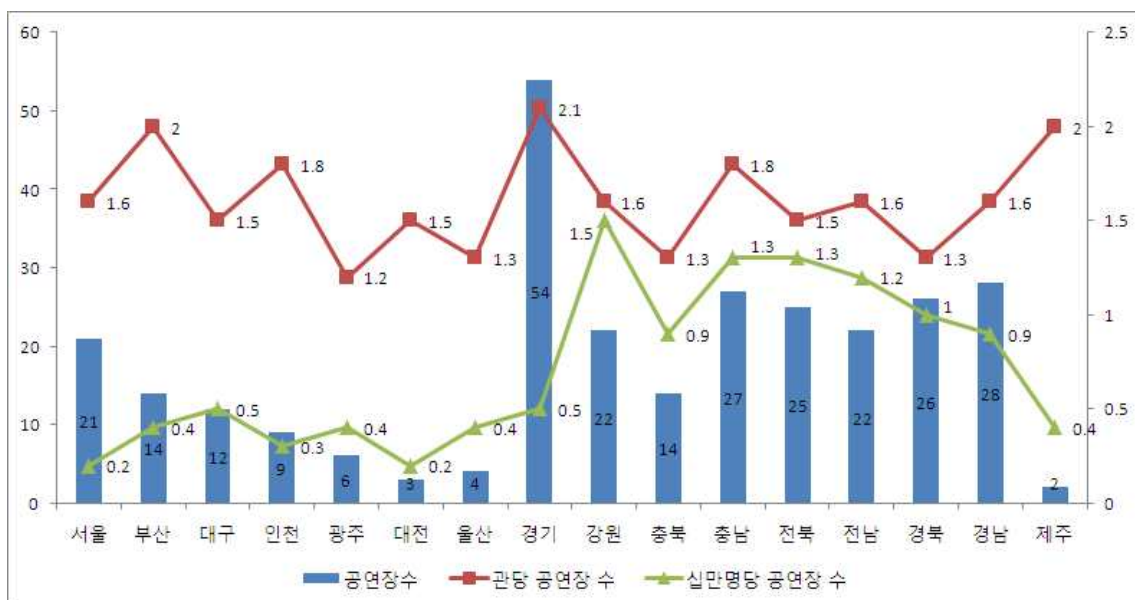
[표 5.2.5] 지역별 문예회관 시설 현황(2009년 기준)

(단위: 개소, 석, 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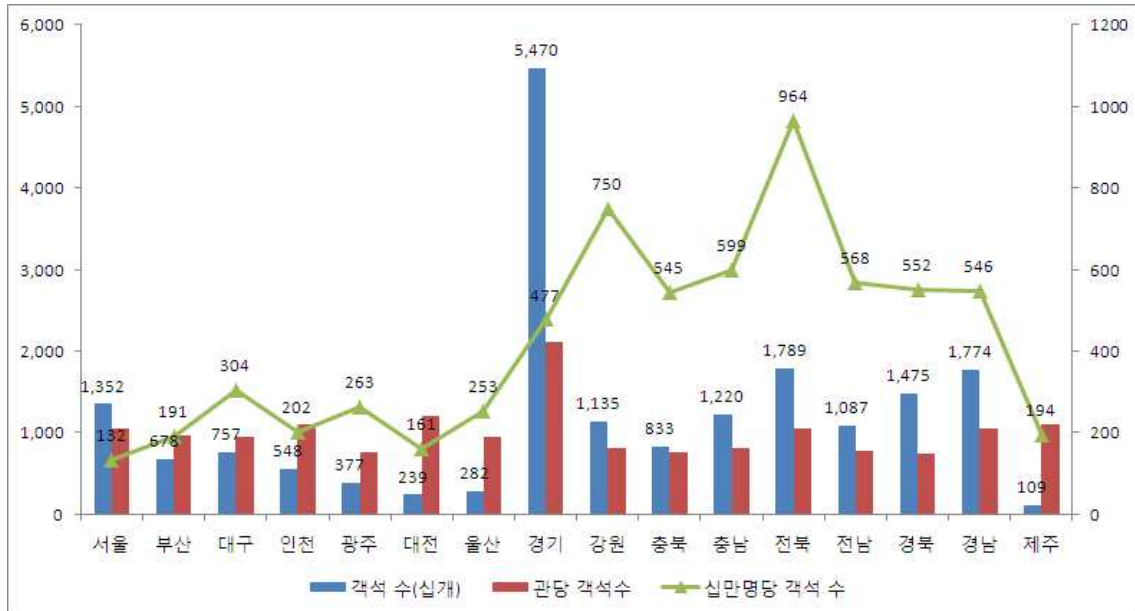
	공연장						전시실			
	공연장 수	관당 공연장 수	십만명당 공연장수	객석 수	관당 객석수	십만명당 객석 수	전시실 수	전시실 면적	관당 전시실 면적	십만명당 전시실 면적
서울	21	1.6	0.2	13,521	1,040.1	132	16	8,147	509.2	79.8
부산	14	2.0	0.4	6,779	968.4	191	13	3,949	303.8	111.5
대구	12	1.5	0.5	7,570	946.3	304	25	6,135	245.4	246.4
인천	9	1.8	0.3	5,484	1,096.8	202	8	3,414	426.8	126
광주	6	1.2	0.4	3,767	753.4	263	3	673	224.3	46.9
대전	3	1.5	0.2	2,389	1,194.5	161	2	306	153.0	20.6
울산	4	1.3	0.4	2,821	940.3	253	7	2,030	290.0	182.1
경기	54	2.1	0.5	54,697	2,103.7	477	28	25,631	915.4	223.6
강원	22	1.6	1.5	11,352	810.9	750	20	4,711	235.6	311.4
충북	14	1.3	0.9	8,326	756.9	545	10	3,159	315.9	206.8
충남	27	1.8	1.3	12,198	813.2	599	21	5,395	256.9	264.8
전북	25	1.5	1.3	17,885	1,052.1	964	30	8,054	268.5	434.3
전남	22	1.6	1.2	10,868	776.3	568	23	4,838	210.3	252.9
경북	26	1.3	1.0	14,750	737.5	552	18	4,369	242.7	163.6
경남	28	1.6	0.9	17,741	1,043.6	546	25	8,782	351.3	270.2
제주	2	2.0	0.4	1,092	1,092.0	194	2	778	389.0	138.3
전국	289	1.6	0.6	191,240	1,074.4	384	251	90,371	360.0	181.6

자료 : 2010 문예회관 운영현황 조사(예술경영지원센터, 2010(2009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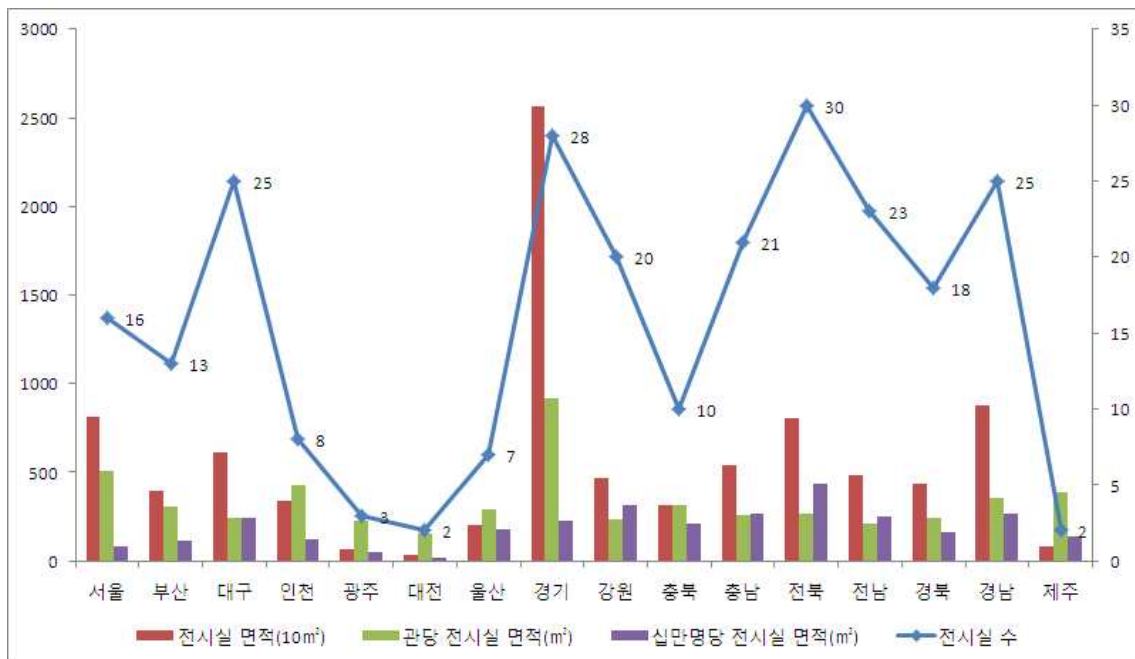
[그림 5.2.5.1] 지역별 문예회관 공연장수 현황



[그림 5.2.5.2] 지역별 문예회관 객석 수 현황



[그림 5.2.5.3] 지역별 문예회관 전시실 현황



5.2.5.1 해외 주요국과의 비교 : 문예회관의 기능별 규모

- 한국의 문예회관과 일본의 문화회관의 기능별 규모를 비교하면 아래와 같음
- 먼저 일본의 경우 2008년 기준 전국 문화회관에 있는 전시실의 수는 926개, 공연장의

수는 2,157개로 공연장이 2배 가량 많으며, 중공연장이 1534개로 71.1%, 대공연장은 623개로 28.9%를 차지함

- 한국의 경우 전국 문예회관에 있는 전시실의 수는 203개, 공연장의 수는 254개이며, 중공연장이 158개로 62.2%, 대공연장이 35개로 13.8%를 차지함
- 문화회관(문예회관) 당 전시실의 수는 일본은 0.49개, 한국은 1.2개, 관당 공연장의 수는 일본은 1.1개, 한국은 1.5개로 나타남
- 인구 백만 명당 전시실의 수는 일본은 7.3개, 한국은 4.2개로 나타나며, 인구 백만명 당 공연장의 수는 일본은 16.9개, 한국은 5.2개로 나타남

[표] 국가별 문예회관 기능별 규모

(단위: 관, 개, %)

	문예회관 수	전시실 수			공연장 수			공연장 규모		
		전체	관 당	백만 명당	전체	관 당	백만 명당	대 공연장	중 공연장	소 공연장
일본	1,893	926	0.49	7.3	2,157	1.1	16.9	623(28.9)	1,534(71.1)	-
한국	167	203	1.2	4.2	254	1.5	5.2	35(13.8)	158(62.2)	61(24)

자료1) 일본 - Social Education Survey(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2008)

자료2) 한국 - 문예회관운영현황조사(예술경영지원센터; 2009(2008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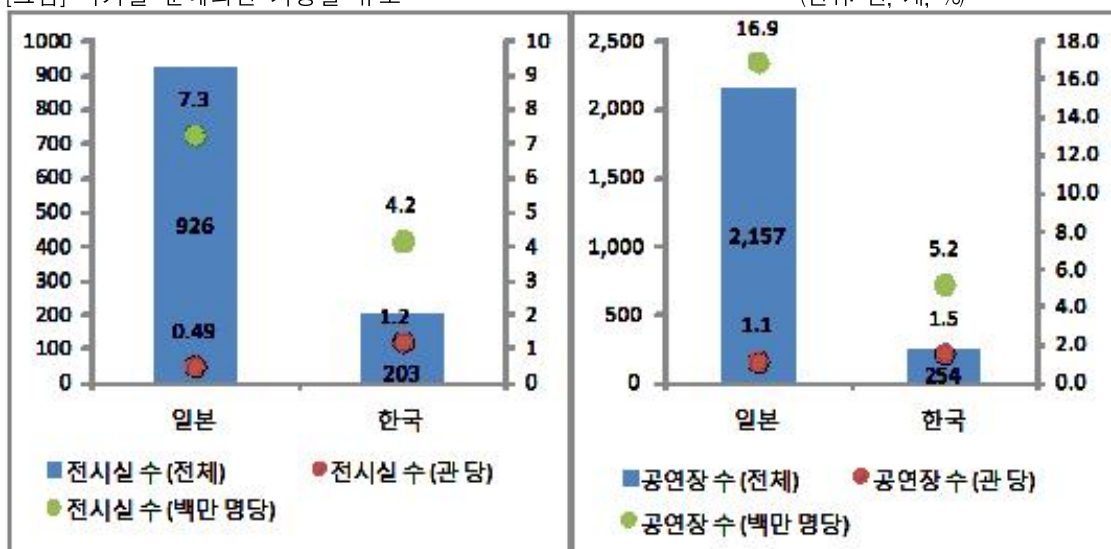
주1) 소공연장: 300석 미만, 중공연장: 300석 이상 1,000석 미만, 대공연장: 1,000석 이상

주2) 일본 사회교육조사의 문화회관 조사에서는 300석 미만의 소공연장은 대상에서 제외됨

주3) 공연장 규모에 대한 한국 문예회관의 응답 수는 164관임

[그림] 국가별 문예회관 기능별 규모

(단위: 관, 개, %)



5.2.6. 지방문화원

- 『2011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전국의 지방문화원 관당 총면적

은 953.52m²로 나타났고 인구 백만 명당 총면적은 18.88m²로 나타남

- 한편 지역주민들에 대한 문화서비스와 직결된 연면적 대비 강당·전시실·도서실 면적의 비율은 24.53%로 나타남

○ 관 당 총면적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3,433.57m²로 가장 크며, 대전 1,765m², 충남 898.84m², 경남 783.94m² 순으로 나타남

- 한편 관 당 총면적이 가장 작은 지역은 광주(220.80m²), 대구(302.32m²), 제주(340.50m²) 등으로 나타남

○ 인구 백만 명당 총면적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전지역이 1,173.80m²로 가장 크며, 제주가 596.06m², 울산이 564.26m², 충남이 433.07m² 순으로 나타남

- 한편 인구 백만 명당 총면적이 가장 작은 지역은 경기(60.18m²), 대구(120.37m²) 부산(147.38m²) 등으로 나타남

○ 연면적 대비 강당, 전시실, 도서실면적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지역이 72.83%로 가장 크며, 충북이 56.01%, 경북이 48.73%, 제주가 48.16% 순으로 나타남

- 한편, 연면적 대비 강당·전시실·도서실 면적의 비율이 작게 나타나는 지역은 서울(7.63%), 대전(14.1%), 충남(22.42%) 등으로 나타남

[표 5.2.6.1] 지역별 지방문화원 면적 현황

(단위: m²,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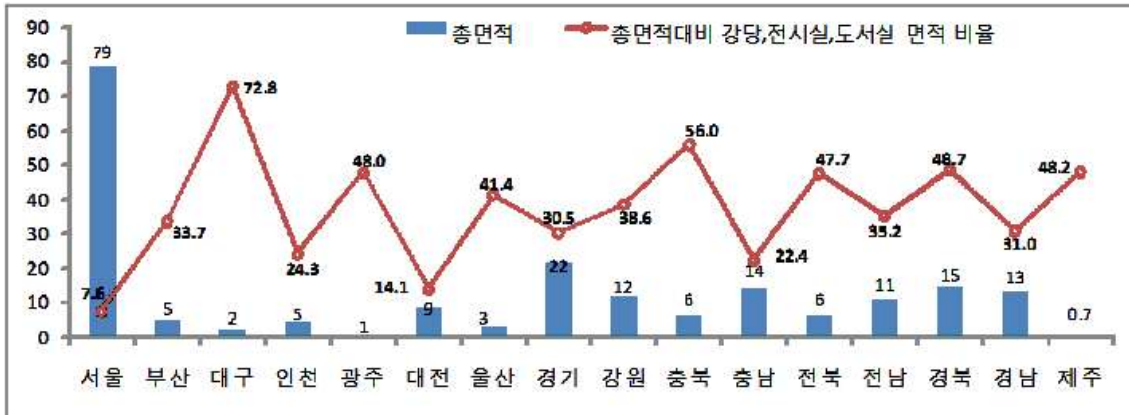
지역	총면적	관당 총면적	인구 백만명당 총면적	강당, 전시실, 도서실면적	
				면적	총면적 대비 강당, 전시실, 도서실 면적 비율(%)
서울	78,972	3,433.57	332.95	6,025	7.63
부산	5,258	525.85	147.38	1,774	33.74
대구	2,116	302.32	120.37	1,541	72.83
인천	4,507	563.31	204.22	1,094	24.27
광주	1,104	220.80	151.79	530	48.01
대전	8,825	1,765	1,173.80	1,244	14.10
울산	3,178	635.53	564.26	1,315	41.38
경기	21,989	709.34	60.18	6,716	30.54
강원	11,983	665.69	435.15	4,622	38.57
충북	6,331	527.57	340.47	3,546	56.01
충남	14,382	898.84	433.07	3,224	22.42
전북	6,338	487.56	260.87	3,023	47.70
전남	11,049	526.17	274.26	3,892	35.22
경북	14,967	680.31	252.91	7,294	48.73
경남	13,327	783.94	238.24	4,128	30.97
제주	681	340.50	596.06	328	48.16
전국	205,007	953.52	18.88	50,295	24.53

자료 : 2011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문화체육관광부, 2011(2010.12.31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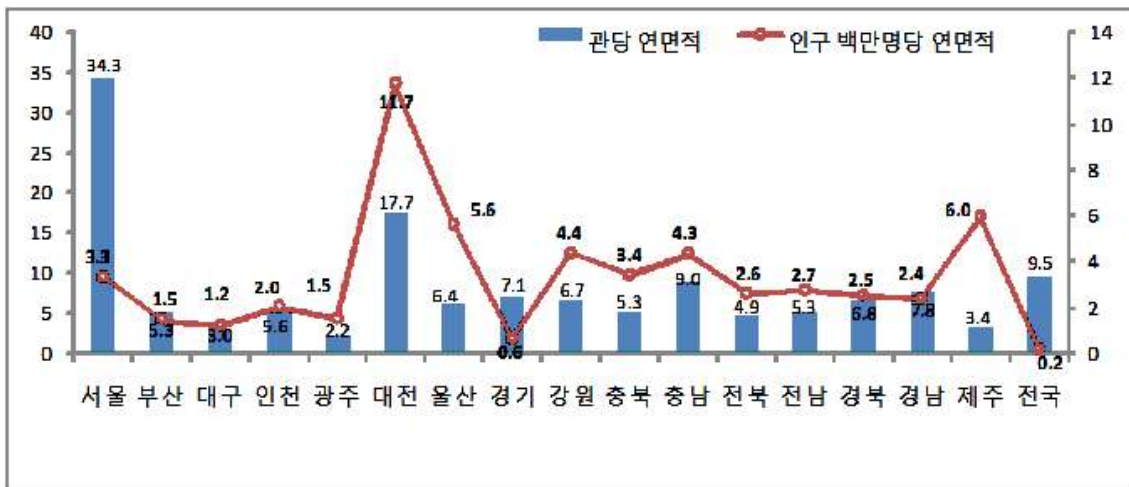
주1) 본 수치는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원자료를 바탕으로 자료 검증 및 수정을 거친 결과로, 공표된 결과와 다를 수 있음

[그림 5.2.6.1] 지방문화원 총면적 및 강당, 전시실, 도서실 면적비율

(단위: 천m², %)



[그림 5.2.6.2] 지방문화원 관 당 총면적 및 인구 백만명 당 총면적 (단위: 백m²)



5.3. 문화시설 인력 규모

5.3.1 도서관

- 도서관의 직원 현황과 전문 인력인 사서직 현황을 통해 도서관 인력 규모를 파악함
-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에 따르면 전국의 도서관 인력 규모는 총7,008명이며 지역인구 십만 명당 직원 수는 13.9명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직원 현원이 많은 곳으로 나타난 지역은 경기(1,460명), 서울(1,160명), 부산(462명)으로 나타난 반면 제주(132명)와 울산(137명)은 적게 나타남
 - 인구 십만 명당 직원 수는 제주(23.1명), 전남(21.6명), 강원(21.0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제주는 도서관 인력은 많지 않지만, 인구 대비 제일 많은 인력을 보유하고 있음
- 사서직 현원의 전국 규모는 3,161명이며, 직원 대비 사서직 비율은 45.1%이고 관 당 사서직은 평균 4.2명이며 인구 십만 명당 사서직 숫자는 6.3명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사서직 현원은 경기(731명), 서울(570명), 경남(224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직원 대비 사서직 비율이 높은 지역은 경기(50.1%), 인천(50%), 경남(49.7%)이지만, 최소값이 34.8%(제주)로 대부분 지역에서 비슷한 비율로 사서직을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인구 십만 명당 사서직은 강원(9.1명), 전남(8.9명), 대전(8.3명)이 높게 나타남
- 사서직이 없는 도서관은 전국적으로 24개소이며, 지자체가 21개소, 사립이 3개소로 나타남

[표 5.3.1] 지역별 도서관 인력 규모 현황(2010년 기준) (단위: 명, %,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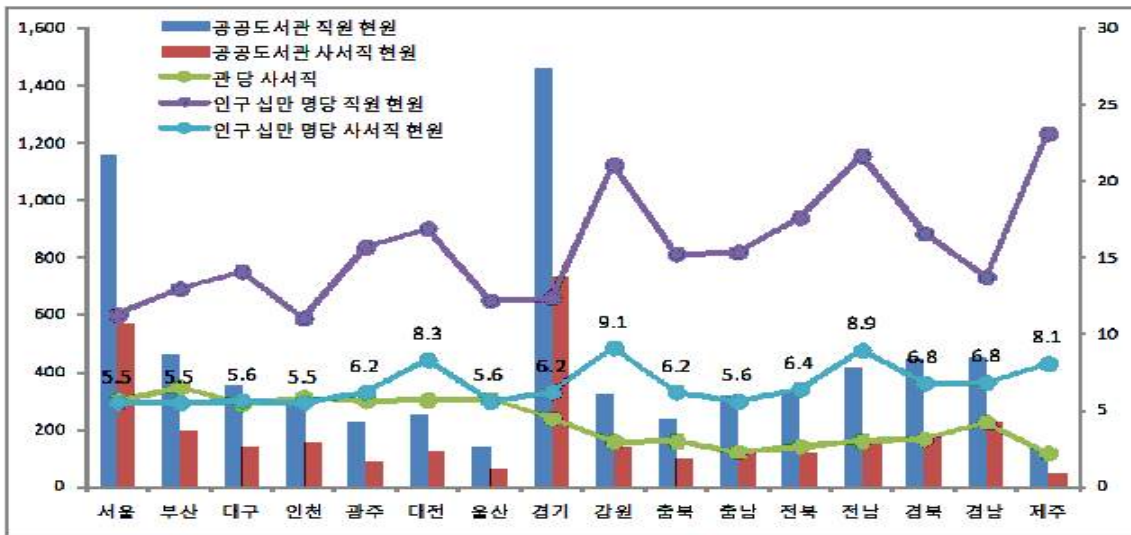
	직원 현원	사서직 현원	직원 대비 사서직 비율	관 당 사서직	십만 명당 직원	십만 명당 사서직	사서직이 없는 도서관			
							지자체	교육청	사립	계
서울	1,160	570	49.1	5.6	11.2	5.5	3	0	0	3
부산	462	196	42.4	6.5	12.9	5.5	0	0	0	0
대구	353	141	39.9	5.4	14.1	5.6	2	0	2	4
인천	304	152	50.0	5.8	11.0	5.5	1	0	0	1
광주	228	90	39.5	5.6	15.7	6.2	0	0	0	0
대전	254	125	49.2	5.7	16.9	8.3	0	0	0	0
울산	137	63	46.0	5.7	12.2	5.6	0	0	0	0
경기	1,460	731	50.1	4.5	12.4	6.2	1	0	1	2
강원	322	139	43.2	3.0	21.0	9.1	3	0	0	3
충북	236	96	40.7	3.0	15.2	6.2	2	0	0	2
충남	319	116	36.4	2.3	15.4	5.6	1	0	0	1
전북	329	119	36.2	2.6	17.6	6.4	1	0	0	1
전남	415	171	41.2	3.0	21.6	8.9	4	0	0	4
경북	446	182	40.8	3.1	16.6	6.8	2	0	0	2
경남	451	224	49.7	4.2	13.7	6.8	1	0	0	1
제주	132	46	34.8	2.2	23.1	8.1	0	0	0	0
전국	7,008	3,161	45.1	4.2	13.9	6.3	21	0	3	24

자료 : 2011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문화체육관광부, 2011(2010.12.31 기준))

- 주1) 본 수치는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원자료를 바탕으로 자료 검증 및 수정을 거친 결과로, 공표된 결과와 다를 수 있음
- 주2) 직원은 근무 정원별로 현원과 정원으로 구분되며 직종별로는 행정직, 사서직, 기타로 구분되나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자료가 있어, 현 직원을 파악함
- 주3) 도서관의 설립주체는 지자체, 교육청, 사립으로 구분됨
- 주4) 사서직 자격증 종류는 1급, 2급, 준사서로 구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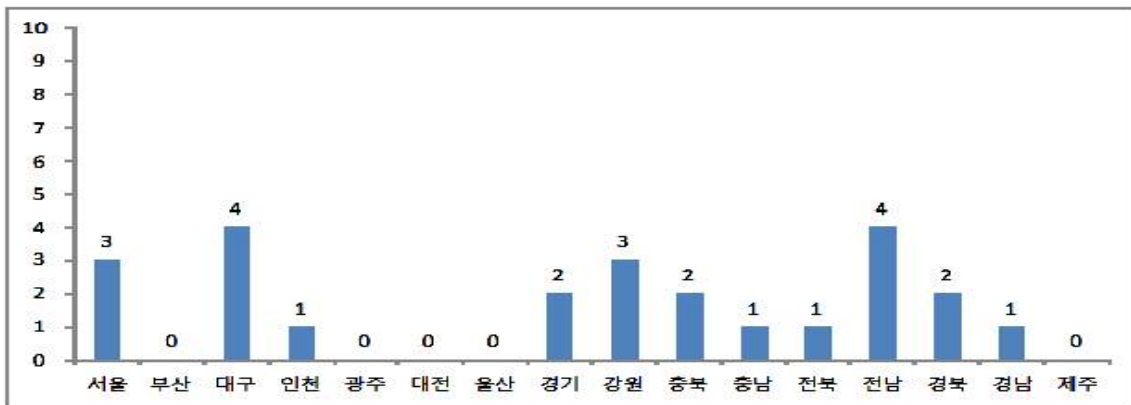
[그림 5.3.1.1] 지역별 공공도서관 인력규모(2010년 기준)

(단위: 명)



[그림 5.3.1.2] 지역별 사서직이 없는 공공도서관 수(2010년 기준)

(단위: 개소)



5.3.1.1 해외 주요국과의 비교 : 공공도서관 인력 규모

- 2009년 기준으로 공공도서관의 총 인력 규모는 미국이 144,261명으로 가장 크며, 일본(2008년 기준)이 32,557명, 영국(2008년 기준)이 25,648명, 독일(2009년 기준)이 11,386명, 한국이 10,524명으로 나타남
- 이 중 전문인력에 해당하는 정규직 사서의 비율은 미국이 33.3%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한국이 29%, 일본이 21.3%, 영국이 19.1%로 나타남
- 한편 인구 만명 당 공공도서관 인력 규모는 미국이 4.7명으로 가장 크게 나타나며, 영국이 4.2명, 일본이 2.5명, 한국이 2.2명, 독일이 1.4명으로 나타남
- 공공도서관 서비스점(service point) 당 인력규모는 미국이 8.3명으로 가장 크고, 한국이 12.5명, 일본이 10.3명, 영국이 6.0명, 독일이 1.1명으로 나타남

[표 5.3.1.1.1] 국가별 공공도서관 인력규모

(단위: 명)

		인력 수			인력 구성					
					유급			무급	구성비율	
		전체	만 명당	service point 당	정규직		파트 타임	자원 봉사자*	전문인력 (정규직 사서)	정규 직
					사서	기타				
미국	2006	140,442.5	4.7	8.1	46,185.4		94,257.1	-	32.9	
	2007	144,654.7	4.8	8.3	47,151.1		97,503.6	-	32.6	
	2008	145,243.5	4.8	8.3	47,925.6		97,317.9	-	33.0	
	2009	144,261.3	4.7	8.3	48,014.6		96,246.6	-	33.3	
영국	2006	26,591	4.4	6.1	4,360(전문) / 16,019(기타)			10,306	21.4	
	2007	25,768	4.2	5.9	4,071(전문) / 15,717(기타)			12,121	20.6	
	2008	25,648	4.2	6.0	3,782(전문) / 15,968(기타)			12,581	19.1	
독일	2006	11,413	1.4	1.1		
	2007	12,327	1.5	1.2		
	2008	11,678	1.4	1.1		
	2009	11,386	1.4	1.1		
일본	2008	32,557	2.5	10.3	6,941	9,487	16,129	98,431	21.3	50.5
한국	2007	8,156	1.7	10.0	2,684	3,377	2,095	18,857	32.9	74.3
	2008	8,905	1.8	11.1	2,891	3,497	2,517	21,489	32.5	71.7
	2009	10,524	2.2	12.5	3,052	3,733	3,739	131,046	29.0	64.5

자료1) 미국 - 『Public Libraries Survey』 (Institute of Museum and Library Services(IMLS); Fiscal year 2006-2009)

자료2) 영국 - LAMPOST(Libraries, Archives, Museums and Publishing Online Statistics Tables)(LISU:2006/07-2008/09)

자료3) 독일 - German Library Statistics(Deutsche Bibliotheksstatistik(DBS); 2006-2009)

자료4) 일본 - Social Education Survey(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2008)

자료5) 한국 - 국가도서관통계(문화체육관광부; 2006-2009)

* 영국의 자원봉사자 통계는 MLA에서 2010년에 발간한 『Trends from the CIPFA Public Library Service Statistics 2004/05 to 2008/09』 에서 참고하였음. 본 통계는 LISU의 LAMPOST 통계와 마찬가지로, CIPFA의 『Public library service statistics』 가 원자료이나, 패널데이터로 조작하는 과정에서 수치가 누락된 관찰값은 제외시켰다는 차이점이 있음

주1) 각국의 인구수는 통일성을 위하여 IMF 인구통계를 참고함

주2) 미국에서 공공도서관 정의의 기준이 되는 4개의 지표 중 하나가 '유급직원(paid staff)'임. 유급직원은 full-time-equivalent (FTE)의 항목으로 표기되며, 주당 40시간이 기준이 됨(예를 들어, 주당 60시간을 근무하는 파트타임 직원일 경우, 40시간을 기준으로 1.50 FTEs로 계산됨). FTE 수치는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되어 한자리까지 반올림된 상태로 표시함

주3) 미국의 직원 구성은 사서(librarians)와 기타(other)로 구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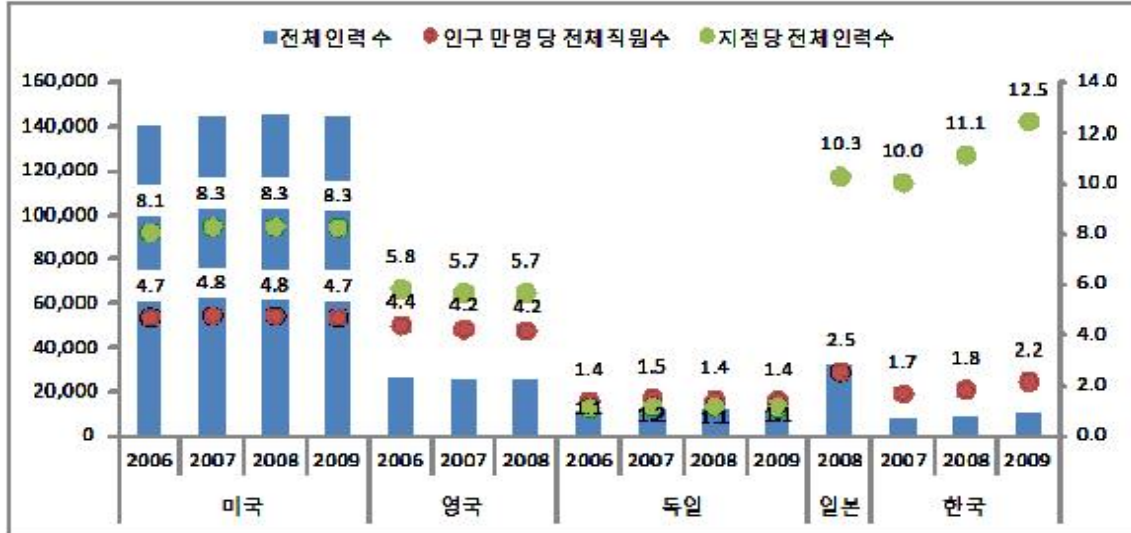
주4) 영국의 직원 구성(staffing)은 전문인력(professional)과 기타(other)로 구분됨

주5) 일본은 정규직(専任, 兼任)과 비정규직(非常勤)을 구분하고 있음

주6) 일본의 경우, 자원봉사자는 “대면 낭독, 점자 도서 만들기 등 무료봉사활동”을 의미하며, 자원봉사자 통계는 단체등록 제도나 개인등록제도 중 하나라도 실시하고 있는 도서관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3,165개의 도서관 중 2,110개 도서관이 응답한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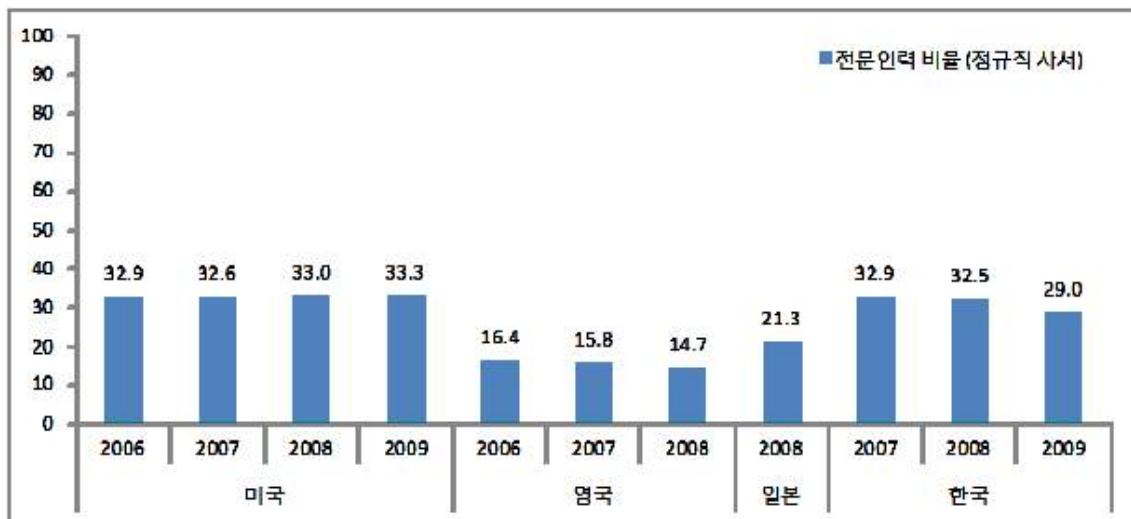
[그림 5.3.1.1.1] 국가별 공공도서관 인력규모

(단위: 명)



[그림 5.3.1.1.2] 국가별 공공도서관 전문인력 비율

(단위: %)



5.3.2 박물관

- 『2011전국문화시설기반총람』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전국 박물관의 인력총계는 11,984명이며, 학예직원(자격증소지자) 914명, 학예직원 및 전문직(자격증미소지자) 920명, 일반직원(관장포함) 3,867명, 기타(자원봉사) 6,276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남
- 전국 박물관의 인력 구성은 기타(자원봉사)가 52.37%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며 일반직원(관장포함) 32.27%, 학예직원 및 전문직(자격증미소지자) 7.68%, 학예직원(자격증소지자) 7.63%의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 박물관 인력의 구성은 6개 지역(대구, 광주, 강원, 전북, 전남, 제주)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지역에서 기타(자원봉사) 인력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함
- 학예직원(자격증소지자)의 경우 대전(10.1%)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지역에서 전체 인력 중 10% 미만의 비율을 차지함

[표 5.3.2.1] 지역별 박물관 인력 현황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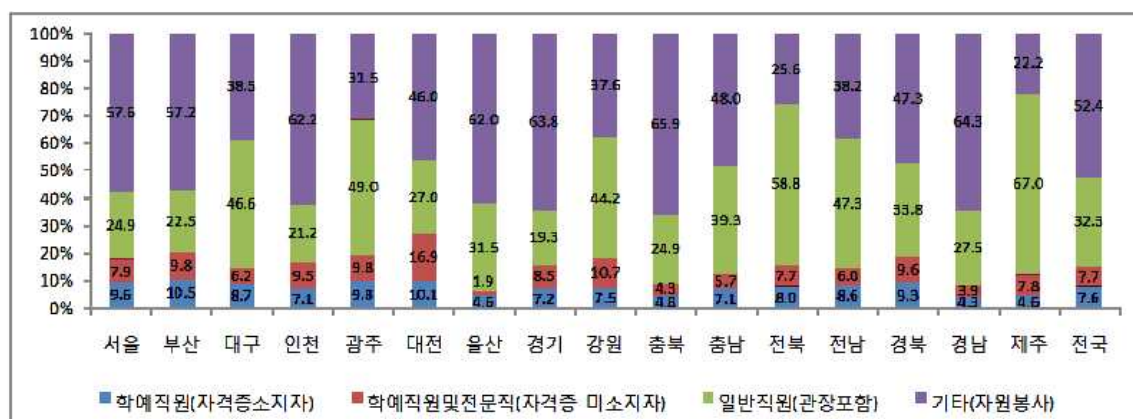
지역	인력총계	학예직원 (자격증소지자)		학예직원및 전문직 (자격증미소지자)		일반직원 (관장포함)		기타 (자원봉사)	
		명	비율 (%)	명	비율 (%)	명	비율 (%)	명	비율 (%)
서울	3,429	330	9.62	272	7.93	852	24.85	1,975	57.60
부산	285	30	10.53	28	9.82	64	22.46	163	57.19
대구	161	14	8.70	10	6.21	75	46.58	62	38.51
인천	378	27	7.14	36	9.52	80	21.16	235	62.17
광주	143	14	9.79	14	9.79	70	48.95	45	31.47
대전	148	15	10.14	25	16.89	40	27.03	68	45.95
울산	108	5	4.63	2	1.85	34	31.48	67	62.04
경기	2041	147	7.20	174	8.53	393	19.26	1,303	63.84
강원	550	41	7.45	59	10.73	243	44.18	207	37.64
충북	622	30	4.82	27	4.34	155	24.92	410	65.92
충남	736	52	7.07	42	5.71	289	39.27	353	47.96
전북	352	28	7.95	27	7.67	207	58.81	90	25.57
전남	351	30	8.55	21	5.98	166	47.29	134	38.18
경북	645	60	9.30	62	9.61	218	33.80	305	47.29
경남	968	42	4.34	38	3.93	266	27.48	622	64.26
제주	1067	49	4.59	83	7.78	715	67.01	237	22.21
전국	11,984	914	7.63	920	7.68	3,867	32.27	6,276	52.37

자료 : 2011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문화체육관광부, 2011(2010.12.31 기준))

주1) 본 수치는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원자료를 바탕으로 자료 검증 및 수정을 거친 결과로, 공표된 결과와 다를 수 있음

[그림 5.3.2.1] 지역별 박물관 인력 구성 비율

(단위: %)



- 유형별 박물관 인력 구성을 살펴보면 모든 유형의 박물관에서 기타(자원봉사)의 비율

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국립: 47.21%, 공립:55.76%, 사립:53.87%, 대학: 39.43%)

- 나머지 3가지 유형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대학 박물관에서 학예직(자격증 소지자)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학예직원(자격증소지자)의 경우 대학(16.3%)과 국립(10.2%)을 제외한 공립과 사립유형은 6%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5.3.2.2] 유형별 박물관 인력 현황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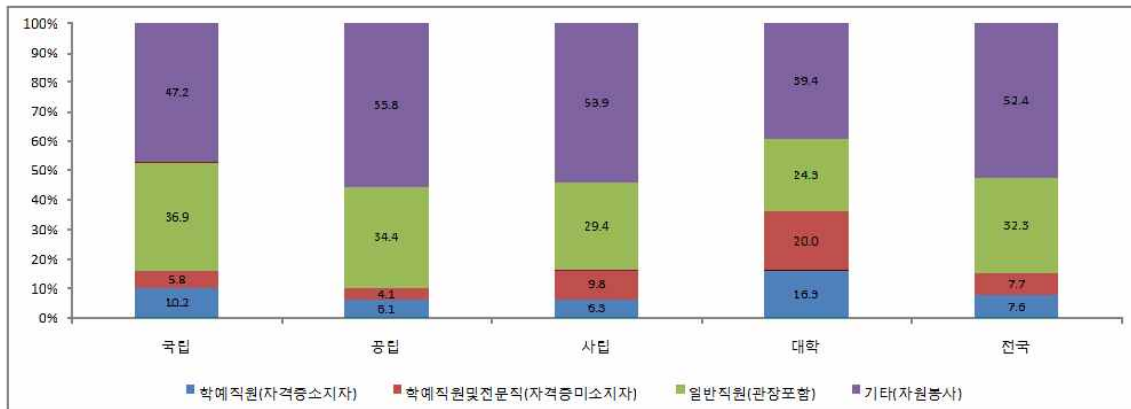
지역	인력총계	학예직원 (자격증소지자)		학예직원및 전문직 (자격증미소지자)		일반직원 (관장포함)		기타 (자원봉사)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국립	2,097	213	10.16	121	5.77	773	36.86	990	47.21
공립	4,600	279	6.07	190	4.13	1583	34.41	2565	55.76
사립	4,407	279	6.33	433	9.83	1297	29.43	2374	53.87
대학	880	143	16.25	176	20	214	24.32	347	39.43
전국	11,984	914	7.63	920	7.68	3867	32.27	6276	52.37

자료 : 2011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문화체육관광부, 2011(2010.12.31 기준))

주1) 본 수치는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원자료를 바탕으로 자료 검증 및 수정을 거친 결과로, 공표된 결과와 다를 수 있음

[그림 5.3.2.2] 유형별 박물관 인력 구성 비율

(단위: %)



- 전국적으로 박물관 관당 총인력 수는 18.44명이고, 지역인구 백만 명당 총인력 수는 전 237.23명이며, 관당 학예직원(자격증소지) 수는 1.41명이고 지역인구 백만 명당 학예직원(자격증소지)은 18.09명으로 나타남
- 관당 총인력 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지역이 32.97명으로 가장 많으며, 부산이 23.75명, 제주가 21.78명, 경남이 19.76명 순으로 나타남
- 한편, 관당 총인력 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강원(8.46명), 전남(10.03명), 경북(11.32명) 등으로 나타남
- 지역인구 백만 명당 총인력 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제주 지역이 1867.82명으로 가장

많고, 강원이 359.52명, 충남이 354.61명, 서울이 332.51 명 순으로 나타남

- 한편 지역인구 백만 명당 총인력 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대구(64.1명), 부산(79.88명), 광주(98.31명) 등으로 나타남

○ 관당 학예직원(자격증소지) 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지역이 3.17명으로 가장 많으며, 부산이 2.5명, 광주가 1.75명, 대구가 1.56명 순으로 나타남

- 한편 관당 학예직원(자격증소지) 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울산(0.71명), 충북(0.77명), 전남(0.86명) 등으로 나타남

○ 지역인구 백만 명당 학예직원(자격증소지) 수는 제주 지역이 85.78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이 32명, 강원이 26.8명, 충남이 25.05명 순으로 나타남

- 한편 지역인구 백만 명당 학예직원(자격증소지) 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울산(4.44명), 대구(5.57명), 부산(8.41명) 등으로 나타남

- 광역시의 경우 지역인구 백만 명당 학예직원(자격증소지)수가 10명이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울산이 4.44명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표 5.3.2.3] 지역별 인구 백만 명 당 인력 및 학예직원(자격증소지) 수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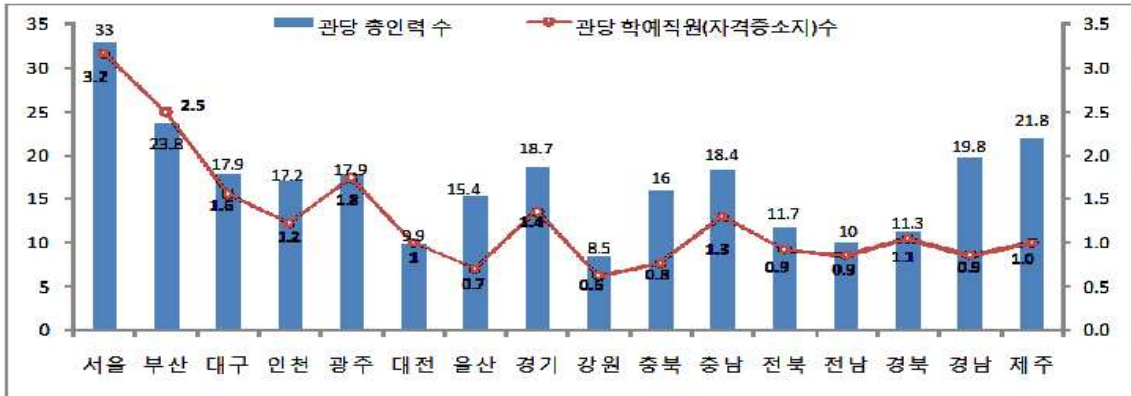
	관당 총인력 수	지역인구 백만 명당 총인력 수	관당 학예직원 (자격증소지) 수	지역인구 백만 명당 학예직원 (자격증소지) 수
서울	32.97	332.51	3.17	32
부산	23.75	79.88	2.50	8.41
대구	17.89	64.10	1.56	5.57
인천	17.18	137.04	1.23	9.79
광주	17.88	98.31	1.75	9.62
대전	9.87	98.43	1	9.98
울산	15.43	95.89	0.71	4.44
경기	18.72	173.16	1.36	12.47
강원	8.46	359.52	0.63	26.80
충북	15.95	401.41	0.77	19.36
충남	18.40	354.61	1.30	25.05
전북	11.73	188.34	0.93	14.98
전남	10.03	182.96	0.86	15.64
경북	11.32	239.78	1.05	22.31
경남	19.76	294.18	0.86	12.76
제주	21.78	1867.82	1	85.78
전국	18.44	237.23	1.41	18.09

자료 : 2011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문화체육관광부, 2011(2010.12.31 기준))

주1) 본 수치는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원자료를 바탕으로 자료 검증 및 수정을 거친 결과로, 공표된 결과와 다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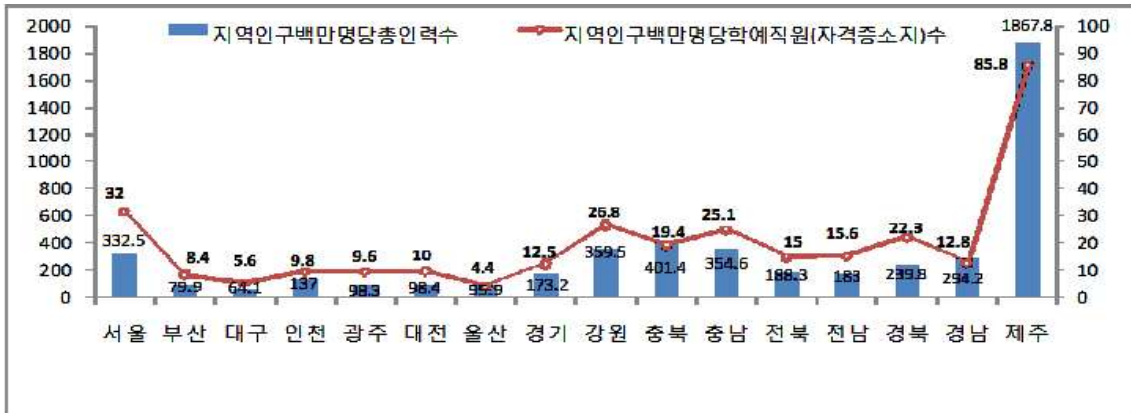
[그림 5.3.2.3] 박물관 당 총인력 수 및 관 당 학예직원(자격증소지) 수

(단위: 명)



[그림 5.3.2.4] 박물관 지역인구 백만명당 총인력수 및 학예직원(자격증소지) 수

(단위: 명)



- 관당 총인력 수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국립이 69.6명으로 가장 많으며, 사립 17.7명, 공립 16.03명, 대학 10.48명 순으로 나타남
- 관당 학예직원(자격증소지) 수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국립이 7.1명으로 가장 많으며, 대학 1.7명, 사립이 1.13명, 공립이 0.97명 순으로 나타남
 - 관당 총인력 수에서 사립과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던 공립의 경우 관당 학예직원(자격증소지) 수의 경우에는 대학 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남

[표 5.3.2.4] 유형별 박물관 관당 총인력 수 및 관당 학예직원(자격증소지) 수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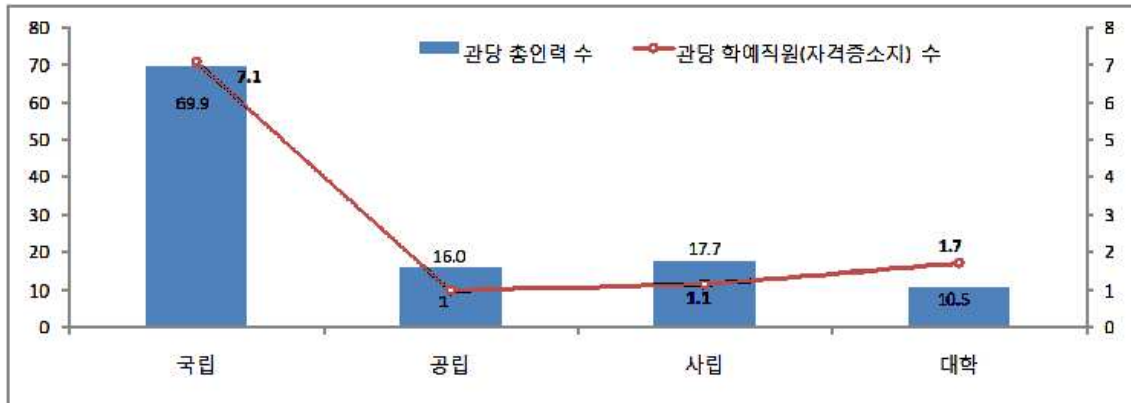
유형	관당 총인력 수	관당 학예직원(자격증소지) 수
국립	69.90	7.10
공립	16.03	0.97
사립	17.70	1.13
대학	10.48	1.70
전국	18.44	1.41

자료 : 2011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문화체육관광부, 2011(2010.12.31 기준))

주1) 본 수치는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원자료를 바탕으로 자료 검증 및 수정을 거친 결과로, 공표된 결과와 다를 수 있음

[그림 5.3.2.5] 유형별 박물관 관당 총인력 수 및 관당 학예직원(자격증소지) 수

(단위: 명)



-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에 따르면 학예직원(자격증소지자)이 없는 박물관 2010년 기준 224관으로 2009년 209관 보다 15관이 증가하였음
 -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지역이 가장 많은 4관이 증가하였고 경기와 경남이 3관 증가, 강원이 2관 증가 순으로 나타남(총 9개 지역에서 증가)
 - 대구의 경우 학예직원(자격증소지자)이 없는 박물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유형별로 살펴보면, 학예직원(자격증소지자)이 없는 박물관은 모든 유형의 박물관에서 증가하였으며, 사립박물관이 가장 많은 10관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10년 기준 지역별로 학예직원(자격증소지자)이 없는 박물관 수를 살펴보면, 경기 지역이 36관으로 가장 많으며, 강원이 34관, 경북이 23관, 전남과 경남이 19관 순으로 나타남
- 2010년 기준 유형별로 학예직원(자격증소지자)이 없는 박물관 수를 살펴보면, 공립이 141관으로 가장 많으며, 사립 67관, 대학 9관, 국립 7관 순으로 나타남

[표 5.3.2.5] 학예직원(자격증소지자)이 없는 박물관 현황

(단위: 관)

지역	박물관									
	2009년					2010년				
	국립	공립	사립	대학	계	국립	공립	사립	대학	계
서울	4	0	6	0	10	3	2	8	1	14
부산	0	0	0	0	0	0	0	0	1	1
대구	0	0	0	0	0	0	0	0	0	0
인천	0	3	4	0	7	0	3	4	0	7
광주	0	1	0	1	2	0	1	0	1	2
대전	0	1	1	1	3	0	1	1	2	4
울산	0	4	0	0	4	0	3	0	0	3
경기	0	18	14	1	33	0	17	18	1	36
강원	0	27	4	1	32	1	25	8	0	34
충북	0	15	2	0	17	0	15	3	0	18
충남	2	11	5	0	18	2	10	6	0	18

전 북	0	8	2	0	10	0	9	2	0	11
전 남	0	15	2	1	18	0	15	4	0	19
경 북	0	18	2	2	22	0	19	1	3	23
경 남	0	12	3	1	16	1	14	4	0	19
제 주	0	5	12	0	17	0	7	8	0	15
전국	6	138	57	8	209	7	141	67	9	224

자료 : 2011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문화체육관광부, 2011(2010.12.31 기준))

주1) 본 수치는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원자료를 바탕으로 자료 검증 및 수정을 거친 결과로, 공표된 결과와 다를 수 있음

- 『2011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에 따르면 2010년 기준 학예직원(자격증 소지)이 없는 박물관은 전국 224관으로 전체 박물관 중 34.20%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남 지역이 54.29%로 가장 비율이 크며, 충북이 46.15%, 울산이 42.86%, 경북이 40.35% 순으로 나타남
 - 한편 학예직원(자격증 소지)이 없는 박물관의 비율이 낮은 지역은 대구(0%), 서울(3.33%), 부산(8.33%) 등으로 나타남
- 유형별로 살펴보면, 국립박물관이 48.79%로 가장 비율이 크며, 사립이 26.69%, 국립이 23.33%, 대학이 10.59% 순으로 나타남

[표 5.3.2.6] 지역별·유형별 학예직원(자격증 소지)이 없는 박물관 비율 (단위: 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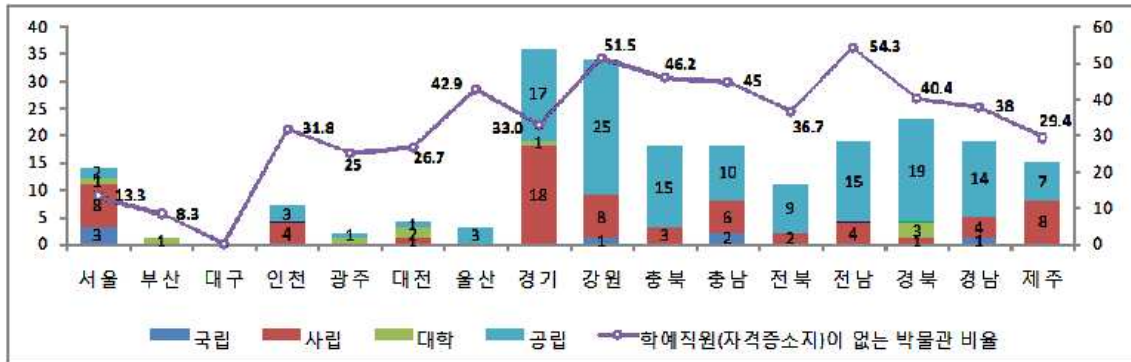
지역	박물관(지역별)			박물관(유형별)			
	박물관 수	학예직원 (자격증소지) 이 없는 박물관	학예직원 (자격증소지) 이 없는 박물관 비율 (%)	유형	학예직원 (자격증소지) 이 없는 박물관	총 박물관 수	학예직원 (자격증소지) 이 없는 박물관 비율 (%)
서울	105	14	13.33	국립	7	30	23.33
부산	12	1	8.33				
대구	9	0	0				
인천	22	7	31.82				
광주	8	2	25	공립	141	289	48.79
대전	15	4	26.67				
울산	7	3	42.86				
경기	109	36	33.03				
강원	66	34	51.52	사립	67	251	26.69
충북	39	18	46.15				
충남	40	18	45				
전북	30	11	36.67				
전남	35	19	54.29	대학	9	85	10.59
경북	57	23	40.35				
경남	50	19	38				
제주	51	15	29.41				
전국	655	224	34.20	전국	224	655	34.20

자료 : 2011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문화체육관광부, 2011(2010.12.31 기준))

주1) 본 수치는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원자료를 바탕으로 자료 검증 및 수정을 거친 결과로, 공표된 결과와 다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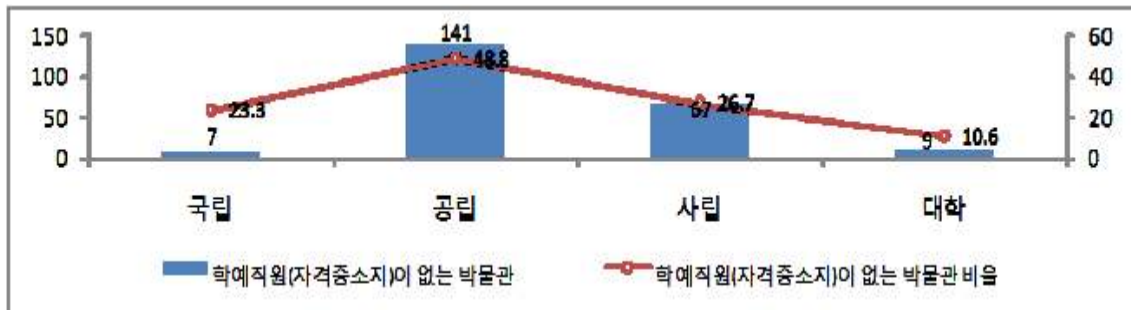
[그림 5.3.2.6] 지역별 학예직원(자격증소지)이 없는 박물관 현황

(단위: 관, %)



[그림 5.3.2.7] 유형별 학예직원(자격증소지)이 없는 박물관 현황

(단위: 관, %)



5.3.3 미술관 인력규모

- 『2011전국문화시설기반총람』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총 1,298명으로 나타나며, 학예직원(자격증소지) 297명, 행정직(전문직) 453명, 기타(용역 등) 540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남
- 전국 미술관의 인력 구성은 기타(용역 등)가 41.60%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며 행정직(전문직) 34.90%, 학예직원(자격증소지) 22.88%의 순으로 나타남
- 학예직원(자격증소지)의 경우 인천(50%), 충남(43.8%), 전남(39%), 충북(32.1%)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30% 미만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한편 학예직원(자격증소지)의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전북(13.89%), 제주(15.93%), 대구(16.67%) 등으로 나타남

[표 5.3.3.1] 미술관 인력 현황 및 비율

(단위: 명, %)

지역	인력총계	학예직원 (자격증소지)		행정직 (전문직)		기타 (용역등)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서울	380	83	21.84	113	29.74	176	46.32
부산	65	13	20	6	9.23	46	70.77
대구	6	1	16.67	5	83.33	0	0
인천	14	7	50	3	21.43	4	28.57
광주	98	22	22.45	36	36.73	40	40.82
대전	44	12	27.3	18	40.9	14	31.8
울산	0	0	0	0	0	0	0
경기	310	73	23.55	123	39.68	114	36.77
강원	38	8	21.05	13	34.21	17	44.74
충북	28	9	32.14	4	14.29	14	50
충남	16	7	43.75	4	25	5	31.25
전북	36	5	13.89	19	52.78	12	33.33
전남	41	16	39.02	14	34.15	11	26.83
경북	39	10	25.64	15	38.46	14	35.9
경남	70	13	18.57	22	31.43	35	50
제주	113	18	15.93	58	51.33	38	33.63
전국	1,298	297	22.88	453	34.90	540	41.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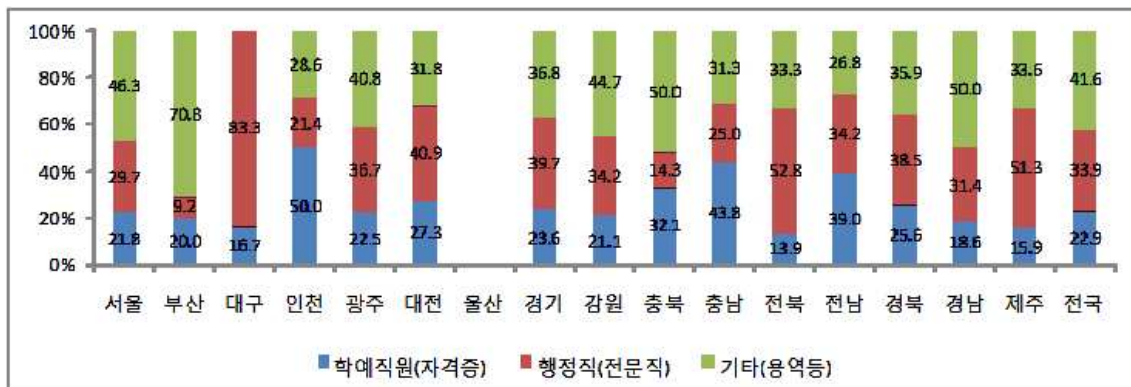
자료 : 2011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문화체육관광부, 2011(2010.12.31 기준))

주1) 본 수치는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원자료를 바탕으로 자료 검증 및 수정을 거친 결과로, 공표된 결과와 다를 수 있음

주2)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자료에 결측치가 존재하므로 세부 인력 항목의 합과 인력총계의 합이 같지 않음

[그림 5.3.3.1] 지역별 미술관 인력 구성 비율

(단위: %)



- 유형별 미술관 인력 구성을 살펴보면 국립을 제외한 나머지 유형의 미술관에서 기타(용역 등)의 비율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국립의 경우 행정직(전문직)의 비율이 가장 크며 대학의 경우 행정직(전문직)의 비율이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남
- 유형별 미술관 인력 구성은 국립을 제외한 나머지 유형에서 기타(용역 등) 인력의 비율이 가장 큼

- 국립의 경우 행정직(전문직)의 비율이 가장 크며 대학의 경우 학예직(전문직)의 비율이 가장 작음
- 나머지 3가지 유형과 비교했을 때 사립 유형이 상대적으로 인력 구성이 고른 비율로 구성됨

[표 5.3.3.2] 유형별 미술관 인력현황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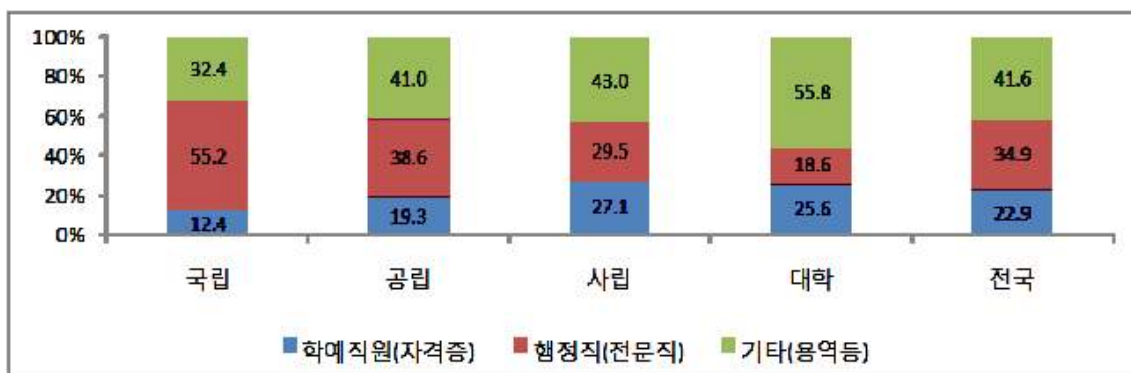
지역	인력총계	학예직원 (자격증소지)		행정직 (전문직)		기타 (용역등)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국립	145	18	12.41	80	55.17	47	32.41
공립	415	80	19.28	160	38.55	170	40.96
사립	695	188	27.05	205	29.5	299	43.02
대학	43	11	25.58	8	18.6	24	55.81
전국	1298	297	22.88	453	34.90	540	41.60

자료 : 2011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문화체육관광부, 2011(2010.12.31 기준))

주1) 본 수치는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원자료를 바탕으로 자료 검증 및 수정을 거친 결과로, 공표된 결과와 다를 수 있음

[그림 5.3.3.2] 유형별 미술관 인력 구성 비율

(단위: %)



- 전국적으로 관 당 총인력 수는 9.27 명이고 지역인구 백만명 당 총인력 수는 25.69명이며, 관 당 학예직원(자격증소지) 수는 2.14명이고, 지역인구 백만명 당 학예직원(자격증소지) 수는 5.88명으로 나타남
- 관 당 총인력 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주지역이 16.33명으로 가장 많고, 부산이 16.25명, 서울이 11.88명, 경기도가 11.07명 순으로 나타남
 - 한편 관당 총인력 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충남(2.67명), 전남(3.42명), 인천(3.50명) 등으로 나타남
- 지역인구 백만명 당 총인력 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제주지역이 197.81명으로 가장 많으며, 광주가 67.37명, 서울이 36.85명, 경기도가 26.3명 순으로 나타남
 - 한편 지역인구 백만명 당 총인력 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대구(2.39명), 인천(5.08명), 충남(7.71명) 등으로 나타남

- 관 당 학예직원(자격증소지) 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주지역이 3.67명으로 가장 많으며, 부산이 3.25명, 서울이 2.68명, 경기도가 2.61명 순으로 나타남
- 한편 관 당 학예직원(자격증소지) 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대구와 부산(1명), 충남(1.17명) 등으로 나타남
- 지역인구 백만 명 당 학예직원(자격증소지)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제주지역이 31.51명으로 가장 많으며, 광주가 15.12명, 전남이 8.34명, 서울이 8.05명 순으로 나타남
- 한편 지역인구 백만 명당 학예직원(자격증소지) 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대구(0.40명), 인천(2.54명), 전북(2.68명) 등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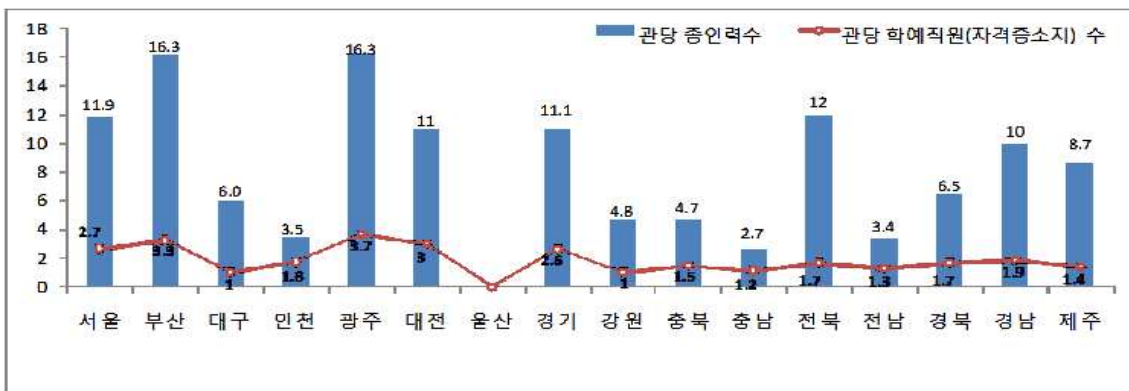
[표 5.3.3.3] 지역별 인구 백만 명 당 인력 및 학예직원(자격증소지) 수 (단위: 명)

	관당 총인력 수	지역인구 백만 명 당 총인력 수	관당 학예직원 (자격증소지) 수	지역인구 백만 명 당 학예직원 (자격증소지) 수
서울	11.88	36.85	2.68	8.05
부산	16.25	18.22	3.25	3.64
대구	6	2.39	1	0.40
인천	3.50	5.08	1.75	2.54
광주	16.33	67.37	3.67	15.12
대전	11	29.26	3	7.98
울산	0	0	0	0
경기	11.07	26.30	2.61	6.19
강원	4.75	24.84	1	5.23
충북	4.67	18.07	1.50	5.81
충남	2.67	7.71	1.17	3.37
전북	12	19.26	1.67	2.68
전남	3.42	21.37	1.33	8.34
경북	6.50	14.50	1.67	3.72
경남	10	21.27	1.86	3.95
제주	8.69	197.81	1.38	31.51
전국	9.27	25.69	2.14	5.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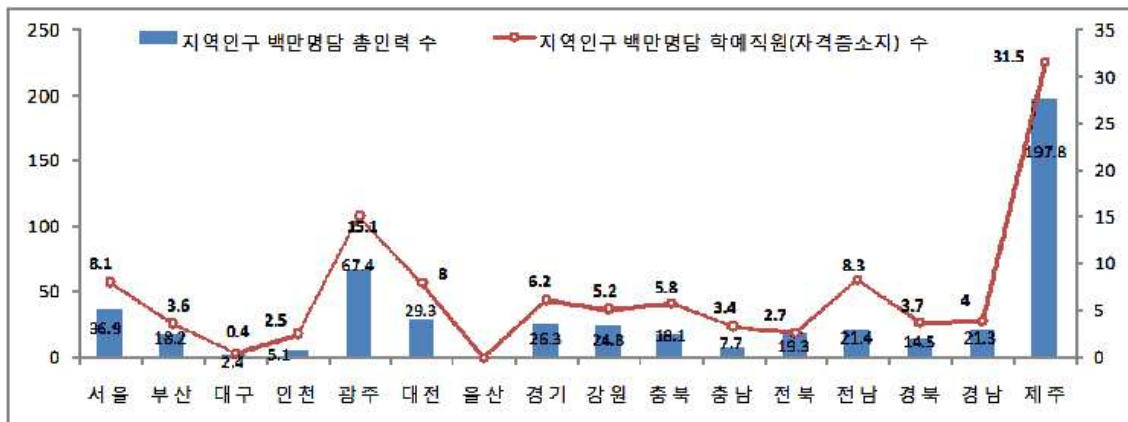
자료 : 2011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문화체육관광부, 2011(2010.12.31 기준))

주1) 본 수치는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원자료를 바탕으로 자료 검증 및 수정을 거친 결과로, 공표된 결과와 다를 수 있음

[그림 5.3.3.3] 미술관 당 총 인력 및 지역인구 백만 명당 총 인력 (단위: 명)



[그림 5.3.3.4] 미술관 지역인구 백만명당 총인력 수 및 학예직원(자격증소지) 수 (단위: 명)



- 관 당 총인력 수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국립이 145명으로 가장 많으며, 공립 14.31명, 대학 8.60명, 사립 6.62명 순으로 나타남
- 관 당 학예직원(자격증소지) 수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국립이 18명으로 가장 많으며, 공립이 2.86명, 대학이 2.20명, 사립이 1.79명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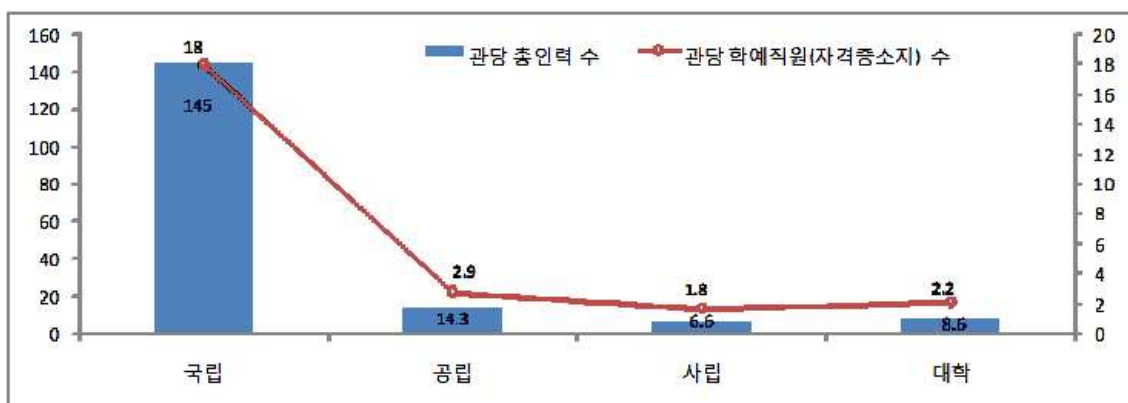
[표 5.3.3.4] 유형별 미술관 관당 총인력 수 및 관당 학예직원(자격증소지)수 (단위: 명)

유형	관당 총인력 수	관당 학예직원(자격증소지) 수
국립	145	18
공립	14.31	2.86
사립	6.62	1.79
대학	8.60	2.20
전국	9.27	2.14

자료 : 2011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문화체육관광부, 2011(2010.12.31 기준))

주1) 본 수치는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원자료를 바탕으로 자료 검증 및 수정을 거친 결과로, 공표된 결과와 다를 수 있음

[그림 5.3.3.5] 유형별 미술관 관당 총인력 수 및 관당 학예직원(자격증소지) 수 (단위: 명)



-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에 따르면 학예직원(자격증소지)이 없는 미술관은 2010년 기

준 16관으로 2009년 20관보다 4관이 줄어들었음

- 지역별로 살펴보면 충남에서 2개관이 줄었고 대전과 경기에서 1개관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학예직원(자격증소지)이 없는 박물관이 없는 지역은 부산, 대구, 인천, 광주, 경북으로 나타남
-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립에서 4개관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2010년 기준 학예직원(자격증)이 없는 미술관의 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원지역이 4관으로 가장 많으며, 경기가 3관, 서울이 2관 순으로 나타남
- 유형별로는 사립 13개, 공립 3개 순으로 나타남

[표 5.3.3.5] 학예직원(자격증소지)이 없는 미술관 현황 (단위: 관)

지역	미술관							
	2009년				2010년			
	공립	사립	대학	계	공립	사립	대학	계
서울	0	2	0	2	0	2	0	2
부산	0	0	0	0	0	0	0	0
대구	0	0	0	0	0	0	0	0
인천	0	0	0	0	0	0	0	0
광주	0	0	0	0	0	0	0	0
대전	0	2	0	2	0	1	0	1
울산	0	0	0	0	0	0	0	0
경기	0	4	0	4	0	3	0	3
강원	2	2	0	4	2	2	0	4
충북	0	1	0	1	0	1	0	1
충남	0	3	0	3	0	1	0	1
전북	0	1	0	1	0	1	0	1
전남	0	1	0	1	0	1	0	1
경북	1	0	0	1	0	0	0	0
경남	0	0	0	0	1	0	0	1
제주	0	1	0	1	0	1	0	1
전국	3	17	0	20	3	13	0	16

자료 : 2011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문화체육관광부, 2011(2010.12.31 기준))

주1) 본 수치는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원자료를 바탕으로 자료 검증 및 수정을 거친 결과로, 공표된 결과와 다를 수 있음

- 학예직원(자격증소지)이 없는 미술관은 전국 16관으로 전체 미술관 중 11.03%에 해당함
-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원이 50%로 가장 크며, 전북이 33.33%, 충북, 충남, 경북이 16.67% 순으로 나타남
-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립이 12.38%로 가장 크며, 공립이 8.57%의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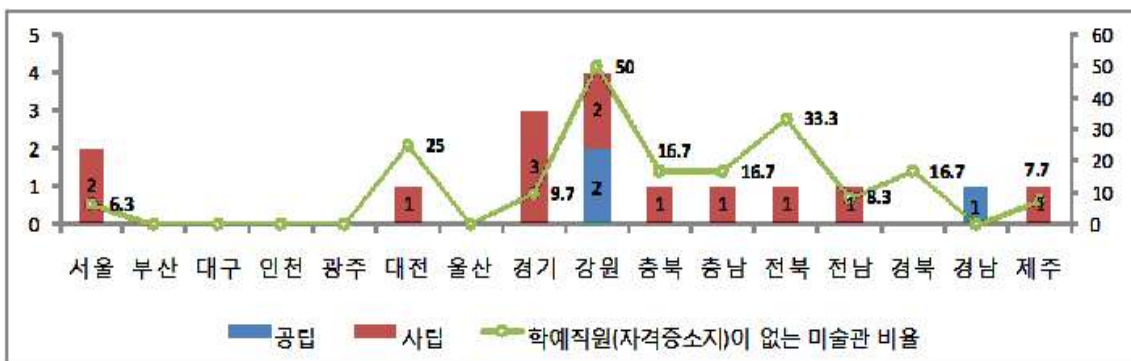
[표 5.3.3.6] 지역별·유형별 학예직원(자격증 소지)이 없는 미술관 비율 (단위: 관, %)

지역	미술관(지역별)			미술관(유형별)			
	미술관 수	학예직원 (자격증소지) 이 없는 미술관	학예직원 (자격증소지) 이 없는 미술관 비율 (%)	유형	학예직원 (자격증소 지)이 없는 미술관	총 미술관 수	학예직원 (자격증소지) 이 없는 미술관 비율 (%)
서울	32	2	6.25	공립	3	35	8.57
부산	4	0	0				
대구	2	0	0				
인천	5	0	0				
광주	5	0	0				
대전	4	1	25	사립	13	105	12.38
울산	0	0	0				
경기	31	3	9.68				
강원	8	4	50				
충북	6	1	16.67				
충남	6	1	16.67	대학	0	5	0
전북	3	1	33.33				
전남	12	1	8.33				
경북	6	1	16.67				
경남	7	0	0				
제주	13	1	7.69	전국	16	145	11.03
전국	145	16	1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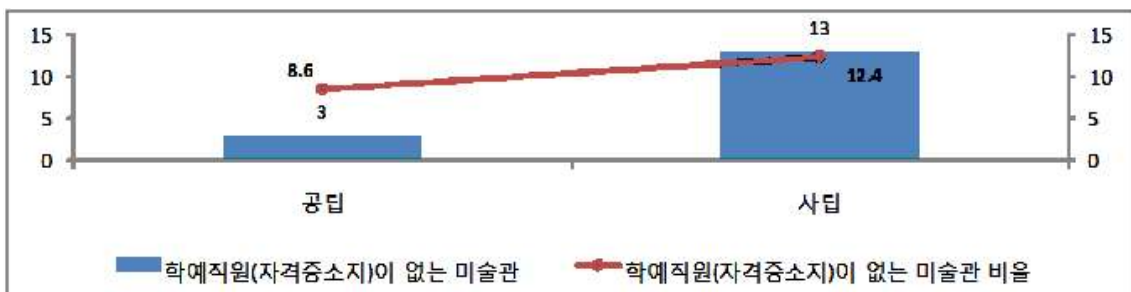
자료 : 2011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문화체육관광부, 2011(2010.12.31 기준))

주1) 본 수치는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원자료를 바탕으로 자료 검증 및 수정을 거친 결과로, 공표된 결과와 다를 수 있음

[그림 5.3.3.6] 지역별 학예직원(자격증 소지)이 없는 미술관 (단위: 관, %)



[그림 5.3.3.7] 유형별 학예직원(자격증 소지)이 없는 미술관 (단위: 관, %)



5.3.3.1 해외 주요국과의 비교 : 박물관 및 미술관 인력규모

- 해외 주요국 박물관 및 미술관의 인력규모는 다음과 같이 나타남
- 먼저 전체 직원 수는 일본(2008년 기준)이 45,979명으로 가장 많으며, 프랑스(2003년 기준)가 22,300명, 스페인(2008년 기준)이 14,790명, 한국(2010년 기준)이 13,282명, 영국(2007년 기준)이 5,199명으로 나타남
- 한편 박물관(미술관 포함) 당 직원 수는 프랑스가 19.01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스페인이 16.54명, 한국이 16.60명, 일본이 9.8명, 영국이 2.91명으로 나타남
- 각국 인구 백만명 당 직원 수는 프랑스가 369.8명으로 가장 많으며, 일본이 360.1명, 스페인이 326.6명, 한국이 271.7명, 영국이 85.3명으로 나타남

[표 5.3.5.6.2] 주요 국가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직원 현황

(단위: 명)

국가	연도	전체직원 수	인구 백만명당 직원수	관당 직원수
한국	2008	12,751	262.3	18.04
	2009	14,371	294.8	18.64
	2010	13,282	271.7	16.60
영국	2007	5,199	85.3	2.91
스페인	2008	14,790	326.6	16.54
프랑스	2003	22,300	369.8	19.01
일본	2008	45,979	360.1	9.80

자료1) 스페인, 프랑스 - EGMUS(<http://egmus.eu>)

자료2) 영국 - LISU(<http://lboro.ac.uk/departments/is/lisu/lampost08/emp08.html#musem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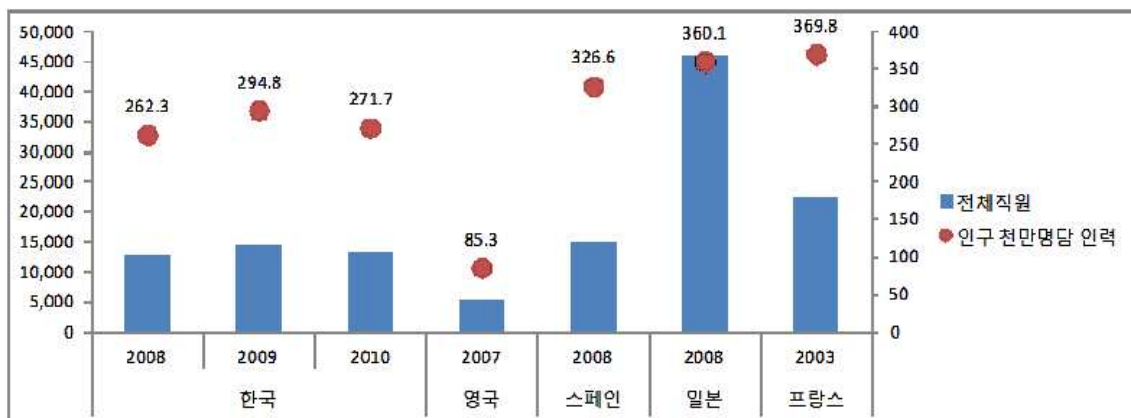
자료3) 일본 - 사회교육조사(문부과학성, 2008)

주1) 영국의 경우 Full-time 직원은 27%, Part-time 직원은 19%, 무급 자원봉사자 수는 53%로 나타남

주2) 일본의 경우 전체직원 수는 등록박물관, 박물관 상당시설, 박물관 유사시설의 전임, 겸임, 비상근 직원을 모두 합한 값임
이 중 전문인력으로 볼 수 있는 학예원의 비율은 14.8%로 나타남

[그림 5.3.5.6.2] 주요 국가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직원 현황

(단위: 명)



5.3.4 문예회관 인력규모

- 문예회관 근무형태 및 고용형태별 현황을 통해 문예회관 인력 규모를 파악함
- 『문예회관 운영현황조사』에 따르면, 2009년 문예회관의 전체 인력 수는 전국적으로 3,477명이며 이는 인구 십만 명당 7명에 해당되는 한편, 관 당 평균적으로 19.6명이 근무하고 있음
 - 지역별로 살펴보면, 문예회관 인력수가 많은 지역은 경기(801명), 서울(629명), 경남(296명)으로 나타남
 - 그러나 인구 십만 명당 문예회관 인력수를 살펴보면 전북(14.5명), 강원(9.2명), 경남(9.1명)이 높게 나타남
 - 한편, 관 당 문예회관 인력수는 서울(48.4명), 부산(27.9명), 대전(26.5명)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이 지역의 문예회관이 평균적으로 규모가 크기 때문임
- 문예회관 인력을 크게 4종류의 근무형태로 구분했을 때, 전국적인 분포는 행정(경영)지원인력(43%), 공연사업인력(24%), 무대기술인력(22%), 공연 외 사업인력(11%)임
 - 그 중 공연사업인력의 분포가 높은 지역은 경기(38%), 전북·대전(28%), 부산·경북(25%)으로 나타남
 - 무대기술인력의 구성비율이 높게 나타난 지역은 충북(39%), 대전(34%), 전남(29%)으로 나타남

[표 5.3.4.1] 지역별 문예회관 인력 규모 현황(2009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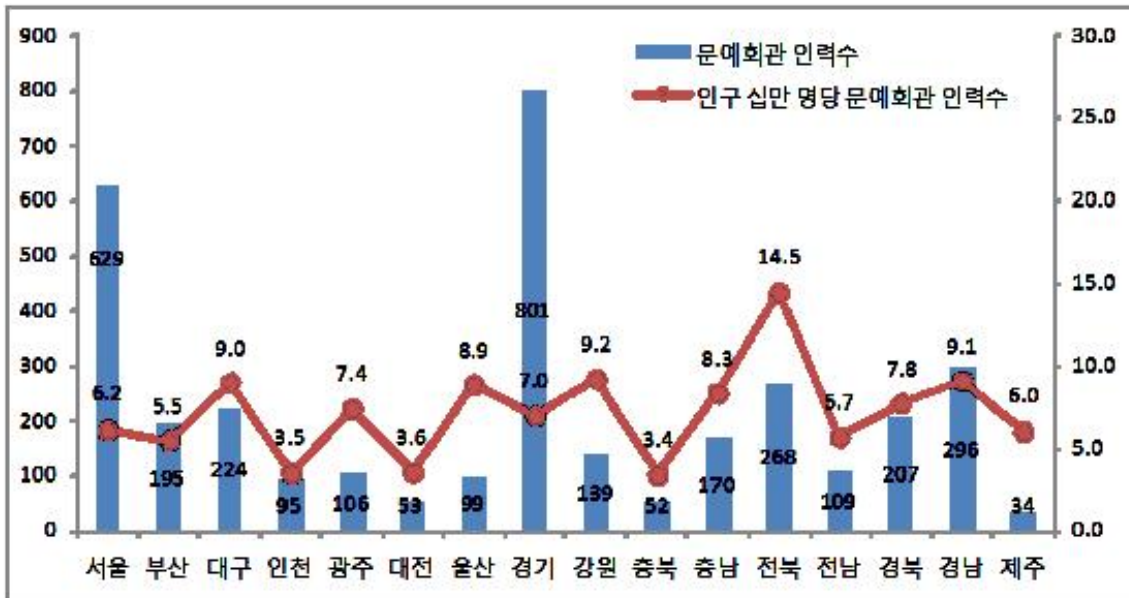
(단위: 개소, 명, %)

구분	응답 시 설	합계												유형별 구성비율			
		전체			행정(경영) 지원인력(1)		공연사업 인력(2)		무대기술 인력(3)		공연외사 업인력(4)		1	2	3	4	
		수	십만 명당	관 당	수	관 당	수	관 당	수	관 당	수	관 당					
서울	13	629	6.2	48.4	250	19.2	138	10.6	76	5.8	165	12.7	40	22	12	26	
부산	7	195	5.5	27.9	103	14.7	49	7	40	5.7	3	0.4	53	25	21	2	
대구	8	224	9.0	28	121	15.1	23	2.9	42	5.3	38	4.8	54	10	19	17	
인천	5	95	3.5	19	52	10.4	15	3	26	5.2	2	0.4	55	16	27	2	
광주	5	106	7.4	21.2	59	11.8	15	3	28	5.6	4	0.8	56	14	26	4	
대전	2	53	3.6	26.5	18	9	15	7.5	18	9	2	1	34	28	34	4	
울산	3	99	8.9	33	41	13.7	23	7.7	28	9.3	7	2.3	41	23	28	7	
경기	25	801	7.0	32	238	9.5	304	12.2	189	7.6	70	2.8	30	38	24	9	
강원	14	139	9.2	9.9	81	5.8	21	1.5	36	2.6	1	0.1	58	15	26	1	
충북	11	52	3.4	4.7	27	2.5	5	0.5	20	1.8	0	0	52	10	39	0	
충남	15	170	8.3	11.3	90	6	31	2.1	36	2.4	13	0.9	53	18	21	8	
전북	17	268	14.5	15.8	131	7.7	76	4.5	56	3.3	5	0.3	49	28	21	2	
전남	14	109	5.7	7.8	57	4.1	16	1.1	32	2.3	4	0.3	52	15	29	4	
경북	20	207	7.8	10.4	102	5.1	52	2.6	48	2.4	5	0.3	49	25	23	2	
경남	17	296	9.1	17.4	120	7.1	45	2.6	63	3.7	68	4	41	15	21	23	
제주	1	34	6.0	34	19	19	5	5	8	8	2	2	56	15	24	6	
전국	177	3,477	7.0	19.6	1,509	8.5	833	4.7	746	4.2	389	2.2	43	24	22	11	

자료 : 2010 문예회관 운영현황 조사(예술경영지원센터, 2010(2009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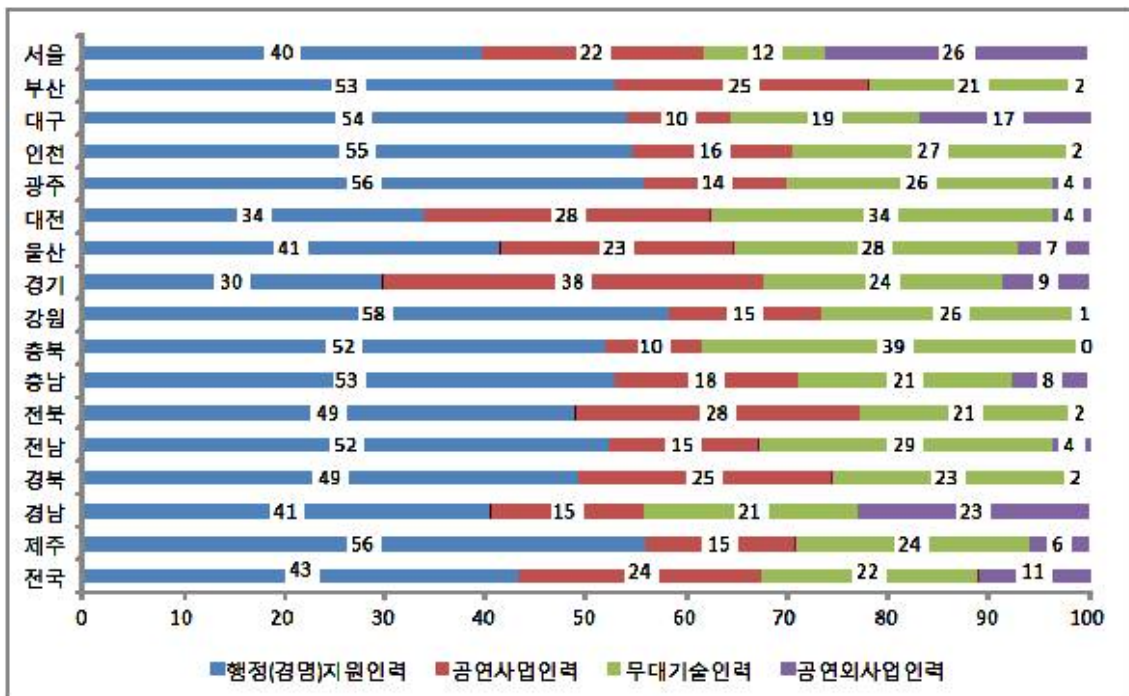
[그림 5.3.4.1] 지역별 문예회관 인력규모(2009년 기준)

(단위: 명)



[그림 5.3.4.2] 지역별 문예회관 근무형태 유형별 구성 비율(2009년 기준)

(단위: %)



○ 문예회관의 정규직 인력비중은 전국적으로 69.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문예회관 정규직 인력비중을 살펴보면,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지역은 대구·강원(87.1%), 광주(85.8%), 제주(85.3%)로 나타남

- 반면, 비정규직 비율이 높게 나타는 지역을 살펴보면 대전(67.9%), 충남(43.5%), 인천(32.6%)으로 나타남

[표 5.3.4.2] 지역별 문예회관 인력 규모 현황(2009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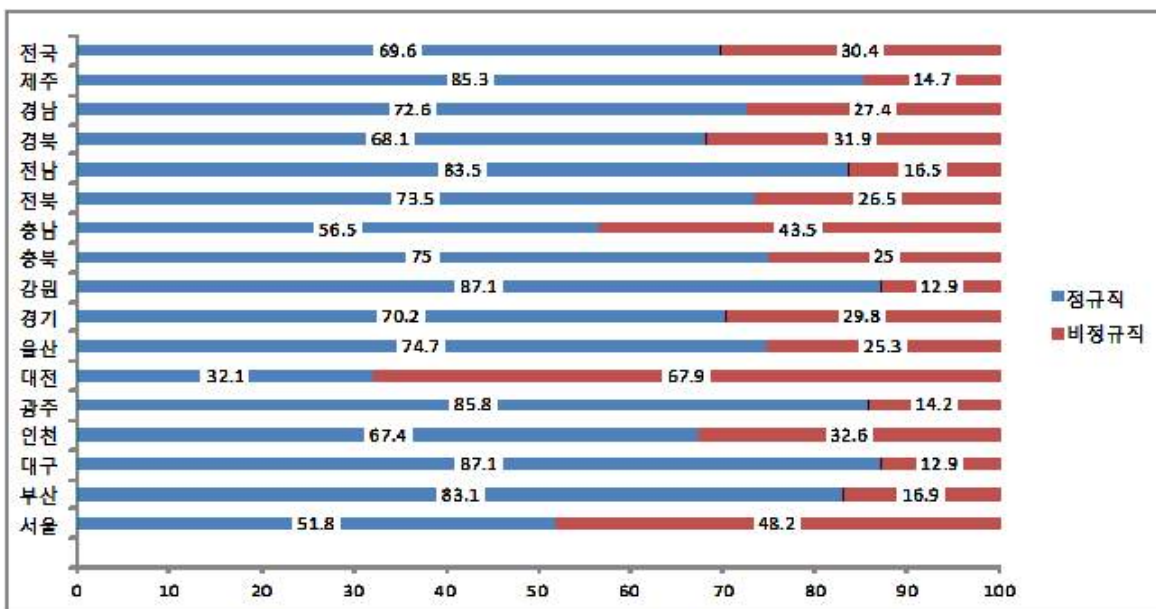
(단위: 명, %, 개소)

구분	응답 시설	고용형태별 인력						구성비율	
		전체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 직
		수	관 당	수	관 당	수	관 당		
서울	13	629	48.4	326	25.1	303	23.3	51.8	48.2
부산	7	195	27.9	162	23.1	33	4.7	83.1	16.9
대구	8	224	28	195	24.4	29	3.6	87.1	12.9
인천	5	95	19	64	12.8	31	6.2	67.4	32.6
광주	5	106	21.2	91	18.2	15	3	85.8	14.2
대전	2	53	26.5	17	8.5	36	18	32.1	67.9
울산	3	99	33	74	24.7	25	8.3	74.7	25.3
경기	25	801	32	562	22.5	239	9.6	70.2	29.8
강원	14	139	9.9	121	8.6	18	1.3	87.1	12.9
충북	11	52	4.7	39	3.5	13	1.2	75	25
충남	15	170	11.3	96	6.4	74	4.9	56.5	43.5
전북	17	268	15.8	197	11.6	71	4.2	73.5	26.5
전남	14	109	7.8	91	6.5	18	1.3	83.5	16.5
경북	20	207	10.4	141	7	66	3.3	68.1	31.9
경남	17	296	17.4	215	12.6	81	4.8	72.6	27.4
제주	1	34	34	29	29	5	5	85.3	14.7
전국	177	3,477	19.6	2,420	13.7	1,057	6	69.6	30.4

자료 : 2010 문예회관 운영현황 조사(예술경영지원센터, 2010(2009년 기준))

[그림 5.3.4.3] 지역별 문예회관 근무형태 유형별 구성 비율(2009년 기준)

(단위: %)



5.3.4.1. 해외 주요국과의 비교 : 문예회관의 인력 규모

- 일본 문화회관의 인력규모와 한국 문예회관의 인력규모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먼저 2008년 기준 일본 문화회관의 전체 인력은 10,856명이며, 문화회관 당 인력은 5.7명, 인구 백만명 당 인력 수는 85명으로 나타남
 - 인력 구성의 경우 정규직의 비율이 44.2%로 나타남
- 한편 한국 문예회관의 전체 인력은 2,905명이며, 문예회관 당 인력은 18.7명, 인구 백만명 당 인력 수는 59.8명으로 나타나 관 당 인력 수는 더 높게 나타나지만, 인구 백만명 당 인력 수는 일본에 비해 낮게 나타남
 - 정규직의 비율은 78.3%로 나타남

[표 5.3.4.1.1] 일본 문화회관과 한국 문예회관 인력규모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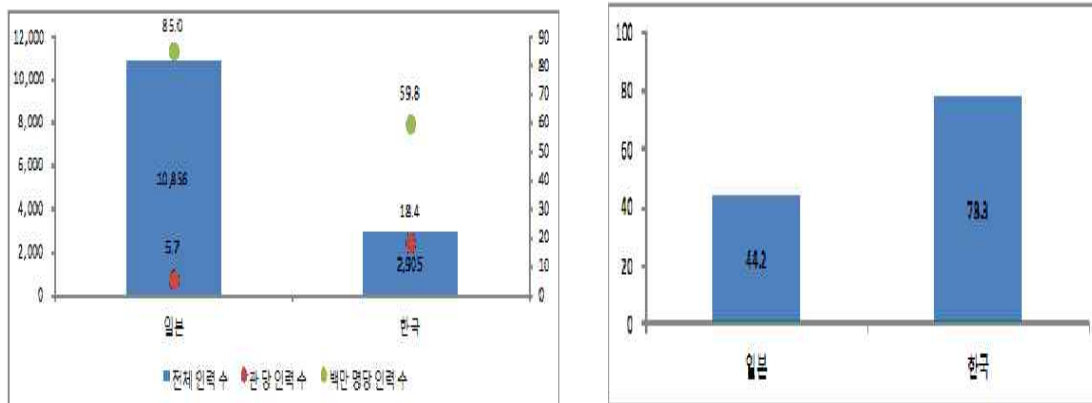
		인력 수			인력 구성		
		전체	관 당	백만 명당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율
2008	일본	10,856	5.7	85.0	4,801	6,055	44.2
	한국	2,905	18.4	59.8	2,275	630	78.3

자료1) 일본 - Social Education Survey(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2008)

자료2) 한국 - 문예회관운영현황조사(예술경영지원센터; 2009(2008년 기준))

주1) 2008년 문예회관운영현황조사에서 인력 현황에 응답한 158관의 수치로 작성하였음

[표 5.3.4.1.1] 일본 문화회관과 한국 문예회관 인력규모와 정규직 비율 (단위: 명, %)



5.3.5 지방문화원 인력규모

- 『2011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전국 지방문화원 인력의 총수는 749명이고 관 당 인력수는 3.42명이며, 지역인구 백만 명 당 총인력은 14.83명으로 나

타남

- 관당 인력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전지역이 5.4명으로 가장 많으며, 인천이 5.38명, 서울이 4.6명, 강원이 3.78명 순으로 나타남
- 한편 관당 인력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광주(8.25명), 대구(8.36명), 부산(9.81명) 등으로 나타남
- 지역인구 백만명당 총인력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원지역이 44.45명으로 가장 많으며, 충남이 26.98명, 경북이 25.28명, 전남이 25.02명 등으로 나타남
- 한편 지역인구 백만명당 총인력이 가장 적은 지역은 광주(8.25명), 대구(8.36명), 부산(9.81명) 등으로 나타남

[표 5.3.5.1] 지역별 지방문화원 인력 현황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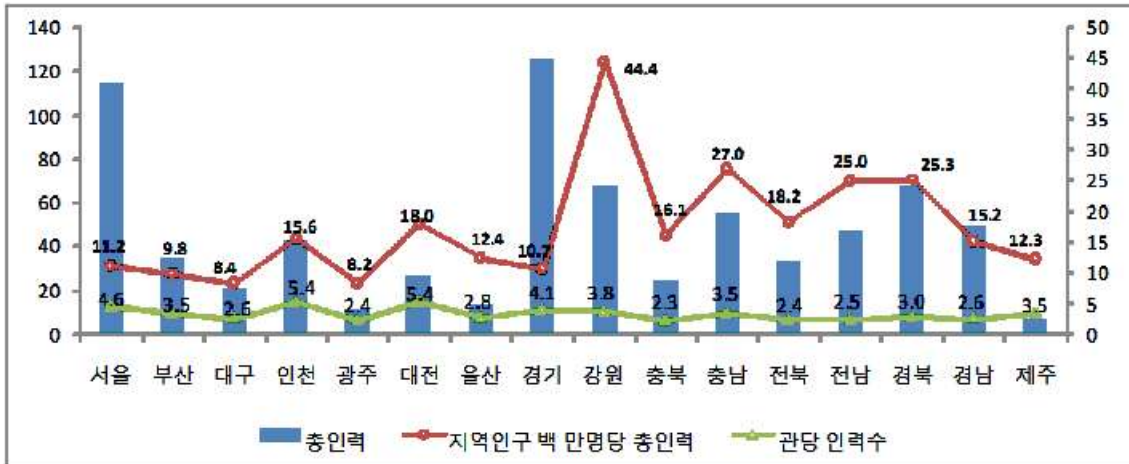
지역	총인력			사무국장	간사	기타(공무원등)
	인력수	관당 인력수	지역인구 백만명당 총인력			
서울	115	4.60	11.15	25	59	31
부산	35	3.50	9.81	10	16	9
대구	21	2.63	8.36	8	10	3
인천	43	5.38	15.59	8	32	3
광주	12	2.40	8.25	5	5	2
대전	27	5.40	17.96	5	20	2
울산	14	2.80	12.43	5	9	0
경기	126	4.06	10.69	31	79	16
강원	68	3.78	44.45	18	47	3
충북	25	2.27	16.13	11	13	1
충남	56	3.50	26.98	16	36	4
전북	34	2.43	18.19	14	16	4
전남	48	2.53	25.02	19	27	2
경북	68	2.96	25.28	23	41	4
경남	50	2.63	15.20	19	23	8
제주	7	3.50	12.25	2	5	0
전국	749	3.42	14.83	219	438	92

자료 : 2011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문화체육관광부, 2011(2010.12.31 기준))

주1) 본 수치는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원자료를 바탕으로 자료 검증 및 수정을 거친 결과로, 공표된 결과와 다를 수 있음

[그림 5.3.5.1] 지방문화원 인력 현황

(단위: 명)



5.4. 문화시설 가동률

5.4.1. 문예회관 공연장 가동률

- 『2010 문예회관 운영현황 조사』에서는 문예회관 공연장의 평균 가동률을 가동률1과 가동률2로 분류하여 분석하였음
 - 가동률 계산식에 따르면 실질적인 문예회관 공연장의 가동률은 1년 중 휴관일과 정비점검일을 제외한 계산식인 가동률1로 살펴볼 수 있음
- 전체적인 공연장의 평균 가동률은 서울, 대전, 제주지역이 높은 편이었으며, 강원, 전북 지역의 평균 가동률은 매우 낮은 편에 속함
 - 가동률1의 공연장 전체 가동률은 제주지역이 83%로 가장 높았으며 대전지역이 82.1%, 서울지역이 77.7%로 높은 가동률을 보임
 - 가동률1의 공연프로그램 가동률은 제주지역이 75.8%로 가장 높았으며, 전북 지역이 17.6%의 가동률을 보여 제주지역과 전북지역의 공연프로그램 가동률의 차이는 58.2%p였음
 - 1년을 기준으로 한 가동률2의 공연장 전체 가동률과 공연 프로그램 가동률은 전북, 강원 지역이 가장 낮았음

※ 가동률 계산식

구분	가동률1	가동률2
공연장가동률	$\frac{\text{전체가동일}^*}{365\text{일}-(\text{휴관일}+\text{정비점검일})} \times 100$	$\frac{\text{전체가동일}^*}{365\text{일}} \times 100$
공연프로그램 가동률	$\frac{\text{공연프로그램 가동일}^*}{365\text{일}-(\text{휴관일}+\text{정비점검일})} \times 100$	$\frac{\text{공연프로그램 가동일}^*}{365\text{일}} \times 100$

* 전체가동일 = (공연일+공연준비철수일) + (기타행사일+기타행사준비철수일)

* 공연프로그램 가동일 = 공연일 + 공연준비철수일

[표 5.4.1] 문예회관 공연장 평균 가동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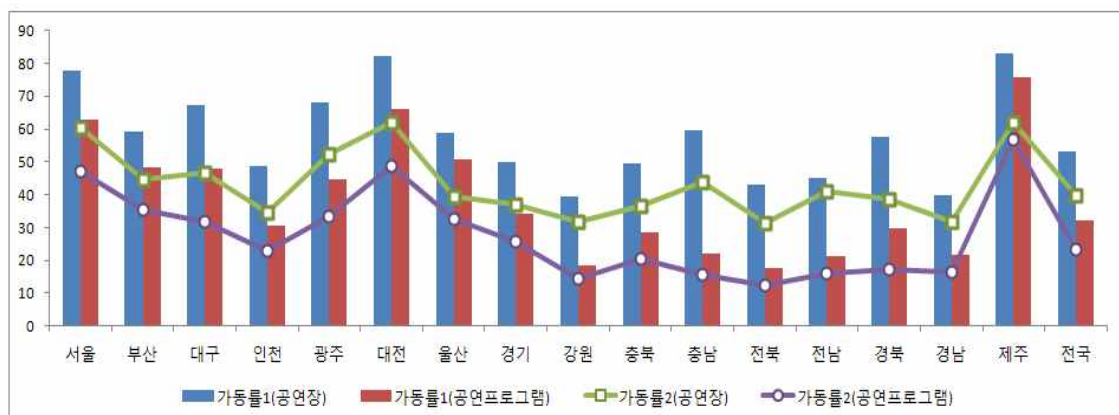
(단위: 개소, %)

구분	응답 공연장(개)	가동률1 평균		가동률2 평균	
		공연장 전체	공연프로그램	공연장전체	공연프로그램
서울	18	77.7	63.0	60.4	47.2
부산	13	59.4	48.2	44.6	35.5
대구	12	67.5	48.0	46.8	31.9
인천	9	48.6	30.4	34.7	22.7
광주	6	68.3	44.8	52.4	33.4
대전	3	82.1	66.1	61.9	48.7
울산	4	58.9	50.8	39.5	32.7
경기	52	49.8	34.0	37.2	25.7
강원	20	39.6	18.6	31.6	14.3
충북	13	49.4	28.7	36.6	20.5
충남	23	59.6	22.0	43.7	15.8
전북	20	43.2	17.6	31.3	12.2
전남	21	45.1	21.2	41.0	16.1
경북	23	57.6	29.7	38.5	17.1
경남	25	40.0	21.6	31.7	16.4
제주	2	83.0	75.8	62.1	56.7
전국	264	53.1	32.1	39.9	23.2

자료 : 2010 문예회관 운영현황 조사(예술경영지원센터, 2010(2009년 기준))

[그림 5.4.1] 문예회관 공연장 평균 가동률

(단위: %)



5.5. 문화시설 프로그램의 수

5.5.1. 문예회관 공연 및 기타행사/공연 프로그램 수

- 『2010 문예회관 운영현황 조사』에 따르면 2009년의 문예회관 공연 및 기타행사와 공연프로그램의 총 건수는 전국적으로 22,824건이었으며, 그 중 공연프로그램은 10,312건(45.2%) 기타 행사는 12,512건(54.8%)으로 나타남
 - 한편 공연프로그램 건수 중 자체기획 공연의 비율은 25.1%(2,583건), 대관공연의 비율은 74.9%(7,729건)로 나타나 프로그램 건수로 보면 기타행사 > 대관 공연 > 자체기획 공연의 순으로 나타남
 - 한편 연간 문예회관 당 프로그램의 건수를 살펴보면 공연 및 기타행사를 포함한 전체 프로그램의 수는 80.4건이며, 이 중 공연프로그램 건수는 36.3건(44.1%), 기타행사 건수는 44.1건(55.9%)으로 나타남. 또한 연간 문예회관 당 자체기획 공연 프로그램의 수는 9.1건, 대관 공연 프로그램 건수는 27.2건으로 나타나 역시 기타 행사 > 대관 공연 > 자체기획 공연의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는 경기(3,684건), 충남(2,333건), 경남(2,296건), 서울(1,985건), 경북(1,921건), 부산(1,092건) 지역 문예회관의 프로그램 건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 중에서도 자체기획 공연 프로그램 건수가 높게 나타난 지역은 경기(489건), 서울(383건), 부산(213건), 충남(190건), 경남(163건)임
- 문예회관 당 자체기획 공연건수가 높게 나타난 지역은 대전(35.7건), 울산(20.5건), 서울(18.2건), 부산(15.2건), 광주(14.8건)으로 나타남
 - 제주도의 경우 자체기획 공연 프로그램 건수가 3.5건으로 가장 낮게 나타난 반면, 대관공연 건수는 가장 높게 나타남

[표 5.5.1] 2009년 문예회관 공연 및 기타행사 / 공연프로그램 건수 (단위: 개소,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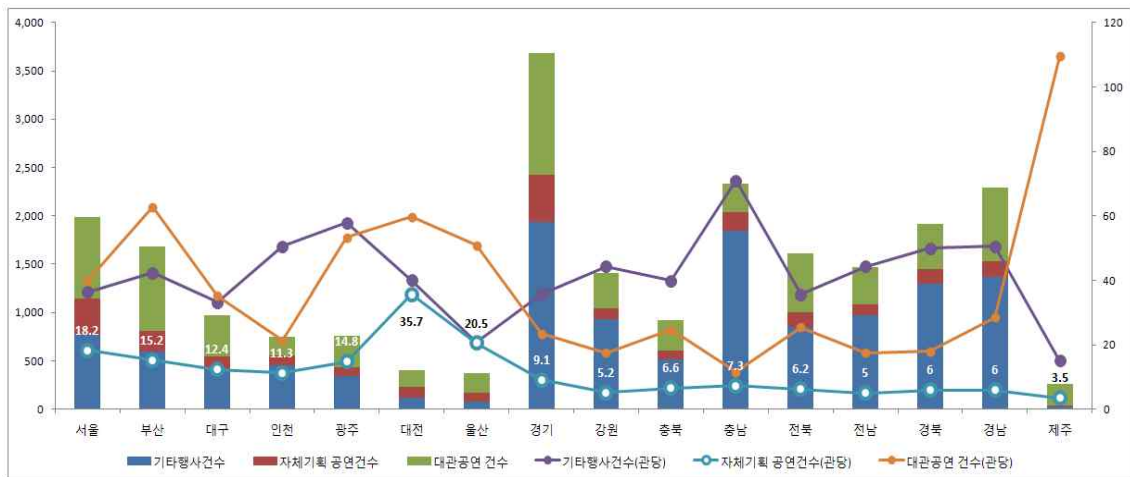
구분	응답 공연장 (개)	공연 및 기타행사 총 건수				관당 공연 및 기타행사 건수				관당 공연프로그램 비중(%)
		공연프로그램			공연프로그램					
			자체 기획	대관		자체 기획	대관			
서울	21	1,985	1,220	383	837	94.5	58.1	18.2	39.9	61.5
부산	14	1,685	1,092	213	879	120.4	78.0	15.2	62.8	64.8
대구	12	970	571	149	422	80.8	47.6	12.4	35.2	58.9
인천	9	750	294	102	192	83.3	32.7	11.3	21.3	39.2
광주	6	756	409	89	320	126.0	68.2	14.8	53.3	54.1
대전	3	406	286	107	179	135.3	95.3	35.7	59.7	70.4
울산	4	368	285	82	203	92.0	71.3	20.5	50.8	77.4
경기	54	3,684	1,752	489	1,263	68.2	32.4	9.1	23.4	47.6
강원	21	1,408	476	109	367	67.0	22.7	5.2	17.5	33.8

충북	13	925	407	86	321	71.2	31.3	6.6	24.7	44
충남	26	2,333	489	190	299	89.7	18.8	7.3	11.5	21
전북	24	1,612	757	148	609	67.2	31.5	6.2	25.4	47
전남	22	1,469	496	110	386	66.8	22.5	5.0	17.5	33.8
경북	26	1,921	623	156	467	73.9	24.0	6.0	18.0	32.4
경남	27	2,296	929	163	766	85.0	34.4	6.0	28.4	40.5
제주	2	256	226	7	219	128.0	113.0	3.5	109.5	88.3
전국	284	22,824	10,312	2,583	7,729	80.4	36.3	9.1	27.2	45.2

자료 : 2010 문예회관 운영현황 조사(예술경영지원센터, 2010(2009년 기준))

[그림 5.5.1] 2009년 문예회관 공연 및 기타행사 / 공연프로그램 건수

(단위: 건)



- 한편 문예회관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의 횟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2009년 기준 전국의 문예회관 프로그램 총 횟수는 37,463회로 공연프로그램 횟수는 4,507회(54.6%), 기타 행사 프로그램의 횟수는 1,210회(45.4%)로 나타남
 - 연간 문예회관에서 이루어진 공연프로그램 횟수 중 자체기획 공연의 횟수는 6,657회 (32.6%)였고 대관 공연 횟수는 13,783회(67.4%)로 나타나 자체기획 공연보다 대관공연 횟수가 2배 가량 많음을 알 수 있음
- 문예회관 당 이루어진 연간 프로그램의 총 횟수는 131.9건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공연 프로그램 횟수가 72회(54.6%), 기타행사 횟수가 57.6회(45.4%)로 나타남
 - 문화회관 당 공연 횟수 중에서는 자체기획공연 횟수가 23.4회(32.5%), 대관공연 횟수가 48.5회(67.4%)로 나타나 대관공연 횟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는 경기(6,231회) 지역의 연간 프로그램 횟수가 가장 크게 나타났고, 서울(5,717회), 경남(3,089회), 경북(2,959회), 충남(2,705회), 전북(2,358회), 전남(2,285회), 부산(2,268회), 대구(2,246회)의 순으로 나타남
 - 이 중 자체기획 공연 횟수가 가장 큰 지역은 서울(2,387회), 경기(1,493회), 대구(289회), 부산(286회)로 나타남
- 문예회관 당 프로그램 횟수는 서울(272.2회), 제주(202.5회), 대구(187.2회), 대전(179.7회), 인

천(155.7회) 등이 크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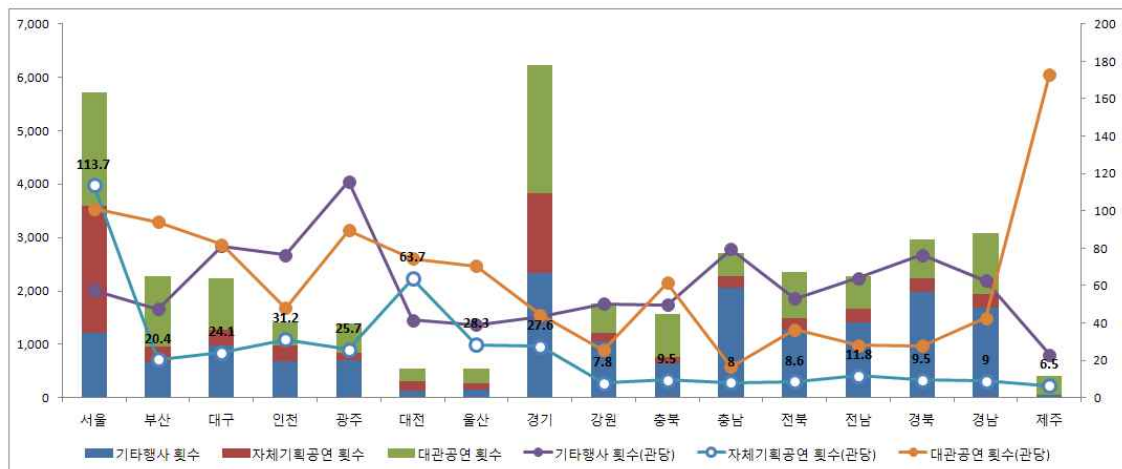
- 이 중 관당 자체기획 공연 횟수가 크게 나타난 지역은 서울(113.7회), 대전(63.7회), 인천(31.2회), 울산(28.3회), 경기(27.6회), 광주(25.7회), 대구(24.1회), 부산(20.4회)으로 대체적으로 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는 문예회관에서 자체기획 공연이 많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음

[표 5.5.2] 2009년 문예회관 공연 및 기타행사 / 공연프로그램 횟수 (단위: 개소, 회, %)

구분	응답 공연장 (개)	공연 및 기타행사 총 횟수				관당 공연 및 기타행사 횟수				공연 및 기타행사 중 공연비중(%)
			공연프로그램				공연프로그램			
			자체 기획	대관	자체 기획		대관			
서울	21	5,717	4,507	2,387	2,120	272.2	214.6	113.7	101.0	78.8
부산	14	2,268	1,603	286	1,317	162.0	114.5	20.4	94.1	70.7
대구	12	2,246	1,272	289	983	187.2	106.0	24.1	81.9	56.6
인천	9	1,401	714	281	433	155.7	79.3	31.2	48.1	51.0
광주	6	1,386	691	154	537	231.0	115.2	25.7	89.5	49.9
대전	3	539	414	191	223	179.7	138.0	63.7	74.3	76.8
울산	4	551	395	113	282	137.8	98.8	28.3	70.5	71.7
경기	54	6,231	3,893	1,493	2,400	115.4	72.1	27.6	44.4	62.5
강원	21	1,755	701	163	538	83.6	33.4	7.8	25.6	39.9
충북	13	1,568	923	123	800	120.6	71.0	9.5	61.5	58.9
충남	26	2,705	636	207	429	104.0	24.5	8.0	16.5	23.5
전북	24	2,358	1,082	206	876	98.3	45.1	8.6	36.5	45.9
전남	22	2,285	878	259	619	103.9	39.9	11.8	28.1	38.4
경북	26	2,959	973	248	725	113.8	37.4	9.5	27.9	32.9
경남	27	3,089	1,399	244	1,155	114.4	51.8	9.0	42.8	45.3
제주	2	405	359	13	346	202.5	179.5	6.5	173.0	88.6
전국	284	37,463	20,440	6,657	13,783	131.9	72.0	23.4	48.5	54.6

자료 : 2010 문예회관 운영현황 조사(예술경영지원센터, 2010(2009년 기준))

[그림 5.5.2] 2009년 문예회관 공연 및 기타행사 / 공연프로그램 횟수 (단위: 회)



- 문예회관에서 이루어진 공연 프로그램의 장르별로 살펴보면 2009년 연간 공연 횟수 중 연극 공연이 10,125회로 약 4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음악 공연이 5,743회(28.1%), 국악 공연이 1,832회(9%), 복합장르가 1,587회(7.8%), 무용 공연이 1,153회(5.6%)로 나타남
- 지역별로도 대부분 연극 > 음악 > 국악 > 복합장르 > 무용의 순서로 나타나지만, 부산, 제주, 대전 지역의 경우 음악 공연 횟수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충북 및 충남 지역은 국악 공연횟수의 비율이, 경북 및 울산 지역의 경우 무용 공연 횟수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문예회관 관 당 이루어진 공연 프로그램 횟수에 있어서도 연극(35.7회) > 음악(20.2회) > 국악(6.5회) > 복합장르(5.6회) > 무용(4.1회)의 순서로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체 공연 횟수 중 연극 공연 횟수의 비율은 서울과 인천 지역에서, 음악 공연 횟수의 비율은 제주 및 대전 지역에서, 국악 공연 횟수의 비율은 충북, 충남 지역에서, 복합장르 공연 횟수의 비율은 경북 지역에서, 무용 공연 횟수의 비율은 경북, 울산 지역에서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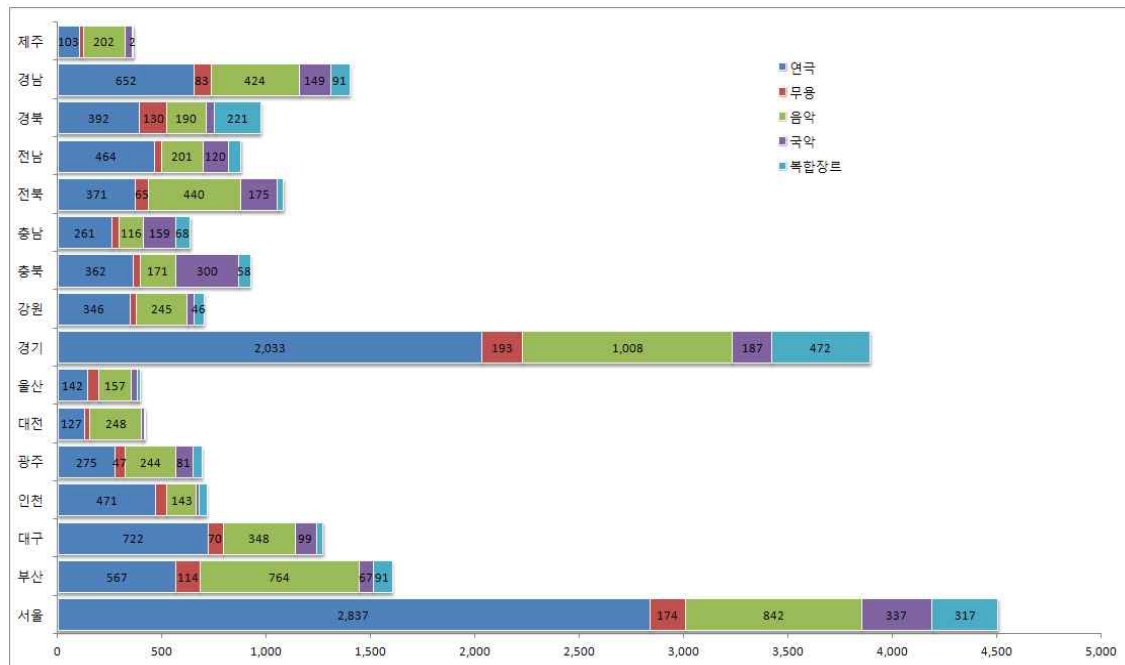
[표 5.5.3] 2009년 문예회관 대장르별 공연프로그램 횟수 (단위: 개소, 회)

구분	응답 공연장 (개)	합계(회)					관당(회)				
		연극	무용	음악	국악	복합 장르	연극	무용	음악	국악	복합 장르
서울	21	2,837	174	842	337	317	135.1	8.3	40.1	16.0	15.1
부산	14	567	114	764	67	91	40.5	8.1	54.6	4.8	6.5
대구	12	722	70	348	99	33	60.2	5.8	29.0	8.3	2.8
인천	9	471	51	143	14	35	52.3	5.7	15.9	1.6	3.9
광주	6	275	47	244	81	44	45.8	7.8	40.7	13.5	7.3
대전	3	127	27	248	11	1	42.3	9.0	82.7	3.7	0.3
울산	4	142	55	157	25	16	35.5	13.8	39.3	6.3	4.0
경기	54	2,033	193	1,008	187	472	37.6	3.6	18.7	3.5	8.7
강원	21	346	29	245	35	46	16.5	1.4	11.7	1.7	2.2
충북	13	362	32	171	300	58	27.8	2.5	13.2	23.1	4.5
충남	26	261	32	116	159	68	10.0	1.2	4.5	6.1	2.6
전북	24	371	65	440	175	31	15.5	2.7	18.3	7.3	1.3
전남	22	464	32	201	120	61	21.1	1.5	9.1	5.5	2.8
경북	26	392	130	190	40	221	15.1	5.0	7.3	1.5	8.5
경남	27	652	83	424	149	91	24.1	3.1	15.7	5.5	3.4
제주	2	103	19	202	33	2	51.5	9.5	101.0	16.5	1.0
전국	284	10,125	1,153	5,743	1,832	1,587	35.7	4.1	20.2	6.5	5.6

자료 : 2010 문예회관 운영현황 조사(예술경영지원센터, 2010(2009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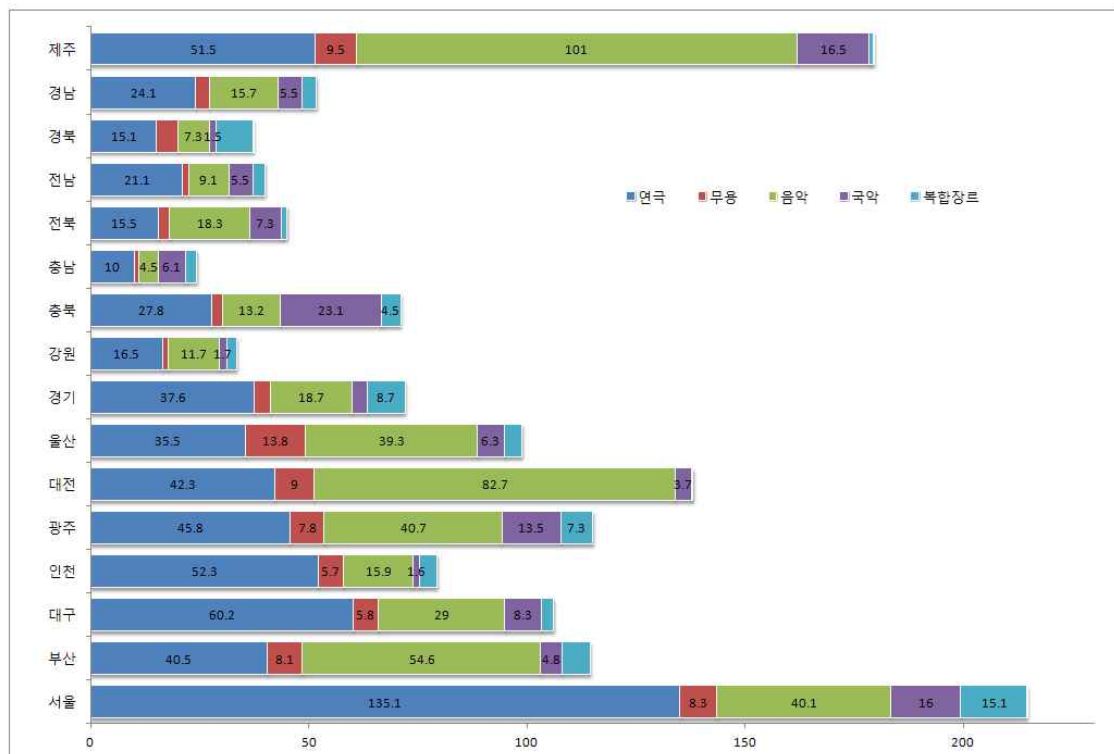
[그림 5.5.3] 2009년 문예회관 대장르별 공연프로그램 횟수(합계)

(단위: 회)



[표 5.5.4] 2009년 문예회관 대장르별 공연프로그램 횟수(관당)

(단위: 회)



5.6. 문화시설 이용자 수

- 문화시설 이용자 수와 이용률을 파악하는 방법은 첫째, 각 문화시설의 집계자료를 활용하는 방법과 둘째, 전국적인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하는 방법이 있음
-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방법을 모두 활용하여 결과를 파악하도록 함
- 문화시설 집계자료로는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자료와 『문예회관 운영현황조사』 자료를 활용함
 - 다만 대부분의 문화시설은 무료로 공중에 개방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자료의 이용자 수는 다른 항목에 비해 그 정확성과 신뢰성이 낮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현재로서는 반복적 이용자와 순(net)이용자를 구분하여 이용자 수의 집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용률의 해석에도 각별한 유의가 필요함
- 전국적인 설문조사로는 『문화향수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도록 함

5.6.1. 도서관

- 도서관 이용자 수와 이용률은 도서관에 열람, 대출, 혹은 문화프로그램 이용을 위해 출입한 이용자의 수와 그들이 대출한 책의 수를 통해 파악할 수 있음
-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에 따르면 2010년 한 해 동안 전국의 공공도서관에 약 2억5천만 명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남
 - 2010년 기준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인구 수가 50,516천 명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전체 인구가 연간 5.1회 도서관에 방문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공공도서관 1관 당 이용자 수는 약 34만 명으로 나타났으며, 이용률은 509.3%로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공공도서관 이용자의 총 수는 경기(79백만 명), 서울(54백만 명) 지역이 가장 크게 나타나며, 부산(16백만 명), 경남(15백만 명), 경북(11백만 명)의 순으로 나타남
 - 반면 제주(3백만 명)와 충북(6백만 명)지역의 공공도서관 이용자 수가 가장 작게 나타남
- 도서관 1관 당 이용자의 수는 부산(537,013명), 서울(531,109명), 경기(487,472명), 인천(486,597명), 광주(470,380명)가 크게 나타나며, 전남(125,271명), 제주(134,711명)지역의 1관 당 이용자 수가 가장 작게 나타남
- 지역별 인구 수를 고려한 이용률은 경기가 67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강원(528%), 서울(520%), 광주(517%), 대전(513%)의 순으로 나타남

- 대구(370%)와 충북(356%) 지역에서 인구 대비 공공도서관 이용률이 가장 낮게 나타남
- 한편 전국의 공공도서관에서 2010년 연간 대출된 도서 권 수는 약 1억2천권으로 나타남
- 이는 인구 일인 당 연간 2.4권을 대출한 것에 해당함
-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출권수가 많은 지역은 경기(약3천9백만 권), 서울(약2천만 권), 경남(약8백만 권)으로 나타남
- 지역 인구 일인당 대출권수는 경기(3.3권), 제주(3.0권), 경남(2.5권)에서 높게 나타난 반면 광주(1.6권), 인천과 충북(1.8권)지역에서 낮게 나타남

[표 5.6.1] 지역별 공공도서관 이용자 현황(2010년 기준) (단위: 명, 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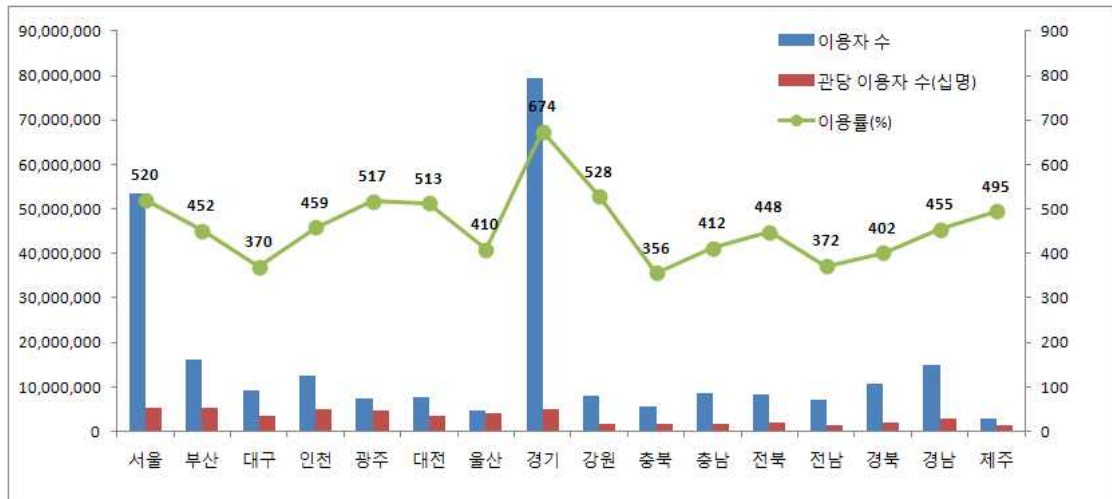
	이용자 수			대출권수	
	총 수	관 당	이용률*	총 수	일인 당
서울	53,642,006	531,109	520.2	19,795,092	1.9
부산	16,110,382	537,013	451.5	6,883,021	1.9
대구	9,280,974	356,961	369.5	5,397,356	2.1
인천	12,651,533	486,597	458.7	5,010,111	1.8
광주	7,526,084	470,380	517.4	2,295,535	1.6
대전	7,707,618	350,346	512.6	3,126,965	2.1
울산	4,613,705	419,428	409.6	2,427,252	2.2
경기	79,457,939	487,472	674.1	38,837,729	3.3
강원	8,078,922	171,892	528.1	3,508,691	2.3
충북	5,522,900	172,591	356.4	2,772,298	1.8
충남	8,560,937	167,862	412.5	4,693,157	2.3
전북	8,370,910	186,020	447.9	4,089,038	2.2
전남	7,140,419	125,271	372.2	4,118,829	2.1
경북	10,802,722	186,254	401.6	6,218,850	2.3
경남	14,963,977	282,339	454.8	8,121,710	2.5
제주	2,828,937	134,711	495.2	1,723,186	3.0
전국	257,259,965	338,946	509.3	119,018,820	2.4

자료 : 2011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문화체육관광부, 2011(2010.12.31 기준))

- 주1) 본 수치는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원자료를 바탕으로 자료 검증 및 수정을 거친 결과로, 공표된 결과와 다를 수 있음
- 주2) 이용자 수는 통계 기준년도 1년 동안 해당도서관의 자료실, 자유열람실 등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출입한 이용자의 총 방문자 수를 뜻함
- 주3) 이용률 = (이용자 수 / 지역인구 수) * 100
- 주4) 이용 책 수는 열람 권수와 대출 권수로 구분되나 열람 권수의 경우 이를 집계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아 자료의 신뢰성이 낮으므로, 여기에서는 대출 권수만 제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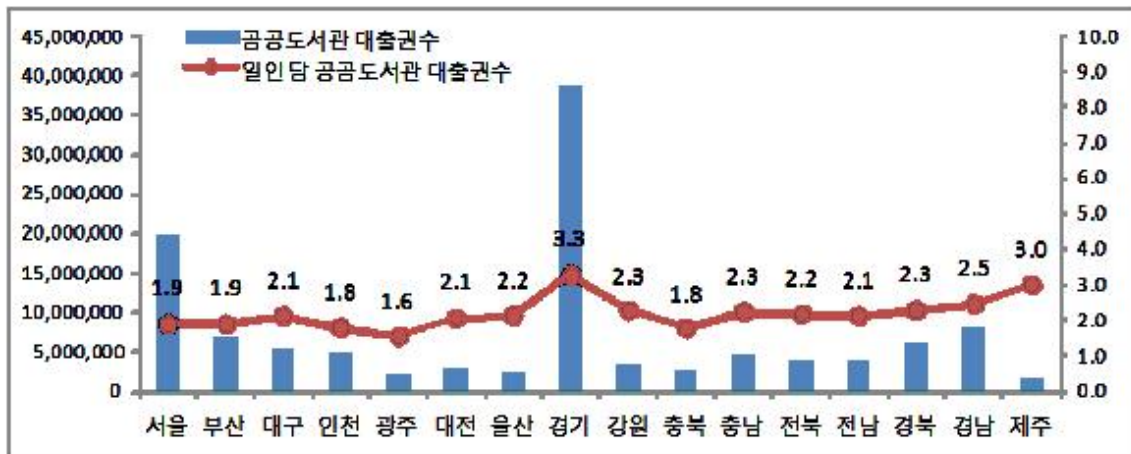
[그림 5.6.1.1] 지역별 공공도서관 이용자 수(2010년 기준)

(단위: 명)



[그림 5.6.1.2] 지역별 공공도서관 대출권수(2010년 기준)

(단위: 권)



5.6.1.1. 해외 주요국과의 비교 : 공공도서관 이용자 수

- 해외 주요국 공공도서관 이용자 수와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이용자 수를 비교하면 다음의 [표 5.6.1.1]과 같음
- 각국 공공도서관의 서비스점(service point) 총 이용자 수는 2009년 기준으로 미국이 1,591,293천명으로 가장 많고, 프랑스가 1,433,000천명, 영국이 324,991천명, 한국이 235,212천명, 독일이 122,000천명의 순으로 나타남
- 서비스점(service point) 당 이용자의 수는 2009년 기준 프랑스가 326천 명으로 가장 크게 나타나며, 한국이 279천명, 미국이 91천명, 독일이 12천명의 순으로 나타남
- 인구 백만명 당 이용자 수는 2009년 기준 프랑스가 229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미

국이 52명, 영국이 53명, 한국이 48명으로 나타남

- 공공도서관 대출권수는 2009년 기준 미국이 2,414,347천권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일본이 631,873천권, 독일이 370,000천권, 영국이 310,777천권, 한국이 112,998천권으로 나타남
- 서비스점(service point) 당 대출권수는 2008년 기준 일본이 200천 권, 미국이 138천 권, 한국이 117천 권, 영국이 69천권, 독일이 37천권으로 나타남
- 인구 백만명 당 대출권수는 미국이 8천권, 독일이 5천권, 일본이 5천권, 한국이 2.3천권으로 나타남

[표 5.6.1.1] 국가별 공공도서관 이용자 규모 (단위: 천명, 권)

		이용자 수(천 명)			대출권 수(천 권)		
		총	서비스점 당	인구대비	총	서비스점당	인구대비
미국	2006	1,384,372	79.5	4.6	2,101,533	120.7	7.0
	2007	1,433,734	82.3	4.7	2,166,787	124.4	7.2
	2008	1,504,861	86.1	4.9	2,277,549	130.4	7.5
	2009	1,591,293	91.1	5.2	2,414,347	138.2	7.9
영국	2006	337,316	73.9	5.6	314,704	68.9	5.2
	2007	328,485	72.4	5.4	307,571	67.7	5.0
	2008	324,991	71.9	5.3	310,777	68.8	5.1
프랑스	2006	1,476,000	336.2	24.0
	2007	1,614,000	367.7	26.0
	2008	1,603,000	364.5	25.7
	2009	1,433,000	325.8	22.9
독일	2006	118,000	11.4	1.4	347,000	33.6	4.2
	2007	122,000	11.8	1.5	363,000	35.0	4.4
	2008	123,000	12.1	1.5	369,000	36.2	4.5
	2009	122,000	12.2	1.5	370,000	36.9	4.5
일본	2008	631,873	199.6	4.9
한국	2007	186,939	229.9	3.9	90,624	111.5	1.9
	2008	204,919	256.5	4.2	93,600	117.1	1.9
	2009	235,212	278.7	4.8	112,998	133.9	2.3

자료1) 미국 - 『Public Libraries Survey』 (Institute of Museum and Library Services(IMLS); Fiscal year 2006-2009)

자료2) 영국 - LAMPOST(Libraries, Archives, Museums and Publishing Online Statistics Tables)(LISU;2006/07-2008/09)

자료3) 프랑스 - Chifres Clés(Ministry of Culture and Communication; 2007, 2008)

자료4) 독일 - German Library Statistics(Deutsche Bibliotheksstatistik(DBS); 2006-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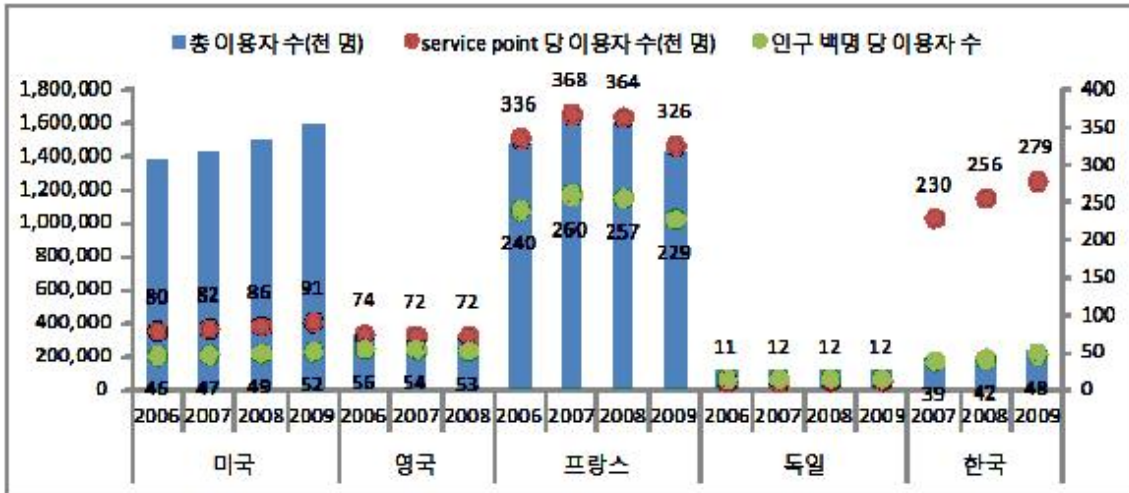
자료5) 일본 - Social Education Survey(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2008)

자료6) 한국 - 국가도서관통계(문화체육관광부; 2006-2009)

주1) 각국의 인구수는 통일성을 위하여 IMF 인구통계를 참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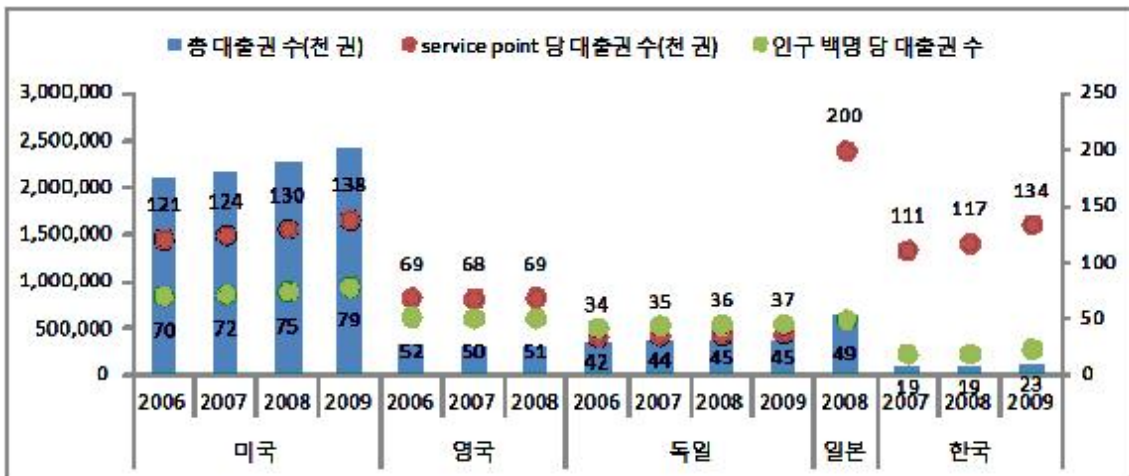
[그림 5.6.1.1.1] 국가별 공공도서관 이용자 수

(단위: 명)



[그림 5.6.1.1.2] 국가별 공공도서관 대출권수

(단위: 권)



5.6.2. 박물관

- 『2011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전국 박물관 연관람 인원은 80,009,240명이고 관 당 연관람 인원수는 127,403.2명이며 전국인구 천 명당 연관람 인원은 1,583.85명으로 나타남
- 지역별 박물관 연관람 인원은 서울지역이 18,159,136명으로 가장 많으며, 제주 16,276,820명, 경북 6,017,154명, 충남 6,008,190명 순으로 나타남
 - 한편 연관람 인원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울산(429,940명), 부산(592,325명), 대구(724,794명) 등으로 나타남
- 관 당 연관람 인원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제주지역이 325,536,40명으로 가장 많으며,

서울이 183,425.60명, 충남이 154,056.20명, 전남이 128,711.30명 순으로 나타남

- 한편 관당 연관람 인원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부산(49,360명), 대전(51,214.27명), 경기(59,367.03명) 등으로 나타남

○ 연관람인원수 대비 지역 연관람인원수 비율을 살펴보면 서울지역이 23%로 가장 크고, 제주가 20%, 충남과 경북이 8% 순으로 나타남

- 광역시의 경우 인천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1%로 나타남

○ 연관람 인원수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립이 37,116,624명으로 가장 많으며, 국립 14,081,266명, 사립이 27,756,809명, 대학이 1,054,541명 순으로 나타남

○ 관당 연관람 인원수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국립이 469,375.5명, 공립이 130,233.8명, 사립이 118,618.8명, 대학이 13,348.62명 순으로 나타남

[표 5.6.2.1] 지역별·유형별 연관람인원 현황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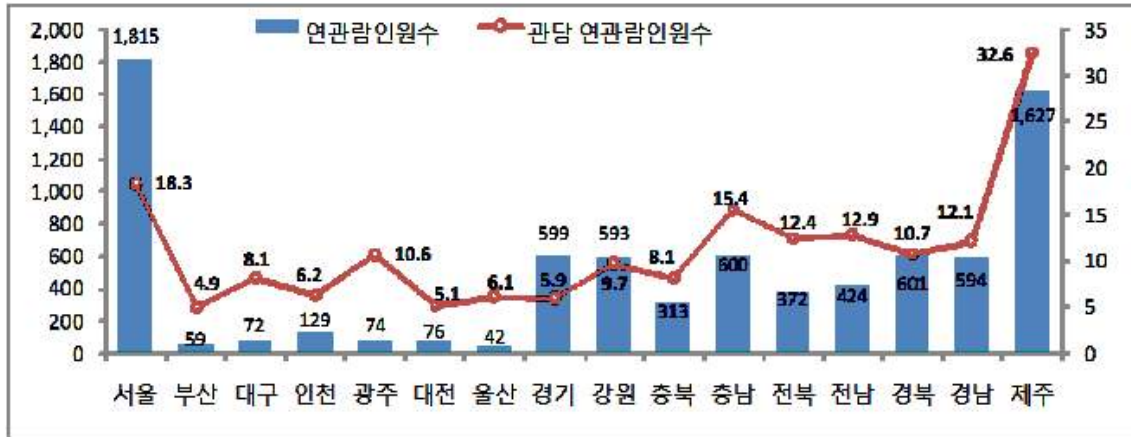
지역	연관람 인원수	관당 연관람 인원수	전국연 관람인 원수대 비지역 연관람 인원수 비율(%)	지역인구 천 명당 연관람인 원	유 형	연관람 인원수	관당 연관람 인원수	전국연관람 인원수대비 유형별연관 람인원수 비율(%)
서울	18,159,136	183,425.60	23	1,760.88	국 립	14,081,266	469,375.50	17.60
부산	592,325	49,360.42	1	166.01				
대구	724,794	80,532.67	1	288.57				
인천	1,299,731	61,891.95	2	471.21				
광주	744,060	106,294.3	1	511.51	공 립	37,116,624	130,233.80	46.39
대전	768,214	51,214.27	1	510.89				
울산	429,940	61,420	1	381.73				
경기	5,996,070	59,367.03	7	508.72				
강원	5,932,037	97,246.51	7	3,877.61	사 립	27,756,809	118,618.80	34.69
충북	3,139,782	80,507.23	4	2,026.28				
충남	6,008,190	154,056.20	8	2,894.80				
전북	3,725,902	124,196.70	5	1,993.57				
전남	4,247,472	128,711.30	5	2,213.97	대 학	1,054,541	13,348.62	1.32
경북	6,017,154	107,449.20	8	2,236.93				
경남	5,947,613	121,379.90	7	1,807.49				
제주	16,276,820	325,536.40	20	28,493.09				
전국	80,009,240	127,403.2	100	1,583.85	전 국	80,009,240	127,403.20	100

자료 : 2011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문화체육관광부, 2011(2010.12.31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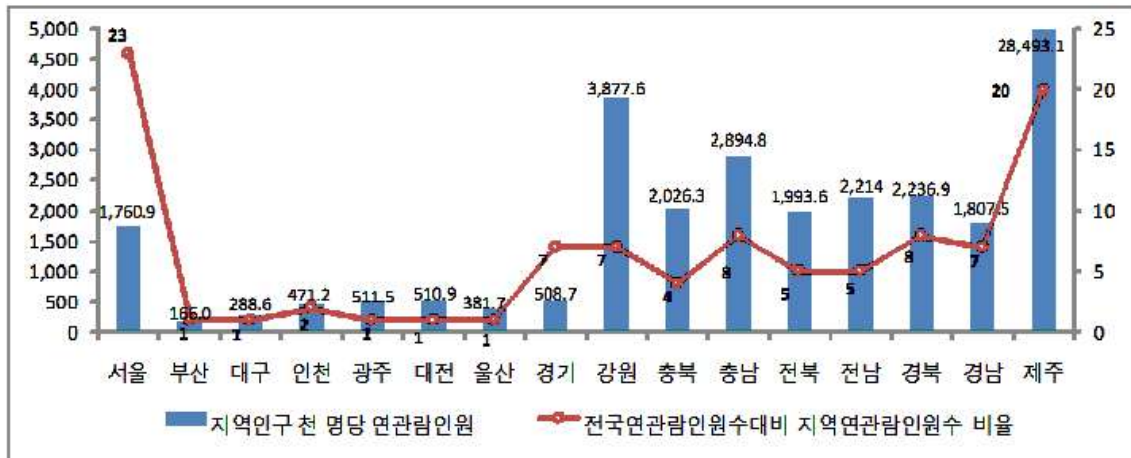
주1) 본 수치는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원자료를 바탕으로 자료 검증 및 수정을 거친 결과로, 공표된 결과와 다를 수 있음

[그림 5.6.2.1] 지역별 연 관람 인원수 및 관 당 연 관람 인원수 현황

(단위: 만 명)



[그림 5.6.2.2] 천명 당 연 관람 인원 및 전국 연 관람 인원수 대비 지역 연관람 인원수 비율 (단위: 명, %)



[그림 5.6.2.3] 유형별 연관람인원 현황

(단위: 만 명, 백 명, %)



5.6.3. 미술관

- 『2011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전국 미술관 연관람 인원수는 총 11,971,848명이고 관당 연관람 인원수는 85,513.2명이며, 지역인구 천 명당 연관람 인원수는 236.99명으로 나타남
- 지역별 미술관 연관람 인원수는 서울지역이 4,166,184명으로 가장 많으며, 경기도가 2,563,321명, 제주가 1,446,108명, 전북이 664,859명 순으로 나타남
 - 한편 지역별 연관람 인원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인천(9,193명), 대구(20,000명), 전남(157,147명) 등으로 나타남
- 관 당 연관람 인원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북이 221,619.7명으로 가장 많으며, 부산이 163,647.3명, 서울이 134,393명, 제주가 111,239.1명 순으로 나타남
 - 한편 관 당 연관람 인원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인천(1,838.6명), 전남(14,286.09명), 대구(20,000명) 등으로 나타남
- 전국 연관람 인원수 대비 지역 연관람 인원수 비율은 서울이 34.8%로 가장 크며, 경기도가 21.41%, 제주가 12.08%, 전북이 5.55%순으로 나타남
 - 전국 연관람 인원수 대비 지역 연관람 인원수 비율이 가장 작은 지역은 인천(0.08%), 대구(0.17%), 전남(1.31%) 등으로 나타남
- 지역인구 천명 당 연 관람 인원의 경우 제주지역이 2,531.46명으로 가장 많으며, 서울이 403.99명, 전북이 355.74명, 대전이 312.36명 순으로 나타남
 - 한편 지역인구 천명 당 연관람 인원이 가장 적은 지역은 인천(3.33명), 대구(7.96명), 경남(76.25명) 등으로 나타남
- 연관람 인원수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립이 6,063,974명, 공립이 4,494,863명, 국립이 1,300,000명 순으로 나타남
- 관당연관람 인원수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국립이 1,300,000명, 공립이 144,995.60명, 사립이 58,873.53명, 대학이 22,602.20명 순으로 나타남

[표 5.6.3.1] 지역별·유형별 연관람인원 현황

(단위: 명, %)

지역	연관람 인원수	관당 연관람 인원수	전국연관 람인원수 대비지역 연관람인 원수 비율(%)	지역인 구 천 명당 연관람 인원	유형	연관람 인원수	관당 연관람 인원수	전국연관 람인원수 대비유형 별연관람 인원수 비율(%)
서울	4,166,184	134,393	34.80	403.99	국립	1,300,000	1,300,000	10.86
부산	654,589	163,647.30	5.47	183.47				
대구	20,000	20,000	0.17	7.96				
인천	9,193	1,838.60	0.08	3.33				
광주	278,178	55,635.60	2.32	191.24	공립	4,494,863	144,995.60	37.55
대전	469,689	78,281.50	3.92	312.36				
울산	0	0	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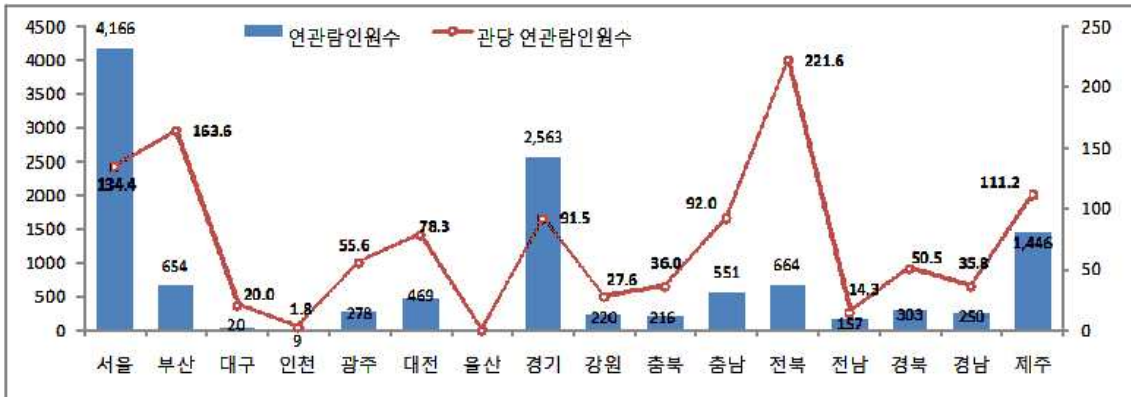
경기	2,563,321	91,547.18	21.41	217.48	사립	6,063,974	58,873.53	50.65
강원	220,609	27,576.13	1.84	144.21				
충북	216,136	36,022.67	1.81	139.49				
충남	551,778	91,963	4.61	265.85				
전북	664,859	221,619.70	5.55	355.74				
전남	157,147	14,286.09	1.31	81.91	대학	113,011	22,602.20	0.94
경북	303,160	50,526.67	2.53	112.70				
경남	250,897	35,842.43	2.10	76.25				
제주	1,446,108	111,239.10	12.08	2,531.46				
전국	11,971,848	855,132.20	100	236.99	전국	11,971,848	855,513.20	100

자료 : 2011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문화체육관광부, 2011(2010.12.31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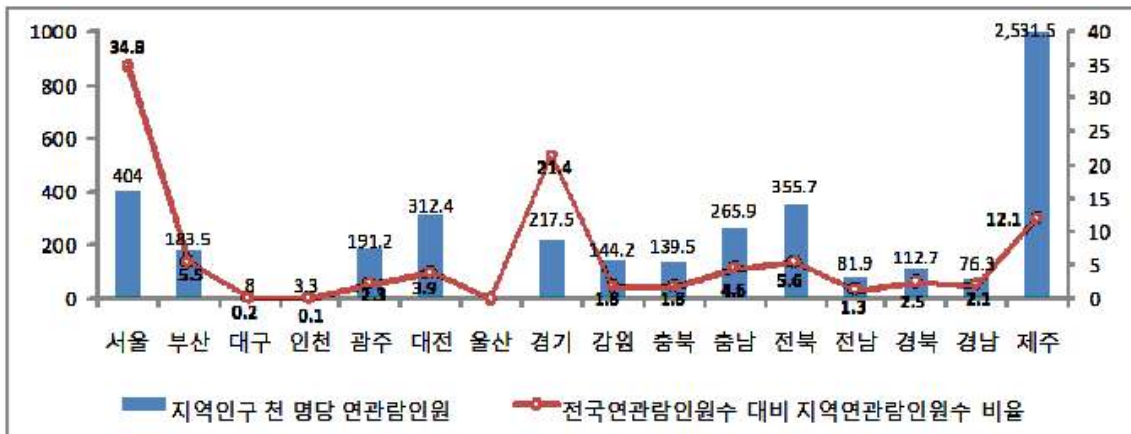
주1) 본 수치는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원자료를 바탕으로 자료 검증 및 수정을 거친 결과로, 공표된 결과와 다를 수 있음

[그림 5.6.3.1] 지역별 연 관람 인원수 및 관당 연관람인원수 현황

(단위: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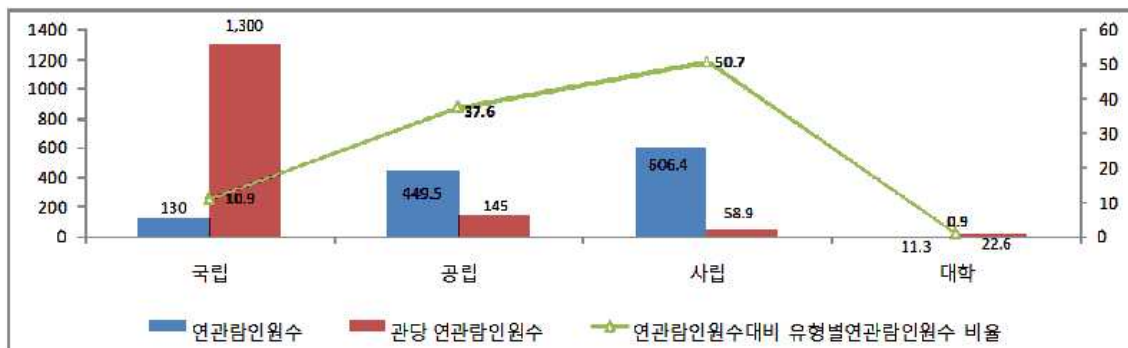


[그림 5.6.3.2] 지역인구 천명당 연관람인원 및 전국 연관람인원수 대비 지역연관람인원수 비율 (단위: %)



[그림 5.6.3.3] 유형별 연 관람인원 현황

(단위: 만 명, 천 명 %)



5.6.3.1. 해외 주요국과의 비교 : 박물관·미술관 이용자 수

- 해외 주요국의 박물관(미술관 포함) 이용자 수를 살펴보면 아래의 [표 5.6.3.1.1]과 같음
- 연간 박물관(미술관 포함) 이용자의 수는 일본이 280백만 명(2007년 기준)으로 가장 크며, 독일이 107백만 명(2007년 기준), 한국이 85백만 명(2008년 기준), 영국이 65백만명, 스페인과 프랑스가 56백만 명, 이탈리아가 33백만명으로 나타남
- 관당 이용자의 수는 한국이 121천명(2008년)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이탈리아가 76천명(2008년), 프랑스가 53천명(2008년), 스페인이 42천명(2008년), 영국이 33천명(2010년), 독일이 17천명(2007년)으로 나타남
- 각국 인구 대비 이용자 수의 비율인 이용률은 일본이 219%(2007년 기준)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한국이 172%(2008년 기준), 독일이 131%(2007년 기준), 스페인이 124%(2008년 기준), 영국이 105%(2010년 기준), 이탈리아가 56%(2008년 기준)으로 나타남

[표 5.6.3.1.1] 주요 국가의 박물관 미술관 연간 이용자 수

(단위: 명, %)

국가	연도	연간이용자 수	관당 이용자 수	이용률	(유형별)이용자 비율(%)	
					무료	유료
한국	2008	85,336,075	120,702	172	-	-
	2009	86,346,690	111,993	174	-	-
	2010	91,984,770	114,981	182	-	-
영국	2010	65,162,241	32,994	105	-	-
독일	2007	107,303,946	17,315	131	-	-
프랑스	2008	55,666,800	52,865	89	40.82	59.18
	2009	56,197,000	54,349	90	42.44	57.56
스페인	2008	56,065,370	41,746	124	56.60	12.80
	2010	57,491,818	38,872	125	-	-
이탈리아	2008	33,103,021	76,099	56	53.00	47.00
일본	2007	279,871,000	49,308	219	-	-

자료1) 영국 - [MLA] Museum and galleries monthly visit figure totals 2004/2005 to 2011/2012

자료2) 프랑스 - Chiferes Clés 2011

자료3)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 [EGMUS : <http://egmus.eu>] National Reports와 Complete data table 참고.

자료4) 일본 - 사회교육조사(문부과학성)

주1) 영국 - Museum and galleries monthly visit figure totals 2004/2005 to 2011/2012 활용 집계한 자료. 본 활용 자료는 영국의 DCMS가 지원하는 박물관과 미술관 총 54개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로써 한국의 등록 박물관, 미술관과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음.

주2) 각국 인구수는 IMF 인구통계를 활용함

주3) 대부분의 이용자 수 통계는 박물관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집계되므로, 관당 이용자 수는 (이용자 수/ 설문에 응답한 박물관 및 미술관의 수)로 계산됨

주4) 이용률 = (이용자 수 / 각국 인구수)*100

[그림 5.6.3.1.1] 주요 국가의 박물관 미술관 연간 이용자수 및 인구 이용률 (단위: 천 명, %)



주) 이용률= (이용자 수/ 각국 인구)*100

5.6.4. 문예회관

- 『2010 문예회관 운영현황 조사』에 따르면 2009년 기준 문예회관 공연 및 기타행사 관객은 총 15,250,463명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유료관객은 4,745,237명으로 총 관객의 31.1%를 차지함
 - 총 관객 수가 가장 많은 지역 세 곳은 경남(3,971,452명), 경기(2,353,742명), 서울(1,969,536명)로 나타났으나 경남의 경우 무료관객 비율이 88.1%로 높게 나타남
- 문예회관 1관 당 객석 점유율은 34.6%로 나타났으며, 유료관객 비중은 31.1%로 나타남
 - 지역별로 문예회관 1관 당 객석 점유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49.4%를 기록한 충북이었으며, 대전(49.3%), 경북(48.6%), 광주(47.1%) 지역 문예회관 역시 높은 객석 점유율을 보였음
 - 반면 평균 객석 점유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경기(23.5%), 부산(24.1%), 제주(25%)지역으로 나타남

- 문예회관 1관 당 유료관객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 지역은 대전(59.6%), 인천(53.5%), 울산(49.8%), 대구(49.1%)였으며, 경남(11.9%), 전남(15.8%), 강원(16.7%)의 유료관객 비중이 낮게 나타남
- 인구 수 대비 관객 수로 나타난 이용률은 30.1%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경남이 120.3%, 전남이 47.8%, 충남이 42.3%, 경북이 38%로 높게 나타남
- 반면 인천은 15.3%, 부산은 15.6%, 대전은 16.7%, 울산은 17.3%로 지역 인구 대비 이용률이 낮게 나타남
- 장르별로는 전국적으로 음악 공연 관객의 수가 6,580,335명으로 전체의 약 53%를 차지했으며, 연극 공연 관객의 수가 3,413,390명(33%), 복합장르 공연 관객 수가 669,077명으로 6.4%, 국악 공연 관객 수가 438,928명으로 4.2%, 무용 공연 관객 수가 420,984명으로 4%를 차지함
-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지역은 연극 관객의 비중이 59.4%로 높게 나타나며, 음악 관객의 비율은 경남(89.7%), 대전(63.6%), 제주(61.8%) 지역에서 특히 높게 나타남
- 국악 관객 비중은 전북(18.3%), 광주(12.9%), 충남(11.2%)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복합장르 관객 비중은 경북(23%), 충북(16.9%), 충남(16.9%)에서 높게 나타남

[표 5.6.4.1] 문예회관 공연 및 기타행사 관객(2009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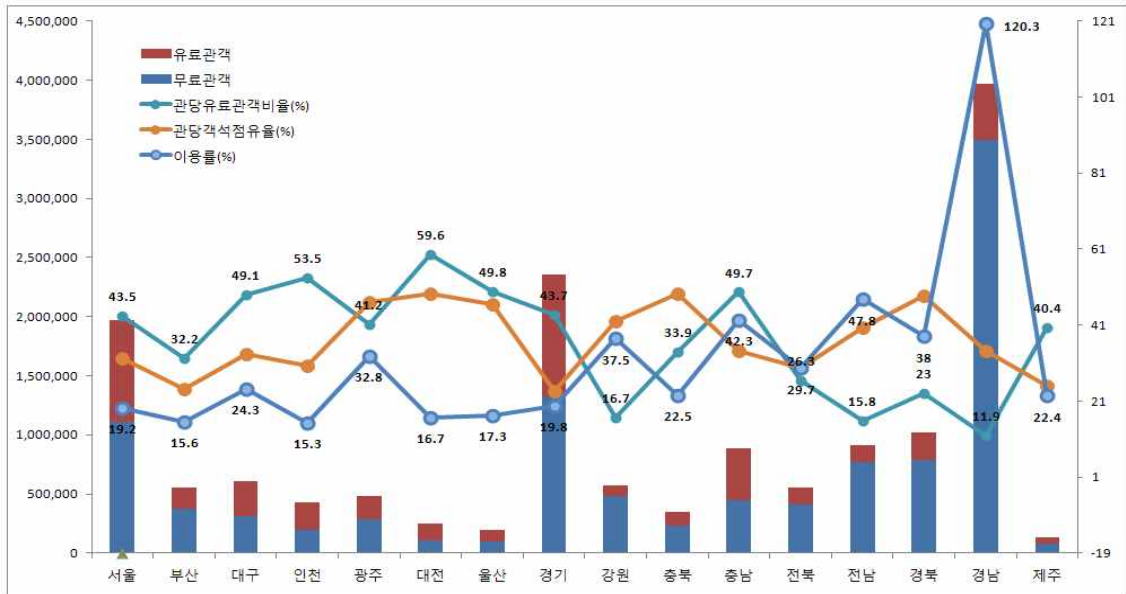
(단위: 권)

구분	응답 공연장 (개)	합계(명)		문예회관 당		관당 유료관객 비중(%)	관당 객석 점유율(%)	인구수 대비 이용률 (%)
		총관객	유료관객	총관객	유료관객			
서울	21	1,969,536	856,320	93,787.4	40,777.1	43.5	32.4	19.2
부산	14	554,181	178,314	39,584.4	12,736.7	32.2	24.1	15.6
대구	12	610,517	299,459	50,876.4	24,954.9	49.1	33.3	24.3
인천	9	427,392	228,483	47,488.0	25,387.0	53.5	30.3	15.3
광주	6	480,293	197,819	80,048.8	32,969.8	41.2	47.1	32.8
대전	3	252,227	150,242	84,075.7	50,080.7	59.6	49.3	16.7
울산	4	196,262	97,675	49,065.5	24,418.8	49.8	46.4	17.3
경기	54	2,353,742	1,028,713	43,587.8	19,050.2	43.7	23.5	19.8
강원	21	575,589	95,843	27,409.0	4,564.0	16.7	41.9	37.5
충북	13	351,321	119,052	27,024.7	9,157.8	33.9	49.4	22.5
충남	26	886,071	440,659	34,079.7	16,948.4	49.7	34.2	42.3
전북	24	556,307	146,511	23,179.5	6,104.6	26.3	29.8	29.7
전남	22	914,313	144,420	41,559.7	6,564.5	15.8	40.4	47.8
경북	26	1,022,587	235,153	39,330.3	9,044.3	23.0	48.6	38.0
경남	27	3,971,452	474,552	147,090.8	17,576.0	11.9	34.1	120.3
제주	2	128,673	52,022	64,336.5	26,011.0	40.4	25.0	22.4
전국	284	15,250,463	4,745,237	53,698.8	16,708.6	31.1	34.6	30.1

자료 : 2010 문예회관 운영현황 조사(예술경영지원센터, 2010(2009년 기준))

[그림 5.6.4.1] 문예회관 공연 및 기타행사 관객(2009년 기준)

(단위: 명, %)



[표 5.6.4.2] 문예회관 대장르별 공연프로그램 관객(2009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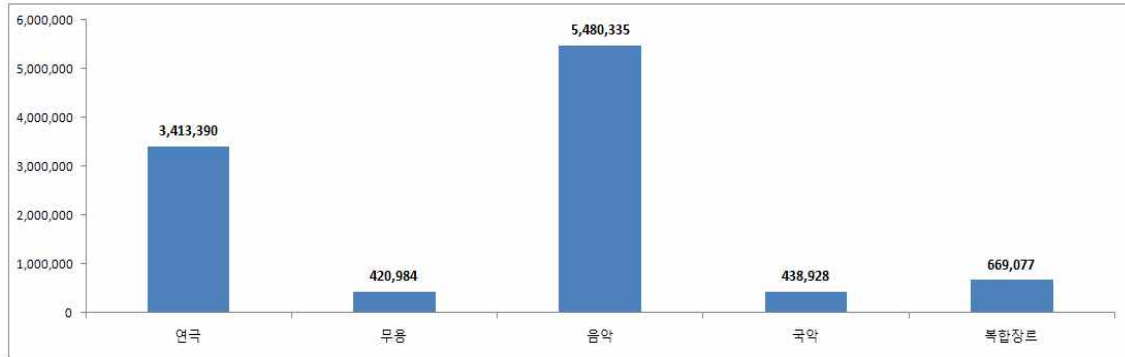
(단위: 개소, 명, %)

구분	응답 공연 장(개)	연극(명)	응답 공연 장(개)	무용(명)	응답 공연 장(개)	음악(명)	응답 공연 장(개)	국악(명)	응답 공연 장(개)	복합장 르(명)
서울	21	896,800	21	53,487	21	378,788	21	46,461	21	134,334
부산	14	120,526	14	27,884	14	274,463	14	24,547	14	20,354
대구	12	216,388	12	25,875	12	115,944	11	27,719	12	19,698
인천	9	102,183	9	19,524	9	80,079	9	6,994	9	15,959
광주	6	88,147	6	31,525	6	113,015	6	35,767	6	8,755
대전	3	57,660	3	15,192	3	145,654	3	10,403	3	400
울산	4	51,528	4	32,200	4	66,367	4	9,111	4	11,390
경기	54	707,964	54	97,269	54	494,685	54	62,305	54	159,640
강원	21	120,464	21	12,806	21	119,476	21	17,947	21	23,609
충북	12	63,849	13	3,200	13	35,310	11	10,956	13	22,951
충남	26	99,118	26	15,102	26	58,066	26	26,889	26	40,588
전북	23	73,828	24	12,896	24	77,796	24	40,063	24	14,552
전남	22	331,509	22	17,019	22	85,523	22	46,013	22	40,495
경북	26	209,522	26	17,792	26	100,007	26	22,039	26	104,009
경남	27	242,255	27	34,323	27	3,265,350	27	46,888	27	50,612
제주	2	31,649	2	4,890	2	69,812	2	4,826	2	1,731
전국	282	3,413,390	284	420,984	284	5,480,335	281	438,928	284	669,077

자료 : 2010 문예회관 운영현황 조사(예술경영지원센터, 2010(2009년 기준))

[그림 5.6.4.2] 문예회관 장르별 공연프로그램 관객 수

(단위: 명)



[그림 5.6.4.2] 문예회관 장르별 공연프로그램 관객 비율(2009년 기준)

(단위: %)



5.6.5. 지방문화원

- 『2011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에 따르면 전국 지방문화원 회원수는 총 93,937명이고 관당 회원수는 443.1명, 지역인구 백만명 당 회원수는 1,860명으로 나타났음
- 지방문화원 회원 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지역이 15,212명으로 가장 많으며, 경기도가 13,202명, 전남이 12,154명, 경북이 10,672명 순으로 나타남
- 한편 회원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제주(742명), 대전(1,614명), 대구(2,106명) 등으로 나타남
- 관당 회원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인천지역이 662.57명으로 가장 많으며, 전남이 639.68명, 서울이 633.83명, 광주가 582.6명 순으로 나타남
- 한편 관당 회원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충북(261.7명), 대구(263.25명), 대전(322.8명) 등

으로 나타남

- 지역인구 백만명당 회원수를 살펴보면 전남지역이 6,335명으로 가장 많으며, 경북이 3,967명, 충남이 3,133명, 강원이 2,658명 순으로 나타남
- 한편 지역인구 백만명당 회원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대구(838명), 대전(1,073)명, 경기(1,120명) 등으로 나타남
- 한편 연간 지방문화원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총 수는 2,562,927명, 관 당 연간참여자수는 16,642.38명, 지역인구 백만명당 연간참여자 수는 50,735명으로 나타남
- 지방문화원 연간참여자수의 경우 서울지역이 778,190명으로 가장 많으며, 경기도가 318,297명, 인천이 257,665명, 충남이 226,441명 순으로 나타남
- 한편 연간 참여자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광주(8,231명), 제주(26,350명), 대구(41,016명) 등으로 나타남
- 지방문화원 관 당 연간참여자 수를 살펴보면 서울이 48,636.88명으로 가장 많으며, 인천이 36,809.29명, 경기도가 15,914.85명, 강원이 12,829.79명 순으로 나타남
- 한편 연간참여자 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광주(2,743명), 경남(5,313.71명), 전북(6,840.33명) 등으로 나타남
- 지역인구 백만명 당 연간참여자 수를 살펴보면 강원지역이 117,411명으로 가장 많으며, 충남이 109,101명, 인천이 93,415명, 서울이 75,461명 순으로 나타남
- 한편 지역인구 백만명 당 연간참여자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광주(5,658명), 부산(14,626명), 대구(16,330명) 등으로 나타남

[표 5.6.5] 지역별 지방문화원 회원 수, 연간참여자 수(2010년 기준) (단위: 명)

지역	회원			연간참여자		
	회원 수	관당 회원 수	지역인구 백만명당 회원 수	연간 참여자 수	관당 연간참여자 수	지역인구 백만명당 연간참여자 수
서울	15,212	633.83	1,475	778,190	48,636.88	75,461
부산	4,629	462.90	1,297	52,184	10,436.80	14,626
대구	2,106	263.25	838	41,016	10,254	16,330
인천	4,638	662.57	1,681	257,665	36,809.29	93,415
광주	2,913	582.60	2,003	8,231	2,743.667	5,658
대전	1,614	322.80	1,073	99,315	19,863	66,049
울산	2,293	458.60	2,036	69,803	34,901.50	61,976
경기	13,202	425.87	1,120	318,297	15,914.85	27,005
강원	4,066	239.18	2,658	179,617	12,829.79	117,411
충북	2,617	261.70	1,689	101,151	20,230.20	65,279
충남	6,503	406.44	3,133	226,441	14,152.56	109,101
전북	4,553	325.21	2,436	82,084	6,840.33	43,920
전남	12,154	639.68	6,335	107,151	8,929.25	55,852
경북	10,672	485.09	3,967	141,040	8,296.47	52,433
경남	6,023	354.29	1,830	74,392	5,313.71	22,608
제주	742	371	1,299	26,350	13,175	46,1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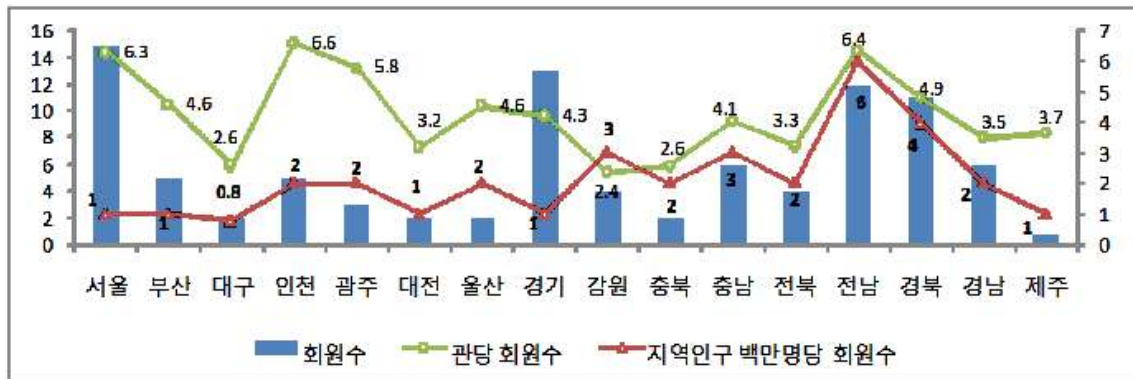
전국	93,937	443.10	1,860	2,562,927	16,642.38	50,735
----	--------	--------	-------	-----------	-----------	--------

자료 : 2011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문화체육관광부, 2011(2010.12.31 기준))

주1) 본 수치는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원자료를 바탕으로 자료 검증 및 수정을 거친 결과로, 공표된 결과와 다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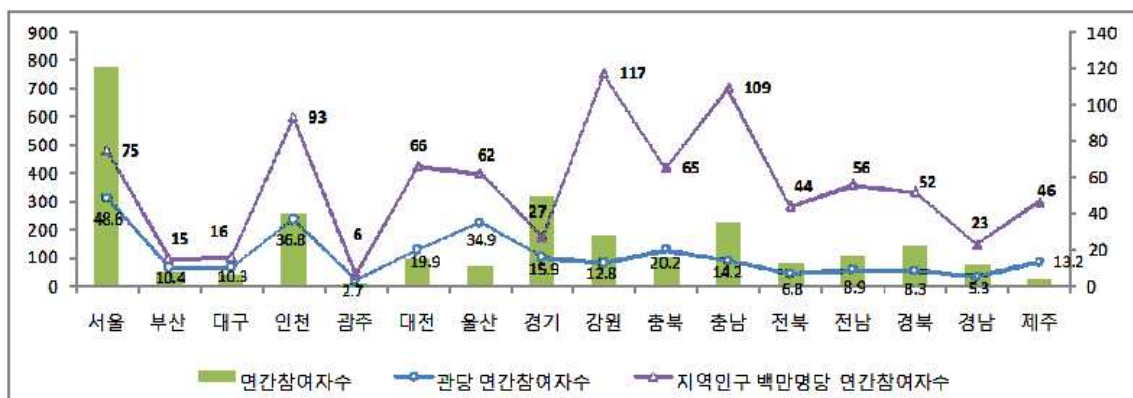
[그림 5.6.5.1] 지방문화원 회원수

(단위: 천 명, 백 명, 명)



[그림 5.6.5.2] 지방문화원 연간 참여자 수

(단위: 천 명, 명)



5.6.6. 이용자 종합

- 『문화향수실태조사』에 따르면, 연간 문화시설 단순 이용률은 2003년 38.9%에서 2006년 41.9%, 2008년 45.2%, 2010년 52.2%로 점차 증가하고 있음
- 반면, 문화시설에서 실시하는 문화행사에 참여한 비율은 2003년 32.2%, 2006년 30.1, 2008년 30%, 2010년 26.6%로 점차 감소하고 있어 문화시설의 이용 목적이 문화행사 참여보다는 다른 데 있음을 짐작케 함
- 시설별 이용률의 경우, 2010년 기준으로 도서관 이용률이 20.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박물관(14.8%), 시군구민회관과 문예회관(11.5%), 복지회관(11.4%), 사설문화센터(6.0%), 청소년회관(4.2%), 문화원(2.1%), 대학교부설 사회문화교실(1.7%), 문화의집(1.2%)의 순으로 나타남

- 특히 2003~2010년 기간동안 도서관(16%→20.5%)과 박물관(11.5%→14.8%), 복지회관(5.5%→11.4%)의 이용률은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시·군·구민회관과 문화예술회관의 이용률은 소폭 감소하거나 현상유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시설별 문화행사 참여율은 2010년 기준으로 박물관이 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문화예술회관(8.1%), 시·군·구민회관(4.9%), 복지회관(4.3%), 도서관(3.5%) 등의 순으로 나타나 단순 이용률과는 다소 차이를 보임
- 특히 문화예술회관과 시·군·구민회관, 도서관의 문화행사 참여율이 꾸준히 하락하고 있으며, 박물관 행사 참여율은 2008년까지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다 2010년에는 다시 증가함
- 연평균 시설별 이용 횟수는 도서관이 2.36회, 복지회관이 1.18회, 시·군·구민회관이 0.62회, 사설문화센터가 0.6회로 높게 나타났으며, 문화행사 참여 횟수는 복지회관이 0.27회, 문예회관이 0.17회, 도서관이 0.14회, 시·군·구민회관이 0.13회로 높게 나타남

[표 5.6.6.1] 연간 문화시설 이용 및 행사 참여 현황(2003~2010년) (단위: %,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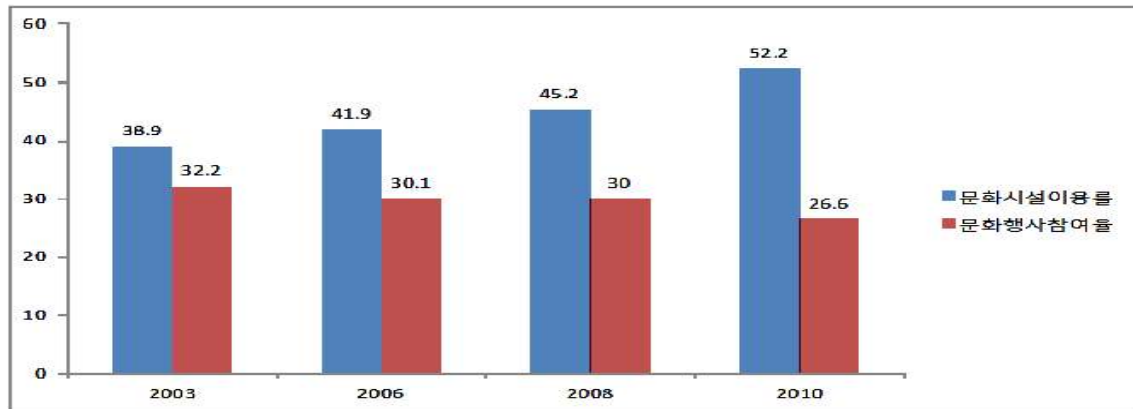
	문화시설 이용						문화행사 참여				
	이용률				2010년		참여율				참여 횟수
	2003	2006	2008	2010	전체 대상 참여 횟수	이용 자대 상참 여횟 수	2003	2006	2008	2010	
이용경험없음	61.1	58.1	54.8	47.8	0		67.8	69.9	70	73.4	0
이용경험있음	38.9	41.9	45.2	52.2	6.07	11.63	32.2	30.1	30.0	26.6	1.23
시/군/구민회관	9.6	11.2	12.0	11.5	0.62	5.34	8.3	7.8	7.7	4.9	0.13
문화예술회관	11.6	11.3	11.5	11.5	0.34	2.94	10.6	9.9	9.7	8.1	0.17
복지회관	5.5	7.5	7.7	11.4	1.18	10.32	4.6	5.3	4.7	4.3	0.27
청소년회관	4.4	3.6	4.4	4.2	0.36	8.61	3.6	2.4	2.7	1.8	0.08
문화원	2.4	2.1	2.1	2.1	0.07	3.38	2.1	1.7	1.8	1.3	0.03
도서관	16.0	12.8	16.2	20.5	2.36	11.48	7.1	5.5	3.9	3.5	0.14
박물관	11.5	12.3	12.1	14.8	0.37	2.53	10.8	8.8	8.0	9.0	0.20
문화의집				1.2	0.05	4.23				0.6	0.02
대학교부설 사회문화교실	1.8	1.4	1.7	1.7	0.13	7.78	1.7	1.0	1.2	1.0	0.04
사설문화센터	4.6	4.6	5.5	6.0	0.60	9.93	4.4	3.3	4.3	3.0	0.14

자료 : 문화향수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각년도자료

주1) 문화의 집은 2010년에만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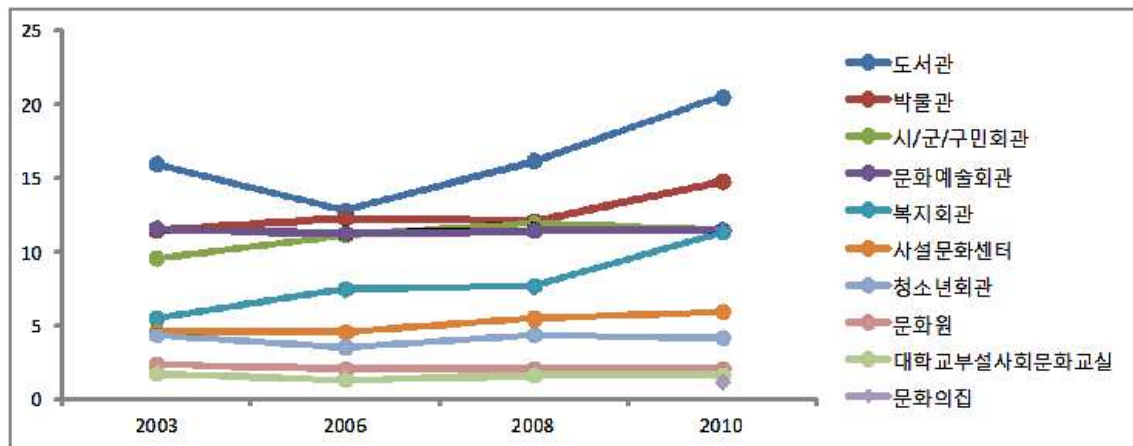
[그림 5.6.6.1] 연간 문화시설 이용률 및 문화행사 참여율(2003~2010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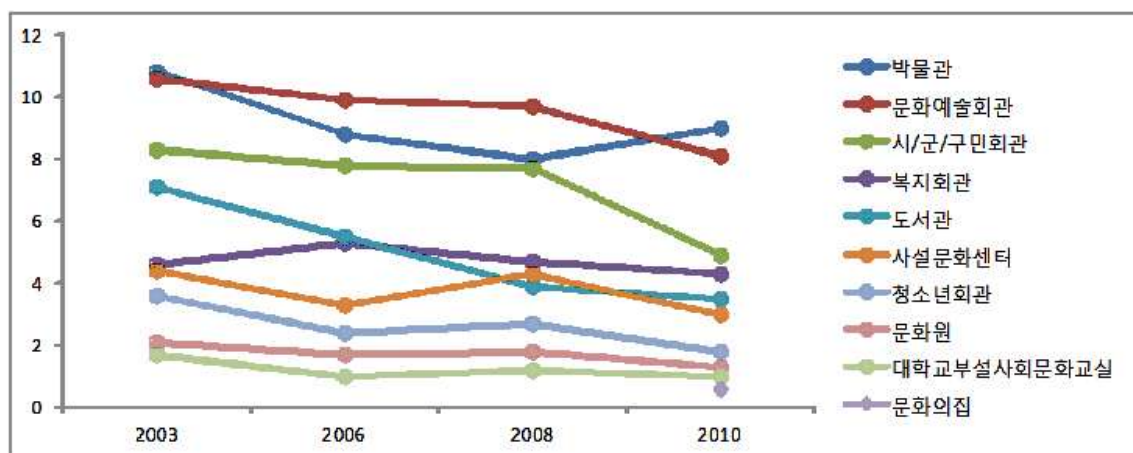
[그림 5.6.6.2] 문화시설 유형별 연간 문화시설 이용률(2003~2010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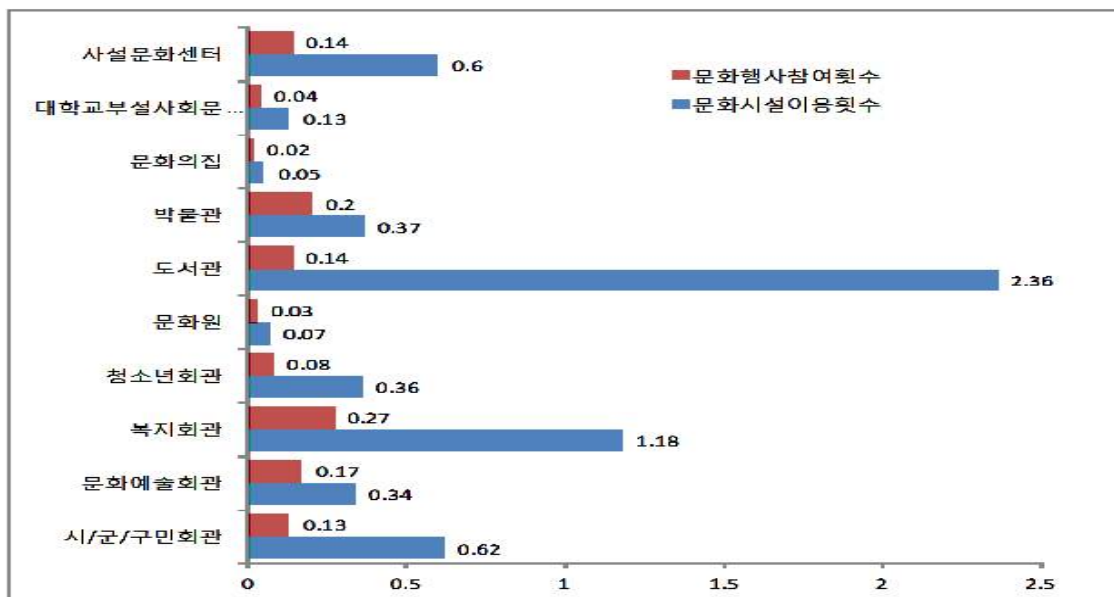
[그림 5.6.6.3] 문화시설 유형별 연간 문화행사 참여율(2003~2010년)

(단위: %)



[그림 5.6.6.4] 문화시설 유형별 연간 이용횟수와 문화행사 참여횟수(2010년 기준)

(단위: 회)



- 한편 지역 문화시설 참여시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시간부족(37~47%)과 참여비용 (15~20%)을 꼽는 이들의 비율이 가장 크게 나타나,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한편 워킹푸어(working poor) 계층의 경우 시간 부족을 문화시설 참여 장애요인으로 꼽더라도, 실제로는 그들의 경제적 제약조건이 시간 부족을 가져왔다는 점에 대해서도 유념할 필요가 있음

[표 5.6.6.2] 지역문화시설 참여 시 가장 큰 어려움(2003-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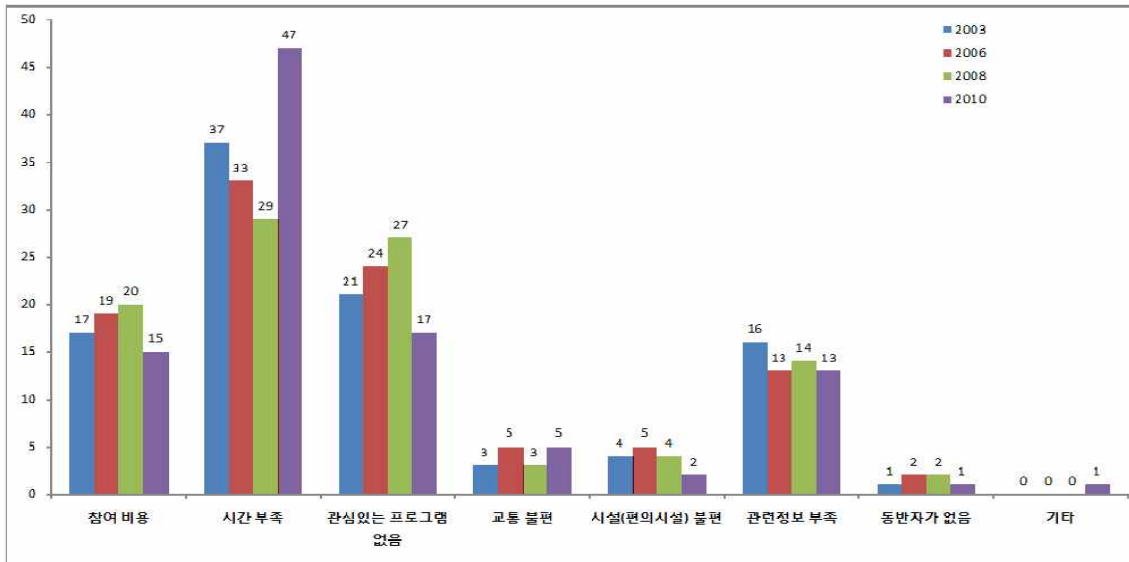
(단위 : 명, %)

저해요인	2003		2006		2008		2010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참여 비용	346	17	576	19	780	20	765	15
시간 부족	738	37	996	33	1,168	29	2,335	47
관심있는 프로그램 없음	422	21	708	24	1,096	27	865	17
교통 불편	67	3	135	5	128	3	225	5
시설(편의시설) 불편	72	4	147	5	164	4	75	2
관련정보 부족	327	16	390	13	560	14	645	13
동반자가 없음	24	1	45	2	80	2	55	1
기타	4	0	3	0	12	0	40	1
전체	2,000	100	3,000	100	4,000	100	5,000	100

자료 : 문화향수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각년도자료

[그림 5.6.6.5] 지역문화시설 참여 시 가장 큰 어려움(2003-2010)

(단위: %)



5.7. 문화시설 서비스 만족도

- 문화시설의 서비스 만족도 역시 문화시설이 자체적으로 집계하는 보고통계와 전국적 설문조사를 통한 통계적 방법이 사용될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종합적이고 신뢰할 만한 문화시설의 자체통계자료가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문화향수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이를 파악하도록 함
- 『문화향수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화시설의 프로그램 만족도는 2006년 3.8점, 2008년 3.93점, 2010년 3.87점으로, 문화시설의 시설 만족도는 2006년 3.77점, 2008년 3.92점, 2010년 3.89점으로 나타나 문화시설의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모두 '약간 만족'에 가깝게 나타남

[표 5.7.1] 문화시설 서비스 만족도

(단위 : Likert 5점 척도)

	프로그램 만족도						시설만족도					
	2006		2008		2010		2006		2008		2010	
	평균 점수	응답 자수	평균 점수	응답 자수	평균 점수	응답 자수	평균 점수	응답 자수	평균 점수	응답 자수	평균 점수	응답 자수
시·군·구민회관	3.67	233	3.86	308	3.91	244	3.64	233	3.78	308	3.94	244
문화예술회관	3.87	298	3.96	388	4.00	403	3.84	298	3.92	388	4.00	403
복지회관	3.91	159	4.07	189	3.89	216	3.79	159	4.02	189	3.85	216
청소년회관	3.66	73	3.88	109	3.82	88	3.64	73	3.92	109	3.87	88
문화원	3.78	50	4.04	71	3.69	63	3.70	50	3.94	71	3.83	63
도서관 (학교도서관제외)	3.80	165	3.81	156	3.61	176	3.79	165	3.74	156	3.52	176
박물관	3.80	264	3.90	319	3.87	449	3.85	264	3.93	319	3.94	449

(미술관 포함)												
문화의 집	-	-	-	-	3.59	31	-	-	-	-	3.56	31
대학교 부설 사회문화교실	3.97	29	3.98	46	4.00	51	3.90	29	4.00	46	3.76	51
사설 문화센터	3.76	99	4.00	172	3.89	152	3.69	99	4.16	172	4.04	152
평균	3.80		3.93		3.87		3.77		3.92		3.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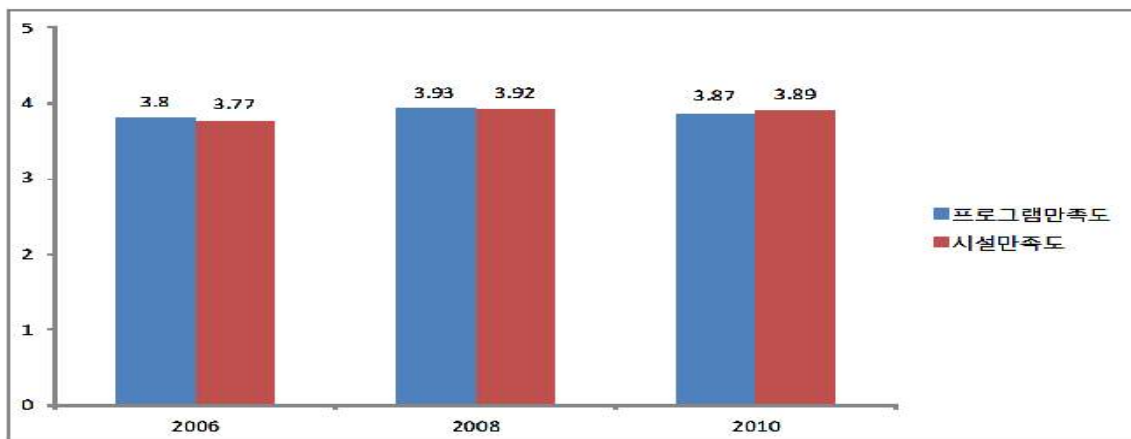
자료 : 문화향수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06; 2008; 2010)

주1) 프로그램 만족도는 방문한 문화시설에서 열리는 문화행사에 참여한 이들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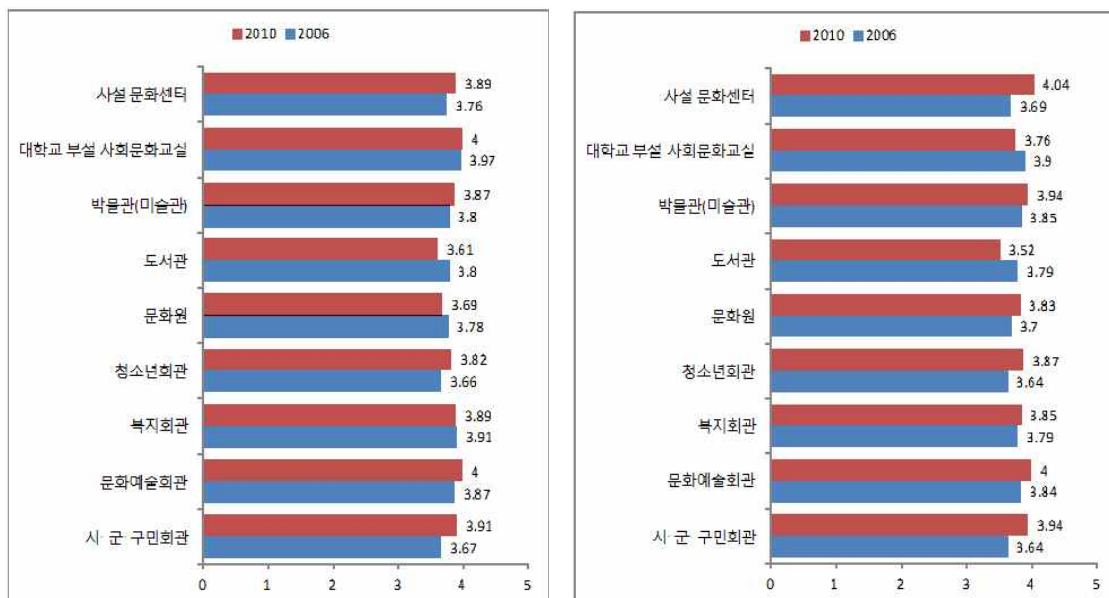
주2) 시설만족도 역시 방문한 문화시설에서 열리는 문화행사에 참여한 이들을 대상으로 해당 문화시설의 시설과 환경에 대한 설문결과임

주3) 모든 경우 참석 또는 방문한 행사가 2개 이상인 경우 가장 최근에 참석방문한 행사를 기준으로 응답함

[그림 5.7.1] 문화시설 유형별 프로그램 만족도와 시설만족도(2006~2010년) (단위: 5점 Likert 척도)



[그림 5.7.2] 문화시설 유형별 프로그램 만족도와 시설만족도(2006년/2010년 비교)(단위: 5점 likert척도)



○ 문화시설 프로그램과 시설 만족도를 응답자 수를 가중치로 하여 평균한 '문화시설 중

합 만족도 점수'에 대해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문화시설 만족도는 성별, 연령, 거주 지역, 문화시설 유형에 따라 유의미하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됨(유의수준 0.05)

- 성별에서는 여성에 비해 남성의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에 비해 20~30대와 40~50대의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남
- 거주지역별로는 군지역 거주자에 비해 대도시 거주자와 시지역 거주자의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남
- 학력 및 소득수준, 직업별로는 문화시설 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문화시설 유형별로는 다른 조건이 같을 때, 문화예술회관 방문자의 만족도가 그렇지 않은 이의 만족도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남

[표 5.7.2] 문화시설 종합 만족도 회귀분석 결과(2010년 기준)

	Coef.	Std. Err.	t	P>t	Beta
남성	-0.09	0.04	-2.21	0.03	-0.07
10대	-0.09	0.11	-0.78	0.44	-0.04
20~30대	-0.17	0.07	-2.49	0.01	-0.12
40~50대	-0.18	0.06	-3.06	0.00	-0.13
대도시(광역시)	-0.15	0.05	-2.95	0.00	-0.11
시지역(동지역)	-0.11	0.05	-2.19	0.03	-0.08
시지역(읍/면)	-0.11	0.07	-1.52	0.13	-0.05
고졸이하	0.00	0.04	-0.10	0.92	0.00
대학원재학이상	0.01	0.13	0.08	0.94	0.00
100~199만원	-0.08	0.08	-0.92	0.36	-0.05
200~399만원	-0.12	0.08	-1.47	0.14	-0.09
400만원 이상	-0.10	0.09	-1.07	0.29	-0.06
관리/전문직	-0.02	0.12	-0.18	0.86	-0.01
사무/서비스/판매	0.11	0.08	1.32	0.19	0.08
농어업/기능/기계/단순노무	0.10	0.10	1.04	0.30	0.05
주부,퇴직연금생활자,무직,기타	0.10	0.09	1.11	0.27	0.06
시/군/구민회관	-0.02	0.05	-0.41	0.68	-0.01
문화예술회관	0.11	0.04	2.85	0.00	0.08
복지회관	0.00	0.05	-0.06	0.95	0.00
청소년회관	0.01	0.07	0.22	0.83	0.01
문화원	-0.13	0.07	-1.85	0.07	-0.05
도서관	-0.03	0.04	-0.65	0.52	-0.02
박물관	0.02	0.04	0.53	0.60	0.01
대학교부설 사회문화교실	-0.13	0.10	-1.31	0.19	-0.04
사설문화센터	0.00	0.06	0.09	0.93	0.00
문화의 집	-0.11	0.10	-1.18	0.24	-0.03
_cons	4.22	0.12	34.22	0.00	.

R2= 0.0467 N=1392 F(26, 1365) = 2.57

자료 : 문화향수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10년 기준

주1) 기준변수는 여성(성별), 60대 이상(연령), 군지역(거주지역), 대졸이하(학력), 100만원 미만(월평균 소득수준), 학생(직업)임

제5절 문화예술의 소비 및 참여

6.1. 문화예술 활동시간

- 국민들이 일주일 중 여가, 특히 그 중에서도 문화예술 활동에 얼마만큼의 시간을 소요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작성하고 있는 『국민여가활동조사』와 통계청에서 작성하고 있는 『생활시간조사』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국제활동분류기준을 준용, 시간일지를 작성하여 국민의 시간 사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생활시간조사』를 통해 이를 파악하도록 함
- 『생활시간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이 교제활동, 학습, 미디어이용, 종교활동, 관람 및 문화행사 참여, 스포츠 및 집 밖의 레저,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 등에 사용하고 있는 시간은 2004년 일주일에 34시간 48분에서 2009년 32시간 53분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009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여가활동 중에서 미디어 이용 시간이 15시간 23분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 시간이 5시간 42분, 교제활동 시간이 5시간 22분으로 크게 나타남
- 2009년 국민들이 문화예술 관람 및 문화행사 참여에 사용한 시간은 일주일에 15분으로 2004년과 동일하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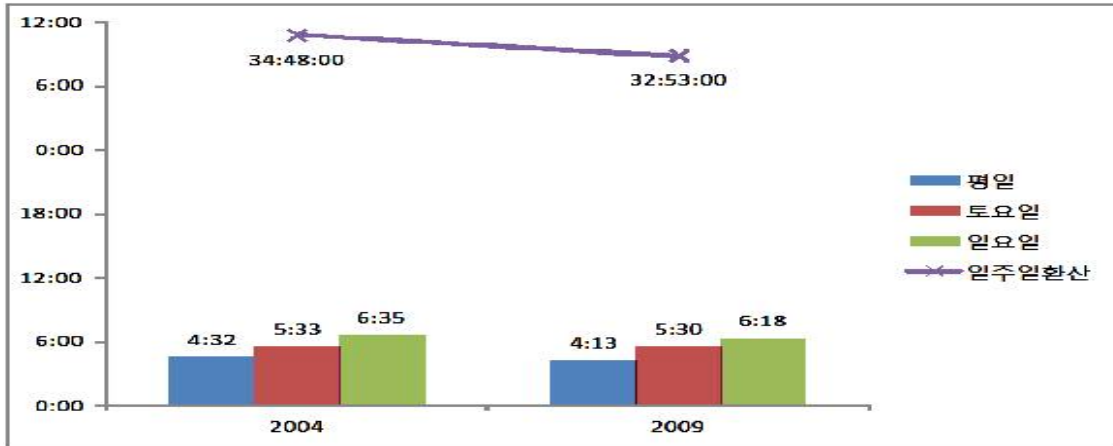
[표 6.1] 평균여가시간(2004, 2009년)

단위 : 시간(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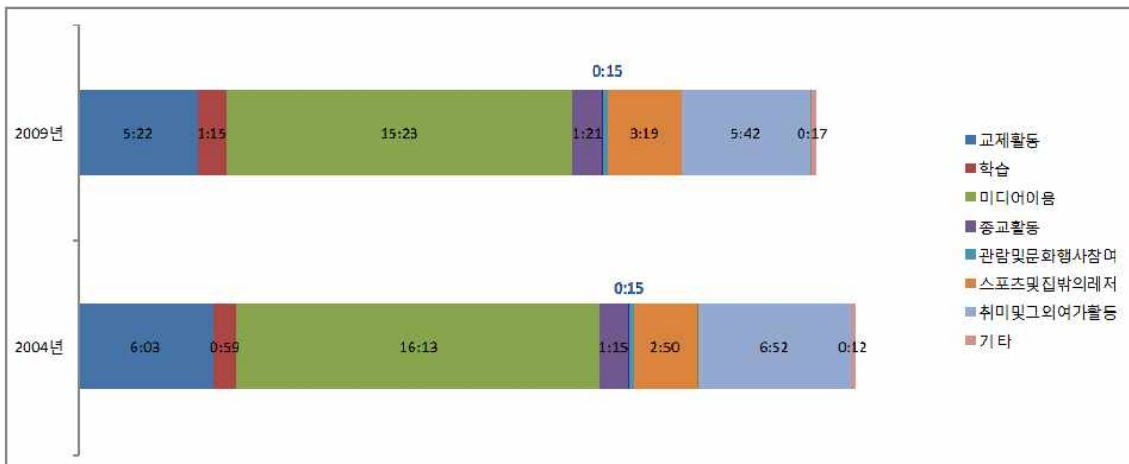
	2004				2009			
	평일	토요일	일요일	일주일 환산	평일	토요일	일요일	일주일 환산
전체	4:32	5:33	6:35	34:48	4:13	5:30	6:18	32:53
교제활동	0:49	0:58	1:00	6:03	0:43	0:55	0:52	5:22
학습	0:09	0:08	0:06	0:59	0:12	0:08	0:07	1:15
미디어이용 (대중매체)	2:05	2:38	3:10	16:13	1:58	2:33	3:00	15:23
종교활동	0:08	0:08	0:27	1:15	0:08	0:10	0:31	1:21
관람및문화행사참여	0:01	0:05	0:05	0:15	0:01	0:05	0:05	0:15
스포츠및집밖의레저	0:23	0:25	0:30	2:50	0:25	0:35	0:39	3:19
취미및그외여가활동	0:54	1:09	1:13	6:52	0:44	1:01	1:01	5:42
기 타	0:01	0:03	0:04	0:12	0:02	0:04	0:03	0:17

자료 : 생활시간조사 (통계청, 2004; 2009)

[그림 6.1.1] 여가활동시간



[그림 6.1.2] 일주일 환산 시 평균 여가시간



6.2. 문화예술상품·서비스 지출액

- 국민들이 문화예술상품 및 서비스에 얼마만큼의 금액을 지출하고 있는지는 현재 통계청이 작성하는 『가계동향조사』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작성하는 『문화향수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할 수 있음

6.2.1. 문화예술상품·서비스 지출액

-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월평균 가계지출 중 오락·문화 관련

지출액은 2005년 101,168원에서 2010년 135,830원으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5년의 4.3%에서 5.3%로 증가함

- 2010년 기준으로 오락·문화 관련 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항목은 문화서비스 지출로 나타났으며, 서적, 영상음향기기, 단체여행비, 정보처리장치 등에 대한 지출의 순으로 나타남

- 문화서비스 지출은 ‘공연 및 극장, 공원 및 관람시설 이용, 독서실 이용, 독서실 이용, 문화강습, 콘텐츠, 방송수신료, 기타 문화서비스에 대한 지출’로 구성되는데, 2005년 18,452원에서 2010년 23,445원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오락·문화지출 대비 비율은 2005년 18.2%에서 2010년 17.2%로 다소 감소했으나 전체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5년 0.78%에서 2010년 0.91%로 증가함

[표 6.2.1] 가구당 월평균 오락·문화 지출(실질가격 기준) (단위: 명, 원/가구)

가계지출항목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가구원수(명)	3.35	3.31	3.27	3.34	3.33	3.31
소득(원)	2,898,284	2,971,815	3,052,417	3,090,581	3,043,943	3,128,671
가계지출(원)	2,366,421	2,419,484	2,466,989	2,482,392	2,475,241	2,572,138
09.오락·문화	101,168	107,490	115,996	117,171	119,752	135,830
(가계지출 대비오락·문화항목 비율)	4.3%	4.4%	4.7%	4.7%	4.8%	5.3%
영상음향기기	6,374	9,976	13,157	15,171	16,900	18,638
사진광학장비	2,118	2,128	3,088	3,379	3,989	4,306
정보처리장치	9,145	11,428	14,558	13,149	14,368	17,651
기록매체	595	546	531	542	407	564
영상음향및정보기기수리	610	587	880	862	981	1,105
오락문화내구재	213	224	211	227	207	179
악기기구	1,250	991	1,536	1,261	895	1,035
오락문화내구재유지및수리	139	117	164	167	108	103
장난감및취미용품	3,383	3,162	3,495	3,782	3,964	4,239
캠핑및운동관련용품	3,798	3,932	4,028	4,183	3,917	4,524
화훼관련용품	2,545	2,450	2,427	2,374	2,335	2,422
애완동물관련물품	1,210	1,273	1,258	1,256	1,334	1,494
화훼및애완동물서비스	853	865	1,049	1,014	797	1,017
운동및오락서비스	11,505	10,952	11,043	11,920	11,976	13,022
문화서비스	18,452	18,751	19,435	20,549	22,066	23,445
(오락·문화지출 대비 비율)	18.2%	17.4%	16.7%	17.5%	18.4%	17.2%
(가계지출 대비 비율)	0.78%	0.77%	0.79%	0.83%	0.89%	0.91%
복권	360	359	334	294	271	241
서적	21,087	21,018	19,409	20,630	18,705	18,659
기타인쇄물	2,922	2,659	2,514	2,481	2,341	2,209
문구	3,386	3,343	3,150	3,118	2,793	3,074
단체여행비	11,225	12,728	13,730	10,811	11,397	17,9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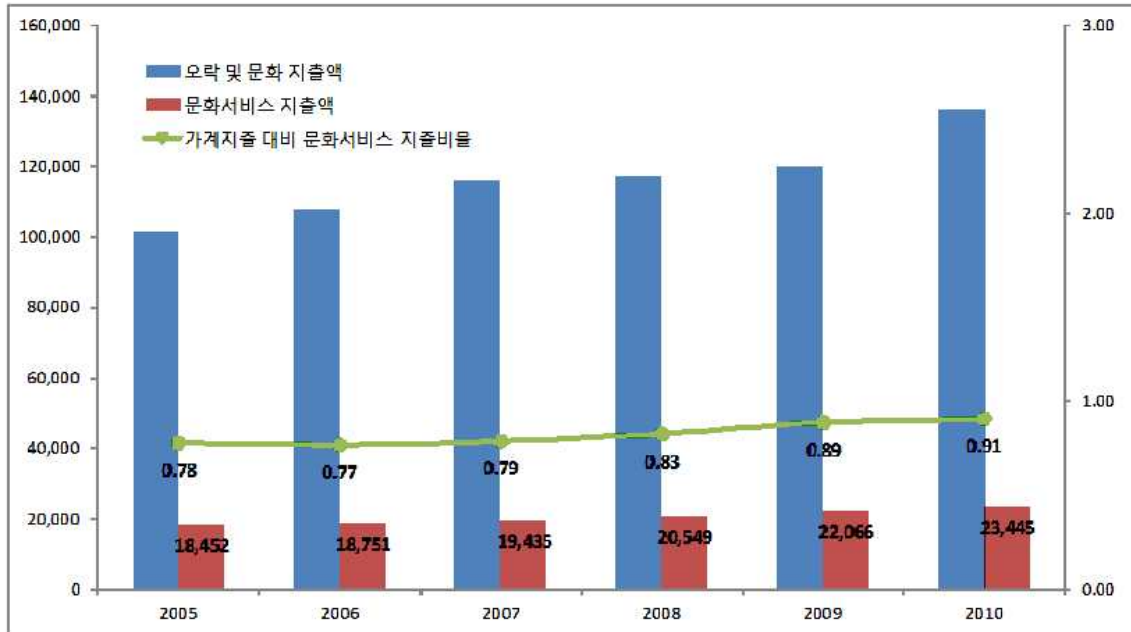
자료 : 가계동향조사(통계청) http://kosis.kr/metadadata/main.jsp?c_id=1962009 각년도 자료

주1) 전국, 2인 이상 가구 대상 조사결과임

주2) 문화서비스 지출 항목은 공연 및 극장, 공원 및 관람시설 이용, 독서실 이용, 문화강습, 콘텐츠, 방송수신료, 기타문화서비스 항목으로 구성됨

[그림 6.2.1] 월평균 오락·문화지출과 문화서비스 지출(2005~2010년)

(단위 : 원, %)



6.2.2. 최다지출품목

- 한편 『문화향수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0년 기준 문화예술과 관련하여 국민들이 우선적으로 지출을 하는 항목은 영화관람(4.21%)으로 나타났으며, 문학 관련 도서(잡지)구입 및 대여(12.6%), 비문학 도서(잡지)구입 및 대여(5.8%), 대중예술(음악)관련 도서·음반·테이프·CD·음악파일·콘텐츠구입 및 대여(4.1%)의 순으로 나타남
- 직접 관람과 관련해서는 영화(42.1%), 연극(1.7%), 전통예술(1.6%), 연예/콘서트(1.2%), 전시회(1%)의 순으로 지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각종 공연, 전시, 영화 등의 관람을 지출 1순위 항목으로 꼽은 이들의 비율은 48.4%로 나타났으며, 각종 문화예술 관련 콘텐츠 구입 및 대여를 지출 1순위로 꼽은 이들은 25.5%로 나타나, 관람에 대한 지출이 콘텐츠 구입 및 대여 지출보다 더 비중 있게 이루어짐을 짐작할 수 있음
- 그러나 예술관련 교육 및 강습, 예술창작 관련 기자재 및 자료구입비 등을 지출 1순위로 꼽은 이들의 비율은 0.6%에 그쳐 이들에 대한 지출액은 매우 작을 것을 짐작할 수 있음

[표 6.2.2] 문화예술관련 최다지출 항목(2010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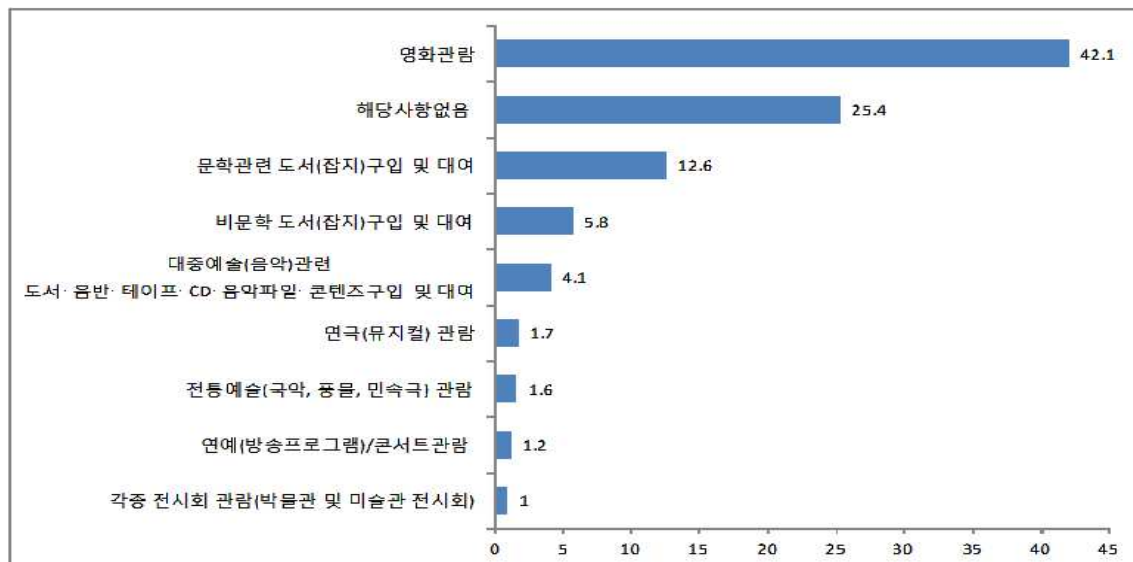
(단위: 명, %)

	항목	2010			
		1순위		2순위	
		수	비율	수	비율
관람	각종 전시회 관람(박물관 및 미술관 전시회)	51	1	83	3.2
	클래식음악회 관람	29	0.6	50	1.9
	전통예술(국악, 풍물, 민속극) 관람	79	1.6	35	1.3
	연극(뮤지컬) 관람	83	1.7	168	6.5
	무용(서양무용, 한국무용, 현대무용) 관람	12	0.2	8	0.3
	연예(방송프로그램)/콘서트관람	58	1.2	84	3.2
	영화관람	2,106	42.1	696	26.8
교육, 참여	예술관련 교육비·강습비	17	0.3	15	0.6
	예술창작 관련 기자재·자료구입비	17	0.3	6	0.2
콘텐츠 구매	문학관련 도서(잡지)구입 및 대여	632	12.6	557	21.4
	비문학 도서(잡지)구입 및 대여	292	5.8	360	13.8
	미술관련 도서·DVD·콘텐츠구입 및 대여	16	0.3	34	1.3
	클래식음악관련 도서·음반·테이프·CD·음악파일·콘텐츠구입 및 대여	33	0.7	33	1.3
	전통예술관련 도서·음반·테이프·CD·음악파일·콘텐츠구입 및 대여	18	0.4	31	1.2
	연극(뮤지컬) 관련 도서·DVD·콘텐츠구입 및 대여	34	0.7	67	2.6
	무용 관련 도서·DVD·콘텐츠구입 및 대여	3	0.1	4	0.2
	대중예술(음악)관련 도서·음반·테이프·CD·음악파일·콘텐츠구입 및 대여	203	4.1	235	9.1
	영화 관련 도서·DVD·콘텐츠구입 및 대여	41	0.8	116	4.5
	기타	8	0.2	15	0.6
	해당사항없음	1,268	25.4	-	-
	계	5,000	100	2,601	100

자료 : 문화향수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11)

[그림 6.2.2] 문화예술관련 지출 1순위에 해당하는 상위 9개 품목

(단위: %)



주1) 지출 1순위 항목으로 꼽은 이들이 전체의 1% 이상을 보이고 있는 상위 9개 항목임

6.2.3. 해외 주요국과의 비교 : 문화상품 및 서비스 지출액

- 유럽 국가의 가구들의 연간 문화예술상품 및 서비스 지출액과 비교하면, 2005년 기준으로 EU에 가입되어 27개 국가의 총지출 대비 문화지출은 3.9%였으며 대부분의 국가들이 3%에서 5%사이의 지출비율을 보였음
 - 영국은 전체 지출 중 문화상품 및 서비스 지출액이 4.9%를 차지했으며, 그에 반해 이탈리아는 2.9%의 낮은 비율을 차지함
- 2005년 우리나라 가구의 연간 총 지출 대비 문화상품 및 서비스 지출비율은 4.3%로 유럽연합 27개국의 평균인 3.86%보다는 높았지만, 영국, 네덜란드, 독일, 스웨덴 등의 국가보다는 낮은 비율을 차지함
 - 한편 가구당 연간 오락·문화지출액에 있어서는 953유로로 EU 27개국 평균에 비해서는 높게 나타났으나, 프랑스, 스웨덴, 독일, 네덜란드, 영국에 비해서는 낮게 나타남

[표 6.2.3.1] 유럽국가와 우리나라의 가계지출 대비 문화예술부분 지출(2005년 기준) (단위: €, ₩, %)

국가	가구당 연간 총지출	가구당 연간 오락·문화지출	총지출 대비 문화지출
이탈리아	€ 28,770	€ 833	2.9%
스페인	€ 26,028	€ 794	3.05%
프랑스	€ 27,886	€ 945	3.39%
스웨덴	€ 27,853	€ 1,275	4.58%
독일	€ 28,501	€ 1,334	4.68%
네덜란드	€ 29,368	€ 1,378	4.69%
영국	€ 31,959	€ 1,501	4.7%
EU-27	€ 22,990	€ 888	3.86%
대한민국	₩28,397,052	₩1,214,016	4.3%
	€ 22,297	€ 9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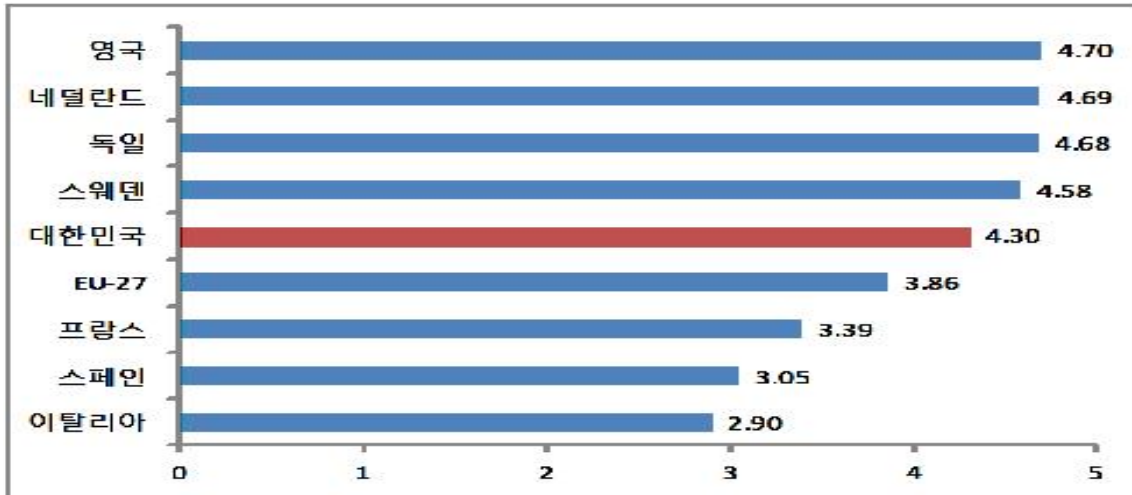
자료1) 유럽국가 Cultural statistics (Eurostat, 2011)

자료2) 가계동향조사(통계청)의 가구당 월평균 지출액을 가구당 연간 지출액으로 환산(환율은 2005년 기준 OECD 구매력 평가환율을 통해 환산함)

주1) 유럽은 각 나라의 부와 구매력 차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표준구매력(PPS, Purchasing power standards)을 사용함

[그림 6.2.3.1] EU 국가와 우리나라의 가구당 연간 오락·문화 지출 비율

(단위 : %)



- 항목별로는 EU 국가들의 경우, 2005년 기준으로 문화서비스 및 신문, 서적, 정보처리 장치 지출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나 한국의 경우 서적, 문화서비스, 정보처리장치, 영상 음향기기 지출비중이 높게 나타남

[표 6.2.3.2] 문화예술상품·서비스 지출비율(2005년 기준)

(단위 : %)

	독일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	대한민국
문화서비스	29.5	26.1	33.6	24.3	17.8	34.2	39.6	28.0
신문	15.8	19.5	16.7	25.6	19.2	14.0	14.1	4.4
정보처리장치	12.9	10.2	9.8	3.4	15.4	14.6	7.5	13.9
서적	12.7	17.2	9.1	14.4	13.8	9.8	7.1	32.0
영상음향기기	10.5	10.0	9.8	5.0	13.9	15.3	11.5	9.7
문구	3.8	5.3	5.7	4.2	3.5	2.5	3.4	5.1
사진광학장비	5.3	3.5	4.3	5.0	4.1	4.9	3.6	3.2
기록매체	6.9	6.4	9.2	11.4	9.8	3.8	11.5	0.9
악기기구	1.1	0.7	0.8	0.0	2.0	0.3	1.0	1.9
영상음향 및 정보기기수리	1.4	1.2	0.9	6.9	0.6	0.6	0.7	0.9
총 문화지출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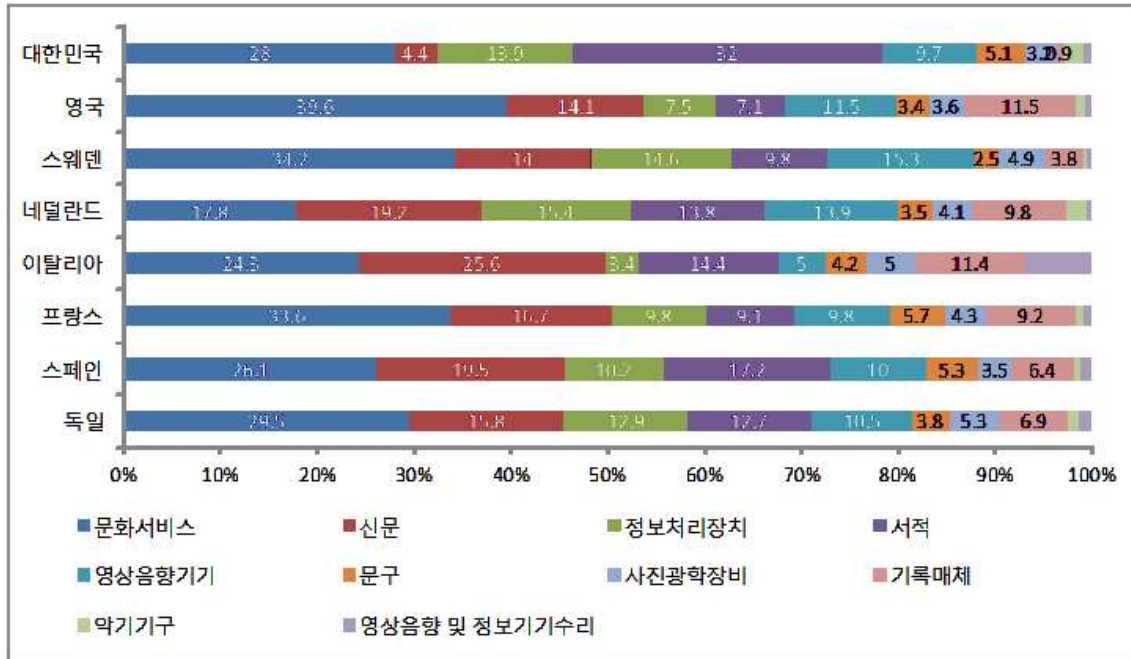
자료1) Cultural statistics (Eurostat, 2011)

자료2) 가계동향조사(통계청)

주1) 문화서비스는 방송수신료, 공연 및 극장, 공원 및 관람시설이용, 기타문화서비스를 포함하는 항목이며, 영상음향기기는 영상기기와 음향기기를 포함하는 항목임

[그림 6.2.3.2] EU 주요국과 한국의 오락·문화지출 구성 비율

(단위: %)



6.3. 문화예술 수요자 교육 참여자

6.3.1. 문화예술 수요자 교육기관(학교 교육 외)

- 『문화향수실태조사』에 따르면, 문화예술인력이 아닌 문화예술의 수요자, 즉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 교육기관에의 참여율은 2006년 7.7%에서 2008년 8.6%, 2010년 9.2%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학교 교육 이외에 문화예술 교육을 받은 기관으로는 공공기관 부설기관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을 받은 이들의 비율이 36~41.4%로 전기간에 걸쳐 가장 높게 나타남
- 2006년의 경우 공공기관 부설기관 외에 사설학원 및 강습소(20.7%), 사설단체 부설 문화센터(15.9%), 대학교 부설 사회문화교실(9.1%) 등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을 받은 이들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나, 2010년에는 공공기관 부설기관(41.3%), 인터넷 사이트(15.8%), 동호인 모임(14.8%), 대학교 부설 사회문화교실(11.2%)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을 받은 이들의 비율이 크게 나타남
 - 2006년에 비해 인터넷 사이트, 동호인 모임, 교육방송 등을 통한 문화예술교육 참여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음
 - 한편 사설학원 및 강습소, 사설단체 부설 문화센터를 통한 교육 참여는 2006년에 비해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6.3.1] 일반국민들이 이용하는 문화예술교육 교육기관(중복응답)

(단위: 명, %)

교육기관	2006		2008		2010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비정규 문화예술교육 경험자	232	7.7	343	8.6	460 (230)*	9.2 (4.6)
대학교 부설 사회문화교실	21	9.1	38	11.1	26	11.2
공공기관 부설기관	96	41.4	123	35.9	95	41.3
사설단체 부설 문화센터	37	15.9	59	17.2	16	6.9
사설학원·강습소	48	20.7	72	21.0	21	9.3
개인레슨·아는 사람에게서	19	8.2	42	12.2	15	6.7
동호인 모임 등에서	13	5.6	24	7.0	34	14.8
외국에서	-	-	1	0.3	-	-
인터넷사이트	20	8.6	20	5.8	36	15.8
교육방송(TV, 라디오)	9	3.9	6	1.7	12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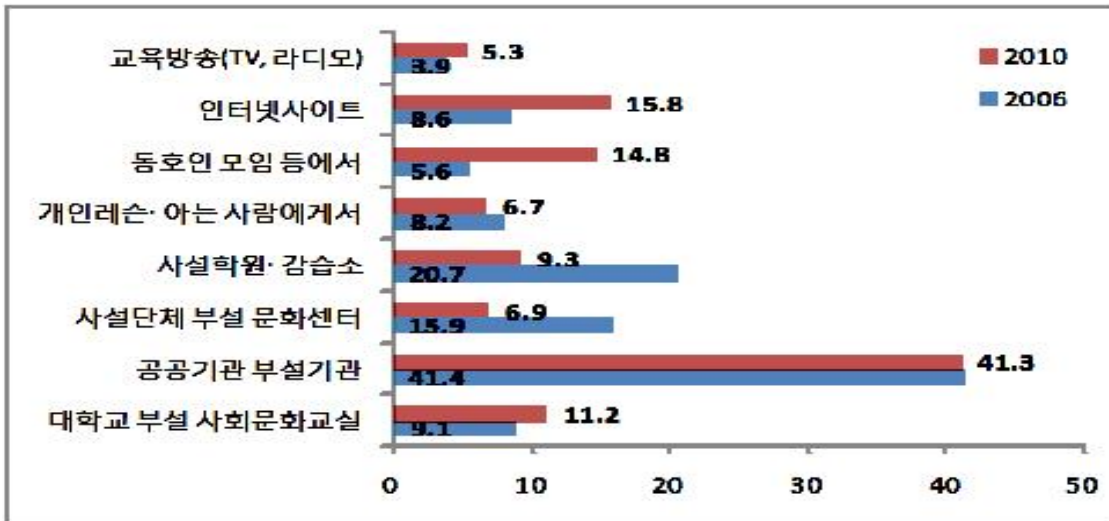
자료 : 문화향수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06; 2008; 2010)

주1) 학교교육 이외에 문화예술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이들에 대한 중복응답임

주2) ()은 지난 1년 이내 문화예술교육을 받은 기관에 대한 설문 응답 결과이며, 아래의 문화예술 교육기관 참여율은 1년 이내 문화예술교육을 받은 이들에 대한 응답을 통해 작성됨

[그림 6.3.1] 일반국민들이 이용하는 문화예술교육 교육기관

(단위: %)



6.3.2. 문화예술 수요자 교육 경험률(학교 교육 외)

- 『문화향수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교육 외에 문화예술교육을 받은 경험자의 비율은 2000년 25.1%에서 2006년 7.7%로 감소했다가 2008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0년에는 9.2%로 상승함

- 다만, 2000년~2003년의 경우 설문 문항에 포함된 문화예술교육의 범주에 '생활취미',

‘만화’, ‘기타’ 등이 포함되어 있었던 반면, 2006년부터는 해당 항목이 삭제되었다는 점에서 실제로 문화예술교육 참여율이 감소했다기 보다는 설문 문항의 변화로 인한 감소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특히 생활취미 참여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타남)

- 따라서 여기에서는 응답 범주가 동일한 2006년 이후를 중심으로 서술하도록 함

○ 분야별로 살펴보면 2006년에는 미술(2.8%), 문학과 대중가요/연예(1.5%), 서양음악(1.2%), 역사문화유산(1%) 관련 문화예술교육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으나, 2010년에는 미술(4%), 서양음악(2.9%), 문학(1.9%), 전통예술(1.1%) 교육 경험률이 높게 나타남

- 특히 미술 및 서양음악 교육 경험률이 크게 상승함

- 반면, 대중가요/연예와 역사문화유산 교육 경험률은 2006년에 비해 감소함

[표 6.3.2] 문화예술 수요자 대상 학교교육 외에 문화예술교육 경험률 (2000-2010) (단위: 명, %)

	2000		2003		2006		2008		2010 (1)		2010 (2)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전체	2,000	100	2,000	100	3,000	100	4,000	100	5,000	100	5,000	100
(받아본적)없다	1,498	74.9	1,770	88.5	2,769	92.3	3,656	91.4	4,540	90.8	4,770	95.4
경험이 있다	502	25.1	232	11.6	231	7.7	344	8.6	460	9.2	230	4.6
문학	40	2.0	30	1.5	45	1.5	76	1.9	95	1.9	60	1.2
미술	108	5.4	90	4.5	84	2.8	116	2.9	200	4.0	60	1.2
서양음악	40	2.0	38	1.9	36	1.2	52	1.3	145	2.9	30	0.6
전통예술	58	2.9	44	2.2	24	0.8	36	0.9	55	1.1	25	0.5
무용	18	0.9	28	1.4	18	0.6	48	1.2	40	0.8	30	0.6
연극	14	0.7	14	0.7	9	0.3	12	0.3	10	0.2	5	0.1
영화	18	0.9	14	0.7	18	0.6	20	0.5	30	0.6	20	0.4
대중가요/연예	44	2.2	34	1.7	45	1.5	64	1.6	45	0.9	30	0.6
역사문화유산	42	2.1	20	1.0	30	1.0	28	0.7	35	0.7	25	0.5
생활취미	202	10.1	-	-	-	-	-	-	-	-	-	-
만화	12	0.6	8	0.4	-	-	-	-	-	-	-	-
기타	52	2.6	-	-	-	-	-	-	-	-	-	-

자료 : 문화향수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각년도 자료

주1) 문화예술교육 경험자의 수는 각 항목별 문화예술교육 경험에 대한 중복응답 결과임

주1) ‘영화’부문은 2000년에 한해 ‘영화 / 비디오’로 조사됨

주2) ‘대중가요/연예’부문은 2000년에는 ‘연예’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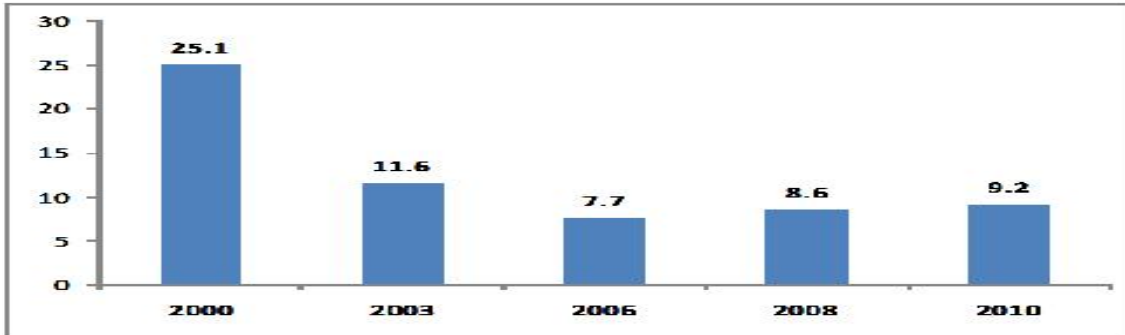
주3) ‘생활취미활동’은 2000년도에 원예, 바둑 · 장기 등으로 조사됨

주4) 2000년도에 문화예술교육 경험을 묻는 조사항목에 ‘생활취미’와 ‘기타’ 항목을 포함했을 수 알 수 있으나 ‘생활취미’와 ‘기타’의 정의가 2000년 문화향수실태조사에서 명확히 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용어의 정의를 알기 어려움. 또한 2003년 이후에서는 ‘생활취미’와 ‘기타’ 항목이 질문구성에서 빠졌으므로 2000 - 2010년간의 시계열 변화추이보고자 ‘생활취미’와 ‘기타’를 제외한 나머지 공통항목만을 비교하기로 함

주5) 2010년(1)은 시기에 제한을 두지 않고, 학교교육 이외에 문화예술 교육을 받았는가에 대한 설문결과인 반면, 2010년(2)은 ‘지난 1년 동안 학교교육 이외에 문화예술교육을 받았는가’에 대한 응답 결과임

[그림 6.3.2.1] 문화예술 수요자 대상 문화예술교육 경험률 (2000-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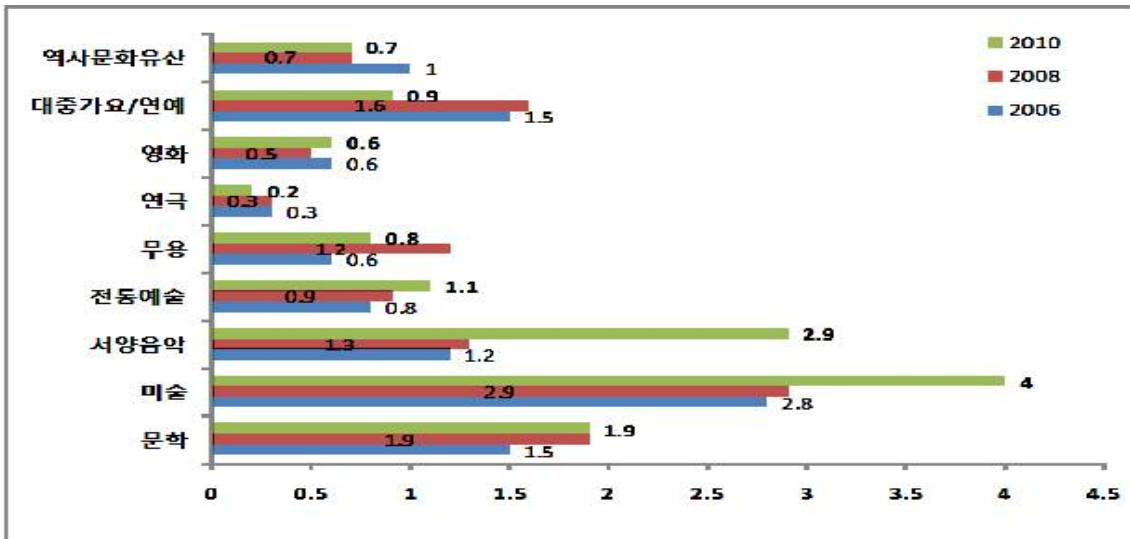
(단위: %)



주1) 2000~2003년에 문화예술교육 경험률이 높게 나타난 것은 동 시기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응답 범주가 2006~2010년의 응답범주와 상이함에서 상당부분 야기된 것으로 보임.

[그림 6.3.2.2] 비정규 예술교육 경험자의 문화예술분야 (2006-2010)

(단위: %)



자료 : 문화향수실태조사 각 년도 자료

6.4. 문화예술복지 수혜자 수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수행하는 문화예술복지사업은 다양하나,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문화예술위원회의 주관으로 이루어지는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임
 - 따라서 여기에서는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을 중심으로 문화예술복지사업의 수혜자를 파악하도록 함
- 복권기금 문화나눔 사업은 해마다 약간의 변동이 있기는 하지만, 크게 문화바우처, 사랑티켓, 장애인창작 및 표현활동지원, 문학나눔, 전통나눔, 소외계층 문화순회, 지방문

예회관 프로그램 지원, 공공박물관·미술관 전시프로그램,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땀땀 실버 문화학교와 같은 단위사업으로 구성됨

- 「2010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 성과평가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복권기금 문화나눔 사업예산은 2007년 약 299억 원에서 2008년 183억원으로 감소했으나 2009년부터 다시 증가하여 2010년 237억 원으로 나타남
- 한편 이들 사업의 수혜를 받은 수혜자 수는 2007년 약 235만 명에서 2010년 272만여 명으로 증가함
 - 다만, 문화나눔 사업이나 공공박물관/미술관 전시프로그램 지원사업, 지방문예회관 프로그램 지원 사업 등의 경우 수혜자 수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음
- 한편 수혜자 일인당 수혜액은 2007년 127,000에서 2010년 87,000원으로 감소하였고, 예산액 백만원 당 수혜자 수는 2007년 78.6명에서 2010년 114.8명으로 증가하여 수혜자들에 돌아가는 일인당 수혜액은 감소했으나, 수혜범위는 더 넓어진 것을 알 수 있음
-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동 기간 가장 많은 수혜자를 낳은 사업은 '사랑티켓'과 '소외 계층 문화순회'사업으로 나타났으며, '전통나눔'과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의 수혜자가 가장 적게 나타남
- 한편 수혜자 일인당 수혜액이 가장 큰 사업은 문화나눔, 전통나눔,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으로 나타났으며, 사랑티켓의 일인당 수혜액이 가장 낮게 나타남
- 반면 동 기간 투입된 예산액 백만원 당 수혜자의 수는 공공박물관·미술관 전시프로그램 지원사업이 204명, 사랑티켓 사업이 약 239명, 장애인 창작 및 표현활동지원사업이 128명, 문화나눔이 88명, 문화바우처가 83명, 소외계층 문화순회가 70명, 지방문예회관 특별프로그램 지원이 55명, 전통나눔이 19명,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가 15명으로 나타나 투입 대비 산출은 공공박물관·미술관 전시프로그램 지원사업과 사랑티켓 사업이 제일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표 6.4]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 단위사업별 총 수혜자 수와 1인당 수혜액 (단위: 명, 천원)

단위사업명		2007	2008	2009	2010	계
문화바우처	수혜자 수	151,076	217,898	296,279	469,580	1,134,833
	전체 예산	2,000,000	2,700,000	4,000,000	5,000,000	13,700,000
	1인당 지원액	13.24	12.39	13.50	10.65	12
	백만원당 수혜자 수	75.5	80.7	74.1	93.9	83
사랑티켓	수혜자 수	1,184,488	570,758	565,432	698,064	3,018,742
	전체 예산	5,200,000	3,020,000	2,000,000	2,400,000	12,620,000
	1인당 지원액	4.39	5.29	3.54	3.44	4
	백만원당 수혜자 수	227.8	189.0	282.7	290.9	239
장애인창작 및 표현활동 지원	수혜자 수	소외계층 문화순회내의 사업으로 실시			51,149	51,149
	전체 예산				400,000	400,000
	1인당 지원액				7.82	8
	백만원당 수혜자 수				127.9	128
문화나눔	수혜자 수	14,973	19,750	415,232	484,937	934,892
	전체 예산	4,000,000	2,310,000	2,300,000	2,000,000	10,610,000
	1인당 지원액	267.15	116.96	5.54	4.12	11

	백만원당 수혜자 수	3.7	8.5	180.5	242.5	88
전통나눔	수혜자 수	34,208	55,770	18,475	19,905	128,358
	전체 예산	2,500,000	1,440,000	1,500,000	1,500,000	6,940,000
	1인당 지원액	73.08	25.82	81.19	75.36	54
	백만원당 수혜자 수	13.7	38.7	12.3	13.3	18
소외계층 문화순회	수혜자 수	677,376	364,007	296,437	354,848	1,692,668
	전체 예산	7,500,000	4,630,000	6,200,000	5,800,000	24,130,000
	1인당 지원액	11.07	12.72	20.92	16.35	14
	백만원당 수혜자 수	90.3	78.6	47.8	61.2	70
지방문예회 관프로그램 지원	수혜자 수	291,341	181,062	219,815	347,247	1,039,465
	전체 예산	7,000,000	3,100,000	4,000,000	4,800,000	18,900,000
	1인당 지원액	24.03	17.12	18.20	13.82	18
	백만원당 수혜자 수	41.6	58.4	55.0	72.3	55
공공박물관 · 미술관 전시 프로그램	수혜자 수	...	287,000	266,860	268,556	822,416
	전체 예산	1,737,000	1,100,000	600,000	600,000	4,037,000
	1인당 지원액	...	3.83	2.25	2.23	5
	백만원당 수혜자 수	...	260.9	444.8	447.6	204
생활문화 공동체 만들기	수혜자 수	-		24,337	25,992	50,329
	전체 예산			1,200,000	1,200,000	2,400,000
	1인당 지원액			49.31	46.17	48
	백만원당 수혜자 수			20.3	21.7	21
수혜자 수 합계		2,353,462	1,696,245	2,102,867	2,720,278	8,872,852
예산액 합계		29,937,000	18,300,000	21,800,000	23,700,000	93,737,000
1인당 지원액		12.7	10.8	10.4	8.7	10.6
백만원당 수혜자 수		78.6	92.7	96.5	114.8	9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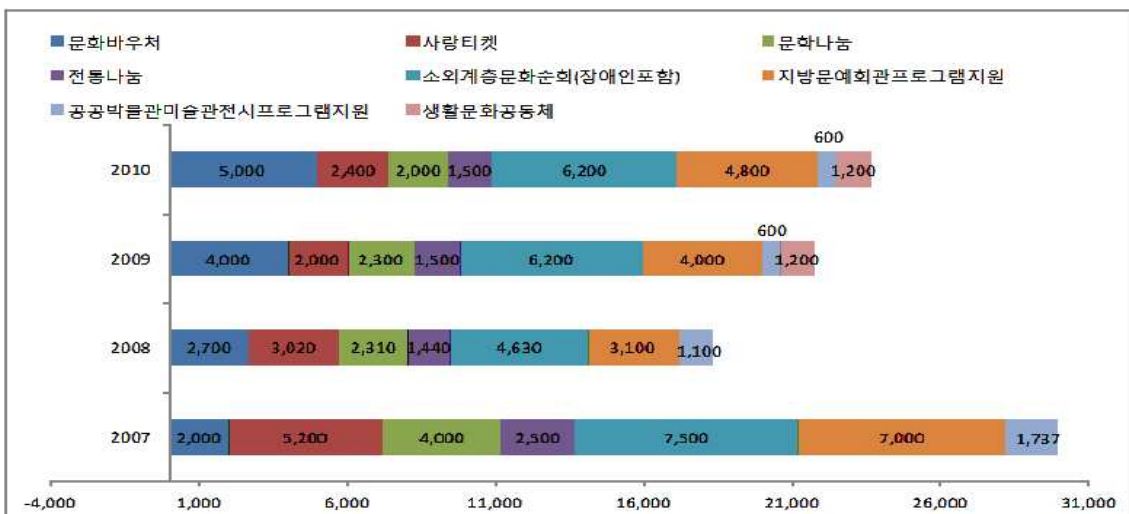
자료 : 2010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 성과평가 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1)

주1) 공공박물관 미술관 전시프로그램은 2007년, 2008년도에는 사립 박물관, 미술관 전시지원 사업으로 실시됨. 특히 2007년의 경우 전체 83개 프로그램에 약 52만 명, 공동전시 2개 프로그램에는 약 100만 명 정도가 참여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정확한 수혜자 수는 알 수 없음

주2) 07년도 사랑티켓의 지원대상은 공연·전시 관람이 가능한 만3세 이상 일반서민이었으며, 08년도 대상은 일반관광객을 제외하고 문화·사회·경제적 소외계층으로 국한 함. 여기에는 사랑회원(3세~26세), 읍면단위거주자, 나눔회원(65세이상 노인, 장애인, 군인, 실직자, 새터민, 다문화가구 중 해외이주민, 외국인근로자)이 포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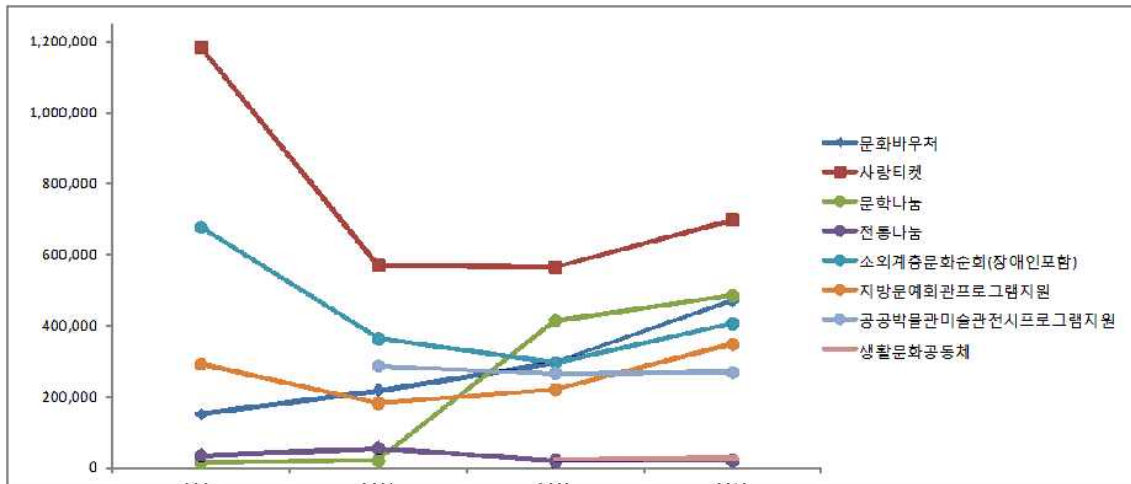
[그림 6.4.1] 복권기금 문화나눔 사업 단위사업별 예산액(2007~2010년)

(단위: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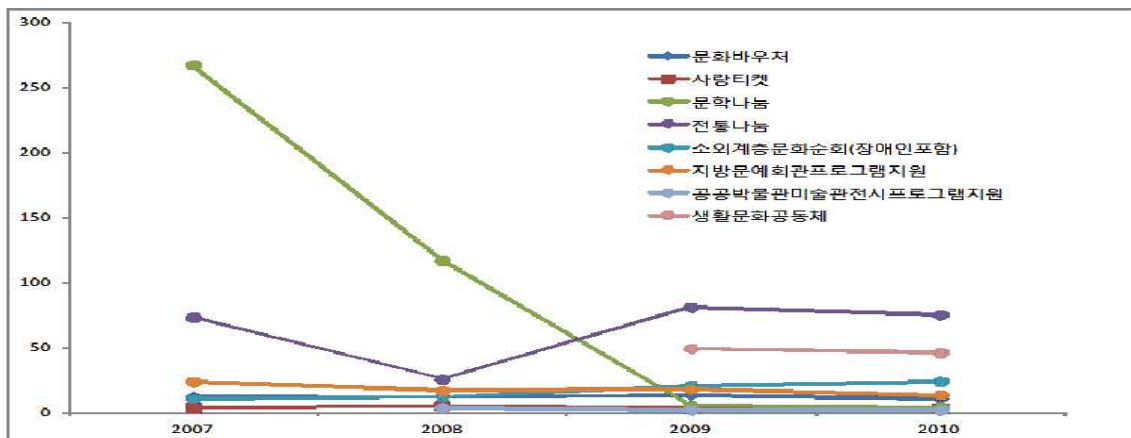
[그림 6.4.2] 복권기금 문화나눔 사업 단위사업별 수혜자 수(2007~2010년)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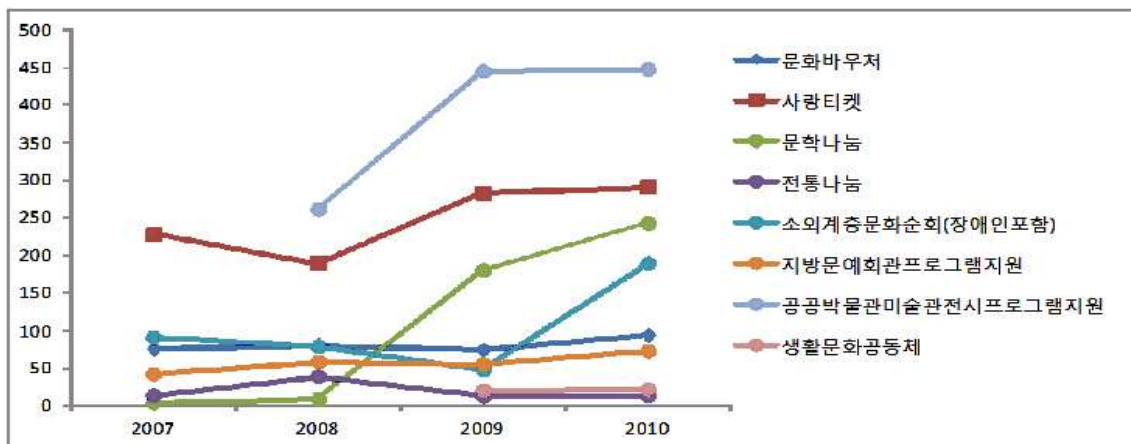
[그림 6.4.3]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 단위사업별 일인당 수혜액(2007~2010년)

(단위: 천원/명)



[그림 6.4.4]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 단위사업별 예산액 대비 수혜자 수(2007~2010년)

(단위: 명/백만원)



6.5. 문화예술 관람·방문자 수

6.5.1. 문화예술 관람객 수

- 『문화향수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간 한번 이상 문화예술을 관람한 이들의 비율은 2000년 54.7%에서 2010년 67.2%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¹⁴⁾
- 장르별로는 연간 한번 이상 영화를 관람한 이들의 비율이 전기기간에 걸쳐 40~61.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연극, 미술전시회, 대중가요콘서트 관람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반면 무용 관람률은 0.7~2%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관람 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관람률을 살펴본 결과 모든 장르에 걸쳐 관람률이 더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음
-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작성하고 있는 『국민독서실태조사』에 나타난 연간 성인의 독서율은 2006년 75.9%, 2008년 72.2%, 2010년 65.4%로 점차 감소한 반면, 학생의 독서율은 2006년 89.6%에서 2010년 92.3%로 증가함

[표 6.5.1.1] 연간 한번 이상 문화예술행사 직접 관람 경험자 수 (단위: 명, %)

	2000		2003		2006		2008		2010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전체	2,000	100	2,000	100	3,000	100	4,000	100	5,000	100
관람경험 없음	906	45.3	753	37.6	1,027	34.2	1,306	32.7	1,638	32.8
한번 이상 관람 경험자	1,094	54.7	1,247	62.4	1,973	65.8	2,694	67.3	3,362	67.2
문학행사	101	9.2 5.1	79	6.3 4.0	133	6.7 4.4	159	5.9 4.0	192	5.7 3.8
미술전시회	231	21.1 11.6	208	16.7 10.4	204	10.3 6.8	336	12.5 8.4	477	14.2 9.5
클래식음악회 · 오페라	134	12.3 6.7	125	10.0 6.3	107	5.4 3.6	197	7.3 4.9	239	7.1 4.8
전통예술	153	14.0 7.7	103	8.3 5.2	131	6.6 4.4	174	6.5 4.4	285	8.5 5.7
연극	218	19.9 10.9	222	17.8 11.1	244	12.4 8.1	441	16.4 11.0	562	16.7 11.2
무용	39	3.6 2.0	21	1.7 1.1	22	1.1 0.7	37	1.4 0.9	72	2.1 1.4
영화	800	73.1 40.0	1,066	85.5 53.3	1,767	89.6 58.9	2,461	91.4 61.5	3,016	89.7 60.3
대중가요콘서트, 연예	171	15.6 8.6	206	16.5 10.3	301	15.3 10.0	329	12.2 8.2	378	11.2 7.6

자료 : 문화향수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각년도 자료

14) 추정된 모비율 역시 동일하게 나타남. 다만, 2010년의 경우 65%로 다소 차이가 있음(부록 참고)

주1) 장르별 문화예술 관람 경험자 수와 비율은 각 장르별 한번 이상 직접 관람 경험자에 대한 중복응답 결과임

주2) 문학행사 : 시화전, 도서전시회, 작가와의 대화 등이 포함

주3) 미술전시회 : 사진, 서예, 건축, 디자인 전시회 포함

주4) 전통예술 : 국악, 민속놀이 포함

주5) 장르별 관람률 중 위는 1회 이상 경험자의, 아래는 전체 응답자에 대한 비율임

[표 6.5.1.2] 연간(한 학기) 독서율

(단위: %)

	성인(연간)			학생(한학기)		
	2006	2008	2010	2006	2008	2010
독서율(%)	75.9	72.2	65.4	89.6	89.1	9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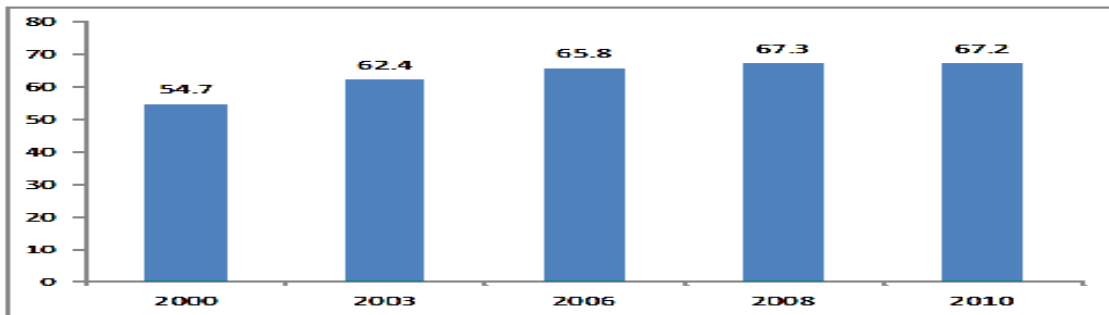
자료 : 국민 독서실태 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10년 자료

주1) 독서율은 연간 한 권 이상의 일반도서(만화, 잡지 제외)를 읽었다고 한 18세 이상의 성인의 비율임

주2) 학생(초중고등학교 학생)의 독서율은 한 학기를 기준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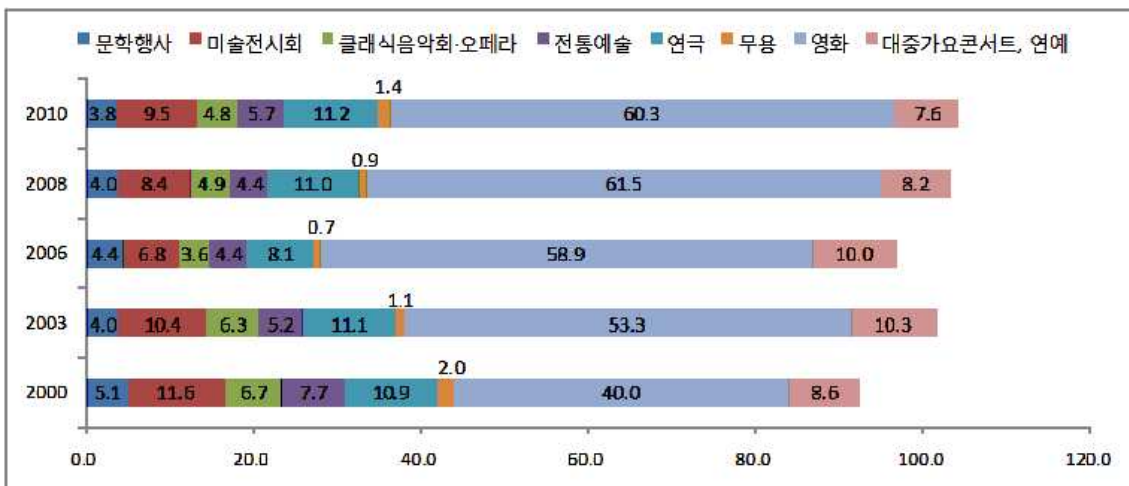
[그림 6.5.1.1] 연간 한번 이상 문화예술행사 관람 경험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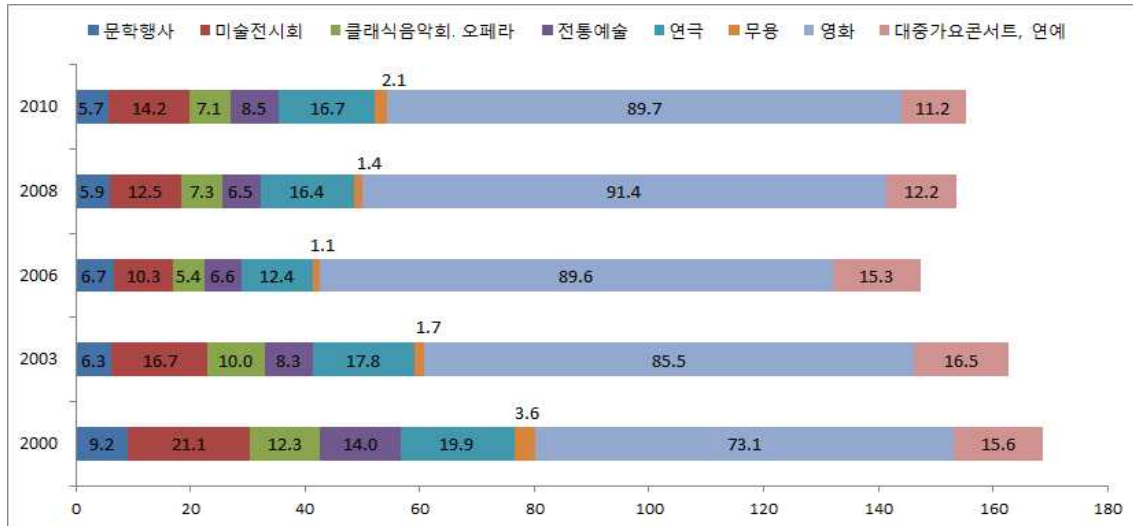


[그림 6.5.1.2] 연간 한번 이상 장르별 문화예술행사 관람 경험률(전체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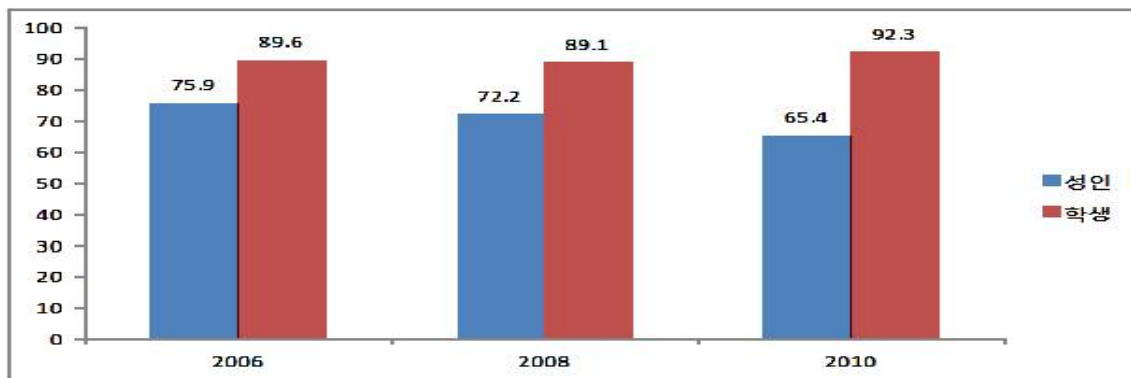
(단위: %)



[그림 6.5.1.3] 연간 한번 이상 장르별 문화예술행사 관람 경험률(한번 이상 관람경험자) (단위: %)



[그림 6.5.1.4] 연간 한 권 이상 일반도서 독서율 (단위: %)



- 사회경제적 특성과 문화예술관람 여부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2010년 자료를 통해 사회경제적 특성 범주에 따라 빈도분석을 수행하였음
 - 카이제곱 검정결과 95% 신뢰수준에서 연령, 거주하는 도시규모, 학력, 직업, 월평균 가구소득과 문화예술 관람 여부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는 2010년 기준 여성의 관람률(69.1%)이 남성(65.3%)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카이제곱 검정 결과 95% 신뢰수준에서 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남
 - 성별로는 여성의 관람률이 남성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빈도분석 결과 유의수준 0.05하에서 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음.
 - 연령별로는 10대, 20대의 관람률은 9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관람률은 하락하여 50대는 50% 남짓한 관람률을 보이며, 60대 이상의 경우 2006년 24.7%에서 2010년 28.6%로 소폭 상승하기는 했으나 여전히 20%대의 낮은 관

람률을 보임.

- 거주하는 도시규모별로는 대도시 거주자의 관람률은 70%를 육박하며, 중소도시 거주자의 관람률 역시 2006년 63.2%에서 꾸준히 올라 2010년에는 67.7%에 달하고 있으나, 군지역 거주자의 관람률은 50%대에 머물고 있음
- 학력별로는 대학 재학 이상의 고학력자의 관람률은 80% 중후반에 달하는 반면, 고졸 이하 학력 소지자의 관람률은 60%대에 머물고 있으며, 특히 중졸 이하 학력 소지자의 관람률은 2006년 40.1%에서 2010년 32.8%로 더욱 하락한 모습을 보임
- 직업별로는 학생의 관람률이 93.9~93.8%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사무직과 전문직/관리직의 관람률 역시 안정적으로 80% 중후반을 기록함. 그러나 생산직과 기타/무직의 관람률은 40%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월평균 가구소득이 400만원 이상인 이들의 관람률은 80%에 달하나 소득이 낮을수록 관람률은 하락하여, 2010년 기준 100~199만원 소득계층의 관람률은 46.6%에 불과하며, 특히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계층의 관람률은 24.6%에 그치고 있음

[표 6.5.1.3] 사회경제적 특성별 문화예술관람률(2006-2010) (단위: %)

		2006	2008	2010
		관람률	관람률	관람률
한번 이상 직접 관람 경험자		65.8	67.3	67.2
성별	남성	65.0	66.5	65.3
	여성	66.5	68.2	69.1
연령	10대	93.6	89.1	93.5
	20대	91.4	93.0	92.6
	30대	77.7	80.5	88.5
	40대	64.7	67.1	70.1
	50대	43.8	46.1	51.3
	60세 이상	24.7	26.7	28.6
도시규모	대도시	69.6	70.6	68.8
	중소도시	63.2	67.6	67.7
	군지역	57.0	48.9	56.8
학력	중졸 이하	40.1	41.2	32.8
	고졸	63.4	62.9	67.7
	대재 이상	86.0	86.8	85.7
직업	전문/관리직	87.2	82.3	85.1
	사무직	83.8	85.6	87.2
	서비스/판매직	63.7	68.2	61.8
	생산직	42.8	43.2	47.6
	자영업	50.9	54.6	-
	농업/어업	-	-	36.2
	주부	57.0	58.1	63.0
	학생	93.9	92.2	93.8
	기타/무직	42.0	37.0	42.7
	100만원 미만	23.9	19.3	24.6
월평균 가구소득	100-199 만원	54.7	48.3	46.6
	200-299 만원	66.3	70.5	66.4

	300-399 만원	79.7	79.4	75.3
	400만원 이상	86.0	80.6	84.7

자료 : 문화향수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각년도 자료

[표 6.5.1.4] 사회경제적 특성과 문화예술관람 여부간 독립성 검정: 카이자승 검정 결과(2010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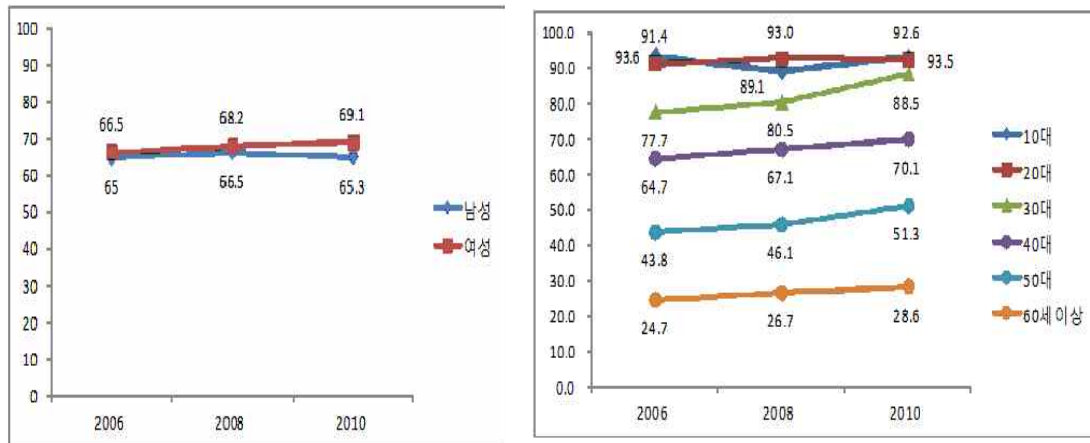
		관람안함	관람	χ^2
성별	여성	1,650	868	$\chi^2(1)= 0.7195$ Pr = 0.396
	남성	1,598	884	
연령	10대	381	32	$\chi^2(5)= 1.1e+03$ Pr = 0.000
	20대	743	71	
	30대	724	234	
	40대	705	324	
	50대	406	384	
	60세 이상	289	707	
도시규모	대도시	1,334	620	$\chi^2(2)= 51.4347$ Pr = 0.000
	중소도시	1,123	539	
	군지역	791	593	
학력	중졸 이하	407	823	$\chi^2(2)= 482.6218$ Pr = 0.000
	고졸	1,330	660	
	대재 이상	1,511	269	
직업	전문/관리직	134	30	$\chi^2(7)= 578.7698$ Pr = 0.000
	사무직	575	95	
	서비스/판매직	862	564	
	생산직	293	314	
	농업/어업	14	6	
	주부	639	540	
	학생	621	51	
	기타/무직	110	152	
월평균	100만원 미만	115	324	$\chi^2(4)= 621.0292$ Pr = 0.000
	100-199 만원	518	540	
	200-299 만원	801	403	
	300-399 만원	969	314	
	400만원 이상	845	171	

자료 : 문화향수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10)

주1)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은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그림 6.5.1.5] 성별 및 연령별 문화예술 관람자 비율 추이(2006~2010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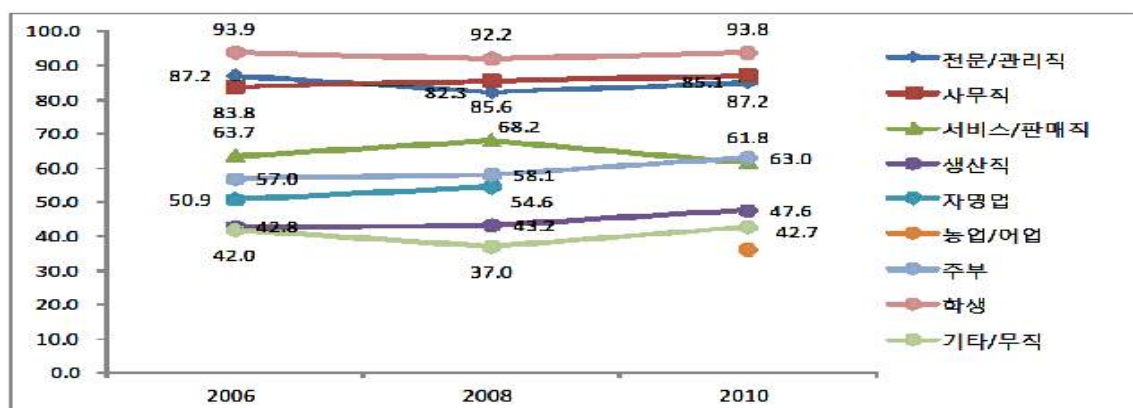


[그림 6.5.1.6] 거주 도시규모 및 학력에 따른 문화예술 직접 관람자 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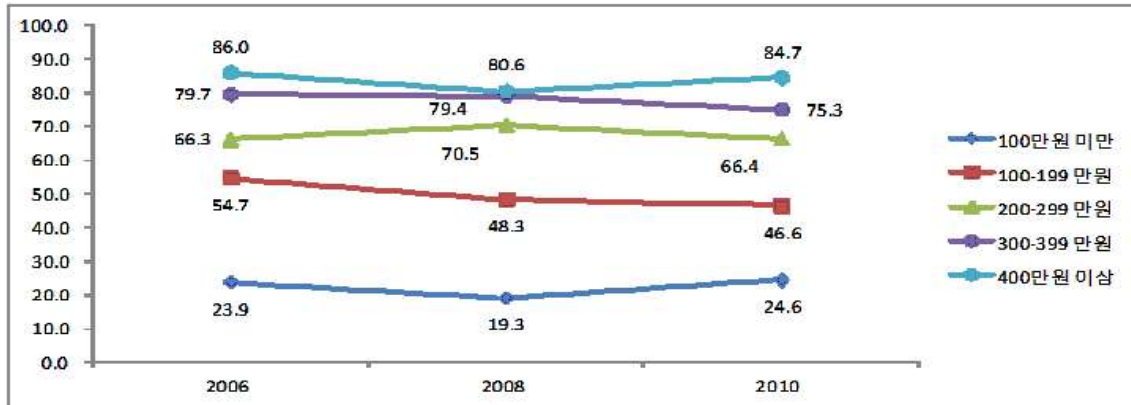


[그림 6.5.1.7] 직업에 따른 문화예술 관람 경험자 비율 (2006-2010년)

(단위: %)



[그림 6.5.1.8]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른 문화예술 관람 경험자 비율(2006-2008년) (단위:%)



- 『문화향수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15세 이상 인구의 연평균 문화예술 관람횟수는 2000년 3.3회에서 2010년 4.18회로 증가함
- 장르별로는 영화 관람횟수가 2.2~4회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의 관람횟수는 대부분 0.1~2회에 그치고 있음
 - 한편 관람 경험자의 경우에도 영화 관람횟수가 5.4~6.6회로 높게 나타나긴 하지만, 다른 장르에 대한 관람 횟수 역시 2~3회로 나타나고 있어 관람 경험이 많은 이들일 수록 관람 장르 역시 다양해짐을 알 수 있음
 - 관람경험자의 경우 특히 무용 관람횟수가 3.03회로 높게 나타나며, 문학행사, 미술전시회, 연극, 클래식음악회 및 오페라, 대중가요콘서트 및 연예의 순으로 관람횟수가 나타남
- 한편 『국민독서실태조사』결과 우리나라 18세 이상 성인의 연간 독서량은 2006년 11.9권에서 2010년 10.8권으로 감소했으나, 초중고등학생의 한 학기 독서량은 2006년 14권에서 2010년 16.5권으로 증가함
 - 한편 2010년 기준, 성인이 선호하는 도서 분야는 문학도서가 40.8%로 나타났고, 실용/취미도서에 대한 선호도 역시 34.5%에 달함

[표 6.5.1.5] 장르별 문화예술 연평균 관람 횟수(2000-2010년)

(단위: 회)

		2000	2003	2006	2008	2010
연평균 관람횟수		3.30	4.47	4.66	4.88	4.18
장 르 별 문 화 예 술 관 람 횟 수	문학행사	2.24	2.71	2.48	2.07	2.16
		0.11	0.11	0.11	0.08	0.08
	미술전시회	2.44	2.26	2.15	2.30	2.16
		0.28	0.24	0.15	0.19	0.21
	클래식음악회 · 오페라	2.18	2.06	2.39	2.47	1.98
		0.15	0.13	0.09	0.12	0.09
	전통예술	1.85	1.42	1.97	1.82	1.86
		0.14	0.07	0.09	0.08	0.11
	연극	1.95	1.88	2.10	2.09	2.02
		0.21	0.21	0.17	0.23	0.23
	무용	1.72	1.24	1.45	2.70	3.03
		0.03	0.01	0.01	0.03	0.04
	영화	5.57	6.58	6.59	6.52	5.46
		2.23	3.51	3.88	4.01	3.29
	대중가요콘서트, 연예	1.78	1.85	1.69	1.67	1.62
		0.15	0.19	0.17	0.14	0.12

자료 : 문화향수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각년도 자료

주1) 각 연도별 사례수는 2000, 2003년도에서 2000명을 대상, 2006년도는 4000명, 2010년도는 5000명임

주2) 장르별 문화예술 관람횟수와 비율은 한번 이상 직접 관람 경험자에 대한 중복응답 결과임

주3) 문학행사 : 시화전, 도서전시회, 작가와의 대화 등이 포함

주4) 미술전시회 : 사진, 서예, 건축, 디자인 전시회 포함

주5) 전통예술 : 국악, 민속놀이 포함

주6) 장르별 관람률 중 위는 1회 이상 경험자의, 아래는 전체 응답자에 대한 비율임

[표 6.5.1.6] 연간 일반도서 독서량(2006-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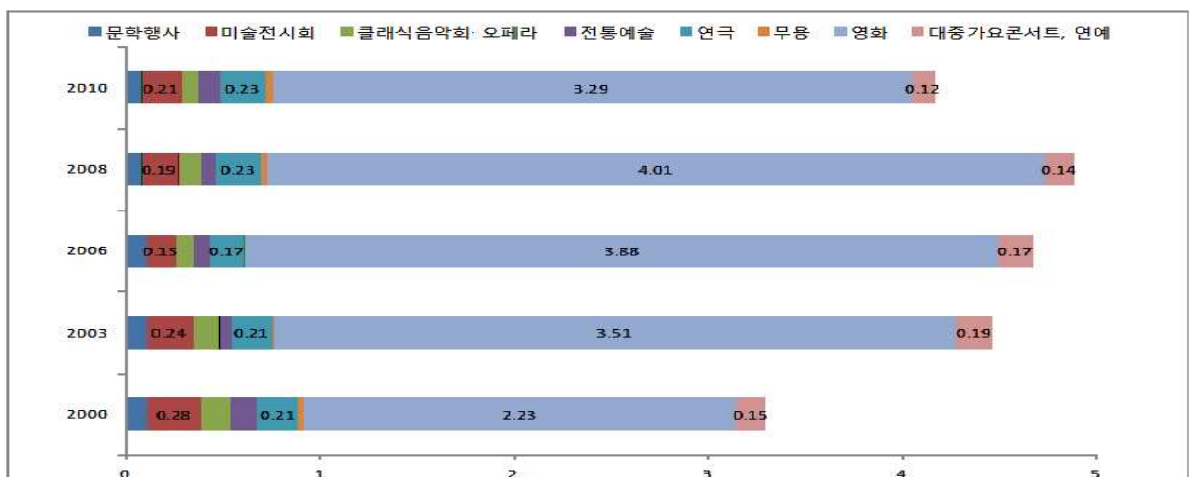
(단위: 권)

	성인(연간)			학생(한 학기)		
	2006	2008	2010	2006	2008	2010
독서량(권)	11.9	11.9	10.8	14.0	14.0	16.5

자료 : 국민 독서실태 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10년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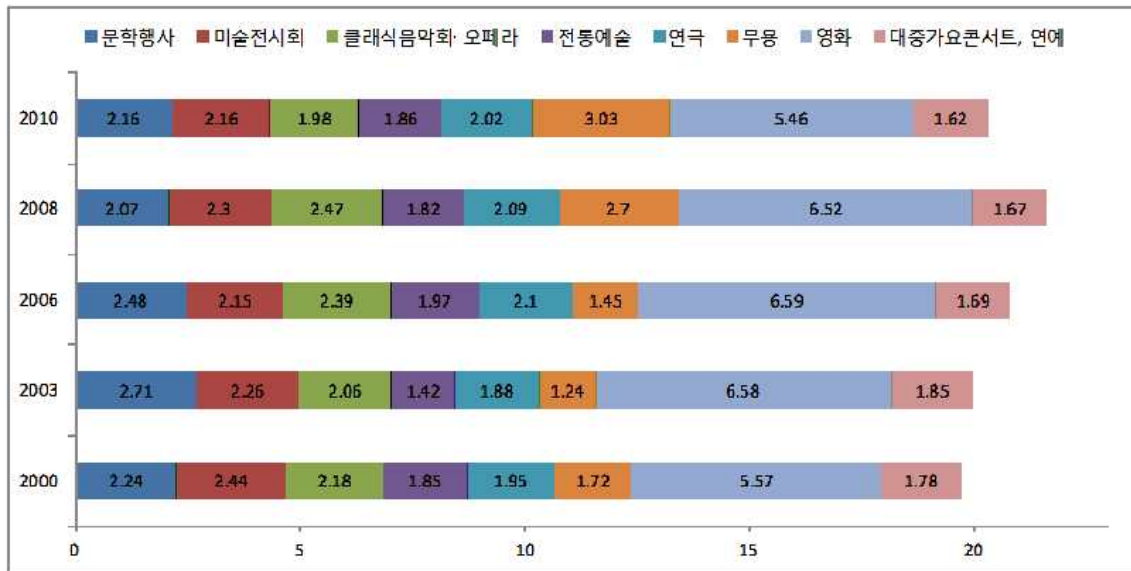
[그림 6.5.1.9] 연평균 문화예술관람 횟수(2000-2010년) : 전체

(단위: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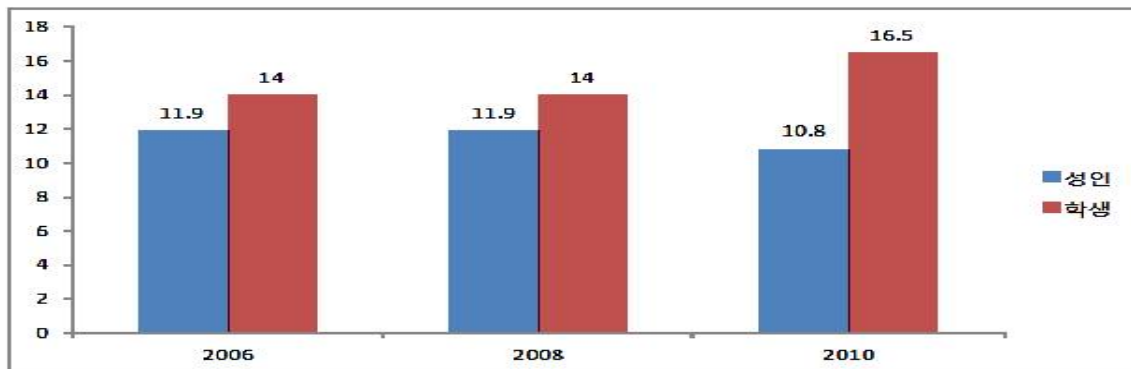
[그림 6.5.1.10] 연평균 문화예술관람 횟수(2000-2010년) : 경험자 대상

(단위: 회)



[그림 6.5.1.11] 연평균(한 학기) 독서량(2006-2010년)

(단위: 권)



○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연평균 문화예술 관람 횟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2010년 자료를 통해 다원분산분석을 시행한 결과 95% 신뢰수준에서 성별, 연령별, 학력별, 직업별, 소득수준별로 연평균 관람횟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는 남성에 비해 여성의 관람횟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10대와 20대의 관람횟수가 높게 나타남. 다만, 2006~2010년 사이 10대와 20대의 관람횟수는 감소한 반면, 40대, 50대, 60대의 관람횟수는 소폭이나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그러나 대도시 및 중소도시 거주자의 관람횟수가 군지역 거주자의 관람횟수보다 높게 나타나나, 다원분산분석 결과 95% 신뢰수준에서 거주지역의 도시규모는 관람횟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 대학 재학 이상의 고학력자의 관람횟수가 저학력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전문관

리직, 사무직의 관람횟수가 생산직, 기타/무직보다 높게 나타남.

-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은 고소득 가구일수록 문화예술 연평균 관람횟수는 높게 나타남

[표 6.5.1.7]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연평균 문화예술 관람 횟수(2006~2010년) (단위: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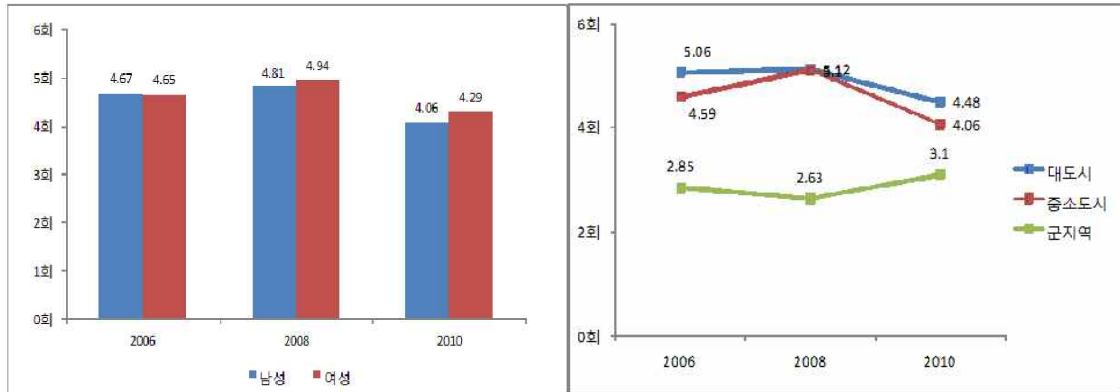
		2006년	2008년	2010년	
		횟수	횟수	횟수	F값, P-value
연평균 관람횟수		4.66	4.88	4.18	
성별	남성	4.67	4.81	4.06	F=15.810 P-value=0.000
	여성	4.65	4.94	4.29	
연령	10대	7.28	7.26	6.26	F=47.580 P-value=0.000
	20대	10.70	10.28	8.66	
	30대	4.69	5.55	4.79	
	40대	2.95	3.43	3.39	
	50대	1.74	1.98	2.06	
	60세 이상	0.83	0.82	1.02	
도시규모	대도시	5.06	5.12	4.48	F=1.420 P-value=0.235
	중소도시	4.59	5.10	4.06	
	군지역	2.85	2.63	3.10	
학력	중졸 이하	2.02	2.03	1.09	F=49.260 P-value=0.000
	고졸	3.58	3.45	3.43	
	대재 이상	7.77	7.96	6.69	
직업	전문/관리직	7.24	9.53	7.48	F=8.090 P-value=0.000
	사무직	6.53	6.46	6.59	
	서비스/판매직	4.59	4.88	3.46	
	생산직	2.17	2.00	2.02	
	자영업	2.70	2.61	-	
	농업/어업	-	-	1.16	
	주부	2.51	2.93	2.73	
	학생	9.47	9.46	7.66	
	기타/무직	3.18	1.85	2.56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0.86	0.55	0.89	F=10.030 P-value=0.000
	100-199 만원	3.21	2.74	2.33	
	200-299 만원	4.53	4.44	4.16	
	300-399 만원	6.31	6.11	4.65	
	400만원 이상	7.28	7.64	5.84	

자료 : 문화향수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06; 2008; 2010)

주1) 자영업의 경우 2010년도에, 농업/어업의 경우는 2006년, 2008년에 조사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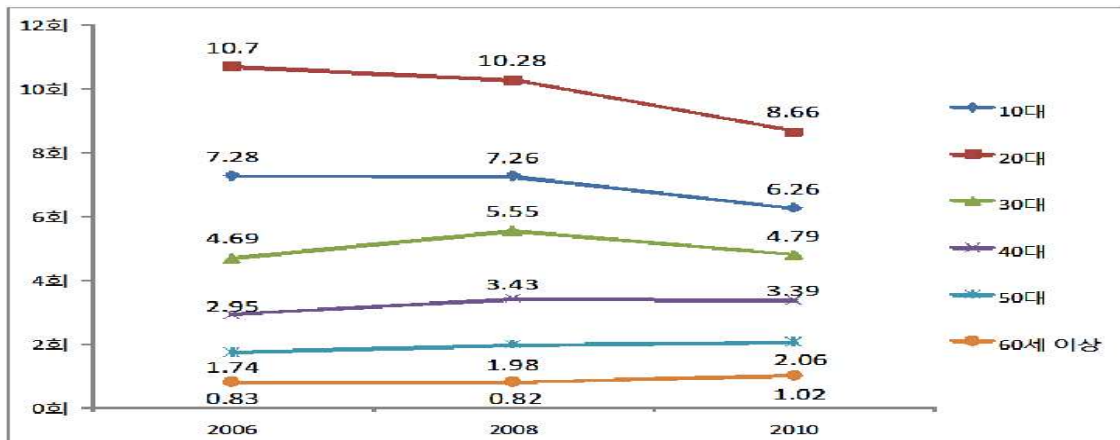
[그림 6.5.1.12] 성별 및 거주지역 규모별 문화예술 연평균 관람 횟수 추이

(단위: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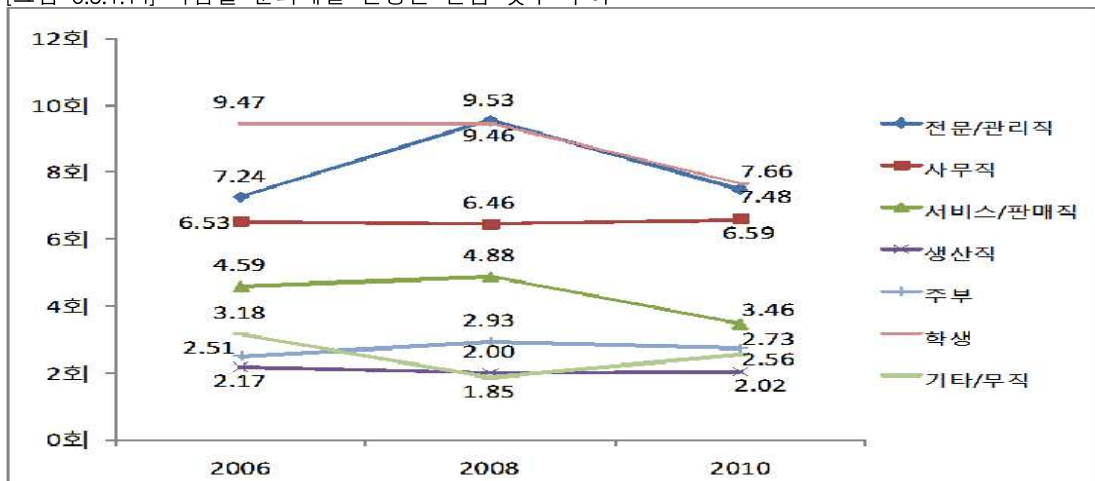


[그림 6.5.1.13] 연령별 문화예술 연평균 관람 횟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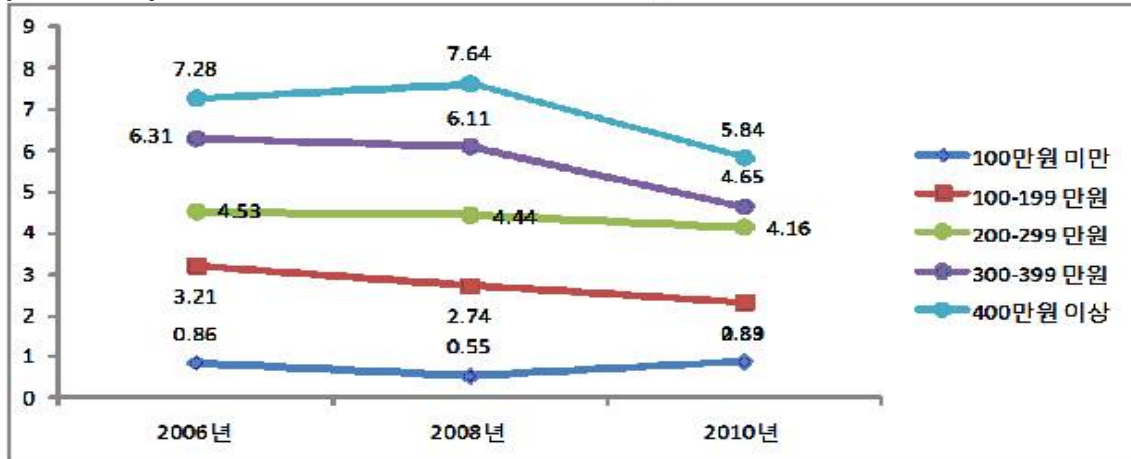
(단위: 회)



[그림 6.5.1.14] 직업별 문화예술 연평균 관람 횟수 추이



[그림 6.5.1.15] 월평균 가구 소득별 문화예술 연평균 관람 횟수 추이



- 한편 문화예술행사 관람에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라는 질문에는 '시간이 없어서'라는 응답 비율이 21.8~46.4%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경제적 비용이 21.9~32.6%로 그 다음으로 꼽힘
- 월평균 가구소득별로는 400만원 이상 계층이 '시간 부족'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응답한 이들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46.4%), 100만원 미만 계층의 경우 '경제적 비용'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응답한 이들의 비율이 21.9%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6.5.1.8] 예술행사 관람에 가장 큰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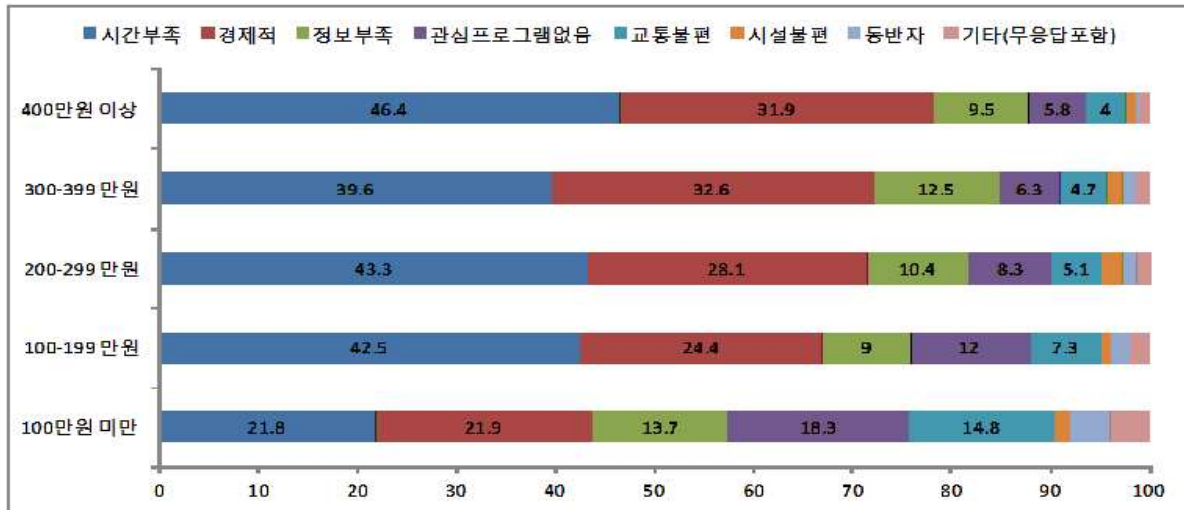
(단위: %)

2010년	시간부족	경제적 비용	정보부족	관심프로 그랩없음	교통불편	시설불편	동반자 없음	기타(무응 답포함)
100만원 미만	21.8	21.9	13.7	18.3	14.8	1.6	3.9	4.0
100-199만원	42.5	24.4	9.0	12.0	7.3	1.0	1.8	2.0
200-299만원	43.3	28.1	10.4	8.3	5.1	2.0	1.5	1.4
300-399만원	39.6	32.6	12.5	6.3	4.7	1.5	1.4	1.4
400만원 이상	46.4	31.9	9.5	5.8	4.0	1.0	0.3	1.0

자료 : 문화향수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11)

[그림 6.5.1.16] 소득수준별 예술행사 관람에 가장 큰 어려움

(단위: %)



6.5.2. 역사문화유적지 ·지역축제 방문자 수

- 『문화향수실태조사』에 따르면, 연간 한 번 이상 역사문화유적지를 방문한 경험에 있는 이들의 비율은 2000년 51.4%, 2003년 49.1%, 2006년 51.4%, 2008년 51.5%, 2010년 47.1%로 50%선 내외에서 증감을 반복함
- 한편 연간 한 번 이상 지역축제에 참여한 경험에 있는 이들의 비율은 2000년 32%, 2003년 40.4%, 2006년 43%, 2008년 48.7%, 2010년 50.7%로 꾸준히 증가함

[표 6.5.2.1] 연간 한번 이상 역사문화유적지 방문 경험

(단위: 명, %)

	2000		2003		2006		2008		2010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방문 경험 없음	971	48.6	1,018	50.9	1,457	48.6	1,940	48.5	2,645	52.9
한번 이상 방문자	1,029	51.4	981	49.1	1,543	51.4	2,060	51.5	2,355	47.1
합계	2,000	100	2,000	100	3,000	100	4,000	100	5,000	100

자료 : 문화향수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각년도 자료

주1) 역사문화유적지 : 고궁, 능, 문화재가 있는 사찰, 역사적 인물의 생가 등의 장소 포함

[표 6.5.2.2] 연간 한번 이상 지역축제 참여 경험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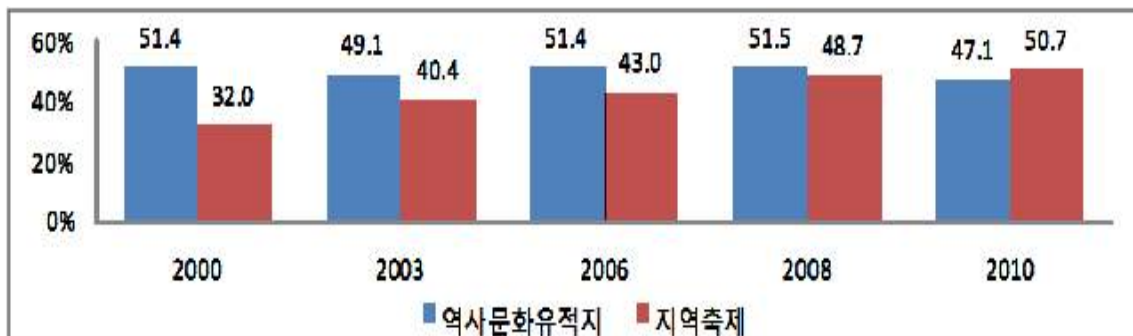
	2000		2003		2006		2008		2010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참여 경험 없음	1,361	68.0	1,193	59.6	1,710	57.0	2,052	51.3	2,465	49.3
한번 이상 참여자	639	32.0	807	40.4	1,290	43.0	1,948	48.7	2,535	50.7
합계	2,000	100	2,000	100	3,000	100	4,000	100	5,000	100

자료 : 문화향수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각년도 자료

주1) 지역축제 : 거리축제 포함

[그림 6.5.2] 연간 역사문화유적지 방문율 및 지역축제 참여율(2000~2010년)

(단위: %)



6.5.3. 해외 주요국과의 비교 : 문화예술관람·방문

- 문화예술관람률과 역사문화유적지·지역축제참여율을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2006년 기준, 한국의 영화관람률은 61.5%로 EU 국가들에 비해서도 높게 나타남
- 그러나 공연이나 전시 등으로 범위를 제한할 경우 미국 및 EU 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은 관람률을 보임
- 『문화향수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6년 기준으로 연간 한 번 이상 연극, 콘서트, 오페라, 발레, 무용 등의 라이브 공연(live performance)을 관람한 이들의 비율은 한국의 경우 21.6%에 불과하지만, Eurostat이 펴낸 『Cultural Statistics』에 따르면 스웨덴의 경우 62%, 네덜란드 55%, 영국 54%, 독일 52%, 프랑스 50%, 스페인 38%, 이탈리아 30%로 모두 우리에게 비해 높게 나타나며, EU 국가 전체 평균 관람률 역시 47%로 한국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남
- 또한 2008년 기준으로 미국의 SPPA(Survey of Public Participation in the art)자료와 한국의 『문화향수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연간 한번 이상 음악, 연극, 무용, 미술전시 등의 문화예술행사(benchmark arts activities)를 관람한 이들의 비율은 34.6%로 나타나는 반면, 한국의 관람률은 26.9%에 그침
 - 미국의 경우 클래식음악 관람률이 9.8%, 연극 관람률이 9.4%, 뮤지컬 관람률이

16.9%, 발레 관람률이 2.9%에 달하지만, 한국의 경우 클래식음악의 경우 4.9%, 뮤지컬과 연극을 모두 합해도 11%, 발레와 기타 무용을 모두 합해도 0.9%의 관람률에 그침

- 미술전시 관람률 역시 미국의 경우 22.7%에 달하지만, 한국은 8.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문화예술을 관람한 이들의 연평균 관람 횟수 역시 미국의 경우 일인당 연간 5.2회에 달하지만, 한국의 경우 2.9회에 그쳐 관람률과 관람빈도 역시 매우 낮게 나타남
-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관람률을 살펴보면 한국, EU국가, 미국 모두에서 남성에 비해 여성의 관람률이 높게 나타나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관람률이 높게 나타나 성별, 학력별, 소득수준별 문화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다만, 한국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문화예술 관람률이 낮아져 연령별 문화격차가 크게 존재하지만, 미국의 경우 75세 이상을 제외하고는 전 연령대에 걸쳐 문화예술 관람률이 비슷하게 나타나 연령별 문화격차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축제 참여율 역시 미국의 경우 예술관련 축제 참여율만 55.1%에 달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예술 관련 축제 뿐 아니라 지역특산물, 역사, 산업축제 등을 모두 합해도 축제 참여율이 48.7%에 불과함
- 역사문화유적지 방문율은 미국이 64.7%, 우리나라가 51.5%로 나타나지만, 미국의 경우 공원 방문까지 포함된 수치라 역사문화유적지 방문율만 따지면 그다지 낮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임.
- 한편 연간 한 권 이상의 도서를 읽는 이들의 비율은 미국이 54.3%, 한국이 72.2%로 나타나 독서율은 미국에 비해 한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6.5.3.1] 한국과 EU의 연간 문화예술 관람률(방문률) 비교(2006년 기준)

(단위: %)

			한국	EU평균	독일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
영 화	영화관람률		61.5	48.0	54.0	53.0	54.0	46.0	46.0	57.0	57.0
	성 별	남자	59.3	48.0	53.0	53.0	51.0	47.0	45.0	55.0	55.0
		여자	58.5	47.0	57.0	54.0	57.0	44.0	47.0	59.0	59.0
라 이 브 공 연	라이브공연 관람률		21.6	44.0	52.0	38.0	50.0	30.0	55.0	62.0	54.0
	성 별	남자	19.2	46.0	48.0	36.0	47.0	28.0	54.0	60.0	51.0
		여자	23.9	41.0	56.0	39.0	53.0	31.0	57.0	64.0	58.0
	학 력	중졸이하	12.6	25.0	33.0	24.0	33.0	17.0	37.0	46.0	34.0
		고졸이하	19.2	44.0	51.0	44.0	49.0	37.0	55.0	58.0	54.0
		대재이상	29.9	66.0	67.0	59.0	72.0	57.0	71.0	75.0	69.0
역사문화유적지 방문/ 미술전시회 관람률			53.4	45.0	58.0	47.0	49.0	27.0	51.0	63.0	57.0

자료1) Cultural statistics (Eurostat, 2011)

자료2) 문화향수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06)

주1) Cultural Statistics(Eurosta, 2011)은 EU-HLC를 원자료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지난 1년 라이브공연(live performance)을 한번 이상 관람한 이들의 비율을 집계함. 라이브공연에는 plays, concerts, operas, ballets, dance

performance가 포함되므로, 문화향수실태조사에서 '연극, 대중가요콘서트연예, 클래식음악화·오페라, 무용, 전통예술'의 연간 관람률을 분석하여 함께 제시함

주2) Cultural Statistics(Eurosta, 2011)에서 교육수준의 범주는 'Low'(ISCED 0-2 and 3c short), 'Medium'(ISCED 3-4, without 3c short), 'High'(ISCED 5-6)으로 구분되며 이는 각각 문화향수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의 '중졸이하', '고졸', '대재이상'에 해당됨

주3) Cultural Statistics(Eurostat, 2011)에서 제시된 문화적 장소(Cultural site)에는 historical monuments, museums, art galleries, archaeological site가 포함되므로, 문화향수실태조사에서 '미술전시회'와 '역사문화유적지'관람자의 비율을 분석하여 제시함

[표 6.5.3.2] 한국과 미국의 연간 문화예술 관람률(방문률) 비교: 장르별(2008년 기준) (단위: %, 회)

	한국		미국	
	관람률	관람자 당 평균 관람횟수	관람률	관람자 당 평균 관람횟수
기존문화예술행사(공연/전시) (Benchmark arts activities_)	26.9	2.9	34.6	5.2
공연예술(음악,연극,무용,전통예술)	22.4	2.7	-	-
음악(클래식 & 대중음악)	12.0	2.1	-	-
재즈	4.9	2.5	7.8	2.9
클래식음악			9.8	2.9
오페라			2.1	1.8
라틴뮤직			4.9	3.5
대중음악콘서트 및 연예	5.5	1.7	-	-
연극(연극 & 뮤지컬)	11.0	2.1	-	-
뮤지컬			16.7	2.2
비뮤지컬극			9.4	2.3
무용	0.9	2.7	-	-
발레			2.9	2.9
기타 무용			5.2	2.2
전통예술	4.4	1.8	-	-
미술전시	8.4	2.3	22.7	2.9
예술관련 축제	48.7	11.9*	55.1	
역사문화유적지	51.5		64.7	
독서	72.2		54.3	

자료1) 2008 Survey of Public Participation in the art(NEA, 2009) 와 문화향수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08) 원자료 분석을 통해 비교

자료2) 독서의 경우 SPPI와 국민독서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10)비교

주1) SPPI에 나타난 기존 문화예술행사(Benchmark arts activities)에는 jazz, classical music, opera, musical plays, non-musical plays, ballet performance, visits to art museums or art galleries가 포함됨(한국의 경우 음악, 전통예술, 대중가요콘서트 및 연예, 연극, 무용, 미술관전시와 대응됨. 즉 문화향수실태조사 범주 중에서 영화 및 문학행사가 제외됨)

주2) 음악에는 음악, 대중가요콘서트, 전통예술 범주가 포함됨(Music : Jazz, Classical music, opera, latin music)

주3) 연극에는 뮤지컬이 포함됨(Play : musical plays, Non-musical plays)

주4) 무용에는 서양무용과 한국무용이 포함됨(Dance : Ballet, Other Dance)

주5) 미술전시(Art Museum/Galleries 와 대응)

주6) 지역축제(art/craft fairs & festivals 와 대응) : 한국의 지역축제에는 예술과 관련되지 않은 축제들도 포함되어 있어 한국의 축제참여율이 과대평가될 가능성 있음

주7) 역사문화유적지 방문(Parks & historic sites와 대응) : 미국의 경우 공원이 포함되어 미국의 방문률이 과대평가될 가능성 있음

주8) 독서에는 만화 및 잡지를 제외한 일반도서가 포함됨(Book : literature & non-literature포함)

주9) * 독서의 경우 관람횟수가 아닌 연간 독서권수로 집계됨

[표 6.5.3.3] 한국과 미국의 연간 문화예술 관람률 비교(2008년 기준)

(단위: %)

		한국	미국	
		문화예술 관람률	문화예술관람률	관람자의 인구학적 분포
공연/전시 관람률 (Benchmark Arts Activities)		26.9	34.6	100.0
성별	남성	23.8	32.3	45.0
	여성	29.8	36.8	55.0
연령	18-24	34.9	32.7	12.1
	25-34	32.5	36.0	18.5
	35-44	28.8	37.2	20.0
	45-54	22.6	36.1	20.4
	55-64	19.2	36.9	15.8
	65-74	13.3	33.4	8.5
	75이상	17.9	21.3	4.7
학력	중졸 이하(Grade School)	16.5	6.5	0.9
	고등학교 재학 이하	26.2	14.5	4.1
	고등학교 졸업 이하	20.3	19.0	16.7
	대학 재학 이하	40.5	38.1	30.1
	대학 졸업 이하	36.8	57.2	30.4
	대학원 재학 이상	57.1	67.3	17.8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less than \$10K)	11.2	16.1	2.6
	100~199만원 미만(\$10K to \$20K)	17.6	16.8	4.5
	200~299만원 미만(\$20K to \$30K)	24.3	19.3	6.3
	300~399만원 미만(\$30K to \$40K)	30.6	27.0	8.5
	400~499만원 미만(\$40K to \$50K)	37.9	31.8	8.3
	500만원 이상 (\$50K to \$75K)	47.7	36.2	20.5
	\$75K to \$100K		46.2	17.5
	\$100K to \$150K		55.0	16.4
	\$150K and over		68.1	1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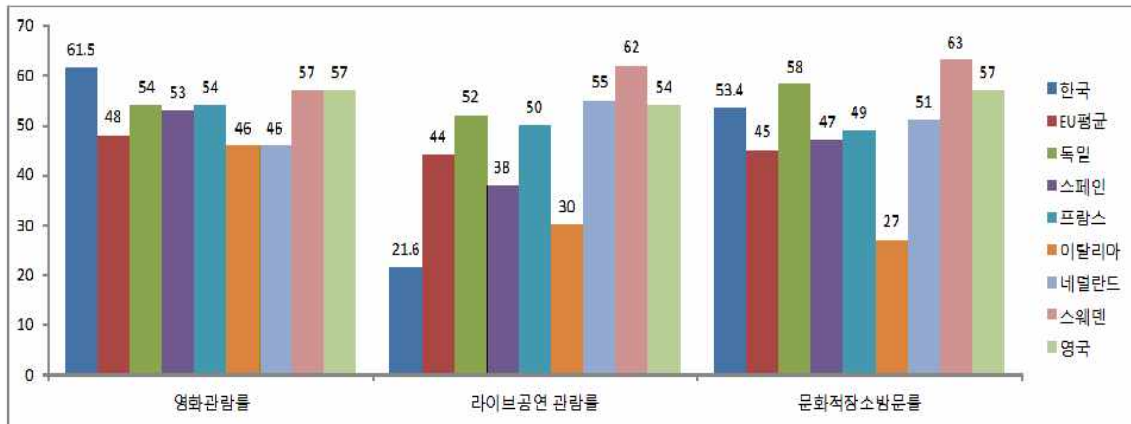
자료 : 2008 Survey of Public Participation in the art(NEA, 2009) 와 문화향수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08) 원자료 분석을 통해 비교

주1) SPPA에 나타난 기준 문화예술행사(Benchmark arts activities)에는 jazz, classical music, opera, musical plays, non-musical plays, ballet performance, visits to art museums or art galleries가 포함됨(한국의 경우 음악, 전통예술, 대중가요콘서트 및 연예, 연극, 무용, 미술관전시와 대응됨. 즉 문화향수실태조사 범주 중에서 영화 및 문학행사가 제외 됨)

주2) 한편 문화향수실태조사에서는 월평균 가구소득을 범주 변수의 형태로 집계하고 있어 정확한 비교는 힘들지만, OECD 구매력평가환율자료를 참고하여 2008년 연평균 환율인 1\$=1,100원으로 계산한 연평균소득을 12개월로 나눌 경우 대략 유사한 소득구간이 되므로, 비교에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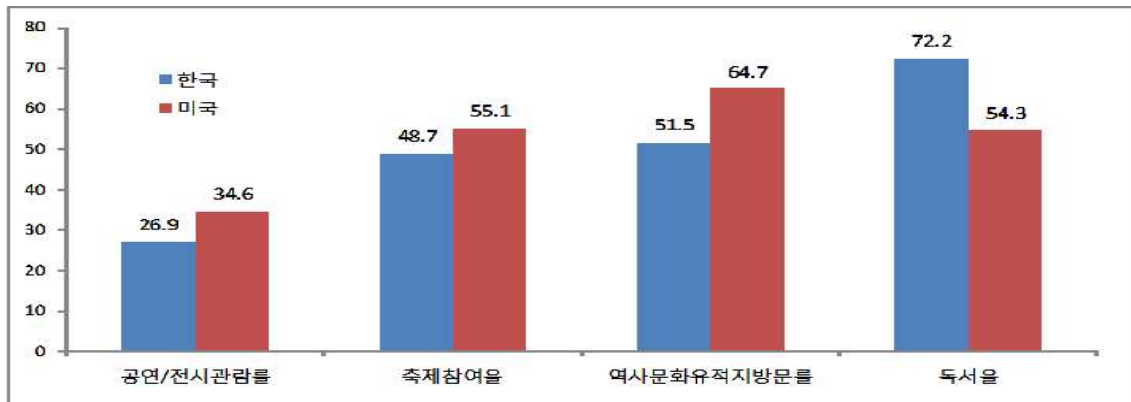
[그림 6.5.3.1] 한국과 EU의 연간 문화예술 관람률(방문률) 비교 (2006년 기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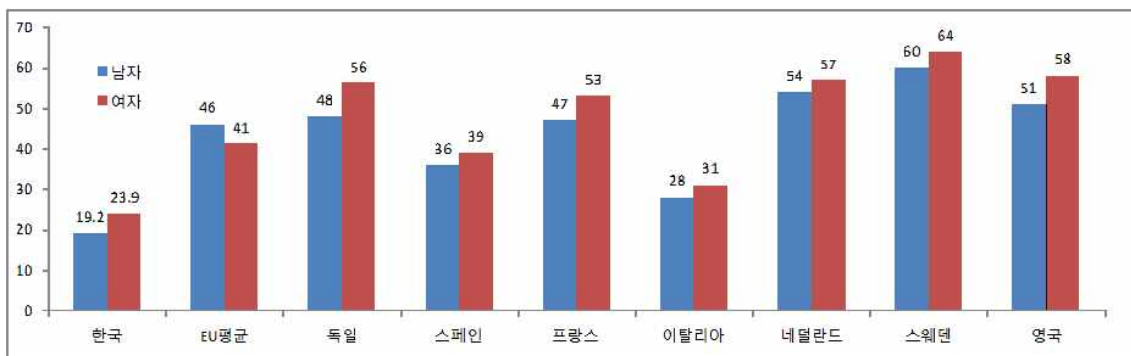
[그림 6.5.3.2] 한국과 미국의 연간 문화예술 관람률 및 방문률(2008년 기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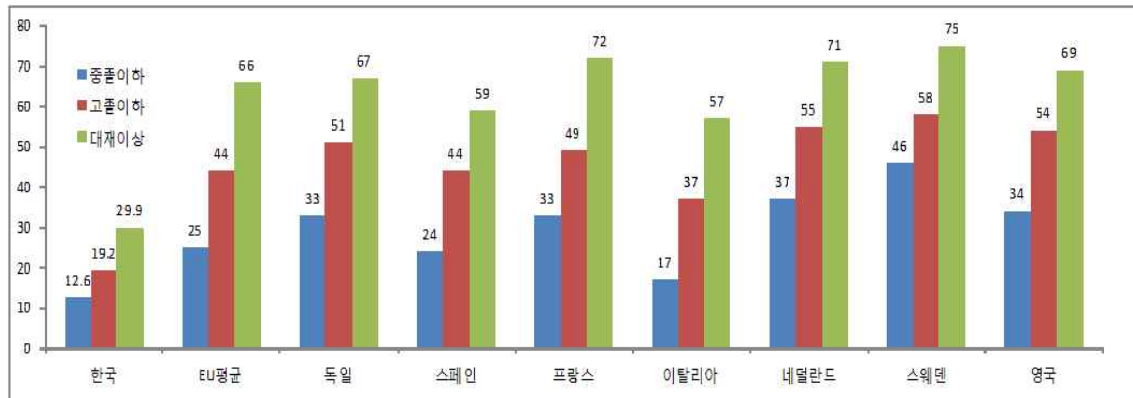
[그림 6.5.3.3] 성별 한국과 EU의 연간 라이브공연 관람률 비교 (2006년 기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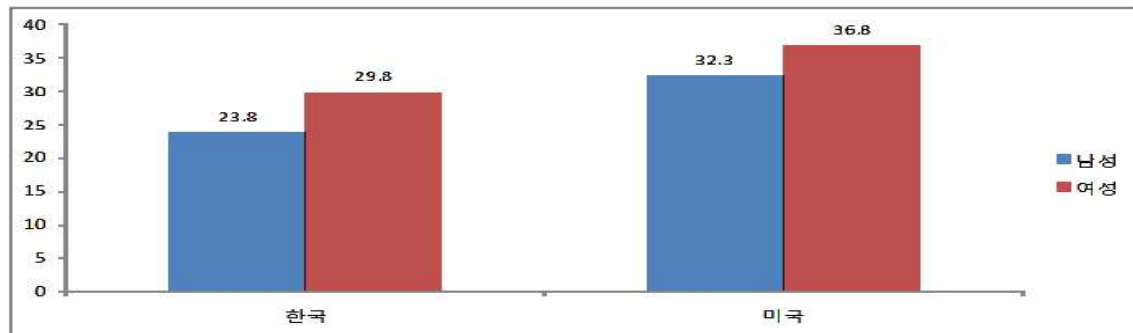


[그림 6.5.3.4] 학력별 한국과 EU의 연간 라이브공연 관람률 비교 (2006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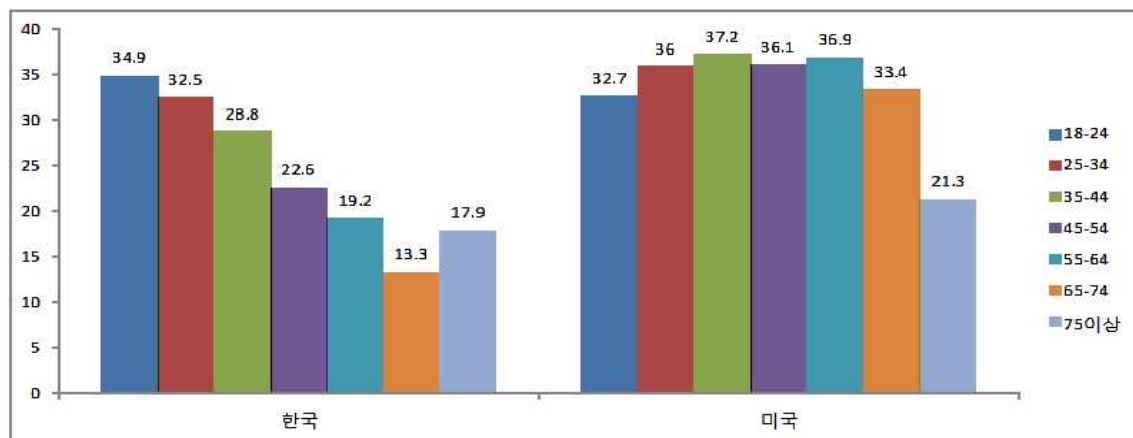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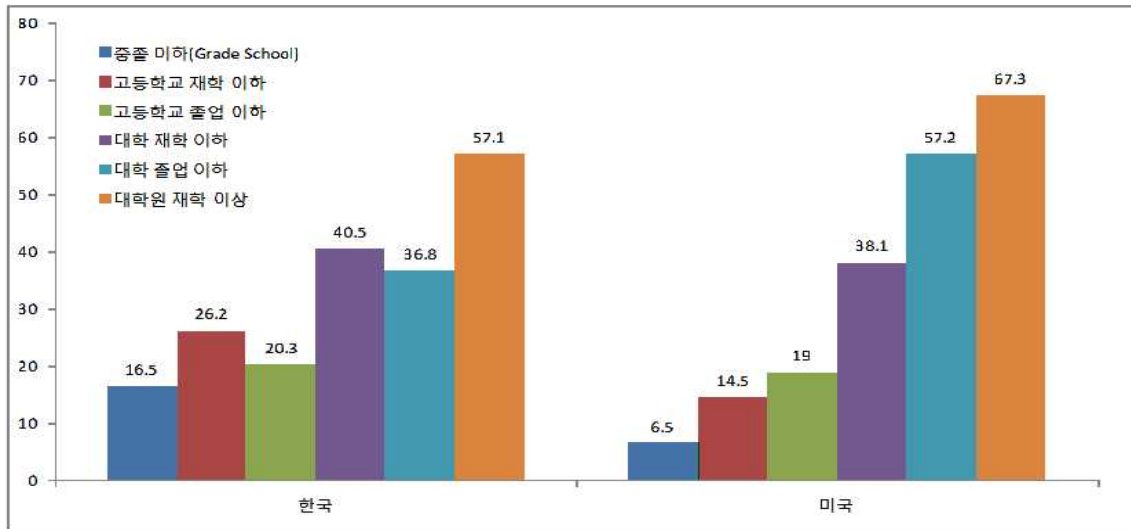
[그림 6.5.3.5] 성별 한국과 미국의 연간 공연/전시(benchmark arts activities) 관람률(2008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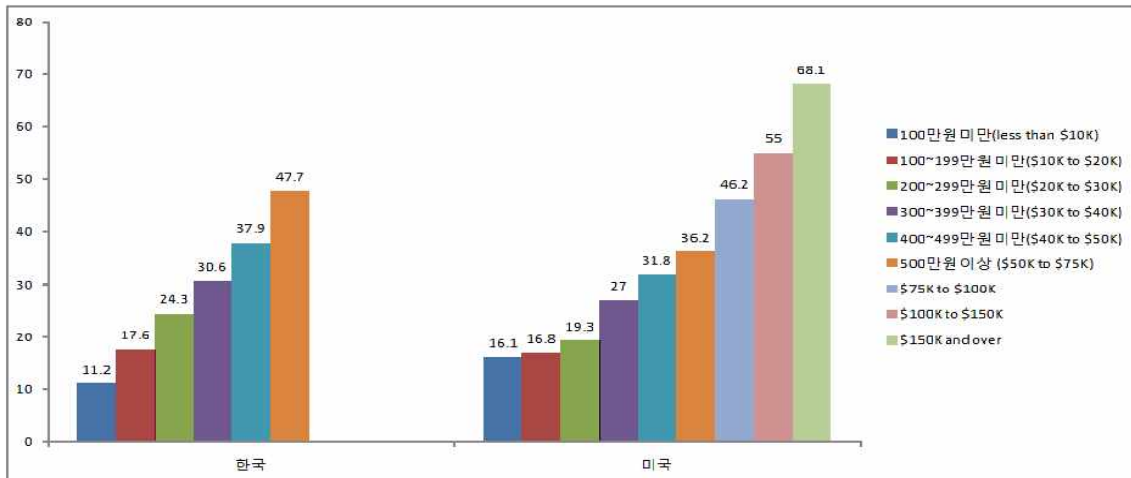
[그림 6.5.3.6] 연령별 한국과 미국의 연간 공연/전시(benchmark arts activities) 관람률(2008년) (단위: %)



[그림 6.5.3.7] 교육수준별 한국과 미국의 연간 공연/전시(benchmark arts activities)관람률(2008년) (단위: %)



[그림 6.5.3.8] 소득수준별 한국과 미국의 연간 공연/전시(benchmark arts activities)관람률(2008년) (단위: %)



6.6. 문화예술활동 참여자 수

6.6.1. 문화예술 창작·발표 참여자 수

- 『문화향수실태조사』에 따르면 연간 한번 이상 문화예술 창작·발표에 참여한 경험을 가진 이들의 비율은 2006년 2.8%, 2008년 2.4%, 2010년 2.2%로 매우 낮으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조금씩 감소하는 모습을 보임
- 특히 장르별 문화예술 창작·발표자의 수는 사례 수가 너무 작아 통계적 유의미성을 확보하기가 곤란하여 여기에서는 자세히 상술하지는 않음
- 다만, 전반적으로는 미술전시회 발표 참여자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음

[표 6.6.1.1] 연간 한번 이상 문화예술 창작·발표 참여자 수(2006~2010년) (단위: 명, %)

	2006		2008		2010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합계	3,000	100	4,000	100	5,000	100
참여 경험 없음	2,917	97.2	3,904	97.6	4,890	97.8
한번 이상 참여 경험자	83	2.8	97	2.4	110	2.2
문학행사	9	10.8	15	15.5	14	12.7
		0.3		0.4		0.3
미술전시회	33	39.8	38	39.2	59	53.6
		1.1		1.0		1.2
클래식음악회·오페라	13	15.7	10	10.3	3	2.7
		0.4		0.3		0.1
전통예술	10	12.0	7	7.2	13	11.8
		0.3		0.2		0.3
연극	7	8.4	11	11.3	6	5.5
		0.2		0.3		0.1
무용	4	4.8	7	7.2	8	7.3
		0.1		0.2		0.2
영화	3	3.6	3	3.1	2	1.8
		0.1		0.1		0.0
대중가요콘서트, 연예	8	9.6	13	13.4	6	5.5
		0.3		0.3		0.1

자료 : 문화향수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06; 2008;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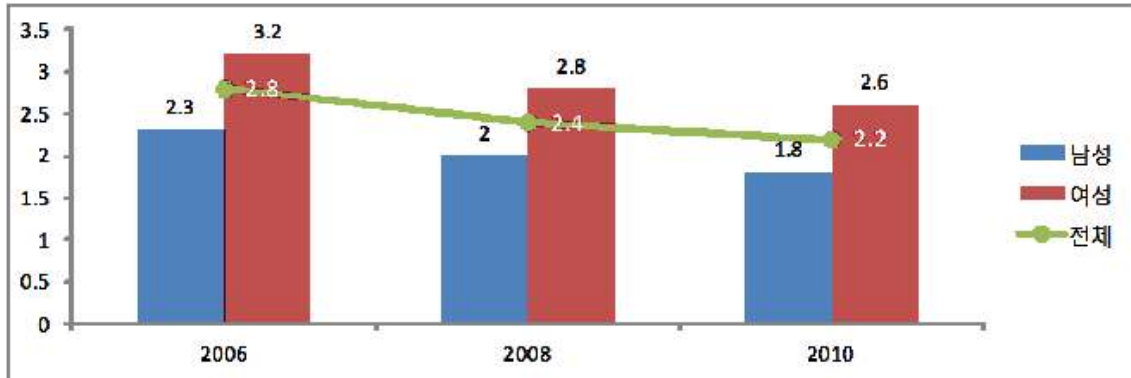
주1) 장르별 문화예술 참여자 수와 비율은 한번 이상 직접 문화예술 창작·발표 참여자에 대한 중복응답 결과임

주2) 창작·발표 활동이란 백일장 참가, 미술작품 창작전시회, 각종 경연(콘테스트)대회 참가, 연주회, 연극영화연예 출연 및 제작 등을 의미함(학교에서 정규과과과정 및 학원에서 입시 목적에 의한 것은 제외)

주3) 장르별 관람률 중 위는 1회 이상 경험자의, 아래는 전체 응답자에 대한 비율임

[그림 6.6.1.1] 연간 한번 이상 문화예술 창작·발표 참여율(2006~2010년)

(단위: %)



-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문화예술 창작·발표 참여율은 다음과 같으나 응답자의 수가 작아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기는 곤란함
 - 성별로는 전 기간에 걸쳐 여성의 참여율이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10대와 20대의 참여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0대와 60세 이상의 참여율이 가장 낮게 나타남
 - 학력이 높을수록 문화예술 창작·발표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2008년까지는 대도시 및 중소도시 거주자에 비해 군지역 거주자의 참여율이 낮게 나타났으나 2010년에는 군지역 거주자의 참여율이 높게 나타남
 - 직업별로는 전문/관리직과 학생의 참여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2008년까지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문화예술 창작·발표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2010년에는 월평균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참여율이 2% 대로 수렴하는 현상을 보임

[표 6.6.1.2] 사회경제적 특성별 문화예술 창작·발표 참여자(2006~2010년)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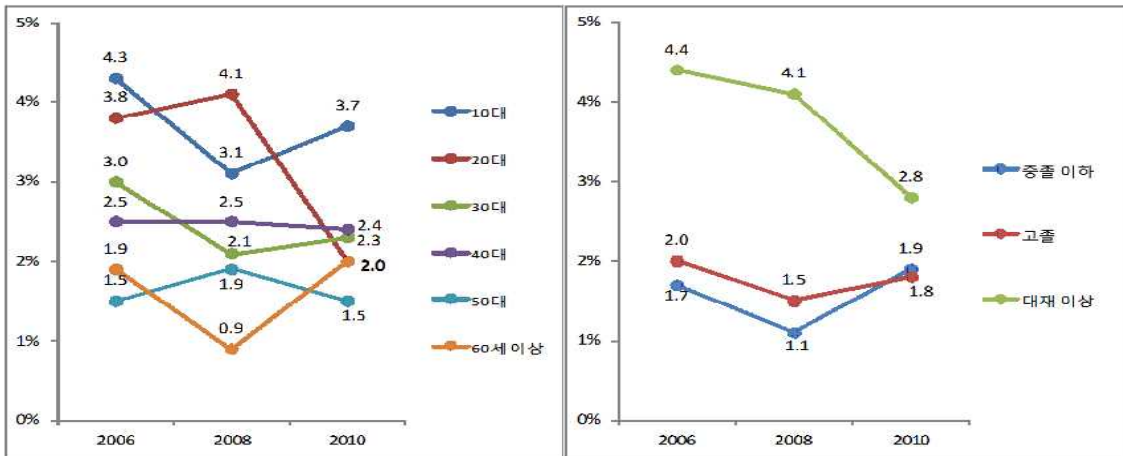
		2006		2008		2010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한번 이상 창작·발표 경험자		83	2.8	97	2.4	110	2.2
성별	남성	34	2.3	40	2.0	45	1.8
	여성	49	3.2	57	2.8	65	2.6
연령	10대	10	4.3	10	3.1	16	3.7
	20대	22	3.8	31	4.1	17	2.0
	30대	20	3.0	19	2.1	23	2.3
	40대	16	2.5	21	2.5	25	2.4
	50대	6	1.5	10	1.9	12	1.5
	60세 이상	9	1.9	6	0.9	17	2.0
도시규모	대도시	47	3.2	38	2.0	53	2.3
	중소도시	32	2.6	51	3.0	40	1.8
	군 지역	4	1.0	8	2.2	17	4.0
학력	중졸 이하	13	1.7	10	1.1	19	1.9
	고졸	25	2.0	24	1.5	38	1.8
	대재 이상	45	4.4	63	4.1	53	2.8

직업	전문/관리직	10	11.6	17	13.7	14	7.9
	사무직	9	1.6	14	2.0	9	1.3
	서비스/판매직	9	2.0	9	1.4	18	1.3
	생산직	3	0.7	3	0.6	12	2.0
	자영업	9	5.3	2	0.2	-	-
	농업/어업	-	-	-	-	5	3.1
	주부	15	2.0	18	1.8	21	2.1
	학생	23	5.6	30	4.9	23	3.3
	기타/무직	5	3.0	4	1.9	8	2.7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1	0.5	4	1.5	9	2.8
	100-199 만원	11	1.7	12	1.7	19	2.2
	200-299 만원	22	1.9	19	1.5	30	2.6
	300-399 만원	28	4.1	29	2.6	25	1.7
	400만 원 이상	21	7.3	33	4.9	27	2.3

자료 : 문화향수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06; 2008;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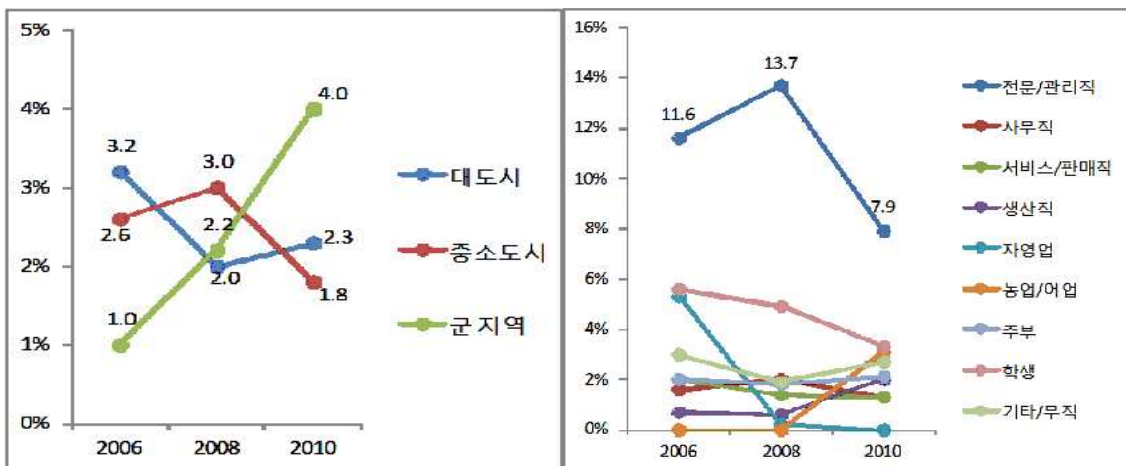
[그림 6.6.1.2] 연령 및 학력별 문화예술 창작·발표 참여율(2006~2010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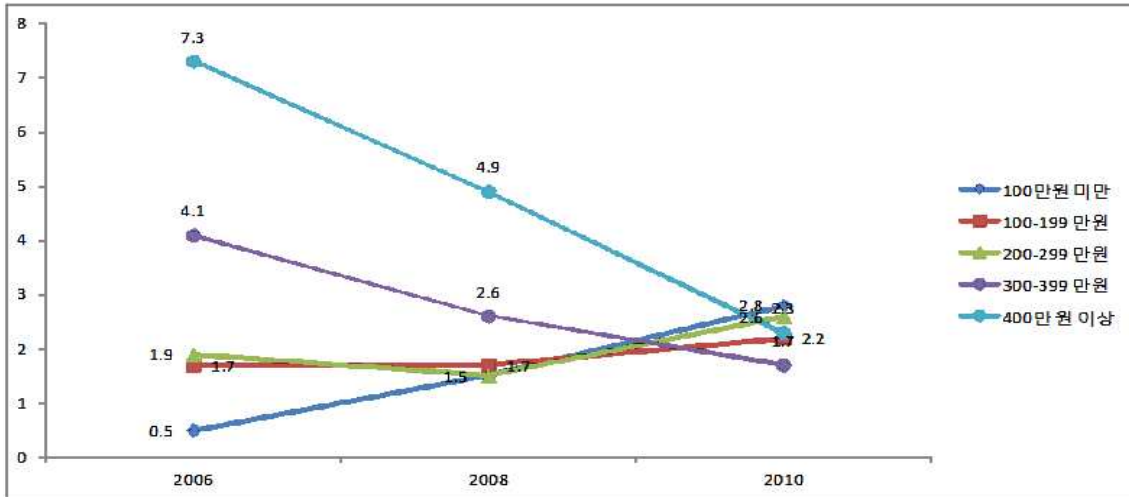
[그림 6.6.1.3] 거주지역 및 직업별 문화예술 창작·발표 참여율(2006~2010년)

(단위: %)



[그림 6.6.1.4] 월평균 가구소득별 문화예술 창작·발표 참여율(2006~2010년)

(단위: %)



6.6.1.1. 해외 주요국과의 비교 : 문화예술활동 참여(창작·발표활동)

- 해외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연간 직접 공연 및 전시 등의 창작·발표활동에 참여한 이들의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먼저 2008년 기준으로, SPPA(Survey of Public Participation in the art)자료에 따르면 미국에서 연간 한 번 이상 클래식 음악 공연에 직접 참여하는 이들의 비율은 3.1%, 악기연주를 하는 이들은 12.6%로 나타나는 반면 한국의 경우 음악 공연 모두를 합쳐도 참여율이 0.6%에 불과함
- 미국의 경우 사진이나 영화 제작 활동에 참여하는 이들의 비율이 14.7%에 달하며, 시나 소설 등 문학적 창작활동 참여율 역시 6.9%에 달하지만, 한국의 경우 시각예술 전체를 포괄한 참여율이 1.1%, 문학 관련 참여율은 0.4%에 그침
- EU국가와 비교할 경우 참여율의 격차는 더욱 크게 나타남
- 노래, 무용, 연기, 음악공연 등 공연발표에 참여한 이들의 비율이 이탈리아는 24%, 독일은 11%, 스페인은 8%로 나타나는 반면 한국의 경우 1.1%에 불과하며, 시각예술 관련 창작활동 참여율 역시 독일이 14%, 스페인이 13%, 이탈리아가 10%에 달하는 반면 한국의 경우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표 6.6.1.1] 한국과 미국의 연간 장르별 공연 및 예술창작 참여율 비교 (2008, 2007년도 기준) (단위 : %)

			한국 (2008년)		미국 (2008년)	EU(2007년)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공연(performing)			1.1		-	11.0	8.0	24.0
음악	재즈	클래식음악	0.6	0.3	1.4			
					0.3			
					0.4			
					5.2			
					12.6			
	연극	뮤지컬			0.3			
비뮤지컬공연		0.8						
무용	발레	0.2	-					
	기타 무용		-					
	모든 무용		2.1					
창작(creating)			1.3		-	-	-	
시각 예술	미술(그림·조각)	도기·보석공예	1.1	9.0	14.0	13.0	10.0	
				6.0				
				13.1				
				14.7				
	문학	희곡/시/소설/단편		0.4	6.9			

자료1) 미국 i) 2008 SPPA(Survey of Public Participation in the art)(NEA, 2009) ii) National Arts Index 2010(Americans for the arts, 2011)

자료2) EU : Cultural Statistics(Eurostat, 2011) 원자료: Eurostat, Adult Education Survey 2011

자료3) 한국: 문화향수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06;2008) 원자료를 토대로 분석 재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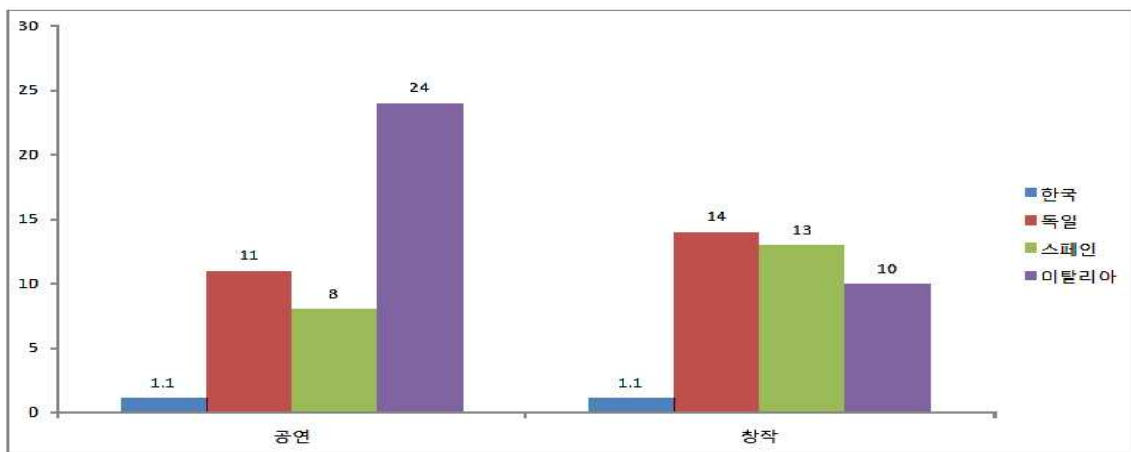
주1) 동일한 기준에 따라 비교하기 위해 미국의 SPPA자료와 EU의 범주구분에 따라 우리나라 문화향수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참여율을 구함

주2) 미국 SPPA의 범주구분 i) 공연(performance) : Music, Plays, Dance ii) 창작(creating) : visual arts, literature

주3) 미국 NAI 자료의 참여율 = (공예, 미술, 사진, 악기연주 등 예술적 창작활동 경험자의 수)/(미국인구수)*100

주4) EU cultural statistics 범주구분 : i) 공연발표(public performance) : singing, dancing, acting, music ii) 예술적 창작(artistic activities) : painting, drawing, sculpture, computer graphics, etc.

[그림 6.6.1.1] 한국과 미국의 연간 장르별 공연 및 예술창작 참여율 비교 (2008, 2007년도 기준) (단위 : %)



6.6.2. 문화예술 자원봉사 및 동호회 활동 참여자 수

- 『문화향수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까지 문화관련 자원봉사 활동 경험이 있는 이들의 비율은 2003년 6.5%에서 2006년 3.5%까지 하락했다 2008년 6.2%, 2010년 7.3%로 다시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을 보임
- 한편 현재 문화관련 동호회 참여자의 비율은 2003년 10.6%, 2006년 3.3%, 2008년 2.9%, 2010년 3.1%로 3% 대에 머물고 있음
 - 2000년에는 영화, 미술, 문학 관련 동호회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2010년에는 미술, 영화, 전통예술, 문학, 서양음악 관련 동호회 참여율이 높게 나타남

[표 6.6.2.1] 문화관련 자원봉사 활동 경험자 (단위: 명, %)

	2003		2006		2008		2010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자원봉사 경험 없음	1,870	93.5	2,895	96.5	3,752	93.8	4,635	92.7
자원봉사 경험 있음	130	6.5	105	3.5	248	6.2	365	7.3

자료 : 문화향수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각년도 자료

주 : 자원봉사에는 문화관련 단체, 지역 문화시설에서의 봉사활동 및 문화재 관리 등의 활동도 포함

[표 6.6.2.2] 문화관련 동호회 참여자 (단위: 명, %)

	2003		2006		2008		2010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비참여자	1,842	92.7	1,901	96.7	3,884	97.1	4,845	96.9
참여자	158	7.9	99	3.3	116	2.9	156	3.1
문학(독서 포함)	30	1.5	17	0.6	24	0.6	19	0.4
미술(사진,서예,디자인, 건축 포함)	30	1.5	27	0.9	35	0.9	42	0.8
서양음악(클래식, 서양악기 관련)	16	0.8	10	0.3	11	0.3	18	0.4
전통예술(국악, 풍물, 민속극)	10	0.5	11	0.4	12	0.3	27	0.5
무용(서양무용, 한국무용, 현대무용)	6	0.3	3	0.1	8	0.2	18	0.4
연극(뮤지컬 포함)	8	0.4	6	0.2	4	0.1	4	0.1
영화(비디오 포함)	56	2.8	18	0.6	20	0.5	23	0.5
대중가요, 연예(방송프로그램 등)	28	1.4	15	0.5	20	0.5	16	0.3
역사문화유산	14	0.7	5	0.2	5	0.1	9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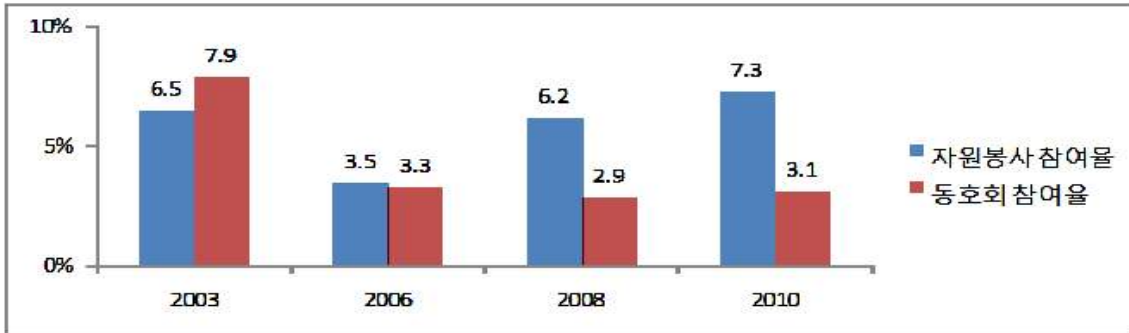
자료 : 문화향수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각년도 자료

주1) 현재 참여하고 있는 동호회에 대한 중복응답결과임

주2) 문화향수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03년 조사의 경우 만화를 포함하였음. 이를 포함한 동호회 참여율은 8.1%이나, 제외할 경우 7.9%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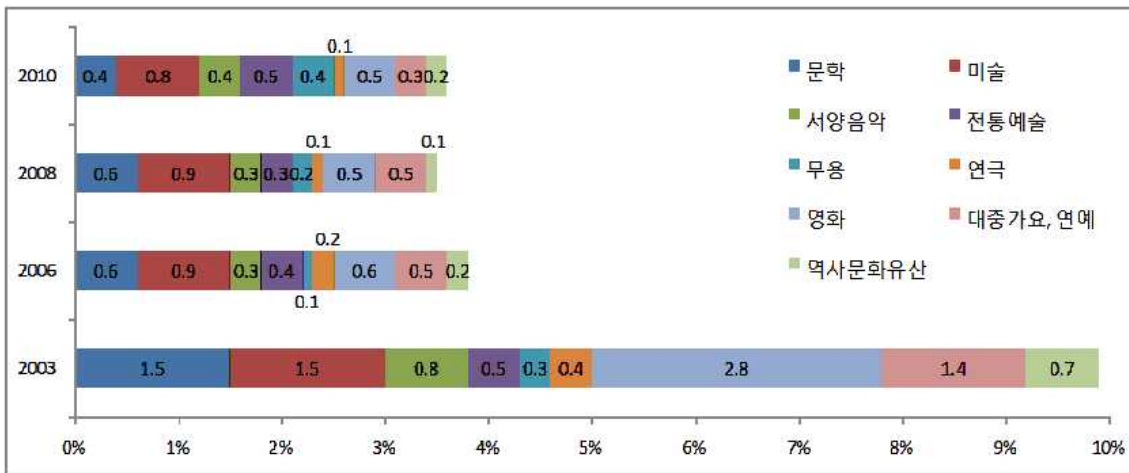
[그림 6.6.2.1] 문화관련 자원봉사 및 장르별 동호회 활동 참여율(2003~2010년)

(단위: %)



[그림 6.6.2.2] 장르별 동호회 참여율(2003~2010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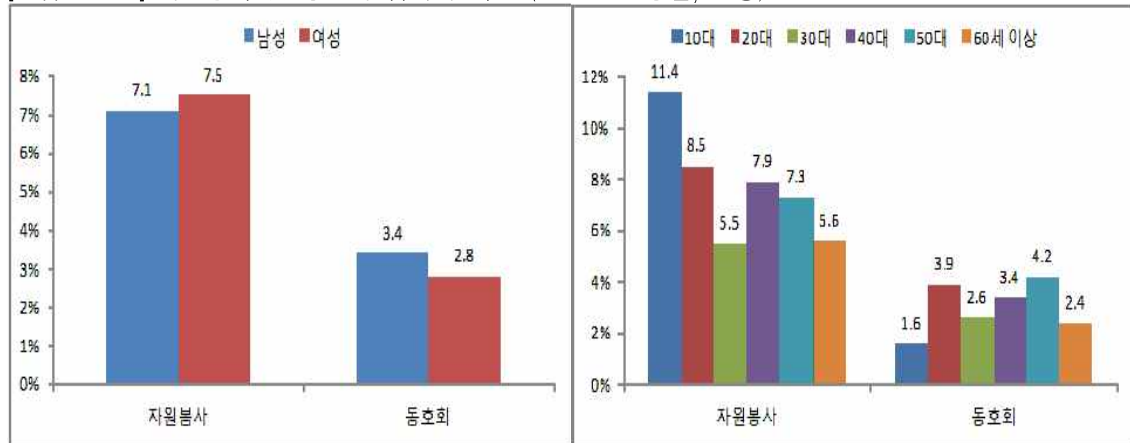
- 2010년 기준, 자원봉사 참여율은 남성에 비해 여성이 높게 나타났으나, 동호회 참여율은 여성에 비해 남성이 더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자원봉사 참여율은 10대와 20대, 40대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동호회 참여율은 20대와 40대, 50대에서 높게 나타남
- 거주하는 도시 규모에 따라서는 자원봉사 및 동호회 참여율 모두에 있어 대도시보다는 중소도시 거주자들이, 중소도시 거주자들보다는 군지역 거주자들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학력이 높을수록 자원봉사 및 동호회 참여율이 높게 나타남
- 직업별로는 농업/어업과 학생의 자원봉사 참여율이 높게 나타나며, 동호회 참여율은 특히 전문/관리직에서 높게 나타남
- 월평균 가구소득이 400만원 이상의 고소득계층에서 자원봉사 및 동호회 활동 참여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100만원 이하 저소득계층의 자원봉사 참여율 역시 높게 나타나지만, 응답자 수가 작아 일반화에는 무리가 있음

[표 6.6.2.3] 문화관련 자원봉사 및 동호회 참여자의 사회경제적 특성(2010년 기준)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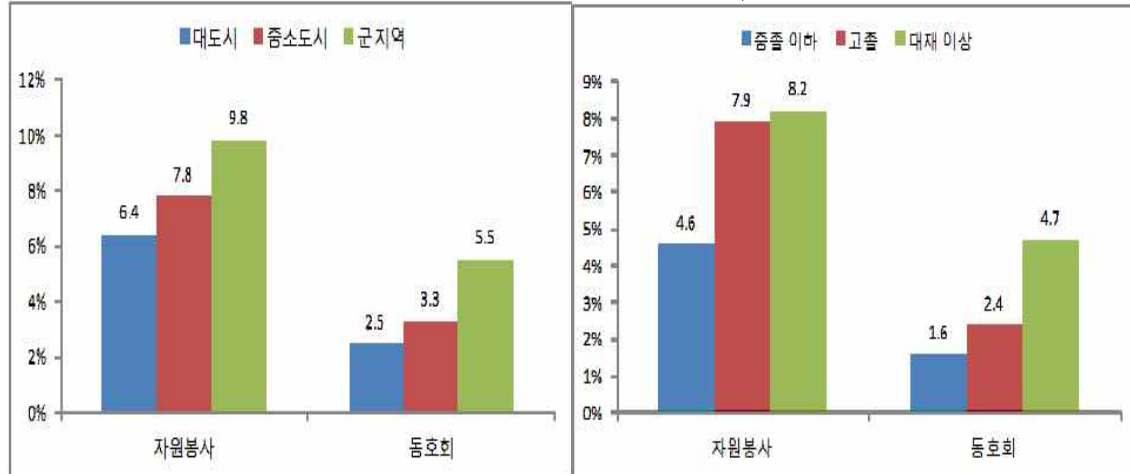
		자원봉사 참여자		동호회 참여자	
		수	참여율	수	참여율
전 체		365	7.3	156	3.1
성별	남성	176	7.1	86	3.4
	여성	189	7.5	70	2.8
연령	10대	48	11.4	7	1.6
	20대	72	8.5	33	3.9
	30대	55	5.5	26	2.6
	40대	83	7.9	35	3.4
	50대	57	7.3	33	4.2
	60세 이상	50	5.6	22	2.4
도시규모	대도시	149	6.4	59	2.5
	중소도시	173	7.8	73	3.3
	군 지역	42	9.8	24	5.5
학력	중졸 이하	48	4.6	17	1.6
	고졸	163	7.9	50	2.4
	대재 이상	154	8.2	89	4.7
직업	전문/관리직	16	8.6	16	8.9
	사무직	50	7.6	16	2.3
	서비스/판매직	107	7.4	43	3.0
	생산직	21	3.6	15	2.5
	농업/어업	17	11.2	6	4.3
	주부	60	6.0	25	2.5
	학생	74	10.6	24	3.4
	기타/무직	21	7.5	11	4.0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23	7.7	6	2.0
	100-199 만원	55	6.3	22	2.5
	200-299 만원	85	7.2	38	3.2
	300-399 만원	99	6.8	35	2.4
	400만 원 이상	102	8.7	55	4.7

자료 : 문화향수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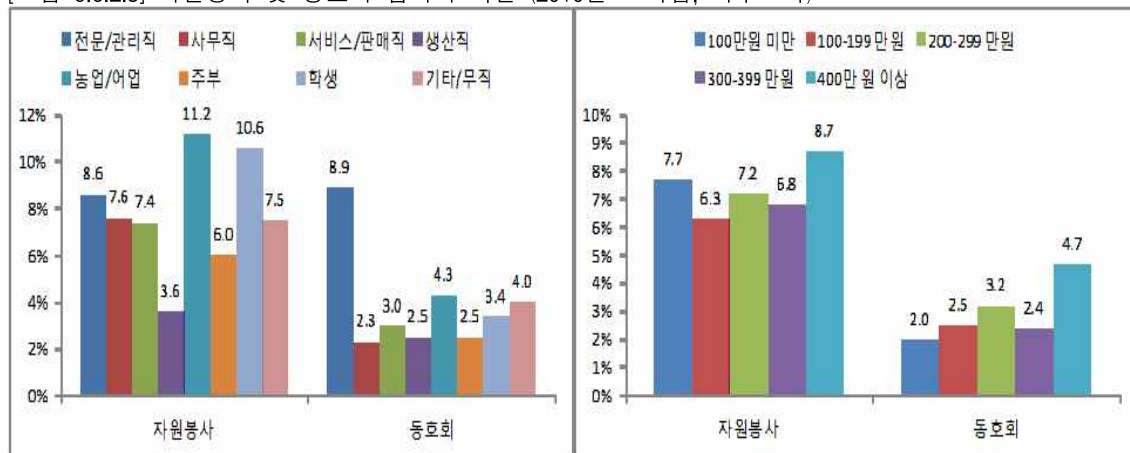
[그림 6.6.2.3] 자원봉사 및 동호회 참여자 비율 (2010년 - 성별, 연령)



[그림 6.6.2.4] 자원봉사 및 동호회 참여자 비율 (2010년 - 도시규모, 학력)



[그림 6.6.2.5] 자원봉사 및 동호회 참여자 비율 (2010년 - 직업, 가구소득)



6.6.3. 사이버 문화활동 경험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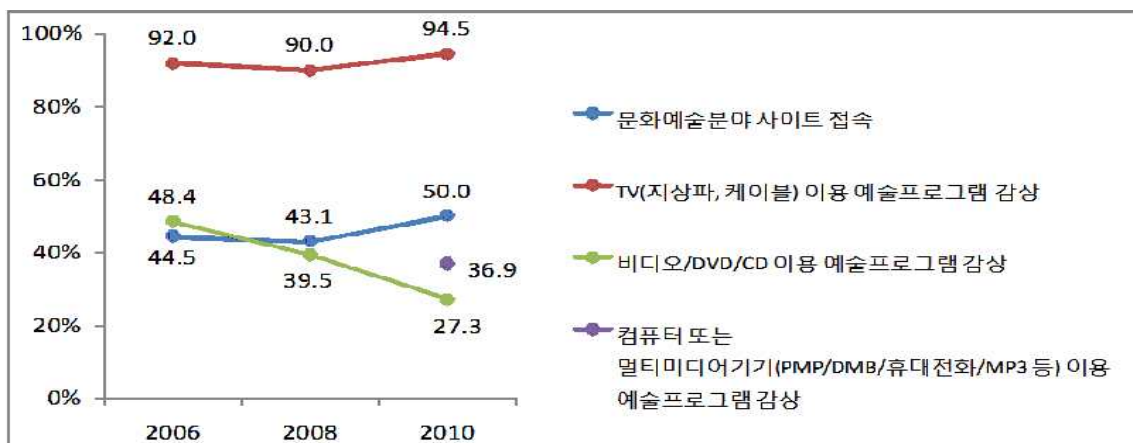
- 『문화향수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인터넷을 이용하여 문화예술분야 사이트에 접속한 경험자의 비율은 2006년 44.5%에서 2010년 50%로 증가했으며, TV를 이용하여 예술프로그램을 감상한 경험자의 비율은 2006년 92%에서 2010년 94.5%로 증가함
- 한편 비디오/DVD/CD를 이용하여 예술프로그램을 감상한 이들의 비율은 2006년 48.4%에서 2010년 27.3%로 급감함
- 컴퓨터 또는 멀티미디어기기(PMP/DMB/휴대전화/MP3 등)를 이용하여 예술프로그램을 감상한 이들의 비율은 2010년 36.9%로 높게 나타남
- 전반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의 매체로서 기존의 아날로그 미디어에서 디지털 미디어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6.6.3] 연간 사이버 문화활동 및 매체를 통한 문화활동 경험율(2006~2010년) (단위: 명, %)

	2006		2008		2010	
	경험자 수	경험률	경험자 수	경험률	경험자 수	경험률
문화예술분야 사이트 접속	1,335	44.5	1,724	43.1	2,500	50.0
TV(지상파, 케이블) 이용 예술프로그램 감상	2,760	92.0	3,600	90.0	4,725	94.5
비디오/DVD/CD 이용 예술프로그램 감상	1,452	48.4	1,580	39.5	1,365	27.3
컴퓨터 또는 멀티미디어기기(PMP/DMB/휴대전화/MP3 등) 이용 예술프로그램 감상	-	-	-	-	1,845	36.9

자료 : 문화향수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06; 2008; 2010)

[그림 6.6.3] 연간 사이버 문화활동 및 매체를 통한 문화활동 경험율(2006~2010년) (단위: %)



주1) 매체별 비율은 관련 경험자에 대한 중복응답 결과임

6.7. 문화예술상품 및 서비스 물가지수

6.7.1. 품목별 물가지수

- 통계청에서 작성하는 『품목별 소비자물가지수』 발표 결과에 따르면 2010년 489개 품목의 총 물가지수는 116.1로 나타나 평균 물가는 기준년도인 2005년에 비해 약 16.1% 상승함
- 문화예술 관련 품목 중에는 공연예술관람료, 스케치북, 사진인화료, 전시관입장료, 신문, 미술학원비, 피아노학원비, 서적, 문화시설 입장료, 노래방이용료, 사진촬영료, 영화관람료 물가지수가 총 지수에 비해 높게 나타나, 이들 품목의 물가상승이 크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음
- 반면, 웹정보콘텐츠이용료, 영상매체대여료, 이러닝 이용료, 방송수신료, 현악기, 잡지, 피아노의 물가지수는 총 지수에 비해 낮게 나타나, 이들 품목의 물가상승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사진기, 비디오기기, 캠코더, 모바일콘텐츠이용료, PC방이용료, TV수신료 등은 100이하로 나타나 2005년에 비해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음을 알 수 있음
- 특히 주요 문화예술품목 중에서는 공연예술 관람료, 문화시설입장료, 피아노학원비, 미술학원비 물가가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임
- 한편 전시관입장료는 점차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러닝 이용료와 웹정보콘텐츠이용료, 모바일콘텐츠이용료는 2007년~2010년에 걸쳐 안정적인 모습을 보임

[표 6.7.1] 문화예술 상품·서비스의 물가지수: 품목별(2007-2010)

품목별	2007	2008	2009	2010
총지수(489개 품목)	104.8	109.7	112.8	116.1
문화시설입장료	113.1	115.0	116.2	118.1
공연예술관람료	119.4	125.4	123.2	129.9
전시관입장료	131.9	129.7	128.0	124.7
영화관람료	102.5	103.4	110.1	117.3
피아노학원비	108.8	113.3	116.6	119.8
미술학원비	107.5	112.2	115.6	119.9
이러닝(e-learning)이용료	100.2	103.0	103.5	103.7
웹정보콘텐츠이용료	100.0	100.1	100.2	100.1
모바일콘텐츠이용료	87.1	87.1	87.1	87.1
오디오기기	86.2	79.3	80.7	74.8
비디오기기	81.9	61.7	57.9	56.6
캠코더	77.1	72.3	74.4	69.4
사진기	52.7	45.5	42.6	40.8
피아노	100.6	100.4	112.7	115.6
현악기	100.0	101.2	105.9	107.7
서적	109.1	111.9	112.6	11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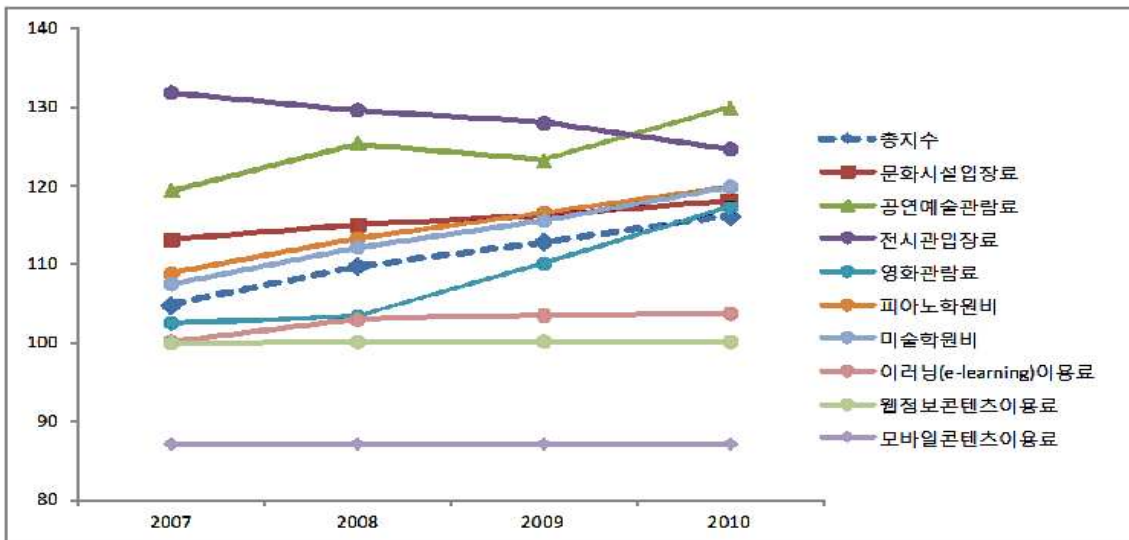
신문	100.0	116.9	123.3	123.3
잡지	103.4	104.4	110.1	113.3
스케치북	99.5	104.5	125.1	128.3
TV수신료	100.0	100.0	100.0	100.0
방송수신료	101.4	102.3	105.5	107.0
노래방이용료	102.1	104.1	113.5	117.6
PC방이용료	95.4	93.6	94.5	93.8
사진촬영료	103.6	107.6	113.5	117.5
사진인화료	102.8	105.9	118.4	125.7
영상매체대여료	98.9	99.6	99.8	101.2

자료 : 품목별 소비자물가지수(통계청) 각년도 자료

주1) 2005년 기준(2005=100)

주2) 음영으로 처리된 부분은 주요 문화예술 관련 상품 및 서비스 품목

[그림 6.7.1] 주요 문화예술관련 품목의 물가지수: 품목별(2007-2010)



6.7.2. 기본분류별 물가지수

- 한편 통계청은 『품목별 물가지수』 외에 『기본분류별 물가지수』를 함께 제공하고 있음
- 교양·오락 관련 물가지수는 2007년 소폭 하락했다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0년 101.2로 2005년과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문화서비스 관련 물가지수는 2010년 103.8로 2005년에 비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교양·오락 부문에 속한 항목으로는 신문·잡지, 문방구, 도서, 악기·오락용품, 오락·운동서비스의 물가가 크게 상승한 반면, 정보처리기기·소모품과 영상·음향기기의 물가는 크게 하락한 것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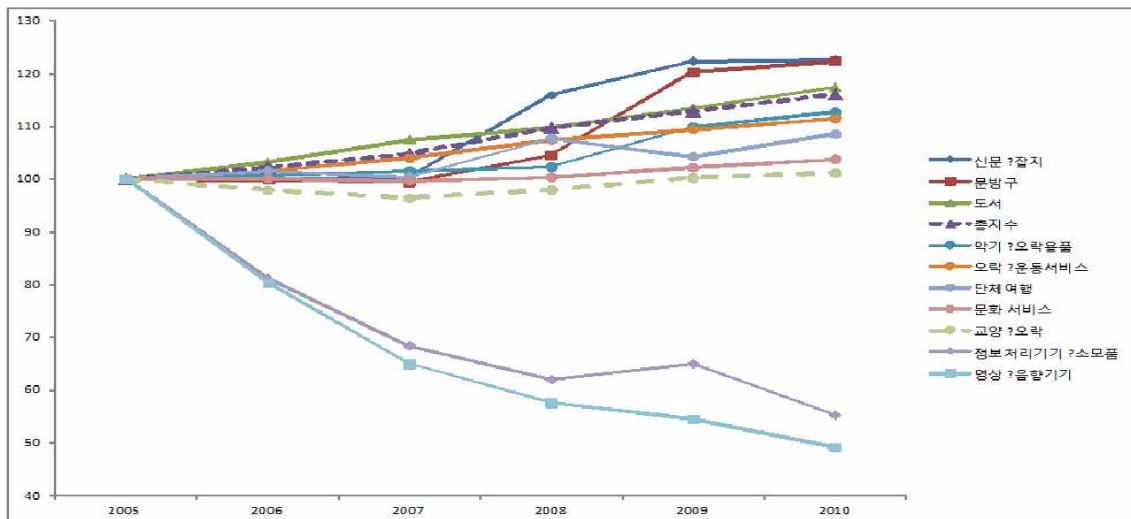
[표 6.7.2] 문화예술상품·서비스 물가지수 :기본분류별(2005~2010년)

기본분류지수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총지수	100.0	102.2	104.8	109.7	112.8	116.1
교양·오락	100.0	97.9	96.4	98.0	100.3	101.2
영상·음향기기	100.0	80.4	65.0	57.6	54.6	49.2
정보처리기기·소모품	100.0	81.2	68.4	62.0	65.0	55.3
악기·오락용품	100.0	100.7	101.5	102.4	109.9	112.7
오락·운동서비스	100.0	101.6	104.0	107.4	109.5	111.5
문화 서비스	100.0	100.1	99.7	100.4	102.2	103.8
도서	100.0	103.2	107.5	109.7	113.4	117.5
신문·잡지	100.0	100.1	100.3	116.0	122.4	122.6
문방구	100.0	99.9	99.5	104.5	120.3	122.4
단체여행	100.0	101.6	100.4	107.8	104.3	108.6

자료 : 기본분류별 소비자 물가지수 (통계청) 각년도 자료

주1) 2005년 기준(2005=100)

[그림 6.7.2] 기본분류별 소비자물가지수



6.7.3. 해외 주요국과의 비교 : 문화예술상품 및 서비스 물가지수

- 유럽의 주요국가와 한국의 문화예술상품 및 서비스 물가지수를 살펴본 결과 기준년도인 2005년에 비해 2009년 문화서비스와 신문·잡지의 물가는 모든 국가에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전반적으로 신문잡지 물가 상승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한국의 경우 122.4로 가장 큰 상승을 보임
- 반면 영상음향기기의 물가는 모든 국가에서 상당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음
- 항목별로 살펴보면 기록매체 물가는 한국이 가장 상승했으며(107), 영상음향기기 물가는 이탈리아(80)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큰 폭으로 하락함.

- 문화서비스의 경우 영국, 네덜란드, 스페인에서의 상승폭이 크게 나타남
- 신문잡지의 경우 한국, 영국의 물가상승폭이, 도서의 경우 한국, 영국, 스웨덴, 스페인의 물가상승폭이 크게 나타남
- 네덜란드의 경우 도서 물가가 오히려 크게 하락(86)한 모습을 보임

[표 6.7.3] 해외 주요국의 문화예술상품 및 서비스 물가지수 : 기본분류별(2005~2009년)

품목	국가	2005	2006	2007	2008	2009
도서						
	독일	100	100	100	98	100
	스페인	100	102	105	107	109
	프랑스	100	101	102	103	104
	이탈리아	100	101	103	104	106
	네덜란드	100	101	101	90	86
	스웨덴	100	101	103	103	111
	영국	100	103	105	112	111
	대한민국	100	100.0	103.2	107.5	109.7
신문 · 잡지						
	독일	100	103	106	109	113
	스페인	100	101	103	105	109
	프랑스	100	101	103	106	110
	이탈리아	100	102	106	109	112
	네덜란드	100	103	105	110	116
	스웨덴	100	104	108	111	115
	영국	100	106	110	116	121
	대한민국	100.0	100.1	100.3	116.0	122.4
문화 서비스						
	독일	100	101	103	104	107
	스페인	100	101	105	109	112
	프랑스	100	102	104	106	108
	이탈리아	100	100	103	105	107
	네덜란드	100	102	105	109	113
	스웨덴	100	102	103	105	107
	영국	100	104	108	111	115
	대한민국	100.0	100.1	99.7	100.4	102.2
영상 · 음향기기						
	독일	100	92	84	76	69
	스페인	100	91	81	71	61
	프랑스	100	89	77	67	55
	이탈리아	100	96	92	87	80
	네덜란드	100	90	75	65	56
	스웨덴	100	85	74	62	50
	영국	100	87	76	66	61
	대한민국	100.0	80.4	65.0	57.6	54.6
기록매체						
	독일	100	99	99	98	96
	스페인	100	100	98	97	97
	프랑스	100	95	90	85	82
	이탈리아	100	100	98	93	84
	네덜란드	100	98	97	94	92
	스웨덴	100	100	100	101	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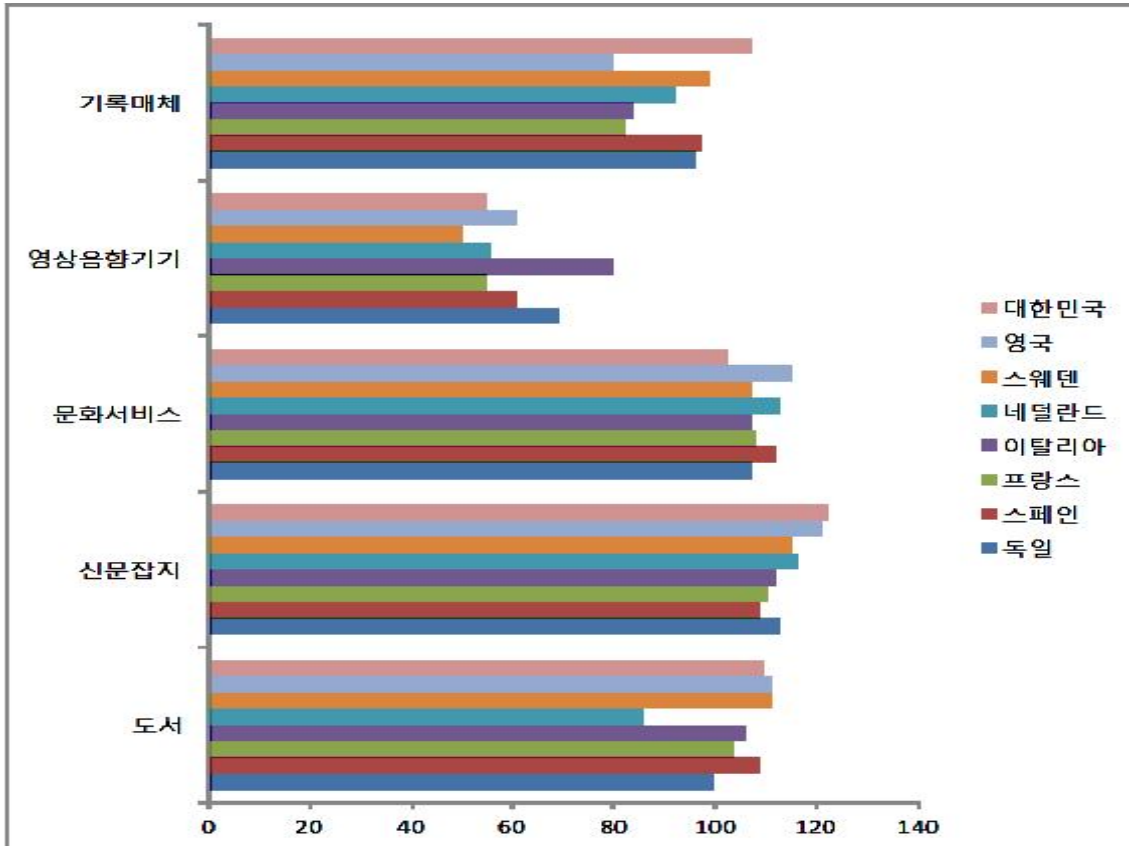
영국	100	97	97	91	80
대한민국	100.0	100	98.3	98.3	107.3

자료1) Cultural statistics (Eurostat, 2011)

자료2) 가계동향조사(통계청) 각년도자료

주1) 2005년 기준(2005=100)

[그림 6.7.3] 해외 주요국의 문화예술상품 및 서비스 물가지수 : 기본분류별(2009년) (2005년=100)



6.8. 문화예술 수요자 교육 참여자 만족도

- 『문화향수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 교육 이외의 문화예술교육을 받은 이들의 만족도는 2006년 3.7, 2008년 3.9, 2010년 4.0으로 꾸준히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표 6.8.1] 문화향유자의 학교교육 이외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만족도 (단위: 5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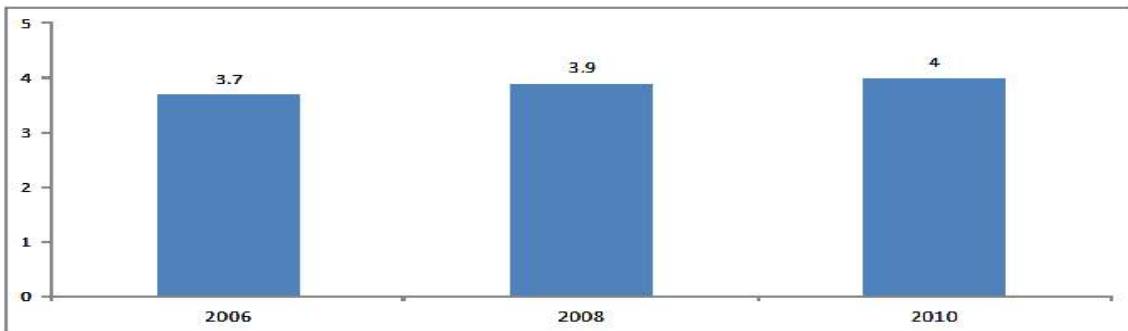
		2006	2008	2010
전체		3.7	3.9	4.0
성별	남성	3.8	3.8	3.9
	여성	3.7	3.9	4.0
연령	10대	3.5	3.7	4.1
	20대	3.6	3.8	3.7

	30대	3.8	3.8	3.8
	40대	3.7	3.8	4.0
	50대	3.8	4.1	4.0
	60세 이상	4.2	4.0	4.4
도시규모	대도시	3.8	3.8	4.0
	중소도시	3.7	3.9	3.9
	군지역	3.4	3.9	4.2
학력	중졸 이하	4.0	3.8	4.3
	고졸	3.7	3.9	3.9
	대재 이상	3.7	3.9	3.9
직업	전문/관리직	3.8	3.9	3.9
	사무직	3.7	3.7	3.9
	서비스/판매직	3.6	3.8	4.0
	생산직	3.6	4.1	3.7
	자영업	4.1	4.3	-
	농업/어업	-	-	4.4
	주부	3.8	4.0	4.1
	학생	3.6	3.7	3.9
	기타/무직	3.9	4.1	4.2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3.7	3.8	4.2
	100-199 만원	3.9	3.8	4.1
	200-299 만원	3.7	3.9	3.8
	300-399 만원	3.7	3.8	4.0
	400만원 이상	3.7	3.9	4.0

자료 : 문화향수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06; 2008; 2010)

주1) 동 응답은 'OO님께서 받으신 문화예술교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강좌 또는 강습을 받은 경험이 2회 이상인 경우 가장 최근에 받은 강좌 또는 강습의 경우를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임

[그림 6.8.1] 문화향유자의 학교교육 이외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만족도 (단위: 5점 척도)



- 문화예술 수요자교육 만족도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문화예술 수요자 교육 만족도는, 그들이 교육을 받은 연령과 교육받은 문화예술 영역에 따라 유의미하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됨(유의수준 0.05)
 - 연령에 따라서는 다른 조건이 같을 때 기준 변수인 60대 이상 교육 참여자에 비해 20대~30대의 교육 참여자의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남
 - 교육받은 문화예술영역별로는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미술, 음악, 전통예술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남

- 그러나 성별, 거주지역, 학력, 직업은 문화예술 수요자 교육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표 6.8.2] 문화예술 수요자교육 만족도 회귀분석 결과(2010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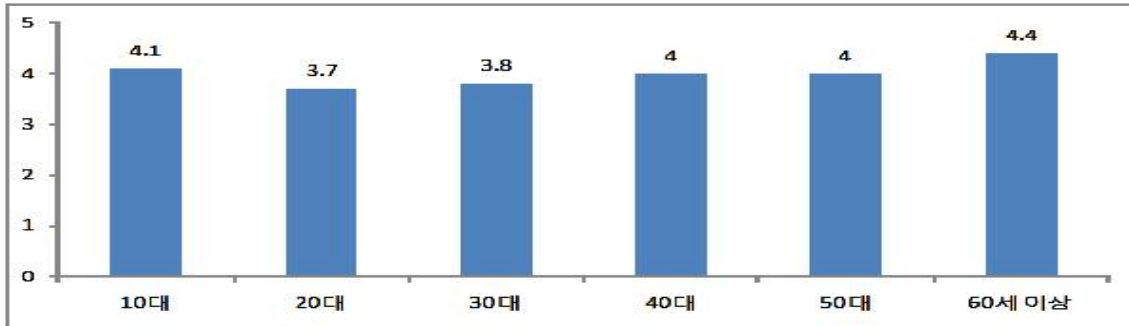
문화예술 수요자교육 만족도	Coef.	Std. Err.	t	P>t	Beta
남성	0.12	0.11	1.10	0.27	0.08
10대	-0.17	0.30	-0.57	0.57	-0.07
20-30대	-0.54	0.18	-3.05	0.00	-0.34
40-50대	-0.24	0.16	-1.56	0.12	-0.16
대도시(광역시)	0.16	0.13	1.23	0.22	0.10
시지역(읍/면)	-0.16	0.21	-0.77	0.44	-0.05
군지역	0.07	0.13	0.57	0.57	0.05
고졸이하	-0.17	0.13	-1.32	0.19	-0.11
대학원재학이상	-0.17	0.24	-0.74	0.46	-0.05
100만원 미만	0.03	0.21	0.13	0.90	0.01
100-199만원	0.11	0.15	0.74	0.46	0.06
200-399만원	0.08	0.12	0.66	0.51	0.05
사무/서비스/판매	0.04	0.20	0.19	0.85	0.02
농어업/기능/기계/단순노무	0.09	0.21	0.40	0.69	0.04
학생	0.01	0.26	0.03	0.98	0.00
주부, 퇴직연금생활자, 무직, 기타	0.04	0.20	0.18	0.86	0.02
문학	0.00	0.13	-0.01	1.00	0.00
미술	0.35	0.13	2.70	0.01	0.21
음악	0.32	0.16	1.95	0.05	0.14
전통예술	0.28	0.14	2.02	0.05	0.14
무용	0.26	0.15	1.78	0.08	0.13
연극	0.35	0.27	1.29	0.20	0.08
영화	-0.12	0.18	-0.65	0.51	-0.04
대중가요/연예	0.20	0.15	1.30	0.20	0.09
역사문화유산	-0.12	0.17	-0.69	0.49	-0.05
대학교부설 사회문화교실	-0.15	0.19	-0.82	0.41	-0.06
공공기관 부설기관	0.22	0.15	1.51	0.13	0.15
시설단체부설 문화센터	0.07	0.21	0.35	0.73	0.03
시설학원/강습소	-0.01	0.19	-0.04	0.97	0.00
개인레슨/아는사람	0.25	0.21	1.22	0.23	0.08
동호인모임	0.09	0.16	0.54	0.59	0.04
인터넷사이트	0.00	0.16	-0.03	0.98	0.00
교육방송	-0.08	0.24	-0.32	0.75	-0.02
기타	0.28	0.19	1.51	0.13	0.12
_cons	3.78	0.26	14.35	0.00	.
R2=0.2225 N= 255 F(34, 220) = 1.85					

자료 : 문화향수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10년 기준

주1) 기준변수는 여성(성별), 60대 이상(연령), 시지역(동지역), 대졸이하(학력), 400만원 이상(소득), 관리/전문직(직종), 외국에서(문화시설)임

[그림 6.8.2] 연령별 문화예술교육 만족도(2010년 기준)

(단위: 5점 척도)



6.9. 문화예술복지 수혜자 만족도

- 매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수행하는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 수혜자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각 단위사업에 대한 수혜자들의 만족도는 다음의 [표 6.9]와 같이 나타남
-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전통나눔 사업(89.4),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87.9), 지방문예회관 특별 프로그램 지원사업(86.3), 장애인창작 및 표현활동지원사업(86)의 순으로 연평균 만족도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사립박물관·미술관 전시지원 사업과 사랑티켓 사업의 연평균 만족도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남

[표 6.9]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 수혜자 만족도(2008-2010)

(단위 : 점, 명)

분류	단위사업명	2008		2009		2010		연평균 만족도
		평균	응답자수	평균	응답자수	평균	응답자수	
(개인적 차원) 국민 행복 서비스	문화바우처	85.0	404	85.1	361	82.5	532	84.2
	사랑티켓	80.0	1,979	84.0	1,252	81.5	3,642	81.8
	장애인창작 및 표현활동지원	-	-	-	-	86.0	502	86.0
찾아가는 문화사업	문학나눔	81.1	553	85.0	440	84.0	910	83.4
	전통나눔	87.7	400	90.8	521	89.7	575	89.4
	소외계층 문화순회	80.2	506	85.2	440	83.9	500	83.1
소외지역 문화활성화	지방문예회관 특별프로그램지원	86.1	409	85.5	498	87.2	1,039	86.3
	사립 박물관 미술관 전시지원 지원사업	79.2	407	*84.3	209	-	-	81.8
	공공박물관·미술관 전시프로그램지원	-	-	81.7	...	83.7	172	82.7
소외지역 공동체 형성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	-	86.7	129	89.0	115	87.9
	땡땡땡 실버문화학교	85.7	200	-	-	-	-	8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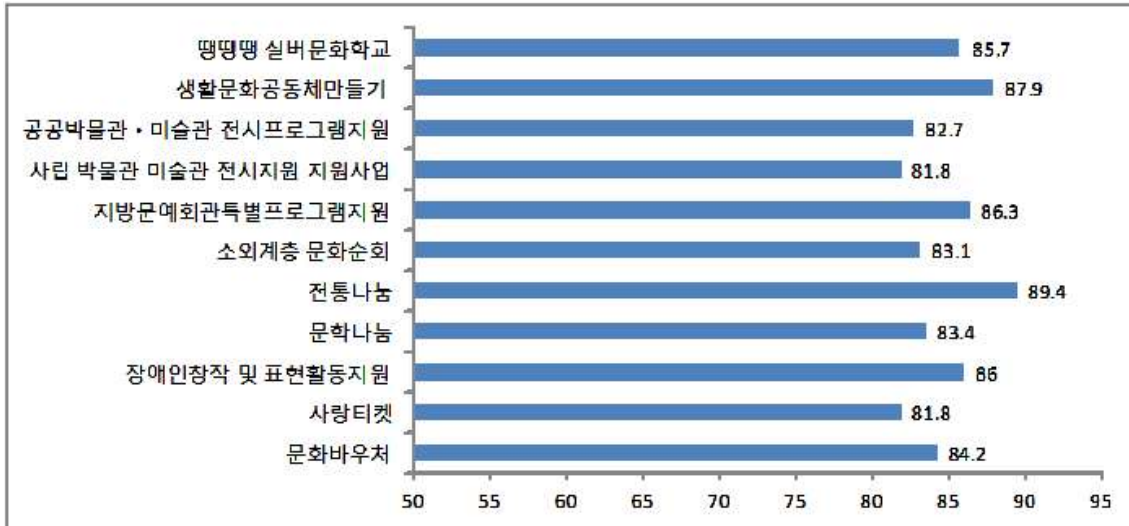
자료 : 2010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 성과평가 연구(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1).

주1) 현재 복권기금 문화나눔 사업의 종합만족도를 산출하는 방법으로는 A형과 B형이 쓰이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기존 자료와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A유형 종합만족도 점수를 선택함

주2) 만족도 점수는 100점 기준임.

[그림 6.9]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 연평균 수혜자 만족도(2008-2010)

(단위 : 점, 명)



6.10. 문화예술 관람객 만족도

6.10.1. 문화예술 관람객 만족도

- 『문화향수실태조사』에 따르면 문화예술행사를 관람한 이들의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3점 후반대 이상으로 나타나 관람자들은 대체로 문화예술행사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각 장르별 문화예술 관람객 만족도는 편차가 크지 않지만, 대중가요콘서트·연애, 전통예술공연, 연극 관람객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문학행사, 미술전시회 관람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표 6.10.1.1] 문화예술 관람객 만족도

(단위 : Likert 5점 척도)

	2006년 평균	2008년 평균	2010년 평균
문학행사	3.79	3.82	3.80
미술전시회	3.88	3.91	3.89
클래식음악회·오페라	4.10	3.95	4.01
전통예술공연	4.02	4.06	4.07
연극	4.03	4.03	4.06
무용	4.18	4.00	4.01
영화	3.96	3.98	3.97
대중가요콘서트·연애	4.08	4.19	4.13

자료 : 문화향수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각년도 자료

- 2010년 문화예술 관람객 만족도 자료를 통한 회귀분석 결과 만족도 점수는 성별, 거주하는 도시규모, 학력, 관람한 문화예술장르에 따라 유의미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유의수준 0.05)
- 성별에서는 여성에 비해 남성의 관람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거주지역의 도시규모별로는 군지역 거주자에 비해 대도시와 시지역(동지역 및 읍·면 지역) 거주자의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학력별로는 고졸이하에 비해 대학원 재학이상 관람자의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관람한 문화예술장르별로는 다른 조건이 같을 때, 문학행사를 관람한 이의 만족도가 그렇지 않은 이의 만족도보다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난 반면, 대중가요콘서트/연예 관람한 이들의 만족도가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남

[표 6.10.1.2] 문화예술 관람객 만족도 회귀분석 결과(2010년 기준)

문화예술 관람객 만족도		Coef.	Std. Err.	t	P>t	Beta
성별	남성	-0.10	0.03	-3.61	0.00	-0.07
연령	20~30대	0.03	0.06	0.49	0.62	0.02
	40~50대	0.06	0.06	0.91	0.36	0.04
	60대 이상	0.11	0.08	1.44	0.15	0.04
도시규모	대도시(광역시)	-0.18	0.04	-4.57	0.00	-0.12
	시지역(동지역)	-0.24	0.04	-6.01	0.00	-0.16
	시지역(읍·면)	-0.23	0.06	-4.12	0.00	-0.08
학력	대졸이하	0.02	0.03	0.68	0.50	0.01
	대학원재학이상	0.20	0.11	1.93	0.05	0.04
소득규모	100~199만원	-0.05	0.08	-0.64	0.52	-0.03
	200~399만원	-0.06	0.08	-0.75	0.45	-0.04
	400만원 이상	-0.06	0.08	-0.68	0.49	-0.03
직업	관리/전문직	0.01	0.08	0.19	0.85	0.00
	사무·서비스·판매	-0.02	0.04	-0.53	0.59	-0.02
	학생	0.01	0.06	0.11	0.91	0.00
	주부·퇴직연금생활자·무직·기타	-0.03	0.05	-0.68	0.50	-0.02
장르별	문학행사	-0.21	0.06	-3.73	0.00	-0.07
	미술전시회	-0.06	0.04	-1.46	0.14	-0.03
	클래식음악회·오페라	0.06	0.05	1.09	0.28	0.02
	전통예술공연	0.04	0.05	0.83	0.41	0.02
	무용	0.01	0.09	0.10	0.92	0.00
	연극	0.03	0.04	0.85	0.39	0.02
	영화	-0.07	0.04	-1.46	0.14	-0.03
	대중가요콘서트/연예	0.09	0.04	2.38	0.02	0.04
		R2=0.0319 N=3248 F(24, 3223) = 4.43				

자료 : 문화향수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10년 기준

주1) 기준변수는 여성(성별), 군지역(도시규모), 고졸이하(학력), 100만원 미만(월평균 소득수준), 농업·기능·기계·단순노무(직업)임

- 한편 관람한 예술행사에서 우선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무엇이라는 질문에는 ‘관람비용을 낮춰야 한다’는 응답비율은 2000년 24.6%에서 급격하게 높아져 2010년에는

47.9%에 이릅니다

- 2010년 기준 ‘관람비용을 낮춰야 한다’(47.9%), ‘작품의 질을 높여야 한다’(17.6%), ‘가까운 곳에서 열려야 한다’(11.7%), ‘개최빈도가 높아야 한다’(9.0%), ‘관련 정보가 많아야 한다’(8.8%),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2.7%)의 순으로 나타나 관람비용 적정화, 작품의 질 제고, 관람 장소의 접근성 제고 등이 우선적인 보완사항임을 확인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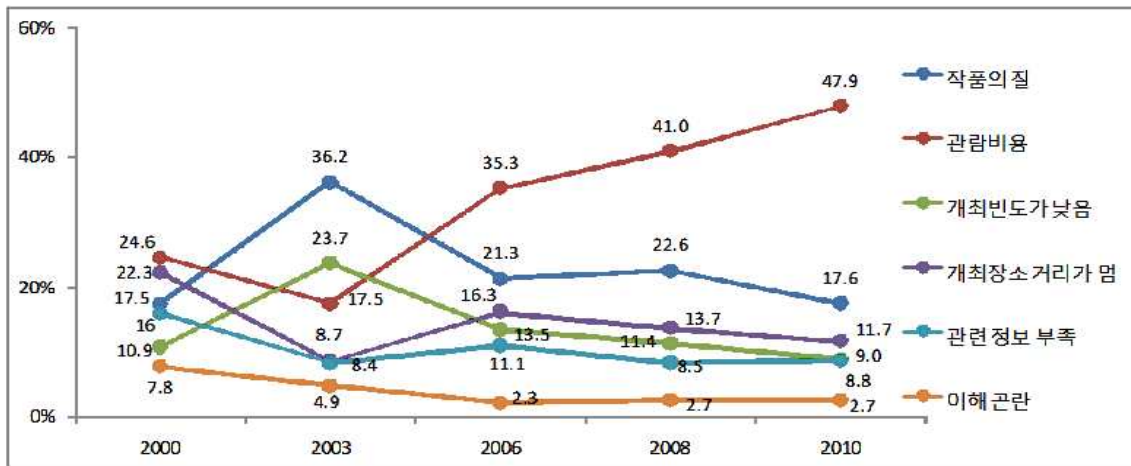
[표 6.10.1.3] 관람한 예술행사에 대한 불만사항 : 보완 요구사항(2000-2010) (단위: 명, %)

	2000		2003		2006		2008		2010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작품의 질을 높여야	324	17.5	1,066	36.2	613	21.3	920	22.6	920	17.6
관람비용을 낮춰야	454	24.6	515	17.5	1,015	35.3	1,667	41.0	2,501	47.9
더욱 자주 개최되어야	201	10.9	698	23.7	388	13.5	464	11.4	471	9.0
가까운 곳에서 열려야	413	22.3	256	8.7	469	16.3	557	13.7	612	11.7
관련 정보가 많아야	295	16.0	249	8.4	319	11.1	347	8.5	461	8.8
이해하기 쉬워야	144	7.8	144	4.9	65	2.3	108	2.7	138	2.7
기타	16	0.9	19	0.3	5	0.2	5	0.1	118	2.3

자료 : 문화향수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각년도 자료

주1) 관람한 예술행사 장르별로 “OO님께서 관람(참석)하신 예술행사에서 우선적으로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관람경험이 2회 이상인 경우 가장 최근에 관람한 행사를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에 대한 응답결과임

[그림 6.10.1.1] 관람한 예술행사에 대한 불만사항: 보완 요구사항(2000-2010) (단위: %)



6.10.2. 역사문화유적지 · 지역축제 방문자 만족도

- 『문화향수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역사문화유적지를 방문한 이들과 지역축제에 참여한 이들의 만족도는 다음의 [6.10.2.1]과 같음
- 역사문화유적지의 보존상태에 대한 만족도와 편의시설 만족도, 지역축제의 프로그램

만족도와 시설만족도는 전반적으로 2006년에 비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표 6.10.2.1] 역사문화유적지·지역축제 방문자 만족도

(단위 : 5점 척도)

구분	프로그램 만족도 (보존상태)						시설만족도 (편의시설 만족도)					
	2006		2008		2010		2006		2008		2010	
	평균 점수	응답 자수	평균 점수	응답 자수	평균 점수	응답 자수	평균 점수	응답 자수	평균 점수	응답 자수	평균 점수	응답 자수
역사문화유적지	3.64	1,543	3.61	2,061	3.80	2,353	3.55	1,543	3.48	2,061	3.68	2,353
지역축제	3.55	1,290	3.65	1,947	3.64	2,537	3.24	1,290	3.27	1,947	3.36	2,537

자료 : 문화향수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06; 2008;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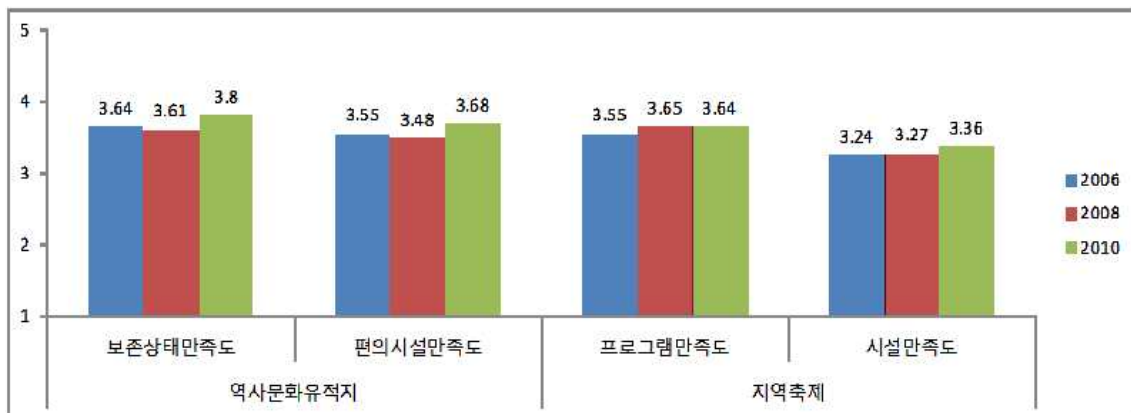
주1) 역사문화유적지의 경우 '프로그램만족도'를 대신하여 '보존상태에 대한 만족도'를, '시설만족도'를 대신하여 '편의시설의 만족도'를 물어봄(편의시설은 안내문, 교통편, 화장실, 청결, 주변상점의 친절도 등을 의미)

주2) 지역축제의 경우 프로그램만족도와 시설(안내문, 교통편, 화장실, 청결, 주변상점의 친절도) 등에 대해 설문

주3) 모든 경우 참석 또는 방문한 행사가 2개 이상인 경우 가장 최근에 참석방문한 행사를 기준으로 응답함

[그림 6.10.2] 역사문화유적지·지역축제 방문자 만족도

(단위 : 5점 척도)



- 역사문화유적지 방문자의 보존상태에 대한 만족도와 편의시설 만족도의 평균값인 '역사문화 유적지 방문자 만족도'에 대한 회귀 분석 결과 역사문화유적지 방문자의 만족도는 응답자의 성별, 거주하는 도시규모, 직업에 따라 유의미하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됨(유의수준 0.05)
 -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에 비해 남성의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으며 연령에서는 60대 이상 방문자의 만족도에 비해 10대, 20-30대, 40-50대의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거주지역별로는 군지역에 거주하는 방문자의 만족도에 비해 시지역(동, 읍·면) 거주자의 방문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으며, 직업별로는 학생에 비해 농어업·기능·기계·단순노무 종사자의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지역축제 프로그램 만족도와 시설만족도 평균값인 '지역축제 만족도'에 대한 회귀 분석 수행 결과 지역축제 만족도는 연령, 거주지역의 도시규모, 학력, 소득규모, 직업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유의수준 0.05)

-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지역축제 참여자에 비해 10대, 20~30대, 40~50대의 지역축제 참여자의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주하는 도시규모에 따라서는 군지역 거주자에 비해 대도시 거주자와 시지역(동지역) 거주자의 만족도가 더 낮게 나타남
- 또한 월평균 가구소득이 400만원 이상인 고소득 참여자에 비해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 참여자의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직업별로는 학생에 비해 사무/서비스/판매직 종사자와 주부/퇴직연금생활자/무직/기타 종사자의 만족도가 더 낮게 나타남
- 한편 참여한 지역축제의 유형에 따라서는 문화예술축제보다 역사/전통문화축제 참여자의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특산물축제에 참여한 이들의 만족도는 더 낮게 나타남

[표 6.10.2.2] 역사문화유적지 방문 만족도와 지역축제 만족도 회귀분석 결과(2010년 기준)

		역사문화유적지 방문 만족도			지역축제 만족도		
		t	P>t	Beta	t	P>t	Beta
성별	남성	-2.90	0.00	-0.06	0.07	0.95	0.00
연령	10대	-3.46	0.00	-0.12	-4.23	0.00	-0.13
	20~30대	-3.94	0.00	-0.14	-5.01	0.00	-0.16
	40~50대	-2.96	0.00	-0.10	-4.03	0.00	-0.12
도시 규모	대도시(광역시)	-1.00	0.32	-0.03	-3.13	0.00	-0.08
	시지역(동지역)	-4.66	0.00	-0.13	-3.93	0.00	-0.10
	시지역(읍/면)	-1.98	0.05	-0.05	-1.10	0.27	-0.02
학력	고졸이하	1.82	0.07	0.15	2.13	0.03	0.17
	대졸이하	0.65	0.52	0.05	1.64	0.10	0.12
소득	100만원 미만	0.77	0.44	0.02	2.52	0.01	0.06
	100~199만원	-1.09	0.28	-0.03	0.38	0.70	0.01
	200~399만원	-0.64	0.52	-0.02	0.19	0.85	0.00
직업	관리/전문직	0.81	0.42	0.02	-1.05	0.29	-0.03
	사무/서비스/판매	1.00	0.32	0.05	-1.98	0.05	-0.09
	농어업/기능/기계/단순노무	2.03	0.04	0.09	-1.17	0.24	-0.05
	주부,퇴직연금생활자,무직,기타	0.82	0.41	0.04	-2.04	0.04	-0.09
축제 장소	거주하지 않는 광역시/도				0.24	0.81	0.00
축제 유형	생태자연축제				-0.80	0.42	-0.02
	역사/전통문화축제				1.68	0.09	0.04
	지역특산물축제				-4.03	0.00	-0.10
	스포츠축제				-0.92	0.36	-0.02
	산업(가공품)축제				-1.10	0.27	-0.02
	cons	28.09	0.00	.	25.73	0.00	.
R2, N		R2= 0.0664 N=2411			R2=0.0569 N=2774		

자료 : 문화향수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10년 기준

주1) 기준변수는 여성(성별), 60대 이상(연령), 군지역(거주지역), 대학원 재학이상(학력), 400만원 이상(소득규모), 학생(직업) 임

6.11. 문화예술활동 참여자 만족도

6.11.1. 문화예술 창작·발표 재참여 의향

- 『문화향수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화예술 창작·발표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이들 중에서 향후 다시 참여하고 싶은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이들의 비율은 2006년 6.5%에서 2010년 3.7%로 하락하여 문화예술활동 참여자들의 재참여 의향은 높지 않게 나타남
- 응답자들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문화예술 창작·발표 재참여 의향 간에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카이자승 검정을 실시한 결과 참여자들의 '교육수준'과 '거주하는 지역 규모'에 따라 문화예술 창작·발표 재참여 의향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유의수준 0.05)
 - 기타 요인들, 즉 성별, 직업, 소득수준은 재참여 의향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6.11.1.1] 문화예술활동 재참여 의향(2006~2010년)

(단위: 명, %)

		2006		2008		2010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전체		3,000	100.0	4,000	100.0	5,000	100.0
재참여 의향 있음		196	6.5	259	6.5	187	3.7
성별	남성	88	44.9	122	47.1	85	45.5
	여성	108	55.1	137	52.9	102	54.5
연령	10대	21	10.7	32	12.4	29	15.5
	20대	58	29.6	75	29.0	38	20.3
	30대	44	22.4	63	24.3	36	19.3
	40대	45	23.0	55	21.2	31	16.6
	50대	13	8.2	24	9.3	24	12.8
	60세 이상	12	6.1	10	3.9	29	15.5
도시규모	대도시	113	57.7	116	44.8	81	43.3
	중소도시	68	34.7	126	48.6	76	40.6
	군 지역	15	7.7	17	6.6	31	16.6
학력	중졸 이하	24	12.2	35	13.5	31	16.6
	고졸	59	30.1	75	29.0	54	28.9
	대재 이상	113	57.7	149	57.5	102	54.5
직업	전문/관리직	21	10.7	22	8.5	26	13.9
	사무직	29	14.8	40	15.4	14	7.5
	서비스/판매직	23	11.7	37	14.3	37	19.8
	생산직	10	5.1	13	5.0	18	9.6
	자영업	18	9.2	8	3.1	-	-
	농업/어업	-	-	-	-	9	4.8
	주부	35	17.9	53	20.5	25	13.4
	학생	51	26.0	72	27.8	49	26.2
	기타/무직	9	4.6	14	5.4	9	4.8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1	0.5	9	3.5	10	5.3
	100-199 만원	38	19.4	36	13.9	34	18.2
	200-299 만원	60	30.6	62	23.9	48	25.7
	300-399 만원	60	30.6	82	31.7	42	22.5
	400만 원 이상	37	18.9	70	27.0	53	28.3

자료 : 문화향수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각년도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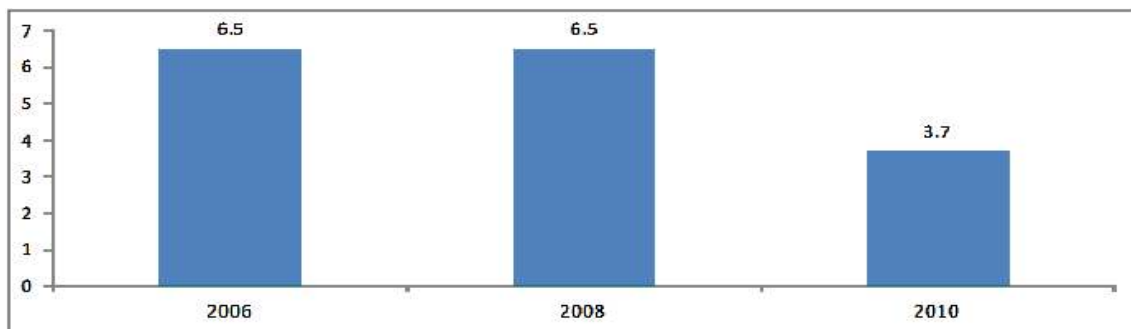
[표 6.11.1.2] 문화예술 창작·발표 재 참여 카이자승 검정 결과(2010년 기준)

학력	있음	없음	계	거주 지역	있음	없음	계
고졸 이하	117	3,103	3,220	대도시	65	1,889	1,954
대졸 이하	86	1,632	1,718	중소도시	65	1,597	1,662
대학원 재학 이상	6	56	62	군 지역	79	1,305	1,384
계	209	4,791	5,000	계	209	4,791	5,000
Pearson chi2(2) = 10.0041 Pr = 0.007				Pearson chi2(2) = 11.9228 Pr = 0.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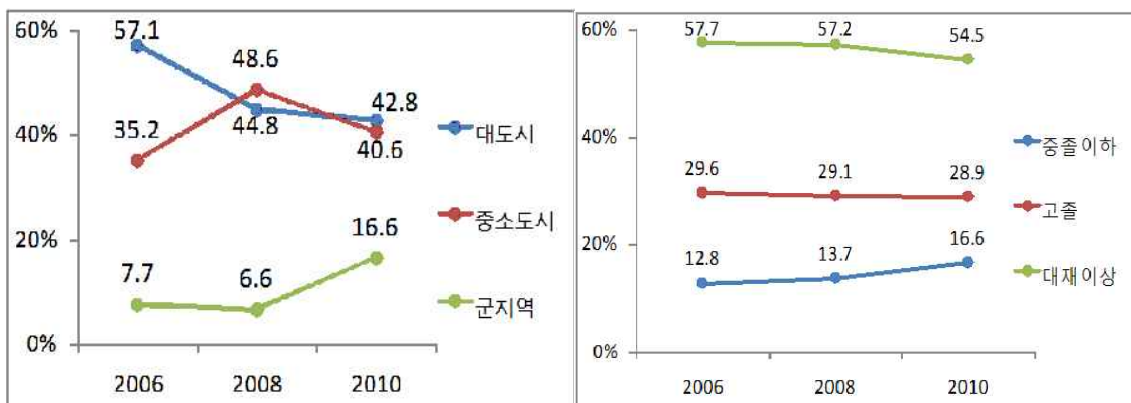
자료 : 문화향수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10년 기준

[그림 6.11.1.1] 문화예술활동 재 참여 의향(2006~2010년)

(단위: %)



[그림 6.11.1.2] 거주하는 도시규모 및 학력에 따른 문화예술활동 재 참여 의향(2006~2010년) (단위: %)



6.11.2. 문화예술 동호회활동 만족도

○ 『문화향수실태조사』에 따르면, 문화예술 관련 동호회 활동에 참여한 이들의 만족도는 다음의 [표 6.11.2.1]과 같음

- 대부분 3점 대 후반의 만족도를 기록하고 있어 문화예술 관련 동호회 활동 참여자들은 대체로 동호회 활동에 만족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특히 연극 및 전통예술 관련 동호회 활동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 한편 문화예술 동호회 활동 만족도에 대해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동호회 활동 만족도는 연령, 학력, 직업에 따라 유의미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유의수준 0.05)
 -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참여자에 비해 10대 동호회 활동 참여자의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남
 - 학력별로는 대학원 재학 이상의 고학력 참여자에 비해 고졸 이하 및 대졸 이하 참여자의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남
 - 직업별로는 관리/전문직에 종사하는 이들에 비해 사무/서비스/판매직 종사자와 주부/퇴직연금생활자/무직/기타직에 종사하는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남

[표 6.11.2.1] 문화예술 동호회 활동 만족도(2010년 기준) (단위: 5점 척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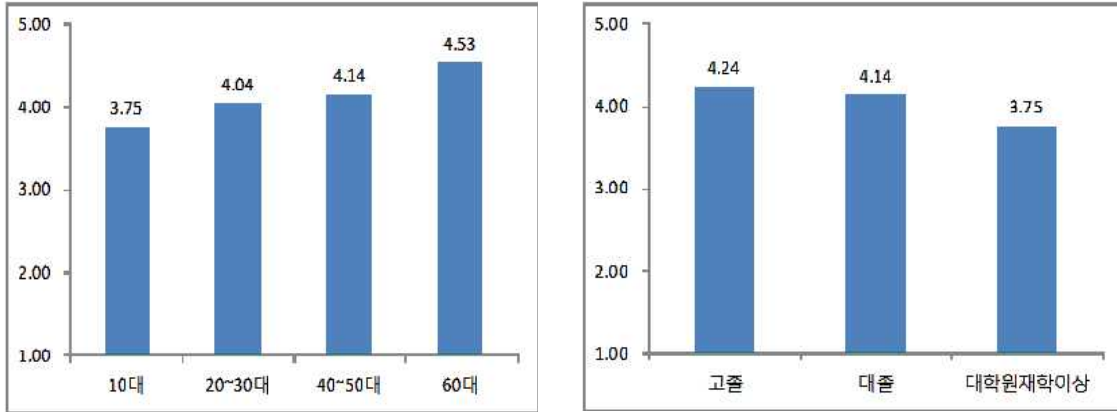
	문학	미술	서양음악	전통예술	무용	연극	영화	가요/연예	역사문화유산
만족도	4.12	4.06	4.29	4.53	4.42	4.77	3.78	4.26	3.82
응답자	19	42	18	27	18	4	23	16	9

[표 6.11.2.2] 문화예술 동호회 활동 만족도 회귀분석 결과

문화예술 동호회 활동 만족도		Coef.	Std. Err.	t	P>t	Beta
성별	남성	-0.20	0.14	-1.39	0.17	-0.12
연령	10대	-1.44	0.42	-3.44	0.00	-0.38
	20-30대	-0.49	0.26	-1.91	0.06	-0.28
	40-50대	-0.29	0.20	-1.43	0.16	-0.18
거주지역	대도시(광역시)	0.31	0.31	1.02	0.31	0.17
	시지역(동지역)	-0.10	0.30	-0.31	0.75	-0.06
	군지역	0.03	0.30	0.11	0.92	0.02
학력	고졸이하	0.88	0.33	2.66	0.01	0.55
	대졸이하	0.70	0.31	2.29	0.02	0.43
소득규모	100만원 미만	0.00	0.30	0.01	0.99	0.00
	100-199만원	-0.14	0.22	-0.65	0.52	-0.07
	200-399만원	-0.07	0.16	-0.45	0.65	-0.04
직업	사무·서비스·판매	-0.71	0.26	-2.71	0.01	-0.42
	농어업·기능·기계·단순노무	-0.49	0.29	-1.66	0.10	-0.22
	학생	0.03	0.32	0.08	0.94	0.01
	주부·퇴직연금생활자·무직·기타	-0.79	0.28	-2.88	0.01	-0.42
장르	문학행사	-0.03	0.21	-0.12	0.90	-0.01
	미술전시회	0.09	0.20	0.44	0.66	0.05
	클래식음악회·오페라	0.24	0.23	1.06	0.29	0.10
	전통예술공연	0.17	0.19	0.89	0.38	0.09
	무용	0.09	0.21	0.44	0.66	0.04
	연극	0.34	0.43	0.80	0.43	0.06
	영화	-0.12	0.24	-0.51	0.61	-0.05
	대중가요콘서트/연예	0.01	0.23	0.04	0.97	0.00
		R ² = 0.2264 N= 173 F(25, 147) = 1.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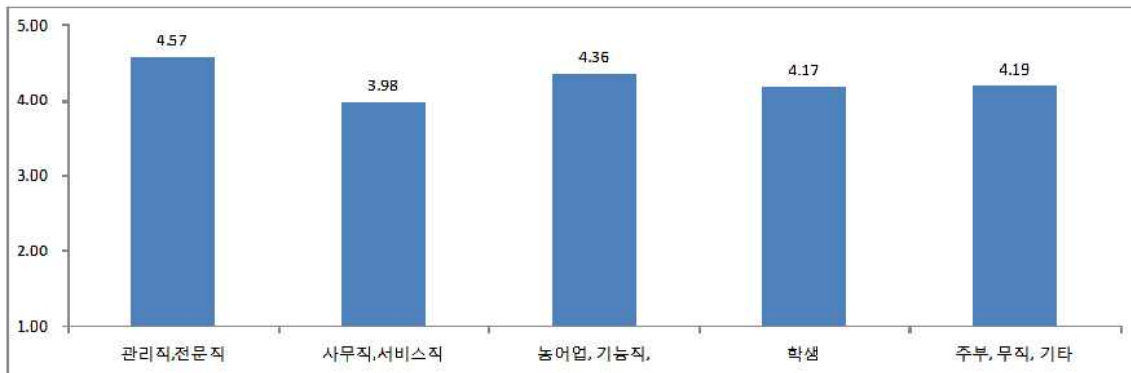
[그림 6.11.2.1] 연령 및 학력별 문화예술 동호회 활동 만족도(2010년 기준)

(단위 : 5점 척도)



[그림 6.11.2.2] 직업별 문화예술 동호회 활동 만족도(2010년 기준)

(단위 : 5점 척도)



6.12. 삶의 만족도

6.12.1. 행복 수준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작성하고 있는 『국민여가활동조사』에 따르면 “귀하께서는 현재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10점 척도 점수로 나타낸 행복수준은 2007년 6.93점, 2008년 6.70점, 2010년 6.44점으로 점차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표 6.12.1.1] 우리나라 국민들의 행복수준(2007~2010년)

(단위 : 명, 10점 척도)

	2007		2008		2010	
	응답자수	평균	응답자수	평균	응답자수	평균
전체	3,000	6.93	3,000	6.70	3,051	6.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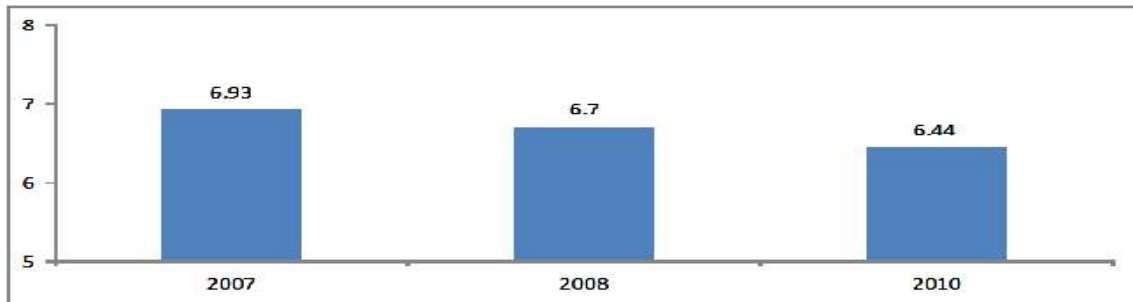
자료 : 국민여가활동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07; 2008; 2010)

주1) “귀하께서는 현재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결과임

주2) 10점 척도: 매우 불행(1점), 매우 행복(10점)

[그림 6.12.1.1] 우리나라 국민들의 행복수준(2007~2010년)

(단위 : 10점 척도)



- 『국민여가활동조사』 2010년 자료를 가지고 행복수준에 대한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유의수준 0.05에서 연령이 낮을수록, 기혼일수록, 동호회 활동 및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 사람일수록, 여가만족도가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행복수준은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됨

- 여가활동 유형은 행복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여가만족도가 높을수록 행복수준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행복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표 6.12.1.2] 행복 수준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2010년 기준)

		Coef.	Std. Err.	t	P>t	Beta
성별	남성	-0.128	0.085	-1.510	0.131	-0.035
연령	연령	-0.010	0.004	-2.150	0.031	-0.072
학력	중졸이하	-0.238	0.247	-0.960	0.336	-0.060
	고졸이하	-0.262	0.219	-1.200	0.232	-0.069
	대졸이하	-0.124	0.207	-0.600	0.549	-0.033
결혼여부	미혼	-0.347	0.177	-1.960	0.050	-0.069
	기혼	0.309	0.131	2.360	0.019	0.075
	주당 여가시간	0.001	0.003	0.160	0.871	0.004
	월평균 여가비용(만원)	0.002	0.002	0.680	0.495	0.016
선호하는 여가활동	문화예술관람 및 참여	-0.360	0.332	-1.090	0.278	-0.023
	스포츠관람 및 참여	-0.082	0.146	-0.560	0.575	-0.012
	관광	0.655	0.523	1.250	0.210	0.026
	취미오락활동	0.057	0.114	0.500	0.616	0.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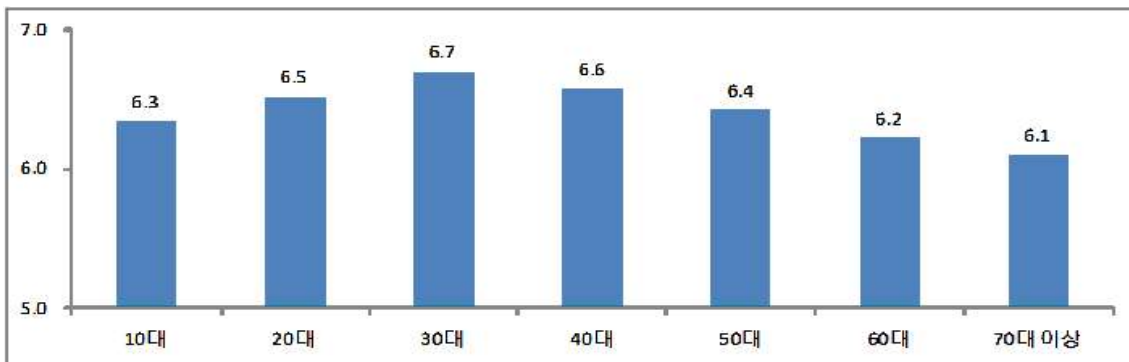
	사회 및 기타활동	0.188	0.168	1.120	0.262	0.024
	동호회활동 여부	0.247	0.081	3.060	0.002	0.067
	자원봉사 활동여부	0.312	0.106	2.950	0.003	0.063
	여가만족도	0.744	0.041	18.310	0.000	0.410
직업	관리전문직	-0.752	0.910	-0.830	0.409	-0.160
	사무직	-0.884	0.909	-0.970	0.331	-0.178
	서비스/판매직	-0.930	0.909	-1.020	0.306	-0.211
	농림어업	-0.948	0.917	-1.030	0.301	-0.190
	기능/기계직	-0.887	0.909	-0.980	0.329	-0.188
	단순노무	-0.919	0.912	-1.010	0.314	-0.178
월평균 가구소득	100~199만원	0.194	0.155	1.250	0.211	0.044
	200~299만원	0.342	0.163	2.100	0.036	0.081
	300~399만원	0.639	0.173	3.700	0.000	0.136
	400만원 이상	0.438	0.170	2.580	0.010	0.111
	_cons	5.332	0.971	5.490	0.000	.
	N, R2	N= 1770 R2=0.2514 F(27, 1742) = 21.67				

자료 : 국민여가활동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10년 원자료를 가지고 분석

주1) 기준변수는 대학원 재학 이상(학력), 이혼 또는 사별(결혼여부), 휴식(여가활동유형), 군인(직업),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소득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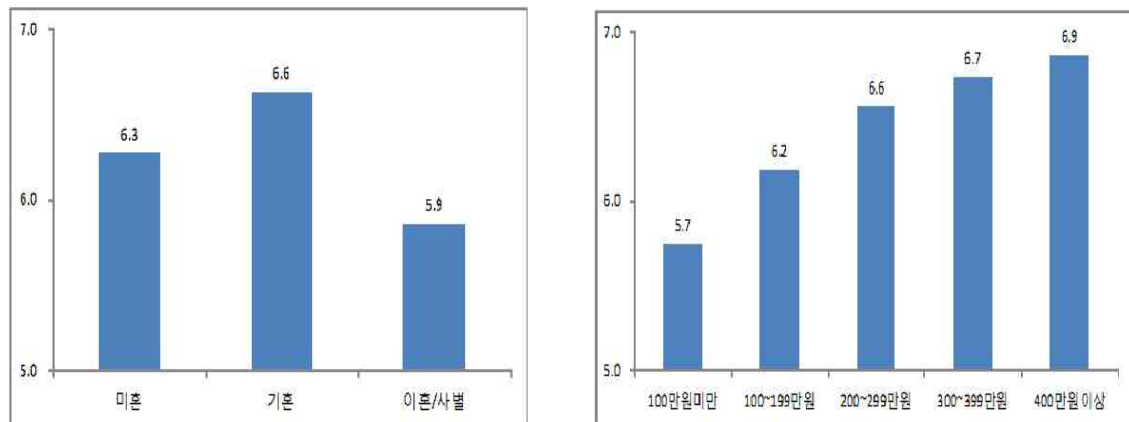
[그림 6.12.1.2] 연령에 따른 행복 수준(2010년 기준)

(단위 : 10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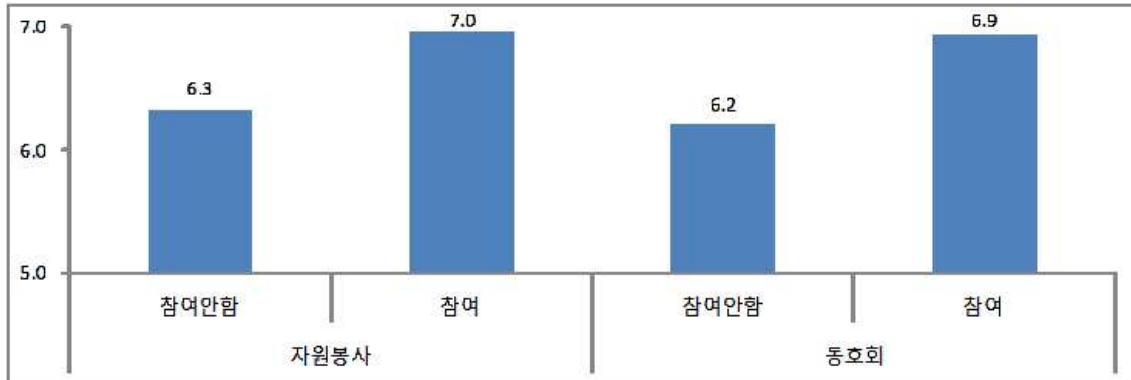
[그림 6.12.1.3] 결혼여부 및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른 행복 수준(2010년 기준)

(단위 : 10점 척도)



[그림 6.12.1.4] 자원봉사 및 동호회 참여여부에 따른 행복 수준(2010년 기준)

(단위 : 10점 척도)



[표 6.12.1.3] 여가생활 만족도(2006~2010년)

(단위: 명, 5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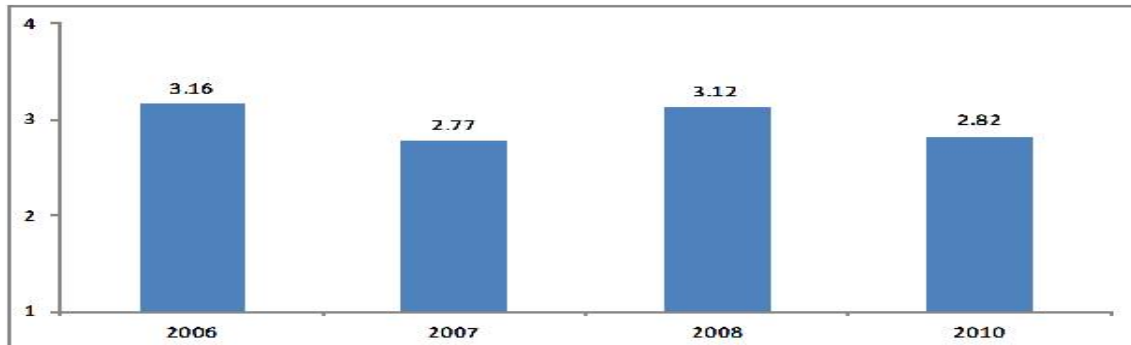
	2006		2007		2008		2010	
	응답자 수	평균	응답자 수	평균	응답자 수	평균	응답자 수	평균
전체	3,000	3.16	2,998	2.77	3,000	3.12	3,051	2.82

자료 : 국민여가활동조사(문화체육관광부) 각년도 자료

주1) 귀하께서는 자신의 전반적인 여가생활에 만족하십니까? 에 대한 응답결과임

[그림 6.12.1.5] 여가만족도 수준(2010년 기준)

(단위 : 5점 척도)



- 한편 여가만족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유의수준 0.05에서 여성에 비해 남성의 여가만족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여가만족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일주일 평균 여가시간이 많을수록, 월평균 여가 비용이 높을수록 여가만족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여가활동 유형은 여가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동호회 활동 및 자원봉사활동 참여자일수록 여가만족도는 높게 나타남
- 마지막으로 월평균 가구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이들에 비해 400만원 이상인 이들의 여가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표 6.12.1.4] 여가만족도 수준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2010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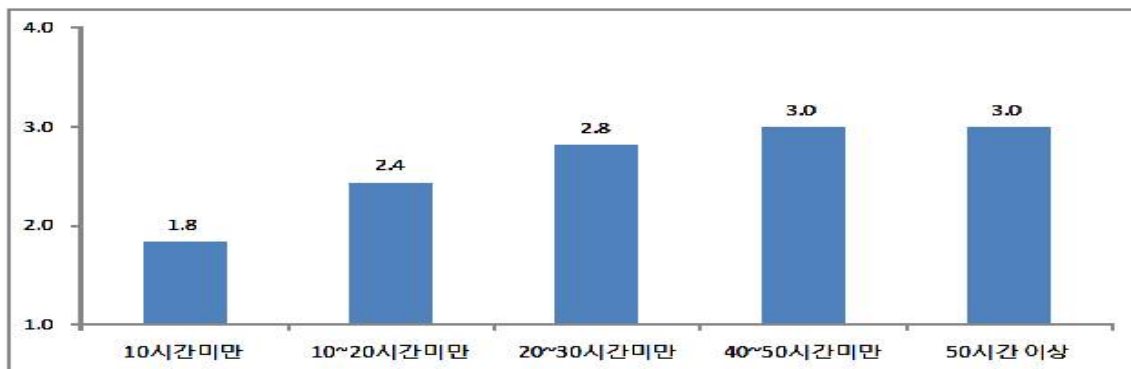
		Coef.	Std. Err.	t	P>t	Beta
성별	남성	-0.130	0.050	-2.600	0.009	-0.065
연령	연령	0.007	0.003	2.540	0.011	0.091
학력	중졸이하	-0.111	0.146	-0.760	0.445	-0.051
	고졸이하	-0.086	0.129	-0.670	0.504	-0.041
	대졸이하	-0.100	0.122	-0.820	0.412	-0.049
결혼여부	미혼	0.097	0.104	0.930	0.351	0.035
	기혼	0.027	0.077	0.350	0.725	0.012
	주당 여가시간	0.018	0.002	9.180	0.000	0.214
	월평균 여가비용(만원)	0.006	0.001	4.970	0.000	0.126
선호하는 여가활동	스포츠관람 및 활동	0.323	0.209	1.550	0.122	0.088
	관광	0.251	0.363	0.690	0.489	0.018
	취미오락활동	-0.088	0.201	-0.440	0.661	-0.031
	휴식	-0.105	0.196	-0.540	0.592	-0.048
	사회 및 기타 활동	-0.020	0.216	-0.090	0.926	-0.005
	동호회활동 여부	0.203	0.047	4.290	0.000	0.100
	자원봉사 활동여부	0.156	0.062	2.500	0.012	0.057
직업	관리전문직	0.396	0.536	0.740	0.460	0.153
	사무직	0.479	0.536	0.890	0.371	0.175
	서비스/판매직	0.208	0.536	0.390	0.697	0.086
	농림어업	0.525	0.540	0.970	0.331	0.191
	기능/기계직	0.297	0.536	0.560	0.579	0.114
	단순노무	0.203	0.538	0.380	0.706	0.071
월평균 가구소득	100~199만원	0.056	0.091	0.610	0.544	0.023
	200~299만원	0.164	0.096	1.710	0.088	0.070
	300~399만원	0.134	0.102	1.310	0.190	0.051
	400~만원 이상	0.224	0.100	2.240	0.025	0.103
	_cons	1.447	0.606	2.390	0.017	.
N, R ² , F		N= 1770 R ² =0.1431 F(26, 1743) = 11.20				

자료 : 국민여가활동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10년 원자료를 가지고 분석

주1) 기준변수는 대학원 재학 이상(학력), 이혼 또는 사별(결혼여부), 문화예술관람 및 참여활동(여가활동유형), 군인(직업),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소득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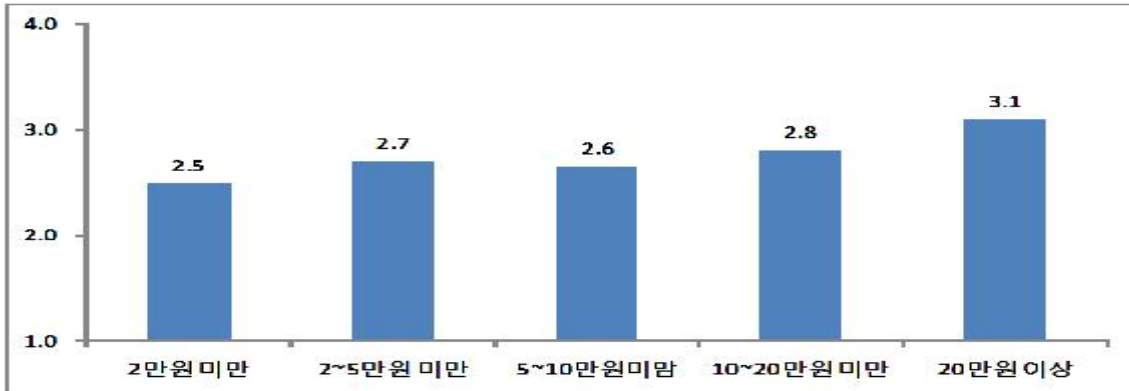
[그림 6.12.1.6] 주당 여가시간에 따른 여가만족도 수준(2010년 기준)

(단위 : 5점 척도)



[그림 6.12.1.7] 월평균 여가지출에 따른 여가만족도 수준(2010년 기준)

(단위 : 5점 척도)



6.12.2. 생활여건 변화에 대한 인식

- 통계청에서 작성하는 『사회조사보고서 :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2005년 전반적인 생활여건이 좋아졌다고 응답한 비율이 22.2%였으나 2007년에는 28.4%, 2009년에는 33.3%로 2005년 대비 50% 상승함
- 한편 분야별로는 문화여가생활이 좋아졌다고 응답한 비율은 2005년 21.6%에서 2009년 31.5%로 2005년 대비 45.8% 증가함
- 거주지역별로는 읍면부 거주자보다 도시(동부) 거주자가 좋아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성별로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좋아졌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20대에서 좋아졌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온 반면, 60세 이상의 응답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남

[표 6.12.2] 생활여건 변화에 대한 인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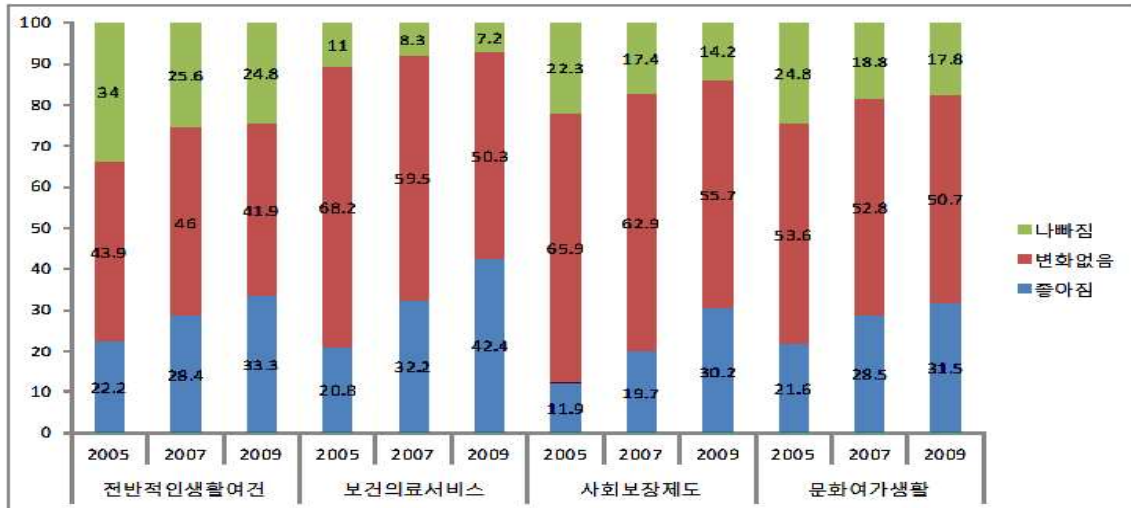
			2005			2007			2009		
			좋아 짐	변화 없음	나빠 짐	좋아 짐	변화 없음	나빠 짐	좋아 짐	변화 없음	나빠 짐
전반적인 생활여건			22.2	43.9	34.0	28.4	46.0	25.6	33.3	41.9	24.8
보건의료서비스			20.8	68.2	11.0	32.2	59.5	8.3	42.4	50.3	7.2
사회보장제도			11.9	65.9	22.3	19.7	62.9	17.4	30.2	55.7	14.2
문화여가생활			21.6	53.6	24.8	28.5	52.8	18.8	31.5	50.7	17.8
지역	동부		21.8	52.7	25.5	28.6	52.3	19.1	31.9	50.0	18.1
	읍면부		20.6	58.0	21.4	27.7	55.3	17.0	29.9	53.7	16.4
성별	남자		21.5	53.1	25.4	28.2	52.1	19.7	30.9	50.2	18.9
	여자		21.6	54.1	24.2	28.7	53.4	17.8	32.1	51.1	16.8
연령	15~19세		-	-	-	-	-	-	31.1	54.7	14.2
	20~29세		-	-	-	-	-	-	36.8	47.3	15.9
	30~39세		-	-	-	-	-	-	33.0	47.2	19.8
	40~49세		-	-	-	-	-	-	30.2	49.5	20.2

	50~59세	-	-	-	-	-	-	31.4	51.0	17.6
	60세이상	-	-	-	-	-	-	26.8	56.8	1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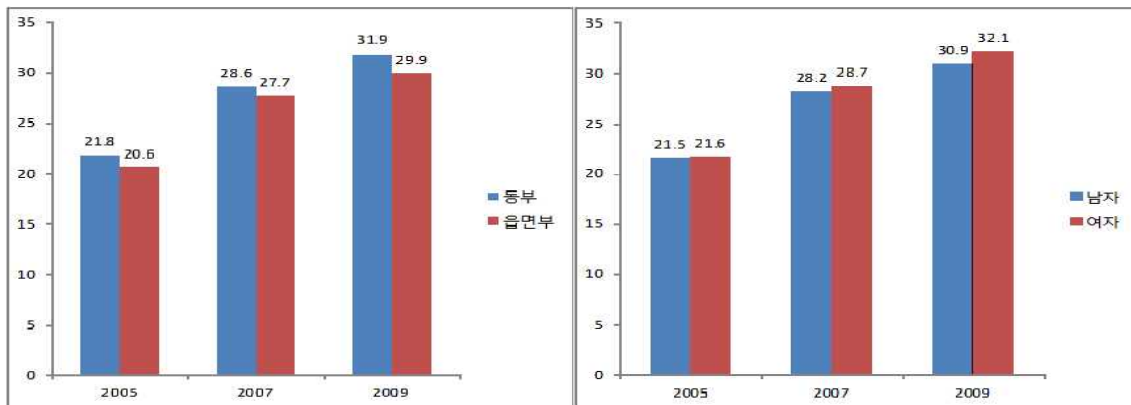
자료 : 사회조사보고서(통계청, 2005; 2007; 2009)

[그림 6.12.2.1] 생활여건 항목 별 인식변화(2005~20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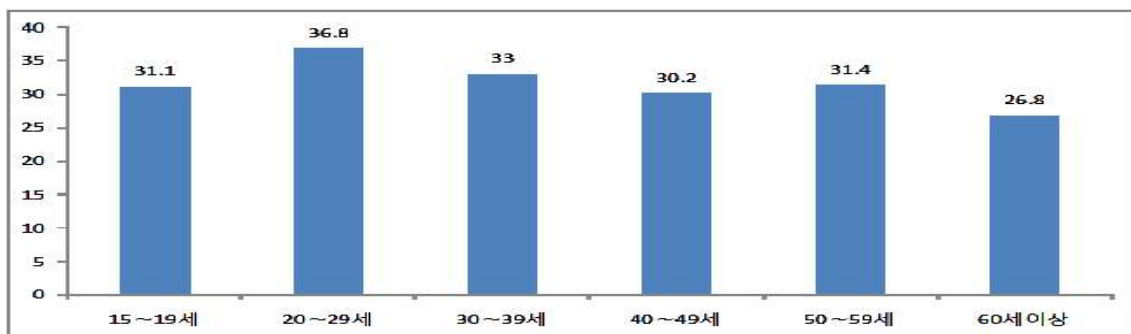
(단위: %)



[그림 6.12.2.2] 지역별 / 성별 문화여가생활 여건 변화에 대한 인식 (좋아짐이라고 인식한 비율 :%)



[그림 6.12.2.3] 연령별 문화여가생활 여건 변화에 대한 인식 (좋아짐이라고 인식한 비율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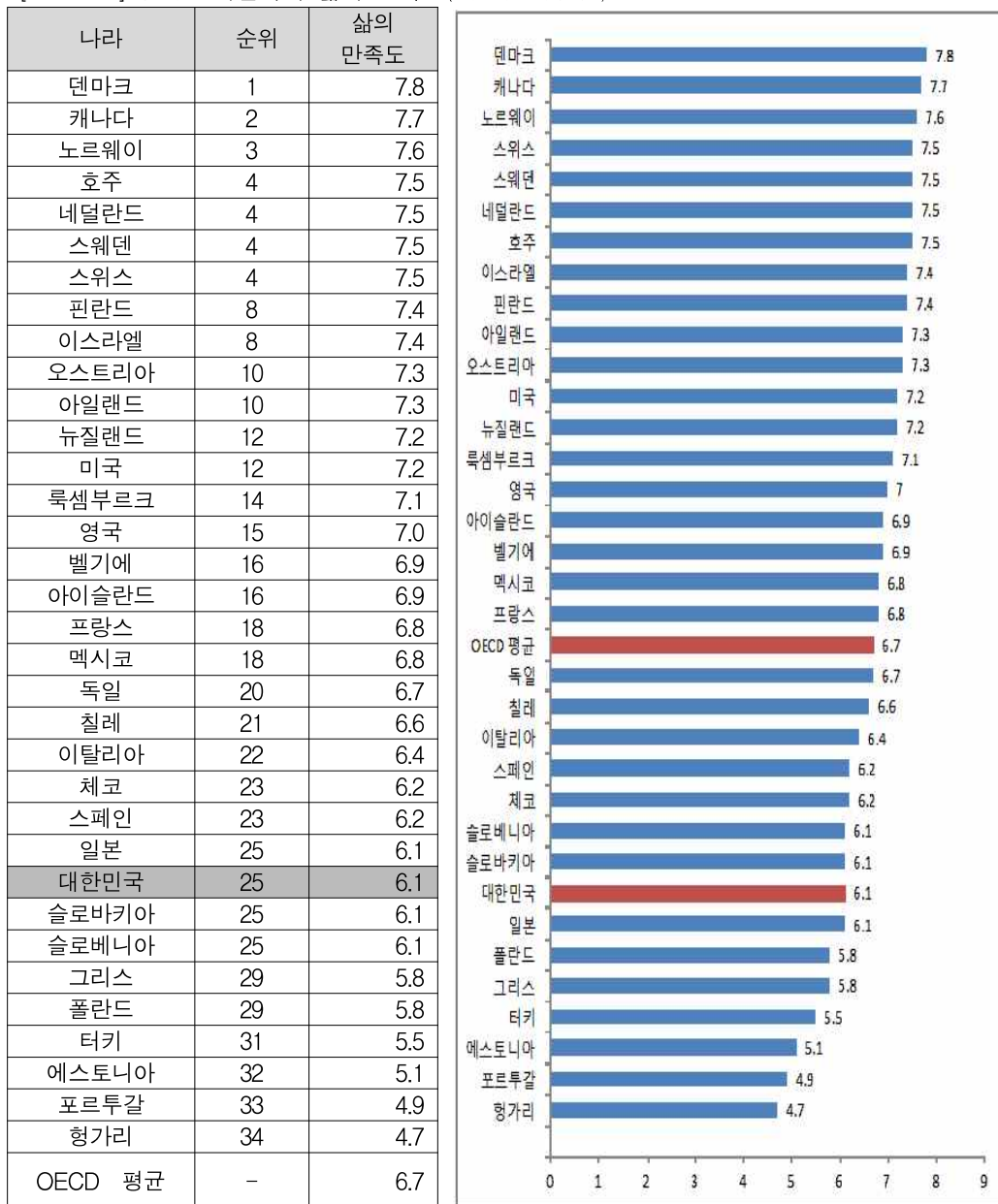


6.12.3. 해외 주요국과의 비교 : 삶의 만족도

- OECD Better life index¹⁵⁾는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발표한 국가 행복지수에 대한 사회통계 지표로, 직업, 교육, 환경, 소득 등의 지표로 국가에 대한 행복지수를 측정하며,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도 그 중 하나의 지표임
- 2010년 기준 OECD 34개국의 평균 삶의 만족도는 6.7점으로 나타났으며, 1위는 덴마크(7.8점), 2위는 캐나다(7.7점), 3위는 노르웨이(7.6점)로 나타남
-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는 6.1점으로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OECD 34개국 중 25위를 차지함
- 미국은 7.2점으로 12위, 영국은 7.0점으로 15위, 프랑스는 6.8점으로 18위, 독일은 6.7점으로 20위, 이탈리아는 6.4점으로 22위, 일본은 6.1점으로 우리와 동순위로 나타남

15) OECD Better Life Initiative (<http://www.oecdbetterlifeindex.org/topics/life-satisfaction/>)

[표 6.12.3] OECD 회원국의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



자료 : Your Better life index-Original Data (OECD, 2011)

주1) life satisfaction은 '자신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는지?'에 대해 0점~10점 사이에 평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측정됨



연구의 요약 및 한계

제1절 2011 문화예술 대표지표 분석결과 요약

제2절 연구의 한계

제1절 2011 문화예술 대표지표 분석결과 요약

- 2011 문화예술 대표지표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의 <표>와 같음

[표] 2011 문화예술 대표지표 분석결과 요약

		지표명	2011 문화예술 대표지표 분석 결과
공통 투입지표		1.1. 문화예술재정 1.1.1. 공공부문 문화예술재정 1.1.1.1 중앙정부 문화예술재정 1.1.1.2 지방정부 문화예술재정 1.1.2. 민간부문 문화예술재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정부 문화예술재정규모 681,225백만원, 24% (2009년) → 914,380백만원, 26.5%(2011년) ▶ 창작·제작·교류 : 21.58%(2009년) → 18.11%(2011년) ▶ 매개·유통 : 67.52%(2009년) → 67.79%(2011년) ▶ 소비·참여 : 10.90%(2009년) → 14.10%(2011년) ○ 지방정부 문화예술재정규모 : 2,269,600백만 원 (2010년) ▶ 창작·제작·보존·교류·교육 : 250,600백만원(11%) ▶ 매개·유통 : 1,492,200백만 원(65.7%) ▶ 소비·참여 : 490,000백만 원(21.6%) ○ 민간부문 문화예술지원규모(한국기업메세나협의회) : 84,018백만 원(2006년) → 173,501백만 원(2010년) ▶ 미술·전시 : 40,654백만 원(23.4%) ▶ 문화예술교육 : 34,634백만 원(20%)
		1.2. 문화예술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44,098명, 전체 직종 종사자의 3.9%에 해당(2010년) ▶ 창작·실연 : 606,217 (64.2%) ▶ 기획/경영관리 : 39,422 (4.2%) ▶ 기술 : 39,041 (4.1%) ▶ 교육 : 154,983(16.4%) ▶ 기타 : 104,436 (11.1%)
		1.3. 문화예술 사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1,824개, 전체 사업체의 3.09%(2009년) ▶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 1,906개(1.87%) ▶ 공연예술 및 축제 : 1,593개(1.6%) ▶ 시각예술 및 공예 : 21,938개(21.5%) ▶ 도서 및 출판 : 4,108개(4.0%) ▶ 시청각 및 상호작용미디어 : 6,239개(6.1%) ▶ 게임 : 21,609개(21.2%) ▶ 기타(행정, 교육, 제조, 도소매업) : 44,431개(43.6%) ○ 개인사업체가 86.7%, 회사 법인이 10.8% ○ 종사자 규모 10인 미만이 93.9%, 10~49인 미만이 5.1%
투입	2. 문화예술교육	2.1. 문화예술교육기관 2.1.1 정규교육기관의 수 2.1.2. 비정규교육기관의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 문화예술관련 학과의 수 ▶ 총 5,011개(대학 3,204개, 대학원 1,807개) ▶ 전체 학과의 15.1% 차지 ○ 2009년 예술학원의 수 : 총 41,877개
산출		2.2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2.2.1 문화예술교육과정 재학생 2.2.2 문화예술교육과정 졸업생 2.2.3 문화예술교육과정 참여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 문화예술관련 학과 재적학생의 수 ▶ 총 464,289명(대학 425,134명 대학원 39,155명) ▶ 전체 재적학생의 16.7% 차지 ○ 2010년 문화예술관련 학과 졸업생 수 ▶ 총 69,762명 (대학 65,114명 대학원 4,648명) ▶ 전체 졸업생의 13.6% 차지 ○ 문화예술인 중 문화예술 전공자 비율 : 56.1%(2009년) ○ 문화예술인 중 최종학력 전공과 활동하는 문화예술분야가 일치하는 비율 : 63.6% (2009년) ○ 비정규 문화예술교육 경험률 : 64.7%(2009년)

성 과		2.3. 문화예술교육 만족도 2.3.1. 정규교육기관 만족도 2.3.2. 비정규교육기관 만족도	▶ 개인레슨(51.4%), 학원(48.8%), 외국(27.7%) ○ 정규교육기관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효능감(2009년) ▶ 대학(3.8), 고등학교(2.9), 초등학교(2.8) ○ 정규교육기관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만족도(2009년) ▶ 대학(2.9), 초·중·고등학교(2.4) ○ 비정규교육기관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만족도(2009년) ▶ 개인레슨(4.1), 외국(3.8) 학원(3.6),
		2.4. 신규 문화예술인력 고용 지표 2.4.1 신규 문화예술인력 고용률 2.4.2 신규 문화예술인력 실업률	○ 문화예술전공 졸업자 중 취업자의 수(2009년) : 49,473명 ○ 문화예술전공 졸업자 취업률(2009년) : 75.3% ▶ 전문대 84.5% 대학 69.4% 대학원 70.9% ○ 문화예술전공 졸업자 중 실업자의 수(2009년) : 7,860명 ○ 문화예술전공 졸업자 실업률(2009년) : 13.7% ▶ 전문대 8.2% 대학 16.8% 대학원 22.9%
산 출	3. 문 화 예 술 인 력	3.1. 문화예술인력 경제활동상태 3.1.1 문화예술 취업자 3.1.2 문화예술 실업자	○ 문화예술 취업자 수(2009년) : 1,112,300명 ▶ 전체 직종 종사자 중 4.67% ▶ 여성 47.1%, 평균 교육년수 14.8년, 평균연령 36.2세, 평균 근속년수 5.9년 ○ 문화예술인 중 무직자 비율(2009년) : 23.7% ▶ 이 중 실업이 10.3%
		3.2 문화예술분야 종사자의 수	○ 문화예술분야 종사자 수(2009년) : 453,624명 ▶ 전산업 종사자 중 2.7% 차지
성 과		3.3 문화예술인력 일자리 지표 3.3.1 문화예술 취업자 고용상 지위 3.3.2 문화예술분야 종사자 고용상 지위 3.3.3 문화예술 취업자 소득 3.3.4 문화예술분야 종사자 소득 3.3.5 문화예술 창작여건 만족도	○ 문화예술 취업자 고용상 지위(2009년) ▶ 상용근로자(62.6%), 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19.7%), 임시/ 일용근로자(9.8%), 고용주(7.9%) ○ 문화예술분야 종사자 고용상 지위(2009년) ▶ 상용근로자(58.4%), 임시/일용근로자(14.6%), 무급가족종사 자(12%), 자영업자(11.7%) ○ 문화예술 취업자 소득(2009년) ▶ 임금근로자 세전 월평균 소득(201.3만원) ▶ 비임금근로자 세전 소득(203.7만원) ○ 문화예술 창작여건 만족도(2009년) : 2.39점
산 출	4. 문 화 예 술 창 작 제 작 교 류 활 동	4.1. 문화예술상품 생산량 4.1.1 전통예술 4.1.2 음악 4.1.3 연극 4.1.4 무용 4.1.5 시각예술 4.1.6 문학 4.1.7 영화 4.1.8 방송 및 대중예술	1. 국악 ▶ 연평균 공연 횟수(2005-2009) : 2,450회 ▶ 연평균 공연 건수(2008-2009) : 1,243건 ▶ 일인당 생산량 : 48.7편 * 일인당 생산편수는 2003년, 2006년, 2009년 3개년 평균값 2. 음악 ▶ 연평균 공연 횟수(2005-2009) : 5,764회 ▶ 연평균 공연 건수(2008-2009) : 5,781건 ▶ 일인당 생산량 : 50편 3. 연극 ▶ 연평균 공연 횟수(2008-2009) : 33,324회 ▶ 연평균 공연 건수(2005-2009) : 2,639건 ▶ 일인당 생산량 : 9.4편 4. 무용 ▶ 연평균 공연 횟수(2005-2009) : 1,975회 ▶ 연평균 공연 건수(2005-2009) : 1,119건 ▶ 일인당 생산량 : 54.4편 5. 시각예술 ▶ 연평균 전시 건수(2005-2009년) : 10,246건 ▶ 일인당 생산량: 미술 30.8편, 사진 20.5편, 건축 7.8편 6. 문학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평균 신간발행 종수(2007-2010) : 8,192종 ▶ 신간발행부수 17,280천부 ▶ 일인당 생산량 : 23.3편 7. 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제작 편수(2010) : 152편 ▶ 연간 개봉 편수(2010) : 140편 ▶ 일인당 생산량 : 8.2편 8. 방송 - 연간 판매 편수(2009) : 27,802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인당 생산량 : 71.1편
		4.2. 지역축제의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지역축제의 수 : 총 762개(2011년) ▶ 문화예술축제 (35.7%), 지역특산물축제(18.9%), 전통역사축제(13%)
		4.3. 문화예술 국제교류 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문화예술의 해외 진출(200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학(60건), 미술(376건), 국악(204건), 음악(104건), 연극(123건), 무용(87건), 복합장르(7건), 영화(251편) ○ 해외 문화예술의 국내 진출(200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809건), 음악(812건), 연극(188건), 무용(143건), 복합장르(7건), 영화(361편)
		4.4. 문화예술분야 사업체 경영지표 4.4.1 문화예술사업체 매출액 4.4.2 공연상품 티켓판매액 4.4.3 문화예술사업체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사업체(서비스업종) 매출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3,787,923백만 원(2009년) ○ 공연상품 티켓판매액 : 215,510백만 원(2010년) ○ 문화예술사업체(서비스업종) 영업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9,901,346백만 원(2009년) 이 중 인건비(25.8%) ○ 문화예술사업체(서비스업종) 영업이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142,340백만 원(2009년)
		4.5 문화예술상품 수출 · 수입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콘텐츠상품 수출액 : 2,604,232천달러(2009년) ○ 문화콘텐츠상품 수입액 : 1,769,531천달러(2009년)
		4.6 해외문화원 방문자 수	○ 307,233명(2009년)→290,671명(2010년)→354,656명(2011.7)
		4.7. 한국문화예술 인지도 · 선호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 역사/문화유적을 한국 방문의 요인으로 꼽은 외국인 관광객 비율 : 20.8%(2009년) ○ 내국인들의 국악에 대한 선호도 : 3.3점(2010년)
		4.8 UNESCO 문화유산 등재 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유산 누적 등재건수(2011년) : 총 30건 ▶ 세계유산 10건, 기록유산 9건, 무형유산 11건
투입	5. 문화예술의 매개 유통	5.1. 문화시설의 수	○ 전통문화 전수시설 및 사적지 수(2009년) : 2,203개
		5.1.1 유형별 문화시설의 수 5.1.2 지역별 문화시설의 수 5.1.2.1 전통문화 전수시설 및 사적지 5.1.2.2 공연시설(등록 공연장) 5.1.2.3 전시시설(등록박물관 · 미술관) 5.1.2.4 도서관(도서관) 5.1.2.5 영화시설(극장) 5.1.2.6 방송시설(방송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악원 28개 전수회관 105개 역사문화유적지 2,070개 ▶ 인구 백만명 당 43.6개 ○ 공연시설 : 등록 공연장(2010년) : 631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 418개, 민간 213개 ▶ 인구 백만명 당 12.5개 ○ 전시시설 : 박물관, 미술관, 화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00관 : 박물관 655관, 미술관 145관(2010년) ▶ 인구 백만명 당 박물관 · 미술관 수 15.8개 ▶ 화랑 295관(2009년) ○ 도서관 : 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400개: 국립 3관, 공공 4,448관, 대학 426관 학교 10,937관, 전문 591관(2009년) ▶ 공공도서관(일반 + 어린이) : 759관(2010년) ▶ 인구 백만명 당 공공도서관 수 : 15관(2010년) ○ 영화시설 : 영화관(201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1관(인구 백만명 당 5.9관) ○ 방송시설 : 방송국(200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49개 (인구 백만명 당 13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예회관(2010년) ▶ 193관(인구 백만명 당 3.8관) ○ 지방문화원(2010년) ▶ 228개(인구 백만명 당 4.5개) ○ 문화의 집(2009년) : 147개 ○ 주민자치센터(2010년) : 2,681개 ○ 복합문화공간(시민회관, 복지회관, 청소년회관) : 1094개 ○ 복지시설 : 3,222개 ○ 청소년시설 : 458개
		5.2. 문화시설 기능별 규모 5.2.1 도서관 5.2.2 박물관 5.2.3 미술관 5.2.4 공연장 5.2.5 문예회관 5.2.6 지방문화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도서관(2010년) ▶ 도서자료 수 : 관 당 89,261권 인구 일인당 1.3권 ▶ 열람석 수 : 관 당 421석 인구 천명당 6.3석 ○ 등록 박물관(2010년) ▶ 관당 연면적 : 4,038m² ▶ 전시실 면적 비율 : 43.5% 수장고 면적 비율: 8.9% ▶ 관당 소장자료 수 : 13,437점 ▶ 인구 백명당 소장자료 수 : 17.1점 ○ 미술관(2010년) ▶ 관당 연면적 : 3,495m² ▶ 전시실 면적 비율 : 28.3% 수장고 면적 비율 : 5.2% ▶ 관당 소장자료 수 : 2,130점 ▶ 인구 백명당 소장자료 수 : 24점 ○ 등록 공연장(2010년) ▶ 관당 면적 : 289m² 인구 천명당 면적 : 24.1m² ▶ 관당 객석 수 : 516석 인구 천명당 객석 수 : 6.4석 ○ 문예회관(2010년) ▶ 관당 공연장 수 : 1.6개 ▶ 인구 십만명당 공연장 수 : 0.6개 ▶ 관당 객석 수 : 1,074석 ▶ 인구 십만명당 객석 수 : 384석 ▶ 관당 전시실 면적 : 360m² ▶ 인구 십만명당 전시실 면적 : 181.6m² ○ 지방문화원(2010년) ▶ 관당 총면적 : 953.5m² ▶ 인구 백만명당 총면적 : 18.9m² ▶ 강당 · 전시실 · 도서실 면적 비율 : 24.5%
		5.3. 문화시설 인력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도서관(2010년) ▶ 인구 십만명 당 직원규모 : 6.3명, ▶ 관당 사서직 수 : 4.2명 ▶ 전체 직원 대비 사서직 비율 : 45.1% ○ 등록박물관(2010년) ▶ 관당 총인력 규모 : 18.4명 ▶ 인구 백만명 당 총인력 수: 237명 ▶ 관당 학예직원 수: 1.4명 ○ 미술관(2010년) ▶ 관당 총인력 규모 : 9.3명 ▶ 인구 백만명 당 총인력 수: 25.7명 ▶ 관당 학예직원 수: 2.1명 ○ 문예회관(2009년) ▶ 관당 인력 규모 : 19.6명 ▶ 인구 십만명 당 인력규모: 7명 ▶ 관당 공연사업인력 : 4.7%, 관당 무대기술인력 : 4.2%

산 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문화원(201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당 인력 규모 : 3.4명 ▶ 인구 백만명 당 인력규모: 14.8명
	5.4. 문화시설 가동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예회관 가동률 1(200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장(53.1%), 공연프로그램(32.1%) ○ 문예회관 가동률 2(200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장(39.9%), 공연프로그램(23.2%)
	5.5. 문화시설 프로그램의 수 5.5.1 문화시설 공연·전시프로그램의 수 5.5.2 문화시설 기타프로그램의 수		<p>[2009년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예회관 연간 공연 및 기타행사 총 건수 : 22,824건(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당 연간 공연 및 기타행사 건수 : 80.4건 ▶ 관당 연간 공연프로그램 건수: 36.3건(45.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기획(9.1%), 대관(27.2%) ○ 문예회관 연간 공연 및 기타행사 총 횟수 : 37,463건(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당 연간 공연 및 기타행사 건수 : 131.9건 ▶ 관당 연간 공연프로그램 건수: 72건(54.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기획(23.4%), 대관(48.5%)
	5.6. 문화시설 이용자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도서관(201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총 이용자 수 : 257,259,965명 ▶ 연간 총 대출 권수(119,018,820권) ▶ 관당 이용자 수: 338,946명 ▶ 인구 대비 이용률 : 509.3% ▶ 인구 일인당 대출 권수 : 2.4권 ○ 등록박물관(201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총 이용자 수 : 80,009,240명 ▶ 연간 관당 이용자 수 : 127,403명 ▶ 인구 대비 이용률 : 158.4% ○ 미술관(201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총 이용자 수 : 11,971,848명 ▶ 관당 이용자 수 : 855,132명 ▶ 인구 대비 이용률 : 23.7% ○ 문예회관(200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총 이용자 수 15,250,463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료관객 : 4,745,237명(31.1%) ▶ 관당 이용자 수 : 53,699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당 유료관객 : 16,709명 (31.1%) - 관당 객석 점유율(34.6%) ▶ 인구 대비 이용률 : 30.1% ○ 지방문화원(201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총 이용자 수 : 2,562,927명 ▶ 관당 이용자 수 : 16,642명 ▶ 인구 대비 이용률 : 5.1% ○ 문화시설 연간 이용자(2010 문화향수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시설 단순 이용률 : 5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 20.5%, 박물관 14.8% ▶ 문화시설 연간 이용 횟수 : 6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 2.36회, 복지회관 1.18회, 시군구민회관 0.62회 ○ 문화시설 문화행사 연간 참여자(2010 문화향수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시설 문화행사 연간 참여율 : 26.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물관 9.0%, 문화예술회관 8.1%, 시군구민회관 4.9% ▶ 문화시설 문화행사 연간 참여 횟수 : 1.23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회관 0.27회, 박물관 0.2회
	5.7. 문화시설 서비스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시설 프로그램 만족도(2010년) : 3.87점
성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시설 시설만족도(2010년) : 3.89점 ○ 문화예술회관 방문자의 만족도가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0.11점 높게 나타남(유의수준 0.01)
산출	6. 문화예술의 소비 참여	6.1. 문화예술 활동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당 여가활동시간 ▶ 34시간 48분(2004년) → 32시간 53분 (2009) ○ 주당 관람 및 문화행사 참여 시간 ▶ 15분(2004년) → 15분(2009년)
		6.2 문화예술상품·서비스 지출액 6.2.1 문화예술상품·서비스 지출액 6.2.2 최다지출품목	<p>[2010년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당 월평균 오락·문화 지출액 ▶ 101,168원(2005년) → 135,830원 (2010년) ▶ 전체 가계지출 대비 비율 : 4.3% → 5.3% ○ 가구당 월평균 문화서비스 지출액 ▶ 18,452원(2005년) → 23,445원(2010년) ▶ 오락문화지출 대비 비율 : 18.2% → 17.2% ▶ 전체 가계지출 대비 비율 : 0.78% → 0.91%
		6.3. 문화예술 수요자 교육 참여자 수 6.3.1 문화예술교육기관(학교교육 외) 6.3.2 문화예술교육 경험률(학교교육 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정규 문화예술교육 경험자(2010년) ▶ 비정규 문화예술교육 경험률 : 9.2% ▶ 지난 1년 동안 문화예술교육 경험률 : 4.6% ▶ 교육받은 기관 - 공공기관 부설기관 41.3%, 인터넷사이트 15.8%, 동호인 모임 14.8% ▶ 교육받은 분야 - 미술 4.6%, 서양음악 2.9%, 문학 1.9%
		6.4. 문화예술복지 수혜자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 수혜자 수 ▶ 2,353,462명(2007년) → 2,720,278명(2010년) ○ 예산투입 백만원 당 수혜자 수 ▶ 78,600명(2007년) → 114,800명(2010년)
		6.5. 문화예술 관람·방문자 수 6.5.1. 문화예술 관람객 수 6.5.2. 역사문화유적지·지역축제 방문자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한번 이상 문화예술행사 관람 경험률 ▶ 54.7%(2000년) → 65.8%(2006년) → 67.2%(2010년) ○ 연평균 문화예술행사 관람 횟수 ▶ 3.3회(2000년) → 4.66회(2006년) → 4.18회(2010년) ○ 문화예술 장르별 연간 관람률(2010년) ▶ 영화(60.3%), 연극(11.2%), 미술전시회(9.5%), 대중가요콘서트·연예(7.6%), 전통예술(5.7%), 클래식음악회·오페라(4.8%), 문학행사(3.8%), 무용(1.4%) ○ 연간 성인 독서율 ▶ 75.9%(2006년) → 65.4%(2010년) ○ 연간 성인 독서량 ▶ 11.9권(2006년) → 10.8권(2010년) ○ 연간 한번 이상 역사문화유적지 방문률 ▶ 51.4%(2000년) → 51.4%(2006년) → 47.1%(2010년) ○ 연간 한번 이상 지역축제 참여율 ▶ 32%(2000년) → 43%(2006년) → 50.7%(2010년)
		6.6. 문화예술활동 참여자 수 6.6.1. 문화예술 창작·발표 참여자 수 6.6.2. 문화예술 자원봉사·동호회 참여자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 창작·발표 참여율 ▶ 2.8%(2006년) → 2.2%(2010년) ○ 문화예술 자원봉사 활동 참여율 ▶ 6.5%(2003년) → 3.5%(2006년) → 7.3%(2010년) ○ 문화 관련 동호회 활동 참여율 ▶ 7.9%(2003년) → 3.3%(2006년) → 3.1%(2010년)
		6.6.3. 사이버 문화예술활동 경험자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분야 사이트 접속 경험률 ▶ 44.5%(2006년) → 50%(2010년) ○ TV 이용 예술프로그램 감상 경험률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2%(2006년) → 94.5%(2010년) ○ 비디오/DVD/CD 이용 예술프로그램 감상 경험률 ▶ 48.4%(2006년) → 27.3%(2010년) ○ 컴퓨터/멀티미디어기기 이용 예술프로그램 감상 경험률 ▶ 36.9%(2010년)
	6.7. 문화예술상품·서비스 물가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별 물가지수(2010년, 2005=100) ▶ 문화시설입장료(118.1), 공연예술관람료(129.9), 전시관입장료(124.7), 영화관람료(117.3), 피아노 학원비(119.8), 미술학원비(119.9), 이러닝 이용료(103.7), 웹정보콘텐츠이용료(87.1), 모바일콘텐츠이용료(87.1) ○ 기본분류별 물가지수(2010년, 2005=100) ▶ 교양·오락 : 101.2 (총지수 =116.1) ▶ 문화서비스(103.8), 도서(117.5)
	6.7.1. 품목별 물가지수		
	6.7.1. 기본분류별 물가지수		
	6.8. 문화예술 수요자교육 참여자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교육 이외 문화예술교육 만족도 ▶ 3.7(2006년) → 3.9(2008년) → 4.0(2010년) ▶ 미술, 음악, 전통예술 교육 경험자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유의수준 0.05)
	6.9. 문화예술복지 수혜자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 수혜자 만족도(2008년 → 2010년) ▶ 문화바우처 : 85점 → 82.5점 ▶ 사랑티켓 : 80점 → 81.5점 ▶ 문학나눔 : 81.1점 → 84점 ▶ 전통나눔 : 87.7점 → 89.7점 ▶ 소외계층 문화순회 : 80.2점 → 83.9점 ▶ 지방문예회관 특별프로그램 지원 : 86.1점 → 87.2점
	6.10. 문화예술 관람·방문자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행사 관람객 만족도(2010년 기준, 유의수준 0.05) ▶ 여성, 군지역 거주자, 대학원 재학 이상의 고학력자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 대중가요콘서트/연예 관람객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 역사문화유적지 방문객 만족도 ▶ 보존상태 만족도 : 3.64(2006년) → 3.80(2010년) ▶ 편의시설 만족도 : 3.24(2006년) → 3.68(2010년) ○ 지역축제 참여자 만족도 ▶ 프로그램 만족도 : 3.55(2006년) → 3.64(2010년) ▶ 시설 만족도 : 3.24(2006년) → 3.36(2010년) ▶ 문화예술축제보다 역사/전통문화축제 참여자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남
	6.10.1. 문화예술 관람객 만족도		
	6.10.2. 역사문화유적지·지역 축제 방문자 만족도		
	6.11. 문화예술활동 참여자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 창작·발표 재참여 의향자 비율 ▶ 6.5%(2006년) → 3.7%(2010년) ○ 문화예술 관련 동호회 활동 만족도(2010년) ▶ 연극(4.77), 전통예술(4.53), 무용(4.42), 서양음악(4.26), 가요/연예(4.26), 문학(4.12), 미술(4.06), 역사문화유산(3.82), 영화(3.78)
	6.11.1. 문화예술 창작·발표 재참여의향		
	6.11.2. 문화예술 동호회활동 만족도		
	6.12. 삶의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복 수준(국민여가활동조사) ▶ 6.93(2007년) → 6.70(2008년) → 6.44(2010년) ▶ 여가만족도가 높을수록 행복 수준은 높아짐(2010년) ○ 여가생활만족도(국민여가활동조사) ▶ 3.16(2006년) → 3.12(2008년) → 2.82(2010년) ▶ 여가시간이 많을수록, 여가비용이 클수록 여가만족도는 높아짐(2010년) ○ 생활여건이 좋아졌다고 응답한 비율 ▶ 문화여가생활 : 21.6%(2005년) → 31.5%(2009년) ▶ 전반적 생활 : 22.2%(2006년) → 33.3%(2009년)
	6.12.1. 행복수준		
	6.12.2. 여가생활만족도		

		○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 ▶ 한국 : 6.1점(OECD 34개국 중 25위, 2010년 기준) ▶ OECD 34개국 평균 : 6.7점
--	--	--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 본 연구는 문화예술분야의 현황과 관련 주요 정책의 투입-산출-성과를 파악할 수 있는 문화예술분야 대표지표들을 중심으로 기존 통계자료들을 수집·가공하여 제시함으로써 문화예술분야의 실태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정책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음
- 또한 기존 자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수정·보완하고, 회귀분석, 분산분석 등 추리적 통계기법을 활용하여 사회경제적 변수 등과 같은 제3변수의 영향을 배제한 효과를 파악하고자 함
- 한편 통계적 가공을 거쳐 동일한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지표와 해외 주요국의 지표를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 문화예술분야의 상대적 위상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하였음
- 그러나 본 연구의 한계 또한 분명히 존재하며, 이러한 한계는 추후 지속될 대표지표 분석 연구에서 개선되어야 할 것임
- 첫째, 본 연구는 일종의 가공통계에 해당하므로, 그 분석 결과가 원자료의 신뢰성과 정확성에 크게 좌우됨
 - 엄밀한 조사설계를 통해 전국적인 대규모 설문조사로 얻어진 원자료와 달리 지방자치단체 또는 문헌조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수집된 보고통계자료의 경우 특히 신뢰성과 정확성의 담보가 곤란하다는 특성을 가짐
 -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분석 결과 역시 원자료가 가진 한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함
 - 특히 문화체육관광부 이외의 타 부서에서 생산되는 통계자료의 경우 원자료가 제공되지 않아 이미 가공된 형태의 자료를 재인용하는 방식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경우 지표의 목적에 걸맞는 자료의 가공 또는 통계분석에 제한이 됨
 - 따라서 향후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생산하는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통계품질향상 및 개선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타 부서에서 생산하는 통계자료의 원자료를 입수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임
- 둘째, 분류체계의 불명확성과 가변성임
 - 현재 생산되고 있는 문화예술 관련 통계는 통일된 분류체계에 근거하지 않고, 각각의 분류체계를 가지고 있어 이들 자료들을 통합하여 종합적인 결론을 이끌어 내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함

- 이러한 이유로 때로는 동일 지표에 대해 각 통계자료의 분석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함
- 모든 이들이 동의할 수 있는 분류체계를 일시에 만들어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과제임
- 그러나 다양한 통계자료들을 종합적으로 묶어내어 통합적으로 파악하는 데에 유용한 분류체계의 경우 일정한 시행착오 과정을 통해 상당부분 합의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본 연구에 제시된 분류체계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분석에 보다 유용한 분류체계를 고안하는 데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임

○ 셋째, 문화예술분야가 가지는 가변성과 불확정성임

- 문화예술 대표지표의 구체적인 수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는 매우 다양함
- 그러나 기존의 통계자료가 가지는 한계로 인해 이러한 다양한 제3의 변수들을 통제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단순한 수치를 통한 결과의 해석은 오류의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능한 객관적인 지표의 결과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해석은 최소화하고자 했음
- 그러나 향후에는 보다 중요한 대표지표들을 중심으로, 이들의 변화에 대해 문화예술 환경 및 기타 영향요인들을 풍부하게 고려하여 분석하고 해석해나가는 과정이 진행되어야 할 것임

○ 넷째, 성과 혹은 영향지표의 취약성임

- 이는 「문화예술통계 중장기발전 실행방안 연구」에서도 거듭 강조되고 있는 사항이지만, 문화예술분야에서 나타난 투입과 산출의 결과인 성과 및 영향지표가 충분히 개발되지 않아, 이들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존재함
- 물론 문화예술통계의 중요한 유용성은 현재 문화예술분야가 처한 현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나, 상당한 정책 자원이 문화예술분야에 투입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들 자원 투입의 성과 및 영향을 파악하고 정책과정에 환류시키는 과정은 매우 중요함
-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성과 및 영향 지표들의 타당성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함께 새로운 성과지표와 영향지표들을 개발하고 끊임없이 개선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함

○ 마지막으로 투입-산출-성파로 이어지는 인과관계 확정의 곤란성임

- 본 연구는 문화예술 대표지표들을 투입지표, 산출지표, 성과지표로 나누어 수집하고 분석했음
- 그러나 이러한 투입-산출-성파지표 사이에 어떠한 인과관계 혹은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과 해석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향후에는 이러한 투입지표-산출지표-성과지표 간의 관계(인과관계, 상관관계, 허위관계 등)를 파악할 수 있는 보다 심층적인 분석 연구가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임

[참고문헌]

- 국립국악원.(2010). 2010 국악공연 및 국립국악원 인식조사. 국립국악원.
- 문화재청.(2008). 2008 문화재청 주요업무 통계자료집. 문화재청.
- _____.(2009). 2009 문화재청 주요업무 통계자료. 문화재청.
- _____.(2010). 2010 문화재청 주요업무 통계자료. 문화재청.
- 문화체육관광부.(2006). 2005 콘텐츠 산업백서. 문화체육관광부.
- _____.(2007). 2006 콘텐츠 산업백서. 문화체육관광부.
- _____.(2008). 2007 콘텐츠 산업백서. 문화체육관광부.
- _____.(2008). 2008 등록공연장현황. 문화체육관광부.
- _____.(2009). 2008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문화체육관광부.
- _____.(2009). 2008 콘텐츠 산업백서. 문화체육관광부.
- _____.(2009). 2009 등록공연장현황. 문화체육관광부.
- _____.(2010). 2009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문화체육관광부.
- _____.(2010). 2009 콘텐츠 산업백서. 문화체육관광부.
- _____.(2010). 2010 국민 독서실태 조사. 문화체육관광부.
- _____.(2010). 2010 등록공연장현황. 문화체육관광부.
- _____.(2010). 2010 지역문화통계. 문화체육관광부.
- _____.(2011). 2010 콘텐츠 산업백서. 문화체육관광부.
- _____.(2011). 2010 콘텐츠 산업통계. 문화체육관광부.
- _____.(2011). 2011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예술경영지원센터.(2010). 2008 미술시장 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예술경영지원센터.
- _____.(2010). 2009 문예회관 운영현황 조사. 문화체육관광부·예술경영지원센터.
- _____.(2011). 2009 미술시장 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예술경영지원센터.
-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2008). 2007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
- _____.(2009). 2008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
-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3). 2003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
- _____.(2004). 2003 문화향수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_____.(2006). 2006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
- _____.(2006). 2006 문화향수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
- _____.(2007). 2006년 여가백서.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 _____.(2007). 2007 국민여가활동조사.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
- _____.(2008). 2008 국민여가활동조사.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
- _____.(2008). 2008 문화향수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
- _____.(2009). 2009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
- _____.(2010). 2009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
- _____.(2010). 2010 문화향수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
- _____.(2011). 2010 국민여가활동조사.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영화진흥위원회.(2010). 2010년 한국 영화산업 결산. 영화진흥위원회.
- 예술경영지원센터.(2010). 2010 공연예술 국제교류 활동현황(2009년 기준). 예술경영지원센터.
- 통계청.(2005). 2004 생활시간조사. 통계청.
- _____.(2005). 2005 사회조사보고서. 통계청.
- _____.(2006). 2005 가계동향조사. 통계청.
- _____.(2007). 2006 가계동향조사. 통계청.
- _____.(2007). 2007 광업제조업조사. 통계청.
- _____.(2007). 2007 도소매업조사. 통계청.
- _____.(2007). 2007 사회조사보고서. 통계청.
- _____.(2007). 2007 서비스업조사. 통계청.
- _____.(2007). 2007 소비자물가지수. 통계청.
- _____.(2007). 2007 전국사업체조사. 통계청.

- _____.(2007). 2007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조사. 통계청.
- _____.(2008). 2007 가계동향조사. 통계청.
- _____.(2008). 2008 광업제조업조사. 통계청.
- _____.(2008). 2008 도소매업조사. 통계청.
- _____.(2008). 2008 서비스업조사. 통계청.
- _____.(2008). 2008 소비자물가지수. 통계청.
- _____.(2008). 2008 전국사업체조사. 통계청.
- _____.(2008). 2008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조사. 통계청.
- _____.(2009). 2008 가계동향조사. 통계청.
- _____.(2009). 2009 광업제조업조사. 통계청.
- _____.(2009). 2009 도소매업조사. 통계청.
- _____.(2009). 2009 사회조사보고서. 통계청.
- _____.(2009). 2009 서비스업조사. 통계청.
- _____.(2009). 2009 소비자물가지수. 통계청.
- _____.(2009). 2009 전국사업체조사. 통계청.
- _____.(2009). 2009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조사. 통계청.
- _____.(2010). 2009 가계동향조사. 통계청.
- _____.(2010). 2009 생활시간조사. 통계청.
- _____.(2010). 2010 소비자물가지수. 통계청.
- _____.(2010). 2010 지역별고용조사. 통계청.
- 인터파크 티켓(2010). 2010 인터파크공연결산. 인터파크 티켓.
- 한국고용정보원.(2009). 산업·직업별 고용구조 조사. 한국고용정보원.
- 한국기업메세나협의회.(2007). 2006 한국기업메세나협의회 연차보고서. 한국기업메세나협의회.
- _____.(2008). 2007 한국기업메세나협의회 연차보고서. 한국기업메세나협의회.
- _____.(2009). 2008 한국기업메세나협의회 연차보고서. 한국기업메세나협의회.
- _____.(2010). 2009 한국기업메세나협의회 연차보고서. 한국기업메세나협의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06). 2006 문예연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_____.(2007). 2007 문예연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_____.(2007). 2008 문예연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_____.(2009). 2009 문예연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_____.(2011). 2010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 성과평가 연구. 한국문화예
술위원회.

행정안전부.(2009). 2008 한국도시연감. 행정안전부.

_____.(2010). 2009 한국도시통계. 행정안전부.

DBS.(2007). 2006 German Library Statistics. DBS.

_____.(2008). 2007 German Library Statistics. DBS.

_____.(2009). 2008 German Library Statistics. DBS.

_____.(2010). 2009 German Library Statistics. DBS.

DCMS.(2011). Museum and Gallery Monthly Visit Figure Totals 2004/5 to 2010/11.
DCMS.

Eurostat.(2011). Cultural statistics : Pocket Book. Eurostat.

IMLS.(2008). 2006 Public Libraries Survey. IMLS.

_____.(2009). 2007 Public Libraries Survey. IMLS.

_____.(2010). 2008 Public Libraries Survey. IMLS.

_____.(2011). 2009 Public Libraries Survey. IMLS.

NEA.(2009). 2008 Survey of Public Participation in the art. NEA.

_____.(2011). Artists and Arts Workers in the United States. NEA.

OECD.(2011). Your Better life index-Original Data. OECD.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2009). The 2009 UNESCO Framework for cultural
statistics. UNESCO-UIS.

<웹 페이지>

문화재청 홈페이지 <http://www.cha.go.kr/>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http://www.mcst.go.kr/>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kostat.go.kr/>

해외문화홍보원 홈페이지 <http://www.kocis.go.kr/>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http://cesi.kedi.re.kr/>

국가도서관 통계시스템 www.libsta.go.kr/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http://www.mcst.go.kr/>

문화체육관광 통계포털
<http://culturestat.mcst.go.kr/StatisticsPortal/McstPortal/index.jsp>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kostat.go.kr/>

한국문화의집협회 홈페이지 <http://www.cultureclub.or.kr/>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pas.go.kr/>

일본 문부과학성 사회교육조사

http://www.mext.go.jp/b_menu/toukei/chousa02/shakai/index.htm

영국 LAMPOST <http://lboro.ac.uk/departments/ls/lisu/lampost.html>

프랑스 문화부 <http://www.culture.gouv.fr>

EGMUS <http://egmus.eu/>

EU 통계국 <http://epp.eurostat.ec.europa.eu/portal/page/portal/eurostat/home>

UNESCO-UIS 영화 통계(Cinema Statistics)

<http://www.uis.unesco.org/Culture/Pages/movie-statistics.aspx>

[부록]

1. 문화향수실태조사 모수추정 관련

1) 분석자료

- 본 연구는 2003, 2006, 2008, 2010년에 걸쳐 수집된 문화향수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함
- 문화향수 실태조사는 15세 이상의 전국민을 대상으로 16개 시도에서 다단계층화무작위 표집법을 이용하여 표본을 추출함
 - 2010년의 경우에는 표본설계시 단순인구비례방식이 아닌 제공근 방식을 이용하여 표본을 추출을 하였고 2008년과 그 이전 조사에서는 제주도는 표본추출 대상에서 제외하고 추출을 함
- 본 연구에서는 모집단의 문화향수 실태를 추정하기 위해 2010년은 16개 시도를 모두 고려하였고 그 이전은 15개 시도를 주민을 모집단 대상으로 간주함
- 모집단의 기준이 되는 15세 이상의 국민의 수는 통계청의 실태조사 전년도의 “전국주민등록인구통계”를 이용함

2) 분석방법

- 일반적인 통계분석에서 사용되는 모비율이나 모평균, 그리고 이들의 표준오차(standard error)등은 무한모집단에서 추출된 표본임을 가정함
-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료는 유한모집단에서 다단계층화추출법을 통해 얻어진 것이므로 유한모집단조정(finite-population correction)이 필요함
- 유한모집단조정을 한 후 추정된 모비율이나 모평균의 표준오차를 구하면 좀 더 정확한 값을 얻을 수 있게 됨
- 문화향수 실태조사 자료는 시도, 성, 연령에 따른 가중치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다단계층화추출법의 모수 추정방법을 엄밀하게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 하지만 가장 중요한 시도 기준에 따른 16개의 층(strata)의 정보는 통계청의 자료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으므로 이 층의 정보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공식을 이용하여 모비율을 추정함

$$\text{모비율 추정식} : \hat{p} = \frac{1}{N} \sum_{i=1}^k N_i \hat{p}_i ,$$

단 i 는 층, \hat{p}_i 는 i 층의 모비율 추정량, N 은 전체 모집단의 수, N_i 는 i 층의 모집단 수

○ 이 추정된 모비율의 분산은 아래와 같음

$$\text{추정된 모비율의 분산: } \widehat{Var}(\hat{p}) = \frac{1}{N^2} \sum_{i=1}^k N_i(N_i - n_i) \frac{\hat{p}_i(1 - \hat{p}_i)}{n_i - 1},$$

단 n_i 는 i 층에서 추출된 표본 수

○ 또한 추정된 모비율의 95% 신뢰구간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음

$$\text{모비율의 95\% 신뢰구간: } \hat{p} \pm \frac{1.96}{N} \sqrt{\sum_{i=1}^k N_i(N_i - n_i) \frac{\hat{p}_i(1 - \hat{p}_i)}{n_i - 1}}$$

- 이렇게 추정된 모비율을 이용하여 문화향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모수를 추정할 수 있음
- 전체 모집단의 수를 N 이라고 할 때 해당 문화활동의 경험을 가진 사람의 수는 다음과 같이 추정됨

$$\text{모집단의 문화활동 경험자의 수} = \hat{p} * N$$

- 각 년도의 문화향수 실태조사의 표본추출 방식은 약간씩 달라져왔고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2010년 이전에는 모집단에 포함되지 않고 않았음
- 이것이 실제 모비율 추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으나 거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음
- 또한 표본추출의 방식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한 무한모집단 가정을 바탕으로 모비율을 추정한 결과와 층화추출을 고려한 모비율 추정결과는 차이가 나지 않았고 표준오차에 서도 미미한 차이만이 나타났음
- 따라서 이하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비율 추정치는 상당히 안정적(robust) 추정치라고 할 수 있음

[표] 문화향수실태조사를 활용한 주요 지표의 추정값(2003-2008년)

변수	연도	응답자수	추정된모 비율	표준오차	95%LCL	95% UCL	추정된 모수
CD 경험	2003		
	2006	3000	0.48	0.01	0.47	0.50	19,129,773
	2008	4000	0.39	0.01	0.38	0.41	15,787,211
	2010	5000	0.25	0.01	0.24	0.26	10,422,564
PMP 경험	2003		
	2006		
	2008		
	2010	5000	0.36	0.01	0.35	0.37	15,015,136
TV 경험	2003		
	2006	3000	0.92	0.00	0.91	0.93	36,375,541
	2008	4000	0.90	0.00	0.89	0.91	35,993,641
	2010	5000	0.94	0.00	0.94	0.95	39,223,720
동호회 참여	2003	2000	0.02	0.00	0.01	0.02	576,976
	2006	3000	0.03	0.00	0.03	0.04	1,317,464
	2008	4000	0.03	0.00	0.02	0.03	1,159,795
	2010	5000	0.03	0.00	0.03	0.04	1,436,736
역사문화유적지 방문경험	2003	2000	0.49	0.01	0.47	0.51	18,867,102
	2006	3000	0.51	0.01	0.50	0.53	20,328,665
	2008	4000	0.52	0.01	0.50	0.53	20,606,359
	2010	5000	0.48	0.01	0.47	0.50	20,022,949
예술교육참여	2003		
	2006	3000	0.08	0.00	0.07	0.09	3,056,535
	2008	4000	0.09	0.00	0.08	0.09	3,429,394
	2010	5000	0.10	0.00	0.10	0.11	4,326,817
예술창작경험	2003		
	2006	3000	0.03	0.00	0.02	0.03	1,093,519
	2008	4000	0.02	0.00	0.02	0.03	969,829
	2010	5000	0.03	0.00	0.02	0.03	1,038,104
예술행사 관람	2003	2000	0.62	0.01	0.60	0.64	23,982,952
	2006	3000	0.66	0.01	0.64	0.67	25,993,844
	2008	4000	0.67	0.01	0.66	0.69	26,925,243
	2010	5000	0.65	0.01	0.64	0.66	26,974,093
인터넷 접속경험	2003	2000	0.45	0.01	0.43	0.47	17,424,663
	2006	3000	0.45	0.01	0.43	0.46	17,588,325
	2008	4000	0.43	0.01	0.42	0.45	17,236,955
	2010	5000	0.47	0.01	0.45	0.48	19,308,733
자원봉사경험	2003	2000	0.07	0.01	0.05	0.08	2,500,228
	2006	3000	0.04	0.00	0.03	0.04	1,383,351
	2008	4000	0.06	0.00	0.05	0.07	2,479,562
	2010	5000	0.07	0.00	0.07	0.08	3,097,702
지역축제 참여경험	2003	2000	0.40	0.01	0.38	0.42	15,520,644
	2006	3000	0.43	0.01	0.41	0.45	16,995,460
	2008	4000	0.49	0.01	0.47	0.50	19,466,561
	2010	5000	0.55	0.01	0.54	0.57	23,037,603

2011 문화예술 대표지표 분석 연구 연구진

2011 문화예술 대표지표 분석 연구

발 행 인 | 최 광 식

발 행 처 |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34

전화 02-3704-9403 팩스 02-3704-9429

<http://www.mcst.go.kr>

작성기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인 쇄 일 | 2011년 12월

발 행 일 | 2011년 12월

인 쇄 처 | 크리홍보(주)
